江原口碑文學全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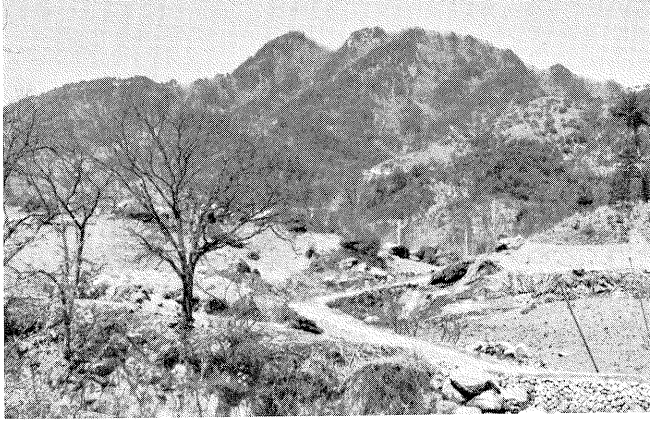
1

洪川郡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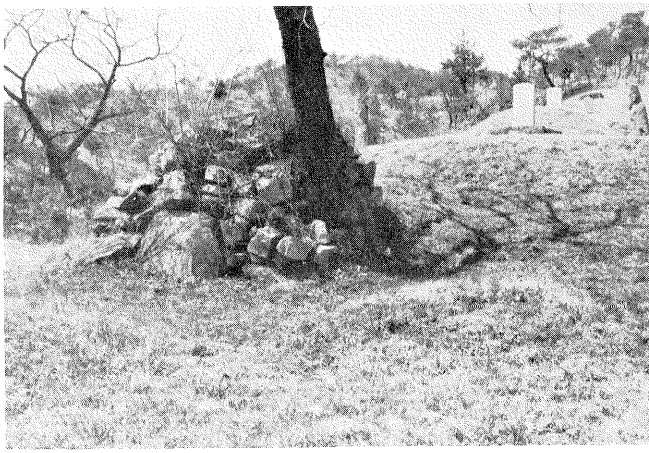
翰林大學校 人文大學
國語國文學科 編

翰林大學校 出版部

전설의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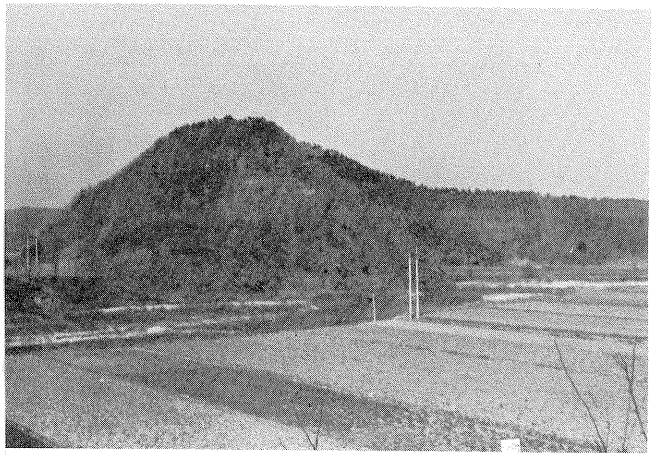
□乃村面 道覓里의 배우산〔白羽山〕
□이 산에 홍수전설·아기장수전설·
장자못 전설이 동시에 전승되고 있다.
□본문 : pp. 32~33. pp. 130~133.
□1989. 4. 11.



□배우산 기슭의 장군석
□부자집 며느리가 바위를 깨었더니
한 쌍의 학이 날아갔다. 그후
아기장수를 낳고 몰락하자, 깨진 바위
조각들을 이처럼 다시 모아 놓았다.
□본문 : pp. 130~133.
□1989. 4. 11.

□도관리의 말거리沼
□아기장수가 죽자 용마가 나타나
이 말거리소에 빠져 죽었다.
바위 위에 말발자국이 있다.
□본문 : pp. 130~133.
□1989. 4. 11.

□洪川邑 檢律里에 있는
李适이沼
□이괄의 실수로 그의 첩이
여기에 빠져 죽었다.
□본문 : pp. 116~118.
□1989. 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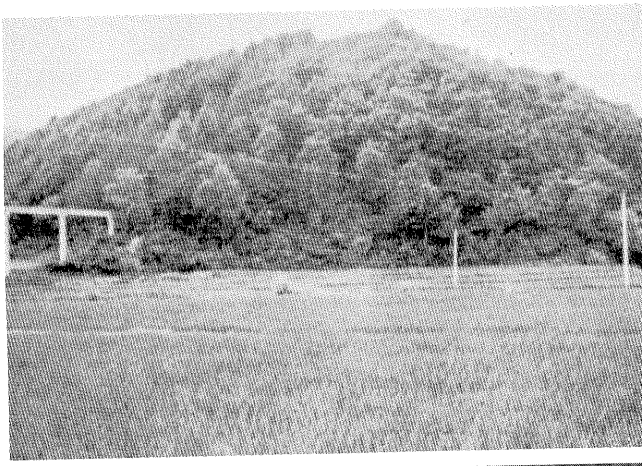


□이괄바위 건너편에 있는 이괄장독
이괄이 이괄바위에서 한 걸음에
건너가 장을 펴왔다.
□본문 : pp. 116~118.
□1989. 4. 11.

□檢律里 五星山에 있는
이괄바위
□이괄이 이 바위 위에서
자기 첩을 떨어뜨리고
뛰어내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두손으로
받아올렸다.
□본문 : pp. 116~118.
□1989. 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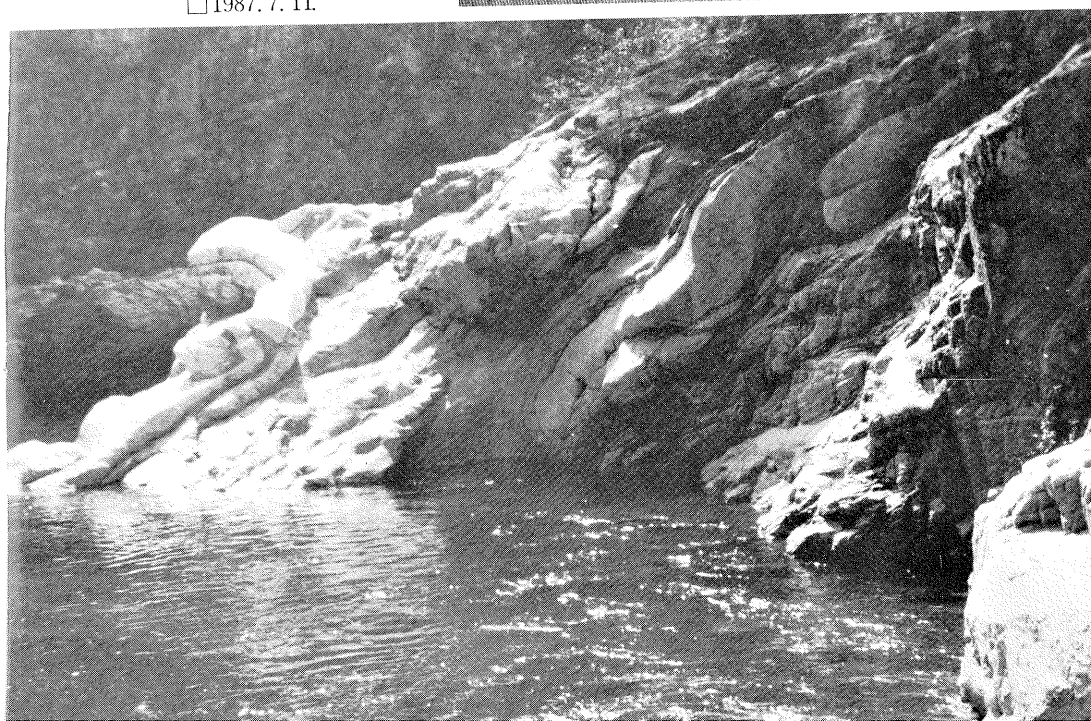
현장

□化村面 君業里의 화냥바위
□이 바위를 건드리면 동네
여자들이 바람이 난다.
□p. 73.
□1988. 6. 23.



□洪川邑 瓦東里의 아기장수 집터
□아기장수를 죽인 후 염병이
돌아 그집을 불살랐다.
□pp. 123~126.
□1987. 7. 11.

□西面 八峰里의 龍沼
□이 속에 살던 용이 사람과
힘내기 시합을 했다.
□pp. 69~70.
□1987. 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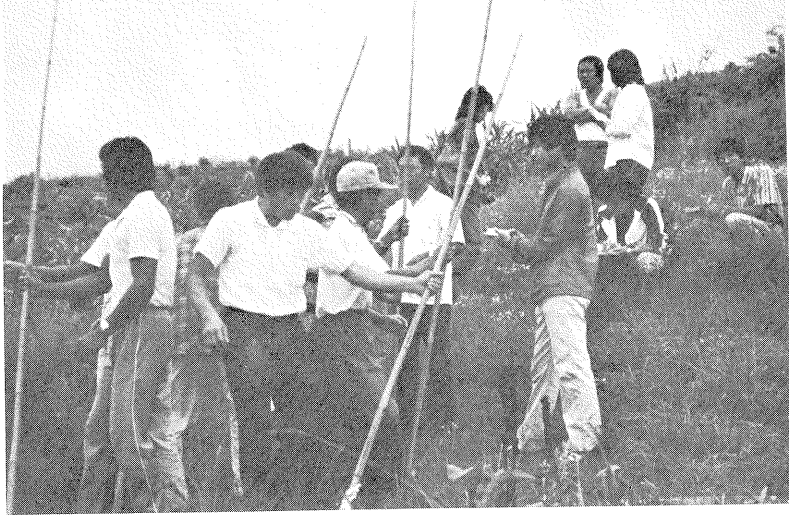


□斗村面 哲亭2里 개울가에서
□며느리고개 전설을 구연하는
박창달씨(오른쪽에서
세번째)
이 분은 이 자리에서
무쇠말재의 홍수설화도
구연했다.
□pp. 33~34, p. 37.
□1987. 7. 11.

□洪川邑 瓦東1里 길가에서
□아기장수 전설을 구연하는
박민경씨(왼쪽)
이 분은 이 자리에서 공작
산의 홍수설화도 구연했다.
□pp. 31~32,
pp. 123~126.
□1987. 7. 11.

□西面 牟谷2里 마을집에서
□남궁수 할아버지가 창부타
령을 구연하고 있다.
□pp. 501.
□1987. 7. 8.

현장



□瑞石面 豊岩1里 공동묘지에서
□송경태외 여섯사람이 조사단의 요청에 따라 회다지 소리의 시범을 보여주고 있다.
□pp. 402~410.
□1986. 7. 22.

□內面 廣院里 밭에서
□안소와 마랏소로 밭을 갈며 소모는 소리를 하고 있다.
□1988. 6. 24.

□內面 蒼村里 거리에서
□진상목의 선소리로 상여소리를 하고 있다. 조사활동 중에 장례행렬을 만났다.
□1988. 6.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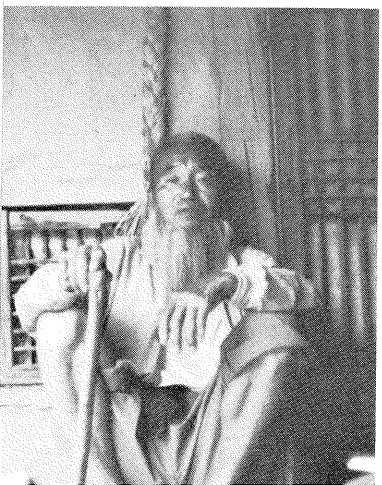
구연자들 : 설화

⇦
□강신표, 化村面 也是2里
□「서낭을 베어다 집을 지은 머슴」,「서낭귀신을 꺾은 황고집」등
□1987. 2. 11.

⇨
□엄익성, 斗村面 哲亭 2 里
□「손님 끓으려다 망한 부자」「그림자 없는 사람과 지관」등.
□1987. 7. 11.

⇦
□전석일, 北方面 城東 2 里
□「금시발복하는 묘자리」「사후 삼정승 나는 묘자리」등
□1987. 7.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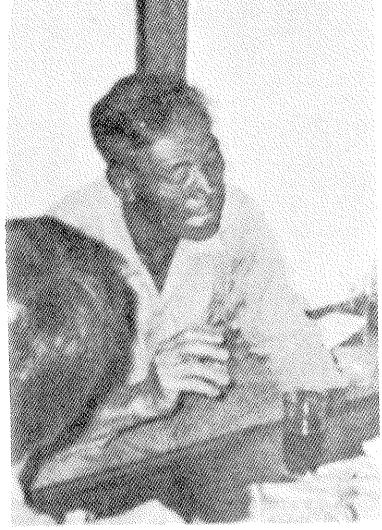
⇨
□이순옥(오른쪽), 東面 東草 2 里,
□「해와 달이 된 오누이」「선녀와 결혼한 나뭇군」등
□1987. 2. 12.



⇦
□조해만, 化村面 君業 2 里
□「건드리면 동네 여자들 바람나는 바위」
□1988. 6. 23.

⇨
□김동선, 乃村面 道寬里
□「부모에게 살해된 아기 장수」,「천지를 개벽시킨 홍수」
□1987. 7. 10.

구연자들 : 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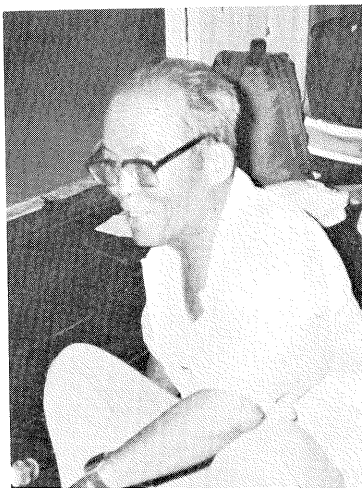
⇦
□홍현택, 斗村面 長南里
□「아라리」
□1986. 7. 22.

⇨
□최인준, 洪川邑 長田坪里
□「멧목노래」
「고기잡이노래」
□1987. 7.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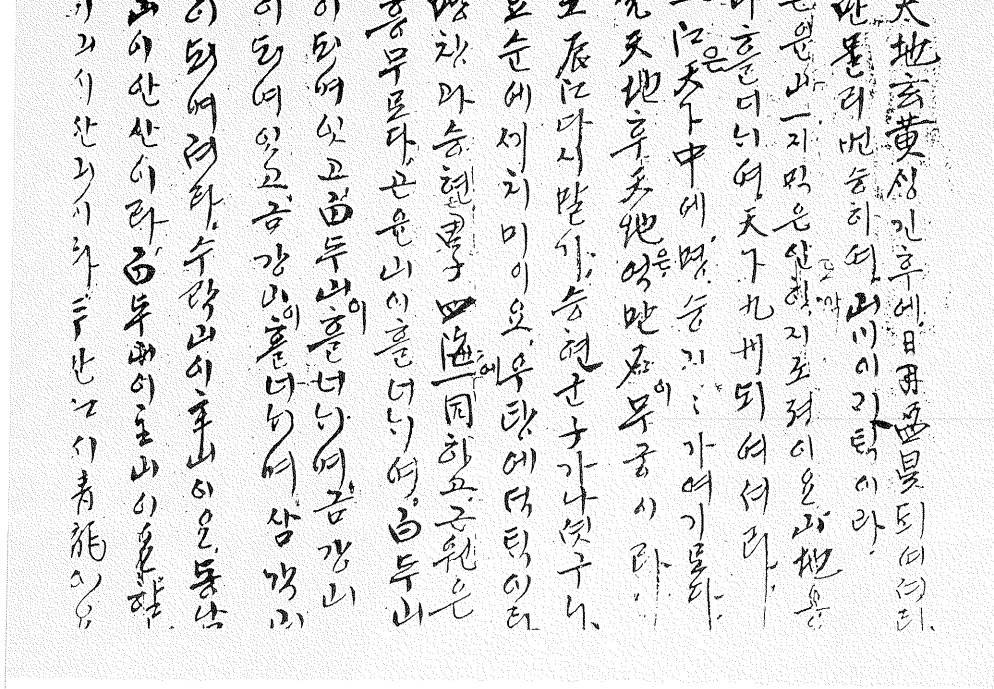
⇦
□장순선, 北方面 下花溪里
□「담바구타령」
□1987. 7. 9.

⇨
□윤을순, 東面 三峴里
□「물레노래」,「뽕따는 노래」
□1988. 6. 23.

⇦
□박기선, 東面 魯川 1 里
□「아라리」
□1987. 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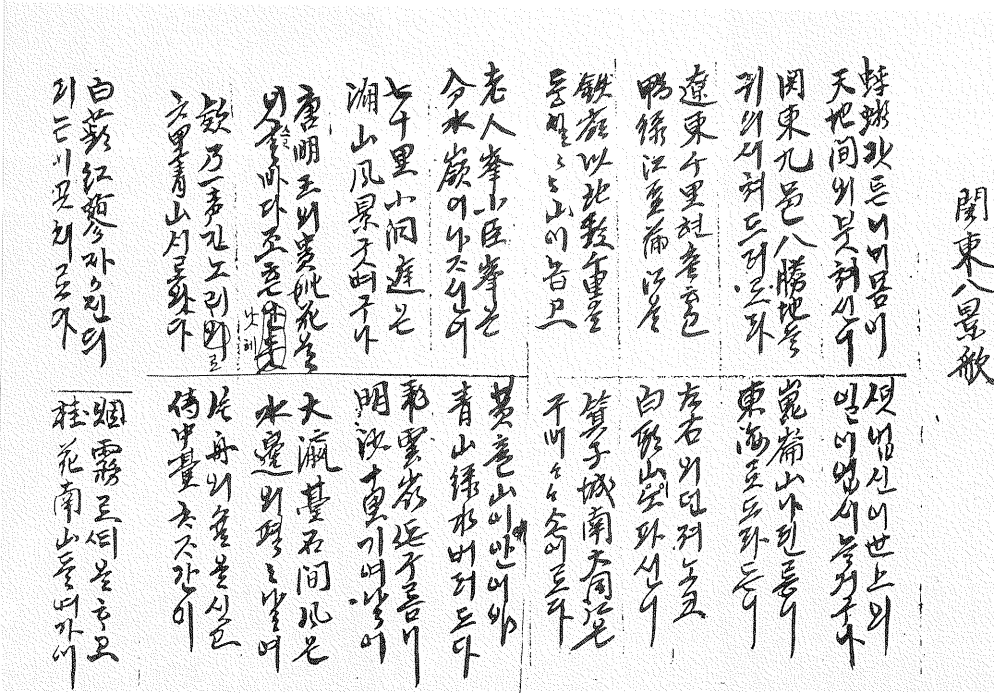
⇨
□반철균, 北方面 九龍里
□「아라리」,「「목동가」
「베틀노래」
□1987. 7.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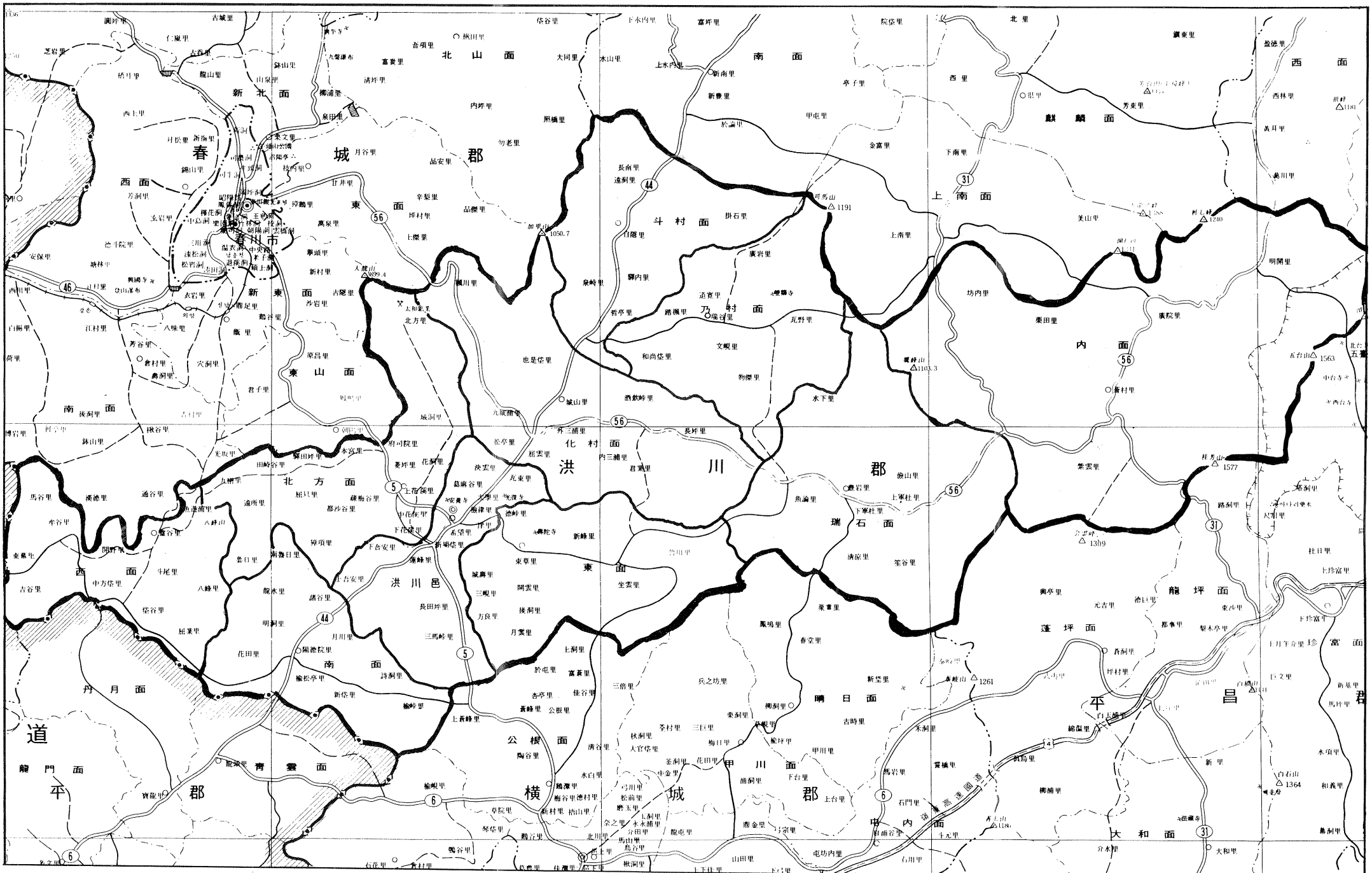
□ 회다지소리. 斗村面 長南1里 홍완기 소장, pp.397~399.

문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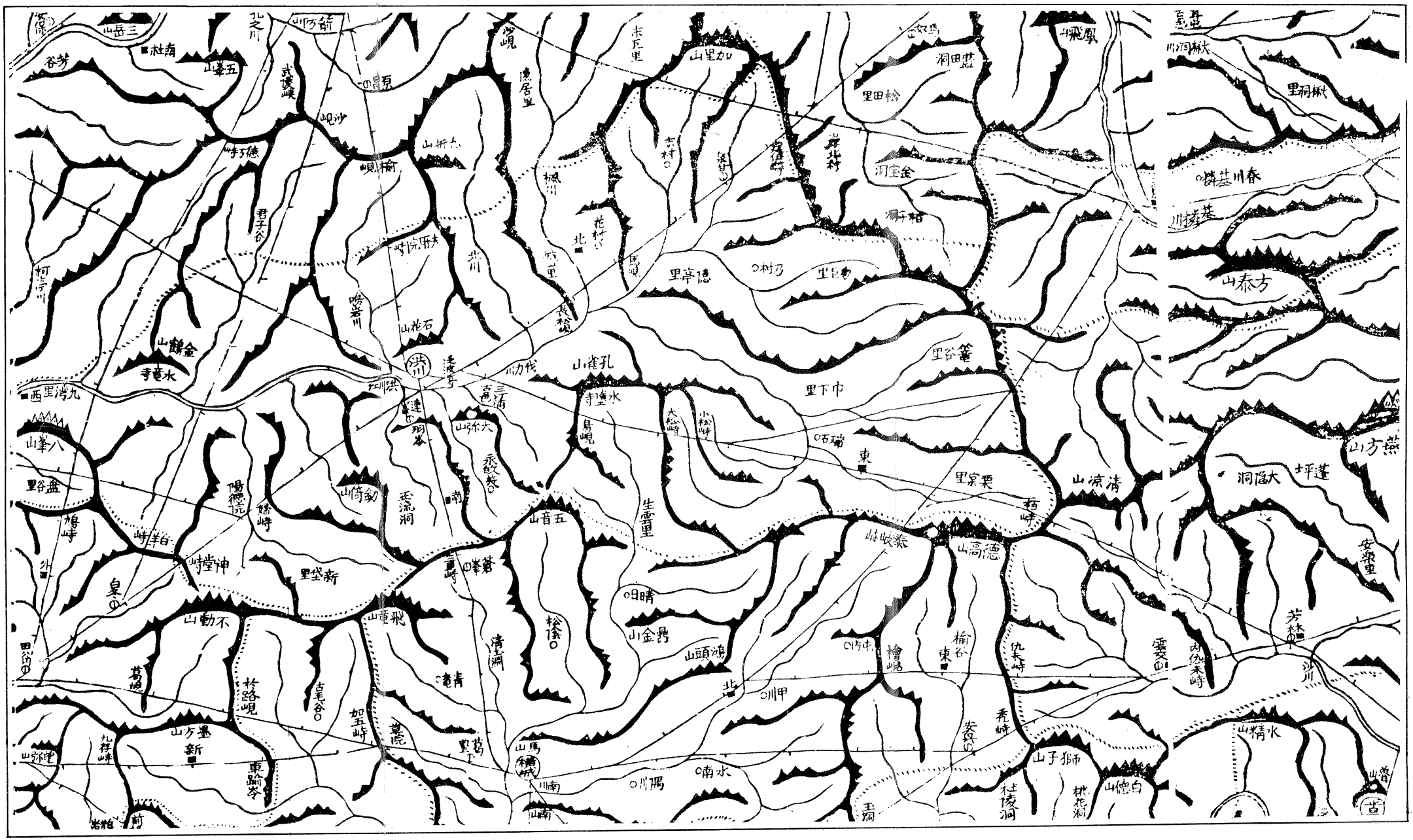
□ 관동팔경가. 乃村面 道覽3里 박관석 소장, pp.578~582.



○홍천군 전도


春川市
洪川郡
橫城郡
平昌郡
北山面
新北面
西面
東面
新東面
東山面
南面
北方面
洪川邑
東面
南面
西面
丹月面
公根面
青雲面
龍門面
南面
斗村面
乃村面
化村面
瑞石面
內面
上南面
麒麟面
西面
晴日面
甲川面
內面
龍坪面
蓬坪面
大和面
珍富面

○大東輿地圖 / 洪川부분



江原口碑文學全集

[1]

洪川郡篇

序　　文

1982年 3月에 開校한 翰林大學에 國語國文學科가 開設된 것은 1985年 3月의 일이었으며 新入生은 46名이었다. 江原道에서 開學한 우리 國語國文學科가 이 나라의 正統的 國語學·國文學을 現代的, 科學的 立場에서 硏究하여 그 學的 水準을 드높이는 데 貢獻할 뿐 아니라, 國語國文學을 공부하는 學生들이 民族의 참된 傳統과 歷史的 使命을 크게 깨달아 民族과 國家를 위하여 그들의 精誠을 다하는 人材로 成長토록 하는 데에 敎育의 主眼點을 두었음은 勿論이다. 그러한 一面에 地方에 位置하고 있는 大學으로서 이 地域社會 發展과 文化 暢達에 대한 責任과 使命에도 視野를 擴大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그 첫 事業으로 선택한 것이 이 地域에 豊盛하게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充分한 정리와 照明을 받지 못하고 있는 口碑文學의 蒐集 整理와 體系化였다.

大略 江原道를 그 自然的 與件에 비추어 크게 嶺東과 嶺西로 나누기도 하지만, 다시 都市, 農村, 漁村의 形成과 人口의 分布, 그에 따른 行政區劃, 山岳과 海岸과 平野 등 地理的, 風土的 여러 條件을 감안하여 나누어 보면, 지금은 北韓地域으로 되어 있는 一部를 合해서 大體로 21개 地域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地域은 口碑文學의 寶庫라 할 만큼 豊富하면서도 매우 新鮮한 資料들을 엄청나게 간직하고 있다. 지난 날 交通이 그리 쉽지 않았었다는 點이 오히려 이 地域의 口碑文學을 그만큼 더 原色을 잃지 않게 하고, 오늘의 우리들 눈에는 더 新鮮해 보이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事業의 시작은 學科 敎授들의 신중한 검토 끝에 첫 入學生이 1學年 課程을 마친 86年 1月 겨울 放學 때 豫備踏査를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3日間의 日程으로 助敎 1명과 1學年 學生 6명이 洪川郡 內面에 다녀왔다. 地理的으로 보아 春川에서 가까운 洪川地域부터 着手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 豫備踏査를 基礎로 하여 本格的인 調査가 3年 동안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1次와 2次는 끝났을 때마다 報告書를 作成, 刊行했었다. 調査地域, 經緯가 言及되었고, 蒐集된 資料가 文字로 整理되어 收錄되었었다. 이번에 刊行하는 이 冊은 1·2次 報告書 內容에 3次의 것이 한데 合쳐지고 다시 整理되어, 「江原口碑文學全集」 1. 洪川郡篇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된 것으로, 그 사이 3個年에 걸친 調査 結果를 한 冊으로 엮은 것이 된다.

이 調査는 講義室에서는 이룰 수 없는 實際 活動을 통해 學生들로 하여금 言語와 文學 내지 文化에 직접 뛰어들어 呼吸을 함께 하면서 그들 實相을 파악 터득하게 하는 데에 훌륭한 效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의 長點과 短點이 있었음도 事實이다. 長點으로는 앞에서 말한 것 외에도 地方의 生活相과 人情을 再發見, 再認識하여 都市와 地方의 一體感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敎授와 學生이 宿食과 苦樂을 함께 나누며 活動하는 데에서 보다 眞率한 人間的 密着이 이루어졌으며, 젊은 學生들의 現實 認識과 學的 探求에 대한 意慾을 高揚시킬 수 있었다는 일들이다. 短點으로는 學生들의 訓練이 덜된 데 따른 蒐集方法과 整理의 未熟, 時期的으로 한창 더운 여름 放學을 利用해야만 했던 어려움,

經費의 不足과 그에 따른 日數의 制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敎授·學生은 이러한 어려움을 의연히 克服하며 훌륭한 成果를 거두었다. 한편, 이 事業의 趣旨와 價値를 理解하시고 調査 活動에만 아니라 出版에까지도 物心 兩面으로 後援을 아끼지 않으신 學校 當局에 대하여 衷心으로 感謝를 드리며, 出版의 實務를 맡아 勞苦가 많으셨던 大學出版部에 대하여도 謝意를 表한다. 한편 지금 學校가 매우 어려운 事情에 處해 있는데도 出版의 責任을 지고 애쓰신 全信宰 敎授, 그리고 錄音의 再生, 整理, 文字化, 校正에 이르기까지 수고한 학생들과 助敎들의 精誠에 대하여 두터운 敬意와 慰勞의 말씀을 드린다.

이 全集은 學科의 지속적 사업으로 계속 發刊될 것임을 附言하며, 이 事業에 기꺼이 協調해 주신 洪川郡內 여러분, 그리고 도움을 주신 周圍의 모든 분들에게 거듭 感謝를 드린다.

1989年 4月 25日

國語國文學科 敎授

李　明　九

凡　例

1. 口演者의 발음 그대로 採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 說話는 대체적으로 神話的 성격의 說話, 傳說, 民譚의 順으로 배열하였다.
3. 民謠는 勞動謠, 儀式謠, 非機能謠의 順으로 배열하였다.
4. 같은 類型의 설화 및 같은 종류의 민요는 체록지가 서쪽지역인 것에서 동쪽지역인 것의 順으로 배열하였다.
5. 숫자에 네모 두른 것(〈에〉, [1])은 口演판의 번호이고, 네모 두르지 않은 것(〈에〉, 1)은 작품 번호이다.
6. T 다음의 숫자는 테이프 번호이다.
7. 부록에 대한 범례는 뒤에 따로 제시하였다.

目　　次

畵　　報…1
洪川郡全圖…9
序　　文 / 李　明　九…13
凡　　例…16

槪　　觀

洪川郡 槪觀…25
調査 槪觀…27

說　　話

천지를 개벽시킨 홍수…31·31·32·32
홍수와 남매간의 결혼…33
홍수와 모자간의 결혼…35
고개 위에서 사라진 며느리…35
고개 위에서 사라진 신부…36
시아버지와 며느리…37
은혜 갚은 노루와 구렁이…38
남편을 따라 죽어 산신이 된 할머니…41
성이 다른 세 여신…44
부적을 써 침을 없앤 권대감…45
산삼자리를 가르쳐 주는 산신령…46·47
산삼 캐고 제를 안 올려 죽은 사람…48
서낭을 베어다 집을 지은 머슴…49
서낭 귀신을 꺾은 황고집…50
손님 끊으려다 망한 부자…53·54·55·56·58·59
중을 박대하고 망한 부자…60·61
소를 잡아먹는 메기…62

소를 잡아먹는 이무기…62·63·64
용이 들어가 부자가 된 머슴…65
용이 나가서 망한 부자 마을…68
용과 사람의 힘내기 시합…69
두 장사의 힘내기 시합…70
목탁소리에 바람나는 동네 처녀들…71
건드리면 동네 여자들 바람나는 바위…73
아들 낳는 바위…74
중이 나무를 베자 죽어가는 노인들…75
들판에 묻힌 금 항아리…76
묘를 잘 쓰고 천자가 된 머슴…77·79·80
사후 삼정승 나는 묘자리…83
묘를 잘 쓰고 승지가 된 사람…87
묘를 잘 쓰고 정승이 된 사람…89
금시발복하는 묘자리…91
가문의 성쇠와 묘자리…94
고집부리다 명당자리 놓친 상주…97
묘자리 욕심 부리다 망한 부자…97
묘자리 잘못 잡아 준 지관…100
그림자 없는 사람과 지관…101
서울에 불려간 시골 지관…104
묘를 잘 못 쓴 이괄…109·110·112·113
팔봉산 신령을 누른 이괄…114
이괄 집안의 혈을 자르다…115
동작이 날래나 실수한 이괄…116
부모에게 살해된 아기장수…118·121·123·126·127·127·128·129·130·133·135
어깨를 지져 우둔해진 장사…137
바위 속으로 들어간 장수…141
임금 되는 꿈을 꾸어 준 소금장수…142
임금과 촌로의 약속…144
서곡대사의 신통력…147
서산대사의 신통력…149

조선을 침략하려다 망신한 왜장…150
이여송을 기죽인 서애 선생…154
부모 위해 자식을 끓인 효자…157
부모 위해 자식을 파묻은 효자…158
노모에게 해골물을 먹인 효자…159
시어머니에게 지렁이를 먹인 며느리…161
어머니를 위해 놓은 다리…162
마음이 약해 효자 못된 아들…163
젯상 앞에서 동침하는 부부…165
대신 지내준 제사…168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서…169
구렁이를 물리친 여인…176
잃어버린 아내를 찾아서…179·188
여우로 둔갑하는 딸…193
할머니로 둔갑하는 여우…196
신부로 둔갑한 여우…197
신랑으로 둔갑한 쥐…197
호랑이로 둔갑한 남편…201
주인을 구하고 죽은 개…202
팥망아지 같은 아기…203
참새 덕에 장가간 총각…205
문둥이 처녀의 사랑과 구렁이술…206
지혜로 누명 벗은 처녀…213
선녀와 결혼한 나뭇군…217
말괄량이를 첫날밤에 길들인 바보신랑…221
송장으로 아내를 다스린 남편…222
양반집을 일으킨 백정의 딸…228
아내보다도 어리석은 남편…232
꼬마 신랑의 꾀…234
젹자는 버리고 서자를 선택한 기생…234
도깨비보다도 무서운 벼슬…237
하인보다도 어리석은 상전…239
해와 달이 된 오누이…248·252

혹 떼려다 혹 붙인 영감…254
복 받으려다 벌 받은 과부…255
눈치가 비상한 사람…257
엉뚱한 짓으로 도둑 잡은 바보…259
옛날이야기의 위력…263
맹인들의 겁치기 시합…264
죽은 시늉으로 남의 빚을 떼어먹은 사람…267
대추를 독점하여 부자가 된 사람…268
남의 점을 쳐 주고 부자가 된 머슴…272
잠이 들어 낙방한 사람…277
여인의 도움으로 장원급제한 사람…278
두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머슴…286
장자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바보…294

民　　謠

소 모는 소리…303
김 매기 노래…315
목도소리…329
우 러 리…332
도리깨질 노래…334
자리개질 노래…335
목 동 가…335
나무꾼 노래…337
뗏목 노래…338
뱃 노 래…339
고기잡이 노래…340
베틀 노래…341
물레 노래…351
다듬이 노래…351
삼 삼는 노래…352
기직 짜는 노래…353
방아타령…353

뽕 따는 노래…354
나물캐기…355
성주풀이…357
달구질 소리…358
안 택 경…359
고 사 반…359
상여 소리…369
회다지 소리…373
그네 노래…412
아 라 리…415
어랑타령…486
창부타령…499
노랫가락…512
시집살이 노래…516
자 장 가…527
풍 년 가…528
권 주 가…531
각설이타령…533
언문뒷풀이…541
춘 향 가…544
심 청 가…545
담바구타령…548
범벅타령…554
도라지타령…558
개 타 령…560
주머니타령…560
바지타령…561
방구타령…562
돈 타 령…562
화투뒷풀이…563
옥 단 춘…563
달공달공…564
들병이 노래…565

한 양 가…566
오 륜 가…567
부자유친…568
월 령 가…569
백 발 가…571
관동팔경가…578
초 한 가…583

解　　說

洪川地域의 說話와 民謠 / 全信宰…589

附　　錄

說話 모티프 索引…605
아라리 歌詞 索引
　　第1行…616
　　第2行…623

概　　觀

洪川郡 概觀

調査 概觀

洪川郡 概觀

지금의 洪川郡이 高句麗 때에는 伐力川縣이었다. 그후 이곳이 新羅의 땅이 되면서 伐力川停으로 바뀌었고 757년(景德王 16년)에는 綠驍라고 고치고 朔州(지금의 春川)를 領縣으로 하였다. 그러던 것이 高麗時代에 와서 940년(太祖 23년)에 비로소 洪川으로 불리게 되었다. 1018년(顯宗 9년)에는 그대로 春川에 속하게 하였고 1143년(仁宗 21년)에 監務를 설치하였다. 朝鮮時代에 들어와서 1413년(太宗 13년)에 縣監이 설치되었고 1895년에 전국의 8道를 23府로 개편할 때 春川府 洪川郡이 되었다가 다음해 8월에 23府制가 13道制로 다시 개편되면서 江原道 洪川郡이 되어 현재에 이른다. 洪川은 또한 花山이라는 別號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알 수 없다.

지금의 洪川郡은 洪川邑, 西面, 北方面, 南面, 化村面, 東面, 斗村面, 乃村面, 瑞石面, 內面의 1邑 9面, 5出張所, 105개 法定里, 182개 行政里, 863개 班, 622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洪川郡의 위치는 동쪽 끝이 동경 128도 32분(內面 廣院里), 서쪽 끝이 동경 127도 33분(西面 東幕里), 남쪽 끝이 북위 37도 31분(南面 詩洞里) 북쪽 끝이 북위 37도 57분(斗村面 長南里)이다. 남북의 거리가 39㎞임에 비하여 동서의 길이는 110㎞로 옆으로 길쭉하며 동쪽은 지대가 높고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군의 전면적은 1,786.6㎢로 전국의 군 중에서 麟蹄에 이어서 두번째로 넓다. 그러나 전면적의 86%가 山地이고 논밭은 10%에 불과하다.

인구는 1985년 11월 1일 현재 90,100명(남자 46,217명, 여자 43,883명)이며 총 가구는 20,371가구인데 이들 가구의 60%가 농가이다.

洪川은 전국 제일의 철 매장량, 강원 제일의 규석 생산량 그리고 전국

제일의 잣 생산량을 가지고 있다. 斗村面 遠洞里와 自隱里에는 전국의 철 매장량의 78%인 8,800만 t이 매장되어 있고 化村面 酒飮峰里에서는 1년에 4,000 t 이상의 규석을 생산한다. 또 일제시대에는 斗村面 自隱里를 비롯해서 乃村面, 化村面, 南面, 東面 등에 금광이 성했었다. 化村面 楓川里 일대의 산은 거의 전부가 잣나무로 덮여 있어 1년에 1,000가마 이상의 잣을 생산하고 있다. 北方面 北方里에서도 잣을 많이 생산한다.

洪川郡은 서울과 영동지역을 가로지르는 위치에 놓여 있고, 영서의 남과 북을 종으로 잇고 있어 전통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교통의 요지로 알려져 왔다. 그래서 홍천을 무대로 하는 文獻說話나 여행시 성격의 漢詩를 옛 문헌에서 볼 수가 있다. 홍천은 현재 市로 승격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李适(1587~1624)이 仁祖反正(1623)을 일으키기 전에 洪川에서 군대를 훈련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고, 瑞石面 豊岩里 자작고개에서는 東學軍과 官軍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1894). 동학군의 편을 든 이곳 주민을 포함해서 그때에 이곳에서 죽은 사람이 800여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北方面 本宮里에서는 매년 삼월 삼짇날에 장승祭를 지내고 있으며 西面 八峯山祠에서는 삼월 보름과 구월 보름에 八峯山의 세 女神을 모시는 山祭를 지낸다. 內面에서는 권대감(權專, 端宗의 외조부)을 지역수호신으로 모시고 있었으나 요즈음에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수호신으로서의 존재가 미약해졌다. 또한 洪川郡에서는 1977년 이후로 翰西文化祭를 열고 있다. 翰西는 南宮檍(1863~1939)의 아호이다. 그는 잘 알려진 근대의 애국계몽운동가로서 西面 牟谷里에서 독특한 교육활동을 벌인 바 있다.

東面 孔雀山 기슭에 있는 壽陀寺는 영서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절인데(708년, 新羅 聖德王 7년, 元曉大師가 창건), 「月印釋譜」 제17권과 제18권이 이 절에 소장되어 있다.

調査 槪觀

翰林大學 국어국문학과에서 3년간에 걸쳐 연인원 135명으로 실시한 洪川地域 구비문학 조사의 시일, 참가자, 조사 지역은 다음과 같다.

예비조사 : 1986. 1. 11~13.

* 허남춘(조교) 강동규 김학근 안순혁 정성화 조남혁 황병로(1학년), 내면 창촌리 자운리 명개리

제1차 조사 : 1986. 7. 21~24.

* 1조 : 허남춘(조교) 곽노실 김명숙 김방경 김제훈 박찬 오애리 이홍식(2학년) 문재우(1학년), 서석면 풍암리 청량리

* 2조 : 김성수(조교) 강동규 유은영 이대근 이도형 전계진 조옥희(2학년) 최광현(1학년), 두촌면 자운리 철정리 장남리 천현리

* 3조 : 정덕준(교수) 강경행 김요섭 이원미 홍호석 황병로(3학년) 박형규(1학년), 내촌면 화상대리 도관리

* 4조 : 전신재(교수) 김진희 송동찬 신정복 윤홍기 정성화 최훈(2학년) 김성욱(1학년), 내촌면 서곡리 물걸리

* 5조 : 오춘택(교수) 김동하 이필용 전희숙 정금란 조남혁 조형연(2학년) 박미숙(1학년), 서석면 생곡리 검산리

제2차 조사 : 1987. 7. 7~10.

* 1조 : 오춘택(교수) 김미영 신정복 이필용(3학년) 이동수 이미한 현홍철(2학년) 최재희(1학년), 서면 모곡리 길곡리 중방대리

* 2조 : 허남춘(강사) 송동찬 이원미 이진주(3학년) 강성관 김숙영 엄병화(2학년) 류재선(1학년), 서면 두미리 대곡리 팔봉리 어유포리 굴업리

* 3조 : 김문태(조교) 김승혜 이홍식 전계진(3학년) 박형규 최정희(2학

년) 김석주 홍후남(1학년), 남면 용수리 제곡리 명동리 유목정리 화전리

* 4조 : 정덕준(교수) 김성수(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보) 곽노실 김방경 김요섭 정은정(3학년) 용정실 정명수(2학년) 성길제(1학년), 남면 서동리 유치리

* 5조 : 이종철(교수) 엄기주(조교) 유은영 조옥희(3학년) 김성욱 장기영 최광현(2학년) 이연순(1학년), 북방면 구만리 도사곡리 하화계리

* 6조 : 전신재(교수) 김진희 정금란 홍호석(3학년) 강하구 권준길 최용헌(2학년) 안선희(1학년), 북방면 북방리 성동리 화동리 상화계리

제3차 조사 : 1988. 6. 22~25.

* 1조 : 정덕준(교수) 엄기주(조교) 오애리(4학년) 강성관 윤혜정(3학년) 성길제 유진수(2학년) 김효경 박미연 이용인(1학년), 화촌면 풍천리 구성포리 장평리 군업리 내삼포리 굴운리

* 2조 : 김은자(교수) 김문태(조교) 권준길 김혜경 엄병화(3학년) 박기웅 이철규(2학년) 심보경 이정환(1학년), 홍천읍 결운리 검물리 태학리 삼마치리 상오안리

* 3조 : 허남춘(강사) 이필용(4학년) 김경원 이동수 한호순(3학년) 류재선 박삼희(2학년) 박승림 방은영(1학년), 동면 노천리 좌운리 속초리 월운리 개운리 방량리 삼현리 성수리 덕치리

* 4조 : 전신재(교수) 황정산(조교) 김진희 유선영(4학년) 박형규 전창동 최정희(3학년) 박지숙 이숙재 홍석호(1학년), 내면 창촌리 자운리 광원리 명개리

한편 국어국문학과 주관의 채록 작업과는 별도로 翰林大學 아시아文化硏究所 주관의 洪川郡 傳統文化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조사한 자료도 이 全集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사에는 1987. 2. 10~13과 7. 10~12의 두 차례에 걸쳐 전신재(교수) 허남춘(강사) 김성수(아시아文化硏究所 硏究員補) 강동규 유은영 이원미 이홍식 전계진 조남혁(3학년)이 참가하였다.

說　　話

神話性 說話
傳說
民譚

천지를 개벽시킨 홍수 1

드렁산[1]이 왜 드렁산이 됐느냐 하면은, 물이 인제 그 많아 천지개벽을 했다는 얘기지. 천지개벽할 적에 논두렁만큼 남았다 그거야, 다 차고. 그래서 인제 그 드렁산이다, 인제 이런 말도 있고, 그건 노인네들한테 내 들었어요.

또 요기 인제 종자산[2]이라고 있는데, 이 앞에서 서쪽으로, 종자산이라는 건 왜 종자산이냐? 그것이 물이 억수, 그렇게 차올라갈 적에 종지만큼 남았다, 이거지. 그래서 종자산이다, 이렇게 전설이 있다는 얘긴데, 근데 그 전에 물이 많아서 참 넘쳐 가지구, 천지개벽할 당시에 그렇다는 전설이겠죠, 그게.

* 이철구, 남·61. 7대째 서면 두미리 도인촌(됫말)에 거주.
* 서면 두미리, 1987.7.7., 허남춘 이원미 이진주 강성관 조사.
* T. 2—1—2

천지를 개벽시킨 홍수 2

옛날에 그 저 뭐야 천지개벽할 때에 아마 노아홍수때 입때든지 그 공작산[1]이 여느 산은 다 물에 잠기고 어 고산이 그냥 공작이만큼 남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왈 여기서 떠드는 말이 공작산이다, 이래고 떠들지요. 옛날 으른

1) 두릉산(杜陵山). 西面 斗尾里와 八峯里, 盤谷里에 걸쳐 있는 산. 높이 595m. 둥그렇게 생겼음. 德應山이라고도 함. 2) 種子山. 西面 開野里 留眞里 남동쪽에 있는 산. 높이 223m. 종잘산이라고도 함.

1) 孔雀山. 東面 魯川里와 化村面 君業里 경계에 있는 산. 높이 897m.

들[2] 전설이지 그것두. 아, 왜 공작산이라 헤유? 공젝이만큼, 천지개벽헐 때 물에 다 잠기고, 남아서 그랬지요. 아, 이런 데는 다 겝겼지유 뭐.

* 박민경, 남. 68.
* 홍천읍 와동1리, 1987.7.11., 전신재 이원미 이홍식 조사.
* T. 2—6—1

천지를 개벽시킨 홍수 3

여기 오음산[1]이라고 있어. 예전에 이 천지개벽을 할 적에 그루[2]배가 넘어다녀. 쇠말뚝이 있어, 오음산에.

이렇게 바다가 돼 가지구 물이 차니까 배가 넘어다녀서 배너미골이라구 해. 지금 그 너메 두몽암[3]이고. 그 너메 두몽처럼 돼 있다구.

* 민병찬, 남·82.
* 동면 성수리 노인회관, 1987.2.11., 전신재 강동규 조남혁 조사.
* T. 3—21—2

천지를 개벽시킨 홍수 4

예전에 그 천지개벽을 한다 그럴 적에 물이 끓어서, 바닷물이 끓어서 넘을 적에 게다[1] 배를 맸었답니다. 그니까 여기가 물바다니까, 이 물이 끓

2) 어른들.

1) 五音山. 東面 月雲里 남쪽에 있음. 2) 그리로. 3) 돌봉안(?). '돌봉안〔石峰안〕'은 月雲里 石峰 안쪽에 있는 마을. '石峰'은 月雲里 공수터 동북쪽에 있는 산. 봉우리가 큰 바위로 되어 있음.

1) 배우산을 가리킴. 배우산은 乃村面 道寬里와 廣岩里에 걸쳐 있는 산. 높이 895m. 白羽山이라고도 함.

어서 이 서해바다 조 심는 듯이 물이 늘어 올라올 거 아뉴? 그렇게 늘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는, 배가 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올라와 가지구서 거기다 말뚝을 박구 게다 배를 맸었다 그래. 그래서 배우산이라 그래유.

그래 뱃말뚝이 거기 있었는데, 뱃말뚝이 무쇤데 이만 했었어유. 쇠가 엄청히 크거든요. 우리가 어려서 댕기믄 있었는데, 그 어디루 빼굴렸는지, 어떻게 가주갔는지 없드라구. 그전에 보시던 노인네두,

"아 거 올라가믄 말뚝이 있는데 왜 그래?"

"아 없어유. 요새 내가 요전에두 가 봤어유."

〔조사자: 누가 가져갔어요?〕 아, 군인들이 가주갔쥬. 미군들이나 뭔 군인들이 가주갔어유. 없어유.

그래구 거기 가면유 뱃골[2]이라는 델 가믄 바우가 또 배처럼 생긴 바우[3]가 있어유. 큰 게 이렇게 들린 게. 그래 거긴 뱃골이라 그래유. 여기 산은 배우산이구 고 골짜긴 뱃골이라구.

* 김동선, 남·71.
* 내촌면 도관3리 김동선씨댁, 1987.7.10., 전신재 허남춘 김성수 유은영 이원미 이홍식 전계진 조사.
* T. 6—1—1

홍수와 남매간의 결혼

저기 무쇠말재[1]라는 게 있어. 가리산 안개 저막에 자욱하잖아? 그전 옛날에, 수천년전이겠지, 여기가 바다가 됐다 이거야. 배를 타 가지구 가서 무쇠

2) 배뱃골. 道寬里 큰골〔大村〕 안쪽에 있는 마을. 3) 배바우. 배뱃골에 있는 큰 바위.

1) 북村面 泉峴里에 있음. 큰평내〔大平川〕에서 春城郡 東面 판메기리로 가는 높은 재.

루, 베터를 만들어 쇠루다 꽂구 배를 거기서 띄워 놨다 이거지. 시방 바다에 고기잡이가 들어오면 배를 붙들어 매 두잖아? 그렇듯이 배를 붙들어 매둬서 무쇠말재는 거기야.

〔조사자 : 그때 홍수가 났을 때요, 다른 사람은 다 죽구 오뉘가 남았다는데……〕

오뉘? 아, 오누! 그건 송씨네 얘기야. 그때 송씨네가 딱 오누가 있었단 얘기지. 오빠도 나이를 먹구 동생도 나이를 먹어서 결국 큰일 났다 이거야. 맷돌을 하나씩 가지구 간 거야. 남자는 숫맷돌을 가지구 여자는 암맷돌을 가지구 갈 때에, 꼭대기 것이 구녕만 있으니까 암맷돌이구 밑엣것이 둥쇠가 있으니까 숫맷돌이지, 그게 그렇게 된 거지, 자기 누이동생하구.

"야 인제 너는 배필을 얻으려 해두 배필을 얻을 수도 없구 씨래도 퍼뜨려야 된다."

끄집어 올라간 거야. 맷돌 하나씩을 둘러메구.

"이것이 맞아 엎어지면 우리 둘이 사는 거구, 각자 가면 우리는 못 산다."

그래가지구서 두 오누 맷돌을 짊어지구 고지봉으로 간 거야. 기가 맥히지. 오누가 가서 내려 굴리니 이 맷돌이 돌에 부딪치구 이리 가구 저리 가구 막 가지 않아? 내려와 보니까 맷돌이 탁 엎어졌더라 이거야.

"헐 수 없구나. 너하구 나하구 살자."

그래서 오누 송씨라고 하는 거야. 송씨네가 그때 그렇게 해서 씨를 퍼뜨린 거야.

* 박창달, 남·65. 농업. 5대째 이곳 지다치에서 거주.
* 두촌면 철정2리 지다치 길 옆, 1987.7.11., 김성수 유은영 전계진 조사.
* T. 6—4—1

홍수와 모자간의 결혼

예전에 인총이 없어. 어머이하고 아들하고 살았는데 서로 둘이 〔내외를〕 삼을 수 없어. 그래 아들이 댕기니까,

"이놈아, 저기 가 맷돌을 놓고 굴려서, 두 짝을 가져가 굴려서 이게 맷돌 채로 올라 앉으면 너하고 잔다."

인총이 없으니까, 저만 죽으면 인총이라는 것이 없으니깐 이놈이 올라가서 굴렸는데 이놈이 뚜르르 굴러서 내려와 자빠져. 또 한 짝을 굴리니까 이놈이 하필 거기 와서 이렇게 맷돌이 합쳤어. 그 하늘이 지시하는 거지. 〔청중 : 다 죽구 어머이하고 아들만 살았다 이거지.〕

그래, 세상에 사람이 다 죽구, 홍수 때문에, 어머이하고 아들만 남았지. 그때 말짱 둘밖에 없는데 어떡해? 종족을 펼치구 살아야지. 어머니를 데리구 씨를 펼쳐야지. 〔청중 : 아 그게 종자 퍼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 민병찬, 남·82.
* 동면 성수리 노인회관, 1987.2.11., 전신재 강동규 조남혁 조사.
* T. 3—20—2

고개 위에서 사라진 며느리

시어머니하고 메느리하고 가다가설라무네 메느리가 거기설라무 사망했다는 메느리고개[1]라는 유래가 있기는 한데 확실한 것두 모르고. 〔조사자 : 옛날

1) 며느리고개. 洪川邑 上吾安里에 있음. 며느리고개말(婦峴村) 남쪽에서 月川里로 가는 고개. 婦峙. 婦峴峙.

에요, 이 마을에 물이 잠겨 가지고 봉우리만 요렇게 남았다든가 그런 얘기 모르세요?] 아 그런 얘기가 있긴 여기두 매봉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물에 잠기구, 매 하나 앉으리만큼, 고 매는 높은 데만 가 앉는 등식이니까 매봉이라는 유래가 있구.

* 지욱성, 남·80. 농업에 종사.
* 홍천읍 상오안리, 1988.6.24., 김문태 엄병화 박기웅 이철규 심보경 이정환 김혜경 권준길 조사.
* T. 2—4—1

고개 위에서 사라진 신부

옛날에 그 결혼할 때 메느리, 그 결혼할 때, 메느리를 고개에서 뺏겼다 그거지요.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호랑이한테 물려갔다. 일설에 의하면 어느 도둑한테 뺏겼다. 이렇게 양론이 되는데 그 확실히 고증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하야간 메느리를 뺏겼답니다. 그래 메느리를 찾느라고 "메느라 메느라"해서 메느리고개가 됐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요.

그래 지금도 남면서 홍천에 가 있는 분들은 서울서 인제 결혼식을 하고 올 때는 저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루 시동[1]으로 해 가지구 삼마치[2]로 해서 여기서 상창봉이라고 해서, 거기서는 그러니까 원주로 댕기는 거 홍천서 원주 댕기는 큰 국도가 있으니까 글로 넘어가요. 메느리 데려 올 때는 지금도 그래요. 풍속이.

* 용호선, 남·51.
* 남면 시동3리, 1987.7.8., 정덕준 김성수 김방경 김요섭 정은정 곽노실 정명수 용정실 성길제 조사.
* T. 4—6—2

1) 南面 詩洞里. 2) 三馬峙. 洪川邑 三馬峙里 원터에서 南面 上蒼峰里로 가는 고개. 높이 462m. 고개가 험하고 가파라서 세 마리의 말을 갈아 타고 넘어다녔다 함.

시아버지와 며느리

홍천 지나서 며느리고개가 있는데, 그게 왜냐? 시아버지가 신장사를 한 거야, 어려워서. 짚세기[1] 장사. 짚세기를 삼아서 며느리는 장에 갖다 판다 이거야. 팔아 가지고 오다가 며느리가 죽은 거야. 왜냐? 먹지두 못하구…. 시아버지가 짚세기를 삼아 놓으면 며느리가 시장에 갖다 팔아 가지구 쌀이래도 팔아 먹으려구. 그게 가가 백힌 노릇이지. 짚세기를 홍천에 가지구와 팔으려구 먹을 건 못 먹었지, 시아버지도 굶지, 자기 남편도 굶지. 그런데 자기 혼자 먹을 수 없잖아? 거기다가 기진맥진해서 굶어죽었다 이거야.

그래서 며느리고갠데, 시방두 거기는, 혼사가 되잖아? 잔치를 지내 가지구는 그 고갤 안 넘는단 얘기야. 돌아가지. 왜 돌아가느냐? 그리루 며느리를 데리구 가게 되면, 시방으루 하면, 재수가 없다는 얘기지.

* 박창달, 남·65.
* 두촌면 철정2리 지다치 논둑, 1987.7.11., 김성수 유은영 전계진 조사.
* T. 6—4—1
* 옛날 어느 해 봄날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함께 사돈집에 갔다 오는 길이었다. 성황당이 있는 산마루턱에 올랐을 때 시아버지는 나귀등에 얹었던 짚신 꾸러미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며느리를 고개 위에 두고 나귀를 몰고 오던 길을 다시 내려가 보았으나 짚신은 없었다. 고개 위에 올라와 보니 며느리가 없어졌다. 어둠이 깔린 고개 위엔 짐승소리만 들렸다. 갑자기 무서워진 시아버지는 나귀를 재촉했으나 나귀의 발굽이 떨어지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나귀를 뒤에 두고 혼자서 고갯길을 넘어갔다. 며느리는 산도적에게 잡혀갔다기도 하고 맹수에게 잡혀 먹혔다고도 하는 말만 전해질 뿐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후로 이 고개를 며느리고개라고 부른다. 그로부터 혼사 행렬이 이 고개 마루턱에 이르면 나귀의 발굽이 떨어지지 않거나 며느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제를 지내고 넘거나 다른 길로 멀리 돌아간다.[2]

1) 짚신 2) 崔承洵外「太白의 說話」上(江原日報社, 1974), pp.183~184. (요약)

은혜갚은 노루와 구렁이

옛날에, 어느 왕 시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홍수가 우리 몇 해 전 그만큼 왔던지 그렇게 홍수가 많이 홀렀는데 그때 웬만한 산골짜기 집들은 아마 그 홍수에 사태되고 집은 떠내려 오고 인제 그랬겠죠. 근데 참 집이 말야 강이 늘었으니까 둥실둥실 떠내려 오는데 아이가 사람 살리라고 손짓을 한다 그 얘기야. 그래서 그때에 이 사람이 수영을 잘 했든지 쫓아 들어가서 지붕 서까래를 잡아댕겨 가지구 끌구 나왔는데 거기 뭐이가 살았나 할 것 같으면 아이가 살았구 구렁이가 살았구 노루가 살았다 이 얘기야. 노루가 물에서 꼼짝 못하는 단계에 놓여 있었는데 끌구 나와 보면 살았다 이 얘기지. 그게 인제 물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서 잡아댕겼는데 물 밖에 나와서 보니까 살았네.

구랭인 구랭이대루 가구 노루는 노루대로 가고 아이는 인간이 아니냐 이기야. 인간이 제일 귀중허니까 내 식구처럼 살렸다 이거야. 그런데 이 아이를 인제 어린 아이니까, 자기 살림이 어지간히 유하고 했던 모양이지, 그 눔을 공부시키고 인제 이렇게 잘 키웠세요. 양육을 시켰는데 이분네가 한번 남구를 하러 산에 갔는데 그 노루가 말야 남구하는 곁에 와서는 아주 반갑게 인사하는 것처럼 앞발을 치구 이렇게 하더라 그 말이야. 근데 그러면서, 그 노루소리가 왜 그 웩웩 하잖우? 아 그러면서 자꾸 뒷걸음 하고, 오라구 뒷걸음질을 하고 지가 도망을 가면 못 따라 가겠으른 오라구 뒷걸음질로 가더라구. 하도 이상해 쫓아가니, 대구 뒷걸음질 쳐 가다보니깐 노루가 발루다가 부벼팠더니 단지가 나왔어. 노루가 파쳤으니깐 알지 그 노루가 안 파쳤으면 모른단 얘기야. 그 소담구지 서이를 파쳤는데 은항아리가 가뜩하다 이기야. 그니깐 그때두 옛날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옛날

엔 은을 첫째로 쳤지 금을 첫째로 치지 않았어요. 재산을 그게, 은이믄 그만이야. 은항아리 서이를 묻었더라 그 말이야. 옛날에 어느 부자가 그깐 피란을 가야 되겠고 은은 내빌 수두 없으니까 모르게 갖다 묻은 곳이 인제 그 발견이 됐는데 은항아리 서이를 묻었어요. 그 은항아리 서이를 발견해 가지구서 그 가난한 양반 참 부자가 됐어. 게 서이를 캐 가주구 와서 부자가 됐는데, 이 아이를 공부를 시켰는데 이 아이는 뭐라구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자 우리 주인집 아저씨는 도둑질을 해 왔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

이런 애기가 관가에까지 들렸단 애기유. 그니깐 관가에서 체포해 갔네. 포졸이 와 묶어갔단 애기야.

아 그깐[1] 옛날에 저, 시방은 감옥소죠, 아 여기 묶여 있는데 아 그 뭐 이놈 도둑질한 건 아주 나쁜 놈이라고 들어가 앉아 있지. 아마 몇 달 뭐 그때도 시방 모양으로 취조도 하고 그랬겠지, 물론.

"너 어떻게 되서 부가가 됐느냐? 너 어떻게 돼서 가난한 살림이 이렇게 됐느냐?"

뭐 많이 심문받았겠죠.

그러다보니까 한 저거에는 이제 그 창살이에요, 창살. 그거 그 창살에 구렁이가 쑥 들어 오더라 이거야. 쑥 들어 오더니 넓적다리를 꽉 깨물고 나가네. 깨무니 이 그 차독같이[2] 붓네. 갈수록 붓는단 애기야. 아 이 뭐 죽는다고 난리치니 그 저기 뭐 죄수 하나 둘이 아니지. 여럿이겠지. 아이 이건 뭐 난데없이 꼭 그 사람만 깨물고 나가더라 그런 애기야, 죄수가 많지만 그 사람만 깨물고 나가더라구. 아이 뭐 기막혀요. 이 군데 거기도 관아꾼네가 있었을 거야.

"한 죄수는 구렁이가 와 깨물었는데 아 이렇게 부었다."

고 그저 관아꾼이 알렸던 모양이죠. 그 이튿날은 구렁이가 또 들어오더라 이 애기야. 아 쬐끄만 풀이파릴 물고 들어오더니 고 깨문 자리에 탁 붙이드라 이 애기야. 풀이파릴 깨문 상처에 탁 붙이니 이게 몸이 술술술술 빠지

1) 그러니까. 2) 차돌같이.

며 그냥그냥 저저 맨살이 됐단 얘기죠.

아 저 그 담에는, 그 공주는 임금님 딸이 아니유? 이 임금님 딸을 구렁이가 들어가 물어. 물었는데, 이런 얘긴 드물 겁니다, 저 아 그 임금님 딸이, 공주가 제기 차독같이 부으니 말이야. 야 이 세상 약을쓰니 듣나? 천상 죽는다고 거냥.

"그 감옥소에 아이 저 아무 몇 호실에 누가 있는데 그 참 그 죄수가 구렁이한테 물려 가주구 고생을 했는데 살아났는데 그 뭣 땜에 살아났는지 그 한 번 그 사람을 문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깐 이 했단 말야. 이 사람 감옥에 있는데 불렀단 말야. 그 나랏님 앞에 갔지.

"그 너 에 잊그저레 얘길 들었는데 에 그 감사한테 얘길 들었는데 그 너 저 구렁이한테 물렸다매? 너 어떻게 살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 너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아 그분네가 말하길

"아 그 뭐 별일 없이 홀연히 낫습니다."

"그러믄 너 그 문 게 너 어떻게 낫느냐?"

이래 묻거든,

"예. 사실은 이러구 저러구 아주 죽을 지경인데 구렁이 한 번 와 깨물더니 풀이파릴 하나 가져와서 꼭 붙이니 지가 그 부기가 빠졌습니다."

그래 가지구 나갔지. 가지구 나가서 그 공주한테 가서,

"이건 꼭 제가 붙여야지 다른 사람이 붙이면 안 됩니다. 뭐 이건 여느 사람 주면 안 됩니다."

"그럼 네가 꼭 가져가 붙여라."

아 이 넓적다리, 이 허연 놈의 넓적다릴 갖다 척 붙여 놨네. 아 뭐 하룻밤 새에 다 낫네. 임금님이 말야,

"너는 죽을 게 살았어. 저 사람하구 인연을 맺어야 한다."

그래서 인연을 맺어 줬지요, 에. 그니깐 나랏님이 부마공을 삼았습니다.

이거 한 가지 또 애기할께요. 그게 뭐냐, 인간을 구제하고 원수를 사랑한다 했어요. 거기 두고 한 애기에요. 인간을 그 사람이 키웠는데 그 낭설을 해 가지고서 그냥 고생이 될 뻔했지만 노루도 구제해 줬고요, 구렁이도 구제해 준 건 사실 아닙니까?

* 박연선, 남·65.
* 화촌면 외삼포1리, 1987.2.11., 허남춘 김성수 유은영 조사.
* T. 6-2-1

남편을 따라 죽어 산신이 된 할머니

저는 본 건 아니구요, 들은 애긴데, 아주 까마득한 옛날 애기죠. 참 우리 뭐 몇대조들도 잘 모를 만한 옛날 애긴데 이 골짜구니 저 우에 올라가서 구목령[1]으로 가는 그 길도에[2] 마씨라는 분이 살았어요. 근데 아주 무의무덕[3]해요. 형도 동상도 아들도 없어서 두 내우[4] 백발노인이 사시는데 사는 순간에 후대를 잇지 못하니까 항상 이제 한이 있을 께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날, 당신이 재산 삼어 키우던, 자식 대신에 말이 한 필 있었어요, 그 말을 강가에다 내다 메고 들어와서 두 부부가 자탄을 하는 거지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백발이 다 되어서 앞날이 가차웠는데[5]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탄하면서 〔한탄하고 있는데〕 갑작시리 아주 뇌성벽력이 그냥 막 때리면서 하늘이 아주 껌껌해지고 천지를 분별 못하는 이런 지경이 되고는 폭우가 막 내려요. 그러자 날은 이미 저물었어요. 그 한탄하는 생각으루다가 강가에다 말 내다 맨 생각을 미처 못 했지요. 그에 폭우는 막

1) 九木嶺. 2) 도중에. 3) 무의무탁(無依無託). 4) 내외. 5) 죽을날이 가까왔는데.

쏟아지니까 늦게서야 그 말 생각이 나서,

'어떡하나? 어떡하나?'

인제 두 부부가 공론을 하는데 그 바깥이[6]는 남자니까,

"아, 이건 내 자식과 같은 말인데 이 비를 이렇게 맞혀서 되겠는가?"

깜깜한데 그 말을 끌러 나간다고 하니 남아 있는 이는 한사코 말려요. 어두운데 어떻게 나갈라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건 내 자식과 같은 말인데 그걸 비를 맞히면 되겠는가?"

구 어두운 밤에 나갔지요.

나가니 이 백발 그 노부는 어두우니 나가지를 못하구, 여자니까 나가지두 못하구 어찌할 줄 몰라요. 그러니 방안에서 헤멜 따름이지요. 헤메면서, 그땐 어디 이렇게 전등이 있습니까? 요만한 등잔불이지요. 등잔불만 요렇게 바라보구 있다가 날이 샜어요.

날이 새니 폭우도 멎었거던. 그래 문을 열고 나가니 산골짜기 물은 이렇게 험하니까, 그저 막 쏟아지고 돌도 굴러 내려오구, 이렇게 맥히기두 해서, 이게 또 좁으니까, 집을 요런 데다가 밀어붙이는데 이런 방문턱이 그냥 아주, 물이 그냥 방문턱까지 들어왔어요. 그래 나가 보니 남편도 종적이 없구 말두 종적이 없어요. 그래 이렇게, 그 망정암이라는 것이 인제 거기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내다보니까 물이 그냥 아주 골짜기에 이렇게 차서 나가는데 바우 하나만이, 인제 그 옆에 큰 바우가 아주 있으니까, 높은 바우가 있으니까 거길 올라가서 그 말 매었던 데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종적이 없지요.

거기서 인제 이 할머니가 자탄을 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살면 뭘하노?'

옛날 법에 인제 부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가 하는 덕이 있어요. 옛날 법 부덕에 여필종부라 했으니, 여자는 남자를 좇아야 한다 했으니 내가 살면 무엇하겠나 하고 그 담에 신발을 벗어서 자기 사실을 거기다 기록을 해서 썼어요. 써서 신발에다 놓고는[7] 그냥 그 흙물이 파도처럼 정말 뛰

6) 남편 7) 전후 진술이 모순됨.

치는 데를, 거길 뛰어들어설라무네 빠졌지요.

그래구보니까 그 말 한 필과 그 남편하구 할머니하구 세 식구가 살던 게 다 그 물에 빠졌어요. 빠져서, 그렇잖아요? 거기서 다 없어졌으니까 이전 망정이로구나[8], 망정소, 망정소, 그래 그 망정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살던 정리들을 생각해설라무네 자기 일신을 물 가운데다가 던졌으니까 그래 그 '정'을 '바라본다'해서 '망정'암이다, 에 그 정을 바라보던 바위다 해서 망정암이라고 했는데 그래 그 뒤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전하기를,

"망소는 망정소다, 바위는 망정암이다."

그 뒤에 또 논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게 되면은 남자는 죽어서 죽은 영혼이, 그 위에서 쭉 올라가면 구목령이라는 데를 올라가면 성제봉[9] 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제봉이라는 게 있는데, 성제봉 산신령이 됐다구 이제 전해 왔구, 또 그 할머니는 그 맞은 짝에 마고산이, 마고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만고산의 신령이 됐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그래 산삼을 캐는 그 심마니[10]들이 치성을 드리고 꿈을 꾸면은, 꿈에 여자만 비치면, 하얀 할머니만 비치면 아주 심[11]을 많이 캔답니다.

그래 그런 전설이 인제 내려온 것을 들은 걸 인제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 이재영, 남·64. 평창에서 출생. 1951년 이후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에 거주. 5년 동안 한학을 했으며 직접 한시도 지어 보여 줌.
* 서석면 생곡리, 1986.7.22., 조남혁 정금란 박미숙 조사.
* T. 5—1—1

8) '망종'과 '망정'을 혼동한 듯. 9) 성지봉(聖地峯)? 성지봉은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와 양평군 서운면 성재리 경계에 있음. 10) 〔은어〕 산삼 캐는 사람. 심메꾼. 11) 〔은어〕 산삼

성이 다른 세 여신

산신령이 여신[1] 이라구 그랬지. 그래가지구 인제 그 시어머니, 며느리[2], 시누이 이렇게 그 삼신이라 그러지. 김씨, 이씨, 홍씨 세 삼부인이라 그러지, 산신령을.

이 유래는 언제부턴지도 몰라.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저기 올라가면 산신당이 있어요, 당집[3] 이. 그래서 그 원래 산신령을 모신 데가 따로 있구, 또 여자신 그거 모신 데가 따로 있다구. 그래서 인제 그 민속적으로 그 삼월 보름날이면 당굿을 한다구. 이 산에서 무너들이 당굿을 하는데, 이 팔봉산 당굿을 가지고 우리가 민속경연대회에 나갔었다구, 어쨌든, 은젠가 벌써 시작됐는지,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제이봉에 산신당이 있는데 엣날에는 저 끄트머리에 있었다는 얘기두 있고, 어쨌든 그 신령은 여신이 삼신이야. 홍씨, 이씨, 김씨. 그래서 시어머니허구 며느리허구 시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구, 저 산에 대한 유래는 별로 크게 나온 거는 없구.

* 이창연, 남·55.
* 서면 팔봉1리. 1987.7.9., 허남춘 이원미 이진주 강성관 조사.
* T. 2—11—1.

1) 女神. 2) 며느리. 3) 당집 女像. 三仙堂. 八峯山祠. 八峯山에 있는 사당. 산이 여자 모양이라 하여 시어머니, 며느리, 딸의 영혼을 모시고, 음력 3월 보름과 9월 보름에 큰 굿을 하며 제사를 지냄.

부적을 써 침을 없앤 권대감

여기는 인제 지역 수호신이라 해가지구, 권대감이니 박대감이니 있잖아요? 그래 여긴 권대감이 수호신인데 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직대신이지. 그러구 나오니까 원님이지. 권대감이 대감이니까 내직에 있을 때 장관 같은 거였지. 그래 권대감이 말을 타구 운두령[1]을 넘는데 침이 말에 걸려서 거기에서 낙마하구 화가 나서 부적을 써서 침을 없애 버렸다지. 그래 여기엔 침이 하나두 없어요. 내면엔 침이 하나두 자라지 않는다구요.

* 김선주, 남·65. 12대째 창촌리 거주. 보통학교 졸업.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전에는 공장에도 있었다 함.
* 내면 창촌리, 1986.1.11., 허남춘 조사.
* T. 6—5—1
* 권대감비 : 內面 廣院里에 있음. 이조 제5대 文宗의 왕비 顯德王后의 아버지 花山府院君(端宗의 외조부) 權專의 비. 단종이 승하하자 세상을 피하여 설론으로 온 후, 어느날 말을 타고 가다가 설론 산 중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사슴에 놀라 말이 칡넝쿨에 걸려 넘어지자 말에서 떨어져 앓다가 죽었는데, 이 일이 있은 뒤로 그 근처의 산에는 지금까지도 칡이 없다 하며, 그 뒤 후손이 사당을 짓고 권대감의 제사를 지내고 있음.[2]
* 말무덤 : 內面 紫雲里 德斗院에 있는 큰 무덤. 권대감이 탔던 말을 묻었다 함.[3]
* 수레너미고개〔차유치〕: 紫雲에서 德斗院으로 가는 고개. 권대감이 수레를 타고 넘어다녔다 함.[4]

1) 雲頭嶺. 內面 紫雲里 雲頭洞〔운두골〕에 있는 고개. 2) 「한국지명총람」2 (한글학회, 1967), p.528. 3) 위의 책, p.532. 4) 위의 책, p.532.

산삼자리를 가르쳐 주는 산신령 1

상대[1] 맞은짝에 있어요. 심자리[2]게 거게 있어요. 옛날 심자리 애긴데 원 집씨라고 저 노쟁이 있잖아요? 그이의 아버지요. 그이의 아버지가, 시방 그 사람 이름이 뭣인가? 지통천의 아들 있는 데가, 지수헌이라던가? 지수헌 그 집자리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아주 부자로 살았는데 그분 꿈에 하얀 할머니가 자기집에를 나타나더니,

"아 짐장[3] 때가 됐는데 왜 정말 무수[4] 걱정도 안 하느냐?"

고, 아 그래,

"무수를 정말 시방 구할라구 그러는데 무수를 정말 못 구해서 그런다."

고 그러니까,

"아 그 할미 자리 밑에 그 찬목정이 거기 오면 아 정말 무수밭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아 짐장을 하지 왜 그러느냐?"

고 그래서 그래 인제 거길 가 가지구는 참 육구만달[5]을 캤대요. 아주 이렇게 큰 걸 캐 가지구는 그걸 팔아서, 그 시방 파담한 거 인제 채수한다고 하잖아요? 아홉 마지기요, 그 아홉 마지기를 사고 지수헌이 가게를 사고서 거기를[6] 사시는데, 그 산삼 캔 걸 가지고 땅을 사야 오래 견딘다는구만요.

그것을 사뭇 그 당신 대를 가지고 인제 사셨는데[7] 그 아들 대가 돼 가지구 그만 그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시방 그 아들은 다시 벌어 가지고 또 노쟁이라는 데 가서 사는데 그분의 심 캤다는

1) 상대월(上大月). 瑞石面 笙谷里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 2) 산삼이 자라는 자리. 3) 김장. 4) 무우. 5) 줄기가 여섯난 산삼. 산삼 중에서 가장 값진 것. 6) 거기에. 7) 살았는데.

분의 아버지는 진사까지 지낸 분이에요.〔조사자 : 그럼 조선시대 얘기겠네요?〕 오랬어요. 그분의 손주가 여기 안즉[8] 사니까, 사니까.

* 이재영, 남·64.
* 서석면 생곡2리, 1986.7.22., 조남혁 정금란 박미숙 조사.
* T. 5—1—1

산삼자리를 가르쳐 주는 산신령 2

깊은 고을에 들어가는 소로변에 인제 좁은 길 옆에서 간촌[1], 이 간촌이라는데 황철승응이, 황철승 노인이 천구백육십이년 하절 어느날 자약[2]을 캐기 겸해서 상대에 갔다가 더워서 소로변에 앉아 부시를 쳐서 담배를 피우며 앉았노라니 하측으로부터 젊은 여인 두 사람이 어린 아이를 각각 업고 땀을 흘리며 올라오는데 업은 아이는 잠이 들어 등우에 고개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황옹이 하는 말이 어디로 가시는 부인들인지 그 아기를 젖이나 먹여 가지고 쉬어가라고 하자 이 여인이 황옹 옆에서 아기를 업은 채 겨드랑이 아래로 돌려 젖을 먹이며 노인께서는 약을 캐러 오신 것 같은데 이 아래 오다 보니 자약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으니 그곳을 가 보시라고 하며 그 후 그 우에 가는 것이다. 몇 자욱 걸어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순간적으로 오고 간 것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여인이 가 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점심을 먹을라고 인제 하는데, 바로 옆에 산삼이 여기저기 수없이 보이는 것이다. 기이하기도 허지만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혹 꿈이 아닌가 하야 다시 정신을 차려보아도 틀림없었다. 점심밥으로 산신령께 치성을 올리고 집에 와서 외출중인 노부, 자기 안노인을 찾아가서 사연을 알리고 삼일후에 노부와 다시와 보아도 확실한 것이었다. 그 후 이

8) 아직.
1) 間村. 샛말. 瑞石面 笙谷里 지장고개와 피릿골 사이에 있는 마을. 2) 작약.

개월간 근처를 방황하며 약효가 많다는 처서날 이웃 사람들과 아들을 데리고 가서 육십여 뿌리를 캐었다. 이 산삼을 팔아서 부자가 되어 전답을 사고 재산을 아들 황명근이에게 물려주어 지금도 그 후손들이 잘 살고 황웅은 별세하였다. 이리하여 황웅이 만났다는 그 여인들은 노고산[3] 여산신이라고 주민들은 믿고 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니고 이곳 주민들이 다 본 일이다.

* 김봉성, 남·69. 6·25때 생곡리에 들어와 거주. 한학을 오래함.
* 서석면 생곡2리, 1986.7.22., 조남혁 정금란 박미숙 조사.
* T. 5—1—1
* 이 이야기는 제보자 김봉성씨가 미리 기록해 놓은 것을 읽어 주는 대로 채록한 자료임.

산삼 캐고 제를 안 올려 죽은 사람

이 저 지우리골[1] 안막에요. 거시기 춘천 사람이 와서 심[2] 캐 가더라구. 그게 한 십오년 되었겠는데 춘천 사람이 꿈을 뀌는데 그 참 아주 선몽[3]을 해 주더래. 그 아무데를 찾아가면은 거기 무우밭이 있으니 그건 네꺼니깐 가서 캐라고. 그래 이 사람이 심이라는 거는 도무지 귀경을 못하던 사람이거든. 그래 인제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심일을 좀 아는 사람을 그래 인제 데리고 와서는 심을 참 캤대요. 그래 세 뿌리를 캤는데 뭐야 그 심일 잘 아는 사람이 심을 캐 가주고는 그랬대요.

"이 심 캐고서는 여기서 지사[4]를 지내야지 지사를 안 지내면 절대 안 되니까는 지사를 지내라."

---

3) 老姑山. 西面 牟谷里와 吉谷里에 걸쳐 있는 산. 숫산과 마주 보고 있으며, 여자산이라 하여 아들을 바라는 이가 정성으로 기도를 하면 아들을 낳게 된다 함.
1) 南面 上蒼峰里에서 15리나 되는 긴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 2) 산삼. 3) 현몽(現夢). 4) 제사.

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만 캐러 갔지 뭐 준비를 해 간 게 있어요?

"아주 준비도 없이 왔으니까는 그러니 준비를 안해 왔으니 천상 집에 가서 준비를 헤 가지고 와야 이거를 뭐야 지사를 지낼 께 아니냐? 그러니까 우선 집으로 가자,"

고 그래 집으로 오니까는 서울서 벌써 왔더래요. 심을 사러 서울서 벌써 춘천을. 그래 인제 심을 그 사람에게 팔구서는 이 사람이 여기 와서 고사를 지냈으면 괜찮을 건데 잘 되다간 아주 말아 버렸대요. 근데 열이틀인가 열사흘만에 죽었대요. 대번 피를 쏟았어. 그래 인제 고사를 드렸으면 문제없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차일피일 차일피일 하고 미루다 아주 말아 버렸대요. 그랬더니 대번 그만에 피를 토하고 죽어 버렸대요. 그래 진짜 심이라는 거는 그렇대요.

* 이계남, 남·66.
* 남면 시동3리, 1987.7.8., 김성수 김방경 김요섭 정은정 곽노실 정명수 용정실 성길제 조사.
* T. 4—7—2

서낭을 베어다 집을 지은 머슴

예전에 어떤 사람이 총각시절인데 이 남의 살림만, 머슴살이만 댕기며 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좀 집을 짓고 살아야 되겠단 얘기예요. 그래 집을 하나 짓고 장가를 들어야 되겠어서 집을 짓는 게 하필에 서낭당 껄 찍어다가 대들보를 얹었대요. 서낭당을 찍어다가 대들보를 얹었는데 이 서낭귀신이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아, 자길 짤라다가 대들보를 얹었는데 이 놈을 한번 혼을 내켜야 되겠어서,

"오 이놈 한 번 내가 혼을 내키겠다."

고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삼 년 대통운이 튄 사람이네. 그래 천상 삼 년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대통운이 튄 사람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 서낭귀신이 인제 그 대들보에 매달려서 삼 년을 있다 보니까 아, 삼 년째 가서 장가를 드네. 이 사람이 아, 장가를 드는데 아, 십 년 대통운 튄 여자를 얻는단 말이야. 아뿔싸, 이게 또 꿈이 무산이란 말이야.

"십 년 기달려 가지구 넌 인제 하여튼 또 내가 넌 처벌을 할 꺼다."

허구선 매달려 있는데 아, 십 년째 가 보니까 아들을 하나 낳는데 삼십 년 대통운이 튄 아들을 낳네. 아, 그리니 그 다음엔,

"야 이놈이 집에 있다간 내가 굶어 죽겠구나."

그래 서낭귀신이 해결을 못 하구 그래선 저기 갔드래요. 그래 운만 열리면 무식한 사람도 그렇게 산다는 얘기에요.

* 강신표, 남·55.
* 화촌면 야시대2리, 1987.2.11., 강동규 조남혁 조사.
* T. 1—18—1

서낭귀신을 꺾은 황고집

예전에 황고집이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그 대개가 이 높은 산령을, 이 고개를 넘어갈래믄 서낭이래는 게 있어요, 대개가. 근데 어느 큰 영을 하나 인제 넘게 됐는데 그 영은 보통사람은 못 넘어간대요. 그래 어떤 사람이 넘느냐 하면은, 거기에 가서는 돈을 갖다 그 서낭 앞에다 놓구 그래야만 넘어가지, 사람이 가든 말이 가든, 굽이 달라붙어 가지구선 안 떨어지는 그런데가 있대요. 돈을 안 놓으면 못 넘어가는 자리가. 그래 이 황고집이래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버릇을 고쳐 놔야지. 그런데 그 서낭귀신은 뭘 제일 무서워하느냐 하면 백마 피를 제일 무서워한대요, 백만 피를. 그래 백마를, 인제 정매꾼[1]을 잡혀가지구 백마

1) 경마잡이, 견마꾼.

를 타구서는 그 고개를 넘어가라구 끌으니까 아, 말이 굽이 달라붙어 가지구 안 떨어지네. 정매꾼더러 아, 말을 몰아라, 때려라 해도 말이 응벵이만 꺼불꺼불, 발목이 딱 달라붙어 떨어지질 않네. 그러니까 정매꾼을 시켰어.

"이 말을 잡아라."

아, 말을 잡아가지구 피를 그냥 서낭에다 막 디리 뿌리군, 그 다음엔,

"말가죽을 벳겨라."

말가죽을 훌렁 벳겨 가지구 서낭에다 콱 씨워 놨네. 그리군 집에 온 거야. 서낭귀신이 세상 그놈의 말가죽이 무서운데 자 이걸 벳길 재주가 있느냐 이거야. 황고집더러 벳겨 달라고 인제 꿈에 나와서 선몽[2]을 하는 거야.

"너 만약에 니가 이 말가죽을 안 벳겨 놓으면 내일 몇 시 몇 분에는 느 큰 아들 잡아간다."

"잡아갈 테면 잡아가거라. 나 안 벳겨 주겠다. 니가 행실 닦기 전에는 못 벳겨 주겠다."

그래니까 아 참 그말대로 아 그 이튿날 제냑[3]이 되니까 멀쩡한 아들이,

"아구 배야."

하더니만 펄떡펄떡 까물어치드니 쭉 뻗어 버리네. 그래 가 장사를 지냈지. 장사를 지내구 나니까 또 서낭귀신이 또 선몽을 하는 거야.

"너 이놈, 그래도 못 벳겨 주겠니?"

"나 못 벳겨 주겠다. 니가 행실을 곤치기 전에는 못 벳겨 주겠다."

그러니까,

"그럼 너 내일은 내 네 둘째 아들 마주[4] 잡아간다."

"마주 잡아가거라. 마주 잡아가. 나까지 잡아가도 근심 안한다."

그러니까 아, 그 둘째 아들이 또, 멀쩡하던 둘째 아들이 또 펄펄 뛰더니,

"아구 배야."

허더니 아주 죽어 자빠지네. 또 갖다 장사 지냈지.

그래 이 황고집이 대단한 고집이란 얘기에요. 웬만한 사람은 집에 들며서 얼른 가 벳겨 줄 텐데. 그래구 나니까 아, 또 선몽을 하는데,

2) 현몽(現夢). 3) 저녁. 4) 마저.

"너 세째 아들 또 잡아간다."

이거야, 마지막에. 그래 이 사람이 삼형젤 다 죽이게 될 판인데, 웬만한, 간 약한 사람 같으면,

"아유, 내 벳겨 줄께 좀 살려 다구."

그럴 텐데 다 잡아가라 이거야.

"그럼 나중에 나까지 잡아가두 눈 깜짝 안한다. 잡아가라. 니가 그 행실을 곤치기 전에는 내가 못 벳겨 주겠다."

그래니까 아, 그 다음날 진짜 안 벳겨 주면 세째 아들 잡아간다는데, 아들이 펄펄 뛰네. 인제 그 아들이 다 죽어 가서 독이 날 대로 났대는 얘기야. 이 사람이 고집도 시지만[5] 독도 날대로 나. 아들이 둘이 죽었는데, 세째 아들이 마저 죽을 판이니 독두 날 판이지.

"다 잡아가라. 나까지 다 잡아가라. 절대 니가 항복하기 전에는 내가 못 벳겨 주겠다."

아, 그럭저럭 하다보니까 그 세째 아들이 죽질 않구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까무러쳤다가 도루 살아났어. 살아났는데 그냥 뭘 멀쩡히 먹는데 서낭귀신이 다시 와서는 항복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엔 황고집한테 가서

"사실 너 으째 그렇게 고집이 세냐? 내가 여태까지 꺾어부칠라고 했는데 니 말가죽 좀 제발 벳겨 달라."

"난 못 벳겨 주겠어. 니가 그 행동을 곤치기 전에는, 그 손님이 넘겨댕겨도 근심없이 넘어댕기게 해 놓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난 못 벳겨 주겠다."

그러니까,

"제발 안 그럴 테니까 제발 벳겨 달라. 내 느이 큰 아들하구 작은 아들은 그날 그 시각이면 어짜피 죽을 사람이야. 응? 어짜피 죽을 사람이니까 잡아갔지마는 네 세째 아들은 천명인데 그건 세상 아무 귀신이라도 못잡으니깐 천상에 내가 질 테니깐 제발 내한테 와서 그 말가죽을 벳겨 달라. 그러면 네 아들 절대 인제 잡아가지두 않구 아문 일 없을 테니깐 좀 제발 벳겨 달라."구.

5) 세지만.

"꼭 그러냐?"

그러니까,

"아, 꼭 그렇다."고.

아 그래 그 다음에는 참 말을 타고 거기밴 정매[6]를 잡혀 가지고 가 가지구서는 그 말가죽을 벳겨서 치우고 나니깐 돈이 아주 엄청나게 쌓였드래요. 서낭당에 묶인 거지요, 다. 그 엽전을 갖다가 그냥 그 나귀에다가 싣고 와 두, 뭐, 그 다음에는 뭐 사람이 돈도 안 놓고 그냥 막 넘어뎅겨도 관계가 없고.

그래 그 황고집이 예전에 무지하게 고집이 서[7]가지고 그 서낭귀신을 꺾고 살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 강신표, 남·55.
* 화촌면 야시대2리, 1987.2.11., 전신재 강동규 조남혁 조사.
* T. 1—18—1

손님 끊으려다 망한 부자 1

큰 부잣집에 손님네가 어트게나 많이 드는지 말이야, 메느리가 당세[1] 뭐 밥을해 대기가 아주 힘들어서 죽겠드래. 당최.

"아 이걸 어떡해야 모면을 하나?"

허구선 근심을 허구 지내는데 하루는 중이 와서 동냥을 달라 그래더래. 그래서,

"동냥은 내 아주 후히 드릴 테니깐 우리집에 아 손님네 안 오두룩만 좀 해달라."

구. 그러니까 가만 있더니만

6) 견마. 7) 세어.
1) 당최.

"될 수가 있다"

구. 그러더래.

"그 어떡허믄 되겠느냐?"

애길 물으니깐 하는 말이 그 집 이렇게 산 밑이 되는데 소바우가, 소처럼 생긴 바우가 인제 이렇게 그 집을 향해서 있드래. 그래 모가지가 있어.

"모가지를 뚝 잘러 노믄 손님네가 안 온다."

이렇게 애길 하더래. 그래서 인제 그 이튿날 석쇠를 들어서 경을 페야지, 그 모가지를 딱 짤라버렸대. 짤라버리니까 그 다음에부터 손님두 안 오구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망해 버리구 말드래. 손님네가 안 오구.

* 박명선, 남·79.
* 화촌면 구성포리, 1988.6.22., 엄기주 오애리 성길제 이용인 박미연 조사.
* T. 1—8—2

손님 끊으려다 망한 부자 2

오도치,[1] 방골.[2] 화전리[3]가 요렇게 들어가 가지구 아주 맨 끝인데 일루 가면 오도치구 일루 가면 방골인데, 요 산모퉁이에 여기에 집이 하나 있었어요, 큰집이. 나 떠날 때만 해두 몇 백 가마니나 실이 했었어요. 〔조사자 : 아 예. 큰 장자집이네요.〕 그전 옛날에 그 거기 아주 큰 부자, 큰 부잣집인데 그 산이 무신 혈이루[4] 내 봤느냐 하며는 늙은 쥐형국이다 그 말이야. 그 집자리가 쥐형국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산잔등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구 여기 뚝 떨어져서 인제 여기 집자리가 됐는데 이 산이 형체가 늙은 쥐형국이다 그래. 근데 그네 잔등이 이렇게 나와 내려 가지구는 그

1) 吾道峙. 南面 花田里에 있는 마을. 2) 放谷. 南面 花田里에 있는 마을.
3) 花田里. 南面에 있는 마을. 4) 무슨 穴로.

집자리를 이렇게 디려다보고 있는데, 이게 괴이산[5]이다. 그말이야 괴이[6] 대가리. 근데 이 대가리가 지금 현재까지 가 봐도 바우가 허영구 꺼멓구 허영구 꺼멓구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보여요. 아주 괴이 대기리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부자가, 아주 부자루 산다 그 말이야, 아주 그 손님들, 거지들, 어떻게 모여드는지 도무지 귀찮거든. 그래 그 한번은 하루는 중이 와서 동냥을 달라 그러니까 그 그집 며느리가 떡 나와서 하는 말이,

"여보 대사, 내가 동냥은 후히 줄 터이니 거 우리집이 그지나 손님이 안 오게 해줄 수 없소?"

"아 그 될 수 있겠지요."

나서서 두루두루 사방을 살펴보더니마는,

"조기 조 개울녘에다 저기다 돌담을 하나 쌓오. 큼직하게 돌담을 하나 쌓오."

돌담이 아마 이 집보다는 컸었소. 개 뭐 그 쌓구선 그냥 망했다 말이야. [청중 : 아니 왜 망했어?] 왜 망했냐 하면 고냥이가, 고냥이가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이 쥐가 꼼짝 못하고 있는 건데 돌담을 쌓아 놓으니까 돌담으로 뚫고 다 들어가지. 아, 그러니까 명기가 망가진다 그런 얘기지.

* 남태희, 남·71.
* 남면 시동3리, 1987.7.8., 김성수 정은정 곽노실 정명수 설걸제 조사.
* T. 4—10—1

손님 끊으려다 망한 부자 3

옛날에 부자가 사는데, 며느리가 설겆이가 귀찮대. 맨날 손님이 찾아와서. 하루는 중이 온 것을 설겆이가 귀찮아 죽겠으니,

5) 고양이산. 고양이 모양의 산. 6) 고양이.

"왜 그런고?"

하고 중이 물어 봤대.

"손님이 많은가?"

하고 물어 보니까 중이 할아버지 묘가 잘못됐으니 묘를 파내면 손님이 안 든다구 하더래. 그래서 할아버지 산소를 파내니까는 아주 그 안이 하얗게 꽃이 폈드래. 그러드니 학이 날이 가드래. 그래서 학이 날아 가서 다시 묻었대.

근데 글쎄 이튿날부턴 그 집이 망하기 시작하는데, 그 집이가, 나중에는 께끗이 그지[1]가 되드래. 부자가 된 게, 손님 오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 설것이 하기 귀찮다고. 그래서 손님이 오는 게 좋지, 안 오는 건 나쁘다는 거야.

* 박선녀, 여·57. 개운리에서 태어나 이주 경력 없음.
* 동면 개운리, 1988.6.23., 이동수 한호순 박삼희 박승림 조사.
* T. 3—16—1

손님 끊으려다 망한 부자 4

옛날에 가매봉[1] 산 밑에 홍씨가 살았어요. 큰 부자지요. 그 집이가 손님이 하루에 수십 명씩 든다 이거야. 그래 그 집 며느님이 가만히 생각해기를,

"아, 인제 손님이 들어 지겨워 죽겠다."

이기야[2]. 심부름해 주기가. 그래서 하루는 어느 스님이 들어오시는데, 그분

1) 거지.

1) 斗村面 遠洞里의 文峯里 뒤에 있는 산. 갈모〔←갓모〕 또는 노적가리처럼 생겼음. 갓모봉, 갈미봉 등 여러 명칭이 있는데 일반적인 통칭은 갈미봉임. 2) 이거야.

스님도 손님이 아니겠수? 그래서 쌀을 떠다가 시주를 하고 〔스님이〕 돌아스는 걸 다시,

"아 스님 저 좀 보고 가세요."

말씀을 드렸다 이기야.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집엔 손님이 하루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명 찾아들 오는데 손님 좀 안 들어오는 방식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이거에요.

"예 그러세요."

그래 스님이 앞산을 보고 뒷산을 척 내려다보니 손이 참 많이 들게 생겼드라 이거에요. 그래서,

"저 앞에 저태[3] 보이는 뿌리[4]를 끊으며는 손님이 안 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에요. 그러자 며느리 되시는 분이 아침에 〔시아버님에게〕 얘기를 했지요.

"그 앞산의 뿌리를 끊으며는 손님이 덜 든댑니다."

그러니까 시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이 못된 너석. 사람의 집안에 손님이 드는 걸, 그게 그렇게도 싫더냐?"

걱정을 들었다 이거에요. 아 그래도 며느리는 그게 좋지 않아 가지구서, 길이 나게 되는데, 길을 그리 돌려 가지구서 뿌리를 끊게 길을 냈다, 이거에요. 돈 푼이나 있고 부자니까. 그 뿌리를 끊으니까 거기서 피가 나더라 이거에요. 그래 일하던 사람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지요.

스님은 앞을 내다보는 사람 아닙니까? 한번 쓱 왔더라 이거에요. 와 보니까 거길 끊었는데 참 바로 끊었구나 생각했는데 그래구 보니까 그 집이 점차 점차 손님이 안 들구 집안이 될 일이 안 되구 자꾸 손실만 되는 거지. 낭패가 되구. 스님이 지나가는 걸 보구서 며느님이 불러들였대요. 들려가시라구. 그래 쌀을 드리고 그러니깐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3) 곁에. 4) 마주 보이는 산의 山穴을 말함.

"아 요즘에도 손님이 많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손님이 안 드십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며느님이 이렇게 애길 허니까,
"알려 드리지요. 이거는 인제는 도저히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법. 그러니까 똑똑히나 알아두시오."
하구선 애길하더라 이거예요.
"저 앞에 보이는 저 산이 쥐형국이요, 쥐. 고 곁에 끊은 게 고앵이[5] 꼬리요."

쥐가 거기서 있는데 고앵이 때문에, 자기가 사는 뒷산이 노적봉인데, 쌀쌓고 하는 노적봉 있잖아요? 노적봉인데, 쥐가 그 노적봉을 노리구서 훔쳐 먹을래야 훔쳐 먹을 수 없지. 고앵이가 딱 버티구 있기 때문에 하나투[6] 건드리지 못했다 이기야. 그래 지금 고앵이 꼬리를 잘라놨기 때문에, 고앵이는 망가졌기 때문에, 쥐가 거기서 연신 물어가기 때문에 그 집이 앞으로도 좋은 일은 못 봅니다. 그래 그 집이 몰락했어요. 자식을 못 본 거지. 며느리대에 가서 자식을 못 보구서 몰락하구 말았지요.

* 홍완기, 남·57. 상업(구멍가게). 두촌면 장남리 출생. 동네에서 소리를 잘 하신다고 정평이 나 있는 분임.
* 두촌면 장남리 남덕동 홍완기씨댁, 1987.7.11., 김성수 유은영 전계진 조사.
* T. 6—2—2

손님 끊으려다 망한 부자 5

매봉 끝으로 내려와서 개명산이라고 있지. 그 산으로 내려와서는 복판에 돌이 삐죽이 나온게 있지. 그걸 고냉이바우라구 하는데 여기서는 안뒷골,

6) 고양이. 7) 하나도. 조금도

고 건너는 쥐산이야. 이짝으로는 노적봉이라구 있지. 꼭 노적처럼 생겼지. 그 아래 부자가 있었지. 얼마나 부잔지 만날 사람이 들어 죽을 지경이라 이기야. 며느리가 못 배기겠더라 이거야. 하루는 대사가 와서 동냥을 달라 그런다 이거야. 나가서 그 부인이,

"우리집에 손님이 끓어 죽갔으니 이걸 막아 주면 시주를 많이 하겠다."

구 이거야. 그러니까 중이 들어오더니,

"저 끝에 바우를 때려 치우면 손님이 안 들겠다."

구. 그래 그 부인네가 사람을 들여 가지구는 고냥이 바우를 깨 치워 버렸다 이거야. 쥐가 고냥이 때문에 못 건거온거라 이거야. 그걸 치우니까 쥐가 노적을 다 파먹으니까 부자가 망해 버린 거지. 〔조사자 : 고양이 어느 부분을 자른 거예요?〕 고냥이 대가리를 없앤 거지.

쥐가 노적봉을 파먹으려구 잔뜩 노리고 있는데, 고냥이 때문에 못 건너온 건데, 그걸 다 파버렸으니 쥐가 다 파먹어 버린 거지. 그래서 부자가 망해 버렸지 뭐.

* 엄익성, 남·73. 농업. 함경도 출생. 14세에 홍천으로 이주.
* 두촌면 철정2리 지다치 엄익성씨댁, 1987.7.11., 김성수 유은영 전계진 조사.
* T.6—3—1

손님 끓으려다 망한 부자 6

저기 저 덕탄[1]이라는 데 수레바우[2]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믄 알지만 전연 바우가 어떻게 생겼는고 하믄, 시방 여기 저 화물차 왜, 그거처럼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요. 꼭 그것처럼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인제요 이 저 샘발이라는 데 그전에 부자가 살았었대요. 부자가 살았는데 손님이 하두

1) 德灘, 서일〔서곡리〕 앞에 있는 내촌천의 큰 여울. 2) 안실〔內瑞谷〕 남쪽에 있는 바위. 수레와 같이 생겼음.

많이 끼어들거든. 그런데 하루는 인제 중이 와서 동냥을 달라고 하니까 그 며느리가 나가서 하는 말이,

"내 동냥은 당신 달라는 대로 줄 테니 우리집에 손님 좀 안 오게 해 다구."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그래라 그건 뭐 쉬운 일이다."

시방 저 덕탄이라는 데 수레바우가 있어유. 거기 그전에 돌이 이렇게 엎혔어요.

"그걸 가서 떠넘기면은……"

그라구 또 고 뒤에 약수가 있어요. 약수를 아주 묻었다구. 그래서 시방 돌이 엄청 많지.

"고 옆에 약수를 때려메우면 손님이 안 올 테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그니까 사람을 사 가지고 약수를 돌을 쳐서 때려메우고, 덕탄 가서 그 수레바우 꼭대기 돌을 떠 굴렸단 말이유. 그래 그 집이 싹 망했지 뭐. 그러니까 손님이 안 올 거 아냐? 싹 망했으니까.

* 허태경, 남·77.
* 내촌면 서곡리 안실, 1986.7.21., 전신제 정성화 최 훈 신정복 정은정 송동찬 윤홍기 김진희 김성욱 조사.
* T. 4—1—1

중을 박대하고 망한 부자 1

'망전'이라는 동네 이름은 원래 한자로 '望田'이라고 썼다. 어느날 스님이 이 마을에 와 시주를 청하였는데 모두들 시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박대를 했다. 화가 난 스님이 이 동네 이름을 '亡田'이라고 고쳐 불렀다. 그후 동네 사람들이 '亡'자가 싫어서 '德田'[1]으로 고쳤다.

1) 乃村面 瓦野里 남서쪽에 있는 마을.

* 허홍량, 남·55. 내촌면 서곡리 출생. 와야국민학교 교사.
* 내촌면 와야리 와야국민학교, 1987.7.11., 전신재 허남춘 이원미 이홍식 조사.
* 녹음기 고장으로 문장체로 정리했음.
* 100여 년 전에 이곳에 살던 큰 부자가 시주 온 중에게 거름을 퍼 주고 내쫓아 버린 뒤로 망했다 함.[2]

중을 박대하고 망한 부자 2

어느날 중이 와서, 옛날엔 삼불중[1]이라구 서식[2]하구 그러는데, 마굴[3] 치는데, 시아버지가 마굴 치는데 중이 와서 그래니깐 그 못 주면 그냥 가라구 그럴 게지, 쇠똥을 이렇게 퍼다

"이거 가주 가거라."

그래니까 중이 서슴지 않고 바랑을 벌리고 바랑에다 받아 넣었다 이거야. 춘천 저 아침못이라구 샘밭[4] 거기에 있어. 아 그러니깐 자부가

"아이구 성님[5] 안 됩니다."

그저 쌀을, 참 뭐 푸근히 한 말은, 뭐 몇 되 잘 가져와서

"아이구 성님[6] 이거만."

"아이구 마님."

인제 그땐 마님이라구 그랬어요, 웬만한 집은.

"그저 마님이나 사슈, 나만 따라오심 살우."

그래 원 할 수 없이 따라갔단 말이야. 근데 그 날 저녁 뇌성벽력을 허구, 그 집터가 뭇이 됐어. 그래서 그게 아침못이야.

* 이순훈, 남·75. 하화계리 출생.

---

2) 「한국지명총람」2 (한글학회, 1967), p.536.
1) 정월달에 쾡과리 치면서 시주 받는 중. 2) 시주 받는 것을 의미하는 듯.
3) 마굿간을. 4) 江原道 春城郡 新北面 泉田里. 그러나 아침못은 柳浦里에 있음.
5) '아버님'의 잘못. 6) '스님'의 잘못.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엄기주 조옥희 장기영 최광현 조사.
* T. 5—7—1

소를 잡아먹는 메기

옛날에 말이 전해 오는데, 누가 소를 갖다가서 그 용소 앞에다 갖다 맸는데, 송아지가, 끌려 가니까 송아지가 없드래. 그래서 어디루 갔나 하니까, 쇠고뜨레[1]가 그 용소로 들어갔드래. 이렇게 해서 그 괴삐를 잡아닥치니깐 이놈의 메기가 딸려오면서 그 저 꼬리를 바우, 지금 바우가 그저 있으니까, 닥 치드래 그래서 용은 되지 않구, 그렇게 됐다구 그랬어. 〔청중 : 근데 얼매나 커서 그래 메기가 용이 됐다 그래?〕〔조사자 : 그래서 메기가 올라가서 용이 되었대요?〕 용이 못 됐지.

* 김동훈, 남·80, 북방2리 출생. 약간의 한학을 했음.
* 북방면 성동2리, 1987.7.7., 김진희 정금란 강하구 최용현 조사.
* T. 6—2—1

소를 잡아먹는 이무기 1

이 강이 화양강[1]이야. 화양강 줄기루 위루 있는데 말이야. 연못이 이렇게 크단 게 둘 있었어. 근데 거게 짚기가[2] 명짓고름[3] 하나가 인제 모자란다 이런 얘기가 있었구. 〔청중 : 근데 거기 용이 있었다 그르지. 용 돼 올라갔다

1) 쇠코뚜레.
1) 華陽江. 洪川邑을 감싸고 흐르는 강. 洪川江이라고도 함. 2) 깊기가. 3) 명주꾸리.

구.〕 그런 얘기가 인제 있었는데 그 전에 기시미[4]를 이렇게 저시기 물 속으로 들어가서 이거 몇 년 됐나 이거 보러 댕기는 사람이 있었대. 그래서. 〔조사자 : 기심이요?〕 〔청중 : 으시미지, 으시미. 용 돼 가는.〕 응. 으시미. 그걸 이제 보러 댕기는 사람이 그걸 뭐라 그러던가? 그 사람이 인제 가서 맨저 보니깐 얼마 있다 이게 인제 용이 되어 올라간다구 인제 그랬는데 말이야, 그 삼포 사람이 거다 소를 갖다 맸는데 소가 없어졌드래. 그래 이렇게 돌아댕기다 보니깐 그 내 껀[5] 이 연못으루 들어갔드래, 못으로. 그래 잡어댕기니까 다 짤라먹구 대가리만 이렇게 나오더래.

그래서 거기서 인제 그래 가지구서는 인제 오래두룩 계속 인제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인제 거서 여자가 물에 빠져 죽었어. 그 못에서. 빠져 죽은 뒤루 인제 그 다음 핸가 이렇게 있었는데 천둥을 허구 인제 아주 번개를 허구 저시기 인제 비가 막 오구 그래구서는 이렇게 무지개가, 안개가 끼구 무지개 같은 게 올라가구 그런 뒤룬 그 못이 그만 장마가 지믄 메꾸스구[6] 이제 아주 없어지구 말았어. 그런 얘기가 있어.〔청중 : 한 사십년 오십년 됐어.〕

그니까 그 용이 나갔으니까 인제 그랬으니까 인제 그 메꾸겼지.[7] 그 용이 있으면 그건 내뿜어 가지구선 묶이질않게[8]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 아주 무척 짚었었어 아주.

* 박명선, 남·74. 17대째 거주.
* 화촌면 구성포리, 1988.6.22., 엄기주 오애리 성길제 이용인 박미연 조사.
* T. 1—8—1

소를 잡아먹는 이무기 2

쇠목소[1]가 왜 쇠목소냐? 그 내력을 얘기하지. 소를 여름에 내다 맸는

4) 이시미. 이무기. 5) 꾼, 고삐. 6) 메꿔지고. 7) 메꿔졌지. 8) 메꿔지질 않게.
1) 乃村面 和尙垈里 연못골〔연동〕에 있는 못.

데 저냑때[2] 끌러 가니까 〔소는 없어지고 못 가운데에서〕 쇠괴삐[3]만 나오잖아, 모가지만. 거기 아주 층암절벽에 굴이 있어. 그러니까 으시미가 나와설라므네, 〔조사자 : 으시미요?〕 뱀 큰 것이 천년을 묵으면 으시미[4]가 되잖아? 이마마한 용이 되잖아? 으시미가 커 용이 되잖아? 삽천 년은 묵어야 용이 돼. 육지 천 년, 물 천 년, 산간 천 년 그래. 삼천 년을 묵되 인간 사회의 어지러움을 보질 않아야 돼. 아 그래 쇠모가지만 나온단 말야, 괴삐를 잡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쇠목소지 뭐. 쇠모가지만 나오니까. 아 으시미가 잡아먹었으니까, 그 속에서.

* 박관석, 남·78. 내촌면 도관3리에서 3대째 거주. 약간의 한학을 함.
* 내촌면 도관3리, 1986.7.22., 정덕준 황병로 김요섭 홍호석 허 평 강경행 박형규 조사.
* T. 3—4—1
* 쇠목소 : 내촌면 학상대리 연못골에 있는 못. 이조 때 座首가 이 못 가에 소를 매 두었다가, 저녁 때 끌어 오려고 가 보니, 소가 없어지고, 고삐만 못 가운데 떠 있으므로, 이무기가 소를 잡아먹은 것이라 함.[5]

소를 잡아먹는 이무기 3

인제 고 아래[1] 또 내려오면 메지소[2]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메지소 메지소 그랬는데 깊이가 수십이 한 오미터 되지요. 그전에는 상당히 깊었어요. 그전에는 명주 한 꾸루미[3]가 모잘란다구 이제 그러기두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바우에 이만츰 뻘건 들이자리가 나 있습니다. 그니깐 하이간[4] 그 넓은 바닥에 쭉 이게 지금 그 길께부터 시작해 가주는 이제 그 개

2) 저녁때. 3) 소의 고삐. 4) 이시미. 이무기. 5) 「한국지명총람」2 (한글학회, 1967), p.537.

1) 아들바위 아래를 가리킴. 2) 瑞石面 下軍杜里 북쪽 산밑에 있는 소. 3) 꾸리. 4) 하여간.

울루 이렇게 쑥 들어갔거든유. 그래서,

"용이 지나간 자리다."

인제 그 이렇게 이야기하구 있구 거기 인제 그뭐 구렁이가 그 오래된 걸 으시미라 하잖아유, 으시미라구.

인제 그래는데 소를 갖다 매면은 소 고삐만 남구 소는 간 곳이 없다, 그래 그걸 알아보면 그 메지소 안에는 으시미가 이제 소를 잡아먹고 쇠 고삐만 냄겼다는 거에요.

에 그래구 그 물 밑으루 들어가믄 이런 굴이 있읍니다. 그게 인제 으시미 굴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더러 들은 적이 있구, [조사자 : 거기에 개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면 비온다는…] 그렇지 인제 그 이를테면 심하게 가물면 소위 그 기우제라구 헤 가주구선 거서 누차 지냈쥬. 그 개나 돼지를 산 채루 인제 가주 가서는 거기서 그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인제 목을 딴다든지 또 그 개 같은 경우에는 달아매서 피를 거기다 흘리구, 이 아낙네들이, 부인들이 그 치[5]라구 그 까부는[6]것 있잖아유? 그걸 가주구 가서는 물에다 대구 이 자꾸만 흔들흔들 하면은 그 담엔 인제 비가 오드라 그래서 인제 그기서 기우제 지내는 건 즈도 봤어요.

* 김태영, 남·58. 3대째 서석면에서 살아옴. 면장을 지냄.
* 서석면 풍암1리, 1986.7.21., 허남춘 오애리 이홍식 김명숙 김제훈 문재우 조사.
* T. 1—1—2

용이 들어가 부자가 된 머슴

그 용두안[1]에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면 용두부리라구 산이 흘러내려가 가

5) 키. 6) 까부르는.
1) 龍頭岸. 瑞石面 魚論里에 있는 마을. 마을 뒷산이 용의 꼬리 모양이고 이 마을은 용의 머리 형국이라 함.

지군 뻥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전에는, 지금 이 하천이 내촌천이라고 해서 방죽으로 빠졌지만 그전에 이 개울이 가서 그걸 이렇게 감구 돌았어유. 그 감구서 흘러서 건너갔거던유.

근데 거기 인제 이씨, 우봉 이씨네가 있어유. 그분은 인제 작고를 하셨지만 이석구씨라구 해 가주서는 우봉 이씨네가 이제 살았는데 요 아래 살았지유. 그 인제 서석서 우리 알기루두 그때만 해두 대호라구 했지요.

하루는 어느 그 최씨, 강릉 최씨지 하이튼[2] 최씨임은 분명해요. 남의 집일 사는 분인데 그니까 어렵게 살면서도 이 사람 마음이 그렇게 착하던 모양이죠. 그때만 해두 인제 그 농사일을 돕기 위해 머슴살이두 하구 그리는데 하루는 스님이 지나다가,

"그르지 말구 당신 마음이 이렇게 착하니 당신두 잘살 길이 있다."

구 하면서,

"이 연못에 으시미[3]가 있는데 이것을 메우면 으시미가 도망을 간다. 도망을 가게 되면은 반다시 으시미 복구렁이는 당신 집으로 갈 테니 이걸 메우도록 해라."

그래 그 우봉 이씨네는 그걸 못 메우게 하는 거지요. 그래 인제 그 우봉 이씨네한테 가 이야기를 했어유.

"이걸 메우고…"

그 지금 다 농경지가 됐읍니다마는,

"이걸 메우구 농경지를 해게 되면은 농토도 넓어지게 되고 많은 수확도 보게 되니 메웁시다."

했더니 워낙 인제 부자구 또 이 농토에 대한 욕심두 있구 그러니까 이분이 거 멋도 모르구 메웠다구 합니다유.

메우니깐, 뭐 어느날 저녁인지 그건 내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천둥을 하구 번개를 하구 그래드니 그게 다 메워졌다는 거쥬. 뭐 이렇게 인력을 투자 안 해두 자연적으로 이제 메워졌다구 하는 거쥬. 그랬는데 이제 그 거기서 그 복구렁이 으시미라구 하는 것이 이 최씨네 부인이 보니까는 그래

2) 하여튼. 3) 이시미. 이무기.

눈에 어렸든 모양이쥬. 집에 들어가니까는 이제 방안에 그 서리서리 하구 있더라 이런 이야기에유.

그래서 인제 그 그때만 해두 들 때가 돼서 그랬다구 하는데 그 떡시루 있지 않습니까? 구멍이 뚫어진 떡시루 갖구선 이렇게 그것을 인제 가려서 이렇게 얹어놓구 쌀이 없으니까 가난하게 사니깐두루 이석봉씨네, 그 저기 우봉 이씨네 댁에 갔어유, 지냑때.[4]

"당장 때 끓일 게 없으니 쌀 한 댓되만 어떻게 좀 꿔 주슈."

그랬더니 쌀 한 댓되만 꿔 줬던 모양이쥬. 그래 그걸 갖다가서는 메를 짓구, 밥을 깨끗이 짓구, 그 시루다 놓군 인제 절을 하구 이래구 있자니깐 자기 남편이 들어왔는데 그니까,

"뭐 하구 있나?"

그랬더니

"이런 게 눈에 보여서 우봉 이씨네 댁에 가서 쌀을 꿔다가서는 세웅메[5]를 지어서 이렇게 빌구 있노라."

구 그랬드니 그 남편이,

"어디 좀 보자."

구 하구 시루를 들어 보니깐 흔적이 없드라는 겁니다. 흔적이 없었는데 그 부인한테 인제 눈에 어렸고, 으시미가 반다시 그 집에 인제 그 복이 들어갔다구 하는 이야기쥬.

그래가지구선 인제 자꾸만 이 집이가 붇는 거유. 자꾸 이제 그 뭐든지 일을 하면, 농사를 해두 잘 되구 장사를 해도 잘 되구 이래가주구선 있는데 그 재산이 결국은 그 이씨네 재산이 이 집으로 몰려갔다, 이런 이야기두 들려 오대요.

* 김태영, 남·58.
* 서석면 풍암1리, 1986.7.21., 허남춘 이홍식 오애리 김명숙 김제훈 문재우 조사.
* T. 1—1—2

4) 저녁때. 5) 새옹메.

용이 나가서 망한 부자 마을

여기가, 그전 이야기로다가는 서석을 팔팔리라고 했는데 팔백석 하는 부자가 여덟 집 있다고 해서 팔팔리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 것이 중도에 가서 인제 그게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느냐 하면 그게 바로 전설이라는 거에요.

요 밑에 내려가면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가면 용두안[1]이라고 그런다구요. 용두안이라는 데 가면 용두뿔이라는, 그 지금도 보면 산턱에 이렇게 나온게 있는데 지금은 이게 미끈하지만 그전엔 그 용두뿔이라는 게 뾰족했어요, 이게 팽이식으로다가.

인제 그 밑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뭐야 그러니까 산뿔이[2]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부자로 살았는데, 한 팔백석 정도 하는 부자였었는데 그 사람이 욕심으로다가 그 용두뿔을 까내려 가지고 연못을 메꾼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연못을 메꿔 가지고서는 논을 해 먹을려고 메꾸는데 거기서 용이 나갔다는 이야기야, 용이 살다가. 지금도 지나다가 보면, 흔적이 없는데, 농경지 하기 전에는 이 봇두랑[3]이 이렇게 나갔는데, 그게 바로 용 나간 자리라고 해서 봇두랑이 있는데, 그 봇두랑으로 용이 나가 가지고서는 공중으로 날라서, 저기 가면 지금도 산을 보면 형체가 이렇게 파인 데가 있다고요. 그것을, 바위를 끊구서 그 위에 그 너머 용소라는 소가 있는데 그 소로다가 넘어 들어갔다는 거에요.

그래고서부터는 서석이 망하기 시작하는데, 팔팔리라고 이야기하는 여덟, 그 뭐야 팔백석하는 이가 여덟씩 있었는데, 다 망했어. 싹 망해 가지고서는 이 서석에 도통 돈이 붙지 않나봐요. 하여간 나도 겪은 일이 아니고 인

1) 龍頭岸. 瑞石面 魚論里에 있는 마을. 2) 산부리. 멧부리. 3) 봇도랑

제 들은 이야기인데 노인네들이 그 뭐 미주알 모여 가지고서는,

"이래선 안 되겠다.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서는 저기 가서 다시 복구를 해야겠다."

이래가지고선 이 면내에 부역을 구해 가지고선 그 산을 또 막았다는 거에요.

이걸 돌을 쌓아 가지고 그 용이 뚫고 넘어간 자리를 그랬더니 이 재산 같은 건 도로 불는데 이제 아이들이 벌써 뭐야 열 한 너덧 대엿 살만 되면 머스마고 여식아고 간에 바람이 나 가지고서는 날뛰는데 도통 배길 수가 없거든. 그것도 큰일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건 도통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았다가 다시 가서 헐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가 보면 지금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완연히 이렇게 바위인데 아주 폭 파인 데가 있다구, 그래서 그 여기 서석의 전설이라면 내가 알기로는 그거 한 가지밖에는 몰라요.

* 사광해, 남·74.
* 서석면 풍암1리, 1986.7.21., 김제훈 문재우 이홍식 오애리 김명숙 조사.
* T. 1—2—2
* 풍암2리에 사는 최주호(남·74)씨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이야기에서는 지나가던 지관이 시켜서 소를 메운 것으로 되어 있다.

용과 사람의 힘내기 시합

〔조사자 : 용전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이게 이 이렇게 됐다구. 저기 저기 집 보이는 데 저기가 도룡골[1]이거든. 근데 고 산[2]하고 요 산[3]하고가

1) 도룡골. 구예기 동쪽 홍천강 건너에 있는 마을. 앞 강에서 용이 등천했다 함. 2) 그 산. 3) 이 산.

떨어졌단 말이지. 요렇게, 옛날엔 강이 이렇게 돌아서 일루 들어갔단 애기지. 근데 그 골이 뚝 끊어졌잖아? 글쎄, 옛날에 어느 장수하고 용하구 둘이 내기를 했다 이거야. 그 장수는 서울에 가서 뭐 아침 반찬 사오기로 하고, 용은 이걸 끊기로 했다 이거야. 그 이렇게 저 도롱골 산을 돌아 길따른[4]데가 있다구. 장군이 거길 돌아 오니까 이게 끊어졌다는 애기야.

그런 전설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보면은, 지형적으로 보면은 요놈의 산이 동떨어졌거든. 요게, 거기서 뚝 끊어졌다구. 이 저기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를 파면 전부 강물이 나와. 이 지역에 한 이미터나 파면 다 강물이야. 〔청중 : 이 지역이 다 강이었어요.〕 그렇치, 강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조놈이 아주 끊어졌잖아? 글로다 곧장 내려 가잖아? 물이. 〔조사자 : 용이 내기한 것 말구요, 용이 등천한 것 있잖아요?〕 여기서는 등천했다는 소리는 못 듣고, 너머 용늪이라구 있다구. 이 팔봉산[5]을 중심으로 해서 용늪[6]이라구 있다구. 근데 그걸 메워 가지고 농지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옛날에 그 부자집 사람이 말이지, 그런데 이제 중이 시주를 하는데 어쩌구 어쩌고해서 비가 와 가지고 베락다운 용이 되거든. 그래서 그 용늪이 됐다 인제 그 애기지.

* 이창연, 남·55. 서울에서 출생하여 1950년에 팔봉리로 이주, 중학교 졸업.
* 서면 팔봉1리, 1987.7.7., 송동찬 김숙영 엄병화 유재선 조사.
* T. 2—11—1

두 장사의 힘내기 시합

이게[1] 붙었었다는 거지 인제. 이게 붙어서 물이 얼루[2] 내려갔나 하면 저

4) 기다란. 5) 八峯山. 홍천군 서면에 위치함. 6) 龍沼. 팔봉 서북쪽 홍천강에 있던 소. 용이 있다 함.
1) 洪川江을 가리킴. 洪川江은 강원도 중부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한강의 지류. 홍천군 응봉산에서 발원하여, 성산·홍천을 거쳐 백양 남쪽에서 북한강에 합류함. 2) 어디로.

쪽 저 골짜기로 해서 이 골짜기로 도루 나왔다는 얘기야. 이 산을 뺑 둘러 싸구선 나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제 그 용하구 싸웠다는 게 아니구, 어떤 장사가 인제,

"니가 먼저 서울을 갔다오느냐 내가 먼저 이 산을 끊느냐."

그 내기를 했다는 거지.

그래가지구 서울을 그 때 개는 걸어가는, 나막신이라고 있지, 나막신, 왜? 나무때기로 판 거, 그것을 신고 서울을 갔다오고, 또 한 사람은, 인제 장사는 여기서 이것을 끊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막 도착되자 이것두 마주 끊어서 물이 흘러내렸다는 거야.

* 이창연, 남·55.
* 서면 팔봉1리, 1987.7.7., 송동찬 김숙영 엄병화 유재선 조사.
* T. 2—11—1

목탁 소리에 바람나는 동네 처녀들

여기 가면은 고양산[1]이라구 있어요. 높을 고자 볕 양자 고양산. 그 약 칠백오십 미터, 해발 한 칠백오십 미터 될 겁니다. 거기 가며는 지금도 절터는 있지요. 거기 절이 언제 섰었는지 그거는 모릅니다마는 하이튼[2] 오래된 것만은 틀림이 없어유. 거기 안직도[3] 기왓장이 있고 거기 바위굴에 들어가면 지금도 거 샘이 나오구는 있어요.

그래 인제 그 승들이, 절에 그 노승들이 거기서 식수를 하고 거기서 인제 그 기도를 드렸고, 그 바위굴에 가서 기도를 드렸고 그 절을 지키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목탁을 치면, 스님들이 거 목탁을 치고 또 꽹과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 인제 절에서 꽹과리를 칠 거 같으면은, 바로 고기서

1) 高陽山. 瑞石面 豊岩里와 水下里에 걸쳐 있는 산. 높이 675m. 고양이같이 생겼다 함. 2) 하여튼. 3) 아직도.

내려다 보이는 데가[4] 어론일리 용두안[5]이라구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용 용자 머리 두자 언덕 안자 용두안이라구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스님들이 그 목탁을 치구 꽹과리를 치구 염불을 드리게 되문 반다시 그 용두안에 있는 젊은 출가전의 여자들이 바람이 난다 말이야. 여자들이 바람이 나서 가출을 하게 되면 거 상당히 동네두 시끄럽구, 거 불미스러운 게 아니겠어유? 지금은 좀 개안습니다마는[6] 그때만 해두 상당히 꺼려했는데 그래서 그 스님들이 염불 안헐 수도 없는 거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만 발생하게 되니깐 동네에서 들구 일어난 거에유.

"이 절을 폐하면 폐했지 이 동네가 망가져서는 안 된다."

말이야.

그래서 결국 그 절을 불을 살렸다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유. 지금도 가 보면 절터가 있지유. 그 이후에 그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십 년전 쯤에 다시 거기서 인제 복원을 할라구 절을갖다가 졌어유, 초막으로. 그래 인제 그 어떤 보살님이 그걸 지키구 암석[7] 안에 들어가서 물루다 인제 기도를 드리구 있었는데 결국 동네에서 허락하질 않았쥬. 왜그라냐면 것 같으면 지금 고대 말씀 드린 바와 한가지루 거기서 염불을 드리구 꽹과리 소리가 나면 그 용두안에 있는 아가씨덜이 그 옛날 그 구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으니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폐하고 말았어유.

* 김태영, 남·58.
* 서석면 풍암1리, 1986.7.21., 허남춘 오애리 이홍식 김명숙 김제훈 문제우 조사.
* T. 1—1—2.

4) 데에. 5) 龍頭岸, 瑞石面 魚論里 앳둔지서 남쪽에 있는 마을. 마을 뒷산이 용의 꼬리 모양이고, 이 마을은 용의 머리형국이라 함. 6) 괜찮습니다마는. 7) 암굴(바위굴).

건드리면 동네 여자들 바람나는 바위

바웃골이 있네. 그전에 백비둘기가 한 이삼십 마리씩 아주 그냥 가을이면 하에. 여기 아주 하애. 그런데 그렇게 있던 게 그게 없어지구 여기 경주 이씨 하나 살었어. 여기 경주 이씨가 그전에 여기 많이 살은 모양인데 그 저 아래 비득 바웃골이라는 게 있는데 그놈을 가 쑤석쑤석 작대기로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 그저 화냥놀러 다 갔네. 할멈이 말이야. 메누리두 과택 시어버니두 과택이, 요 짝터지, 요기서 우리가 현재 봤으니깐. 사는데 수절을 시킬라고 하니까 말이야. 환갑지난 시어머니가 소장사하고 미쳐 서울로 내뺐단 말이야. 그것도 기 가[1] 죽었지. 그것두 장사 우리가 갖다 지냈지. 여서 갖구. 며느리가 또 이 집터 살았지. 이 집터 사는데 아 또 일꾼을 뒀는데 일꾼에 미쳐서 강로를[2] 가서 씨 하나 터쳐 주곤 그 또 삼년만에 찾아왔나? 그러고 인제 저리 내뻬고는. 걸 화냥바웃골이라고 그러고 뭐.

* 조해만, 남·75.
* 화촌면 군업2리, 1988.6.23., 엄기주 오애리 성길제 이용인 박미연 조사.
* 1—10—1
* **화냥바위** : 홍천읍 동쪽 약 2㎞ 화양강(홍천강) 가에 있는 양쪽으로 괴인 돌 위에 얹혀 있는 바위. 그 밑에서 사모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그 뜻이 이루어져 화냥질이 생기므로 검률리(檢律里) 마을에서 이 바위를 없애려고 허물어 버렸더니 더욱 풍기가 문란해서 다시 그대로 놓아 두었다 함[3].

1) 거기 가서 2) 강릉을(?) 3) 「한국지명총람」2 (한글학회, 1967), p.558.

아들 낳는 바위

시방 그 지내댕기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돌맹이를 이렇게 치던지면, 돌맹이가[1] 요렇게 오목하게, 하도 고개[2]를 이렇게 적중시키니까요, 또 맞구 또 맞구 지내가는 사람마둥 이제 자꾸 던져 가지구 거기가 오목하게 파였어요.

인제 거기를 첫번에 적중을 하면 첫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못 낳는 사람이 첫아들은 아니라 하드래도 거기를 또 적중을 하면, 두 번이구 세 번째구 적중을 하면은 아들을 낳는다 해 가지구 지내가는 사람마둥 거기다 돌을 던져유. 그게 그래서 그기 말이 있을라구 해 그런 건지 대부분이, 아매 열 사람에 한 사람은 거 가 맞으면은 그 생남을 하구 아마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랬기에 지나가는 사람마둥 그걸 한 번 던져 본다는 애기에요. 그런 애기가 엣날부터 전해 내려와요.

* 이재영, 남·64.
* 서석면 생곡2리, 1986.7.22., 조남혁 정금란 박미숙 조사.
* T. 5—1—1
* 아들바우 : 서석면 검산리 조조을 안에 있는 높다란 바위. 바위 위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데, 작은 돌을 던져서 그 위에 올려 놓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함.[3]

1) 바위가. 2) 거기를. 그곳을. 3) 「한국지명총람」2 (한글학회, 1967), p. 554.

중이 나무를 베자 죽어가는 노인들

육대가 살았드래, 한 집안에. 육대가 죄 살아 있드래. 육대가 살아 있으니 집안이 아주 전부 노인만 있단 말이여, 육대조가 있구. 근데 중이 와서 보니깐 〔조사자 : 중이요?〕 응. 중이 와서 그집이 우째 이리 오래 사나 하고 가 보니까, 저 무신 낭글[1] 하나 심었는데, 구기자나무, 구기자나무를 우물머리다 심었는데 그게 속에 봉냥[2]이 들어서 그 봉냥물을 먹었드래. 〔청중 : 그래가지군 그렇게 오래 살았군.〕 으 그래 오래 살았드래. 그래선 중이 그 여째서 오래 사나 가보니까 구기자물을 먹여서 그렇드래. 그래 자손들이 이제 아주 그만 난리지. 육대가 사니깐, 한 이백 살 삼백 살 사니까 아주 근력이 없어서 그냥 붙잡아매서 이렇게 방에다가, 죽 방을 돌려 짓구, 뒷방을 돌려짓구선 이렇게 있드래. 그래 그 자손이 육대손이 아주 딱해서 이제 회청해 가지구 정신이 없구 그래니까, 하 오래 사니 정신이 없구 그래니까 육대손이 밥을 갖다 놓구 먹으라구, 자꾸 그래구. 그래두 딱허니까 중한테 애길 했드래. 그래 중이 와서 보니깐〔 〕[3]밤에 나가니까 거기서 개가 컹컹 짓드래, 그 구기자봉냥 있는 데서. 그게 아주 마지막이지. 그래서 뒷방을 그리 지 놓구선 죽 내 늘리구 늙은이덜을 죄 가뒀었대, 그래서 뒷뱅이라 그런대. 그 봉냥을 캐 짊어지고 그 중이 캐 짊어지구 달아나는 신세니, 그 이튿날버텀 늙은이들이 죽어. 날마다 장사를 지내다 말았대는 거야. 그래서 여길 뒷뱅이[4]라 그래는 거야.

* 김동훈, 남·80.
* 북방면 북방2리, 1987.7.7., 김진희 정금란 강하구 최용현 조사.
* T. 6—2—1

1) 나무를. 2) 구기자나무를 베었을 때 송진처럼 흐르는 액. 3) 테이프 교체로 녹음 안됨(그 나무를 베어버렸다는 내용). 4) 북방면 북방2리에 있는 마을.

들판에 묻힌 금 항아리

옛날에 철정에는 고씨라고 살았어요. 고씨. 그분네가 여기 처음 입적을 하고 와서 밭으로 개간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 분네가 가고 또 누가 들어왔었는가 하면 민씨라고 그분네가 들어와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네가 살다가 남자는 돌아가고 부인네 혼자 남았었는데 그 아주먼네가 꿈을 뀌니까 꿈에 뱀, 구렁이요, 구렁이가 쭉 올라가드래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꿈에 올라갔다 이거예요. 올라가서 그걸 아주 정신에다 꿈에두 집어넣구 따라올라가 봤는데, 그 다음날 꿈을 실지 깨 가지고 그 길을 따라서 들에 골을 냈다는 거예요. 수리보,[1] 그 뱀 간 길을 따라서 수리보를 냈는데 그 분네가 여기서 길을 개간하고, 저렇게 참 두촌면에서 제일 큰 들인데, 그 들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실 적에 예언을 하길 언젠가 이 들이 한번은 아주 싹 망가진다 이거예요. 싹 망가지는데 그때 이 금 항아리를 캐 가지구, 내가 항아리에다 금을 묻는데 이걸 캐 가지고 그 들을 다시 복구해라 해구서 묻은 것은 사실인데, 그건 전설이 아니라 사실인데, 묻구서 돌아갔는데 아직까지 들이 안 망가지고 이렇게 지금 평온한 상태인데, 그 민씨 후손 한 사람이 그 금 항아리를 캐러 왔어요.

와 가지구선 그 사람도 뭐 자기 선조에서

"내가 어디다 묻었다."

는 것은 안 가르쳐 줬으니까, 누구두. 그건 이 들을 다시 복구할 사람만 캐게 된다고 하며 예언만 하고 죽었지. 누구두 안 가르쳐 줬는데 자기 선조가 묻었다 해서 캐러 사방 어디어디 지목가는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캤으나 결국 금 항아리는 못 캐고. 그러나 묻었다는 건 사실이예요.

---

1) 水利洑.

그 언젠가 이 들이 망가지면 그 금 항아리가 이룩한다 이거에요. 이 철정리에서는 그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진 몰라두 그렇게 포락[2]을 많이겪구 내려왔어도 여긴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었다던가 하는 일이 없어요. 여기 토지값이 홍천군에선 제일 비싸요.

* 이상우, 남·41.
* 두촌면 철정리 지다치, 1986.7.22., 강동규 이도형 조옥희 최광현 조사.
* T. 2—10—1
* 복골〔福谷〕: 철정 동북쪽에 있는 마을. 이곳에 살던 문씨가 은 항아리를 발견했으므로 복을 받은 것이라 함.[3]

묘를 잘 쓰고 천자가 된 머슴 1

가리산[1]에 무쇠말재[2]라고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해당화가 피구 거기 올라가면 물모래가 있어요. 가리산 한천자, 옛날에 대국 한천자가 난 자리라구.
〔조사자 : 그 얘기 좀 자세하게 들려 주세요.〕

한천자가 어떻게 한천자냐? 한씨라는 분이 조실부모하고 쪼끄매서 남의 집에서 살아. 도령이 남의 집에서 사는데, 하루는 해가 눅눅 졌는데 중이 서이 와서는 일꾼을 하는 사람더러 달걀을 달라고 그랬다 이거야. 달걀을 먹으려는 줄 알고 삶아 줬다구. 먹지는 않구 배낭 속에다 넣더라 이거야. 그러더니 아 밤중 되니까 나가더래, 중이 서이가. 그래 뒤를 쫓아간 거야, 이 사람이. 그 밑에 동네가 가섭[3]이야. 춘천 북산면 가섭이란 동네가 있다구. 그 가섭이란 동네에서 산소 쓴 데가 골짜구니에, 그 등에다가 달걀을

2) 淸落. 강물이나 냇물에 논밭이 개먹어서 무너져 떨어짐. 3) 「한국지명총람」2 (한글학회, 1967), p.545.

1) 加里山. 春城郡 北山面 勿老里에 있음. 2) 斗村面 泉峴里에 있음. 큰 평내(大平川)에서 春城郡 東面 판메기리로 가는 높은 재. 3) 春城郡 北山面 勿老里 가리산 밑에 있는 마을. 가삽〔加峽里〕.

묻더라 이거야. 달걀을 묻고 기다리더니 새벽이면 첫닭이 울잖아? 홰를 치면서.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천자 자린데도 통 무슨 소리가 없구나."

두 홰째 우니까 닭이 울더라 이거야. 거기서, 묻은 데서. 달걀 파묻은 데서 닭이 우니,

"야 이거 천자지세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떠든다 이거야. 이거, 그래 묻는 걸 보구 왔단 말이야, 청년이. 그 이튿날 중이 또 왔다 이거야. 그 중이 와서는,

"저, 달걀을 어떻게 했나?"

"잡술 줄 알고 삶아 드렸습니다."

그래 그걸 생걸루 달라구 그래 생걸루 드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또 간다 이거야. 또 쫓아가니까는 〔중이〕 그걸 산에 갖다 묻는다 이거야. 동네 닭이 우니까 금방 같이 울어, 달걀을 묻었더니.

"야 이게 천자자리가 분명하구나. 이 자리에 금곽을 써야 하는데 금곽을 안 쓰면 효과가 안 난다."

구 그리고 없어졌어.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아무데나 묻었어. 다 썩어 뼉다귀만 남았다구. 엣날에는 귀리가 있다구. 귀리. 귀리짚이 누렇거든, 황금같이. 그것으로 삼을 쳐서 자기 아버지를 쌌대. 그래 가지구 자기 혼자 가서 〔중이 달걀을 묻었던 자리에 다시〕 묻구는 인제 그런데 어딜 가구 싶어서 죽을 지경이야. 그 청년이 대국을 갔어. 중국을 들어갔는데 그때 중국에서 전쟁이 나구 천자자리가 비었다 이거야. 짚으로 북을 매달구 이걸 쳐서 소리가 나면 천자다 이거야. 짚이 무슨 소리가 나?

"내가 한번 쳐 본다."

구 총각이 치니까 천지가 진동했어. 그래 그 총각이 대국의 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야.

* 엄익성, 남·73. 본관은 영월. 함경도에서 출생하여 14세에 홍천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 교육은 받은 적이 없음.
* 두촌면 철정2리 지다치 엄익성씨댁, 1987.7.11., 김성수 전제진 유은영 조사.
* T. 6—3—1

묘를 잘 쓰고 천자가 된 머슴 2

가리산[1]은 춘천 가리산이라구두 그러구 두촌 가리산이라구두 그러는데 어느 가리산인질 모르겠어. 거기서 한천자, 중국의 천자가 났다는 모이[2]가 있다 그러더라구. 근데 지금도 그 전설은 누구든지 가서 벌초를 먼저 하는 사람은 심을 캔대, 지금두. 그래서 벌초는 일년에 수백 번 한대. 심 캐러 댕기는, 산삼 캐러 다니는 사람이 가 앉아서 자꾸 뜯으면 다 된다 이기야. 지금두 벌초는 여러 번 한다 그러더라구.

머슴 사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날 저녁에 그 집에 중이 왔다 이거야, 세 사람이. 세 사람이 와서 잠을 좀 자자 그래서 인제 잠을 자는데, 안주인들이야 내실에 가 자고 그러는데, 사랑에서 머슴꾼하고 같이 자는데, 머슴꾼은 맨 웃목에서 자고 중들은 아랫목에 있는데, 그래 머슴꾼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잠이 안 올 꺼거든. 이 사람이 잠이 안 와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데 중들이 닭 울기 전에 일어난다 이거야. 일어나서 겨란을 세 개만 구해 달라고 그러니깐 이 사람이 소죽을 끓이다가 풍덩 담궜다 갖다 주었다 이거야, 겨란을. 그래 가지고 가더라는 거야, 중들이, 세 사람이. 그러니깐 이 머슴꾼도 〔몰래 중들을 따라〕 갔다는 이야기지. 거길 따라가 보니까 봉우리가 세 갠데 세 개에다가 겨란을 한 개씩 묻었다는 게야. 묻었는데, 그러니깐 그건 아무래도 엿봤겠지, 〔중들이 말하기를〕

1) 加里山. 春城郡 北山面 勿老里에 있음. 2) 묘.

"하, 이, 닭이 울 줄 알았는데 안 운다."

고 말이지. 그랬는데 동네 닭이, 인제, 마을 닭이 울으니까 가운데 봉두라기[3]서 닭이 울드라 이기야, 닭소리가. 그래 그 사람들 이야기로,

"꼭 우리가 천자가 날 자린 줄 알고 왔는데 쬐끄만 조선왕밖에 못 해 먹겠다."

이러구 갔다거든. 그래 가운데 봉에다 〔머슴이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갖다 묻었는데, 묻구 이 사람이 중국 가서 천자가 됐다는 거야. 그런 전설이 있더라구.

* 윤수원, 남·64.
* 내촌면 물걸1리 동창, 1986.7.23., 송동찬 정운정 김성욱 최 훈 조사.
* T.4—5—1

묘를 잘 쓰고 천자가 된 머슴 3

가리산[1] 얘기 알어? 남의 집을 사는 머슴이 있어. 가리산 밑에서 남의 집을 사는데 중이 와서, 하루는 중이 와서, 〔하루밤만〕 자자, 그런 얘기야. 그래 〔중이 머슴 방에서〕 잤지. 잤는데 그 중이, 새벽에 일꾼이 신발 끌구 나가니까, 달걀을 시 개[2] 주면서,

"이걸 삶어라."

이런 얘기야. 그래 일꾼은 멋도 모르고 쇠무깡[3]에 넣어서 삶었어. 삶어서 중을 갖다 주니깐 중이 바랑에다 넣어서 짊어지구서 새벽에 간다 이기야. 그래서 그 일꾼이,

"달걀을 삶어 달래서 먹지도 않고 얼루 가나?"

3) 봉두라지. 봉우리.

1) 加里山. 春城郡 北山面 勿老里에 있음. 2) 세 개. 3) 소의 여물을 끓이는 솥.

그래 뒤밟어 쫓아갔어. 쫓아가니 가리산을 올라가는 거야, 가리산으루. 그래 가리산에 올라가선 가만히 하구 이짝에서 숨어 보니까 한겐 위다 묻고, 한겐 고 밑에다 묻고, 한겐 요 밑에다 묻고 시 개를 묻더니, 아 시 시간[4] 있으니까 아 꼭대기서 병아리가 나와서 홰를 못 치고 운다 이기야. 홰를 못 치구. 아랫 것 둘은 나오도 않고. 〔중이 말하기를〕

"아 여기다 우리 아버지 모이를 쓰믄 천자를 하겠다."

일꾼이라는 사람은 숨어서 들었지.

"두시간 만에 나와야 되는데 시 시간이던가."

이러더니 그래군 중이 내려와. 그래 먼저 앞서 내려와 안 간 척하고 집에 와 있었지. 와서 조반을 채려 멕이고 중은 가 버리고 그리고 일꾼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자가 난대는데 제기랄, 천자는 못 해두 삼정승은 하겠다."

이랬지. 그래서 그 일꾼이 말야 즈아버지를, 남의집 머슴 사는 사람이 뭐 힘있나? 그래 즈아버이 돌아가신 걸 아무데다 밤 빌어서 갖다 묻었단 얘기야. 그양 송장을 파 저 혼자 밤에 갖다가 것다[5] 묻었어, 그 자리다. 아 묻구서 이튿날 가 보니까 홀랑 파내봤네. '아 이거 이상스럽다.' 그래군 하룻밤 지켜. 지키니까 키가 구척은 되는 도깨비가 하나 나오더래.

"야 이놈이 천자 노릇을 하고 싶은 모냥이네. 여기다 갖다 즈 아버지를 묻었거든. 여 안돼. 금곽을 해 써야지."

금, 금으로 묘를 해서 써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야 천자 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아 그래니 이 사람이 남의 집 사는 사람이 금곽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래 인제 가만히 생각하다가 궁리 궁리 하다간 어떻게 헐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 밀짚, 밀 알지? 밀, 밀짚을 요걸 고걸 따 가지고 글루 이렇게 따 가지군, 글루 인제 즈아버이 골만 싸서, 죽은 송장 골만 밀짚으로, 골만 싸서 〔갖다 묻었어.〕 밀짚이 누렇잖어? 아 그래가주 아 그 키가 구척이나 되는 장수들이 와 파보더니

4) 세 시간. 5) 거기에다가.

"아, 이 천자 허겠는데. 금팍인데. 금팍을 썼는데 천자 하겠는데."

게 아무것도 모르지. 아 배우지도 못하고, 남의 머슴 살은 사람이 뭘 배웠겠나? 아 그래군 와서 그 집에서 주인집 와 머슴을 살고 있는데

"여기 대한민국이 좁아서 못 살겠다."

이기야. 좁아서. 그래니까 이 짚신 한 여라믄[6]개 삼아서 짊어지구선 훠 떠나간 거야. 떠나갔는데 어딜 갔느냐? 대국, 대국, 대국. 여간 큰가. 대국에 북경 남경이 있잖아? 남경은 천자가 있는데 북경은 비었다는 애기야. 북경은 천자가 없어. 거기 가니 사람이 배껕에 늘어섰는데 뭐 하나 가 보니까 저 짚, 짚으루 말야, 짚으로 동그렇게 둥그릴[7] 해 가지구, 짚둥구릴 해서 매달구서, 종처럼 말야, 매달구 그걸 뚜들겨서 소리가 나면 천자라 이런 애기야. 무조건 그걸 뚜들겨서 소리가 나는 사람이면 천자로 모신다 이런 애기야. 그 짚으로 해 매달은 게 무슨 소리가 나누? 소리가 안 나지.

"야, 여봐. 그래 이 짚으루 맨든 게 소리가 날까?"

아 그걸 갖다가 방맹이로 한 번 쳐보니까, 아 소리가 천지가 진동을 하는 거야. 그래니깐 아 점심 먹으러 갔던 사람들이 그냥 죄 몰려왔어. 이걸 누가 때렸냐 이기야. 그래 그 사람이,

"과연 내가 심심해서 짚으로 맨든 게 소리가 날까 하구 한번 때려 본 거라."

구 하니까,

"우리 보는 데 때려 보라."

구 말이야. 아 이 사람이 짚 방맹이를 들고 짚 둥구릴 치니까 아 소리가 천지를 진동해 나가는 거야.

"아 우리 천자다. 천자가 여[8] 나왔다."

그래 남의 집 살다가 인제 대국 북경 가설라무네 천자 노릇을 했어. 한천자 모이[9]가 여태 그 가리산에 있잖아? 그 한천자 모이가 한천자 아버지 모이라구. 그 한천자 모이를 설만 세면[10] 먼저 가서 벌초, 인제 먼저 그

6) 여남은. 7) 둥우리를. 8) 여기. 9) 묘. 10) 쇠면.

풀만 깎으면 심[11]을 캔대. 그래 일년에두 멫 번씩 벌초를 헌 거야, 멫 번씩.

* 전석일, 남·63.
* 북방면 성동2리, 1987.7.9., 김진희 정금란 강하구 최용현 조사.
* T. 6—5—1, 6—5—2

사후 삼정승 나는 묘자리

이도선[1]인데, 이도선이가 인제. 아 그 옛날 얘기야. 아들이 삼형제야. 아들이 삼형젠데, 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그래 산자릴 잡을래니 지관을 모셔야지. 그래 이도선씨한테 찾아갔지.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뜨셨으니 산자리 좀 잡아 주세요."

"그래 가야지. 그래 무슨 자릴 잡나. 삼대 정승 자릴 잡어 주래나? 구대 진사를 잡어 주래나?"

"삼대 정승을 잡어 주세요."

그 산자릴 패철[2]을 끄내서 잡구서, 지관 허는 얘기가 이건 사후에 삼정승 자리랜 거야. 자네들은 얘기 알아들어? 사후에 삼정승이야 사후에. 죽은 뒤루 성[3]이 난단 얘기야. 그런 자리가 어딨나? 사람이 있어야 성이 나지, 사후에 삼정승지란 얘기야. 여기다 쓸래느냐니까 아 이 아들 삼형제가 다 끼웃거리고 말을 안 한다 얘기야.

"아 어째 그렇소?"〔하고 물으니〕

여기다 산을 쓰면 삼정승이 나는데, 장사 날[4]적에는 만상제가 호환에 간다

11) 산삼.
1) 道詵(827~898). 신라 말기의 중. 風水地理說과 陰陽圖讖說의 大家. 俗姓은 金氏임. 2) 佩鐵. 지관이 지남철을 몸에 지니고 다님을 말함. 3) 승. 정승.
4) 葬事나갈.

이기야. 호랭이가 물어 간다 이기야. 만상젤. 또 소상에는 둘째 상제를 물어 간단 애기지. 그니까 누가 그거 쓰겠나? 다 죽고 뭐에서 성이 나냐 이기야. 그러니깐 성[5]도 싫다. 둘째 성도 싫다. 안 쓴다 이기야. 막내가,

"에이 써 봅시다. 삼정승이 난다는데 아 쓰지 뭐."

"아 이 자슥아. 아 죽은 뒤로 뭐이 정승이 나. 우리 죽은 뒤로 손이 있어야 정승이 나지."

다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말야. 아 그러니깐 막내놈이 버뜩이구 쓴대네. 그래 그 즈 아버지 산을[6] 거기다 썼어. 씨구서 그날 저녁에 들어오니깐 만상젤 호랭이가 후딱 집어가 삐렸어. 또 기 이듬해에 소상이 되니까 멀쩡히 저냑때 둘째 상제가 또 없어졌단 애기야. 아 그래 즈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제 얼마 있으면 대상이 돌아 오는데, 삼년상을 내야 되는데 그 막내가 또 간단 애기지. 그 지관 말이 그 때까진 맞았거든. 둘은 맞었으니까 그 틀림 없잖어? 그래 즈 어머니가 생각다 못해서 노수[7]를 해 주구서 즈 아들더라[8]

"너 가라. 집 있지 말구 가라. 부지 떠나라."

이거야. 행방이 어디 갈 목적지도 없이 그냥 가라 이기야. 돈 해 짊어지키며 가라 그러니깐,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 그두 그렇다 말이야. 생후에 손은 하나도 없는데 삼대 정승이 어서 나냔 애기야.

보따리 해 짊어지구 떠나니 그거 뭐 어디 목적지가 있나? 그저 가는거지.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집에 들어가니까 좀 쉬어 갈 참인데, 두 할머니, 저 우리 같은 할머이, 할아버지가 나와.

"어인 사람인가?"

"전 이 뭐, 거 돌아댕기는 사람인데, 날이 저물어 하루 저녁 쉬어서 갈려고 그럽니다."

"어 자, 우리집 자."

그래 저녁을 해서 먹구선 앉았으니까 바깥늙은이와 안늙은이 버럼[9] 허는

5) 형. 여기선 큰형. 6) 산소를. 7) 路需. 路資 8) 더러. 에게. 9) 버럭.

말이 뭐냐 허믄 말야.

"여봐 저 손님. 나 저 우리 고개 너메 우리 큰댁이 있는데 오늘 제녁에 제살 보러 가 글루. 우리 지사를 보러 가니까 우리집 좀 봐줘. 우리집은 우리 두 늙은이허고 우리 딸애하고 세 식구가 사는데, 우리 딸에 혼자 있으니 집 좀 봐줘."

이런 애기야.

"아 예. 그래세유. 갔다 오세유."

그게 이미 그날 저녁에 즈 아버지 대상날 저녁인데 틀림없이 이는 간다 이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사람이 세상에 났다 이럴 수가 있나?"

그게 인제 한 열다섯살 먹은 처녀가 안방에 자고, 자긴 사랑에서 자는데, 이 총각이 들어가서 시악시를 만나요. 들어가서 사실 그런 애길 타놓고 했단 애기야, 터놓고. 그래 거기서 처녀 총각이 만나서 잤단 애기야.

자구선 나와 사랑에 자는데 밤에 문이 펄떡 열리더니 아 그 대가리가 물대보 같은 게 아 홀딱 업구 갔어. 그래 호환에 갔어, 막내 아들두. 그 처녀가 똑똑해 그런지 참 우리 하루밤을 자두 만리장성을 쌓는다구,

"당신 어서 오신 분넨지, 어서 사시는지 그 주소나 적어 두고 성함이나 적어 주시오."

그래 그 성함과 주소를 다 적어 줬단 애기야. 그래구 인제 즈 아버지는 제사 보구 와서 인제 거시긴데, 그 손님은 사랑에서 자더니 우트게 됐는지 없어졌다 이런 애기야. 그 우트게 됐는지 모르지 뭐, 호랭이가 와 물어갔는데 뭐 아냐?

그래구선 시악시가 몸이 점점 달라진단 애기야, 몸이. 기두[10] 이상하다. 아 야중엔 뭐 말하자면 칠팔 개월 되니까 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애기지. 그래 그때 세월이래는 게 어디 그런 법이 있나? 그래니까 집안에서 그 어떻게 된 일이냐 캐 묻는다 애기야. 그땐 목을 짤러, 목을. 그런 일이 있으

10) 그것도.

면 갖다 작두에다 목을 짤르는 그때 그런 세월이야. 그래 어떻게 된 일이냐 캐물으니까, 여자는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죄도 없고, 죄가 있긴 있지, 그날 저녁에 그 사람하고 하루 저녁 관계한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됐단 얘기야. 그런 얘길 했어, 여자가. 그런 얘길 하니까, 그 세월에는 자네들도 뭐 공부허는 사람이니까 그 알겠지만 만약 내가 딸을 가져서 저 집하구 혼인을 했어. 혼인을 했다 신랑집이 죽으면 그건 딴 데로 시집 못 가구 그양 늙어 죽는 세월이야. 근데 더구나 아기를 뱄으니 얼루 어떻게. 그 명함이 다 있고 주소가 있으니까 아 이걸 신행대를 채려서 말야, 가멜 태워서 그 주솔 가지고 찾아 가네. 신랑 어무니는 이제 대상이 지냈으니까 즈 막내아들은 살았거니 허고 인제 살아 돌아오거니 허고 기달리고 있는 거지. 있는데, 아 하루는 가마바리 들어와, 가마바리가, 손덜이, 나졸덜이[11] 서고 말이야. 가마바리 들어와, 아무개를 찾는다 이기야.

"그렇습니다만 어서 오신 분네요?"

그러니까, 아 주소를 내미는데 틀림없거든. 이름이랑 뭐 틀림없단 얘기야. 그 뭐 어떻게 된 일이냐니깐,

"사람은 당신의 사람이니까 막말로 당신네가 죽이던지 살리던지 당신네가 맡으슈."

그래 친정 아버이랑 친정 어머이랑 와서 맽기구 간단 얘기야. 아 뭐 배가 이렇지.

아 그 날 달에 낳는데 아들 삼형제를 낳어. 아들 삼형제를. 아들 삼태성을 했단 말이야. 그래 첫 애길 나니까, 그 저 맏형수[12]가,

"이거 내 아들이야, 내 아들."

훌렁 집어가요. 또 담에[13] 나니까, 또 둘째 형수[14]가 훌렁 집어가요. 그래 마지막 꺼 자기 꺼란 말이야. 삼태성을 해 가지고, 그 애들이 전수 커서 정승을 허드래요, 정승을, 삼정승을.

그 이도선이가 그만큼 용타는 거야.

---

11) 손님들이, 나졸들이. 12) '맏동서'의 잘못. 13) 다음에. 14) '동서'의 잘못.

* 전석일, 남·63.
* 북방면 성동2리, 1987.7.9., 김진희 정금란 강하구 최용현 조사,
* T. 6—5—2

묘를 잘 쓰고 승지가 된 사람

그러니까 이조, 이조 아마 정묘쯤 되는 모양이에요. 그 당시 인제 여기 수태사[1]가 있는데, 거 어느 도사가 수태사 갔다 오는데, 그때 자동차가 없겠죠, 도보로 가는데, 상완[2]이라구 있어요, 그때 지명으로는 모르겠어요. 거기 밤에나 가게 되는데 불이 빠끔히 있드래요. 그래 그 사람이 시장끼도 있고 해서,

'그래 저기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마침 거기를 가 보니 빈소에다 둘러쳐진 것이 있으래요. 그래 글루 들어가니깐 거 어려운 집에서 상을 당하고 있드라 이거에요. 그래 가서 상주를 찾아,

"내가 한양을 가는 길인데 하루 제냑[3] 유숙하구 갈라구 찾아왔다."

구 그러니까,

"아 그러시냐?"

구. 옛날엔 이 도사라 하면은 많이 대접 받았대유. 그래서 그 집에서 아주 극진히 대울 해 주는데, 그 집 형편으로는 쌀도 없는데 이웃에서 쌀을 하루 아침에 꿔다가 밥을 해서 극진히 대접했드래요. 그래 대접을 받고 도사는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와 보아하니 빈소가 있는데 당신은 산자릴 잡은 일이 있느냐?"

그러니깐

---

1) 수타사(壽陀寺). 東面 德峙里 孔雀山 아래에 있는 절. 2) 상오안. 南面 上吾安里. 3) 저녁.

"산자릴, 우리같이 없는 놈이 어디 산자리가 있겠습니까? 빈소에 봤다가 인제든지 산자릴 잡으믄 쓰겠노라."

구 이렇게 하니깐,

"그럼 내가 저기 한 자리 봐 둔 게 있으니 날 따라오라."

구 그래 상주를 데리구서 여기를 왔다 이 말예요. 〔조사자 : 여기가 어디예요?〕 요요 바로 앞에 있어요. 승지골 와 가주구 여기다 써란[4]말이에요. 그래 지금 자리가 참 좋아유, 아주. 누가 와 가지고든지 명당자리라 그래요.

"여기다 쓰믄 좋은 일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인제 그 집에서 거기다 써서 승지를 해 먹었대요. 지끔 말하믄 대통령 비서란 말예요. 승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집이 그렇게 〔명성을〕 울리구 인제 사는데, 그 도사는 가구 울리구 사는데, 장승지라구 해요, 장승지.

그니 이제 자기 산이 아니라 그래 가지구 그때 거 파 가주구선, 파 내서 자기네 산에다 쓸라구 팠는데 아 이 시체에 꽃이 피구 비둘기 두 마리가 날아갔대유. 날아서 저기 속개[5]라는 데로 가서 앉드래유. 거기서 보니깐은 그 두 마리가 날아서 거기 와 앉아 떨어져 가지구 거 앉은 자릴, 거길 보구 바루 거기다 묘를 썼어유.

그래 묘가, 요즘에는 파 갔어유. 저 집 짓느라구. 거 뭐 노천 김서방네서 이래는데 파 갔어요. 그래서 그 시대 그 파구서 시체에 꽃이 핀 걸 보고 놀래 가지구 통곡을 하구 도로 묻었대유.

그래서 그 도사가 인제 메칠후에[6] 왔드래유. 인제 거기 찾아가서,

'여기 내가 잡아 줬는데 이게 어트게 하구 사나?'

하구…. 근데

"승지까지 하구 잘 사는데 그걸 왜 파느냐?"

구 말이지, 그랬더니 그 그래그래서 팠노라구.

"이 산 명기는 앞으로 당신네대부터 백대후면은 다시 돌아온다."

---

4) 산소를 쓰라는. 5) 속개〔裏川〕. 洪川邑 葛馬谷里 닥바우 서북쪽, 곧 홍천강가에 있는 마을. 6) '몇년 후에'의 잘못.

구 그러구 사라졌대유.

그래 그런 전설이 있네요. 그래 승지골이라 그래유. 승지가 났다, 거 묘 하나 쓰구 승지가 났대서. 인제 가 보믄 아주 잘 되었에유.

* 정봉수, 남·56. 홍천읍 갈마곡리에 7대째 거주. 농업.
* 홍천읍 갈마곡2리, 1987.7.11., 전신재 이원미 이홍식 조사.
* T. 2—6—2

묘를 잘 쓰고 정승이 된 사람

엣날에 한 승인이 있었어요. 승인이며는 삼정승 판사가 그 승인이야. 그 삼정승 육판사라며는 그게 임금 담엔 그 사람들 아냐? 임금 담엔 그 사람들이야.

떠억하니 그 아범이 죽었는데, 죽으면서 유언을 해기를,

"나를 어따 묻어 주느냐 하면 이씹육목팔족지에다 묻어 다와."

〔조사자 : 어디다요?〕

"이씹 육목 팔족지에다 묻어 다와."

이렇게 유언하고 죽었다 이거야. 하 자손들이 조선팔도를 다 산주름을 잡아 봐두 이씹육목팔족지가 어디 나타나냐 이거야. 지관을 삼십명씩 데리구 댕겼다 이거야. 하 그러니 그걸 찾을 수가 있어야지, 어딘지. 그래서,

"야 내가 저…"

그전 엣날에는 영장[1]지내면 소상 대상 있어.

"대상까지 찾다 못 찾으면 고만두자."

이랬단 말야.

어 거 떠억하니 상치관[2]들 데리구 저 백두산서부텀, 금강산서부텀, 지리

1) 永葬. 2) '상지관(相地官)'의 잘못일 듯.

산서부텀 다 산색을 잡아두 거 이씹육목팔족지가 어서[3] 나타나냐 이거야. 아 그 대상 할 적에 떠억하니,

"오늘 못 잡으면은 우리 아버님 거냥 그 음토[4]한 대로 그냥 둬 둔다."

이랬단 말이야.

그래 그저 나오다가 보니까 여자가 하내이 그 당나구에다가, 당나구는 암당나구다 이거야, 당나구에다 남박을 한 바리 싣구 진구렁에 나가 씨러졌다 이거야. 진구렁에 나가 씨러졌으이 아 그저 자빠져서 몬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 이게 지관을 데리구 상주들이 주욱 내려오니까, 이걸 좀 실어 달라구, 다시 해서 실어 달라구 그러지. 이거를 일쿼서 떠억하니 실어 주구 나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아이 그 상주님네들은 왜 이렇게 여럿이 댕긴 게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상지[5]를 찾어 댕긴다."

구. 상지를 찾어 댕겨.

"우리 아버지가 원을 하시기를 이씹육목팔족지에다 묻어 달라구 하는데 그걸 찾아 댕기는데 어딘지 모른다."

구 이랬단 말이야. 어딘지 알아야지, 그걸 찾아야.

"아 그래요? 여기가 이씹육목팔족지입니다."

이래그덩,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아 우째서 진구렁이 이씹육목팔족지요?"

아 스으 말해기가 어렵네. 〔조사자 : 괜찮아요. 그냥 말씀하세요.〕 그 그래.

"말 씹, 내 씹 하니 이씹이요, 스으 여기 메이레 눈이 두 눈이요[6] 내 눈이 두 눈이요 말눈이 두 눈이 육목이라."

이거야. 여섯 눈이지?

"말 발자구가 팔족이예요."

"여기다 스으 가마[7]있자. 이 진구렁에다가 우리 아버님을 모셔?"

아 파니까 보송보송하드라 이거야. 그래서 즈 아범을 거기다 모시구 벼

3) 어디서. 4) 엄토(掩土). 엄매(掩埋). 5) 장지(葬地). 6) 말과 여인의 성기를 각각 하나의 눈으로 설명하고 있음. 7) 가만히.

슬을 해 먹드라 이거야.

* 윤삼용, 남·63.
* 남면 유목정리, 1887.7.9., 김문태 이홍식 김승혜 전계진 박형규 최정희 김석주 홍후남 조사.
* T. 3—6—1

금시발복하는 묘자리

그 동네 남으집[1]사는 총각이 있는데, 즈 어머이도 없고 즈 아버이 하날 모시고서 머슴을 살아 즈 아버이를 인제 공경하고 있단 애기야. 근데 즈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아 그니까 이도선[2]이 그 양반이 참,[3]

"지관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우터게,[4] 내가 장래엔 우터게 될지 모르니 이 저 산자리[5] 하나 좀 잘 알아봐 주세요."

"응 그래. 너 금시발복자리를 잡어주랴? 너 삼대 정승자릴 잡어주랴?"

아 금시보다 삼대 정승 자리가 낫지, 낫지만 이미 하두 우선 남우집을 살고 있으니깐 없는 거이[6] 아주 소원이래서,[7]

"금시발복자리를 잡아달라."

그랬지. [조사자 : 금시발복이요?] 음, 금시발복. 그건 금방 산자리되면 금방 발복이 난다 이기야. 금방 돈이 생기고 그래.

"그래, 논 가운데 증포리 있는데 여기다 갖다 써라."

"아이 선님 거기 증포런데요."

"아 증포리고 뭐고 여기 가 써. 이건 사세하관 오시발복[8]이다. 오시발

1) 남의 집. 머슴살이. 2) 道詵(827~898). 3) '상주가 도선에게 발하기를'의 뜻. 4) 어떻게. 5) 산소자리. 6) 없는 것이. 7) '없는 것이, 즉 가난한 것이 서러워 금방 부자되는 것이 소원이래서'의 뜻. 8) 巳時下棺 午時發福.

복자리다."

그래서 거기다 썼어. 그래 남우집 사는 사람이 뭐가 있겠나? 개 뭐 이웃 아주머니 시켜서 인제 그라고 산 쓰고서 밥이라도 한 그릇 해다 놔야 되잖아? 인저 밥을 갖다 놓고 혼자 서서 우는데 그 지관이 시키기를,

"너는 혼자지만 상옷을 두 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옷을 뭐할라고 두 벌을 지어요? 나 혼잔데."

"아냐. 한 벌은 옆에다 놓구, 한 벌은 니가 입구서 지사를 지내라."

이런 얘기야.

아 그래 인제 동민보구 지사를 지내는데 아 뒤에서 벌안간 아구상을 치며 아주먼네가, 여자가,

"사람을 살려라."

말야,

"왜 이래야 되나?"

"아, 왜나마나 사람 좀 살려라."

구. 아 그 여자가 보니까 그 뭐 상옷이 뭐 있거든 베로 만든 상옷이니까. 입구서는 둘이 곡을 하고 있네, 이제.

"아구, 아구"

하고 곡을 하고 있으니까, 아 뒤에서 몽둥이를 들고 말야 나졸들이 덩텡이를 쓰고 쫓아온다 이기야. 쫓아와서 묻는다 이기야.

"여보 여보 상제님, 여기 여자 한 분 지나가는 사람 못 봤소?"

그래니까,

"못 봤소. 우리가 아유 부모가 돌아가서 이러구 거시기 허는데 뭐 볼 새가 있소? 모르겠소."

"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로 갔지? 꼭 오는 걸 봤는데."

"몰라요. 난 그 사람 보두 못하고."

아 이러카네.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된 여자냐? 서울 아주 부자, 강자집

에서 말야, 그때로 인제 말하면 나이가 한 열칠팔세 된 여자가 이거 잘못했다는 얘기지. 지금은 참 뭐 여기 학생들도 잘 알지만 지금은 다 연애결혼 아닌가? 결혼을 해도 연애결혼이고 그런데, 그땐 그런게 이주, 그러면 목을 질러. 목을 짜르는 세월이야. 그때는 부모네가 알았다간 목을 자른다구. 그럼 이걸 어떡하냔 말이야? 그래,

"야 이놈아."

즈 아버진 그저 죽이라구, 강물에 가다가 빠뜨려 죽이라구. 지기 엄마가 은금보화랑 모두, 부자니까, 은금보화랑 싸 주면서 하는 말이, 나졸더러 시켜서 강물에 빠져 죽였다구 그래구 갖다 보내라구 말야. 아 그래 이렇게 보따리에 싸가지군 그냥 나졸들을 시켰으니깐 놔주니까 쫓겨서 가는데, 이게 탄로가 나가지고 집에 가니깐,

"아, 안 된다."

고 말야. 즈 아버지는 말이,

"나졸들이 그 넌 잡아 죽여야 된다."

고 말야. 쫓겨 오다가 거기서 인제 상옷을 입고 금방 상제하고 둘이 서서 울으니 즈가 알긴 뭘 알아? 모르지. 아 그래가지고 갔지.

"이게 대관절 당신이 우떻게 된 사람이요? 난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 총각이요. 총각으루 난 먼 데 사는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상을 모시고 내 지금 참 바쁜 사람이요. 당신은 대관절 어떻게 된 일이요?"

아 그 여자가,

"사실 여하구 여해서 쫓기던 사람이요. 우리 엄마가 나를 다 먹고 살라고 이걸 싸 줬는데 얼마 되진 않지만 이것만 하믄 우리 둘이 먹고 살 터인데."

아 그 들쳐보니깐 요만한 보따리가 전수 은금보화야. 사시하관에 오시발복. 이도선이가 그렇게[용한 거야. 대한민국에 지관, 지관 거시기는 이도선이밖에 없다는 얘기야.

* 전석일, 남·63.
* 북방면 성동2리, 1987..7.9., 김진희 정금란 강하구 최용현 조사.
* T. 6—5—2

가문의 성쇠와 묘자리

임계는 지금두 그렇지만 이가 조가가 아주 얼리고[1] 있었거든. 에전에 그 임계 어느 이씨 명문네가 조서방네 가서 머슴을 살게 됐어. 머슴을 사는데 두 부자가 머슴을 살게 됐거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이서. 그래 머슴을 살다가 즈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네. 아 〔아들이 아버지 시신을〕 내다묻는데 참 되고[2]말고. 아 안 그렇겠어?

아들이 하루는 지관을 부르려 하는데, 아마 그때로 말할 것 같으면 저 보문동 고개말랑[3] 쯤에 지관선생이 산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모양이야. 그래 하루는 지관선생네 집을 찾아가는데 그 뭐 고개말랑께 산다는 그 소릴 듣고 가는데 비가 구죽구죽이 오는데 딱 집이 한 집이 있드래거든, 고개말랑에 올라서니까. 그래 비를 긋느라구 처마 밑에 서 있는 거야. 비는 오고 그러니까. 가만히 이놈이 듣드래니깐 할멈이 영감 대가리 이를 잡아 주는 게드래. 바깥에서 들으니까,

"아, 영감님은 그래 남의 산자리만 냉큼 잡아 주고 그래 당신 묻힐 자리는 어떻게 장만을 하려는 게요?"

"아 왜 없어? 있기야 좋은 자리가 있지. 있는데 우리 같은 놈이 그런 좋은 자리 들어가서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고보니깐 자손이 없길래 아마 그런 소릴 했겠지. 아 그래 어디에 그렇게 좋은 자리가 있느냐구 할멈이 다구쳐 물으니까 영감이 드러누워서 하는 얘기가,

---

1) 대결하고. 2) 힘들고. 3) 마루. 꼭대기.

"아 가랫고개를 척 넘어가서 거 양귀로 가다가 올라가면 펀한[4] 데가 있는데 잔데가 났어. 잔대가 났는데 잔대밭 복판에 오동소나무가 큰 게 하나 있는데 그거를 그냥 뽑아 팽개치고 거기다 〔묘를〕 쓰면 더는 못 바래지만 진사는 할 수 있어."

그래 이놈이 그걸 똑똑히 들었단 말이야. 다 들었으니깐 뭐 지관한테 들어가 물을 것도 없고 아 이놈이 집엘 왔거든. 남의 집이지만 그래도 즈집 아니야? 와서는 주인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 가랫고개 양귀 그 오동소나무를 밤새도록 가서 팠어. 이놈을 파내고는 자기 아버질 밤에 그냥 독바닥에 묻어 버렸어. 자기 혼자. 그래 다 묻고선 손질을 하고서는 그제서 지관선생을 찾아갔어. 찾아가서는,

"선상님 계십니까?"

하고 찾으니까,

"아 누가 찾느냐?"

고 대답을 하면서 나오거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 내가 아버지를 갖다가스리 아무데다 이렇게 모셨는데 묘를 모실 만한 자리에다 모셨는지 선상님 좀 가서 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럼 가 보자."

그러구 아 가는데 그 지관이 아주 꼭 마음먹은 거길 가거든. 가 보니깐 그 놈의 오동소나무를 들어내고 거기다 썼단 말이야. 이 지관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런데 니가 어떻게 여기다 썼느냐? 이런 자리에다. 이건 누가 아르켜 주지 않고는 못 쓸 텐데 어떻게 여기다 썼느냐?"

그러니깐,

"사실 선상님을 찾아가 비를 그으면서 얘길 들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4) 평평한.

내가 욕심에 무조건 선상님 알리지도 않고 썼습니다."

"하, 그럼 그렇겠지. 니가 내 얘기 안 듣고야 여기다 쓸 리는 만무다."
그러더니,

"하이튼[5] 아무 지관이고 와서 여기다 비석을 해 세우믄 뭐이가 좋다고 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절대 비석을 해 세우면 안 된다."

그래 아주 아주 열심히 가르쳐 주고서는, 뭐야, 아 이놈이 그러니깐, 이 서방이 조가네 머슴을 살다 그랬는데 아 이 거기다 미[6] 쓰고 이 머슴꾼이 그야 뭐 장개들어 가지고 뭐 아들딸 낳고 차차 번성을 해 대는데 조가가 깨이겠거든.[7] 그래가지고 몇 해 흘렀는데 산[8] 쓴 놈도 죽을 꺼 아니야? 뭐 장생불사해서 사나?

아, 그 담에 몇 대 흘러 사는데 조가 가문에서 그걸 문의를 했단 말이야.

"어떻게 돼서 이가가 그렇게 번성하고, 진사까지 하고 그래느냐?"
하고 문의를 하니까 그 놈의 지관, 어떤 싱거운 놈의 지관이 조서방 얘기하는 귀에 넘어가 가지고는 그 산을 가서 돌아봤어.

"당신네가 이서방네를 좀 꺾을려믄 여기다 비석을 해 세우라고 그래라. 그러면 느가 좀 일어나고 이가가 좀 깨진다."
그래서 거기다 비석을 해 세웠대. 뭐 아들이 비석을 해 세우면 좋다고, 또 그래서 거 모르니까. 〔청중 : 부자 될라고 말만 듣는 거지.〕 그 그림, 잘 될라고. 그래서 조서방네한테 그 다음엔 진사의 피가 좀 깨였었대.

뭐 그런 얘기는 얼마 안 된 얘기야. 머슴살다가설라므니…. 그래서 우리 한국은 집터하고, 죽어서 송장이 가는 것도 지 집이거든. 땅구뎅이 하나 바로 만나야 되는거야. 그래야만 된대. 〔청중 : 우리 한국사람 승질[9]이란 것이 원래 그렇잖아? 남 잘 되는 것 싫어하니까.〕

* 김종택, 남 • 59.
* 두촌면 장남리 남덕골, 1986.7.22., 김성수 유은영 이대근 전계전 조사.
* T. 2—6—1

5) 하여튼. 6) 묘. 7) 꺾이겠거든. 8) 산소. 9) 성질.

고집부리다 명당자리 놓친 상주

상주가 두 형제분인데 자기 어머니를, 아버진지 어머닌지 그건 몰라두 그 자리에다 모실려구 이렇게 인제 파는데 이런 번석[1]이 깔렸어, 돌이. 그러니깐 형은 그대로 모시자, 동생은 돌 위에다 어떻게 부모를 모시겠느냐, 싸울 수밖에. 싸우다가 결국은 동생이 아마 졌다지. 그래서 결국은 그 돌을 일궈 내니까 학이 두 마리가 날아가더래. 그래서 거기가 학친령[2]인데 조금 가면 있어.

* 채수형, 남·62. 물걸1리에서 10여대째 거주.
* 내촌면 물걸1리 동창, 1986.7.23., 송동찬 정은정 김성욱 최 훈 조사.
* **학무덤** : 행치 위에 있는 묘. 이조 말엽에 어떤 이가 자기 부인을 묻을 명당자리를 찾고 있는데, 때마침 찾아온 중이 가리켜 주면서 깊이 파지 말고 묻으라 하였는데, 파 보니 물을 솟아나므로 더 깊이 파매 그 곳에서 학 세 마리가 날아갔다 함.[3]

묘자리 욕심부리다 망한 부자

박서방넨 양지루다 자릴 잡고 김서방넨 응달쪽으로다 자릴 잡았는데요, 그때 살 때 솔밭 개척하는데, 솔밭은 아주 무서운 산골이에요. 그래 이리 한치골로, 요 너머로다시리 사람들이 댕기는데 낭구토막이[1], 이렇게 그

1) 반석(盤石). 2) 학치(鶴峙). 행치(行峙)라고도 함. 瑞石面 水下里 항골〔項谷〕에서 인제군 기린면 상남리 미다리로 가는 고개. 학무덤이 있음. 3) 「한국지명총람」2 (한글학회, 1967), p.555.

1) 나무토막이.

걸 깔구 올라앉아도 〔발이〕 밭에[2] 달듯말듯한 낭구토막이 뜨윽허니 누워 있드래요.

그 인제 거기설라메, 그 낭구토막에 이렇게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담봇대[3]를 〔그 나무토막에〕 탁탁 터는데 그게 꿈틀꿈틀허드래. 그래 그걸 보니까 구렁이드래. 그게 을축년 물[4]에 나왔다든가? 점촌[5]서도 봤는데 그냥 비가, 그때 을축년 물, 그 옛날이지, 무서운 물이 나가는데, 밤중에, 밤 열두시에 나가는데,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동차 헤들라트[6] 불 켜서 짐말 앞개울로 나가드래. 그게 이시미[7]지. 그래 그전에 여기가 그렇게 무서웠든 산골이에요. 그래 인제 이런 산골에서 큰 용 되어 올라갈 이시미가 산에 묵는 거를 모르고설라무네 사람이 들어와 개척을 하니까 사람 눈에 띄어서 보니까 뭐 등걸토막처럼 이렇게 큰 낭구가 가로져 있는 거 같거든. 엣날에 여긴 무서웠던 산골이에요.

노인네들 얘기하시는 소리 가만히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말림[8]은 좀 있는데 빈한하대요. 그래 빈한한데 어느 친구가 와설라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산자리 하나 좀 빌려 다오."

이거야. 그래서,

"아 그럼 그래라. 당신네 신세두 많이 지고 그랬으니 산자리 하나쯤이야 못 빌려 주겠느냐."

고 그래 빌려 줬대요. 빌려 줬더니만 두 집이 다 잘 살더래요. 빌려 준 사람두 잘 살구 얻어 쓴 사람두 잘 살구.

그 인제 두 집이 다 잘 사는데, 사람 욕심이 한계가 없는 거야, 어느 지관이 〔빌려 준 사람에게〕 와서 얘기하는데 그 산 빌려 준 위 거기다 쓰면 아주 산자리가 더 좋다고 하더래. 아 그래 가만히 이놈이 생각을 하는 거야.

'나두 아버지가 계신데, 산자리를 좋은 자리를 빌려 주어서 그 집도 부자가 되구, 나두 괜찮게 살긴 사는데 내가 거기다만 쓸 것 같으면, 그 위

2) 솔밭에. 3) 담뱃대. 4) 乙丑年에 있었던 장마. 5) 店村. 西面 垈谷里에 있는 마을. 이조때 무쇠점이 있었다 함. 6) 헤드라이트(head light). 7) 이무기. 8) 마름.

다, 용뫼 위에다가 쓸 것 같으면 내 더 잘 살겠다.'

이거야. 그래 빼돌리고 있는 차인데 참 즈 아버지가 얼마쯤 사셔 연만해 돌아가시드래요. 돌아가셨는데 그 산 위에다 참 쓸라구 지관을 데리고 갔는데 〔지관의 판단에〕 좋긴 좋은데, 아 그 집[9] 권한에 밀려 못 쓰겠더래.

〔청중중의 노인 : 그럴 수가 있지.〕

그래 이 사람이 일꾼은 얻었는데 일꾼이 그걸 묻거든. 그래 이 사람이,

"거기가 산자리가 좋다는데, 지관이, 내 말림을 두고두고 권한에 밀려 못 쓴다고 하네."

이거야. 〔이 말을 듣고 일꾼이 말하기를〕

"원 제기 내 말림 가지구, 내 땅 가지구 내 맘대로 하는데 왜 못 써요? 나를 술을 실컷 주고 밥이나 몇 끼 실컷 주면 아 그 내가, 그 앞구잽이[10] 내가 미구서 올라가 쓰겠다."

구.

"아 그럼 그래라."

구. 그래 이놈에게 밥을 잔뜩 멕이니까, 장정들 한 너뎃밥을 혼자 퍼 먹게든. 술도 그렇게 많이 먹어.

아 그래구 거기다갖다가 산역[11]을 하구 상여를 내 모셔서 참 미고 올라가는데, 이놈이 앞구잽이를 미구 올라가는데, 아 그집 자손들이 와 뒤에 와서, 거기 갖다 쓴다고 까맣게 매달리드래요. 그래 이놈이 그저 보둑서 남구 하나 움켜쥐고 그저 또 올라가면 그저 수십 명이 엄청엄청 따라 올라오고, 올라가다 그저 윗말 보둑을 인제 쑥 뽑아서 뒤로 홱 던지구 올라가서 강제로 썼어요.

그래 기운 주장이야. 기운 주장으로다 그렇게 뚝 쓰고 나설라네. 한 해 두 해 사는데 그 먼저 썼던 부자집도 패하고 남의 용뫼를 끊고 우격으로 쓴 그 집도 망하드래요. 인제 너무 욕심을 차려서 남 기왕 빌려 준 거 용미[12] 위다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갖다 쓰고, 욕심을 과도하게 부리다 두

9) 산소 자리를 얻어 쓴 집. 10) 상여 앞부분의 막대(?) 11) 산역(山役).
12) 용묘.

집 다 망하더래.

* 정재수, 남·59.
* 서면 대곡리, 1987.7.9., 허남춘·이원미 이진주 강성관 조사.
* T. 2—5—2
* 진술이 너무 장황하여 부분 부분을 삭제했음.

묘자리 잘못 잡아 준 지관

옛날에 지관들이 댕기면설랑은에 인제 서로 산자리를 인제 잘 잡아 줄라고 그래잖아? 잘 잡아 줄라구. 한 사람이 떡 가다 보니까는 아주 참 남의 집 미숨만 사네그래. 남의 집 미숨만 사는데,

"아이 저 사람을 좀 잘 살게 잡어주겠다."

고 산자리를 잡아 주었단 말이야. 인제 자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자, 너 여기다가 산을 쓸 것 같으면은, 천페[1]하면, 너 부자가 될 꺼다."

그래 인제 자릴 떡 잡어 줬다구. 그래군 한 삼년 있다가,

"저 사람이 부자가 됐겠지."

허고는 거길 갔어요. 자기 친구를 데리구 서로 인제 지관이지.

"내가 이렇게 산자리 잘 잡아 줬는데 거기만 가면은 아주 진수성찬에 아주 잘 먹을 꺼다. 같이 가자."

그래 떡 갔단 말이야. 가설랑은에 인제 그 부락에 가서 떡 물으니까,

"어이구 그 어느 놈의 지관인지 와설랑은에 즈 아버지 묻은 거를 천펠허라고 그래가주구는 그때는 그래두 밥은 제법 먹구 지냈는데 아주 망해설랑은에 갔다."

이거야.

인제 서루 지관이니까,

1) 무덤을 옮김. 遷墓. 緬禮. 移葬.

"그럼 니가 어따 그 사람 산자릴 잡았니 거칠 가 보자."

그래 가니까는 그 우와[2]형국인데, 소가, 소가 드러눈 형국인데, 겨울에 드러눈 형국과 여름에 드러눈 형국이 다르거덩. 아 이거 우와형국에 겨울에 드러눈 형국에다가 잡어 줬으니 소가 풀을 뜯어 먹어야 왕성허잖아? 그런데 겨울에 드러눕는 자리에다가 잡어 줬으니, 그래.

"야 이눔아 여기다가설랑은에 산 자리를 이렇게 잡아 주구설랑은에 그 사람 부자 될 땔 바레? 이게 겨울의 형국이지, 이게 여름의 형국이냐 말이야."

그래설랑은에 하 산자리레는 것두 이게 참 남의 산자리 잡기가 힘들대는 거야.

* 박종철, 남·67.
* 화촌면 구성포리, 1988.6.22., 정덕준 강성관 윤혜정 유진수 김효경 조사.
* T. 1—2—2

그림자 없는 사람과 지관

한 대가집에서 이제 마침 색시가, 잘 자란 색시가 있단 말야. 이렇게 이런 [조사자 중 한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색시 모양으루. 근데 인제 강에 가 빨래를 하는데 그 이런 사과가 물에서 내려온다 이기야. 그래 빨래방망이루 자꾸 저으니까 그걸 건졌어. 하두 사과가 귀하니까는 부모님을 갖다 뵈킬라구 이제 그릇에 담아 놓구 있는데말야, 이게 죽을 지경이야. 안 먹으면 당최 못 배기겠다 이 말이야. 그래 먹었어. 그걸 먹어서 이게 배가 점점 불러서 애기를 밴 거다 이거야. 애기를 낳아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 집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아 놓으니 그 꼴이 되겠느냐 이기야. 그래

2) 우와(牛臥).

부모가 죽이니 살리니 야단치는데 할 수 없이 색시가 그 애길 했다 이기야. 애비없는 자식은 그림자가 없어. 세워 놓으니까 그림자가 없더래. 사과 먹구 낳았으니까 아범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는거야.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몇 살 안 돼 가지구 식구가 다 죽구 없으니까 얻어먹으러 댕겨. 한 열댓살 먹구 이렇게 됐는데 김대감, 엣날 대감 벼슬이 있거덩, 김대감 집에 가 머슴을 살아. 근데 그 김대감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들이,

"거 너 지관샌님 모시구 오너라. 대감님 돌아가셨으니까 산자릴 잡으려니깐 모셔 오너라."

"모셔 오지유."

그래 애가 모시러 갔다 이기야. 지관샌님을 모시구 오는데, 지금두 왜 사람 죽으면 갖다 묻고 회라구 닫는다구, 땅 땅 이렇게, 〔조사자 : 예, 회다지.〕 개 회를 다지는데, 그 지관샌님을 모시구 오다 떡 길 여가리[1] 있는 데를 보더니,

"지관샌님."

"왜 그레?"

"그 돈두 좀 많이 버시구 술두 좀 많이 잡숫구 가실라우?"

"어트게?"

"아 저기 지금 회를 닫잖우? 금방 송장을 놓구. 거 송장이 없습니다."

금방 눈 송장이 없다는 게야. 거 〔송장이〕 없는 회를 다진다 이기야.

"너 어트게 그렇게 아니?"

"아 없습니다. 가서 목 빌[2] 내기를 하세유. 기약[3]을 하구."

"그러믄 거 어지[4]가 있재?"

"목 빌 내기를 허구, 찾아달라구 지관샌님에게 매달리면 내가 먼저 나가서 있는 데 있을 테니까는 거 파 보세요. 만약에 있어서 목을 비문 내 목을 들이대고 내 목을 짤를 테니, 그러니 말씀만 하세요."

---

1) 언저리. 2) 벨. 3) 계약. 4) 어디.

지관샌님이 올라가서는 그 아이 말대로 목 빌 내기를 했어. 그러구 보니 없다 이거야, 송장이. 그러니 상주들이 안 배달리겠어? 아 우리 아버지 찾아달라고 지관샌님에게 덤비는 거야. 그래니까 그 놈이 걸어나가서 우뚝 선단 말이야. 약조를 한 일이니까 말야. 아 거길 파니 거기 있어. 송장이 밀려나가 거기 있다 이거야. 도시 결이란 데는 송장이 이렇게 간다 이거야. 땅속으로 그냥 가. 땅이 속이 그렇게 생겨먹었단 얘기야. 그 애가 아주 땅질[5]을 이상하게 잘 하는 사람이라구.

그래 이제 〔지관샌님이〕 돈을 많이 벌고 그 술을 잔뜩 얻어 잡숫구 오지. 한참 오다가, 술을 잔뜩 먹었다 술이 깨면 물이 먹히잖아? 한 집에 들어가 개가 물을 청했단말야, 선생을 두고. 선생이 마시구 물이 조금 남았단 말야. 그래 그 물을 그 심부름 온 애가 내버리고 주인을 〔빈 그릇을 주인에게〕 주었다 이 말이야. 아 주인이 책을 하는 거야. 먹다, 잡숫다 냉겨지면[6] 들여보내야지 그걸 쏟아내버리는 게 어디 있느냐고 말야. 아 그 왜 그러냐 하면 동네에 물이 없어. 물이 없어 사람들이 물을 용달해다 먹는단 얘기야.

"지관샌님, 당대 잡술 걸 벌어 보우. 이 동네 물을 실컷 먹게 해 주고 논에 대 먹게 해 줄 테니 내 말만 들으슈."

아 그 지난 일이 있으니 뭐 안 들을 수가 없잖아? 그 한 일 치른 게 있으니까는 얘기만 듣는 거지. 그런게 아 그냥 그 동네에 느티나무 큰 게 있더래.

"저 느티나무만 들어내면 물이 그냥 뭐 무지한[7] 솟아오를 테니 그걸 들어내기만 하슈."

그래 또 〔지관샌님이 동네 사람들과〕 내기를 하고 힘 센[8] 사람이 〔힘 센 사람들을 시켜 느티나무를〕 들어메치니까는 물이 그냥 파도를 치는 거야. 아주 그래 동네 물을 뭐 실컷 먹게 해 주니 말야, 동네 사람이 지관샌님을 그 뭐 돈을 을매나[9]주겠냐 이기야.

그래 인제 김대감네 집을 갔어, 지관샌님 데리고서. 가서는 이제 떡 있

5) 땅지리(地理). 6) 남겨지면. 남으면. 7) 무제한(無制限). 8) 센. 9) 얼마나.

노라니깐 지관샌님이 그 담에 산자리 잡을 궁리를 하겠어? 그래 그 놈이 지관인데 어떻게 한단 말이야? 아 사흘 나흘 지나도 지관샌님이 그 산자리 잡으러 가잔 말을 안 한다 이거야.

"아 지관샌님 왜 안 가세요?"

"난 인제 몰라. 당신이 다 알아서 해야지. 내가 뭘 아나?"

"그럼 이 울게나[10] 좀 올라가 보죠."

"올라가 봐야 못밖에 더 있나? 올라가믄 뭘 해."

"아 글쎄 지관샌님 올라가 보세요."

거기 못이 큰 게 있었다 이기야, 큰 못이. 거 올라가 보니 아 물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그놈의 물이. 〔조사자 : 그 많던 물이요?〕 그럼! 그리 다 뽑았단 말이야, 그 동네로. 〔조사자 : 아, 아까 그 느티나무요?〕

이렇게 성거사[11]가 용했다는 얘기야. 땅지리루. 그래서 그 담부턴

"내가 성거삽니다."

하고 나섰다 이기야. 그냥 성도 없고 사팔 먹고 낳았다고 해서 성거사야.

* 엄익성, 남·73. 본관은 영월. 함경도에서 출생하여 14세에 홍천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 교육은 받은 적이 없음.
* 두촌면 철정2리 지다치 논둑, 1987.7.11., 김성수 유은영 전계진 조사.
* T. 6—3—1

서울에 불려간 시골 지관

변씨네 집에서 지관이 하나 났어. 지관이 하나 났는데 훌륭해. 참 용해. 그래 그걸 어떻게 나라에서 알았어. 서울 나라에서. 그 집에서 이제 상을

10) 위에나. 11) 회다지 소리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음. '이 산 명당 찾은 명사 어느 명사가 찾었든고. 성거사 도선씨는 천여년전 사람이니 그분은 아닐 게요.' (本書, p.411.)

당했어. 김정승 집인가 그래. 강원도 아무데 거기 가면 변지관이란 이가 용하다니까 가 데려오라고, 아 그래 마부를 시켜서, 하인을, 말을 한 필 가지고 인제 왔어. 그래 변지관이라는 이가 일하는 노인이여. 그냥 집에서 아 메 묘 잘 썼다는 후손이여. 꺼죽한 영감이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웬 사람이 말을 가지고 와서 여편 지관댁이냐고, 그래 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서울서 올라 오라니 나서시오. 아 그래 왜 그러냐니까, 서울서 김 판서네 댁에서 상을 당했는데 그 숱한 지관을 다 제해 놓고도 당신을 오래니까 가셔야 되겠다. 그러니 어떡해? 그 중 세수를 하고 갓 망건을 하고 지관 보따리를 해서 짊어지고 말에 올라타니 뭐 아 준마개평으로 냅다 달리는데 [웃음] 뭐 한 이틀 만에 서울을 당도했단 말이야.

가니깐 뭐 금관조복 그 정승들이 모여들어 굉장히 볶아치는데, 잘 사는데, 아 보니까 뭐 큰 사람이 안팎으로 있는데 뭐 사람들이 수백명이 들썩거리고 야단을 쳐. 아 그래 들어 갈 수가 없어, 떨려서. 이이가 뭐 시골에서 베 중의적삼을 이런 걸 입고, 뭐야, 얻어먹는 거지 같애. 가보니까, 내다보고 뭐뭐 저런 사람이 있느냐고 이런 불평이 들려. 아 그래서 나는 거 뭐 그 여러이 있는데 들어갈 자격도 없거든. 쪼그만 방이나 하나 있으면 하나 달라고 주인더러 그랬어. 그래 저 후면에, 후면 방 하나를 소제해서 아주 거기 가서 혼자 있었어. 그런데 거기 사람이 전부 지관이야. 전부 모인게 다 나만을 빼고는 전부 모여서 웅성웅성거려. 아 날마다 답산을 하느니 산자리를 잡느니 볶아치는데 다 뎅겨 보구는 이 주인은 찾도 않아. 주인이, 아 그럼 답산을 먼저 가셔야지요, 저희 집에와 며칠 지났는데. 난 며칠 더 있다 가야지 안 되겠다고 한 열흘 인제 있었어. 애유 오늘쯤은 가자구 내가 그 변지관이 혼자서 오늘쯤은 가자구. 그런데 사랑에서는 지관들이 모두 내다보며 가 보면 그래 묘자리를 못 잡았다는 거야. 그래서 혼자 인제 상제하고 옆에 사람 몇 데리구 갔어. 가는데 그 집 산이 둘러, 잔등이, 엄청나게 많은 큰 잔등이 조상산을 둘러 쌌어. 올라 가면서 보니까 갖은 석문을 다 했어. 그래 가서 한 군데 거기만 보고 인제 도로 왔어. 한쪽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바람만 쐰다고 했어.

그날 저녁에〔기침〕 한밤중 되니까는 아주 이쁜 참, 새댁이, 아 주안상을 채려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 왔어. 혼자 자니까, 아 그래 밤중에 왜 이렇게 들어 왔느냐고 하니까 그런게 아니라 저는 지관 선생님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아 부탁은 무슨 부탁이냐고. 오늘 그러니까 산을 가본 걸 알거든. 거 올라가다 꼭대기에 석장짜리 묘가 있는데 그 석장 산소가 산 쓴 지가 몇해 안되는데 나도 시집온 지가 한 일년밖에 안되는데 그 색시가 어떻게 왔느냐 하면 시집온 지 여덟달 만에 애기를 낳았어. 아들을 여덟달 만에 낳았지. 지금이나 그때나 그게 여덟달 만에 낳면 시집와서 낳으니까 저기서 무슨 애기를 배서 왔다는 걸로 취급이 되거든, 엣날에는 신랑이 어디가는 법이 없거든. 아 그래서 집안에서 아주 구박이 심해, 저건 이집 애가 아니라고. 그러하니 그저 이 술 한 잔 잡숫구 그 세째 묘 쓴 데 틱 와서 앉아서는,

"아 자리는 좋구먼. 이 산 쓴 뒤 팔삭동이 낳겠구나."

그렇게 한 마디만 해 달라구.

"아, 그럼 그러라."구.

술은 한 잔 잘 먹구 그만 새댁은 자기방으루 가구 인제 곰곰 생각하는데 그 이튿날 새댁이 또 하는 말이,

"그래곤 산 자리를 잡을 데가 없습니다. 마을에 내려와서 이 밑에 내려와서 밤나무가 저쪽에 큰 게 있는데 지금의 저 밤나무를 베고 산을 쓰면 참 명당이니 그렇게 잡으십시오."

그래 보니 새댁이 지관이야. 그래 그렇게 와서 산자리를 가선 뫼를 보아, 보고서는,

"참, 산자리 이 산 쓰고 여덟달 만에 손자 본일이 꼭 있겠다."

고 그러거든. 상제들이,

"어떻게 아느냐?"고

"어떻게 알기는 이 산이 이러저러해서 팔삭동이를 낳겠다."

구. 가만히 보니 팔삭동이를 봤거든 자기 손자를 봤거든. 그러자 문중서도 모두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비객으로 생각하거든. 신랑도 뭐 잘 방은

안 들어 오고, 새댁방은 안들어 오고 인제 그랬단 말이야. 그 소리를 들으니 정신이 번쩍 나 그 상제들이. 아, 집에 들어와서는 그 새댁을 그담부터 위해 아주. 이 우리 산소가 그렇게 유명하게 여덟달 만에 애기를 낳는다고 산소가 산정기로 그게 낳았으니까, 집안 식구들을, 어른들을 모두 불러 놓고는 무슨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 며느리가 한등 올라섰어. 그리고 인제 그 밑에 봐서 산자리를 했어. 그러니 이 늙은이는 상당히 용하거든. 거냥 그 애기만 들을 수가 있나? 그거 새댁 애기만. 그 밑에 내려와 묘 한 장을 또 보고,

"하! 이 묘는 참 자리는 좋다만 변괄 복수로군."

그랬거든,

"광중 안에 물이 가득 찼다."

고. 그래 인제 그거는 알거든. 그 양반이, 변지관이. 아 어쨌건 물이 찼건 어떻게 되었건 새로 쓰는 묘자리부터 잡자고 그래. 인제 그 밑에 내려가서 잔등이 이렇게 됐는데 밤나무가 섰는데,

"여기다 쓰라."

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

"써 봐야 생기복덕이 꼭 맞고 하니 여기 산 쓰면 부귀공명하고 세가지손이 만세를 가져온다."

이랬거든.

"아, 그럼 그렇게 하겠다"

고 묘자리를 잡았느냐고 바깥 사랍 지관들이 수십명이 있다가 그러거든.

"그래 잡았다."

고 상제들이 그랬거든.

"그래 어디냐?"

"강원도서 올라온 지관은 저쪽 저기 나가서 큰 밤나무를 파내고 산을 쓰라 그런다."

고 아, 이 지관들이 보니 거기가 참 명당이야, 가만히 보니.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여기 좋은 산자리를 두고 괜히 산으로만 돌아댕겼다."

고 한단해. 강원도 지관이 참 지관이라고. 꼬맨 꺼죽해도 그렇게 지관은 달러. 명이났어. 그래고는 산을 다 쓰고 장사를 지냈는데 그런데 잘 알고 그러니,

"이 산소안에 물이 이렇게 난다니 꼭 나느냐?"

고 물었거든.

"아 이건 파면 나지 뭐. 물이 아주 꽉 찼다."고.

"그럼 아주 백일을 해서 이 산까지 천일을 해 달라."고.

"딴 데다 옮겨 달라."고.

"그럼, 그러라."

고 딴데 이제 산자리를 잡고선 산을 파는데 아, 금관조복들이 병풍을 시방 치고 돗자리를 퍼곤 죽 둘러 섰는데 인사도 안해 인제 지관을 보고. 자기 문중에 벼슬자리가 많은데 원 이렇게 좋은데다 물이 무슨 물이 나느냐고.

"이 새끼 물만 안나오면 모가지를 아주 여기서 잘라 버린다"

고 앉아서 이제 벼르고 저희끼리만 술을 먹고 지관 오라 소리도 않해. 아, 그래도 주인은,

"아이구 그런 소리들 하지 말라."

고. 아, 그기를 쓰고 했는데 다 파도록 땅땅 하는 게 무슨 물이나? 보송보송 하지, 그래 참, 오래 파 가지고서 횟반을 벌떡 일으켰거든. 물이 팔락 쏟아지고 송장이 푹 엎어 지거든. 그래 변지관이,

"그러면 그렇지 내 말이 틀림 있겠느냐?"

고 그래니깐 그저 말짱 와서 손목을 붙잡고 돗자리로 끌어다 앉혔다.

하하, 그래 가지고 명이 났지. 그래곤부터 아주 나라에서도 아주 부르고 그랬지. 그런 일이 있었지.

* 최주호, 남·74.
* 서석면 풍암2리, 1986.7.22., 김제훈 이홍식 문제우 조사.
* T.1—5—2

묘를 잘 못 쓴 이괄 1

이괄[1]이가 그전에 자기 아버지 말을 자주 반대했대요. 그래서 이괄이 아버지가,

"내가 숨지거던 나는 산에 까꾸루[2] 묻지 말고 바로 묻어 달라."

이괄이 아버지가 이괄더러 산에 갔다 오라면 개울로 가고 개울에 갔다오라면 산으로 가고 꼭 반대로 들으니까, 이괄이 아버지가 숨을 거둘 적에

'나를 바로 묻어달래면 저놈이 반드시 까꾸로 묻을 테니까 반대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묻어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래면 까꾸로 묻을 테니까. 그래구,

"앞에 강에다가 팥을 서너 말 갖다가 뿌려라."

이런 애길 했답니다.

이괄이가 자기 아버지가 숨을 거둔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평소에 아버지의 말을 반대로 들었는데 이제 숨을 마지막으로 거둔 양반인데 그 숨 거둔 다음에 아버지 말을 끝까지 거역할 수 없다.'

그래서 바로 묻었답니다.

그집이서 역적이 나서 삼일천하를 했으니까, 역적이 나니까 관군을 풀어서 미[3]를 파헤치고 산허리를 뚫고 그래는데 아 미를 가서 탁 파니까, 전설의 얘긴데, 용이 다 됐는데, 이걸 까꾸로 묻었드래면 금방 그저 물 속으로 들어가면 용이 될 텐데 아 치 산으로 기니깐으로 쫓아가서 잡았대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잡은 다음에 거기서 용마가 나 가지구 날마둥[4] 울고 돌아댕기는데 강에 팥을 내 뿐진 것이 그 군사가 거진 다 됐드라 허는 얘기가 전

1) 李适(1587~1624). 朝鮮時代 武臣. 2) 거꾸로. 3) 묘. 4) 날아다.

설로다 전해옵니다. 그래 거기 가면 그 용마미[5]가 있대잖습니까? 지금 그 논 가운데 돌을 이렇게 놨는데 그게 용마미랩니다. 용마무덤인데 그 대단치 않아요. 돌을 이렇게 미를 꽈 놨는데 돌을 주워낼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 임자가 돌을 주워내니깐 그논에서 베[6]가 안 되드라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돌을 져다가 꽈 놨대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 박계선, 남·72.
* 홍천읍 희망리 귀빈장여관, 1987.2.11., 전신재 허남춘 김성수 조사.
* T. 6-1-2

묘를 잘 못 쓴 이괄 2

이조 선조 시절에 이괄[1]장군이라고 있었습니다. 전주 이씨가 이십팔 왕을 하는 동안에 용상을 한 번도 뺏긴 일이 없었지요. 그러나 이괄 장군한테는 뺏겼습니다, 삼일 동안을.

이괄 장군이 도진을 쳐 가지구서 병정을 양성했던 데가 바로 여깁니다. 여기 가믄 소매곡이라고, 거기서 했고, 아까 이야기 했던 도사곡[2], 용굴대[3]가 와 있던 도사곡하고 고 두 군데서 병정을 양성을 시켰습니다. 지끔도 가면 거기에는 이괄바우[4]가 있고 이괄의 발자욱이라고 해서 그 전설을 갖춘 게 있고, 또한 그 이괄이가 조정을 쳐 올라갈 적에 도토리를 세 가마니를 이 도사국이란 땅에다 묻었어요. 땅에다 묻어 놓고서는 조정을 쳐올라갔는데 결국은 인제 실패했지요. 삼일천하를 하고, 실패를 했는데 그 후에 나라에서 이괄이의 전가족과 삼족을 멸해라 했어요. 지금은 양평에

5) 용마묘. 6) 벼.

1) 李适(1587~1624). 2) 都沙谷. 도새울. 洪川邑 下吾安里에 있는 마을. 모래가 많음. 3) 용골대(龍骨大). 중국 淸나라의 장군. 원명은 英固爾岱. 생몰년 미상. 4) 洪川邑 檢律里 당뿌리〔堂麓〕 동쪽 五星山 위에 있는 큰 바위.

가면은 이괄의 아버지 무덤이 있어요.

이괄이는 청개구리입니다. 앉으라면 서고, 서라면 앉는 성질이라 이거에요. 그런데 이괄의 아버지가 죽을 적에

'꼭 저놈 기상을 봐도 한번 왕을 헐 놈인데, 기상은 있구 왕은 헐 놈인데.' 그러니까 꼭 요자리다가, 양평읍 고 자리에다만 썼으면은 틀림없이 저 놈이 나라의 임금을 허겠는데 이거를 묻되 어떻게 묻느냐하면 감자 구뎅이처럼 내려 파구서는 머리를 가꾸로 묻어 가지고 다리가 하늘로 올라가게끔 묻어줘야 되겠는데 이게 청개구리니깐두루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이번에는 내가 죽그덩 이렇게 세워 묻어 다와, 감자구뎅이처럼 파구서 세워 묻어 다와."

그러니깐두루 이괄이가 들은숭 만숭 허구선 자기 아버지 문안을 허구선 바루 올라갔어. 그래 난릴 일으켜 가주구서는, 일으키기 전에 아버지가 떡 돌아가셨는데 그 참 내려와 보니깐두루 자기 아버지가 헌 유언이 생각나는 거에요.

그 뗌에 그 이괄이가 생각헌 것이 평생에 내가 아버지에게 불효를 허고 동하면 서로 했고, 앉어허면 섰었으니까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적에 유언한 마디를 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이괄이가 그때는 참 병력을 풀아 가지고 감자 구뎅이처럼 파고서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세워서 묻어 드렸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구선 인제 〔이괄이가 난을 일으켰다 잡힌 뒤에, 나라에서,〕

"〔이괄이 집안을〕 삼족을 멸해라. 그리구 묘를 대구 파라."

〔그랬거든.〕 그래 나라의 군령을 풀어 가지구서 양주[5]땅에 가서 그것을 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게 이렇게 뒤쳐 가지고, 거기서 세운게 뒤쳐 가지고서는 용이 되었는데, 반은 용이 되고 반은 안 됐단 말이야. 그래 거서 탁 치니까 피가 한강으로 흘러갔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전쟁헐 군량과 그 병정들을 양성헌 데를 가 보자, 그래 이 도사곡을 오니깐두루 난데없는 무덤이 두 개가 있에요. 그래 그 무덤을 파고 보니깐 이게 도토리야.

5) '양평'의 착각일 듯.

도토리 몇 가마널 거다 묻었는데 이 도토리가 이게 전부 바다리가 된거야. 벌이 된거야. 이게 전부가 시간이 좀 있었을 것 같으면은 이게 전부 올라가서 병정 역할을 했을 것인데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는 전설이 지금도 이곳에는 있습니다.

* 서정목, 남·58, 서석면 어론리 출생. 45세에 상화계리로 이주.
* 북방면 상화계리, 1987.7.9., 전신재 김진희 정금란 홍호석 강하구 최용헌 권준길 조사.
* T. 6—7—1

묘를 잘 못 쓴 이괄 3

엣날에 이괄[1]이가 거 무슨 성[2]을 쌓고 그저 여기다 그 전엔 여기 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방 한다고 성을 허물어서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전에 여기 남이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남이사 중이 한 다섯 명 되었었는데, 거 빈대가 하도 많아서 빈대로 아주 망했어요. 그러니 절은 남아 있고 그럴 때 이괄이가 임시로 여기 와서 좀 묵었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이괄이 전설이죠.

뭐 이괄이 누님하고 이괄하고 둘이 여기 내려왔었대요. 이괄이가 아버지 죽은 걸 장사를 양평 어따 갖다가 묻었대요. 그런데 거 이괄 아버지가 유언하기를 나를 거기다 갖다 묻되 까꾸로[3] 묻어 달라고, 그런데 산이 높은데 가서 산이 이렇게 뺑 둘러 돌아 가는데 이거 바로 이렇게 묻어야만 하는데 가꾸로 묻어다오 하드래요. 그런 거를 아들 뜻으루다 자기 아버지를 까꾸로 묻을 수 없어 바로 묻었다는군.

1) 李适(1587~1624). 2) 이괄이 산성. 大溯山城. 東面 德峙里, 城壽里와 洪川邑에 걸쳐 있는 옛 성. 둘레 약 900m, 높이 약 4m. 돌로 쌓았는데, 이조 光海君때 李适이 仁祖反正을 하기 전에 이 산성에서 무술을 닦았다 함. 현재 거의 허물어져 겨우 그 흔적만 남아 있음. 3) 거꾸로.

그래가지고 이괄 아버지가 이제 그때 말허기를 니가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헐적시면[4]은 모래를 퍼다가 밥을 허되 밥이 모래밥이 다 되거든 나와 꿈지럭대지 그전에는 절대 하여간 일어나지 말라 그랬대요. 그런데 이괄이 부님이 그걸 열어보니깐 모래가 거진 반은 됐더래요. 그런데 이괄이가 이제 솥에 나오구. 그래서 이괄 누나가 말렸대. 이괄이가 하여간 나서서 아마 꿈지럭 대다가… 이괄이가 원래 그 야사 같은데 보면은 거 저 열…어느 왕멘가 그 언제유 그 감정을 가지구선 서울 병조판서 하며 살았대는데 그 서울 풍류를 주는 바람에 반신을 모시는 역적에 가담했다는데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일을 실패를 했거든. 그래 이괄 아버지를 가서 무덤을 파 보니깨 참 까꾸루 묻었으면은 이게 모시가 강으로 떨어져가지고 물로 떨어졌으면 극락을 했을 터인데, 이게 바로 묻었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드래요. 파 보니까 송장이 참 거 타서 올라갈 때 용이 한 반은 되고 반은 용이 안 됐더라 그래요.

* 엄대홍, 남·72, 덕치리에서 태어나 이주경력 없음.
* 동면 덕치리, 1988.6.24., 허남춘 이동수 한호순 박삼희 박승림 조사.
* 3—19—1

묘를 잘못 쓴 이괄 5

이괄이 지 아버지 말을 안 들었대요. 안 들었는데 지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지 아버지 말을 들었대요. 하두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젠 말을 엇갈려 했대요.

"내가 죽거든 이 어느 개천에 갖다 묻어라."

그러구 하니까, 개천에 갖다 안 묻어야 되겠는데 개천에다 묻으라 하거든.

4) 할 것이면.

산에다 갖다 묻어야 되겠는데 지 아버지 말을 그때도 안 듣고서 어느 지 맘대로 산에 갖다 묻으면 바로 되는데 저는 아버지가 마지막 가는, 저가 그 점만 알았들었단 말야.

저는 지 아버지 말 안 듣고 제 맘대로 산에 갖다 지 아버지를 묻었으면 사흘 용상이 아니고, 사뭇 대통령도 해 먹었을 것인데, 늘 지 아버지 말하고 엇갈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개울에다 묻으라면 산에다 묻을 것이라 한 거지. 죽을 때가 돼서 지 아버지 말을 들으니까. 잘못된 거지. 그래서 사흘 용상밖에 못 앉았다는 얘기지.

* 한명진, 남·59.
* 동면 개운리, 1988.6.24., 허남춘 이동수 한호순 박삼희 박승림 조사.
* T. 3—15—1

팔봉산 신령을 누른 이괄

그 팔봉산[1]이 있는데, 그 산이 참 옛날버텀 내려오기를 영산으로 내려왔단 말이요. 그 산이, 참 내려오는 영산. 이게 속언인진 몰라두 옛날엔 그런 대관두, 무신 면장이나 군수나 이런 대관두 그 앞으루다 그 산 밑으루다 말을 못타구 댕겼대. 왜 못 타구 댕기느냐? 말굽이 들어붙어서, 말이 가질 못해서. 그래 그 영이지. 그러니 신령이 있으니, 그 앞에서 말을 타문 나쁘지 않느냐구. 아 이런 이치겠지. 아 저 말하자문 전설이겠지.

그래서 그때 아마 어떤, 이 시댄 다들 학교선 알겠지만, 이괄이 그때 이괄이 시댄가, 이괄이 역적으로 몰려서 삼일정승 가기루 했었는데, 이괄이가 그 버르장머리를 가르켜 놨단 말이 있에요. 그저 말을 타고 갔는데 말굽이 붙어 못 가니까, 거기 인제 사람덜 이게 물었단 말이야.

1) 八峰山, 西面에 있음.

"그 으째 설라무네 말이 못가느냐?"구.

"하하 이 산 밑은 하야[2]해 가시오. 말에[3] 내려 가시오."

말에 내려가니까 말이 가. 말굽이 떨어져 가주구. 그래 그냥 창검을 끄내 더니만 말을 픽 찔러 가지구서 각을 떠 가지구선 팔봉산에다 대구 피칠을 했대. 그 뒤로 그게 없어졌대. 지금 그리루 자동차를 타구 가두 관계 읎구, 자전걸 타구 가두, 말을 타구 가두…. 그렇게 옛날엔 명산으로 내려온 산이지.

* 반춘응, 남·78.
* 북방면 구만리 이장댁, 1987.7.7., 이종철 엄기주 유은영 조옥희 김성욱 장기영 최광현 이연순 조사.
* 5—1—1

이괄 집안의 혈을 자르다

여기 수작골[1]이라는데 가면 이괄령이라는 모이[2]가 있었다거든. 그게 이괄이 외가집 모이지. 지금은 다 오므리고 없어졌는데, 이괄[3]이가 역적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산이 잘라졌거든. 그게 나라에서 짤랐다는 이야기야. 혈을 끊기 위해서. 그게 지금 수작골 고개거든.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게 두어 줄씩 자른 자리가 그냥 있었다구. 옛날 이괄이가 역적을 했다 그래서 이괄의 외가집 혈을 자르기 위해서 산을 잘랐대.

* 윤수원, 남·64.
* 내촌면 물걸1리 동창, 1986.7.23., 송동찬 정은정 김성욱 최 훈 조사.
* 4—5—1

2) '下馬'의 잘못. 3) 말에서.

1) 水作洞. 瓦野里에 있음. 와야쪽의 물과 일문골〔一門谷〕 물이 합치는 곳에 있는 마을. 2) 묘. 3) 李适(1587~1624).

동작이 날래나 실수한 이괄

이괄봉 뭇대기는 시방 올라가 봐도 그 웬 장벽에다 편안하게 마당처럼 닦고 돌을, 농짝 같은 큰 돌을 가져다가 성[1]을 쌓았어요. 뺑 돌려서 이제 성을 쌓구서, 이괄씨가 인제 에 장독이 어디냐 하면 요기선 뵈이지 않지만 이 산 때문에 요 너메 요 보랑가지[2]만 돌아서면 뚱그런 산이 있어요. 장독이 거기야, 장독간이. 거길 한 걸음에 건너가 그저 장을 퍼 가지구서 진지를 해 잡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옛날엔 이 홍천이라는 데가 시골이니까 반찬 같은 거라두 좀 괜찮게 잡숫고 이랠라면은 서울에 가서 사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가실 적에는 어떻게 가시냐 하면 옛날에 망근[3]이 있고 갓을 쓰고 그래잖아요? 망근 쓰고 갓을 쓰고 그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낭근에 초래기 같은 게 끈이라 그래요. 그래서 초래기 끈을 이 큰 손으로 붙잡구 메면서 서울로 올라 가시면 동대문 안에를 들어가시면서 마주 묶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빠르냐 그 말이에요. 나는 새도, 나는 새도 그만큼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청중 : 그만큼 빨리빨리 간다 그 말이지.〕

그래가지구서 이제 그 양반이 에 돌아와서 이제 그걸 가지구 반찬을 해 잡쉈는데, 그 양반 누님이 한 분이 더 헌 양반이 있어. 그 양반 누님, 친누님이, 이괄 장군의 누님이. 그 이괄 장군님보다 더 유명한 양반이 있는데, 그래 그 양반은 어떤 일을 했느냐? 이괄씨하고, 동생하구서 내기를 했어요. 〔조사자 : 내기를요?〕 네.

"거 동생이 참 재주가 좋네. 이렇게 금방 서울에 가서 반찬을 사오니 얼

1) 이괄이 산성. 大瀰山城. 東面 德峙里, 城壽里와 洪川邑에 걸쳐 있는 옛 성.
2) 모퉁이. 3) 망건.

마나 재주가 좋으냐? 하지만 나하고 내기 한 번 할라나?"

"아 허지요. 네, 무슨 내기라도 합시다."

"그러면 서울에 가서 반찬을 사가지고 와서 밥을 먼저 빨리 짓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그거 한 번 해 볼래?"

좋다구 말이야. 그래서 떠났다 이 말이야. 같이서 떠났는데, 이괄씨는 서울에서 반찬을 사 가지고 돌아오니까 누님은 벌써 밥을 해 놨다 그 말이야, 반찬을 사가지고. 그만큼 유명하다 그 말이야.

또 이제 이괄씨가 옛날에 큰 장사고 참 이런데, 이제 사냥을 가실라면, 고기가 잡숫고 싶으시면 시방처럼 이렇게 가축을 많이 키우는 것도 아니구 그러니까, 산돼지 노루 큰 짐승이 많으니까, 그걸 잡으러 가시면, 동아줄을 앉아서 꼰다 이 말이야. 칡을 가지구, 새끼래기[4]를 굵게 꼬아 가지고 이 허리춤, 허리춤 주위에다 매단다 그 말이에요. 달면은 돼지가 아무리 빨라도 그냥, 그냥 우리 개미 붙잡듯 헤서 붙잡아 가시고 동아줄을 비틀어 가지고 거기다 모가지를 끼고, 또 노루를 붙잡아서 뿐질러 꿰 가지고 거기다 매달고 집엘 또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봉으로. 와 가지구선 그 양반은 익혀서 먹는 것도 없고, 그러니 벳기는 것두 없구 그냥 각을 띄어 가지구[5] 큰 칼로 베서 날걸루 다리채 들구 그냥 그대로 먹는다 그 말이야.

근데 그 양반이 부인이 둘이야. [조사자 : 부인이요?] 응, 본부인이 있고 또 이제 첩마누라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작은 부인이 있는데 그래 그 양반이 두 분을 앉혀 놓구서 이제 흥에 겹게 놀다가 그러니 기분 좋을게 아니유? [조사자 :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독주를, 술을 해 넣어 가지고 보통사람은 먹지 못하게 독하게 해 넣어 가지구서, 이제 술이 얼간이 취해니까, 작은 마누라를 손에다 들고 놀다가서 공중에 척 띄운다 이거예요. 순간적으로 공깃돌 던지듯 던지면 [청중 : 첩을?] 첩마누라를. 그냥 술을 한 동이나 들어 다 마시고서 한 손으로 받았어 이괄씨가. 그런 유명한 양반이야. [청중 : 정말 장사지, 장사지] 장사나 마나죠. 그러니까는 큰 부인이 가만히

4) 새끼줄. 5) 각(脚)을 떠 가지고.

생각하니깐 괘씸하다 그 말이야. 〔청중 : 그렇지.〕 그러니까 작은 부인이 왜 안 떨어졌는가 해서,

"당신 참 재주가 이렇게 이미 좋은 줄 알지만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소. 그러니까 당신이 어쩌튼 이번에 두 동이를 마시고 좀 받으시오"

그러니까,

"좋다."

이 말이야. 술이 얼간히 취하니까, 힘껏 치던치면서 술을 두 동이째 마시구서 입을 떠는데 저 바로 요 여기 돌아가면 저 이렇게 웅덩이[6]가 있어요, 연못모양으로. 바우[7] 옆 성밑에 제일 깊은데, 시방 있죠? 〔조사자 : 예.〕 거기는, 옛날에 거기는 명지고리[8]가 하나 모잘랐어, 짚기가.[9] 거기에 풍덩 빠져 죽었어. 〔조사자 : 누가요?〕 작은 마누라가. 받지 못했으니까.

* 오응수, 남·66. 동면 삼현리에서 출생해 덕치리로 이주하여 거주.
* 동면 덕치리, 1988.6.24., 허남준 이동수 한호순 조사.
* T. 3—19—2.

부모에게 살해된 아기장수 1

또 거기 가면 저기 저 허까나무[1]골이라고, 거기 용바우가 있어요. 용바우가 있는데, 뭐냐 하면 사람이 죽어서 산자리[2]를 갖다가 떡허니 보는데, 지관을 구할라구 하는데 어떤 중이 오드랍니다. 어떤 중이 와 갖구선 '어하루쯤 자고 가자'고 말이야. 그래서 상주측에서 '아 그러시라'고 그래 모셨단 말이요, 그래,

"거 상가집 같은데 제가 산자리를 구해 드릴랍니까?"

6) 이괄이소, 洪川邑 檢律里 이괄바위 밑에 있는 沼. 7) 이괄바위. 8) 명주꾸리. 9) 깊기가.
1) 호깨나무. 2) 묘자리.

중이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상주측에서,

"아 그러서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구서 지관[3]을 불러가지구서 산을 삼지사방 돌아댕겼어요. 시방은 사유산이지만 그전이야 산 임자가 어뎠어요. 이거 일본놈들이 와 가지고 갰지. 그전엔 산도 내 산 니 산이 없었어요. 그래 용하다는 지관을 데리구서 이제 올라가서, 올라가다 떡허니 보니까는 거기 참 잘 됐어요. 저기 나무골이 참 잘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참 무지하게 잘 됐어. 거기 가서 떡 앉드랍니다. 떡 앉더니만은,

"이걸 파긴 파되 지척[4]이 삼척밖에 못 내려갑니다."

이거여. 세 척. 지척으로 세 척이면 아마, 지척이면 일지[5]가 요거구 고 다음에 이지가…, 삼지면 아마 한 사십 센치 될 꺼야. 우스워. 지척은 달라요. 아 그래서,

"요기다 파면 반점[6]이 나올 테니까, 돌이, 너루바위[7]가 나올 테니까, 이것을 너루바위를 깨질 말고서 너루바위 꼭대기에다 묻으슈."

그랬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상주가, 아 얼마, 한 사십 센치 정도 되니까, 일지 이지 삼지니까 불과 사·오십 센치 안에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을 이왕 모시는데, 돌 꼭대기에다, 살은 양반도 돌 꼭대기에 앉으면 편하지 않은데, 그래, 이놈의 돌을 깨 내고 없어야 되겠다고 말이야. 그래 이놈의 돌을 정으로 쪼고 하니까 떡개식으로다 갈피가 나요. 가루가 들썩 하고 일어나니까는 왕태기[8]가, 그저, 주먹 같은 왕태기가 붕 하고 뜬단 말이야. 왕태기는 깊이 쥐면 안 됩니다. 왕태기는 얕게 쥐어야 해. 그러더니, 왕태기가 붕 하더니 간 곳이 없단 말야.

이 지관은 벌써 알았어요, 중이. 이 제곡[9]을 가다 보면 중보가 있어요. 바로 양동[10]에서 내려 가지고 제곡 그 굼치[11] 큰 보[12]가 있어, 중보가 엄

3) 여기서는 중을 말하는 듯. 4) '指尺'일 듯. 5) 한 뼘. 6) '반석(盤石)'일 듯. 7) 너럭바위. 8) 왕벌. 9) 西面 諸谷里. 10) 양지마을. 11) 근처(?), 뒤꿈치(?). 12) 洑.

청나게 커요.

〔중이〕 가만히 〔묘자리의〕 정기를 보니까 깨서 들어냈거든. 왕태기가 좀 있으면 온다 하니까, 급하니까 할 도리 없거든. 그거 그래서 벌써 이 산자리 잡으러 갈 적에, 왕태기가 암만 싸도 큰 가마솥은 쏘지 않겠지, 그거 무쇠가마, 가마솥을 거기다 두고 갔어, 벌써.

"거까지 오면, 네가 이걸 뒤집어 쓰면 왕태기가 암만 싸도 사람이 죽을라."

하고 말이여. 〔청중 : 쫓아올 걸 알았구먼.〕 알았죠. 벌써 알았죠. 그걸 알고 가마를 거기다 딱 갖다 놓구선 보니까 벌써 오거든. 가마를 푹 뒤집어 썼네. 가마를 뒤집어쓰고, 그 사람도 어지간하지, 물 속에 들어가서, 이런 육지에서 쓰면은 안 되니까, '물 속에 들어가 뒤집어쓰면 안 오겠지'하고 말이야. 그 물 안에 가서, 엄청 물이 고였거든, 그 물 고인 데 가서 가마를 뒤집어쓰고 있으니, 오더니 그냥 쌍 쏘는 거야. 그러더니 무쇠가마 이런 게 그냥 뺑 하고 나가더니 사람이 죽었어, 거기서. 그래서 중보야. 〔청중 : 중이 죽은 보라서 이름이 중보로구먼.〕 그럼, 제꼭 바로 꼭대기지.

그러구나서 〔산소를〕 쓰긴 썼어. 그래서 한 열 달이 못 돼서 아들 하나 낳았네. 시방 가면 있어요, 용바우라고. 아주 쪼끄매요. 피석만 해. 거기 가서 이렇게 치면 피가 나왔다는 거야. 아 그래가지구서는 아들 하나 낳았네. 아들인데 장사야. 이런 경을 칠 놈의 거. 장사야. 아들이 장산데, 엣날에 장사가 나면 죽여요. 임금이 알까봐.

아, 사흘 만에 천장에 가 붙고, 시령을 올라갔단 한단 말이야. 부모가 생각하니까 큰일 났다 이거야. 자기네 집안 못 살아나겠단 말이야. 그전에 역적이 나고 장사가 나면 삼족을 멸했어. 육족까지 멸했어, 육족까지. 육족을 멸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래서 엎어놓구선 팥섬을 쌓아 놓았네. 그래 배겨? 삼일밖에 안 된 놈이. 그래 죽었어. 이놈이 죽었어.

그 앞에 비아산이라구 있는데, 자꾸자꾸 내려와 비아산이지. 비마산 말이야. 시방, 지금 속세에서는 비아산이라 이름을 부르고 있어. 〔청중 : 비아산?〕 응? 비아산이라고들 하는데 내가 가만히 연구를 하는데 비아산이 〔아

니라.〕 비마산이야. 날 비짜, 말 마짜.

아, 인제 이래 가는데 이제 큰 연못이 있었는데, 용마가 나더니만 그 비아산을 훌돌고 뛰더니만 그 큰 연못에 용마가 빠져 죽었어요. 그거 저 저기에 그런 데가 있소.

* 신형묵, 남·54. 서면 두미리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 보통학교(국민학교)를 졸업하고 한학을 함.
* 서면 두미리, 1987.7.7., 허남춘 송동찬 이원미 강성관 유제선 조사.
* T. 2—15—1

부모에게 살해된 아기장수 2

월천리[1] 양덕원[2] 김씨넨데, 그멘 그 장사 났다고 할 때는 양덕원에 일곱 집 밖에는 안 살었었다구. 그런데 김씨넨데, 그분 어데 김씨넨지는 모르겠구마는, 〔청중 : 김해 김씨〕 그 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산자리[3]를 잡는데 중이 와서 잡는다 그 말이야. 월천리 가서 산자리를 잡았는데 왕탱이[4] 혈[5]이라 그말이야. 왕탱이 혈을 잡아서 산을 쓰라 그러는데, 가서 산약[6]을 하는데, 낼 장사를 지낼라고 오늘 산약을 하는데 지관이 하나 또 왔다 그 말이야, 웬 지관이. 근데 건 중이 아니고 민간이야. 민간 중이 떡 와서는, 아니 지관이 와서, 중이 잡을 적에는 넉 자를 파라 그랬는데, 저걸, 넉 자를 파라 그랬는데, 민간 지관은 와 가지구 대자 반을 파라 그 말이야. 〔청중 : 안 맞는군.〕

게 중이 있다 하는 말이,

"대자 반을 파서는 산자리 망가진다. 〔청중 : 그렇겠지.〕 넉 자를 꼭 파야 된다."

1) 南面 月川里. 2) 南面 陽德院里. 각기 다른 里인데 같이 구연한 것은 혼동인 듯. 月川里와 陽德院里는 인접하여 있음. 3) 묘자리. 4) 왕벌. 5) 穴. 6) 산역(山役).

"이건 대자 반을 파야 산흥이 난다."

인제 서로 우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상주가 민간의 말을 더 구수하게 듣는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 중이 있다 하는 말이,

"그럼 난 갈테니까 대자 반을 팔려거든 나 신다고개[7]를 넘어가거들랑 대자 반을 파라. 〔내가〕 신다고개 안쪽에 있다 할 적에는 대자 반을 파지 말어라."

그래고는 중이 간다 그 말이야. 그러니 뭐 까짓 신용 안하는 거니까 뭐 신다고개를 넘었거나 안 넘었거나 알 게 뭐야 말이야. 간 뒤로 재깍 파는 거지.

중이 가다 시원찮으니까 양덕원 다리 건너 가지고서 버선부치를 한 장사 들드래요. 그래 사 들구서 이제 신다고개를 넘어가는 판인데, 이 대자 반을 채 못 파서 너래바우[8]가 나온다 그말이야. 〔청중 : 그렇지.〕 바우가 나오니까, 아 쪼아라 말이야. 아 그래 그걸 냅다 쪼으니 거기서 왕탱이가 나와 가지군 〔청중 : 왕탱이가 그 안에 있어야 되거든.〕, 왕탱이가 나와 가지군 그 중을 쫓아간다 그 말이야. 그 중이 신다고개 올라가다가 급해 맞으니까, 버선부치를 내드니까 버선부치를 쏘구선 그만 왕탱이는 사라져 버리고, 버선부치는 조뱁이 되엇버리고, 그래구서 게다가 그 무워[9]를 썼는데, 그래두 거 원체 좋던 자린지 장사가 하나 났단 말이야.

장사가 나서 삼일 만에 저 어미가 한데를 나갔다 들어오니까 애가 없어. 아 이 어쩐 일인가 살펴보니 실궝[10] 가닥에 반지그릇[11]을 얹었는데, 그 위에 올라앉았다 그 말이야. 옛날에는 장사를 나 가지고, 장사가 나 가지고 제대로 충신노릇을 하면 집안이 잘 되지만 만약에 역적이 난다 하면 집안이 전멸이니까, 그걸 꼬집어 내려놓구선 엎어놓구선 팥 한 가마니를 둥어리다 올려놔두 안 죽드래요. 그런 걸 여느 걸 또 얹어서는 강제로 죽인거지. 그래 죽이구선 갖다 파묻었는데, 그래 애 죽은 지 삼일 만에 용마가

7) 南面 楡木亭里 큰갈길 남쪽에서 京畿道 楊平郡 靑雲面 新堂里로 가는 고개 '신당고개,' '신당치'라고도 함. 8) 너럭바위. 9) 묘(墓). 10) 시렁. 11) 반짇고리.

나 가지구서는 월천리 삐덩[12]을 사흘을 뛰다가서 엎어져 죽었다 말이야. [청중 : 임자를 찾느라고 아마.] 거기 용마무덤이라고 여태 있어요. 그 자손들도 여태, 양덕원에 세 집인가 네 집밖에는 없구. 그 무위 씨구서[13] 그렇게 되었다는…. 무위까정도[14] 현재까지 있으니깐.

* 남태희, 남·71.
* 남면 시동3리, 1987.7.8., 김성수 장은정 곽노실 정명수 성길제 조사.
* T. 4—10—1

부모에게 살해된 아기장수 3

조기 조 산 밑이에요. 조 산 밑에 [조사자 : 그 산 이름이 뭐에요?] 산 이름은 뭐 그저 안산골입새라 해죠. 거기에 권씨네라든가 김씨넨가 거기서 사는데, 인제 정신이 어두워서 뭐야 낫살이 먹어가지구선, 열두 식구가 살았는데 아이를 하나 낳았는 모양이야. 이 애가 삼일을 지내놓구 지냑때[1] 지냑에마둥[2] 가마히 보믄 땀이 흐즈하게 나고 애가 그렇드래. 그래 왜 그런가 이래면서, 삼일만이면 왜 쑥물루다 옛날에는 산모들이 목욕해지 않았어요? 바람 좀 제지한다구. 그래 쑥물을 해서 인제 웃방에서, 대부분 웃방이라면 칸살이가 맥혔죠, 우에 새문이 있구, 근데 웃방에서 쑥물루다 목욕을 히더니까, 산모가, 요 애가 덮었던 퍼데기를 살무시 내리다 놓구 일어나더니마는 천장에 가서, 대들보에 가 턱 붙드라 이거에요. 그래더니마는 혹 누널구 나가더라거덩. 그래 산모가 쫓아 나갔던 모양이에요. 여기를 어디래나면 여기를 잣나무여들이라구 해요. 근데 혹 날아서 그냥 나는지 공중으로 그냥 나가드래. 그래 혹 나가드니 이짝저짝에 옛날엔 그저 잣나무가 아주 크당게[3] 있었어요. 그래서 잣나무여들이라 그래. 이짝에 잣나무

12) 버덩. 13) 쓰고서. 14) 까지도.
1) 저녁때. 2) 마다. 3) 커다란 것이.

를 훌썩 타넘어서 강을, 저 강이 있는데, 강을 훌떡 뛰어넘어서 저짝에 가서 땅을[4] 떨어지지 않고 곱돌아서 이짝의 잣나무를 와 타넘구 거듭 세 번을 그래더니만 잣나무 아치[5]을 척 지구 늘어지면서 힉 뉘끼면서,

"참 좋다."

이래거덩.

"야 이놈이 대단한 놈이로구나. 이거 이런 놈은 죽여야지."

이거 엣날에는 뭐야 역적만 되면 삼족을 멸하니까.

"그래 조 놈 하나 죽이기는 쉬워두 거 삼족을 멸하면, 삼족이 다 죽는 거보담 그게 낫다."

엣날엔 대부분 이왕국 시절에나 엣날에는 그냥 다 역적 나기가 쉽지, 그 충신 나기가 그 어려운 거거든. 이 엣날 으른들 말씀이, 이게 공작산[6]끝이에요, 조 아래 인제 조 아래 고기[7]가 끝인데, 거기서 장사가 나면 대부분이 역적이 났대요. 이괄[8]이도 저 끝에서 나고 김좌짐[9]이도 저 공작산 끄트베[10]서 났거든. 이괄이 그냥 저 뭐야 김좌짐이 다 역적이 됐다 이 말이야.

"이거 역적이 되겠구나."

그래 인제 들어와서내 가만히 있더니까는 애가 들어오드니만 구둘[11]에 가서 고대로 그냥 퍼대기를 덮고서내 그냥 그대로 있드래.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저드랑일 이렇게 들구서 보니까 양쪽에 날개가 났드래요. 그래 불가치[12]로 그걸 데려지지고 양짝 뭐시기를 없애구 그 애를 뒷마룽[13]에다 엎어 놓구서 팔을, 엣날엔 팔이 제일 무거우니까, 팔이래면은 지끔은 가마니지마는 엣날에는 섬이요, 십말들이, 그런 거를 열 섬을 갖다 엎어 놓구서 주질르니까[14] 팥 열 섬이 그냥 들썩들썩 허드래요. 개가 죽지 않을래면 안 죽지, 그런 장사가. 그렇지만 나라에서 죽이는 거와 같이, 이거 부모네도 하늘 같은 부모니까, 부모 여[15]이니까… 〔조사자 : 팔섬을 누가 올려 놨어요

4) 땅에. 5) 가지. 6) 孔雀山. 東面 魯川里와 化村面 君業里 경계에 있는 산. 높이 897m. 7) 거기. 8) 李适(1587~1624). 9) 金自點(?~1651). 10) 끄트머리. 11) 방 구들. 12) 부젓가락. 13) 뒷마루. 14) 지지르니까. 15) 영, 명령.

? 어머니여요 아버지여요?〕 그 가족들이 그렇게 했지. 집이 열두 식구레니까. 즈 아버이랑 인제 다 인제 그걸 가족들이 모여서 엎어놓구선 역적이된다고 해서 주들렀지. 그랬더니 팥이 다 열 섬이 들먹들먹 허드래. 그래 가 죽었대요.죽은 뒤루다서네 사흘만에 용마가 나서 뛰는데, 그때는 요부락에 몇 집 없을 때요.용마가 나서 들뛰는데, 여기서 저 고개 너메 저짝으로 구름베루라구 있에요, 거기꺼정 베루 밑에꺼정 울려뛰었다가서래 일루 사뭇 내려서 저 금을[16] 저기꺼정 내리 뛰구 올려 뛰구,이 버덩으로 해,사석이 날리면서 뭐 그런데 사람이 붙잡을, 히여간 사흘간을 꿈쩍을 못 했었대니까. 이 용마라는 게 그냥 뭐 여느 말과 같지 않구 그 놈두 나는 놈이겠지. 그래서 올라오구 내려가구 이제 그러다가서네 사흘만에 와서 요기 요 잣나무 있는데, 거기 잣나무가 있에요, 요기서 조 밤나무 졑에, 거기 와서 엎어져 죽었다 이 말이여. 임자가 죽으믄 말도 죽는 거니까. 거 거기 와서 죽은 거를 동네 사람들이 파묻었다 이거에요. 그랬는데 으른들 말씀이 여 중년에 보믄 거 용마무덤이래는 것이 솟아요. 그전보다 퍽 커졌지. 무덤 있는데가 요 앞이야, 중심대.[17] 거기서 엎어져서 죽었는데 말무덤이라구 해서 아주 그냥 그전에는 뭐 그저 크지 않았는데 으른덜 말씀이 솟는다, 이래구 해서 우리두 늘 댕기면서 보는데 요 인제 요거 된 지가 한 십 년, 저수지 된 지가, 뫼 가지구서 논들을 다 폈다 이 말이여. 뚝만 냉기고. 그런데 장마가 져 가지구서 개울이 이렇게 파여 나가면서 용마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옆이 조끔 떨어져 나갔었죠. 그래도 그게 그전에다 본다믄 엄청나게 컸쥬.

그 집에서는 그래가지구선 옘병[18]이 들어 가지군 열두 식구가 아주 폭망했대유. 다 죽었대유. 옛날엔 그 옘병이라무는 그 집에 잘 왕래하지 않습니다. 전염돼서 죽는다구. 옛날엔 뭐 약이 있수? 그러니까르는 야중[19]엔 그 집이 열두 식구가 있는 걸 갖다 묻을 사람두 없구 이래서 집을 불을 살렀대유. 동네서 모여서. 그래구서는 없어졌대는 이런 '전설의 고향'이

16) 검률(檢律). 洪川邑 檢律里. 17) 중신대(中新垈). 작은 새터, 중새터, 큰새터와 瓦村사이에 있음. 18) 염병(染病). 19) 나중.

있어유.

옛날엔 장수가 나면 부모가 죽였대유. 나 같으면 안 죽여유.

* 박민경, 남·68. 농업. 와동1리에서 9대째 거주.
* 홍천읍 와동1리 길가. 1987.7.11., 전신재 이원미 이홍식 조사.
* T. 2—6—1

부모에게 살해된 아기장수 4

아기가 배를 째고 나왔드래요. 배를 째고 나왔는데 그 장사가 그대로 살아 있게 되며는, 삼일만 되면, 용마가 나와서 뛰게 되며는 용마를 타고서 장사가 되어 간대요. 그때는 우리 조선사람이 약하고 일본 사람이 득세하는 바람에 장사가 나며는 삼족을 멸했드래요, 그 가족을. 일본 사람이 조선에 장사가 나면 자기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그게 무서워서 죽일려고. 아 그래서 팥섬을 지질러 놨는데 아 갓난아기가 팥섬 아니라 벳섬[1]만 놔도 죽을 텐데 팥섬을 지질러 놨으니 그 장사가 죽을 거 아니에요?

삼일이 되니까는 용마가 들판으로 치뛰고 내리뛰고 하더니 결국 죽더래요. 그래 그 다음에는 용마가 죽어서 묻어 놨다는 용마무덤 얘기가 있어요. 저 아래 용마무덤, 노인네들이 그러시대요.

* 강신표, 남·55. 농업. 8대째 거주. 無學.
* 화촌면 아시대2리, 1987.2.11., 전신재 강동규 조남혁 조사.
* T. 1—18—1

1) 볏섬

부모에게 살해된 아기장수 5

거 말고개는 말이죠, 어떻게 된고 하니, 주음치[1]래는 데 말이야, 그 밑에 아주 못이 크단 게 하나 있어. 못이 크단 게 하나 있는데 엣날에 거기서 인제 장사가 하나 났었대. 장사가 하나 났었는데 그 에전에 그 장사가 인제 나구 날개가 나구 인제 이렇게, 장사는 날개가 나구 그래거던. 근데 날개가 난 장사가 나구 그러믄 저기 역적이 인제 도모허구 그랜다구 말이야, 그 쥑였대. 〔조사자 : 누가요?〕 그 즈 부모가, 그 즈 부모가 인제 그것을 죽였는데, 그 다음에 용마가 나 가주서는 막 뛰어서는 인제 막 그 고개를 넘어오구 그래서 말이야, 차집구 돌아댕기니 뭐 있나? 그래니까 용마가 거기서 나와서 거 거기서 죽었으니까 말이 나와서 거기서 죽어서, 그래, 말고개라 그러지.

* 박명선, 남·74.
* 화촌면 구성포리, 1988.6.22., 엄기주 오애리 성길제 이용인 박미연 조사.
* T. 1—8—2

부모에게 살해된 아기장수 6

그전에 저짝 터서 아일 하나 낳써. 그러니까 인제 삼일이 되었는데 말이야. 언내[1] 어머이가 바깥을 나왔다 들어가니깐 천장에 올라 있더래. 그러니깐 실공[2]을 여기다 뱄단 말이야. 거 올라갔으니까 아 참 큰일이지. 그

1) 化村面 酒飮峙里.
1) 어린아이. 2) 시렁.

아 장사났다고 말야. 역적 몰린다고, 그걸 내려놓고설랑으로 말이야, 방바닥에다 놓고설랑 팥을 석섬 치슬르고 멧돌짝 둘을 갖다놓니까 죽더래. 그런 뒤루 마을에 저 아래서 용마가 나서 말야. 아 으앙 소리치고 사흘을 치뜨고 내뜨고 이제 이게 군계로 그런단 말이야. 거 애 죽었으니까 그 놈도 간 데가 없더래, 아주.

* 조해만, 남·75.
* 화촌면 군업2리, 1988.6.22., 엄기주 오애리 성길제 이용인 박미연 조사.
* T. 1—1C—1

부모에게 살해된 아기장수 7

고려시대때 내려온 유래에유, 그건. 그때도 아마 여기도 어느 장수가 하나 났던 모냥이야. 나 가지곤 그 자식을 낳아서 삼일이 됐는데 이눔이 간 곳이 없더래는구만. 그래 보니까 장사니까 인석이, 엣날이믄 집을 지면 그 안에다가 이 저 등판이라고 메는 게 있습니다. 보니깐 거길 올라가 앉았드래요, 삼일 만에, 이녀석이 난 지. 그짓말. 〔조사자 : 태어난 지 삼일 만에요?〕 그짓말이겠지. 그래 그 이눔을 도저히, 삼일 만에 거길 뛰어올라가 앉았는데, 집에서 부모네가 봐두 도저히 저눔이 말이야, 앞으로 크게 뭐이 되긴 될 눔인데 저건 어떻게 헐 수가 없다 말이야. 그래 끌어내려서 그눔을 죽일라고 아주 장을 했대요. 아주 죽일라고, 아주. 그래 말은 뭐 그전 엣날엔 팥을 떨으믄 가마니가 시원치 않으니까, 섬이 있었다드만, 섬. 그래 팥을 두 섬을 갖다가 애기를 놓고선 지둘르니까[1]요 뻘석해니깐 팥 두 섬이 훌렁 넘어가드래요. 그러고선 벌떡 일어나드래요. 그러더니 그눔이 나가는걸 또, 뭐 엣날에두 노인들이 힘꼴이나 쓰는 나뭇꾼들이 있으니까 몇

1) 지지르니까.

이서 와서 붙들어가지구 결국 그눔을 죽였대느먼. 죽이고 나니깐 그날 밤으루다 여기서 이 마산에서 용마가 나 가지고 소릴 치믄서 여기서 쉬어서 갔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 장수가 났대는, 이 말이 임잘 못 만났기 때문에 마산이라 헌다 그러드구만 이걸. 노인들이.

* 이창석, 남·52.
* 화촌면 주음치리, 1988.6.24., 정덕준 강성관 윤혜정 김효경 유진수 조사.
* T. 1—6—1

부모에게 살해된 아기장수 8

엣날에 저기 산골에서 장사가 났단 애기야. 정씨네가 여기다가 산을[1] 쓰구서 장사가 났다 이거지. 엣날에 난 노인네한테 애길 들었는데, 일곱 살 먹어서부터 조화를 부렸단 애기지. 그 전에는 장사를 죽이지 않으면 역적으로 몰렸다 이거야. 역적으로 몰리면 상놈이 되는 거거든. 그집 정서방네는 망한다 이거야. 이 산을 쓰구서 정서방네가 장사가 나서 볶아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인거야. 죽일라고 하니깐, 부모가 죽일라고 하니깐 죽이는 방식을 아르켜 준다 이거야.

"저룹당[2]으로 해서 비늘을 세 개를 떼라."

이기야.[3] 장사가 여기에 〔겨드랑이를 가리키며〕 날개가 났다 이거야. 그러니,

"비늘 세 개를 떼구서네 저 저룹으로 세 번을 떼리면 내가 죽습니다."

그래 죽는데, 허사로 죽었겠지.

여넷골[4] 저기 들어가면, 이 산 너머 저기 가면 팥밭골이 있어. 거기 자기 조상들이 있는데 조상 들머리에다가 〔산소를〕 써 달라고 원을 하고 죽었

1) 산소를. 2) 저룹대. 겨룹대. 겨룹. 껍질을 벗긴 삼대. 麻骨. 3) 이거야. 4) 마을 이름. 한제 안에 있음.

다 이거야.

"그래야 죽이는 방식을 가르쳐 주지 그 전에는 안 가르쳐 준다."

망하는 판이니깐 조상 들머리엔 갈 수가 없지. 그래도 조상 들머리에다 써 달라고 했거든. 장사를 지내는데 자기 조상 머리에다 회를 쓰구 장사를 지내는데 청청한 하늘인데 구름이 통통 뜨더니만 하관을 하는데 호랑이가 등을 글겅대구 말이야, 하늘 들머리에서 소나기가 뇌성병력을 치는데, 하관을 하는데, 하다 말다 파묻다 말다 쫓겨 내려왔다 이거야. 쫓겨 내려왔더니만 해가 반짝 나서 쫓아 올라가 보니깐 시체도 없다 이거지. 회를 썼는데 회도 홀랑 뒤집어져서 바깥에다 내놓구 없다 이거야. 시체도 없어. 시방도 정서방네가 뫼를 벌초를 하는데 묘자배기[5]만 있는데, 산을 쓰고 사흘만에 용마가 났다 이거야. 말이 나 가지구서 울면서 사흘을 볶아치구 저 고개를 넘어 야시대[6]로 넘어가서, 말이 넘어갔거든. 용마가 넘어가서 말 고개[7]라 한다 이거야.

* 박창달, 남·65. 농업. 5대째 두촌면 철정2리 지다치에서 거주.
* 두촌면 지다치 논둑, 1987.7.11., 김성수 유은영 전계진 조사.
* T. 6—4—1

부모에게 살해된 아기장수 9

아마 적어두 한 사백여 년 됐을 거유. 요기에 올라가면 요 둔덕말에 그 부잣집 터가 있는데 그 집이 옛날 전씨네가 살았었어유. 아주 잘 살았었어요. 그니깐 아침 저녁이면은 이렇게 식사를 해 놓구 있으면은 그 지나가는 손님덜이 찾아와서, 인제 부잣집이니까, 찾아오셔 가지고 메누리 되시는 분은 식살할 밥이 없다는 얘기야. 전부 그 객을 인제 채려서 접대를 하려

5) 묘의 쪼가리. 6) 也是垈里. 化村面에 있음. 7) 한제에서 화촌면 야시대리로 넘어가는 고개. 馬嶺, 馬峴, 큰말고개라고도 함.

니까.

그렇게 몇 년을 살고 있는데, 하루는 팔월달인데 남편이 산에 일을 갔는데 어떤 대사가 한 분 오셨어.

"내가 시주는 달래는 대루 할 테니 우리집이 객이 들지 않두룩 해 주슈."

그니깐 그걸 좀 봐서 이분이 나서 슬슬 살펴보더니 허는 얘기가 뭐라구 하냐.

"아 저기 저 장군석을 빼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구. 게 지금 장군석, 요 장군석 때려는 게가 요기 쌓여 있어유. 요기매 멀지 않아유. 그니까 그래 인제 저녁에 남편이 온 담에, 그래 인제 쌀을 몇 말 퍼 주어서 지켜[1]보내구 남편이 온 다음에 허는 얘기가,

"여보 우리집이 객이 안 들게 할라면은 사실은 여하구 여하게 하면 객이 안 든댑니다."

그니까,

"그래? 그럼 그래야지."

그래 참 어떻게 석수쟁이 하나 불러들여 가지구서는 〔장군석을〕 때렸어유. 때려서 반이 쭉 쪼개져 넘어지니까는 학이 한 쌍 나와서 훅 날아간다 이거야, 바우서.

그랜 뒤루 한 얼마 있드라니까 그 인제 메누리 짜리가 임신 중인데 애기를 하나 낳았다 이기야. 애기를 하나 낳았는데 삼일만에 엄마가 밖엘 나갔다 오니깐 애기가 없다 이기야. 그래 이 애기가 어떻게 돼서 없느냐 하구 보니까는 애기가, 그전 옛날에는 이 방에다가 실궝[2]이라구 맨 게 있어유, 그 꼭대기에 올라가 뜩 드러누웠단 말이야.

"야 그것두 이상하다."

그래 내려 놓구설랑은 인제 그냥 그냥 고민을 하고 있더라니까, 일주일 되던 날 아치게[3] 나갔다 오니깐 애가 또 없어. 보니깐 이게 올라가서 천장 밑에 붙었다 이기야. 그래서 이상스럽게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깐 이 양쪽

1) 지워. 2) 시렁. 3) 아침에.

져드랑 밑에 나래가, 참새 나래만한 나래가 붙었다 이기야. 게 장군이거든. 장사거든. 그게 옛날에 장사가 나면 역적이라구 집안이 멸한다구 죽였어유. 그니깐 이분네들이, 이 미련한 분들이,

"야 이거 집안이 망하나깐 그냥 두믄 안 되구 이거 인제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 인제 어머이 아버이가 참 그걸 죽이는데 내다 마당에다 놓구설람으네, 엎어놓구서 떡 암반[4]을 깔다 놓구 양쪽에다 팔 한 섬, 콩 한 섬 두 섬을 얹어두 안 죽드라 이거야. 얼마나 신지[5], 난 지 일주일 된 게. 그래서 두 양주가 한쪽 머리에 하나씩 올라서니까 그제서 인제 애가 숨이 떨어져 죽었어. 게 죽구나니까는 부지른이[6] 깟다 치우구서 한 동안 있으니까는 아 망아지가, 우렁골[7]에서 망아지가 나 가주구서는 사뭇 울구 오르내리믄서 그래드니 어디 갈 데가 없으니, 이짝으로 돌아가서, 낼 가서 귀경하시지만, 말거리소[8]라구 소가 있는데, 이놈이 게 와설랑 참 빠져 죽었다는데 그 너래번석[9]엔 죽 먹은 죽통과 발자국 자리, 오줌 싼 자리는 지금도 참 거양[10] 있어유. 〔조사자 : 용마가 난 곳이 유렁골이 아니라 매짓골이 아닌지요?〕 매짓골[11]이 아니라 망아지골이에유. 망아지골을 매지골이라구 그래유. 망아지가 낳았다구 망아지골이라구. 게 인제 망아지골서 나 가주구[12] 우렁골로 들어가 울었다구 해서. 게 인제 장사가 탈 거지, 그게. 장사가 났으니까 용마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을 죽여 놨으니까 지가[13]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야. 그니까 자살을 해 버렸지, 말이. 용마가 자살을 하구, 그래구서 그 전서방네가 인제 망가지구. 사실을 알고 보면 참 거짓말은 하나두 없어유.

손님은 안 들구 집안이 망하거든. 이젠 할 수 없으니깐은 전서방네가,

"이구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 인제 석수를 불러다가 그 돌을 모아다 쌓아 인제 전부 쌓았어.

그래 전서방네가 망하니까는 최씨네가 들어왔어. 해주 최씨네가. 최씨네

4) 안반. 떡을 칠 때에 쓰는 두껍고 넓은 나무판. 5) 센지. 6) 부지런히. 7) 乃村面 道寬里 매짓골 옆에 있는 마을. 8) 도관리와 담풍리 경계에 있는 소(沼). 9) 너럭반석. 너럭바위. 10) 그냥. 11) 독안이 즉 道寬里에 있는 마을. 12) 가지고. 13) 제가.

가 몇 백 년 내려오면설랑은 〔세력을〕 울렸어. 잘 울려 내려오니까 인제 또 마지막엔 주저앉지. 게 또 이 전씨네가 후손에 내려오면서 새로 나라 새 사람들을 자주 내니까 인젠 또 전씨네가 여기설람은 제일 낫게 살구 있어유.

* 김동선, 남·71. 내촌면 도관3리에서 농업 및 상업에 종사. 동리 노인회장.
* 김동선씨댁, 1987.7.10., 전신재 허남춘 김성수 유은영 이원미 이홍식 전계집 조사.
* T. 6-1-1
* 박관석(남·78. 도관3리, 1986.7.22.)의 구연에서는 바위를 깨었을 때 학 한 쌍이 날아간 것이 아니라 금붕어 한 쌍이 놀라 사라져 버린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아기장수가 부모 몰래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가지고 온 저릅대 한 묶음을 산소 앞에 두루 꽂고 진언을 외니 그것들이 군대가 되고, 아기장수가 그들을 훈련시켰다는 이야기와 우렁골 아래에 있는 쉴바위는 용마가 쉬었던 곳이라는 언급이 첨가되어 있다.

부모에게 살해된 아기장수 10

그 김세훈이라고 있는데 〔할머니 : 아 그 김세훈이 동생이지.〕 김세훈이 끝에 동생이 이 구학문 핵교에, 떡 서당엘 보내니까 이게 당최 글은 가 안 배우고 실컷 밥은 가지고 남구에다 갖다 달아 매구서 만날 집에 오구 했단 말야. 그러다가 이,

"우째 글은 안 배우냐?"

"그까짓 글 배우나마나 하다."

만날 그래다가 소남구에 가서 점심 그릇 달아 매구 그딴 장난하다가, 그게 장사던 모양이지, 소남구를 이따우루 빙빙 틀어서 내려. 뿌레기두 안 뽑고. 이렇게 삼꾸래기 꼬이놓고. 그러니 아 저 어른들이야,

"저놈으새끼."

그때만 해두 머 장사가 났다 하믄 이게 영문에 결리문 이것두 안 된다구 이러구서 이 죽일라구 했단 말야. 〔할머니 : 이 저 선바우 밑에 강이 있잖아? 거길 막 건너 뛰구 그랬어 그전에.〕 그 시방 그 표신있어. 강이, 이 강이 저 아래 내려가서 이렇게 이짝엔 바우가 이렇게 높구 저짝엔 낮구 한데 물이 억수루 나갈 적에 거길 건널 때 에서 저짝엘 건네 뛰었다 건네 왔다 이랬단 말야. 그래구는 아 죽일라구 하니 이 그게 장산데 거 함부로 죽겠어? 아 이걸 꼭 죽여야 되겠는데 아주 원수거덩. 그래서 허두 즈 부모네가 죽일라구 하니까, 이 이걸 뭐 죽일 재간이 있냐 말야? 사람이 달려 들어가도 하두 지눔에 새끼 멤에 큰일 났다구 이래니까 아 이걸….

"정 나를 그렇게 원수시리 구니 죽일라문 쉽게 죽는 방식이 있다."

"그게 뭔 방식이냐. 넌 죽어야 된다."

"이 정 그러면 내 죽을 테니 겨드랑이 양쪽에 비늘이 달렸단 말야. 비눌이 이런 게 똑 달렸는데 그 비늘이 여물면 이게 아주 장사에 등천할 상인 게야. 접게루다가서 그걸, 그 비눌을 양쪽 겨드랑이 밑에 걸 그게 이제 장사가 되면 공중을 날다시피 할 거란 말야. 비눌 그게 크문 그랜 거슬 접게루다가 집어 이걸 장정이 두엇이 잡아 채이문, 빠지문 내가 죽을 테이다." 이랬단 말야.

"내가 만약 죽더래두 이 바우 이 강 근네 바우 수십 발 되는데 근네 댕긴 데 놀구 장난하는 데 여기다 묻어 다우."

해서 그래 그 죽은 걸 저 아랜데 뭐 이 저 장거리 아래 그 아래 묻은 거지. 그 바우 있는데 거기다 묻었단 말야. 묻으니까 이 미신을 찾는 자들이,

"이게 귀신이 나중에 된다."

그러니까 다 굿을 하고 그래 그걸 파서 또 왼겼단 말야. 왼겼는데 그 딴 사람이 그걸 욱이오 사변때 피자리 좋다고 거기다 갖다 묻었어요. 그런 일이 있어. 〔할머니 : 이 용마가 나서 그 개울에 울려 퍼적이 있데요. 죽인 다음에〕 그건 그걸 줘다 묻었는데 그 버덩에 용마가 울며 치뛰었다 메뛰었다 하드니 어디로 가고 없었다 이거야. 그런 일은 있어.

* 김차복, 남·82.
* 내면 자운리, 1986.1.11., 김학근 조사.
* T. 6—3—2
* 창촌리 김석주(남·65)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김석주 이야기에는 아기장수가 스스로 자기 비늘을 떼어 죽은 걸로 되어 있다.

부모에게 살해된 아기장수 11

이장사 묘가 여기 있어요. 이장사 묘가 있는데 이장사가 날 적에 거 위 이재선씨네 있잖아요? 이 이재선네 집 뒤에다가서 엣날에 산[1]을 썼답니다. 그후 몇해후에 이제 탄생한 것이 장사가 났다 이겁니다. 났는데 난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니깐, 그 나자 사흘 만에 여기 날개가 나왔드래요. 겨드랑이에 여기 뭐 이상이 있더래요. 박쥐 날개처럼 보드라운 날개가 붙었드랍니다. 부모네가 하도 이상스러워서 그걸 관찰해 보니깐 이게 보통사람이 아니라 이거요. 벌써 사흘 만에 뭐 그냥 몸을 막 움직이고 활동을 하드래요. 엣날에는 그 장사가 나면은 역적이 생긴다고, 역적이 될까봐 아마 잡았대요. 만약에 이게 잘되면 충신이지만 못되면, 역적이 나면 집안이 망하거던. 그러니깐 그 부모네가 잡았대요. 잡는 걸 어떻게 잡았느냐? 잡을라고 애길 하는데 벌써 천정에 올라가 붙었드래, 그 아이가, 사흘된 아이가. 두 부부가 이제 저기 나가 응원해[2] 가지고 이걸 잡아야지 안 잡으면은 우리가 집안이 역적이 되면 집안이 망한다. 그래서 그 애기를 두 내우[3]가 이제 잡을라고 가 보니깐 벌써 어떻게 알았는지 천정에 가 붙었드래. 〔내외가 아이를 천장에서〕 사뭇 뜯어 가지고서는 콩을 엣날에 그 콩, 콩을 한 가마, 한 섬인지 얹어 놓으니깐 그래도 덜석덜석 하드래. 그래선, 가는 맷돌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들었어. 두 개를 얹어 놓으니깐 조용하드래. 그래서 몇 시간

1) 산소. 2) 의논해. 3) 내외.

지나니깐 조용해서 인제 숨이 끊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 잡았대요.

그랬는데 사흘 있다가 그 폭포수[4], 지금 폭포수에서, 그 부근에서 용마가 났대요. 용마가 나서 올려뛰고 내려뛰고 맹맹 소릴 질르고선, 소릴 지르고 뛰었는데 임자가 안 나타나니깐 뛰다가선 거기 어디야, 금산[5] 입구, 서낭당[6] 입구 소나무 있는데 거기 어디 가서 죽었대요.

아기장산 거기서 끝났는데 그 다음 중년에 그 또 아기가 난 건 죽었지요. 죽은 뒤에 용마가 나와서 이제 댕기다,[7] 울다가 끝이 났거던.

그런데 그 검산리란 동네가 산세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하나 탄생했대요, 그 부근에서. 성이 이씬데 이장사 이장사 소문이 있지요. 근데 탄생을 했는데 거인이죠. 거인이야. 얼마나 컸는지 키가 보통 우리 두세 배지. 방에서는 이 길이로 못 잔대요. 귀를 맞춰 자야지, 못 잔대요. 그런 장사가 하나 나 가지고, 났는데 이 장사가 아주 바보 장사야. 바보 온달처럼. 바보 온달은 장사나 했지. 아주 욱장군이유. 힘만이 셌지. 머리가 없어가지구 글을 쓸 줄 아나? 뭐 다룰 줄 아나? 재주가 없으니 용맹을 못 쓴다 이거유. 엣날엔 요 군두리[8]에다 장을 세웠습니다. 그 장을 세웠을 때 그 장판에 가 댕기는[9] 이장사란 사람이 가면은 이렇게 우뚝 전봇대처럼 섰구, 우리 같은 사람은 전부 아기로 보였대요. 또 힘이 얼마나 장산지 지게를, 나무를 산에서 찍어다가서 한 짐 잔뜩 지고 오면 이런 집, 저런 집 한 채 지었답니다. 그렇게 힘 센 장사가 용맹을 못 쓰고, 그래두 힘이 쎄서 뭐 저 나라에서 불렀대요. 나라에서 불러 가지고 가서 가리켜[10] 가지고, 의병난리 때 가리켜 가지고 좀 써 먹을라구, 불러 가지고 갑옷을 입히고 말을 태우니깐, 투구 갑옷 쓰니깐 무거워선 말을 타고선 용맹을 못 쓰더래. 허허, 그래서 나라에서 안 써 줬어요. 입적[11]은 해도 용맹이 없으니 나가 싸울 수가 있나? 그래서 고향에 가서 살아라 그랬대요. 내려보내서 살다가 늙어 죽은 게 요 건너 가 있어요. 제멋대루 살다가 죽었겠지. 어찌 죽었는지 몰라도

4) 瑞石面 儉山里 폭포산에 있는 높이 약 2m의 폭포. 5) 검산(儉山). 6) 瑞石面 笙谷고개 위에 있었는데 6.25동란때 불에 탔음. 7) 다니다가. 8) 瑞石面 軍杜里. 이조 말엽에 의병들이 주둔했던 곳. 9) 다니는. 10) 가르쳐. 11) 여기서는 '관직에 나아감'의 뜻.

성공은 못하고 죽었다 이겁니다.

* 조창섭, 남·58. 평남 출생. 서석면 검산리에서 40년 거주. 약간의 한학을 배움.
* 서석면 검산리, 1986.7.22., 김동하 이필용 조형연 박미숙 조사.
* T. 5—12—2
* **폭포산** : 수양산 아래에 있는 산. 높이 약 2*m*의 폭포가 있음. 수양산 아래에 살던 늙은 부부가 힘이 센 아들을 낳았는데 역적이 될까봐 죽이었더니, 수양산에서 용마가 나타나 폭포로 떨어져 죽었는데, 근처에는 말 발자국이 있는 바위가 있다 함. [12]

어깨를 지져 우둔해진 장사

이씨들이 검산리[1] 처음 오셔 가지구 사집까지 자식이 없었대요. 그래서 고만중인데 거 뭐 어떤 분이 산에다 불공을 드리라구 그러더래요. 그래 거 참 산에다 불공을 디려서 얼마 안 있다가 태중인데 그래 십삭 만에 이렇게 애기를 낳으니까 우는데 아주 이렇게 정개짱이 울리드래요. 그래 뭐 집안들이 이렇게 모여 가지구서 가 보니까느루 이 체격이 생긴 게 보통 사람과는 원래하구 다르더래요. 이 뼈메디가 아주 엄창 이렇게 질구[2]통이 이렇게 크구.

그래 인제 이거를, 옛날 법은 또 그랬다는구만요, 집안에서 힘 신[3] 사람이 나면은 역적 도모를 한다구 해 가지구 나라에서 그 집안을 압력을 했답니다. 이렇게 아주 억압을 하는 법이 있었답니다. 그게 두려워 가지고는 참 정말 발설을 못했다잖아요. 발설을 못했는데 아 그만 어떤 사람이 와 가지구는, 그 무슨 돌중이랜 모양이래요, 와 가지구는,

"이 댁에 정말 참 좋지 못한 애기가 있을 텐데 그걸 그냥 두면 안 되는데 발설을 하기 전에 방침을 하라."

12) 「한국지명총람」2 (한글학회, 1967), p. 554.

1) 瑞石面 儉山里. 2) 길고. 3) 센.

구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두 돌까지를 발설을 아니했대요. 차마 그 시키는 대로는 못하고 발설을 두 돌까지를 안했는데, 한적에는 빨래를 하러, 그 어머니가 빨래를 하러 갔다 오니까 〔아기가〕 천장에 가 붙었더랩니다. 이렇게 천장에 올라가서 붙었드래요. 그래 그만 아 들어와서 야단을 치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

구 그래구서는 남편한테다 애길 했다는구만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구는, 참 엣날에는 이상두 하지유, 그래 그만 〔왼쪽 어깨를 가리키면서〕 여길 지지라구 그러드래요. 여기를, 쇠를 달궈 가지구 여길 지지라구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 그 세 돌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차마 그래지 못했는데, 아 그만 표를 내니깐으로 할 수 없어서설라무네 깔구앉구는 그걸 지질라구 하니까, 장정 서이가[4] 깔구 올라앉아도 어린애를 당하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래 거기다 서이가 올라가앉고 팔 한 가마 콩 한 가마를 이 옆에다 이렇게 지지루고, 그래구 지졌다는군요. 그래니까 장산 장사지요.

그래 그걸 지져설라무네 기운을 쓰긴 써도 보통사람 다섯, 열다섯 기운을 쓰드래요. 그 여기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열다섯 기운을 쓰는데 힘이 장사다, 장사다."

인제 이래구는 널리 발설을 안했어도 이 지방에서 수군수군하고 이제 그럴 게 아니야?

"아무개 아들놈 장사를 낳대, 장사를 낳대."

인제 이랬는데, 그래 그럭저럭해서 나이 열아홉이 됐다는구만요. 열아홉이 됐는데, 그분 친구들도 대부분이 또 센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 여기 아까 얘기하던 오구장님이라구 그분도 힘이 셉니다. 그분이 주동을 해 가지구,

"야, 검산리 이장사가 시다[5]하는데 얼마나 신가 우리 시험을 좀 떠 보자."

---

4) 셋이서. 세 사람이. 5) 세다고. 힘이 세다고.

구 그래 인제 한적에는 번소간에 뒤를 보러 들어가드래요. 뒤를 보러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가마니로 슬금슬금 인제 발 든든한 것을 하나 해 가지구 이제 올그래미[6]를 했다는구만요. 근데 그분이 조금 기운은 신데 둔하드래요. 꾀가 없드래요. 그래 그 오구장이 들어가면서,

"아 이사람아, 이 사람이 뭔 뒤를 이렇게 오래 봐."

이걸 뒤에다 가지고 들어가면서,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모르곤 앉아서,

"뭐 내야 그 뭐 원래 뒤를 드문드문 보니까 그렇지 뭐."

사흘에 한 번두 누구 그런대요, 뒤를. 밥은 말밥을 먹는대요. 말밥을 먹는데 떠듬떠듬 애길 하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만 들어가면서 얼추기[7]를 뒤집어씌웠다는구만요. 밖에서 열다섯이 지키구 있었대요. 엣날에는 또 나막신을 신잖아요? 나막신을 신는데, 열다섯이 지키구 있다가 거기서 암호를 하니까느루 잡아댕겼다는구만요. 열다섯이 잡아대니구, [이장사는] 나막신을 신구 앉아서 쪼구리구 앉아서 뒤를 보면서라무네 이러구 앉아서 낑낑하구 앉았는데 열다섯이 댕겨도 꿈적도 안하더래요. 그러니까 열다섯 기운을 더 가졌다, 그런 애기를 하더구만요.

그래 그기 일전 전설이 돼 가지구 중앙에까지 소문이 갔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동학난리 그때 당시 관군을 뽑기 위해서요, 여기 그 파문이 내려왔었답니다. 그래 파문이 내려와서 그 이장사를 불러갔대요. 그래 거기를 올라갔답니다. 올라가니까 첫 시험에 밥을 인제 멕이는데,

"얼마나 먹느냐?"

묻더래요.

"한 말은 먹어야지요."

그래 인제 한 말 밥을, 말밥을 해 들여가니깐으루 그 말밥을 다 먹드래요. 그래 합격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떡하느냐 하면은 에, 대변 보는 검사를 하드래요. 대변 보는 검사를 하는데, 그 대변을 보는데 이 대변이 묽드랍니다. 대변이, 힘을 쓰는 사람은 말밥을 먹구두 대변이 아주 그냥

6) 올가미. 7) '올가미'일 듯.

이 꼬챙이같이 나와야 된대요. 근데 이분이 먹기는 말밥을 다 자셔 가지구는 이를테면 그기 소화가 돌 되었기에 그렇지요. 붉은 대변을 보드래요.

"에이, 이래가지구는 안 되겠다."

그래 인제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가서 그 이 저 갑옷이 있잖아요? 갑옷을 입히니깐두루 꼬랙도 안 하드래요.

"근데 그 대변이 붉기는 붉은데 참 기운은 쓰긴 쓰는구나."

보통사람은 그 갑옷을 입으면 짜부러지고 만대유, 무거워서. 갑옷 입어도 아주 끄떡없으니까,

"아 이만하면 쓰겠다."

구 이래가지구는, 이 투구요, 투구를 쓰니까[8] 고개가, 고개가 왼짝으로 찌울어지드래요.[9]

"에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퇴각을 맞았다는 거에요.

전설은, 그거는 제가 직접 그분, 인제 그 같이 연갑드는, 연령이 한 살 아래되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렇다 그래요. 그거는 검산리 사람들도 이미 다 알 거에요. 장산 장사드라는 거에요. 그분 산소가 아들바위[10] 뒤에 가면 있어요.

* 김봉성, 남·69.
* 서석면 생곡2리, 1986.7.22., 조남혁 정금란 박미숙 조사.
* T. 5—1—1

8) '씌우니까'의 뜻일 듯. 9) 기울어지더래요. 10) 瑞石面 儉山里 조조울 안에 있는 높다란 바위. 바위 위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데, 작은 돌을 던져서 그 위에 올려놓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함.

바위 속으로 들어간 장수

고갤 착 넘어가믄요, 고개를 착 넘어가면은 바우[1]가 있어요. 질여가리[2] 아주 질여가리. 근데 그 참 바우가 묘해졌드라구. 바우가 큰데 요로케 되고, 요로케 된 게 있어요, 그 근데 그 바우를 옛날에 그 철, 철이 들었다, 그래서 그맨 미련하지, 그걸 증[3]으로 다 쨌다 그거예요. 근데 증으로 쪼으니 그 뭐 들었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랬겠지, 쪼은 자리두 있어유. 아직두 쪼은 자리가 있다고. 근데 내 얘기만 듣고 모르겠는데 그게 쪼을라구 쪼으니깐은 벼락과 천둥이, 소나기가 쏟아지구 그래 그걸 못 쨌대는 거야. 지금두 있어유. 그게 현재 있다구 거기.〔조사자 : 요기 저 활봉 넘어가는 데 있어요?〕 예, 있어요. 아주 그 실물이 있어유, 그게 아주.〔조사자 : 바위 모습은 어때요?〕 바우는 가이[3] 크지 않어유.〔조사자 : 어떻게 생겼어요?〕 아주 미묘하게 생겼쥬, 바우가. 근게 그게 요렇게 돌려 돼 있구, 복판에 쪼은 자리가 있어유, 증으루. 지금두 있어유, 그게 아주, 현재 있다고. 그게 그래 아 이건 왜 그래? 옛날에 그걸 거기 뭐 갑옷이라 그리쥬? 옛날 갑옷, 옛날에 군사가 입는, 장수가 입는 갑옷이라 그랬거던. 그래 그걸 일본사람하구 싸우다 지는 바람에 글루 들어가고 문을 닫았다는 거지. 일본한테 지니깐은 물러나가 쫓겨 갈 데가 없으니깐은 글루 들어가고 문을 닫았다는 거여. 그래 그것을 증으로 쪼개니까 별안간 천둥으로 와서 뭐 그냥 뭐 벼락 맞아서 죽었대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 아 그런 얘길 들었다구.

* 신광호, 남·66. 17대째 서면 반곡리에 살고 있음.
* 서면 반곡리, 1987.7.7., 허남춘 강성관 조사.
* T. 2—1—1

1) 西面 八峰里에 있는 철갑바위를 가리킴. 2) 길 옆. 3) 정. 4)과히.

* 철갑바우[장수암] : 西面 八峯里 팔봉고개에 있는 큰 바위. 한 장수가 이 바위 속에 철갑을 감추었다 함.[5]

임금 되는 꿈을 꾸어준 소금장수

조선 왕조 오백년 아 태조씨가 인제 왕건이 망한 다음에 그 역적이야. 시방으로면 혁명이고, 그때는 역적이라 이거야. 인제 그때 해가 저구서는 한양으로 임금 노릇을 할려 임금이 되나 안 되나 그걸 생각해 가지구 산에 댕기며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어디를 갔는지 그건 모르지, 시방. 근데 산에 들어가서는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구 있는데 그때 누가 갔느냐 하면 이 용씨네 시조라 이제 내가 알기론, 용씨네 시조가 참 간구해서 소금 장사를 하는데 이 양반이 짊어지구선 저 산골짜기로 들어간다 이거야. 들어가다 어둡드라 이거야. 어두우니깐 갈 데가 없잖아? 무인지경이니깐. 그래 떡 하구 보니깐 서낭집이 있드라 이거야. 그래 이 양반이 서낭집엘 들어가 잤어. 자다가 익하게[1] 되니까는 누가 찾거덩.

"아무개 집에 있나? 집에 있나?"

"왜 그래?"

그러니깐,

"아 여기 저 자네 아나? 오늘 저녁에 이성계가 와서 이 저 산신한테다 기도를 한다는데 자네 좀 가세."

그러니깐,

"아이 난 손님이 와서 못 가, 그럼 자네나 갔다 오다가 그 저 얘기나 좀 해 주게."

그래드래.

---

5) 「한국지명총람」 2 (한글학회, 1967), p. 553.

1) 이슥하게.

"아 그러냐?"

구. 아 얼마 있더니만

"아무게 자나? 자나?"

그러드래. 그래,

"아 나 안 잔다."

구 그러니깐, 하니깐,

"아 그래 어떻게 됐어?"

"아 그 이성계 그 마음은 크데."

"왜?"

"아 대국 천자를 경영을 하는 것 같애. 그러나 오늘은 부정해서 산신이 안 받았어."

그러드래. 그래서 이 양반이 자구 일어나니까 꿈인데 날이 새기를 바래서는 아 이상하다구 쫓아 들어갔대, 거기를. 쫓아 들어가니까 아 어떤 양반이 참 음식을 해 놓구선 지무시드라 이거야. 근데 이제 인기척이 나니까 이 양반이 일어나는데 장엄하고 울령이 참 점잖은 양반이니깐,

"아 웬 사람이냐?"

구. 나 소금 장산데, 아무갠데 하고 엊저녁 꿈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냐?"

구 말이야. 부정하대니깐 말이야. 어디 좀 봐야겠다구. 전부 허니까는 머리카락이 하나 있드래, 과일에. 그래 그것이가 인제 부정이 됐다 이거야.

"아 그러냐."

구 말이야.

"아 내가 아무날 또 지낼테니까 그럼 그때 좀 거기 가서 또 자 달라."

구. 그래서 인제 그날 인제 또 왔어. 와선 거기 와 자는데 역시 또 와서 찾거던. 가자구. 그런데 손님이 와서 또 못 간다구. 아 그러냐구. 아 그래서 이제 갔다오더니만,

"아 오늘은 잘 받으셨어. 그런데 그것 참 포부는 크데."

"왜 그래?"

"대국 천자를 달라는데 대국 천자는 안 되구 한국 임금은 된대. 한국에 왕은 허락하셨어."

그래 그 소리를 하구 가거든. 그래서 가서는 이 양반이 가서 또 애걸했다 이거야. 그래 대국 천자는 안 되고 한국 왕은 된다 그래드라니까,

"아구 이제는 다 틀렸구나."

인제 그래가지구서는 그때 인제 아 태조 이성계씨가 인제 임금 자리에 올라 앉아 가지구 그 소금 장사, 이름이 용득이[2]래 그 양반이. 그래 좀 저 양반도 보니까는 저 용씨네 용득이래. 시조가 용득이라구 썼어. 이 양반을 떡 하니 찾으니까 있느냐 이거야. 나이가 많아 돌아갔지. 그러니깐 그 내려오는 그 전설로는 사후 정승이래. 사후 판서. 사후 판서를 정해 줬대. 사후 판서 그때 공이 크다고.

* 안성순, 남·63.
* 화촌면 굴운리, 1988.6.24., 엄기주 오애리 성결제 이용인 박미연 조사.
* T. 1—13—1

임금과 촌로의 약속

여기서 저 남쪽으로 청량리[1]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밝을 청자 시원한 량자 청량리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운무산이라고 하는게 있어요. 구름 운자 안개무자 운무산이라고 하는데 해발 칠 한 이백되죠. 거기를 가면 성터가 있다고 그럽니다. 성터가 전부 거기 현재 확인을 못 해봤고 거기 아마 지금 헬기장이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옛 성터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는 아주 이게 실제 허황되서 말씀 안 드릴려고 하는데 숙종 기실 당시 숙종대왕님이 그 야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2) 용득의(龍得義). 洪川 龍氏 始祖.
1) 瑞石面 淸凉里.

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숙종대왕께서 이 지역까지 왔겠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제가 의심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전되어 왔는지, 하여튼 호위 장정들하고 청량리 오셔서, 소위 여기 뭐 올챙이묵[2]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자시고, 청량리서 자시고

"아 이게 시원하다 이렇게 시원할 수가"

그러니 뭐 옥수수묵이란 건 이맘 때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울 때 이걸 자시고

"어 시원하다."

그래서 이곳을 청량리라고 일컫게 해주고 그 성터가 형성된 것도 숙종께서 거기 가셔서 쉬시는 바람에 그 장정들이 돌려쌓았다고 하는 이야기에요. 믿을 순 없는 거고 그런 이야기를 뭐 어떻게 어른들에게 들었을 때 저도 고개를 끄우뚱하고, 〔조사자 : 거기서 식사 대접을 했던 사람을 서울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 뭐 그 〔잠시 생각을 한 후에〕 그래 상견례를 주고 받는데 내가 뭐 숙종대왕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내가 그 뭐 한양에서 큰 집에 사는 이 서방이다 말이야. 이서방인데 어떻게 거기서 인제 그 이야기는 통성명을 하다보니까 같은 이씨이고 자기가 서울 큰 대문 큰 집에 사는 내 이 서방인데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오라고 그랬던 모양 같아요. 그러니까 인제 벌러서 언젠가 참 시간을 내 가지고서는 감발하고 짚신을 삼어서 허리에다 차고 신고서 아마 한양을 찾아갔던 모양이에요. 그래 이리저리 그저 큰 집만 찾아다니는데 참 어떻게 지나다가 보니까 그 대궐에 가까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인제 문지기가 있어요, 수문장이죠.

"여기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나 여기 이 서방을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아 여기 촌로가 이게 웅 망령이 들어도 유망부두[3]지 여기가 어딘데 이 서방을 찾는게 무슨 소리인가 말이죠. 호통을 치고 서로 옥신각신하

2) 옥수수로 만든 묵. 3) 유만부동(類萬不同).

는데 그 숙종께서 경내를 도시다가, 도시다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가 서울에 큰집에 사는 이서방을 찾아왔는데 너는 뭔데."

이렇게 서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와서 한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내 보내가지고 누가 그런지 잔말 말고 들여보내라 말이야. 그러니 어명이고 하니까 어쩌볼 도리없이 수문장 문지기들도 허용을 하고, 남루하지만은 그래도 갖춰 입는 대로 갖춰 입고서는 꿀단지를 해서 지고 인제 그 들어갔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참 그때 서로 통성명하던 이서방이거든요.

"근대 자네 여기 어떻게 왔나?"

그러니까 나도 이서방을 만날려고 말이야. 그래서 이서방이 떠나는 날 하도 맛있게 자셔서 내가 이걸 또 해 가지고 왔노라고 말이야 그래서 꿀단지를 이렇게 내려놓고 보니까 그 꿀을 이렇게 뭐 주물러 가지고 뭐 환을 짓고 이래 가지고서 숙종께서 잡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여하튼 무식하지만 그만치 거 충성하고 그래서 인제 거기서 뭐 벼슬을 무슨, 그러니까 소원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저 아무 소원 없다고 그래서 그 무슨 소원이든지 내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겠노라 말이야. 그래서 무슨 논문서인가 뭐 하여튼 땅을 하사하였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땅을 하사해 가지고 와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뭐 그 정도 밖에는 몰라요. [웃음] 그리고 또 자꾸 잊어먹고. [조사자 : 그러시죠. 이야기를 안하게 되니까요.] 에.

* 이석구, 남·64.
* 서석면 풍암1리, 1986.7.21., 허남춘 김제훈 문재우 이홍식 오애리 김명숙 조사.
* T. 1-2-1

서곡대사의 신통력

서곡대사[1]의 출생지는 서곡리. 일곱살 먹어서 마댕이[2]를 하는데 도리깽이[3] 맬라고 칡을 끊으러 보냈단 말이야. 칡을 끊는데 칡에서 피가 나와. 그러니까 못 끊고 왔어.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하기를,

"너 왜 그냥 왔느냐?"

그러니까

"칡을 끊으니까 피가 나와서 못 끊고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너는 살생을 못하고…어진 사람이니까…"

두촌면[4] 수태사[5]가 있어. 그래 거기 가서 단독으로 공부를 하고, 그래 절에 수십년 계시다가 중간에 유명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 수태사가 합천 해인사의 속사야, 옛날에. 하루는 〔서곡대사가〕 아침상을 받고 앉아서 웃거던. 그래 상좌가 있다가서,

"스님은 왜 식사를 안 하시고 웃으십니까?"

"합천 해인사에 불이 났구나."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진지 잡숫던 숭늉에 밥알이 있구 그런데, 들고 나가서 합천 해인사 쪽으로 세 번을 튕기고 진언을 했어. 그래곤 들어오시더래. 그래 고 다음에 상좌를 시켜서

"너 합천 해인사 좀 가 보고 오너라."

그래 가려고 하니까 벌써 기별이 오더라 이런 말이야. 합천 해인사에 불이 났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흑운이 이쪽에서 나오더니만 소나기가

1) 瑞谷大師(1702~1768) 俗性 金氏. 본관은 慶州. 東面 壽陀寺에 그의 浮屠碑가 있음. 2) 마당질. 타작. 3) 도리깨. 4) 東面의 잘못. 5) 수타사(壽陀寺).

내려 가지고 밥알이 위에서 떨어지면서 그래 불이 꺼졌다, 이건 서곡대사의 도술이라, 이렇게 확인·인정이 되었어.

하루는, 거기 철산이 크거던, 삼백여 정보야 그게, 근데 풍수[6]들이 사냥을 왔거던, 〔포수들이〕 짐승을 잡아 놓고서는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서곡대사께서 〔상좌에게〕,

"저 너석들이, 짐승을 잡아 놓은 사람들이 소금을 안 가져왔으니 너 소금을 한 봉지 싸 가지고 저 뒷산에 갖다 주고 오너라."

"어디 있는지 압니까?"

"허, 연기 나는 곳을 가면 될 게 아니냐?"

고기 구워 먹으려니까 내 놀 것[7] 사실이거든. 머리가 그러니깐 빠르지. 그래서 가니까 소금을 진짜 안 가져 왔더래.

그래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화장했는데, 중은 반드시 화장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영동을 갔다 오다가 조침령을 도는데 서곡대사가 고개 말랑아[8]에 와 계시더래.

"아, 대사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깐으루

"나는 이제 아주 가네."

그러시더래. 그래 여기를 오니깐 돌아가셔서 화장을 했더래. 그러니깐 그 사람이 서곡대사의 혼을 만났던 거지.

한번은 그 양반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 앉아서 웃으시더래.

"아, 스님께서는 별로 웃으시는 일이 없더니 어째 웃으시고 그러십니까?"

그전 구정에, 구정[9]이라고 큰 가마일세, 게다가 합천 해인사에서 팥죽을 쑤는데, 한식날 팥죽들을 쒀 먹지 않아? 팥죽을 쑤는데, 둘이나 서이나 넉가래 같은 걸로 죽을 저어야[10] 되거든.

"아, 저 너석들이 중을 삶아 먹는구나."

---

6) 포수. 7) 연기가 날 것. 8) 마루. 9) 九鼎. 10) 저어야.

이러더래. 밤에 거 큰 놈의 가마솥에 죽을 쑤는데 젓다가 졸려우니까 그만 죽가마에 엎어졌네.

이렇게 그 양반은 먼 데 일을 다 알고 계셨다고.

* 박관석, 남·78.
* 내촌면 도관3리, 1986.7.23., 황명로 김요섭 박형규 조사.
* T. 3—8—1
* 허태경(남·77, 서곡리 안실, 1986.7.21.)의 구연에서는 산에서 흙을 끓으니까 흙에서 피가 나온 것이 아니라 논에서 가래질을 하다가 지렁이가 잘라진 것으로 되어 있고, 불이 난 절이 합천 해인사가 아니라 충청도 봉곡사로 되어 있다.

서산대사의 신통력

서산대사가, 그니까 성진이[1]가, 성진이가 그 도사지, 아주 도사. 그 우트게 됐나하면, 서산대사가 일본을 항복 받았잖아? 일본을. 일본에서 한국에 인제 맹인[2]이 누구냐? 그래니까 서산대사라 그거야. 그래 서산대사를 붙들어 데려 갔어. 붙들어 데려 갔는데 일본에다 갖다 놓고서,

"너 한국에서 일본 들어올 적에 이 전봇대가 몇 대 되냐?"

그러니까, 이걸 다 세 봤더래.

"암만대라."

이거야. 아 일본놈들이,

"아주 아 과연 맹인이로구나."

그래 이걸 우터게 항복을 받을 수가 없어 도저히가. 그래 무쇠로, 무쇠루 집을 짓고, 무쇠루 방을 맨들구서 거기다 무쇠 마룰 해 놓구서 서산대사가 거기 올라 타라 그거야. 그래 이놈들이 방을 달구는데 아 불덩어리지. 이

1) 西山大師(1520~1604) 休靜. 俗姓 崔氏. 본관은 安山. 1592년 임란이 일어나자 왕의 특명으로 전국에 격문을 돌려 승병 1천5백을 규합, 이들의 총수가 되었다. '성진이'는 서산대사와는 관련 없는 이름임. 2) 名人.

벽도 쇠요, 그 마루도 쇠고, 근데 사람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항복을 하겠지."

그래군 서서히 문을 펄떡 여니깐 안에 진서리가 확 퍼지더래, 얼어서.

"야 일본이 덥대더니 이렇게 추우냐? 그래 추워서 살겠냐?"

이거야. 아 그래 일본놈들이 야 기가 맥혀서 그래. [청중 : 이래두 항복을 안 허니.] 그래 가만 우트게 무슨 거시킨가 보니까 그 벽에다가 뭐 얼음 얼음 빙자, 얼음 빙자를 써 붙이구, 말 배때기에다가 얼음 빙자를 써 붙이고 말야, 그래군 떡 허니 말에 올라 앉아서 서산대사가 아 일본나라가 덥대는데 이렇게 추울 수가 있냐구 말야. 아 냅다 호령이로구만. 그래 일본놈들이 아주 하품을 했대는 거야.

* 전석일, 남·63.
* 북방면 성동2리, 1987.7.9., 김진희 정금란 강하구 최용헌 조사.
* T. 6—5—2

조선을 침략하려다 망신한 왜장

한국을 인제 일본이 인제 먹을라구 나올 적에 왜장천젱이 나오는데, 왜장천젱 누이가 있는데, 왜장천젱 누이가,

"동상, 한국 나가면, 조선 나가면 실패해. 나가지 말어."

그러니까 아 이

"아유 조선 같은 소국에 무슨."

"내가 거시기 점을 해 볼께. 내 점대로 따려."

그러니까,

"누이, 무슨 점을 하나?"

구 그러니까 그 누이가 여울가에 나가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 가는데 버

들잎을 쭉 훑더니 말야,

"이 버들잎을 내 훑어서 이 물에 버들잎이 떠올라오거든 동상이 나가고 떠내려가믄 나가지 말어라."

이런 얘기야. 나가믄 실패헌다 이거지. 그니까 물이 막 내려가는데 거기서 버들잎을 즈 누이가 훑어 내리니까 버들잎이 내려가네. 둥둥 떠 내려간단 말이여.

"동상 한국에 나가면 실패해, 안 돼."

"원 아이구 뭐 여자가 뭘 안다구 아유 나 간다."

구 나왔네. 왜장천제가 말야. 왜장천제가 빠리비수를 해 짊어지구, 그래 나와 가지군 한국을 휘 돌아댕기는 거지. 어딜 왔냐하믄 김동립이 집에 왔어. 〔조사자 : 어디요?〕 김동립이, 김동립이 한국 장사 아냐? 김동립이. 그 집일 왔는데 다 유슬[1]듣구 왔거든, 일본서. 김동립, 김동립, 김동립이 장산 줄[2] 알고 그건만 쥑이면 인저. 그 뭔가 거 와서 김동립이 집이서 자는데 잘 적에 말야, 잘 적에 빠리비수루 아주 목을 짤를라구 인제 거시켰는데, 아니 자다 일어나 보니깐 보따리에서 빠리비수를 끄내 가지곤 내려 치는거야. 빠리비수를 끄내 가지곤 김동립이가 자는 걸 아 목을 칠라고 그러니까 아 김동립이가 뻘떡 일어나서 칼끝에 댕숭 올라 앉으면서,

"아 이놈 어디 그런 걸. 아 조선이 말야, 아무리 거시키 무식한 나라래두, 저 소국 일본 너 같은…. 당장 가라. 그런 중 모르고 내가 재웠더니 어디 그 따위 행동이냐?"

아 내쫓네. 게 안 갈 수가 있어? 게 도술 축지법을 써 가주군 왜놈 천제가 긴 길을 가다간 날이 저물어 잘라구 들어가니깐 도로 그 집이여. 음 도로 김동립이 집이야. 김동립이 아 호령을 했드래네.

"너 가랬더니 왜 안 가구 왔냐?"

구 그랬더니

"아이, 그게 우트게 갑니까?"

---

1) 뉴스를. 2) 줄.

아 즈 동생 집에 보냈네. 인제. 동생집에. 김동립이 두 형제가 장사래. 동생집에 보냈어. 그래 거 가서 거 둘중안에 하나만 죽이믄 성공을 헌단 얘기야. 성공을 허는데 이제 김동립일 죽일라구 인제 죽일라구 갔단 말이야. 뭐 즈 성이 연락을 해 다 알지. 그땐 전화는 없겠지만 말여, 다 연락을 해 가주구. 아 역시 자니깐 아 뭐 속눈만 감구 겉눈 뜨구 자지. 자니깐 폐리 비수를 꺼내 가지곤 내리칠라 그러지. 아 동립이가 비수끝을 잡구,

"이게 뭐허는 게냐? 이거 가지구 뭐 헐라구. 우리 조선이 암만 소국이라도 이런 건 안다."

아 비수를 손으로 똑똑 꺾어서 저 응정[3]을 했지.

"어여 돌아가. 느 일본은 아직은 우리 조선을."

〔청중 : 만만히 못 본다.〕 아 그래 돌아갔어. 인제 왜왕 천제가 일본으루 돌아갔다구. 가니까 제 누이가,

"게 너 성공했니?"

그러니까,

"아유, 조선이, 조선이, 거 김동립이 김동리헌테 아주 혼났어요."

그러니,

"누가 아니래. 나가지 말라구 그랬잖어?"

아니 이튿날 또 간다 그래.

"이번에두 가서 너 거식컬라구?"

"아냐 간다."

거 나가 보라구, 나가지. 조선을 나와선 아 베란간 쪼나기가 쏟아지는데 아 어디 갈 데가 있나? 방앗간에서, 질거리[4] 방앗간인데, 방앗간에서 왜장 천제가 비를 그을려고 쉴려니까, 원 요만한 아이가 거기 방앗간에 있단 말이야. 그래니까, 즈 엄머이가 저 안에서

"애 아무개야, 아무개야. 거 방앗간에 저 빗자루 좀 가주 오너라. 여 뭐 좀쓸게.[5]"

---

3) 응징(膺懲). 4) 길거리. 5) 쓸게. 쓸려니까.

그러니까

"예."

아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데 아 이눔아가 앉아서 강아질 부르는 거야. 강아질 불러, 강아질. 강아지 등에다 빗자루를 쳐매절라무네, 빗자룰 끄내 쳐매 놓구선,

"어무니 어무니. 비 쓰는 강아질 부르세요."

그러니깐 아 강아질 부르니까, 강아지가 들어카니 비가 들어칼 꺼 아냐? 아 그러니깐,

"야, 게 넌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용골대에요."

〔조사자 : 용골대요?〕 용골대래요. 용골대, 장사 아냐? 장사. 그래가지구내 그전에 조선에 명인이 있었다구. 아 그래가지구 이눔들이 일본서 무슨 궁릴, 세상 무슨 별 궁릴 다하다 야중엔 소리 질러 매를 그려 왔어. 메. 매 알지? 꿩 잡는 매. 매를 떡 그려놓구선,

"이 매가 나가[6] 열만지 느 알아 들여라."

조선서 알아들여라 이거지. 이걸 죄 모르네. 매 나가 열만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용골대가 그때 한 그저 열아문 살, 열둬 살 됐는데, 아 이게 매 나가 열만지 알아 보래는데 이게 매 나가 열만지 아냐?

"그 매 나를 몰라? 아유 매 난 나는 아는데."

"아 니가 뭘 알어? 메 날 열맨지 아니?"

"그럼 몰라요? 매 날. 그 매가 여든 한 살이요."

"그 우트게 여든 한 살이냐?"

그러니까,

"매를 부를 땐 구구하구 부르잖어? 구구허구. 구구는 팔십일 아니요?"

구구는 팔십일이니까 여든 한 살이지. 뭐. 〔청중 : 아 그래 거 맞는 얘기지.〕

6) 나이가.

아 그래 여든 한 살로 떡 써서 일본에다 보내니까,

"야 과연, 과연 대한민국이, 참 조선이 명국이다."

아 그래 가지구 그 담엔 돌배를 해서 돌배, 일본서 돌배를 해서 한국으로 보냈어, 돌배를 해서. 돌배를 보내니까 이걸 일본으루 띄워 보내라 이거야. 이거 어거지지. 억지지. 아주 억지루 인저 일본이 우리 조선을 휘어잡을라구 인제 그러는 거지. 그런데 이걸 우트게 물에 띄워 보내냐 이거야. 돌배가 물에 가라앉지. 그 그 그게 뜨나? 이걸 궁리하다 못해 세상 뭐 거 명인들이 뫼여서, 궁릴 해도 이걸 일본으로 띄워 보낼 수가 없어. 그래니까 용골대가,

"예 그걸, 아이 그것 답을 못해요?"

"우트게 답을 하냐?"

"거 일본서 이왕 돌배를 맨들었으니까 그 모래 닻줄을 해 보내 주세요." 모래 닻줄만 가져오믄 우리가 뱔 가주 간다 그랬지. 그래 돌로 배를 맨들어두 즈가 모래로 닻줄을 맨들 수가 있는 애기야? 허허 그 엄청난 애기지. 게 결국은 일본이 졌다는 애기지.

* 전석일, 남·63.
* 북방면 성동2리, 1987.7.9., 정금란 김진희 강하구 최용현 조사.
* T.6—5—2~6—6—1
* 加藤清正(1559~1611,일본의 무장), 龍骨大(생몰년 미상, 중국 清나라의 장군), 金東三(1878~1937, 한국의 독립운동가) 등의 고유명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듯함.

이여송을 기죽인 서애 선생

병자호란 선조대왕 그맘때 중국서 시방 한국, 옛날 조선을 좀 도와 달라고 그랬는데 중국 도원수가, 이여송[1]이. 이여송이가 칠형젠데 제일 맏이

1) 李如松(?~1598).

야. 그래 이여송이라는 사람이 아, 먹는게 뭐냐 하면 용만 낚아 먹어, 용의 고기. 다른 건 안 먹어. 그래 또 그 용 낚는 낚수[2]가 따로 있어. 그 낚수로 해야지, 여느 낚수는 되지 않아. 그 낚수 이름이 순금낚수야. 그래 중국에두 그게 한 개밖에 없어, 낚수가, 그 너른 나라에. 그래 이 조선 좀도와 달라는 나라의 대장님이, 그 뭐 중국서 이 조선은 그 뭐이 한 짝만큼도 못하지. 그래 이게 뭐 오기가 잔뜩 싫은데, 그래 정부에서 도와 주라니까, 그래 할 수 없이 오긴 오는데, 올라고 하는 고 전에 서혜[3] 선생이 따라와서, 유성룡 선생이라는 〔청중 : 유성룡이?〕 음 그래 선조대왕이 함께 와서 아 그후로

"중국 구경을 좀 가자."

구경을 아 시방 같으면 비행기로 가지만 그 옛날 도보로 걸으면 댕길 때 그 뭐 가만 갈 테지. 그러나 선생이 오여[4] 재간이 있으니 그래

"고만"

아 대충 이라거든, 좀 쉬라고. 아 그래 대왕을 업고서 그래 뭐 몇 시간 안 돼 가지고 그래 가서 악양루라는 악양루 고소대라는〔 〕[5] 이제〔 〕[5] 그래 좀 돌아다니다 보니 뭐 보물 하나가 있어. 그래 주어[6] 가지고, 그래 이 대왕은 모르지, 애기를 안 하구 그럴 때,

"아 중국꺼정 대왕이 구경을 했으니 여 왔다 갔다는 원 표가 있어야 될 께 아일까?"

아 그래 서산반죽[7]이라는 데가 있어. 그래 그걸 끊어 가지고서 횡겟말에 꽂아서, 아 그래 뭐 그냥 몇 시간 되긴 됐겠지, 한 두 시간 되게 나왔단 말이야, 서울로. 선대왕[8]은 아 배에 가 자고, 대왕이 자고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암만 선사조화라도 두 국을 하룻밤에 갔다 오니 곧이 안 들리지. 시방 같으면 비행기, 비행기로도 어렵지. 〔웃으며〕〔서애선생이〕 아침에 들렀어.

"아 선생 어째 중국을 갔다 오긴 갔다 왔는데 그건 꿈도 아니고 당테[9]

2) 낚시. 3) '서애(西厓)'가 맞음. 柳成龍(1542~1607). 4) 워낙. 5) 청취 불능. 6) 주워. 7) '소상반죽(瀟湘斑竹)'이 맞음. 8) '선조왕'일 듯. 9) 당최.

생각이 안 나니 그 어쩐 일인가?"

다시 물어 보아도,

"아 갔다 왔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새로 하나 서산반죽을 해 가지구 온 게 있는데 아 이걸 보라."

고 하거든. 선생이 보여주거든.

"아 선생 재주도 좋다."

그래 가지구서 얼마 안 있다가 참 중국서 이여송이가 나왔다. 나와서는 천하장사니까 이제 이 조그맨 나라 업신여겨 보고 트집만 해 아 이 왔으니까 뭘 먹긴 먹어야 될텐데. 아 그래 용을 해 드리라고 그래 이 아 그 뭐 거기서 받은 거 이여송이가 거기서 용 낚다가 그만 낚수를 잃어버렸어. 그래 하필 이 조선의 선사눈에 띄었어. 아 선생이 주워 가지고 오는데 아주 이여송이, 없을 줄 알고 자기가 잃어버렸는데 조선땅에 있을 줄 알고, 있는 것만 찾는다 이거야. 용을 해 드리라고 아 그래 곧 낚수 갖다가 드리우면 대번 물거든. 아 그때 서산반죽 대절까지[10] 그기래야 또 먹는답니다. 여태까지도. 그래 뭐 갖다 뜩 들이대니 대번 물지. 참 신비한 조화야.

"이거 중국에 있는데 이게 참 묘하다."

구, 그래 그 다음부터 참 그짓도 안 하구 아주 잘 살았단 말야.

* 이기종, 남·85. 다른 지역에서 좌운리로 이주해온 지 15년밖에 안 됨.
* 동면 좌운리 노인회관, 1988.6.23., 허남춘 이동수 한호순 박삼희 박승림 조사.
* T. 3—14—1

10) 대〔竹〕젓가락.

부모 위해 자식을 끓인 효자

소자[1]에 대해서 한 마디 합니다. 인제 아주 옛날에 멫 십 년 전이래요. 아주 우리 이주 할아버지 고주 할아버지, 고주 할아버지 때의 얘깁니다. 근데 어머니가 병상에서 알러서[2] 뭘 약을 다 써도 안 나요. 도리[3] 안 나구, 살굴 도리가 없거든. 그런데 약 귀하러[4] 한 군데 가더리껜, 산에서 어느 할아버지가 하나 탁 나서문,

"늬 어머니 약을 셀라거든 너 자식, 지금 학교간 자식을 삶아서 멕여라. 그러면 너의 어머니가 낫는다."

이러거든. 제 자식이 학교간 걸, 오거든 대뜸 삶아서 그 물을 멕여라. 그래서 그저 핵교 갔다 오는 거를, 책가방 든 거를 그저 물 펄설벅 끓여다가 집어 처넣었다 말이야. 제 자식을. 집어넣고서는 미처 끓지도 않아 두어 숟갈 떠멕이니까, 엄마가 거양 건뜬 난담.[5] 그래서 다 하마 한 두어 그릇을 끓여 멕이고 이러는데, 저녁때 일쑤한데[6] 아 자식을 끓여 멕여서 부모가 나서 얼마나 좋지? 좋으나마나 그게 나쁘겠죠. 물론. 내 자식을 그려니. 〔그런데, 끓였던 자식이〕 아 책가방을 들고 여전히 들어온다말야, 제 자식이. 여전히 들어온단 말야. 아 부모가 깜짝 놀랐단 말야. 아이 뭐야, 세상에 자식을 삶아서 부모를 멕여서 부모가 나았는데, 내 자식이 책가방을 들고 들어오니,

"희안하다. 야, 희안하다."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산신이 산삼, 산삼을 내코[7] 보냈어요, 그 부모한데. 어떻게 성의가 있어서, 하두 성의가 있어서 산삼을 산에서 내코 보냈어요. 그래서 그 맘을 볼라구. 부모의 소자. 그래가주구 건뜬 나

1) 효자. 2) 앓아서. 3) 도무지. 4) 구하러. 5) '그냥 거뜬하게 나았다'의 뜻. 6) 이슥한데. 7) 내려.

가지고서는 거양 그렇게 부모가 일어나서, 그렇게 되니깐 그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잘 살드래요.

* 이천옥, 여·63.
* 북방면 하화계1리, 1987.7.9., 조옥희 김성욱 장기영 최광현 조사.
* T. 5—8—2

부모 위해 자식을 파묻은 효자

옛날에요, 인제 저 참 시어머니 시아버이가 기시는데, 인제 어느날 〔자식을〕 낳아 가지고선 이렇게 큰데, 할머니, 부모를 〔음식을〕 해드리면 다 뺏어먹어 다. 싹 뺏어 먹으니깐 둘이 공론을 했어. 메누리 아들이.

"여보시오. 저 우리 잘[1]갖다 이따 묻자."고.

"잘 갖다 묻어 뻐리자."구.

"묻으면 우리 할머이 할아버지가 맛있는 걸 해드리면 잡숫지 않냐?"

"다 저 자식이 다 뺏어 먹고 어떡하겠냐?"구.

"갖다 묻자"

구. 밤에 광이[2]를 들고 알[3]업고선 갔어. 가면서,

"야 저 가자. 저기 가서 맛있는 것 사 준다."

고 꾀드겨서[4] 갔단말야. 가서, 부둣가 옆의래, 부둣가 옆인데, 아마 바닷가 웅거리[5]에서 살았나봐. 바닷가 옆에서 들였다[6]팠단말야 아주 얼르금[7]파고선 아를 살며시 들여놓곤,

"요기 있으면 아주 맛있는 거 준다."

면서 들여놓는데, 들여놓고 돌아서는데,

"아 엄마, 아이구 아파, 아이구 아파, 아이구 아, 발바당이 아퍼 죽겠

1) 저 애를. 2) 괭이. 3) 아이를. 4) 꾀어서. 5) 언저리. 6) 돌입다. 7) 얼만큼.

다."고.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 발바당이 아퍼 죽겠다."

고. 그래서 베내고선 보니까는 이 돈을 돈구덩에다 묻어서 돈이 모두 발에 가 배겨서 아퍼 죽는다고, 그래가지고선 가붕께는 은전이, 하루 한나절 반을 파들였대, 그래가지구 부자가 됐대유. 아 그 이 부모를 아주 그렇게 하구. 자식을 누가 그런 자식을, 어느 사람이 내 자식을 죽일려구 하겠수? 부모, 그 소자[8] 그 그 소자지. 그래가지구 그 돈을 퍼가지군 그렇게 아주 일부장자[9]로 살아 가주구 그렇게 효도를 했대요. 부모에 효도를 하믄 다 이렇게 참 복이 돌아와요.

* 이천옥, 여·63.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이종철 엄기주 유은영 조옥희 김성욱 장기영 최광현 이연순 조사.
* T. 5—6—1

노모에게 해골물을 먹인 효자

잘 적에 몸을, 이 각을 띠서[1] 저기다 걸고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 각을 맞치고[2] 그런 사람인데, 즈 어머니가 병이 들었댄 얘기야. 즈 어머니가 병이 들었어. 그런데 그렇게 용해두 즈 어머니 병을 못 고친단 얘기야. 그러니까 아 그런 얘긴데 그게 정성이야, 효자구. 편젝이[3] 동상은 아무것두 모르는데 하루는 즈 성님더러

"성님, 그렇게 잘 아시구 그러는데 어머니 병이 저렇게 짚어[4] 가는데 병을 안 고치믄 어떡하실라고 그러느냐?"

구 하니까,

8) 효자. 9) 一富長者, 甲富.
1) 각(脚)을 떠서. 2) 맞추고. 3) 편작(扁鵲). 4) 깊어.

"병을 곤칠 도리가 없다." 이기야.

"그래 약도 없어?"

"약이 있지."

"약이 있으믄 약을 구해 드리면 될께 아니요?"

"약을 못 구해요."

"아 왜 못 구해요?"

"어머니한테 약은 천년 두골에 삼용수[5]의 약이다."

이런 얘기야. 천년 두골에 삼용수. 그게 뭐냐 하믄 말이지, 천년 묵은 사람의 해골에 거기 용이[세 마리] 빠진 물이래. 그래 그만한 물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그래니까 편잭이 동생이 하도 답답하니까 하루는 즈 어머니를 업고서 무조건 무덤 근처로 가는 거야. 가다가 참 지금처럼 더운 뜨거운 복인데, 고갤 넘어가다가 참나무밭 속인데 즈 어머니가,

"아구 야 목이 말라 죽겠다. 나 물 좀 다구. 물 좀 다구."

등어리에서 말야. 그래 즈 어머니 그 비탈에, 참나무밭에 내려 놓구선 갈밭으로, 갈밭으로 물을 찾아 댕기니까 물이 있나? 한 군데 구멍을 들어가니까, 아 뭐 허연 바가지가 그런 게 벌렁 자빠져 있는데 물이 여기 괴였단 얘기야. 그런데 보니까 그게 해골바가지야. 사람 골. 골속에, 굴러 내려와 가주구 자빠져 물이 괴었는데, 거기 지렝이가 세 마리가 빠져 죽었단 얘기야. 그래 편잭이 동생이

"천년 두골에 삼용수가 약이래는데 이게 아마 약이 될까나?"

그래 지렝이를 건져 내꾼지군[6], 즈 어머닐 그냥 갖다 주면 죄가 될까봐 지가 먼저 한 모금 마시구서 즈 어머니를 갖다 드렸단 얘기야.

"어머니 여기 물 있어유."

그러니까,

"아이구 어서 물을 구했니? 아 이게 뭐야?"

해골바가지라면 안 잡술까봐,

5) 千年頭骨三龍水. 6) 내던지곤.

"아니 바가지에요, 바가지"

그래 눈두 어둡고 인제 그러니까 그 물을 쭉 마시군 아 쪼금 있다가 아들이

"어머니 업어유. 또 가입시다."

"아 얼루[7]가? 집으루 가, 집으루 가."

"아 어머니 약을 구해 잡숴야지."

어떡허든지 어머니 난 약을 구해야 간다구 그러니까

"아 이젠 괜찮어. 이젠 아주 아픈 데 없어. 가, 집으루 가."

그래서 편객이가 아무리 그렇게 용하고 그래두 편객이 동상이 지 어머닐 곤쳤다는 얘기야. 편객이 동생이. 그건 왜냐? 인제, 그렇게 병을 곤칠라고 애를 쓰고 그래 그 정성으로 참 하늘이 돌보고 산신이 돌봐 가지구 약을 구해 줬단 말이야. 그러니깐 해골바가지에 물이 괴 가지구 거기두 지렁이가 세 마리가 빠져 죽었으니까, 천년두골에 삼용수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편객이 동상이 병을 고쳤다는 얘기야.

* 전석일, 남·63.
* 북방면 성동2리, 1987.7.9., 김진희 정금란 강하구 최용현 조사.
* T. 6—1—2

시어머니에게 지렁이를 먹인 며느리

한 옛날에 어머니가 쇠경[1]이 됐어요. 쇠경이 되어 가지고서는, 인제 자식이 공불 해 가지고서는, 그니깐 공불 해 가지구서는 과겔 보러 가요. 옛날엔 과게 보지 않아요? 과겔 보러 떡 갔는데 〔아내에게〕 어머니를 어쨌든, 어머니 공경좀 잘 하라고, 이렸꺼덩. 못 보니까 인제 공경 못 할까봐. 이 여자가 옛날에 해줄 게, 해드릴 게 없죠. 고기도 뭐 쉬까께[2] 있소? 가서

7) 어디로.
1) 소경. 2) 쉬이. 가깝게(?).

지레이[3]를 팠다 말이야. 지레이를 파서는 한 두 마리씩 삶아서는 어머이 잡수라고 그러니까, 쇠경이니까, 먹으니까 맛있거든. 먹구 먹구. 그래, 하나씩 아들 오면 비킬라구,[4] 하나씩 요렇게 자리 밑에다가, 옛날엔 저 그, 〔청중 : 왕골자리〕 아니, 왕골자리 아니고, 대자리래요. 대자리. 대자리 깔은 데다가 툭 디밀고 툭 디밀고. 하나씩, 한 마리씩. 그리군 먹었다 말이야. 먹구 먹구. 그래 과거를 해 가지고 딱 내려오니까 엄마가 살이 부영게 쪘거덩.

"아우 어머니, 참 잘 공경 잘했소. 어머니 뭘 잡숴 그렇게 부영습니까." 그러니까. 자리를 이렇게 더듬더듬 이렇게 하면서,

"아유 아무니 이런 걸 이렇게 해 줘서 먹었다."

"아이구 어머니, 그게 지렁이 아녀유?"

그래니깐, 아우, 눈이 뚝 떨어졌어요. 눈이 뚝 떨어져 가지구, 나아 가지고 그 집안이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드래요.

* 이천옥, 여·62.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김성욱 조옥희 최광현 장기영 조사.
* T. 5—8—2

어머니를 위해 놓은 다리

이건 이를테면 뭐 고려때나 아마 이조때 그때 나온 얘길꺼여. 빈한한 가정이 있었는데 네 식구,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구 어머니하구 그리고 아들들 둘 하구 네 식구 살았었는데 인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구, 그러니깐 젊어서 사망됐지, 인제 아버지가. 시방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 인제 그 어머니가 일찍 젊어서 혼자 되었으니깐, 아들네가 보니깐 밤이믄 어머

3) 지렁이. 4) 보이려고.

니가 인제 나가시더래. 그래 그 시방 인제 세멘트로 인자 그 다리가 돼 있지만 옛날엔 다리가 거 없었단 말이야, 도랑이 있었는데. 그래 겨울에 찬물을, 발을 거, 옛날엔 버선을 신고 그랬으니까, 겨울에 버선을 이제 벗고서 건너가는 걸 이제 봤단 얘기지. 그래 건너가는 걸 보니깐 그 좀 떨어진 이웃집으로 가더라 이거야.

그래 가보니깐, 자기 어머니하구 지내는 그런 그 남자분을 찾아가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 아들들이 생각할 쩨[1] 좀 안됐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어머니가 불쌍해서내 지녁[2]마다 그 찬물을 건너가는 다리를, 다리가 없으니까, 그 버선을 벗구 맨발루 건너가니깐 그게 안타까워서 나무루다 목다리를 놔 줬어. 그니깐 한편 생각해 보믄 자기 아버지한텐 불효이지만 자기 어머니한테는 효자, 효행이 됐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시방 거기 가 보면 현재 이제 큰 보가 들어왔는데 시멘트로 다리가 돼 있지, 시방은.

* 박형호, 남·55. 철정3리 지다치에서 농업에 종사. 철정3리 이장.
* 두촌면 철정3리, 1986.7.22., 김성수 유은영 이대근 전계진 조사.
* 2—9—1

마음이 약해 효자 못된 아들

아버지는 연령이 많아지는데 아버지의 병이 엄청 깊어졌단 말이야. 글쎄 고칠 능력이 없네요. 세상 없는 약을 써두 안 되고 무당, 점쟁이가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고쳐 주시는 분은 오래 먹고 살도록 해 준다고 했어.

하루는 보따리 짊어진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부모를 보고 갈 수 없냐고

1) 적에. 때. 2) 저녁.

해서 들어오라고 했어. 들어와서는 고쳐준다고 해서 고기 반찬을 해 줬지.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틀 사흘을 보냈단 말여. 아버지가 어떻냐는 말도 안하는 거야. 사흘을 잘 얻어먹고 가는 날 아침에서야 하는 말이,

"부모님 어디 계시나?"

"저쪽 방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계속 맥만 보고 가는 거야. 효자가 말씀이나 한 마디 해달라고 하니까 대답을 계속 안하고 그냥 가는 거야. 효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보따리 짊어지구서 쫓아갔다 이거야. 그 사람이 몇 백리 가다 보니까 계속 쫓아오거던.

"왜 그렇게 쫓아오나?"

"아! 한 말씀은 해 주셔야죠."

"쫓아오지 마."

그래도 하룻밤 자고 계속 따라가니까 턱 하는 말이,

"니가 효자는 효자다."

그러는 거야,

"무슨 약을 써야 합니까? 약이 없습니까?"

"약을 알려 주겠다. 알려 주는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할거냐?"

하여서 효자니까,

"하겠다."

했단 말이야.

"내 말대로 해라. 저기 가면 큰 고개가 있잖냐? 두 세 사람 잘 넘어다니는 고개야. 거기 가서, 니 아버지는 사람의 골을 셋을 먹어야 살어."

그러니까 그 이튿날 돌아와서 내려다 보니까 지 아버지와 똑같은 노인이 올라오는 거야. 지 아버지랑 똑같은 노인을 때릴 수 있수? 그냥 가라고 했지.

"또 하나 올라오면 우리 아버지 병을 고쳐야겠다."

하고 있는데 효자하고 친구가 왔어. 어떻게 때려? 그래서 꼭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숲속에서 색시가 올라오는데 또 못 때려.

세 고개를 못 넘기고 말았지. 부모병을 못 고친 거지. 그러니 효자 노릇을 못했어.

* 신홍수, 남·66. 동면 개운리에서 5대째 거주.
* 동면 개운리 정자, 1988.6.23., 허남춘 박삼희 조사.
* T. 3—15—2

젯상 앞에서 동침하는 부부

용문을 채 못 미쳐가지고 거기 양서방네가 많이 살았어, 그전에. 나도 들은 얘기지. 그래 거기를 한 번 오니까 아주 손님 대접을 잘한다 소리를 듣고 인제 거기를 왔어. 지나가는 과객을 손님 대접을 잘 한다고. 그래 거 양서방네가 잘 지냈거든. 부지로 잘 지냈어. 여러 수십 호로 그중 큰 집을 들어가니까 그때 참 대접을 잘해. 그래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집 문중에 모였는데 하도 잘 알고 그래서 하루 이틀 묵었거든. 그래 남루하게 하고 다니거든. 어사가 남모르게 비밀탐정하러 다니는 사람이거든. 남보기에는 걸인 비스룸, 얻어먹는 사람 비스룸하게 그래갔는데 주인영감이 대우를 잘해. 그래서 하룻밤 자고 갈려는 걸 거동을 보느라고 어쨌든지 한 열흘 묵었어. 그래도 그날이 장수여 그래도 잘해. 아 참 잘한다고 속궁리는 그렇게 하고 가만 보니 안에 인품도 좋고, 원 안에 인품이 좋아야 바깥 인심이 좋은 거여. 여기 처녀 학생들도 있구먼 〔웃음〕 뭐든지 안손이 좋아야 돼. 그래 다 다들 돌아봐도 아주먼네가 그렇게 잘하고 참 대우도 좋아. 그래 슬금슬금 나라로 올라갔거든. 박어사 박문수가 올라가서 그집 자손들을 벼슬을 모두 내려 주었어. 그래 너분여울 양서방네 솟대가 열둘이 났다는 게여, 경사가. 양 경사집들이지. 또 한 군데 또 갔어. 딴 고을에 갔는데 밤새도록 불이 환해 이상하다 하고 가만히 탐정을 해 가보니까 아 안에서 밤새도록

명을 자아. 목화송아를 물레로 자아. 그러면 실이 돼. 밤새도록 그걸하고 잠을 안 자거든 그것 이상하다 하고선 이 날이 새도록 자아, 그 부인네가. 남편은 옆에서 자고. 이상하다 하고서는 한 사나흘 그 군방에서 지냈거든. 사흘 저녁을 자꾸 그렇게 잤거든. 그래 사흘 저녁만에 가봤어, 내당에. 그래 어떻게 안 주무시고 이렇게 명만 이렇게 잤느냐고 물으니까 아 우리는 어려운 살림이라 낮에는 농사일 하고 뭐 여러가지 일 해야 되고 길쌈할 때가 없어 밤에 해 가지고, 그땐 무슨 사서 하는 베도 없어, 손으로 해야 옷을 해 입어, 애들하고 그래서 한다고. 참 아주 기가 막히게 부지런하고 잘하는 사람이야. 가서 아주 잘 한다고 그렇게 잘하니 나라에 올라가서 상을 줬거든. 아, 그러니까 동네에서 다 알께 아니여? 밤새도록 명 잣고 그래서 어사가 와서 탐정을 해서 상을 내려서 좋다고 아 그 이웃에 한 새댁이

"에이, 그럼 나도 그렇게 한번 해 본다"

고 〔웃음〕 하는데 그이는 명이 있나? 뭣이 있나? 괜히 드러 누워서 발끝에다 물레 꼭지를 매고 발을 이렇게 휘휘 둘러 밤낮 이렇게 불을 켜놓고 드러누워서. 그래 한번 또 와서 탐정을 해 보니 한 집에 불이 환해 가보니까 명은 안 잣고 발끝으로다 물레질을 해. 에이, 이 사람은 틀렸다고, 그래 그 집엔 벌을 주고 이웃 사람이 저렇게 했다니까 저렇게 한다고 거짓말 뿌렁이 한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지.

또 한 군데를 지나갔어. 박문수가 한 집을 가니까 불이 환하거든. 불이 환한데 가만히 가서, 울타리 구멍으로 들어갔는지, 보니까는 방에다 제사를 채려놓고, 굉장히 잘 차려 놓았어. 그래곤 제사를 안 지내고 젊은 남녀가 이불을 깔아 놓고 그냥 드러누웠어. 아 저런 고이한 놈이 있나? 저 아버지 제사면 제사를 지내야지. 젯상 앞에서 두 내우 팔을 베고 이렇게 아주 자. 불은 환히 촛불을 켜 놓고. 아 그래 고이한, 괘씸스럽거든. 제삿날인데 제사는 지내지 않고 젯상 앞에서 두 남녀가 이렇게 자니 부아가 대단히 나. 그 이튿날 호출을 했어, 괘가로다. 그 밤에 새벽에 인제 자기는 대궐로 들어가고 그래 호출을 했으니 두 내우 갈 수밖이.

무릎을 꿇어 앉히고 또 죄를 얘기해라 그랬거든. 아, 저는 죄진 일이

없습니다. 아, 이놈 왜 죄진 일이 없냐? 그 놈 혼내라고 사령이 이제 붙기를, 들이 덤비며 그 아단을 친단 말이야. 바로 애기 하라고. 아 전 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 엊저녁에 너 아버지 제사 아냐? 제사 지내는 걸 봤다고 그랬거든.

"엊저녁이 우리 아버님 기곱니다."

"그럼 이놈아 제사를 지낼려면 잘 지낼 일이지. 아 두 내우가 그 젯상 앞에서 그저 곧 옷을 다 벗고 끌어안고 자는 일이 웬일이냐?"

그랬거든.

"고이한 놈 그런 고이한 일이 어디 있느냐?"

고 그러니까,

"그것만은 제가 애기할 테니 참 알아 들으시오."

"그럼, 뭔 애기냐?"

"우리 어머니는 나 어려서 돌아가시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두 부자가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평생에 며느리를 못 보고 돌아가시면서 내가 며느리를 못 얻으니 눈을 못 감고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원을 하고 돌아가실 때도 내 손목을 잡고 '내가 너 장가를 들이지 못하고 죽으니 죽어도 한이 풀리지 않는다' 고 이러곤 운명을 해서 돌아가셨으니 그런 다음에 내가 장가를 들었소마는 그러니 제삿날 저녁은 아버님 영혼이라도 오실 게 틀림없잖우?"

"아 오지, 그럼 영혼인데."

"그러니 아버지 영혼이 오셔서 우리 내외가 자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나는 제사 지내는 걸 그렇게 지냅니다."

아 그래 박문수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게 효자야. 참 죽은 부모를 위해서 그래 효지. 충신을 봉해 주었어. 아버지가 좀 애원을 했어? 아버지의 혼이 와 보시라고, 원을 풀어 드린다는 거지.

* 최주호, 남·74.
* 서석면 풍암2리, 1986.7.22., 오애리 김명숙 조사.
* T. 1—5—1

대신 지내준 제사

작은한이에서, 그니까 을수[1], 을수 거기서 인제 부모님이 돌아가서 가지구 그 분을 경상북도 어디 뭐 상준가 어디 갔다 묻었대요. 묻었는데 을수 하구 저기하구 거리가 뭐 그런 옛날 길루 따지고 보면 천리가 넘는다구. 그런데 작은피아골[2]이라는, 그니까 작은한이에 가믄 작은피아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어귀에 옛날에 집이 한 채 있었어요. 그 집이 하나 있는데 이 분네들이 밤 한 열두시가 넘어가주 자는데 갑자기 하얀 노인네가 소복을 하구 들어왔다는 거야. 들어오시더니,

"아 나는 아들네 집에 지금 제살 얻어먹으러 가는데 딱 여기가 목적지다."

이거여. 이 이상을 더 갔다가는 새벽에 거기 못 간다 이거야. 닭이 울 때까지 자기 묘소 있는 델 못간다 이런 얘기여. 그래가주 갑자기,

"나를 여기다 닭 한 마리하구 으 밥, 메를 한 그릇 떠 주면 우리가 먹구 가겠다."

그러니까 두 그릇이지. 그래서 인제 씨닭을 키우던 것을 두 마릴 잡아가지구서는 그 집에서 이걸 해 주더래요. 밥을 두 그릇을 떠 놓구 국을 끓이구 닭을 삶아서 인제 이렇게 대접해 디렸는데 한 그러다보니까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렸겠죠. 그래군,

"아주 잘 먹었다."

구 그래믄서 두 노인네들이 가시더라는 거여. 그래구 이 필적을 써 주면서는,

"내일 을수 누구네 집에 가면은 이 돈을 다 지불을 해 줄 테니까 그 값

1) 乙水. 內面 廣院里에 있는 마을. 2) 內面 廣院里 乙水洞 서남쪽에 있는 마을.

을 다 받아와라."

그래구선 써서 주고, 그래군 나오셔 가지구 배웅을 했는데 간 곳이 없드래. 그래서 보니까는 볼 때는 밥을 다 먹었는데 간 담에 보니 밥이 다 닭고기구 밥이구 고대로 있더래. 아 자기 눈으로 볼 때는 두 내우[3]가 앉아서 절을 하구 그럴 때는 다 있었대는 얘기여. 다 먹구 다 없어졌는데 간 담 보니 없드래.[4] 그래,

"이상하다."

그래구 그 이튿날, 그 필적 써준 건 그대로 있다는 얘기여, 그래 그걸 싸짊어지구 을수를 넘어왔대. 작은대산[5]이 여기라던가 뭐라 굉장히 멀지요. 거가 릿수를 내가 생각할 때 그전에 많이 댕겼는데 한 칠십리 될거유. 그래 그걸 가지구 그집에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다구 그래니까 아주 고맙다 그러며 얼련[6] 돈을 지불하구, 다 해 주더래는 거지. 그래 받아 가지구 넘어 왔대요. 그래니 이것도 일종의 전설은 전설이지. 그래가주 그 집이 한 해, 그 해 농사짓구는 마캉[7] 그 묘 쓴 데로 이사 싹 가 버렸대. 팔아 버리구 다 이사갔대요. 〔청중 : 왜 그리 그렇게 멀리 갔다지?〕 아 거기 옛날에 그 아버지가 거기서 살었대요. 거기 인제 조상 산소가 있고.

* 이규상, 남·40. 정선에서 출생. 중졸 농업.
* 내면 자운1리 운두마을, 1988.6.22., 전신재 김진희 유선영 최정희 전창동 조사.
* T. 4—2—1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서

엣날에 사자·모자라는 이가 있었는데 사자는 형이고, 모자는 동생이야. 그러니까 두 형제분이 있었는데 이분네들이 무얼 잘 듣느냐? 아주 여기

3) 내외. 4) '있드래'를 잘못 구연한 것. 5) 소대산(小臺山). 內面 廣院里 大臺山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 6) 얼른. 7) 모두.

날아다니는 짐승 소리를 유명하게 잘 들어요. 뭐 찜쪄먹게. 그래서 두 형제분이 어디 집에 가다가서 까마귀가 짖는데 '까악까악' 짖더니만 '임중육 임중육'[1] 수풀림자, 고기육자, 수풀 가운데 고기, 수풀 가운데 고기, 그런단 말이야

"아, 형님 저 까마귀가 뭐라 그러지요?"

"글쎄, 임중육 임중육, 수풀 가운데 고기, 수풀 가운데 고기, 그러는구나."

"우리 저 까마귀 짖는 데 가 볼랍니까?"

"그럼 가 보자."

그래 두 형제가 갔단 얘기야. 가니까 쇠도적놈이 소를 한 마리 끌어다가설라무네 잡아 가지구서 거 네 귀에다가 말뚝을 떡하니 박고 쇠가죽을 턱하니 붙들어 매고 거기다 쇠고기를 끓이는 거야. 끓이다가설라무네 그 두 사자·모자 형제분이 오니까,

"소 임자가 오는 거다."

하고 그냥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뛰는 거야. 그래가지고설라무네 떡하니 가 보니까 고기는 끓지, 도둑놈은 내빼 버렸는데 뒤에 허덕하덕하고 쫓아오는 놈이 소 임자놈이란 말이야.

"아 이놈 너 둘이설라무네 내 소 끌어다가설라무네 잡아 가지고서 네 귀에 말뚝을 떡하니 박고 끓이는 구나. 네 이놈 가자."

꼭 붙들고 오니 소 임자가 채치는데 아니랄 수도 없고, 떡하니 끌려서 관가에 갔단 얘기야. 그래 그 골 원한데 떡하니 갔는데,

"자 이 내 소를 갖다가설라무네 끌어다 먹는 도둑놈 붙들어 왔습니다"

하고 소임자가 고하니까,

"아 그라냐? 그럼 이리 들어오너라. 그러니까 네가 소를 끌어다가 끓여 먹으려던 놈이냐?"

"아니올시다."

"아니라니? 그럼 너희가 왜 붙들려 왔니?"

---

1) 林中肉.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짐승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말이야.
"짐승의 소리를 잘 들어? 그래 이름 성이 뭐냐?"
"예 사자·모자라는 사람이올시다."
"아 그럼 사자는 형이고 모자는 동생이냐?"
"예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짐승 소리를 잘 듣는다니 인자는 오늘은 애기할 수가 없구나. 나가 자구서 내일 일찍하니 들어오너라."
하고 도로 내보냈어.
내보내는데 그때가 아마 이맘때쯤 돼서 지비[2] 새끼 까 가지고설라무네 훌훌 날려보낼, 거반 됐을 거야. 그 원이 떡하니 들어오다가설라무네, 제비, 등 뒤에서 지비 새끼를, 도포를 입구 그럴 때니까설라무네, 도포속에 떡하니 집어넣고,
"들어오너라."
그러니까 들어왔단 말이야. 들어와설라무네,
"네가 짐승의 소리를 잘 듣는다니까 제비가 뭐라고 그러나 너 들어봐라."
그러니까 사자·모자란 이가 있다가 하는 말이,
"예 원님은 송사나 하면 송사나 하지, 왜 남의 새끼를 옷속에다 넣고설라무네 안 내어 주는가 하고 시방 지껄입니다."
아 아 분명 아주 그 짐승의 소리를 아주 유명하게 잘 듣는단 애기야.
"하 이것 참 명인이구나. 이것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은 절대적 소를 갖다가서 해치는 도적놈이 아니니까 도적놈은 딴 놈이구나."
그러구서 그만 도루 내보내구설라무네 떡하니 쫓아나와서,
"아 술이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지요."
그 원이 쫓아나와 가지고설라무네 저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술을 권하니까 술은 한 잔도 안 든단 애기야, 고기랑 뭐랑 그렇게 같이해서 나오는데 술

2) 제비.

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는다구서, 간다 그런단 말이야. 잘가라고 그러구서 가만히 생각하니 희한하거든. 원이 나졸을 하나 딸려설라무네 보냈어요.

"저 뒤를 밟아 쫓아가설라무네 뭐라고 지껄이는 말이나 듣고 오라."

하루 왼종일 가도 지껄이는 소리가 없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니까, 형이 이렇게 돌아다 동생을 보고 하는 말이,

"야 그거, 술이 그 무슨 술이든?"

"아 형님 잘 아시면서 그게 묘맥주던데요"

"그거 고기가 무슨 고기든?"

"진육[3]이든데요"

〔조사자 : 진육이요.〕 응. 진육 절로 죽은 고기. 절로 죽은 거. 묘맥주는〔 〕[4] 밭을 갈아먹는데 거기다 밀이나 그런 걸 심어서 누룩을 잡아가지구설라무네 술을 빚은 게 묘맥주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떡하니 또 얼마를 가더니만 형님을 돌아다보고,

"원님이 뭔 놈의 아들이던?"

"아 형님 잘 아시면서, 중놈의 아들이던데요"

중놈의 아들이라니까, 그 듣고 쫓아가던 사람이 〔조사자 : 나졸이요?〕 눈이 뚱그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무 소리 안 하구 날이 고만 저물어서 다시 쫓아가질 못하구서,

"에이 돌아가야겠다."

그래구 나졸은 원 집으로 또 돌아설라무네 떡하니 관가루 갔어요. 관가로 가 가주군, 그 이튿날 들어가 가주선 그 원님한테설라무네 얘기하기를,

"뭐 인절을 가두 아무 얘기 안하구, 해가 눅눅 졌는데 하는 말이 그 술이 묘맥주래서 안 먹었다 그러던데유. 그래구 그 고기는 뭐 진육이라 그러대유. 그니까 그게 절루 죽은 고기 아니에요?"

그래니까 그게 다 술두 그게 선사품으로 들어 오구. 다 그 그걸 그런 거를 혹해 가주설라무네 술 가주오고 고기 가주오는 대루 죄다 그 자실라니까

3) 殄肉. 4) 청취불능.

고기는 절루 죽은 고기요, 술은 말이야 그 혹시 차서 애길허니까, 아 그 밀 형상을 까뭉겨설라무네 거기다가설라무네 밀을 심었다가선 누룩을 잡아설라무네 한 것이 틀림없단 애기야.

"그래군?"

"그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아 으트게 돼설라무네 원님이 어떻게 중놈 아들이냐?"

그래구선 말이야, 그니까,

"뭐 내가 중놈의 아들이야?"

그 누가 아느냔 애기에요, 중놈의 아들이라니. 그건 본인도 모른단 애기에요. 에 중놈의 아들이라니깐. 게 히얀하거든.

"내가 어째 중놈의 아들이야? 내가 골 원 노릇을 하고 있어도 내가 훌륭한 아 정승판서의 아들인데 내가 어째 중놈의 아들이야?"

그 아버지가 정승판서를 해먹드래요. 그런데 아들은 그 골 원을 하면서두 중놈의 아들이래니까 깜짝 놀랠겨 아니예유?

"내가 으째 중놈의 아들이냐?"

이기야. 이건 필연 곡절이니까 말이야, 천상 아는 건 어머니밖에 모른다 이말이야. 그래 하루 저녁은 내가[5] 큰 장두칼을 말이야. 기다란 장두칼을 하나 빼들구설라무네 지 어머니 있는 방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설라무네 칼을 퍽 놓고설라무네 무릎을 착 꿇고 앉아서,

"어머니 지가 물어 볼 말이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너 왜 물어 볼 말이 있어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지 칼은 뭐하러 가지고 들어왔느냐?"

말이야.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이야.

"어머니는 알 듯한 애기를 할려고 들어왔습니다."

5) '원님의'의 잘못.

"어디 얘기를 해 봐라."

"내가 어떻게 돼서 중놈의 아들입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껍껍할 거 아니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가 얘기를 안 해 주면 내가 어머니를 죽이구 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바른 대로 얘기해 주시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길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구 말이야.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가 말이야 정승판서로설라무네 이곳 원으로 있을 적에, 있을 적에 관가에설라무네 나라 임금님이 정승판서 벼슬을 내려 가지구설라무네 관가로 내려 올 적에 내가 쫓아가지 못하구서 혼골로 집에 있었느니라."

말이야.

"그래 종놈들을 데리고 집에 있는데, 종놈들은 나가서 저희 할라 그러지 한 군데 있을 까닭이 있느냐? 한 적에는 집이 비었는데 어디서는 중이 오더니만 말마따나 목탁을 치면설라무네 '시주하시오'하구서 하고 들어와서 그러는데 대문을 열구 떡 들어와서 그러는데 그 안 나가 볼 수 없어서 떡 나가설라무네 아 섰으니까 말이야 '아 마나님 어떻게 혼자 계십니까?'하구 그러더니만, '아 나 혼자'라고 그러니까 다짜고짜없이 그저 바라[6]를 훌렁 벗어 놓고서 쫓아들어와설라무네 내가 가이기부득이지 뭐. 내가 배길 능력이 있느냐 말이야? 그런 이후로부터 어떻게 그만 아마 아기가 생긴 건가 부다"

말이야.

"난 그것밖에 더 모르겠다."

그거 뭐 틀림없이 중놈의 아들이 틀림없다는 얘기 아니냐?

"이제는 내가 고을 원이고 뭐고 내 혈육을 찾아야겠다."

말이야.

그래 다 원 원님네들이 바라를 하나 맨들어 짊어지고설라무네 각처로다가 절로 돌아다니다가, 각처로 절로 돌아다니다가, 각처로 절로 돌아다니

6) 바랑.

며 이 절 저 절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한 군데 가서 떡하니 보니까, 절마다 가기만 하면 참 오늘 저녁 모양으로,

"뭐 애기 좀 들려 주시오. 뭐 전설이, 전설의 애기도 좋습니다."

말이야.

"그래 현재 다 본 애기도 좋습니다."

하구서 주지중한테 다 애기를 했어요. 늘 그러구 그랬는데 그 하루는 한 절에 가설라무네 떡하니 참 늙은이 주지중이 인제 그런 애기를 하니까,

"아 내가 보고 들은 것도 없고 이것 참 애기를 해 줘야 되겠는데 애기할 게 없으니 이거 젊은이 딱하지 않느냐? 내 그전 엣날에 내가 해 온 애기나 그럼 애기해 주겠다."

고 말이야. 그러구 애기를 꺼낸거야.

"아무 해. 아무 절께, 내가 아무데를 갔는데, 그 정승판서의 부인이 혼골로 있을 때 내가 그 참 욕심이 나서 그런 역사밖에 없다."

이런 애기야. 본인을 만났으니까 틀림없이,

'아 옳다, 인제 아버지를 찾았구나.'

말이야. 벌떡 일어나 무댓보로 그저

"아버지."

하고 절하고 나니까,

"아 뉘긴데 날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사실 애기를, 아까 하던 애기를 죽 내리 했단 말이야. 틀림없이지 아들이 분명하단 말이야.

"아 그렇게 된 일이냐? 내가 아무적, 아무적께, 그렇게 했다 말이야. 네가 나서 이렇게 커서 날 찾아오니 참 반갑다."

그제서야 아들을 만나설라무네 주지중은 잘 살고, 그 고을 원노릇 하던 사람은 그 아버지를 찾게 되어 원 노릇도 못하고 도루 중, 뭐 지아버지가 주지중이니까, 저는 중노릇할 수밖에 없단 애기야. 그런 전설이 딱 내가 한마디 어른들에게 들은 애기가 있어요.

* 이원의, 남·65.
* 남면 용수리, 1987.7.7., 이홍식 박형규 최정희 김석주 조사.
* T. 3—2—1

구렁이를 물리친 여인

그래구 여기 이 저 뭐시기야, 저 골짜구니 하나 들어가서 절이 있는 덴데, 근데 거기 사람이 박머시개라는 사람이 내우 고데에 그 짐[1]을 메러 갔는데, 까투리가 한 마리 날아서, 퍼어 날아서 털썩 떨어지구, 털썩 떨어지구 그래더래. 그래선 가 그놈을 붙잡았대는구라. 가보니깐 구레이[2]가 아뭏든 그저 멍석 말아 논 모양을 한 눔이 눌[3]이 들어서 그래는 거드래.〔청중 : 구레이가 눌이 있어.〕 구레이 눌이 들어서 그래. 그 그놈으 인제 그놈으 까투리를 붙잡아다가서 내우 쿼 먹었대 그걸. 〔청중 : 아유. 그건 쿼 먹지 말아야 하는데〕 응. 어 쿼 먹었는데, 인제 아들을 나 가주 그게 인제 그것이 태어났단 말이야, 그 까투리 그게. 그래서 인제 그 글을 배우러 댕기는데 여기 저 그 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질[4] 위에 있어, 소[5]가 지끔. 나두 그 절을 구경[6]하다 왔지만, 거기 여태 그 위에 소가 있더군그래. 여 있잖아? 죠 위. 뫼기 멤에 괴기도 못잡구그래선, 괴기야, 엄청나. 그래서 그거 보러 갔는데. 이렇게 댕기문,[7] 그 소에서, 근데 애가 부글부글하게 크기 때문에 북솔이라고 지었드래, 이름을.

"북솔아. 북솔아."

그러더래, 소에서. 게 올 적마당 그러구, 갈 적마당 그러구.〔조사자 : 용소에서요?〕 그럼. 용소에서. 〔청중 : 그래니까 구레이가 거기 들어가서, 아유〕 그럼, 그래 뭐시기야, 그 선생떨허구 애길 했대.

"그래 자꾸 그래니 그 뭐냐?"구.

---

1) 김. 기음. 2) 구렁이. 3) 독. 4) 길. 5) 沼. 6) 구경. 7)다니면.

"그럼 가 물어 보아라."

선생들은 그 중이지. 절에 댕기며 배웠으니까.

"그 내 밥을 느 아버이 느 어머이가 〔청중 : 아 그 까투릴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구레이가 먹었어야 되는데〕 먹어서 널 잡아먹어야 되겠다. 아무 때고 널 잡아먹어야 〔되겠다. 너의 부모가〕 내 밥을 먹었으니."

아, 그래 기분이 없잖아? 아주. 〔청중 : 절 잡아먹는대니 뭐.〕 기 와서 인제 그래구하니까 선상덜한테, 그 중들헌테 애기하니까, 중이

"그래서 날 잡아먹겠니? '너 내 밥을 먹었다'구 날 그래니깐. 너한텐 내 잡아 먹히겠다. 그래니, 내가 장갤 가거들랑은 너 잡아먹어라."

그래라구 선상이 시기드레. 으 그래구 나니까 〔구렁이가 아이에게〕

"그러믄 그 때까진 지키구 있겠다."

그래둥구먼. 그래 장갤 들었는데, 한 열댓살 됐겠지, 옛날에 열두어 살 열세 살이면 장개 갔으니까, 게 그날 저녁에 '장개가는 날 저녁에 잡아먹으라' 그랬으니깐 그날 저녁엔 꼭 죽으래니 생각하니 장개 아니라 아무개래도 사람이 기분이 좋지 안찮아? 게 시액씨가 〔말하기를〕 아 우째 이렇게 앉았느냐구. 옷을 벗기라는데. 첫날 지냑엔 옷을 벗기고 그라는, 옛날엔 그런 습이 있었는데, 잠자코 그라구 앉았으니 그레[8] 애길 헌단 말이여.

"사실 내 오늘 지냑 잡아먹히는 날이야. 그니 너 안 보구 나 하나 죽음 고만이지. 구레이한테 잡아먹히믄 고만이지 소용있느냐?"

아 그러냐구, 나하구 같이 가자구, 게 색씨가 따라 나서더레. 그래 나서서 인제 거 거길 가서,

"내 여기 왔다."

그러니까,

"그래, 그 하난 누구냐?"

"내 장갤 드는 사람이니, 오늘 지냑에, 내 각시다. 나 여[9] 네한테 잡아먹히믄 그거 우트게[10]허나? 이 그 먹구 살게 뭐 보답을 해야 허지 않니?"

8) 그렇게. 9) 여기서. 10) 어떻게.

그래니까,

"그래라."

아 그래서 구실을 시 개를[11] 주드래. 구실. 이게 여의주지, 그러니까. 구실을 시 갤 주는데,

"이게 한 개는 뭣하는 게냐?"

하니까,

"돈 나와라 하면 돈 나오는 게라. 하난 옷 나와라 그래믄 옷 나오는 게다."

게 두 개는 그런데 하나는 안 알케 주더래[12]. 아주 영, 그이가.

"구실을 가졌어두 이걸 부릴 줄을 알아야지. 그걸 안 알케 주믄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아주 한참 있더니,

"'너는 나 웬수진 놈이니까 너 죽으라'믄 죽는 게다."

그러더래. 〔청중 : 그러니까 지가 죽을까봐 그걸 아르켜 주지 않았구만.〕 아 색씨가,

"아, 너는 내 웬수니까 너 죽어라."

〔청중 : 지가 죽으니까.〕 그 구실을 놓구서. 그래서 그 구레이가 죽었다 그래는거야. 〔청중 : 그래니까는 색시가 거 살린거네.〕 그렇지. 그래니까 벌써 도승이니까, 도승이니까 그럴 줄 알구서 그랜거지.

* 김동훈, 남·80. 북방2리 출생. 약간의 한학을 함.
* 북방면 북방2리, 1987.7.7., 정금란 김진희 강하구 최용현 조사.
* T. 6—2—1

11) 구슬 세 개를. 12) 안 가르쳐 주더래.

잃어버린 아내를 찾아서 1

그전에 저 두 내우가 아들을 떡 내었는데 참말 인물이 잘 났거든. 자 이와 같은 배필을 얻어 주어야 될 텐데 이와 같은 배필을 어디 가 구할 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화상을 그려 가지고, 거 왜 개나리봇짐[1] 있지? 화상을 그려 가지고 거기다 싸 가지고 갔다. 이제 구절죽장을 짚고 긴 장죽대를 떡 들고 걸어가는 거야. 배필을, 이제 메누리 댓구[2] 올라구. 큰 고개를 올라가니 숨이 차단 애기여. 거기 앉아서 인제 담배를, 긴 담뱃대다 담배를 피고 인제 떡 앉았더니깐 그때도 그와 같은 늙은이가 개나리봇짐을 짊어지고 헐헐하고 올라오거든. 그래 먼저 간 늙은이가,

"아 어디로 가실려고 헐헐거리고 올라오오? 쉬어 가라우."

"아 쉬어 갑시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앉아서 하는 애기가,

"그래 영감님은 어디로 가실라고 그랬수?"

"기약없이 떠났습니다."

"그래도 거냥[3] 무하로[4] 떠났겠소?"

"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 그와 같은 배필을 얻어 줄라니깐 마땅치가 않소."

"그레요? 아 나도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와 같은 사우를 하나 얻을라니까 이 마땅칠 않우."

두 노인네가 인제 앉아 애기했단 말이야.

"아 그래요?"

그러더니 화상을 인제 떡 그려 봤다. 딸 가진 영감이 화상을 떡 그려 놓으

1) 괴나리봇짐. 2) 데리고. 3) 그냥. 4) 無何로. 아무 까닭 없이.

니깐 그 참 나긴 잘 났거든. 그 아들 가진 영감이 보니깐 두루 자기 아들과 똑같이 났거든.

"아 나도 화상을 하나 인제 그려 가지고 왔는데 나도 아들을 그와 같은 배필을 얻어 줄려고 보따리 싸 가지고 왔소."

그 둘의 화상을 떡 똑같이 놓고 보니깐 아 똑같거든. 연분이란 말이야. 그 고개에서라무네 사둔을 정했어. 고개서 이제 사둔을 정하고서는 이제 암사둔이지 암사둔, 암사둔이 하는 말이,

"이 다음에 우리집에 올라면은 길을 모르니까 이번에 우리집부터 갑시다."
그래 딸 가진 영감이 인제 모시고 갔단 얘기야. 그래 가서 하룻밤 자고 이제 아침 잘 얻어먹고 집에 왔느니라.

그 서로 이제 서로 글이 좋으니까 이 글제로다 해서라무네 사주를 받아서 이제 잔치를 아무날 하는 게 어떠냐 의논을 해 가지고 아무날 잔치를 지내게 되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새 집에 차려 가지고 색시집에 갔다가 거기 가 하룻밤, 그전 옛날에는 색시집 가면 구식으로 하는데 이제 색시집에 가 자고 그러고는 이제 이런 채[5]를 치고서 이제 상을 차려 놓고 거기다 물을 떠 놓고, 정화수 떠 놓고, 이제 머리 풀어올리고 잔을 삼잔 올리고 이렇게 절을 해.

그래 이제 집에 데려왔다. 집에 데려다 놓으니 신랑 각시가 서로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른다 이기야. 그래서 부모네들은 가을철이 됐는지, 두 내외가 참 의견이, 거 참 좋거든, 부모들도 두 내우, 어머니 아버지가 나가서 베[6]를 죄 깐다, 베를.

"너들은 재미있게 잘 놀아라."
부모가 베를 깐다. 날이 청청하니 좋으니까 베를 깔어. 신랑 너석이 마누라보고 하는 얘기가,

"잠깐 방에 앉아 있소. 어머니 아버지가 베를 죄 까는데 우리가, 이렇게 젊은 놈이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겠소? 내가 나가서 베를 같이 깔고 오

5) 차일(遮日). 6) 벼.

겠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그러고 이제 베 버리[7] 나가니깐 금방 청청하던 날이 천둥을 몰고 검정구름이 사방에서 모여드니 소낙비가 쏟아졌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쬐꺼[8] 들어올려고 하는데 아 뭐야 저 하늘에서라무네 쌍무지개가 저 집에[9] 역마로다 돌이박았거든, 쌍무지개가. 아 그래서 비 긋느라고 집에 들어오고, 어머니 아버지 방에 들어가고 신랑 너석은 이제 마누라 방으로 들어가지. 들어가니까 방이 텅 빈 방이야. 마누라가 없어. 세상에 화장실에 가서 찾아도 없어. 부엌이고 사방을 찾아도 없네, 마누라가. 야 일주일을 못 봐도 큰일인데 그거 큰일 났네. 아 그래서는 밥도 안 먹고 이러고. 그 이유가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쌍무지개가 저고서 조화로 처녀가[10] 올라갔단 말이야. 아 그러니 어디 가서 찾어?

아 그래선 베기다 못해선 어머니더러,

"나 배설기떡 한 덩어리만 해 주시요."

"그거 뭐 할라고?"

"어디 가 마누라를 찾아와야 되겠어요."

"아 어디 갔는지 알고 찾아오겠니?"

"아 해 주세요."

떡 한 근을 해 줬다 말이야. 이놈을 개나리보따리[11]에 싸 짊어지고, 가지고 몇 날 며칠이고 찾아댕기네.

그래서 인제 가다 가다가 이제 뭐 집에 안 들어가 자고, 그저 가다가 저 물면 산이고 들이고 아무데고 들어가 자. 이제 아 잘려고 할깐두루[12] 바우벽상이 이렇게 있는데, 병풍바우처럼, 제사 지낼려면 병풍을 치거든, 병풍이 쭉 둘려 있거든, 거기가 아주 평평하고 좋단 말이야. 거기서 날 새울려고 기대 앉아서 잠을 잔다. 잠을 자는데 꿈이 뀌키거든. 아 어쩐 노인이 참 옷갓[13]을 하고 와서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에구 참 불쌍하구나. 너 마누랄 찾을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댕기지. 너

7) 깔러(?). 8) 쫓겨. 9) 저의 집에. 자기 집에. 10) 아내가. 11) 괴나리봇짐. 12) 하니까. 13) 衣冠.

기대앉아서 자는 그 바우문을 열어라. 그걸 밀면 문이 열릴 테니까 그 문만 열고 바우골로만 자꾸 빠져 나가면 그 짝에 아마 큰 바다가 있다. 이 바다에 나갈라면 요만한 천막을 치고 앉아서 술장사하는 여자가 있다. 그 술장사하는 여자에게 가 백배사례하고 물어 보면은 잘 가르쳐 준다."

아 깨 보니 꿈이거든. 아 그러니 이제 참 날이 훤하게 샜단 말이야.

"아 이 꿈이 하두 이상하니 어디 바우, 어디 좀 밀어 볼까?"

기대고 앉았던 이제 그거를 이제 돌아서서는 개나리보따리를 짊어지고선 두 손으로 내미니깐 쑤두두 소리가 나고 열리거든. 열리니깐 그 안은 저 기찻길 가는 굴처럼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냥 깜깜한 데를 나갔지. 예전에야 뭐 전기불이 있어? 껌껌한 굴을 자꾸 빠져나가니깐 훤하거든. 내비치거든. 거기 나가니깐 낭떠러지긴데, 바닷물이 시퍼런데, 어디 갈 데가 없거든. 이리 돌아갈까 저리 돌아갈까 하다가 이런 비탈로 돌아가는 길이 있단 말이야, 샛길처럼. 그리 돌아서 내려가니깐두루 바다의 나갈에 요만하게 천막을 쳐 놓고 술상을 놓고서 술을 판다 이거야, 처녀가. 그래 거기 가설라무네 사먹기 싫은 술도 한 잔 달래 먹었단 말이야.

"아 이제 색시도 같이 듭시다."

그래서 이제 먹으면서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 손님은, 여기는 사람이, 보통사람이 오지 못하는 곳인데 손님은 여긴 어떻게 오셨소?"

그래 그런 얘기를, 사실 꿈을 꿨니까, 그래서 자초지종 얘기를 쫙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마누라를 찾아가는 길이요."

그러니 마누라를 좀 찾게 해 달라고 그렇게 백배사례를 했단 말이야.

"아 그래요? 그러면 요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만 있으면 사람이 오든지 짐승이 오든지 할 거니까 거기에서 대면을 해 보시오."

이거야. 그러면 찾을 도리가 있다는 거야. 그러고 얘기하고서는 간 곳이 없어. 술 파는 여자가 간 곳이 없어. 오막살이 천막 친 것도 없고.

그래 곧장 색시 얘기대로 곧장 가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 있으

니깐 아 어쩐 하얗게 센 한 노파 할머니가 오거든.

"아, 손님이 어디를 가시는 손님인데 여기 와 이렇게 앉아 있느냐?"

고. 아 그래서 사실 얘기를 하고설라무네 그저 마누라를 찾게 해 달라고 자꾸 엎드려 절을 했네.

"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조금 있거라. 나 집에 좀 갔다 올께 기다리고 있으라."

고 하거든. 그래 집을 들어갔다 나오더니마는 하얀 백강아지를 갖다 주거든. 하얀 백강아지를 주면서,

"강아지 가는 데로 쫓아가거라. 산으로거든 물로거든 길로거든 어떻게 됐든 그저 강아지 가는 데로 따라가라. 가면 찾는다."

이기야. 아 그래서 인제 강아지를 따라가네. 가다가 이제 우두커니 앉아 있으니깐, 강아지가 바닷가로 자꾸 가는데 사람이 앉으니까 옷을 물고서 들이 끄는 거야, 강아지가.

"어 놔라. 내가 물에 빠져도 널 쫓아 들어갈 테니깐 놓고서 가자."

말을 못해도 강아지가 말을 알아듣거든. 강아지가 이제 물로 들어간다. 사람도 이제 보따리 진 채 기어들어가네. 그래 들어가니 차츰차츰 물이 여기까지 들어와. 이렇게 되니깐 강아지가 푹 빠지거든.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간단 말이야. 빙글빙글 돌아가더니마는 '덜컥'하는 소리가 나더니 아 눈을 떠 보니까 거기도 그와 같은 마실[14]인데 굉장히 아주 여기 육지와 같거든. 물 속에 들어갔는데, 용왕[15]에 들어갔지.

아 그러는데 아 그래서는 뭐 낯선 곳인데 어디가 어딘지 알아? 아 그래선 어느 집으로 들어갈라니 뻥뻥 돌려 담장을 했는데 어디 들어갈 데가 없거든. 빙빙 돌아가니, 빙빙 돌아가다가 수양버들나무가 하나 이렇게 큰 게 섰거든. 거기 이제 샘물이, 우물이 있고, 이제 거기 올라가 밥을 새울라고 그러니깐 사람 자취 소리가 나거든. 신 신고 오는 자취 소리가, 신 끌고

14) 마을. 15) '용궁'의 착각.

오는 쩔쩔 소리가 나. 그래 이제 떡 보니깐, 내려다보니깐 어떤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나오거든. 물동이를 이고 나와선 이렇게 내려놓고선 공일에서 사발, 옛날 사기사발을 하나 꺼내 가지고선 물에서 이제 정화수 한 그릇을 이제 떠 놓고선 빈다 이거야. 하느님 그저 집으로, 고향땅으로 찾아가게 해 달라고 빌어. 그때가 여름철이든지 수양버들 이파릴 쭉 훑어서는 내려 뜨렸단 말이야. 그렇게 세 번 하니깐 그제서 바라보는 거야. 쳐다보니까 수양버들 위에 시커먼 게 앉아 있거든. 여자가 쳐다보고서 하는 말이,

"짐승이면 내려오지 말고 사람이면 내려오라."

사람이라고 그러니깐,

"그러면 내려오라."

고 그래 내려갔어.

내려가니 서로 첨 보는 사람이라. 모르는 사람이야, 서로. 그래,

"여기는 보통사람이 못 오는 덴데 어떻게 왔소?"

이렇게 묻는 거야. 그 여자도 이제 도둑놈의 장수한테 붙들려가서 식모일을 하고 있는 거야. 도둑놈이 장수거든. 천지조화를 부리는 장수란 말이야. 그 장수가 그 여자를 데리고 갔거든, 쌍무지개를 갖고. 난 사실 이래서 왔다고 아주 사실 얘기를 쫙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러면 내 말만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찾지 그전엔 못 찾습니다."

도둑놈이 천하장사고 아주 재주가 무궁한 사람인데 죽는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마누라를[16] 따라 들어갔단 말이야. 아 따라 이제 들어갔는데 그저 이 골목 저 골목 다 지나선 저 있는 방에다가,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들여보내는데 들어가 보니깐두루, 장수 쓰는 창검이라고 있잖아? 거기 녹슬은 창검이 벽으로다 백 둘렀드래. 거기서 지내라고 문을 닫고 나갔지.

'야 이제 내가 죽을 데 왔구나.'

이제 꼭 죽었지. 별수가 없거든. 앉았더니깐 이제 할 수 없이.

16) '여자를'의 착각.

그래 이제 조금 있다 문소리가 나더니 밥을 해다 주거든. 그래서 잘 먹고선 그저 어떻게 되었든지, 그 다음에 여자가 하는 말이,

"날 따라 나오라."

고. 밥 먹고선 따라 나가니깐 두루 부엌, 정지간[17]으로 들어갔는데, 여기는 솥을 두고 밥 하는 데고 이 뒤에는 바우로, 쇠며 독[18]으로 깎어 만든 바우가 있어. 돌 뚜껑을 했거든. 그걸 떨컹 열어설라무네 그 안엔 물이란 말야. 이게 동양[19]물인데 이거를 어쨌든 석달 열흘 작정하고, 백일 작정하고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는 나가서 이만한 들돌이 있는데 그게 장수가 가지고 노는 돌이래. 그걸 치뜨리면은 한 십분에 떨어진다 말이야. 아 그러니 천하장사 아니여? 그러니깐 이걸 들어올려야 한다고. 그래 가서 들어보니 땅껌[20]이나 해?

그래서 석달 열흘을 이제 거반 먹어 가지. 그런 다음에 가서 이제 들어보니깐 버쩍 들리거든. 그래 이제 마누라[21]가 나오더니 그걸 보고서는,

"안 돼요. 더 먹어야 해요."

그래서 석달 열흘을 꼭 채워서 먹었어. 이젠 됐다고 그러구선 인제,

"저 방에 들어가면 이 빠지고 귀가 먹은 녹슬은 칼 하나 있으니 그걸 빼가지고 오시라."

고 그래서 이제 칼을 빼 가지고 마누라[22]를 쫓아갔어. 불탄 재에다가 고추가루를 섞어서, 장수 모가지만 떨어지면 거기다가 뿌리면 못 붙는데. 아 따라가니깐 장수는 이 방에서 자고 마누라는 저 방에서 자니깐 들어가 보라고. 아 그래 대청마루에 올라가서 방에 들어갈려고 보니까 장수가 자는데 쉬움[23]을 내쉬면 문이 열리고 숨을 들어마시면[24] 닫기고, 거 힘 대단하잖아? 열릴 적에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가서 보니깐두루 창검이 장수 자는 머리맡에 세웠다 말이야. 그 창검을 집을려니깐 찔찔거리고 걸어가네. 그 소리에 그만 장수가 깠네. 깨니 어떤 인간 사람이 떡 왔거든.

"어떤 놈이 이러고 앉았어? 주먹으로 마빡을 때리면 금방 직사할 놈이."

17) 부엌. 18) 돌. 19) 動陽(?). 20) 땅콤. 21) '여자'의 착각.
22) '여자'의 착각. 23) 숨. 24) 들이마시면.

이러니까 장수가,

"그래 난 손톱으로 널 마빡을 때리면 직사를 한다."고,

"그래 해 보제."

서로 적국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싸운단 말이야. 마당으로 나갔어. 나가니깐두루 이놈이 공중 올라가 싸우니 재주가 비상한 놈 아니야? 그래 당할 재간이 있나? 이놈이 칼이 쑥 올라가네. 칼자루만 뛰겼단 말이야. 칼만 올라가서 장수와 싸우는 거야. 그리고 인제 그 사람은 대가리가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는 거야. 쿵 하더니만 대가리가 떨어졌어. 아 모가지를 벳단 말이야. 모가질 공중에서 벳으니깐 떨어질 게 아니요? 공중에서 뚝 떨어졌다 이거야. 아 도로 푹 하고 올라가더니 이 턱뿌리에 가설라무네 딱 붙네. 영검한 놈 아니야? 그러더니만 뚝뚝 떨어지거든. 힘 있나? 끊어졌으니. 그래서 재빨리 재를 갖다 뿌리니깐 못 붙지.

그 다음에 여자가,

"마누라 방에 들어가라."

고 이르니깐 마누라 방에 들어갔다. 아주 금방석에, 몸에고 전부 금으로 해서 귀걸이 하고 목걸이 하고 아주 금반지 하고 금방석에 올라앉으니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아 그래 가서는,

"여보."

곁에 가 앉으면서,

"여보, 얼마나 고생했소?"

마누라 가지고 이러니깐 쑥 들여다보니 자기 남편인지 왜 모르겠나? 알면서도,

"어떤 놈이 와서 이러냐?"

고 말이야.

"내가 당신을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소?"

그래도 그런 소리 뭐 들은 체도 안 하고 쇠방만 쑥 열더니 도둑놈의 장수 깨우고는,

"여보 뭔 잠을 그렇게 자오? 도둑놈이 들어왔으니깐 처치해요."

이렇게 되거든.

"어 그놈은 내가 죽였어. 그놈은 내가 죽였어."

그래도 곧이 안 듣고는 소리소리 지르거든. 그러니깐 남자가,

"거짓부렁인지 아는구나."

나가서 창검으로다 대가리 퍽 찔러서는,

"내가 죽였대니깐."

아 그제서는 이제 마누라가, 죽였다니깐 도리가 없단 말이야. 이제 그래서,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아주 간따라[25]면단 말이야. 그러니깐 남자 배짱에 담박에 쳐죽일 거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뵈키고 죽일라고, 그래서 부해[26]가 나는 것도 참고설라무네 고생 많이 했다고 서로 이렇게 이제 얘기하구, 그러니까 하룻밤 잤지.

마누라가 하는 말이, 쇳대를 주면서 하는 말이 저기 광에, 낫간에 쇳대를 열고서 사람들을 내오라고 그래서 쇳대로 문을 여니깐두루 거기 늙은 할멈 젊은 할멈 뭐 몇 백 명이지. 그래서 이제,

"이리로 나와서 밥을 해 잡숫고 집에들 찾아가라."

고. 아 그래 이제 나와서 밥들 해 먹고 집들 찾아가라고 하니깐,

"아 우라질 놈아, 얼른 죽이라."

고 말이야. 도둑놈인지 알고.

"얼른 이놈아 죽이라."고.

"죽이든지 어쩌든지 왜 가둬 놓고 사람을 그러냐?"고.

"나는 그 사람이 아니고 시방 현재 있는 마누래 남편인데 마누라 찾아온 사람이오. 그러니깐 도둑놈을 내가 죽이고 여기 갇혀 있는 사람을 전부 집으로, 고향으로 보내려고 내가 문을 열었소. 그러니 나와서 밥을 해 잡숫고 가라."

---

25) 아양. 26) 부아.

고. 그제서 아 그러냐고 나와서 손수들 밥을 해 먹고 제각기 다 이제 여비들 가지고서 집에, 고향으로 보내고 이제 마누라를 데리고선 금은보화를 배에다 싣고 올라왔어. 배에다 싣고서 떡 올라왔어. 그 부리는 종, 저 식모노릇하는 여자도 데리고. 인제 집에 왔어, 집으로. 어머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집은 다 쓰러지고 오막살이 삼칸집인데 서까래가 회회 풀리거든, 엣날에 춘향이 집같이.

* 최재철, 남·73. 농업.
* 남면 유치2리, 1987.7.7., 정덕준 김성수 정은정 곽노실 정명수 성길제 조사.
* T. 4—2—2

잃어버린 아내를 찾아서 2

엣날에 시집을 갔는데, 이놈의 시집살이가 얼마나 센지. 아, 친정을 좀 갈래는데 친정을 못가겠네. 보내줘야 가지. 그래서 엣날에는 그 색시가 그 비단, 울룽비단이란 걸 한 필은 해야만 된대. 그래야 친정을 간대. 그 울룽비단이라는 거는 주발에다가 이렇게 꾸겨 넣어도 주발이 안 차는 비단이래. 아, 이 여자가 어떻게나 시집살이를 허믄서 그걸 했다 이거야. 했는데 아 이걸 맨들어 가지골랑 이제 친정을 가게 되었다 이거야. 떡을 해서 싣고 엿을 해서 싣구 이제 두 내외가 가는거야. 아, 소에다 싣구 하인을 해설라므네 떡짐을 지키구[1]해서 가지. 아, 가는데 공중에서 무슨 바람이 휘파람 소리가 확 나더니만, 뭐 웬 놈이 그냥 오더니만은 홈쳐 채가지고 가는거야. 색시채 그냥 훌렁 채가지고 가는거야. 가니, 아 그래 신랑 놈은 그만 예편네도 뺏겼지, 떡바리두 뺏겼지, 하인두 뺏겼지, 다 뺏겼네그래. 그러니까는 〔신랑이 그놈더러.〕

1) 지우고.

"이놈아, 너 이렇게 되면 너 사는 고향이나 가르쳐 다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야. 가다가 〔신랑더러 하는 말이.〕
"너 이놈아, 나 있는 곳을 알려면 나는 성이 박타다 냉겨지,[2] 이름은 지사[3]지내구 냉겨지. 그걸 터득해 봐라."
그래구 가는 거야. 에편네두 잊어버리구 떡바리두 잊어버리구 아주 갈 바를 없네, 그만 아주. 아주 허무헌 일이지.
그래 이 사람이 그만 가두 허무하니까는 그냥 그냥 댕기는거야. 댕기는 것이 딴 델 가나? 인제 군마다 댕겨요. 아주 재판을 해 보는 거야. 가서 인제, 가서 물어 보는 거지.
"사는 곳은 비 오다가 갠 날, 성은 박타다 냉겨지, 이름은 지사 지내고 냉겨지."
그래 이걸 재판을 댕기니 군마다 댕기며 가서 묻지. 물어보니까 이거 군수들이 재판을 못 허네그래. 그래 한 군델 가니깐두루 애덜이 낭굴 하러 가다가 지게를 제껴 놓구설랑은시리 어느 한 놈을 지게다가 올려 놓구서는 두드려 패는거야.
"이놈의 새끼, 내가 원이다."
라고 앉아서는 그러니까, 가서
"예, 원님."
인제 이 사람이, 여편네 잃어버린 놈이 가서,
"저, 원님. 전 공사[4]왔습니다."
그러니깐,
"무슨 공산고?"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친정을 못 가고 멫 십년을 고생을 하다가 울릉비단을 한 필을 맨들었습니다. 해 가지구서 즈 내외가 가다가 공중에서 휘파람 소리가

2) 나머지. 3) 제사. 4) 公事.

확 나더니 와서 훔쳐가지고 갔는데 이걸 도와 줍쇼."

"그러면 그 그 놈의 성명을 아느냐?"

그러니까,

"에, 대강 얘기 들었습니다. 사는 곳은 비오다가 그친 갠 날, 또 성은 박타구 냉겨지, 이름은 지사 지내구 냉겨지라구 했습니다."

"그래?"

아 이거 터득을 못하네, 이기. 아 매맞고 찔찔하던 놈이,

"이놈의 새끼, 그걸 터득을 못하는 놈의 새끼가 날 지게 위에다 올려놓구 날 때렸어? 이놈의 새끼."

아 울던 놈이 인자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이놈의 새끼 네가 좀 해 봐라."

그러니깐 눈물을 쓱쓱 씻고는 지게에 척 올라 앉으믄서,

"무슨 공산고?"

"다름이 아니고 우리집 아내가 시집을 와가지고 친정 못 가 어떻게 울룽 비단을 한 필을 했습니다. 가다가 공중에서 휘파람 소리가 훅 나더니 채가지고 가길래, 이놈아 너 사는 동네가 어딘지 가르쳐다오 하니깐두루 비오다 갠 날, 내 성은 박 타구 냉겨지, 이름은 지사 지내구 냉겨지 아 이래구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아, 그 놈이 해 나구 갠 날이로구나. 그 개나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은 그 박가로구나. 이름은 박대초로구나."

지사 지내구 냉겨지다 이말이야. 이 놈이 인제 울다가, 먼저 뚜드려 맞았지. 맞은 놈이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지.

"너 그저 눈깔두 깜구 가두 너 발길 가는 대로만 가라."

그러더래.

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판결을 듣고. 가려니까 한 어딜 갔는지 가니깐두루 밤이 되었는데 불이 번쩍번쩍 허드래. 그 집에 슬슬 들어가니까 두 늙은이가 있드래. 안늙은이 바깥늙은이. 그게 사람이 아냐. 그 산신이야.

말하자믄 산신이라구. 들어 가니깐두루,

"올 줄 알았다."고.

그 집이서 자고 아침이 됐는데,

"너 인제 가라. 요 산등이 넘어가면 박대초네 집이 있는데, 가면 너 데리고 댕기던 종이 물을 길러 나올 꺼야. 나올 테니깐두루, 나와서 정성을 드릴 꺼야."

물을 떠놓고 인제 치성을 헌단 말이지 인제. 그때에 수양버드나무가 우물에 있는데, 〔그 나무에〕 올라가 앉아서 있으니까 종이 물동일 이고 물을 떠놓고설랑은에,

"그저 본골 서방님 좀 만나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치성을 헌다 이거야. 〔아 그래 버드나무잎을 따서 물동이에 떨어뜨렸어.〕 버드나무잎이 물에 떨어졌으니깐두루 되로 쏟아 내뻗치구서는 또 물을 퍼놓구서는 또 치성을 드려. 그래 세번째 또 훑어서는 물동이다 내려 던지니깐두루, 그러니까 산신령이 시켜 준거야, 그게 다 그렇게 하라구. 쳐다보니 사람이지. 〔종이 본골 서방을 보고〕

"본골 서방님이 오셨다."

고. 그래서 내려가서는 서루 만나서는 집에 들어간 거야, 박대초네 집에를 들어가니깐두루, 종이 들어가서, 마누라가 거기 있으니까,

"본골 서방님이 여길 오셨다."

고 하니까, 큰마누라가 허는 말이,

"아니, 본골 서방이 왔어? 그 눔이 여길 왜 왔어? 어떻게 왔어?"

박대초의 큰마누라가 돼 있드래.

"그 놈 왔거든 가마다 물 퍼다 붓구 불 살려 놓구 삶으라."

고 그러드래.

그런 것을 종이 〔상전이 명령을 내리니 어쩔 수 없어서 본골서방을〕 갖다가 감췄어요. 남자를 갖다 감춰 놓고는 박대초 먹는 물이, 상수물이 있잖아? 상수물만 먹으라고 그냥 해주니깐두루 그것만 퍼먹는 거지. 그것만, 그 상수물을 퍼먹고 숨어 있는 거지. 큰마누라는 물 속에 삶아서 잡은 줄만 알

고 있는 거야. 아 이 여자가 들어 왔는데 무슨 소리가 '쿵'소리가 나드래.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깐,

"이 철십리 방포소립니다. 염려 마세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 이 여자가 그냥 벌써 준비를, 고추가루 한 병, 참나무 한 대 다 준비해 놓고는, 박대초란 놈의 방포소리가 점점 가까와질 것 아냐? 들어오더니 들어와서는 방을 창으로 그냥 들이 찌르는 거야. 들이 찌르니까는두루 이 여자가,

"아유 서방님, 아 여기 무슨 인간이 왔겠다고 이러냐?"

구. 거기 들어가서 쉬라고 독주술을 얼마나 퍼먹여가지고는, 벅여놓으니깐두루, 이놈은 잠을 자믄 숨을 내쉬면 문이 퍼뜩 열리고 숨을 들이쉬믄 문이 닫기고 눈을 감으믄 잠이 안 온 사람이구, 잠이 똑똑히 들어야 눈을 똑바로 뜹니다. 그래 이러다가 잠이 들었어.

들어가니깐두루 창검이 있는데, 창검을 들어가 쥐질 못해 〔여자가〕,

"들어가 창검을 잡으라."

구. 창검을 잡을려구 하니까 아 이게 창검이 찔찔 우네그래. 잠이 고이 들으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자니까 창검이 울어서 그걸 못 들어.

"이놈아, 내가 주인이야."

소릴 지르니까는 창검이 그만 꼬친단말야. 창검을 들고 제미 모가질 내리 잘랐지, 박대초를. 모가질 잘라 놓으니깐두루 아 이거 모가지가, 대가리가 천장에 올라 붙었다 또 올라가네그래. 여자가 참 나무에다 고추가루를 들이 치니까 못 일어나 붙지 뭐. 붙을 수가 있나? 이래가지고는 박대초를 그만 잡았지.

잡아놓구는, 그전에는 집칸도 크니까 맨놈의 예편네야. 인물 잘 생긴 여자 말 잘 듣는 거는 예편네로 삼고, 말 안 듣고 빠석하는 놈은 말짱 갖다 가뒀어. 아주 그득하더래. 광에 아주 맨 예편네야. 각기 찾아 보내놓고는 제 예편네는 그냥 꼭꼭 싸서는, 대가리만 꼭꼭 싸서는, 가지구는 종 데리구, 종은 제 예편네가 되는 거지. 데리구 와서는 처가집에 왔저. 와서는 장

모한테 갖다가,

"장모님, 이거 좀 받으세요."

"아이구 사우 오래간만에 왔네. 참 오래간만이지."

그렇지 뭐.

"이거 저 가거든 풀어보세요."

그래구는 얼른 가 버렸단 말야. 아 풀어 보니 딸의 얼굴이지 뭐.

* 오만성, 남·73. 내촌면 와야리 출생.
* 화촌면 주음치리 술음재마을, 1988.6.24., 정덕준 강성관 윤혜정 유진수 김효경 조사.
* 1—5—1

여우로 둔갑하는 딸

딸을 하나 인제 둘라고, 백일 정성을 들였더니 참 딸이 하나 태어났단 말이요. 아 무럭무럭 참 딸이 잘 큰단 말이요. 근데 소가, 부자로 살았던지 소가 한 여나무[1] 마리 있는데 제냑[2]마다 이놈의 소가 한마리씩 죽거던. 그니깐 큰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는 그게 또 회한하거든. 그래서 제냑이믄, 밤중이므는 그 뭐야 밤에 지켰단 말야. 지키니깐 자기 동상이 나온단 말야, 여동상이. 나오더니 재주를 훌떡 넘더니 아이, 아 소를, 아, 그놈의 그 여우더라 이거야. 아 그러더니 아 송아지를 그 잡아. 아 그래 그날 제냑에 또 인제 또 지켰어. 지키니깐은 아 이놈의 소가,[3] 또 그렇게 나오더니 재주를 훌떡 넘더니 아 여우가 됐어. 그래서 자기 부모네 보고선 인제 그런 소릴 하니까는,

"아 이 미친놈아, 아 그 정성을 들여서 낳은 딸인데 어떻게 딸이 그렇게 변동을 할 수 있느냐?"

1) 여남은. 2) 저녁. 3) '동생이'의 잘못.

말야. 아 그러니까는 아 이 곧일 안 듣네. 에이 나대로 가겠단 말야.

"아버님 가겠어요."

보따리를 인제 싸짊어지고선 참 가는 거야, 인제, 자기 혼자. 그래 인제 어딜 가다가는 쉴려니깐, 이 노인이,

"어디 가는 아 이 손님이냐?"

고 앉아서 애길 하더라 이거야. 아 이렇게 참 이 멀리 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벌써 보니까는, 네 관상을 보니까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가는 사람이니까는 우리집으로 가자."

말이야. 그 집이 가서 참 몇 해를 인제 살았어요. 살다가 내가 인제 집에를 한번 가보겠다고 그러니까는,

"그래 집에를 한번 가 봐라."

하고서는 보따리 짐을 인제 싸 주는데, 너 이게 에 뒹박[4]을 이렇게 서이를 이제 주더라 이거야.

"너 이 급할 적에 이 뒹박을 써 먹어."

"그 이 뒹박을 뭐 어떻게 써 먹느냐?"

"이 아마 이것은 하나 던지면 이게 물이 될 테고, 하나 던지면 덤불이 될 테고, 하난 이게 불이다."

말야,

"에, 알았어요."

그래 인제 그 자기 살던 집이를 찾아가 보니까는 쑥밭이 됐더라 이거야. 아주 집이 뭐 자기 부모네꺼정 다 그냥 잡아먹고, 하 자기 누이 동상만 하나 있는데, 하 자기 오라버니가 오셨다고 말야, 하 반갑게 아 이 들오시라고 말야. 아 밥을 해 드려야 한다고 말이지. 물동이를 이고 이 자기 동상이 인제 간단말야.

"그래 그럼 물 지고 와라."

---

4) 뒤웅박.

말야. 이 방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아부지 아 뼈다구며 아 어므니 뼈다구가 따로가 착 눕혀 놨더라 이거야. 하 이놈의 거를 말야. 자기 부모네 뼈[5]는 인제 엇다 싸서는 짊어지고서는 아 나오니깐 말이지, 아하 그냥 자기 누이동상이 말아지, 아 이놈의 새끼 제주를, 물동이를 패대기 치더니 말야 넘더니 아 여우가 됐어.

"오른 내가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이놈의 새끼 간다."

고 말야. 아 막 뛰어오는거야, 쫓아서. 아 그러니까 여우가 쫓아오니 뭐 사람이 뛰어갈 수 있수? 아 급하니까 인제 파란 뒵박을 내 던지니까 그냥 강물이 되니깐 말야,

"아 이놈의 새끼야 너도 이 [ ][6]가 됐으니까 여길 나한테 왔지 어떻게 왔느냐?"

이거야, 아 근데 뭐 짐승이니까는 강물도 금방 건넌다 이거야, 또. 하 인제 그 안되겠어. 더 배짝[7] 쫓아 오길래 아이 꺼먼 뒵박을 내 던지니까 덤불[8]이 됐는데 말이지, 아 빨건 뒵박을 내던지니까는 하 불이 확 일어나게 던. 아이 그냥 불덩이에 이놈이 그냥 또 찾아올래니 거길 어떻게 찾아와? 찾아오질 못하거던. 그래서 인제 자기 있던 집에를 오니까는, 그 있던 주인이 하는 소리가,

"그래 그 우뜨케 됐더냐?"

그니까는,

"다 인제 잡아먹고선 뼈만 있어서 그 가져왔습니다."

그래선 그 집이서 그 자기 부모네 뼈를 장을 잘 지내 주더래요.

* 반춘응, 남·78.
* 북방면 구만리, 1987.7.7., 이종철 엄기주 유은영 조옥희 김성욱 장기영 최광현 이연순 조사.
* T. 5—4—1

5) 뼈. 6) 청취불능. 7) 바짝. 8) 덤불.

할머니로 둔갑하는 여우

소금 장사가 이제 소금을 팔러 가다니까는 머야 득득박박 득득박박 그러드래. 그래 가만히 보니까는 어느 미,[1] 미가 있는데 거기 가서 가만히 보니깐 그 미 속에서 해골을 가지곤 나와서는 그걸 끓어 후벼 파더니만 머리에다 뒤집어 씌구선 둔갑을 하니깐 하얀 할머니가 되드래. 그래가지구는 인제 한 군델 가드래. 가니까는, 가는 거를 소금 장수가 뒤를 밟아서 따라가니까는 한 고개 너머 잔치집이 있는데 그리 들어가드래. 들어가니까는 거기 잔치군들이,

"아유 아무게 할머니가 온다."

구. 아주 잘 갖다가 새벽절[2]에 앉히드래는구만. 그러니까 늙은이가 자꾸 새벽을 치다보고 앉았는데 그 소금 장사가 가서는 국시를 주는 걸 인제 먹구서는,

"저기 다, 방에 사람을 다 피하고서는 그 새벽하구 그 저 몇 사람만 놔두라."

고. 그래서는,

"그래 웬 일이냐?"

구 그러니깐,

"야중[3] 알 거니 그러카라."

구. 들어가서는 소금 장사가 작대기를 들고서는 들어가 가지구는 늙은이를 호되게 치니깐 꼬리가 아홉된 여우가 확 퍼드러지드래는군그래. 그래 그 여우를 잡구선 새댁을 구하드래. 그래갖고 잔치집이 괜찮대잖아.

* 박화용, 여 · 72.

---

1) 묘. 2) 곁. 3) 나중.

* 화촌면 굴운리, 1988.6.24., 엄기주 오애리 성경제 이용인 박미연 조사.
* T. 1—13—1

신부로 둔갑한 여우

새댁인지 시집을 가는데, 시집을 가는데 이제 가마를 타구서는 한 고개를 넘어서 가는데 이 색시가 우쩌 소변을 보고 싶다고 내리더래. 내려서는 소변을 보키고서는 그 가마에 들어앉았을려니깐 우쩐 새댁이 똑같은 게 들어앉았드래.

"아 이 새댁이 웬 새댁이냐?"

고. 그래선 새댁이 들어갈랬더니 그만 못 들어가구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깐 고개에서 그냥 한 가마에다가 새댁 둘을 태워 가지구서는 이제 가다니까는 가서는 잔치집엘 갔는데 이제 새댁을 가릴래니깐 당체 가릴 수 없드래. 어는 게 진짠지. 그래가지구서는 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선 가릴라구 애씨다 못해서는 큰 수케를, 개를 이제 져다가 놨대. 그러니까는 이제 개가 그 여우를 알구서는 그걸 잡아놓드래잖아. 여우를 물어서. 그래서 또 그 새댁을 구해놓드래잖아.

* 박화용, 여·72. 원주 출생.
* 화촌면 굴운리, 1988.6.24., 엄기주 오애리 성경제 이용인 박미연 조사.
* T. 1—13—1

신랑으로 둔갑한 쥐

욕할 적에 '저 새끼 쥐좆도 모르는 새끼야'라고 이런 말 허는 수가 있죠

? 그게 우뜨케 의미가 내려온거냐 헐 거 같으믄, 옛날에 처녀가, 처녀가 손톱허구 발톱허구 깎아서는 문지방 너머다 항상 요렇게 버리니까 요놈의 쥐가 와서 고걸 날름 먹구 가구, 날름 먹구 가구 그래서 고 쥐가 손톱 발톱을, 처녀 손톱 발톱을 먹구서는 요술을 헐 수가 있어 요술장이가 됐어, 쥐가.

쥐가 요술장이가 됐는데 그 처녀가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믄 옛날에는 이렇게 사흘만 되믄, 지금은 신혼부부라구 이렇게 같이 친정두 가고 그래지만두, 옛날에는 같이 가는게 아니라 시집을 가믄 시악시는 집에 있구, 시집에 있구 신랑 혼자 처가에 가는 거야 인제 재앙 댕기러 간다구. 〔조사자 : 뭐 다니러 간다구요?〕 재양[1]이라 그랬지. 처가집에 재양 댕기러 간다구 혼자 갔는데, 그 동안에 요 쥐 요술장이가 가만히 생각을 허니까,

'에이 내가 요술을 부려 가지구서 이 아가씨를 인제 내가 데리구 살아야 허겠다.'

그래구 처가집에 간 뒤루 똑같은 두루매기에 똑같은 바지저고리에 아주 모냥이 똑같이 신랑하구 해 가지구서는 묵어 올 줄 알았는데 고 다음날 왔드란 말이야.

"아유 왜 묵지 않구 오셨느냐?"

그러니까

"아유 내 몸이 쪼끔 불편해서 이렇게 왔다."

구. 그래서 인제 그걸 자기 신랑으루 맞이해 가주 이 집 어머이 아버지두 인제 자기 아들루 〔알고〕 몸이 불안하믄 몸을 좀 뭐야 쉬라구 이래구 있는데 재양을 댕기구선 뭔 신랑이 또 왔단 말이야. 그러니깐,

"아 아니라구 우리 신랑이 아니라."

구. 여자두 인제 그 나중 자기 신랑 온 걸 쫓아내구 또 어머이 아버지두 우리 아들이 아니라구 쫓아내구. 그 쥐를 아들이라구 그래구 쥐를 남편이라구 그래구 인제 이 집에서 인제 쥐를 맞어 가주구 사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고만 집을 쫓겨나 가주구서는 한없이 어느 산중에 가서 절에 가 있었어. 절에 가서 석달 열흘, 석달 열흘을 불공을 드리구서는

1) 재행(再行).

그래 뭔 소원이 있느냐구 주주[2]가 물으니까 그런 애길 허니까 이길루 뒤두 돌려다 보지 말구 바루 가면, 가다가 나면은 날이 저물으믄 첫째 집이 들어가 자라구. 그래서 인제 그 옛날에 걸어가니까 하루종일 가다나니까 날이 저무는데 산골에 들어가 가주구 집이 쪼그만 게 하나 있어서 고만 그 집에 들어가 자니깐은 할머이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아주 가난해서 죽을 쒀 먹구 죽을 한 그릇 갖다줘서 그걸 얻어먹구 자구선, 그 집이 고양이가 세 마리가 있는데 주주가 그걸 얻어 가지구 가라 그랬거던, 하나.

"고양이를 하나 주셔요, 할아버지. 미안허지만."

하니까는

"네 맘대로 골라 가지구 가거라."

이 사람이 양심이 똑바른 사람이라서 살찐 고양이두 많구 그랜데 제일 패랜[3] 걸 하나 가지구 왔어. [조사자 : 패랜거요?] 응. 아주 젤 우스운 거. 그래 요렇게 두루매기에다 끼구서는 집을 찾어갔지.

집을 찾어가니까는 그 쥐가, 요술장이 쥐가,

"인젠 내가 죽는 날이다. 이 사람이 고양이를 구해 가지구 오니까 내가 죽는 날이다."

그 요술장이가 다 알지. 고양이만 가져오믄 쥐가 죽지 그럼. 그래 자꾸 드러눠 앓아. 그 집이 가서 찾었지. 찾으니까는 어머이 아버지가 반기면서 아들인 줄[4] 몰르구,

"어서 온 손님인지 빨리 들어와서 좀, 좀 아는 사람이믄 우리 아들 좀 구해달라."구.

"우리는 다믄 아들만 하나구 딸두 없이 고 아들 하난데 지끔 아주 중한 병이 들어서 죽겠다."구

"그러냐?"

구. 그래구선,

"내가 약간 잘 알진 못하지만 좀 보여달라."

2) 주지(住持). 3) 파리한. 4) 줄.

구. 그 방에 들어가니까 아주 그 환자가 이불두 못 벳기게 한단 말이야. 절대루 아주. 그래는 걸 각시랑 어머이 아버지랑,

"그래두 좀 선상님을 보여 가지구서 빨리 병을 곤쳐야지 어떻게 허느냐?"

구. 이불을 강제루, 어머이 아버지 마누라 서이가 이불을 그냥 억지루 벳기니까는 이 남자가 이렇게 손으루 멘지는 척 하믄서 저드랑[5]에 껀 고양이가 확 나오니까, 가서 그저 콱 물으니까는 그냥 쥐가 커다란 게 벌떡 자빠지더래유.

그게 요술장일 해 가지구 사람이 되어 가지구 그 처녀의 손톱 발톱을 먹구서 시집 가는데 따라가 가지구서는 그게 요술을 부렸어. 그래 인제 그 쥐좆도 모르느냐 소리를 그 남자가, 하두 자기 쫓겨날 적에 그 애연허구. 인제 그 자기 색시에게 아주 허는 말이,

"이년아 쥐좆두 모르구서는 남편을 그렇게 팔센 했느냐?"

허구서, '쥐좆두 모르느냐?'구 그래서 그 말이 그니까 인제 쥐가 인제 사람허구 그레는 걸 그걸 남편이라구 맞이허구선 자기 남편을 쫓아냈으니까 인제 그래서 지끔 후띡허믄,

"아유, 쥐좆두 모르구 그랜다."

구. 이런 말이 그 역사루 그게 내려온 말이래유.

* 이옥순, 여·60. 동면 출생.
* 화촌면 풍천2리, 1988.6.22., 엄기주 오애리 성길제 이용인 박미연 조사.
* T. 1-8-1

5) 겨드랑이.

호랑이로 둔갑한 남편

그전 과거에 왜 저 두무동, 거기 지금 양구군 두무리야. 양구군 남면 두무리[1]라구. 그런데 거기 그 벌명이, 이름은 난 모르는데, 유호랑이라고 있었어, 유호랑. 〔청중 : 유호랑? 유씨야?〕 유가야. 유호랑이라고 있었는데 그 노인네가 장가를 들어가지고 아들딸 낳고 그랬는데 꼭 둔갑을 하드라 이말이야. 그래 하루는 이제 이상스럽거든. 밤이믄 나가서 그야말로 참 아주 이슥도록 있단 들오고 들오고 했는데 부인이 보니깐 참 신기하드라 이기야. 아주머니가 내보내구는 문구녕을 뚫구선 내다봤단 말야. 내다보니깐, 내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 첨에 나가더니 뭘 꺼내더래. 그니깐 부적이지 뭘. 꺼내 가지구선 뭐라구 한참 외우드래거던. 아 외우더니 금방 아주 그냥 사그리 아주 호랭이가, 자기 남편이. 아주 그걸 보니깐 아주 징그런게 당최 아주 끔찍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며칠후에〕 이 부적을, 그걸 가주 나가질 않구, 그 호랭이가. 그 노인네[2]가 우직허지. 그걸 만약을 몰라 그냥 둬 두었으면 으때? 아 쑥 그냥 빼서 화롯불에 확 던졌어. 〔청중 : 부적을?〕 응. 〔청중 : 그럼 둔갑을 못허지, 그렇게 되면.〕 그래가지군 이 남자가 나가서 호랭이가 돼 가준 돌아댕기는데 댕기다가 들어오니 부적이 있어? 부적을 외야만 그게 사람이 되는데. 그러니 계속 그냥 계속 호랭이루 댕겼어. 탈을 못 벗구 둔갑을 못해니까. 그래가지구선 결국은 아 집집이 댕기면서 그랬는데 그저 무신 개도 물어간다 이 시냥[3]을 하는데 벌써 동네사람이 알구,

"아이구 저 유선생 왔다. 유선생이 왔는데 저 뭐 개가 있으니 저걸 갖다가 자시라."

구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만 안하면 아주 그냥 여간 날치지 않거던. 그래서

1) 斗武里. 본래 인제군 남면의 지역으로서 두뭇골 또는 두모동이라 함. 2) 유호랑의 부인을 가리킴. 3) 시늉. 짓.

이분네가 이렇게 댕기면서두 아들을 삼형제를 낳았더래요.[4]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호랭이로 때를 못 벗고 댕기다 죽었어, 결국은. 잡었지, 총을 가지구. 하도 진을 치니깐 안 잡을 수 있나. 그니깐 총에 맞아 죽었단 말야. 난 유호랑의 그 미[5]까지 알아요. 두무동서 양구 고개, 고개루 넘어가면 양구 남면 청리쪽으로 아주 그 저 북쪽으로 향을 해 가지구 산[6]을 씼어요. 그런데 그 아들네 삼형제가, 낳아 가지구선, 하나는 함경도 가서 인제 살구 또 한놈은 어디 가서 살구 아주 갑부야.

* 김종택, 남·58. 두촌면 장남리 남덕동에서 농업에 종사.
* 두촌면 장남리 남덕골, 1986.7.22., 김성수 유은영 이대근 전계진 조사.
* 2-5-1

주인을 구하고 죽은 개

경주 최서방네가 그거 인제 진사거든, 최진사 집이야. 인제, 개를 키우는데 개가 하두 영리하고 그래서 오래 묵었거든. 한 십여년 키웠어. 그 개가, 그래 어디만 가면, 진사가 떠나 갈라 그러면 뚝 따라가서 꼭 그 주인을 보호해, 그 개가. 어디를 출입을 할려고 해도 그렇고, 무슨 뭐 이웃에 갈 때 꼭 따라가.

그런데 하루는 멀리 환갑집에 환갑술을 자시러 환갑 구경을 가지않았어? 그래 개가 따라와. 그 때가 봄새야. 삼월달쯤 됐는데 이제 그래 술이 취해서는 고개를 넘어오다 고개길 옆에 따뜻하니까 술이 취해서 그만 드러앉았다 비스간히 드러누워서 잠이 들었어. 그런데 그 밑에서부터 불이 타 올라와. 아 올라오니 타 죽겠거든, 주인이. 이놈의 개가 내려가서 물가에 가선 뒹굴며 털에다 물을 칠해가지고는 자기 주인 옆에 자꾸 흔들며 뿌리곤 내

4) 호랑이로 둔갑하기 이전의 이야기임. 5) 묘. 6) 산소.

리뛰고 치뛰고 그래, 실컨. 인제 이놈의 개가 백이 빠졌지. 그래 인제 그 옆에서 죽었어.

그런데 인제 진사가 일어나서 보니까 빙둘러 불이 탔는데 자기는 불타는 줄도 모르고, 잠을 다 깨 보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지. 불은 지나 저기가 타고 그래. 어떡해 개를 만져 보니 개가 죽었단 말이지. 그런데 아주 자기가 누운 데 여기는 물이 질걱질걱해. 옷도 다 젖고.

"아 이 개가 물을 갖다 이렇게 날 춰서 살렸다."

고. 그래 와서 개무덤이, 최서방네라고, 경주 최씨 개무덤이라고 아주 장사터를 크게 해서, 사람 모양으로 해서 직계 자기네들 산에 갖다가 장사를 아주 굉장히 참 아버지 죽은 것보다도 더 잘 아주 굉장히 지내고, 분묘비도 크게 묻고 그래, 그이는 초대 진사를 하는데 그 아래로 진사가 여덟이 더 났어. 그래 구대 진사 집이여. 경주 최서방네가 그래 구대 진사 개무덤, 구대 진사집이라고 그냥 내려오지, 역사가.

* 최주호, 남·74.
* 서석면 풍암2리, 1986.7.22., 김제훈 이홍식 문재우 조사.
* T. 1—5—1

팥망아지 같은 아기

밭고랑에 팥망아지 이만큼씩한 게 뎅기지, 팥망아지. 그 임신을 했어. 그 아주머이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줌마가 가민서, 가다가 김을 매다가 보니 징그러운데 그걸 배 가지구선 그놈을 찔렀거든, 잡을라구 찔렀대. 찍찍 소릴 지를 거 아니여? 아 찍찍 소릴 질르니까 잡구 디리 찔려 버렸어. 그래 잡아 버렸거던. 으 팥망아지가 굵잖아요?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이만씩한 게. 그 배가 〔두 손으로 원을 그리며〕 이만했었는데, 임신이 돼 가지구. 그라구 그 담에 그 인제 그걸 잡아 버리구 한동안 있다가 인제 애길

낳았어. 애길 났는데 뻐가 하나두 없더라 이거여. 애기가 입에서 기냥 찍찍 기냥 찍찍 소리만 나드래. 팥망아지 그 건디래 봐요. 그냥 찍찍 소리가 나지. 아유 이거 우리 엄지손가락씩 해요. 그래서 그 애길 그래두 끌어안구서, 맬키덩한 걸, 뻐가 없으니까, 젖을 빽이고 이렇게 해구 이런 걸 멫 달을 키웠대유. 그래 이 등치는 불어나구. 〔청중 : 그 뭐할려 젖을 빽여?〕 그 그럼 어떻게 하우? 낳았으니까. 계속 늘크렁한 걸, 그냥 늘크렁할 거 아녀? 뻐가 없으니까, 끌어 붙들어다 젖을 빽이군 이러다가 하룬 일을 갔다 오니까 이 놈으 애가 없어졌드래. 그러구는 저기 옛날에 그 엣날 집들 보믄 떡보라는 게 있어, 떡보. 〔청중 : 데들보지?〕 아니 부엌에 가믄 떡보라구 한 아름드리 나무 이런 게 〔청중 : 그게 대들보지?〕 에. 그걸 〔손을 벌리며〕 이래 건네봤는데 아가 거 가서 턱 달라붙어 있드래. 〔청중 : 허허.〕 거 가서 꺽꺽 소릴 질르더란 얘기지. 이 얼매너 놀랬겠어? 부모네가. 그 담에 아 이게 큰일 났거던. 어따 건살 할 수가 없어가지구. 그 뭐 사다릴 놓구 쫓아올라가구 난릴쳤는데 떨어지질 않더라는 거야. 거기 붙어 가지구, 이 발이 전부. 그 왜 그 팥망아지 발처럼 일어나 가주 그런 것들은 붙으문 이 떨어지질, 접착성이 있어 가지구, 떨어지질 않잖어? 전부, 발이 전부 그래 됐드래. 그래가주 강제루 잡아뜯어가지구 멫이, 장정이 멫이 뜯어다가 방에다 눕혔대. 그날 밤으루 사라지드래. 간 곳이 없드래는 거여. 그래서 죄값은 그걸루다 때우고선 말은 모양이더라구.

* 이규상, 남·40.
* 내면 자운1리 운두마을, 1988.6.22., 전신재 김진희 유선영 최정희 전창동 조사.
* T. 4—2—1

참새 덕에 장가간 총각

그전 옛날 옛날 옛날에 떡거머리 총각이 있는데요. 장개를 옛날에 못 갔어요. 장개를 못 가서 참새, 인제 창[1]을 갖다 놨대나? 창을 갖다 놨는대, 참새가 한 마리 치었더래. 참새 한 마리 쳤는데 참새가 인제 총각을 불르면서는,

"야 나를 살려 주면 내가 너를 장개를 보내겠다."

"그럼 니가 나를 어떻게 장개를 보내겠나?"

그러니까,

"내 꽁지를 세 개만 빼라. 꽁지 세 개만 빼면은 네가 장가를 갈 수 있다."

"어떻게 가나?"

하니까는

"어디 아무데 아무데 가면은 그 인제 처녀가 나와서 어디 와서 오줌을 누구 들어갈 테니까는 거기 가서는 그 꽁지 세 개 뺀 걸 갖다 꽂아 놓아라."

그러더래. 그래 꽂아 놓으니까는, 오줌 눈 자리다 꽂아 놓으라 하니까는, 아 별안간 이놈의 처녀가 뭐라 그래냐 하면은 걸음 걸을 때,

"홀리 물리 풍덩, 홀리 물리 풍덩."

그러더래. 아 집이선 그래 인제 병이 들었으니 큰일 났잖아? 큰일이지. 집에선 큰일 났지. 그래선 인제 거길 갔어. 인제 그 총각이. 그저 꽂아 놓구 어딜 갔다시리 이제 우떤가 하고 이제 가 봤어. 갔는데 그 집이서 큰 난릴 치드래. 딸이 인제 다 큰 딸이 참 그렇게 빙[2]이 들었으니 큰일 났드래. 그래 가설랑은, 인제 총각이 이렇게 가 보니깐은,

"참 저기 이런 건 고칠 수 있느냐?"

---

1) 덫. 2) 병.

그러니깐,

"곤칠 수 있다."

하더래. 그러면 거기다가시니 단지 처녀하고 저허고 딱 둘만 놔 두고 인제 굿열 하는 거야, 인제 굿열, 굿열. 인제 채려 놓고 굿열 하는 거야. 허니깐 인제 한참 인젠 굿열 하다가는 나가서는 꽁질하나 뺐네. 빼니깐은,

"홀리 물리, 홀리 물리."

그래더래. 그래 인제 아이구 즈 부모네가 그럴 거 아냐?

"아이구 애 인제 좀 낫다."

구. 그래 그래지. 그래구선 인제 또 인제 정열[3] 또 디립다 두들겨 읽는 거야. 그래구선은 또 인제 또 하날 이제 또 가 뺐지. 하날 빼니깐은 그제선 인제 소리가 한 마디밖에 없을 거 아냐?

"홀리 홀리."

그럴 거 아냐? 그래니깐 인제 또 한참 두들겨 읽다가시리 인제 또 나가마주 뺐어. 그래니깐 아주 아무 소리도 없이 다 깨끗이 다 났지. 인제 났는데, 그래 인제 그 처녀하고 그 총각하구 백년해로 해서 아주 살 더래. 하하하.

* 이지영, 여·59. 하화계리 출생.
* 북방면 하화계리, 1987. 7. 9., 이종철 엄기주 유은영 조옥희 김성욱 장기영 최광현 이연순 조사.
* T. 5—6—1

문둥이 처녀의 사랑과 구렁이술

그전에 한 부잣집이 사는데, 참 딸 하나 낳아서 키우고설라네 딸도 시집가게 되구, 이래서 시집 보낼려구, 참 엣날에 그 명주대전이던지 뭐든지

3) 경을.

혼수감을 많이 해구 전부 장만해 두었는데 이 처녀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시집갈 때 가서. 그래 문둥병에 걸리니 그 동네설라네 참, 말두 허겠구, 또 집안에 문둥이 병이 퍼질까봐 저 거리 밖 동네 밖에다시리 여막을 이렇게 짓구서 거기다 내다 아주 두었어요. 혼자 거기서 살다 죽으라구. 그래 거기다 내다 뒀는데 이 시악시가 그 시집갈 때 〔가져가려고 준비한〕 이부자리든지 뭐든지 전부 갖다가 그냥 그 척척이 쌓아 놓구 있는 거야. 그저 죽을 때를 바라는 거지. 그때 그런데 그 종이 아척[1]에 다 점심까정 먹게 해주고 저녁마다 지녁을 주고 꼭 이렇게 배달해 줘서, 참 그릇도 그저 뭐 주발 대접하구 한 벌 하구, 그저 간[2]하고 그 담는 그릇 갖다 교체해서 여기 갖다 주고 그러는데 그래 인제 그 동네에서 동구 밖에 나가설라네, 글방이 있는데 전부 글방을 뎅기며,

"저게 문둥이 집이야. 저기 문댕이가 사람 잡아먹는다."

그래 이 학상들이, 글방 학상들이 이런다 이거야.

그러다 인제 참 이 총각도 그 문댕이 집 옆집에 사는데 사는 것도 비등비등하게 두 집이 살더래요. 근데 이 총각이, 참 여느 놈의 친구는 죄 먼저 오고, 혼자 글을 짓다가 거기 떨어졌다가시리 말야, 오는데, 거길 오니까 날이 벨안간 캄캄해지면서 말야, 뇌성벽력을 하더니 소내기가 쏟아지는 거야. 그래니 오두 가두 못하고 거기 가서 뭐 동구 밖인데, '아이 비라도 좀 그버야[3]겠다'구, 무서운 것도 전폐하구 그 문둥이 의짓간에 가서 이렇게 비를 그을려는 거야, 소내기를. 그래 이 시악시가, 문댕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깐 한데서 인기척소리가 나거든. 그래 이렇게 문을 열구서 내다보니깐 그 옆집의 총각이 글방엘 갔다 오다가 소내기를 만나서 긋고 있어. 아 그래서 하두 참 적적하구 심심했던 차인데,

"아 총각 뭐 이리 들어 오라."

구 말야.

"아이 괜찮다"

---

1) 아침. 2) 반찬. 3) 그어야. 피해야.

구 그러니까,

"아이 괜찮나마나 들어와서 비나 그을리라[4]"

구. 그래 드나드는 문께로 오라구 그랬더니 문께로 가서 비를 그을리는데 아 해가 다 떨어져 어둡도록 소내기가 쏟아져요. 소내기가 쏟아지는데 날이 잔뜩 흐려 캄캄해 갈 수도 없구 올 수도 없어요. 캄캄한 밤인데. 그래 이놈의 학생이 할 수가 없어서, 아이 뭐 이거 갈 수도 없구 말을 해 보니까 문둥이가 사람 잡아먹는다더니 이웃에서 크던 시악시 아는 낯에,

'나야 잡아 먹으려구?'

하구 말이야 들어갔어, 방으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래 글방을 댕기면은 그 집께 우리 밭에 뭐 옥시기[5] 심었던 건 작년에 잘 되었었나, 안 되었었나?"

그것도 전부 묻고,

"뉘집 시악시 잘 크더냐 못 크더냐?"

그것두 묻구 말이야. 전부 묻거던.

"아 그래 그렇게 다들 잘 있구 농사도 잘 질구 다 잘 됐다."

구, 아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아 이놈이 무서와서 엉치를 잔뜩 빼구 문둥이가 사람 잡아먹는다 소릴 들어서 이놈의 학생이 그러는데, 그래도 여잔데 잡아 먹히랴 하고 말야 글쎄 그러고 있는데, 그러거든.

"학상 저녁 먹으라."구.

"우리 시집갈 때 데려갈 몸종이 저녁을 해다 조기다 놓았어. 내 한 술도 뜨지 않았으니 시장할 테니깐 그걸 자시고 가라."

구. 배는 고프고 먹고 봐야지. 보니까 떠를 덮어놨는데 놋주발에 떠를 덮어놨는데 밥하고 고기가 있어서 한 주발을 다 먹었어요. 다 먹고 좀 훤해지면 집엘 갈라고 내다 보니깐 뭐 점점 더 깜깜해져서 분간칠 못하겠어. 이놈 학상이. 아 그랬는데 근심을 하니까, 집에 갈 근심을 하니까 거 시악시가,

---

4) 그으라. 5) 옥수수.

"총각두 사람이요, 나두 사람인데 그걸 위해서 같이 컸질 않았느냐? 엄만 앞에서 젖 먹이고 울타리 밑에서 소꿉장난도 같이 하고 이래던 총각인데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그렇지 내가 사람과 틀린 것이 뭐 있느냐? 나 시집 갈 제 가져갈라고 이부자리 전부 해 놓았던 것다 나 한 번도 안 덮어 보았다."

그래 베게까정 재봤는데 요에 이불에 척척 전부 펴 주거든, 웃목에다. 덮구 자라구 말야.

아 그래설라네 총각 놈이 거기서 자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문둥이가 무섭대더니 무섭기는커녕 그전에 소꿉장난하던 생각도 나고 말야, 똑같은 사람이야. 아 똑같은 사람이라서 서로 애기 애기 하다가시리 학생이 그랬어, 글방 총각이.

"아이 처너."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시냐?"구.

"시집갈 때 가져 갈라구 했던 이부자릴 내가 이렇게 덮구서 이담에 문둥병이 나아서 시집갈 젠 어떡 할거냐?"

구. 그래니깐,

"아 관계없다."

구. 그래니깐 그전 소꿉장난하던 시절도 다 생각나고 다 두리누어 생각하니까 집엘 갈래도 깜깜해 갈 수는 없고,

"우리 여기서 당신도 덮어보고 나도 덮고 우리 같이 자자."

구. 그래서 거기서 참 잤어요.

자구설라네 참 날이 환하게 밝아설라네 일찍 집엘 갔어. 집에 갔는데,

"아유 그래 글방에서 뭐 하다가 그래 소내길 만나서 못 오구서 글방에서 자구 인제 오느냐?"구.

"아 글방에서 소내긴 오구 캄캄하구 올 수 없어 자구 왔어요. 어머니."

"잘했다."

이러구 있는데, 몸종이 문둥이 밥을 해가지구 나갔어요. 밥을 해 가지고 나

갔는데, 그랬더니 몸종더러 문둥이가 하는 얘기가 재밌어.

"얘, 들어가서 어머니더러 이렇게 동구 밖에 나와설라네 있으니 술이 한 잔씩 먹고 싶어 그러니까 찹쌀 좀 한 말 갈 해설라네 드나드는 요기 좀 파고서 수리주 한 말, 찹쌀 한 말 술 좀 해 넣어 달래라."구.

"아 그럼 그래야지요."

그래 들어와서 몸종이,

"마나님 마나님."

"아니 왜 그러냐?"

구. 아이, 얘기가 고독하게 거리방에 나가설라네 혼자서 적적할 때 술이나 한 잔 먹고 취해서, 모르게 자게스리 찹쌀로다 아에 되를 질러서 독주를 한 말 해 넣어 달랬다고 그러니까 색시 어머니가 아 그 다 죽게 된 자식 그거 원이야 못 풀어 주겠냐고, 그날로 찹쌀을 봉두 한 말 담궈서 누룩 한 말 해서 거기 독주를 해서 거기다 파고서 술을 한 말 해 넣어 주었어요. 그래구서 술을 끓는데 그 시악시 맘에는 왜 그렇게 한 말 해 넣었느냐? 이 학생이라도 자기네 집에 와서 하루 저녁 자고 가도 만리장성을 쌓으랬다고, 이 총각이 그래도 여길 들어올 거다. 하루 저녁 이렇게 나한테서 밥도 얻어 먹구 그랬으니 그러면은 이 총각 그 찹쌀 술 한 그릇 좋은 것 이렇게 해서 줄라고 말야. 그래 좀 들르랠라고 해 넣었거든. 이거 뭐 술이 다 되어도 안 와. 안 오길래 술이 됐나 하고 맛보고 맛보고 자꾸 떠다 먹구 이러다가시리 하루 저녁 이렇게 떠다 먹구설라네 방석을 안 덮고 들어왔어요. 그래 방석을 안 덮었고 뜩 들어와설네 참 이거 수방을 열어 놨는데 큰 구렁이가 술냄새가 나니까 거기 풍덩 빠져 죽었어. 그런걸 처음에는 구렁이가 빠져 강한 줄도 모르고 그놈의 술을 전부 퍼다 먹었어요. 다 퍼다 먹고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깐은 술 항아리 밑에 뻑다구만 앙상하게 남았드래요, 푹 썩어서. 그래 그걸 마주[6] 먹는데 문둥병이 깨끗하게 차츰차츰 가셔. 그 술을 계속해서 먹으니까. 아 그래 싹 다 먹고 나니까 그 뻑다귀도

6) 마저.

보고 그랬는데 그걸 마저 먹으니까 그래 문둥병이라는 것이 일체 없어졌어요.

그래 이놈의 총각이 안 오는 거여요. [청중 : 거 욕시랄 녀석, 하하.] 그래서 몸종이 밥을 해 가지고서 식전에 나갔는데 자기 몸종더러,

"애야 마나님더러, '들어가서 봐라', 이제 나 문둥병도 깨끗이 싹 나았다. 낫고 몸이 불어 이상하니까 어머님더러 얘기해서, 아버지더러 얘기해서 나 빨리 집에 들어 가게 해라."

아 그냥 반가와서,

"아 그럼 그래야지."

아 그게 뛰어들어가서,

"마나님 마나님."

"아 왜 그러니?"

"아 저 거루방에 있는 애기씨가 문둥병이 아주 깨끗이 나았다고 집으로 들어 오겠대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좋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허 그러나구,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참 뛰어나갔어. 나와 보니까 문둥병 앓았다는 표시도 없더라, 이거야. 깨끗해 그냥. 근데 자기 어머니가 데리고 들어와 보니까 몸이 틀려요. 그래,

"너 몸이 틀린데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바른대로 얘기하니까,

"어머니 찹쌀 술 잘 해서 그거 다 먹었으니까 몇 달 잘 되었죠. 그러니까 어느 총각이, 옆에 김서방네 총각이 글방에 갔다오다 소내기가 와서 가질 못하고, 나 저녁 해다 준 걸 먹고 나하고 하루 저녁 자고서 갔는데, 그때서부텀 이렇게 몸이 틀려졌다."

고 말야. 얘기하니까, 아 그래 자기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고. 총각 아버지를 오랬어. 그래니깐 왔어. 와설라네 오래 앉아서 따지는 거야.

"우리 딸이 문둥병이 걸려서 사실 저 거루방에다 내다 놓고설라네 있었는데 거기서 문둥병이 깨끗이 그전처럼 똑같이 되었어. 근데 너희 집 아들

이 우리 딸현테 거기 와서 소내기 오니까 하루 저녁 자구 왔대. 그런데 자구만 왔으면 괜찮은데, 이 몸이 틀려지니 너의 새끼니까 우리 날을 받아 잔치하자."

이거야.

"아 그래자. 할 수 없다."

고 말야, 약속을 참, 날 택일을 해서 보내고 사주를 해서 보내고 동네 사람들을 전부 요청해서 술을 먹이는데 별 잡놈이 다 있거든.

"병신 같은 자식이 하필 문둥이를 데려와."

이러는 놈도 있고, 그 어떤 놈은,

"아 그집 시악시가 똑똑히 참 잘되었어. 문둥병만 낫으면 장가는 잘 간다."

이래는 사람도 있고 별소리가 다 있거든. 그래 첫날 저녁에 딱 들어가설라네,

"그래 어떻게 문둥병이 나았느냐?"

그러니까. 신부가,

"당신이 그때 글방에 갔다 오다가 나하구 하루 저녁 자구 갔잖우? 자고 갔는데 당신 들어오면 대접할려고 찹쌀술을 한 말 해 놓았는데 당신이 영 안 돌아와서 나 혼자 다 퍼먹고 보니까는 구렁이 뻐가 서리서리 그냥 쌕힌 걸 다 먹었더니 감쪽같이 다 나았다. 당신하고 배필이 될려고 그랬는지 그래 다 나아설라네 몸도 이렇게 되어서 우리 좋은 날 택일을 해 가지고설라네 우리 좋은 경사를 이루었으니 당신도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살고 나도 머리 파뿌리 되도록 우리 싸우지 말고 한 세상 잘 살다가, 내 아들도 낳아 줄 테고 딸도 낳아 줄 테니 잘 살다가 죽읍시다."

그러고 잘 살더래요. 그게 약도 아마 좋은 모양이에요. 그게 살 때도 연때가 맞아야 돼요.

* 정재수, 남·59.
* 서면 대곡리, 1987.7.9., 허남춘 이원미 이진주 강성관 조사.
* T. 2—5—1

지혜로 누명 벗은 처녀

그전에 한 마을에 아주 부자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집, 그 집은 귀동딸이 하나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이웃에서 그 귀동딸을 아주 그냥 눈독을 내. 탐을 내고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총각이. 근데 마음에만, 그야말로 그렇게 짝사랑만 하고 있지. 그저 아주 운젠가는 내가 저 색씨를 한번 내가 한번 내 아내로 맞아 보겠다는 이런 욕심만 혼자 가뜩 차 있었는데, 아 그럭저럭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 색시도 아, 나이가 차고 이래 가주구 혼담이 들어서 약혼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서[1]말이 들어오니까, 그 이웃에 진사집인가 어느 양반집에서 말이 되어 가지고서 거진 인제 말이 떨어져 가지고 잔치날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까, 아, 이 총각녀석이 그야말로 참 속에서 뿔때가 났단 말이에요. 헛소문을 다니면서 내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저 처녀는 그전서버텀 나하고 남 모르는 짝사랑이 돼 있는 사이이니까는 누구든지 혼인할 생각을 말아라."

아니 이렇게 다니면서 낭설을 자꾸 퍼뜨려 놨다 말이에요. 그래 이놈이 건달이니까 다니면서 술을 마시면서 술 좌석에서도 그 아무개 그집 그 귀수[2]는 내꺼라고, 여느 사람은 임자 없다고 내가 그 귀중처녀하고 내가 벌써 사랑하는 지가 오랜데 아무가 오든지 안 된다고. 아 이렇게 되다보니까는 이 신랑집에서 가만히 들으니, 안 그렇습니까? 그 여자의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아 그렇다면 우리 혼인 안 하겠다고, 이 지경이 됐단 말이여요. 그러다보니까는 이 귀수집에서 당황헐 수밖에요. 이 귀수집에서 결국은 그 처녀한테 직접 물어보니깐,

1) 어디서. 2) 규수.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것은 저놈이 뭔가 이 허언을 내가지고서 이렇게 되면은 혼인이 깨지면은 자기한테로 이렇게 올까 하고 이래는 아주 이 저 낭설이니깐 절대 그러지 마십시요."

결국은 관에다가 소송을 해라고 했습니다. 아가씨가. 그래서 관가에 고소를 했어요. 관가에서 처결을 할려니 처결할 방침이 있어요? 그 참 막막하게 된 입장인데 재판날을 떡 받았습니다. 재판날을 받았는데, 재판 전날 이 아가씨는 벌써 다 고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멋모르는 총각놈은 총각놈대로〕 그 총각놈이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군청에, 그 이전에는 관가에 아전이 있었대더군, 드나드는, 이제 그러니까 군수 앞에 직접 드나드는 아전을 통해 가지구서,

"오늘 저녁이래도 그렇고 뭔가 요 원한테 아가씨가 얘기하는 얘기가 있을 테니까 고 비밀을 탐문해 달라. 그러면 내 아주 하여튼 내 내, 우리 재산 반을 갈라주마."

그러면서 뭐 술에다 고기에다 잔뜩 아전을 먹여 놨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뭐냐하면은 재판 바로 전날 저녁에 관에 와서, 원님한테 말하기를,

"원님 저는 아주 꼭 원님한테 드릴 께[3]있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옳다 됐다, 인젠 인젠 됐다."

이 아전이 인제 이렇게 사실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뭐라고 그래는지 조금만 탐문하면 된다."

이래가지고서는 원님 있는 방 부근에 아주 그야말로 아주 몰래 비밀히 아주 잠복해 가지고서 얘기하는 걸 들었단 말씀이에요. 그래 이 이 원한테 가서 이 아가씨가 말하기를 뭐라고 해느냐 하면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을 하실랩니까?"

"글쎄 나두 이걸 우뜨케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원님 저는 저 여느 게 아니고 남 못 보는데 제 아주 비밀 증거

3) 말씀드릴 것이.

가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건 우리 부모네밖에 모르는데 내 배꼽 밑에 사마구가 하나 요렇게 배긴 게 있습니다. 낼 그 사마구로 한번 증거물로다가 한번 입증하심 되지 않습니까?"

"아 알았다."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 해결을 해 주십시요."

이거를 그저 뭐야 통인인가 아전이 잠복해서 들었단 말씀이에요. 아 〔총각에게〕 쫓아가서,

"아 얘기를 들으니까 원님한테 애걸하는데 그 아가씨가 배꼽 밑에 요런 사마구가 증거품이 있대니까 낼 증거를 얘기하라."

고. 그러면 틀림없이 될 거라고. 아 이 총각놈이 그래선 기고만장해 가지고 밤새도록 술을 먹고 뭐 그냥 인젠 인젠 저 내 물건이 됐다고, 아 뭐 한 팔을 봤다[4]말이여. 그 이튿날 재판이 된다 하니깐 하여튼 뭐 그야말로 참 아주 관아의 넓은 마당이 꽉 찼어요, 아주 관중들이. 그래 떽 하니, 인제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 원님이, 그 총각을 불러가지고서는 인제 지금으로 말하면 원고 피고 인제 차례 차례 불러가지고서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우선 총각을 불러 가지곤,

"너는 그전서버텀 저 이웃에 있던 그 아가씨하고 그렇게 남몰래 짝사랑이 분명히 있었지?"

"아 그러믄요."

"그래 맺 해나 되느냐?"

"한 사오년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아가씨의 무슨 남 못 보는 데 증거 있는 걸 아느냐?"

"예 압니다."

"알았다."

또 인제 아가씨를 불러 가주구 게 지금으루 말하자면 피고죠.

"피고는 저 총각하고 서루 아는 점이 있었느냐?"

---

4) 시름을 놨다.

"전 할 말씀이 없습니다."

"음 그래. 그러면 무슨 남 못 보는데 뭐 증거같은게 있느냐?"

또 인제 이렇게 물으니까,

"예. 남 못 보는데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디 서로 증거만 분명히 판증이 되면은 여기서 이건, 이 재판은 끝나는 거니까, 그럼 어디 원고가, 총각이 어디 증거를 얘기해 봐라."

그러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아가씨는 저하고 서로 몇 해 전서버텀 서로 남몰래 비밀히 알고 있었는데, 이 배꼽 밑에 사마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이 아가씨가 원님앞에 서슴지 않고 올라가서 이 배꼽밑을 내려 미니, 사마구가 있긴 뭐 있습니까? 없죠 뭐. 그 자리서,

"예 이 천하 고약핸 놈 같으니라고. 어디 이 이렇게 아 사람을 망가트리냐?"

고, 그 자리서 총각 녀석은 그냥 뭐, 지금으로 말하면 요렇게 쇠고랑을 차고 말았대지 뭡니까? 그래가지고서 아가씨는 깨끗한 아가씨라서 자기의 아주 그냥 원이[5] 약혼자한테루다가 결혼을 해 가지고 아주 잘 살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자손도 많이 두었대요.

* 이영법, 남·59. 하화계리 출생.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이종철 엄기주 유은영 조옥희 김성욱 장기영 최광현 이연순 조사.
* T. 5—8—1, 5—8—2

5) 원래.

선녀와 결혼한 나뭇군

엣날에 큰 더꺼머리 총각이 하나 사는데 아, 생전 반 늙은이가 돼도 장갤 못가고 사는데 낭글[1] 헤러 가서 신세타령을 하면서 낭구를 해잖아요? 낭그를 해 오고 해 오고 그러는데 검불을 북북 긁데이까는 아 노루놈이 벌떡벌떡 하고 뛰어오드래. 아유, 낭구하는 사람보고,

"나 좀 몸 좀 감춰 달라."

구. 검불로다 그 노루를 덮어줬대. 아, 포수가 노루를 잡을려고 우둥 경뚱 경뚱 뛰어 왔어.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낭구하는 사람보고.

"왜 그래요?"

"아, 금방 여기 노루가 뛰어갔는데 노루 뛰간 걸 봤느냐?"고.

"아이, 못 봤다."

구. 아, 금방 이리 뛰어갔는데 없대네. 못 봤대네.

"아이, 못 봤어요."

아이, 도라[2] 닥치드래나. 노루를 잡을라고. [사냥꾼이 돌아간 후에] 노루를 갖다가 끄내 놨단 말이야, 가라구. 이놈의 노루 살아서 갔단 말이야.

또 가서 낭구를 북북, 이튿날 또 가서 했는데, 아이구 노루 하는 말이,

"당신은 사시장천 총각으로만 사느냐?"고.

"내 장개를 들여 줄께스니 내 말을 들을래느냐?"고.

"아, 듣겠다."구.

"어떻게 하면 장개를 들겠느냐?"

---

1) 나무를. 2) 도리어.

이러니까,

"당신은 여기서 장개를 못 들어. 이승에서 장개를 못 들어."

"그럼 어떡헤요?"

하늘에서 선녀들이 서이가 내려오는데, 달 환한데 목욕을 하러 내려온대요.

"목욕을 하러 내려올 적에 가서 지키고 있다가 그 날개옷을 벗어논 걸 감춰라."

고. 이제 날개매옷을 하나 감췄대요. 아이, 선녀들이 목욕을 해고서는 나오니깐 날개매옷 하나가 없네. 둘은 올라갔지, 옷을 입고. 하나는 그만 떨어졌네, 고만 못 가서. 총각이 붙들었단 말이에요, 더꺼머리 총각이. 오도 가도 못 하니 그 사람하고 살게 된단 말이요. 사는데 하루는 검불을 긁으러 갔는데 노루가 하는 말이,

"당신 날개매옷을 감췄느냐?"고.

"감춰서 〔선녀가〕 나하고 지금 있다."구.

"당신은 그 날개매옷을, 아들 딸을 너이를 낳도록 그 날개매옷을 내놓지 말라."

고 하더래.

"서이만 나도 하늘로 올라가니까 너이를 나며는 내놔라."

이러드래. 이 여자가 애를 서이를 낳아서 키워두 그 날개매옷 때문에 시마[3]를 두더래. 아주 시마를 두기 때문에 이걸 내놨는데 아, 어디 갔다 오니깐 그느무꺼[4]를 입고서는 애를 양쪽에다 안구 하나는 업구 이래구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야. 느이[5]를 낳두룩 그 날개매옷을 주지말라는 거를 느이를 안 낳고 서이를 낳는 동안 췄거든. 서이를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야, 하늘로. 그래니 그만 허영게 됐잖아? 아이구 어떡해? 또 낭구를 해러 갔대. 노루가,

"아, 날개매옷을 애 너이 낳도록 주지 말랬더니 서이 낳고서는 줘 가지고 올라갔잖아? 이제는 하늘의 선녀들이 날개매옷을 입고 안 내려온다."

---

3) 걱정. 4) 그놈의 것. 5) 넷.

구. 안 내려오구 드렛바가지를 가지고 퍼 올린대. 연못에서 퍼 올려 가지고선 목욕을 한대요.

"그러니까는 가서 지키구 있다가 드레바가지가 내려오면은 거기, 물을 풀 동안 거기 얼른 올라타구 〔하늘로〕 올라가라."

구. 아, 그래 가서 지키고 있으니까는 드레바가지가 내려오드래. 내려와서 얼른 쏟고서 거기 타고 올라가니까 참 마누라도 있구, 애들이,

"아빠 왔다."

구. 아, 장모 장인이,

"저거 무슨 사람이냐?"구.

"제 남편네."

라고 아낙네가 얘기했는데 이 장모 장인이 〔나뭇군, 즉 사위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내 말을 알아 봐야만 우리 딸하고 살지 그적이는[6] 못 산다. 안 준다."

그러드래. 어떡해?

'무슨 말을 하기 때문에 아들 딸을 못 거니구 산대나?'

하고 집에서 시마를 두고 끙끙 하더래.

아낙네가 가르쳐 준단 말이야.

"당신은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잿간에 똥존갈이[7] 되어 섰을 테니까 들어가서 '아이구, 장인 어른 어떻게 뭐이 될 게 없어서 똥존가래가 되어 섰어요?' 이렇게 말을 하라."

구. 처가집엘 가 보니까는, 잿간에 들어서니 똥존가리가 섰거든.

"아유, 장인 어른, 뭐이 될 게 없어서 똥존가래가 되어 섰지요?"

"어허."

웃드래.

"참 알아내네."

이러드래. 한 가지는 맞췄지. 아, 또 장모가 불르거든. 또 불러서 가는데

6) 그전에는. 7) 똥종가래가. 종가래는 작은 가래.

〔선녀, 즉 아내가〕 남편보고,

"당신은 천정에 가면 우리 어머이가 닭이 되어서 어청어청 마당에 댕겨.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을 하라고. '아이, 장모님, 뭐이 될 게 없어서 닭이 되어 저 마당에 어청어청 댕겨' 이렇게 하라."

고. 아, 글씨 가니까는 닭이 어청어청 기어가드래.

"아휴, 장모님은 뭐 될게 없어서 그 닭이 되어 어청어청 걸어 댕기슈?"

그러니까,

"아하."

또 웃드래. 아, 그리고 사람이 여전하드래. 두 가지는 맞췄지. 아 또 처남이 불르거든. 처남이 부르니 참 이기 큰일 났드래. 처남 말만 들으면 사는데.

"우리 오빠가 오늘은 또 불러 어떡하느냐? 우리 오빠가 이 땅으로 대고 선 활을 쏴요."

활을 쏘니까는 땅에 가서 내려가서 화살을 찾아오는 거래. 큰일 났단 말이야. 처가집을 가니까는 처남이 하는 말이,

"내가 활을 쏠 테니까 화살을 찾아오라구. 화살을 찾아와야 우리 동생하고 살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산다."

구. 아이구, 어떻게 하면 땅에 가서 화살을 찾아오냔 말이야. 하늘에서 내려 쐈는데 어떡하나?

"당신은 땅으로 또 내려가."

아낙네가 그러드래. 차조밥을 해서 뭉쳐서 주고서,

"이걸 가지고, 지고 가면은 난데 없는 화살이 어디가 백혔느냐면 송장한테 가서 백혔다구. 누구 장사지내는 집이 사람 죽어서 신체 묻구 송장 뱃속에 가 백혔다."

그러드래. 그러니깐 송장을 헤치고서 그걸 끄내 가지고 오래. 보따리를 싸서 지고, 주름에다가 해 가지고, 차조밥을 먹어 가면서 요만침 내려가다 보니까는 난데없는 행상이 오드래. 오는데 아주 갖다 내려놓고는 술들을 먹으러 들어가드래나. 그래 그 행상을 뚫고 들어가서 칼로다 푹푹 뜯어 화

살을 끄냈단 말이야. 화살을 끄내 가지고선 오는데, 오다가 뒤가 매렵드래. 그걸 놓지 말고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땅에다가 놓고서는 아, 뒤를 볼려고 하는데 난데없는 꿩이 와서 물고 가드래잖아.

"아이구, 어떡하느냐?"

고. 쫓아가면서 소리를 지를려니까 아주 뽀얀 보라매가 휙 하더니만 그만 꿩을 죽여 놓고는 날아가더래. 꿩 죽여 놓고 날아가는 바람에 그걸 가서 집었드래. 이 꿩이래는 게, 그 사람이 꿩으로 보였는데 이 꿩이 처람이래. 처남이 둔갑이 돼서 그걸 가지구 갔대. 가지고 날아가는 것을, 이 매는, 자기 아낙네가 매가 되어 가지고 자기 오빠를 채 가지고서는 〔화살을〕 뺏어 가지고 왔드래. 오빠가 지고 그야말로 동생이 이기니깐, 화살을 찾아주니깐 처남이,

"매부 참 재주도 좋으네. 우리 기술보다 더 좋으네."

이래더래. 그래 그 사람하고 선니하고 살더래요.

* 이순옥, 여·62.
* 동면 속초2리 속새울, 1987.2.12., 전신재 허남춘 김성수 강동규 유은영 조남혁 조사.
* T. 3—23—2

말광량이를 첫날밤에 길들인 바보신랑

옛날에 색시를 키웠는데 하두 영악해서 색시로 얻어 가지 못했대요, 동네 사람이. 그랬는데 그 동네에 천치 남자가 하나있었는데 내가 그 색시한테 장가간다구 하더래요.

"야, 우리같이 똑똑해두 장가를 못가는데 니가 그 여자를 어떻게 될라구 장가를 가니?"

하니까 될 수 있다구 하드래요. 잔칫날을 받아놓구서 엿을 고라 그랬대요.

지 어머니더러 엿을 고라구 하고,

"되직히 엿을 고아 주슈!"

그래드래. 장가를 가는데 엿을 달라 그러드래. 홉착[1]에다 넣구 가매 타구 장가 간다구. 밤에 처가집에 가서 첫날밤에 자는데 이불 속에 엿을 놓았어. 색시 자는 데다가 놓았더니만 자다가 만져보니까 잔칫집 구들이니 여간 뜨거운가? 그게 녹아서 눅눅할 거 아니? 색시더러 만져 보라고 그러니까 똥이라 그러더래. 신랑이[2] 첫날밤 똥싼 거는 신랑이 처먹었대. 먹어야 한다고 지가 다 엎드려서 처먹고서, 시집에 와서 시십살이를 하는데,

"처넌! 첫날밤에 똥싼년!"

그러면 색시가 기가 죽구 이래서 데리구 살드래. 기를 죽여 여자를 데리고 살다가 환갑, 진갑 다 지내구 며느리 아들 손자 다 봤는데 얘기를 했대.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엥!"

하드니 남자의 코를 싹 쥐어 놓드래. 영악한 여자는 늙어두 영악하다 이거에요.

* 조월현, 여·58.
* 동면 개운리, 1988.6.23., 이동수 한호순 박삼희 박승림 조사.
* T. 3—16—1

송장으로 아내를 다스린 남편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잘 못생긴 사람이 장개는 아주 썩 잘 들었던 모양이야. 그런데 그 여자라는 건 보통으로 잘되면 그 잘된 탓을 한다, 그런 얘기야. 그래 인제 그 남의 간반급 남자를 하나 통간해서 보는데 그 남자

1) 주머니. 2) '신부가' 의 잘못.

가, 본남편이 그걸 알았다 그 말이야. 그거를 때려 쥑도 안될 일이고 뒀다가도 안될 일이고 그것을 도저히 버릇을 가리칠 도리가 없어.

그래 하루는 마누라보고,

"나 어디 볼일이 있어서 한 댓새 돼야 오겠으니 그간에 집을 좀 잘 보오."

떠났단 말이야. 먼행한[1] 줄을 간부가 알았다 그 말이야. 그래 그날 저녁에 여자집에를 왔다 그 말이야. 와서 인제 토시 한 짝 안 냉기고 홀랑 벗고 이불 속에 드러누어 자는 판인데, 이제 여자는 그래도 그 남자 없는 짐[2]에 잘 해 먹일라구 나가서 닭을 잡는 질[3]이야. 이제 그래 닭을 잡어 틀었는데, 이 사람은 어디 먼행을, 닷새 돼야 온다고 떠난 사람이〔 〕[4]

"끓여 놨으니 아 들어가 깨우게. 어여 들어가 깨워. 먹을라구 끓여 놨으면 먹어야지."

아 그래 여름 하절에 뜨거운데 마루에 턱 걸쳐 앉아서,

"어여 나오게. 일루 나와."

아 마누래가 들어가 흔들어 보니 이게 언제 죽은 거라고 닭국 먹을라고 일어날 택이 있나? 아 그래 마누라가 깜짝 놀래,

"아이구 여보 이거 큰일 났소. 아 죽었어. 아 와서 닭 잡어 달래던 사람이 어째 죽었어."

아 그제사 들어가서 송장을 맨져 보니 죽었네. 아 죽일년은, 여편네 평생을 같이 살아도 영 믿지 못할 게 여편네거든.

"니가 나하고 살기 싫으면 그냥 간다고 그러지. 사람 죽여서 살인죄를 씌워 놓고 나 징역 간 담에 니가 갈려고 이 따우 짓 한 것 아니냔 말야."

뒤집어씌웠지. 아 그제선 사람 살려 달라고, 그럴 리가 있느냐고, 사람 살려 달라고 사정사정한다 그 말이야.

"이년, 네 소리[5]를 생각하면 죽여도 시원치를 않은데 그래도 몇 해를 같이 살았던 정리를 생각해서 그렇겐 못하겠고 용서를 해 주는 거니 송장은 니가 죽였으니 니가 치워라. 나는 인제 모른다."

---

1) 멀리간. 2) 김. 기회. 3) 길. 4) 녹음 테이프 교체로 중간이 끊김.
5) 所賴. 所德. 여기에서는 '所行'의 뜻으로 쓰인 듯.

"에이구, 이걸 어떻게 치우지요!"

광주리에다 이켜 주면서,

"이거 아무데 연못에다 갖다 놓아라. 갖다 놓구 오는데 그 연못 유개[6]에서 사람의 소리가 나면 놓지 말고 도루 가지고 오구, 사람의 소리가 안 나거든 놓고 오너라."

그래고서는 이놈이 뒷구멍으로 해서는 연못에 가 앉았단 말이야. 아 여자가 이걸 이구서 그 연못 젙[7]에 오는 걸 연못 유개서 지키고,

"흐음, 흐음"

어쩌고 했느니라. 아 그래 사람의 소리가 나면 놓지 말랬으니 할 수 없이 도루 이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야. 갖다가 턱 내려놓고, 받아서 내려놓고서,

"내 밤새 저걸 해도 너더러 치우라 했으면 좋겠다만 그걸 보기에 너무 딱해 이 송장은 내가 치울 테니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으렷다."

"아이고 낭군님께서 용서해 주는데 다시 그런 일이 있겠소?"

게 이놈이 송장을 밀빵을 해 가 걸어 짊어지고 워딜 갔느냐 하면 큰 부자 집엘 갔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놈이 돈을 채[8] 달래도 안 채 주고 아주 고약해. 아주 구두배기[9]야. 그래서 부자집 사랑 툇마루 지붕에다가 송장을 해서 떡 버티어 세워 놓고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갔네.

"이놈아, 너 있으면 니가 있지 이놈 너 나 밥 한 숟갈 거저 주었어? 이 우라질 놈아. 사람이 이렇게 한데 와서 섰어도 본 체도 안하고 이런 쳐죽일 놈."

아 욕을 무변거욱[10]으로 들이대네그려. 아 주인 영감이 드러누워 자다가 생각해 보니 뭐 잘못한 일도 없이 고이하니[11] 와서, 어떤 놈이 와서 욕을 하니깐 아 비교 드러누웠던 토막을 집어들고 문을 벌컥 열며 냅다 쳤는데, 토막을 맞아서 나가 자빠진단 말이야. 아 나가 자빠지더니 종무소식이야. 원 도무지 아 이 어쩐 일인가 하고 나가서 맨적맨적 해 보니 벌써 뻣뻣하

6) 유강지. 언저리. 7) 곁. 8) 취(取)하여. 꾸어. 9) 구두쇠. 10) 無邊巨辱(?). 11) 괴이하게. 고약하게.

고 죽은지 오래지. 그것 참.

"아 애들아 어여 나오너라. 애."

아들래이 뭐 합쳐 깨우니 아유 한 패 나왔네.

"아 이거 큰일 났다. 애 뭔지 모르지만 어떤 놈이 와서 디리[12] 무변거욱을 하길래 비고 드러누웠던 토막을 던지니 거기 맞아 대번 죽었으니 이거 어떻게 해 봐라."

아 식구들이 끌어다가 방에다 이불 뭐 해 덮어 놓고는 원 집안식구가 두부자루 주무르듯이 주무르니 그게 언제 죽은 거라고, 뇌?

그놈이 그제사 마루 구녕에서 기어나와 가지고 저기 나갔다가선 거기서 지침[13]을 하면서,

"에헴"

어쩌고 하면 들어오는데, 아 문틱에 들어서면서,

"아 주무십니까?"

"아 누군가?"

"아 어르신네를 좀 뵐려고 왔습니다."

"아 어째? 들어오게."

아, 아주먼네는 쫓겨서 인제 들어가고 영감만 앉았는데 떡 들어갔지. 아 이불 젙에 앉아서 뭘 맨적맨적하고 앉았다고.

"아 그 뭘 맨집니까?"

"하 이거를 참 딱한 일이 있는가? 어제 저녁 먹고는 고단해서 나와 드러누워 자는데 아 웬 놈이 와서 그저 무변거욕을 들이대 하도 분이 나, 아 비고 누웠던 토막을 문을 열고서 내던졌더니 거기 맞아서 죽어 버렸는데 어때[14] 속일 길이 없네."

"그러니 이게 딱한 일이 아닌가? 그저 부자는 점점 부자만 되지. 그저 논 몇 마지기 있는 것 뺏을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소그려."

"아 그러니 꼼짝을 해 볼 도리가 없네그래. 살았어야 말이지, 죽어 놨으

12) 들입다. 13) 기침. 14) 어떻게.

니 요지부동이지."

"그러니 그 없는 놈 살겠소? 있는 사람이 그저 뭐이고 죄 뺏으려 죽이고 뺏으려드니 이거 살 수가 있소? 나도 여기 있다간 까딱하면 죽겠네. 아 이거 이거 큰일이야. 아 이거 고발해야 해. 아 고발만 하면 인제 당신 집안은 망하는 집안이니까."

아 이 일 자꾸, 그까짓 죽은 놈은 어떻게 되었던지, 산 놈을 아 그제선 붙잡고 늘어지네.

"이 어떻게? 어떡하겠나? 자네 날 갖다 고발해서 우리 집안 아주 망한다면 자네에게 무신 일이 돌아갈 께 있겠나?"

아 구슬라고[15] 안으로 들어가더니 땅문고[16] 끌어안고 와서,

"이거 다 노나[17]줄 테니 자네만 눈감으면 될 게 아니겠나?"

그래 그 땅문고를 아마 논 몇 섬지기 베어 주면서 눈감아 달라고 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는 이게 일이 아닌데. 이게 못할 일인데."

어쩌고 하묘 아 이놈의 땅문고를 구겨 처넣고는.

"송장은 인제 내가 처리할께. 이 그 또 거시기 내가 생각을 했다가 내가 처리를 할 테니 염려 마라."

그래 송장을 밀빵을 걸고 떡 해 놓고는,

"가서 저 바가지 안 짝하고 쌀이나 한 말하고 담배나 한 줄 가져오시오."

옛날에는 그 담배 불초[18]거든요. 그래 인제 담배 한 줄 하고 쌀 한 말하고 바가지 한 짝하고 해다 주니깐 그걸 모두 해 끈을 꿰어서는 송장에다 밀빵을 걸어 짊어지고,

"이런 말 나면 안되우."

"아 그 염려 말어."

짊어지고 어딜 갔냐 하면 이제 그제서는 송장 암자네 집으로 갔단 말이야. [청중 : 본집엘 갔구먼. 본집에 갔어.] 본집에 가서 대문턱 복구갱이[19]에다 송장을 해서 떡 내 밀빵을 해서 걸어 쌀 한 말하구 담배 한 줄하구 바가지

15) 구슬리고. 꾀어 달래고. 16) 땅문서. 17) 나누어. 18) '엽초(葉草)'일 듯. 잎담배. 19) 보쭉.

한 짝하구 해서 밀빵을 걸어 지키구선[20] 목을 매달아서, 거기다 대문턱에다 목을 매달아 놨단 말이지. 그래구 인제 마누라[21]를 찾네.

"문 좀 열어 주게. 문 좀 열어 주게."

그 마누래가 영감 오입 댕기는[22] 줄은 알았거든.

"아이구 제 애비는 뭐 얼어죽겠으면 얼어죽고 디죽겠으면[23]디죽고. 아니 왜 거기서 자고 오지 뭐. 뭐 지랄을 맞았다고 밤에 오기를 와, 어쩌고."

"아이구 제에기 남자라고 어디 갔다와서 문 좀 열어 달래도 안 열어 주는걸 목이나 매달아 죽는다."

고 애개개 소리를 치고 있단 말이야. 늙은 저 어머이가,

"아이고 애거 목 매달아 죽는단다. 나가 좀 봐라."

"아 죽으면 죽지. 명 짧아 죽겠지."

아 그러니까 늙은 저 어버이가 기어이 나와서는 대문을 열고 보니까, 아 벌써 매달아 죽었단 말이야.

"아이구 애, 짜장[24] 목 매달아 죽었다."

아구상을 치니[25] 그제사 마누래가 떡 나와 보니까 짜장 목을 매달아 죽었거든. 이거 덕구 살릴려고 쌀에 바가지에 담배꺼정[26] 지고 문을 안 열어줘 죽었단 그 말이야. 아하. 그래 아구상을 치며 우니 소용 있어?

그래 그 당에 쌀 한 말 밥하고, 담배 한 줄 궁정주고 해서 장사지내, 마누래 버릇 잘 가르치고 부자 되구.

* 남태희, 남·71.
* 남면 시동3리, 1987.7.8., 김성수 김방경 김요섭 정은정 곽노실 정명수 용정실 성길제 조사.
* T. 4—8—1, 4—8—2

20) 쌀·담배·바가지를 송장에게 지우고서는. 21) 송장의 아내임. 22) 다니는.
23) 데어서 죽겠으면. 24) 정말. 25) 악을 쓰니. 26) 까지.

양반집을 일으킨 백정의 딸

사주를 볼 줄 알고 손금도 볼 줄 아는데 늦게 아들을 하나 낳았거던. 자가만히 사주를 봐도 그렇고 관상을 봐도 그렇고 천상 거지 팔자야, 이놈이.

그래 그럭저럭 하다 장가를 들게 되었거든. 장가를 들게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디 가 메느리 하나, 복이 내린 메느리 하나 얻으면 되겠단 말이야. 이 사람이 개나리보따리[1] 하나 싸 지고 나서서 복이 내린 메느리 하나 얻을려고 그럭저럭 한 군데 가다 보니까 색시가 몸뚱이가 질머리 같은게 물 흐르듯 복이 그 그냥 줄줄 땅에 흐르거던. 그런데 그게 백정의 딸이야. 에이, 백정의 딸이던 말던 원체 복이 많으니까 메느리 삼아야 된다 말이야.

"나 아무데 사는 아무갠데 지넉에 이 집에서 좀 잡시다."

그러니 자라고 해.

"자네 말이야. 딸이 잘 되는 게 있지? 나는 그렇지 않다. 거 나하고 사돈 하는게 어떤가?"

이러니까 거 양반이 사돈하자는데 좀 좋은가? 그 자리에 앉아서 참 말이지 그냥 택일까지 다 한거야.

"난 아무데 사는데 이쪽으로 안 채려와. 안 채려오니까 그냥 여기서 채레 가지고 우리집에 오너라."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잔칫날이 떡 당했거든. 당했는데 이제 집에서 잔치 몇 사람 하고 있지. 신랑도 채레 가지 않고. 어떻게 양반이 백정네 집엘 채려 갈수가 없잖아? 아 그랬는데. 아 이놈의 집이 살림이 이는데 불일듯 하거든. 그냥 불일듯해. 근데 그 부자가 되어 아들, 딸 몇 남매 낳았어.

1) 괴나리봇짐.

그러니 애들도 외가집이 어딘지 모르고 이 사람도 처가집이 어딘지도 모른단 말이야. 자꾸 캐물어. 가만히 여자가 생각하니까 살림도 넉넉하고 아들, 딸 몇 남매 있으니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거던. 그래 와모데다. 아 그럼 가 봐야지. 따라 갔단 말이야.

그래 가보니까 백정놈의 집이야. 아 가서 그 길로 돌아섰거던. 와서, 지금 말하면 이혼이지. 가거라 하면 그만이거던. 이 여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깐두루 그 꼴을 해 가지고 뭐 친가에도 갈 수 없고, 애이 그냥 내 발길 닿는 대로 간다. 그럭저럭 돌아댕기다 한 군데 가다 보니깐, 어느 골짜기 들어가다 보니 올라가며 봐도 방 한 칸 부엌 한 칸, 또 올라가면 숯산판 골짜기로 들어갔단 말이야. 올라갔거던. 멘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깐 참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 기시거든. 더 갈래야 더 갈 수 없고 날은 저물고 해서,

"자겠읍니다."

하니 에이 방도 없고 하는데 어떡하나? 하면서 지냑[2]을 해 먹고 있는데 지냑에 떡거머리 청년이 한 삼십 살 먹은 게 들어와서,

"날은 저물고 〔했으니〕 쉬어갈려면 쉬어가시라."

고. 날은 저물었는데 어디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아 자는데 부엌에서 지냑을 먹거든. 부엌에서 지냑을 먹는데 거기서 잘 참을 하거던. 부엌에서, 그 주인이.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여보시오. 하루 종일 일하다 한데서 자면 되겠소. 내가 한데서 자야지."

"아이 괜찮다."구.

"아 그럼 그러지 말구 주인 양반은 아랫목에서 쉬고 할머니는 여기서 복판에서 쉬고 나는 내일 아침에 가면 되지 않소?"

그래 아침에 떡 자구 말이야. 남자를 보니까 관상이 괜찮거든. 아무데 가도 남을 속이지 않겠어.

"여보 난 갈래야 갈길이 없는 사람이오. 당신 나하고 살 마음 없소?"

2) 저녁.

이러니까 말이야. 한 삼십살 먹은 게 좀 좋은가 말이야. 그래 하도 좋아 그날 일을 하러 안 갔어. 그래 날마다 숯 산 판에 숯을 구우러 댕기는데 꼭 점심을 싸 달래는 기야.

"여보 거 내가 어디 일하는 장소나 알면 말이야 내가 점심을 해 나를 텐데 왜 그러느냐?"

구 하니까,

"어휴 거기가 어딘데 점심을 가져 오느냐?"

이러거든. 하긴 점심을 부러 안 했어[3]. 안 했으니 가르쳐 주란 말이야. 아 그 뭐 가르쳐 주거던. 그래 점심을 일찌감치 해 가지구 가 보니깐두루 아 숯가마를, 낭구 잔뜩 들이 세우고 땀을 퍽퍽 흘리며 일하는데, 점심을 해 왔으니 물을 떠 놓고 점심 잡숫고 그리고 말이야, 아 여자가 보니까 숯가마 이마돌이 시커먼 게 이게 보물이거던.

"여보 점심 잡숫고 저걸 빼 가지고 집으로 갑시다."

이말이야.

"안 돼. 그것 빼면 와르르 허물어지면 밥 금방 못 먹어. 안 돼."

"아무소리 말고 〔빼 가지고〕 갑시다."

이말이야. 그러니 마누라시키는 대로 할 수밖이. 이걸 빼 짊어지고 왔네. 마당에다 떡 놓고,

"오늘 저녁 자고 내일은 아무데 장이니까 그 단골목에 갖다 놓고 있으면 도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 마누라 시키는 대로 짊어지고 가서 종일, 지게를 깔고 종일 앉았으니 어 이놈의 오가는 사람이 본 척도 안하고 댕겨. 지냑 석양판이 턱 됐는데 어떤 손님이 한 사십된 게 말이야 큰 보따리에다가 한잎 잔뜩 짊어지고 꾸부정하고,

"이거 정말 보물이 났구먼. 얼매 받을라우?"

이말이야. 마누라가, '그거 얼매 받을라오?'하거던, '그저 생각해 주십시

3) 점심을 싸지 않았다는 뜻.

오.'하라고 시켜 보냈단 말이야.

"그거 얼매 받을라오?"

하니까,

"그저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지. 이게 돈이란 말이야. 가지고 짊어지고 가래. 그래서 보니 돈이거던. 보따리안에 돈이야. 한잎 잔뜩 짊어지고 왔네. 짊어지고 왔는데 그안에 뭐라고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몰라 마누라에게 줬드니

"됐소."

이말이야.

아 그 이튿날부터 이놈의 돈벌이가 들어오는데 땅을 사 가지고 말이야, 크게 집을 지어놓고 말이야, 종을 두고 뭐 온통 잘 사는데, 그럭저럭 살다 거기서 아들 딸 몇 남매 낳았거든.

낳았는데 하루는 주인은 어디로 인제 볼일 보러 갔는데, 거지가 와 동냥을 달라거든. 휙 지나가다 보니깐 자기 본남편이란 말이야. 와 동냥을 달래. 그래 종더러,

"저 손님 모셔라."

모시래니까 나가서 그러니까,

"아 여보 동냥이나 한 숟갈 주면 가져가지 어디 거길 들어가느냐?"

이말이야.

"아니다 꼭 모셔라."

아 그래 데리고 올라가서 주안상을 채리니까 모르더래.

"거 아무개 아버지가 아니요?"

그렇다 그래,

"애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 다 빌어 먹으러 나섰단 말이야. 다 빌어 먹으러 나섰는데, 그래선 참 얼굴은 괜찮지. 뭐 거지일망정 말짱 목간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갓, 망건 떡 씌우니까 훌륭하지. 뭐 원채 주인이 왔단 말이야. 손님이 들었냐고 그러니깐 그게 아니고 그전 친가에서 이웃에 친형제 친오빠처럼 지냈던 사람

이라고. 아 그러나구. 큰 상을 갖다 놓더니 아 뭐 반찬을 해 왔는데 상다리가 툭 부러지게 해다 놨거든. 이 여자가 술잔을 들고말야 자기도 한 잔 하고 얼그레 했단 말이야.

"여보 이 양반이 내 본남편입니다. 당신은 이 재산만 해도 넉넉히 가만히 서 먹고 살 것이니 나는 내일 자면 이 양반 쫓아갈 것이요."

이랬단 말이야. 아침에 자고 말이야, 조반 해 먹고는 옷 갈아입고 쫓아나선단 말이여. 쫓아나서 어 그전에 살던 집에 와 보니 집이 다 썩어 물러앉고 주춧돌밖에 안 남았거든. 주춧돌이 또 아마 보물이더래. 또 그거 파서 잘 살더래더군. 그래 사람은 복이 있어야 돼,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

* 김동춘, 남·78. 창촌리 출생. 농업.
* 내면 창촌2리, 1988.6.24., 전신제 김진희 유선영 최정희 전창동 조사.
* T. 4—6—1

아내보다도 어리석은 남편

사위를 얻으면 예전에는 〔신부집에서 혼례식을 올리고〕 삼일만에 〔신랑의〕 집에 가는데 자구서 침방정리 나와 가지구 아침에 노래를 잘 해야만 사위를 잘 골랐다구 칭찬을 한대요, 그 〔신부의〕 부락에서. 저녁에 침방에 누워 가지구 부인이 남편을 보고 묻는 말이,

"약주하실 줄 아시오?"

"모릅니다."

"여기는 원래 풍속이 노래를 잘 불러야만 사위를 잘 봤다구 그러는데 아침에 노래할 준비를 해야 된다."구.

"아, 모른다."구.

"내가 일러 드릴 테니 배울라우?"

"아 가르켜 달라."구.

부인이,

"솔잎은 하나 청청한데,"

소리를 발칵 지르네요. 그러니 부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에서 여느 사람이 듣겠단 말이요, 좀 몰래 가르칠라고 하는데. 그래,

"안에서 듣소."

하니까,

"안에서 듣소!"

하네요. 그리 보니까 천치라요, 남편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으니까,

"니미 씨비요."

"니미 씨비요!"

아, 이러니 더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자고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야 새 신랑이 노래한다니깐 사람이 쫙 모여 섰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한단 말이,

"솔잎은 하나 청청한데,"

한 마디 소리를 지르고,

"안에서 듣소?"

하니까 아 장모님이,

"아 근데?"

하고 뛰어나왔단 말이에요.

"니미 씨비요."

아, 그러니까 신랑한테 노래를 가르친다는 게 천치를 가르키다 보니까 그만 안에서 듣는다는 얘기, 그 욕하는 얘기까지도 노래로 알고 배웠다는 얘기죠. 그래 노래를 가르친다는 게 욕을 가리켜 가지고 그 욕을 자기 장모한테 먹였다는 천치사위 얘기를 들었어요.

* 강신표, 남·55.
* 화촌면 야시대2리, 1987.2.11., 전신재 강동규 조남혁 조사.
* T. 1-11-1

꼬마 신랑의 꾀

신랑이 하두 쪼끄매서 말을 안 듣구 그래니까 마누라가 화딱지가 나니까 고만 지붕에다가 홱 디려치니까 지붕으로 후떡 올라갔지. 아, 그러니까 즈 어머니가 왔지. 아유, 큰일 났드래. 어머니가,

"너 거기 왜 올라갔지?"

아유, 저거 에펜네가 또 저 지붕에다 올려 띠렸다구 일러바치면 또 욕을 먹지. 이래구 있으니까, 호박덩굴이, 호박도 없는데,

"호박 따러 왔어요. 이거 딸까? 저거 딸까?"

"아무거나 따 가지구 내려와유."

그래서 미를 막드래요.

* 이순옥, 여·62.
* 동면 속초2리 속새울, 1987.2.12., 전신재 허남춘 김성수 강동규 유은영 조남혁 조사.
* T. 3—25—1

적자는 버리고 서자를 선택한 기생

지금도, 사람, 인물이라면 평양 기생이라잖어? 피양 기생. 그 피양 사람이 여자가 인물이 잘 난대. 그 피양 기생 추월선이래는 사람이 여자야. 추월선이래는 사람이 기생이라구. 기생인데, 돈은 유구만자야, 돈은. 돈은 참 세상에 갑분데,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읎어. 혼자 살어. 남편을 얻을래

두 자기하구 맞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냐? 건달이구두 글 좋구 술 잘 먹구 이런 사람을, 유식한 사람을 얻을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거야? 그런 사람만 오믄 내가 그저 아무리 없어두 상대를 먹여 살리구 내 남편으로 삼겠다구 광골 씨 붙였어. 서울 종로 네 거리 같은 데 광골 떡 씨 붙였는데 서울 활량[1]들이, 그 활량들이 뭐 일 있나? 가다 보니까 그런 광고가 있단 말이야. 그래 아 이거 한번 가 본다고 말이야. 첨엔 누가 맘을 먹었냐 하믄, 유동선이가 이제 유동선이, 김항병이, 강진백이, 여명적이, 이규평이, 다섯 한량이 아, 간다는 게 한 날 갔네, 한 날. 한 날 가니까 아 참 추월선이가, 뭐 거 방치레 참 뭐 좀 잘 해 놨나? 참 쳐다보니 소로반자[2], 내려다보니 각자 장판[3]말야. 뭐 샛별같은 놋요강을 그냥 발치발치 밀어 놓고, 서산[ ][4] 구석구석이 세워 놓구서 말이지.

"야 여기 주안상 한 상 가져 오너라."

불르니까 아 종들이말야, 주안상을 채려왔는데 참 술을 거둬 올리고 추월선이 얘기가 이거야.

"여러 서방님네가 오신 건 날 바라고 오셨는데 이건 한 분이나 모시재다 모실 수가 없다. 그러니깐 서방님네가 서루 초면이니까 인사를 해 보세요."

이거야. 인사를 해 보시면 거기서 내가 모실 분이 있다. 이런 얘기야.

"아주 유식허게 옛날 왕후장상을 써서 인살 해 보시오."

아 그래 이놈들이 글자나 배우고 거시킨 놈들이니까 술 한잔 얼근이 먹구 인제 뚝 하니 나 앉아서 인사를 했는데 처음에 누가 했느냐 하면 유동선이가 말이여, 유동선이가 뚝 하니 나 앉아 인사를 해.

"내 성자는 망당산 태번에 숨어 있든 한태조 구황제와 동성이요."

그러는 거야. 구황제가 유가래거던.

"동자는 수산동 그 동자 나부리고 한무제 시절에 노인같이 열 두번 참례하고 추월급강하여 삼천갑자 산 동방석[5]이란 동차요."

---

1) 한량(閑良). 2) 소란(小欄)반자. 3) 각장(角壯)장판. 4) 청취 불능.
5) 동방삭(東方朔).

동방석이라고 무신 동자를 썼는지는 모르지. 그동잘 쓴다 그게여.

"선자는 선태산 마구선녀 수양딸 숫처녀 서방 이선이란 선자라. 그래 유동선이요."

아하 고담엔, 이규평이가 뜩 하고 나서면서 이규평이 인사하는디,

"내 성자는 무도한 고려왕을 몰아내고 한양에 뚜렷이 등장한 아태조와 동승이요."

아태조가 이씨 아니야?

"규자는 풍등문전에 정부규라는 규자 나부랭이고 당태종 위급시에 만귀명창 설인귀라는 귀자요. 평자는 〔 〕[6] 한선상 고격화 진평이라는 평자라 이규평입니다."

떡 둘이 했는데 고담엔 강진백이가 뜩 허니,

"내 성자는 〔 〕 염주 신농씨와 동승이요."

신농씨가 강씨래거던. 우린 모르지만 신농씨가 강씨래.

"진짜는 패육국 성인하구 〔 〕 송도낙인하던 소진이라는 진짜요. 백자는 당시에 한림학사허고 청평사 지을적에 양귀비는 번영허고, 고유산은 타락허고 천자는 같은성 성월선산 이태백이라는 백자요."

강진백이래는 얘기야. 떡 쉬는 듯 했는데 야중에, 이 시[7] 놈 했지. 그 하난 빼 놓고 하세. 이거 여명적이가 다섯번째 하는데. 하도 오래되서 잊어버렸어. 여명적이라는 사람이 인제 나와서 인살 하는데,

"내 성자는 만리장성에 옥사를 두고 〔 〕 암만궁에 높이 앉아 천하를 호령하던 만승천자 진시황의 애비 양녁대군 운수는 여불이란 여자요. 명자는 천하를 〔 〕을 양귀비가 청춘을 향락하던 단명하였을 명자요."

그거야.

"적자는 강동차제 팔천명 거나리고 구관이 사하여 장유유세 초패왕하던 항적이라는 적자라."

이런 얘기야. 그래 여명적이라 이런 얘기야. 아 이 뜩허니 인사를 하고 있

6) 청취불능. 이하 같음. 7) 새.

으니까 또 술 한상 차려 내와선 먹고서 추월선이 하는 말이,

"여러 서방님네가 인사를 잘 하긴 다 잘 하셨는데 내 모실 서방님은 제 마지막 헌 여명적이 저 서방님을 모신다."

는 거야.

"저 양반허고 이제 살겠다."

"아 우째 그러냐?"

인살 다 잘했는데, 그 양반은 무신 뜻이냐 그러니까 그 양반은 왕의 서자더라 그런 얘기야, 왕이. 성자에도 진시황의 애비 양녁대군 운수니, 진시황 드러갔지. 적자에 강호사에 팔천년 [ ] 장유유세허던 초패왕, 초패왕 들어갔지. 왕의 서자가 됐단말야. 그래서 아주 그 다섯중에서 여명적이가 제일 아주 못살고 아무것두 없고 불알만 덜그럭덜그럭 하는 놈이 아 그 추월선일 얻어 가지구서 생전에 결혼두 안 허구 잘 살다 죽었대.

* 전석일, 남·63.
* 북방면 성동2리, 1987.7.9., 정금란 김진희 강하구 최용헌 조사.
* T. 6—1—2, 6—5—1

도깨비보다도 무서운 벼슬

원주 대말이라는 동네에 도깨비가 많이 있었다는데, 그런데 거기 대말이라는 곳에 나무가 아주, 수목이 엄청 커. 수풀이 버덩으로 하나 울울대청[1], 그런데 이제 거기 놀기가 좋다고 낮에 원주 사람들이 가 술도 먹고 놀아, 여름이면.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다 쫓겨 가. 도깨비들이 나와 법석을 쳐서 뭐 겁이 나 있을 수가 없거든.

인제 대말 이서방이라는 이하고 또 단구네 홍서방이라는 이가 있어. 둘

1) 울울창창(?).

이 아주 친구여. 한 서당에 글 배우러 다니고, 둘이 가서 술을 먹었어. 두 친구가 서로 아주 죽마고우로 아래 웃 동네지. 단구는 그 위고 대말은 아랫 동네야. 그래 서로 만나서 서당에 댕기다 하루 쉬는 날 술을 실컷 먹었어.

얼마나 먹었던지 둘이 그만 술에 떨어져서 수풍[2]에서 자. 자는데 도깨비떼가 와서,

"아, 이놈들이 오늘은 술들을 종일 처먹고 하나 남기지도 않았다."

고 하면서 중중거리고 돌아댕겨. 대말 이서방이 잠결에 듣고,

'탈났다. 도깨비한테 오늘 저녁 우리가 죽겠다.'

고 하고 있는데 도깨비들이 몇 놈이,

"뭔 놈이 여기 와서 자빠졌다."

하면서 왔어. 뻔히 들여다 보더니,

"아이 애 큰일 났다. 꿈적도 말고 가자."

"아 왜 그러냐?"

고 그러니까,

"아 이거 대말 이진산데 총각점을 해 보니 진사고, 아 이건 홍판선데 이건 큰일 났다. 애 잘못하다간 안 되겠다."

하고 쫓겨 달아나. 그래 이서방이, 인제 이도령이 일어나서는 흔들어 깨웠어, 그 홍도령을.

"아 남 자는 걸 왜 깨우느냐?"

고. 그 사람은 못 들었지.

"여보게 희안하이.[3]"

"뭔데?"

"아 도깨비떼들이 와서 나는 이진사라고 그러고 자네는 홍판서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자네는 판서 되고 나는 진사 될까 보세. 글쎄 도깨비가 그러고 가. 아 그러고는 가만히 가지 않고 그저 꽁무니가 빠지게 아주 내뺐

2) 수풀. 3) 희한하이.

네."

아 그 다음에 과거가 있는데 가서 아주 홍도령은 홍판서가 되고 이도령은 이진사가 되고, 둘이 되어 가지고 손목 잡고 내려왔대. 그래 아주 아래 이서방네하고 홍서방네하고는 대대로 친구로 지내고 여태도 많아, 그 집들이.

* 최주호, 남·74.
* 서석면 풍암2리, 1986.7.22., 오애리 김명숙 조사.
* T. 1—5—1

하인보다도 어리석은 상전

옛날에 어디, 근데 그 녹음할 건 없어요. 녹음할 건 없고, 그저 농담삼아 하는 거니까, 우스개 소리니깐요, 우스개 소리. 충청도 어딘가, 왜 지금도 충청북도, 남도 있잖습니까? 어디 김득신[1]이란 사람이 있었대거던. 선생님, 아마 그 역사에서 보셨을 거예요. 김득신이라고 성이 김씨고 이름이 득신이야. 얻을 득자 믿을 신자[2], 김득신이란 분이 있는데 나처럼 미화[3]더래. 근데 돈푼이나 있고, 돈푼이나 있고, 근데 정신이 없어. 나처럼. 정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단 말야. 근데 이제 옛날에는 선비란 공부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도 인제 공부들 다 하시는 분들 아니요? 뭘 한 글자를 하나 들여다 봐도 몇 수백 번 봐야 알거덩. 정신이 없으니깐요. 〔청취자 : 음 그 사람이 득순이.〕 득신이. 그 양반 호가, 난 모르지만, 그 양반 호가 백곡선생이래요. 백곡. 잣나무 백자, 골 곡자. 그 호가.야중에 원체 근하게 했으니까, 공부하는데 근하게 했으니까. 그렇게 둔해두, 뇌가 둔해두, 그저 글자 하나도 볼래믄 몇 백 번씩 봐야 원다 이거죠. 그러니 이거 얼마나 둔

1) 金得臣(1604~1684) 자는 子公, 호는 栢谷·龜石山人. 본관은 安東. 진주목사 時敏의 손자. 副提學 緻의 아들. 2) 신하 신자의 잘못. 3) 바보.

해요?저도 한 가지지만요. 그런데 인제 자기, 자기도 인제 그러니까 인제 참 선조적버텀 양반집으로 내려왔던지 어떻게 내려와 가지구, 자기도 뭐야 자녀도 두고 아들딸도 두고 그런데 자긴 그렇게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돈 냥이나 있고 그러니까 잘 살고 그랬다는구먼.

어느날은, 그러치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친구라고 해야 다 뭐 아는 게 친구 아니유?근데, 못 생겼거나 잘 생겼거나 다 친구라구 있다 그러지 않아요?친구네 집엘 갈려구, 저 봄생[4]데,거기는 저 쪼그만 무슨 재를,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재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레 잘 사니까, 지금은 여기 우리네는 자전거, 오토바이 〔조사자 : 자동차를 타지.〕 글쎄 내 얘기좀 들어봐요. 그때는 당나구 그런 거밖에는 없거든. 있다는 사람들, 양반집이라는 사람들이. 그전엔 또 하인이 어디 마침, 그렇지 뭐, 다 사람 삶이 우리 가정에서도 내외간에도 그렇지, 볼일이 다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하인은 보류하고 혼자 친구네 집을 갈라고 말이죠, 마굿간에 가서 당나구를 끌어 냈단 말이야. 당나구를 타고 친구네 집을 놀러 갈려구요. 글쎄 어떻게 됐든지, 당나구를 끌어내서 타구 갈려구 바깥 마당에 끌어네 가지고 당나구에 올라앉았단 말야. 지금 말로 올라앉았어. 올라앉았는데 그걸 또 몰 줄 알아야지. 당나구 등떼기에 올라앉아 가지구 괴삐를 일루 넴기구 절로 넴기구, 이쪽으로 갈려면 이쪽으로 넴기며 잡아댕기고, 그것도 모르네, 나처럼 모르니까. 이놈이 밤에 드레우물[5],왜 옛날에는 드레우물이라는게 있지 않아요? 지금은 수도니 뭐니 그러지만 드레우물 그래거든, 마당에 드레웃물이 있는데, 드레웃물길 한 바퀴를 뺑 돌더니, 그렇지 뭐, 몰 줄을 모르니 도루 이놈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제 집으로, 제 마구로. 당나구가 말야. 몰 줄은 모르니까 말야. 타긴 탔어두 모르니까. 그래 인제 당나구가 인제 어느 집 문앞에 이렇게 딱 선단 말야. 그러니까 당나구에서 냉큼 내렸어. 친구네 집엘 간 줄 알았지. 옛날에는 채면[6] 이라고, 부채라고, 부채를 갖고 댕겼대는데 양반, 뭐 양반 행세 한다는 사람들 부채

4) 봄철. 5) 두레우물. 6) 차면(遮面).

라고 가지고 댕겼다고. 부채를 이렇게, 당나구서 넝큼 내려서 부채를 이렇게 들구서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붙렀단 말야. 집이 이제 자기네 집이지. 자기집 앞 자기네 집 당나구를, [조사자 : 자기네 집으로 갔지.] 갔나? 마당 한 바쿠 인제, 가긴 뭘 가? 그래 뭐야, 채면을 허구서는,

"이리 오너라."

하니까, 종년이 내다보니깐 어딜, 친구네 집[엘] 상전이 놀러 간다더니 도루 대문 앞에 와선 채면을 해 가지고 부르거든. 깔깔깔 웃었단 말야. 그렇지 않은가? 우습지 않은가? 상전이 친구네 집에 간다구 그러다가 친구 집을 안가구 도루 와선 채면을 허구선 찾으니.

"고얀지고. 어디 남녀가 유별한데 웃느냐?"

이거지.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 집이야. 정신이 꽤 많았던 모냥이지, 여북하면 그렇겠나? 그래 못 갔지. 친구집 못 갔지 뭐.

그래구선 그 뒤루 얼마 있다가 한식때, 한식 무렵에, 한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구절기로. 그러니까 음력으로 이월 달이나 삼월 달인가 한식때가 됐는데 그제서는,

"에이 이까지 당나구구 뭐구 그냥 걸어서 가겠다."

그거지. 타 봐야, 당나구 타 봐야 말도 안 듣는 것, 타 봐야 필요 없으니까, 가 보겠다구, 그래 담뱃대, 그레 옛날에는 담뱃대, 지금도 왜 곰방대라고 있지? 담뱃대. 옛날엔 다 질거덩[7]. 담뱃대만 들고 당나구도 안 타구 인제 그냥 친구집 또 가는 거예요. 가는데 담뱃대를 들고 휘적휘적 가는데 이제 쬐그만 재를 넘어가게 됐는데 슬슬 걸어 올라가죠. 올라 가면서는 정신이 없으니깐, 나처럼, 담뱃대를, 그러니까 담뱃대를 이쪽에다 들었으면 이 손이라도 들텐데 그것도 활개질을 하고 가니까 담뱃대가 뒤로 갔잖아? 안 보일 거 아니예요? 뒤로 갈 때는.

---

7) 길거든.

"아이 담뱃대를 집에 두고 왔구나."

앞으로 올 때는,

"이제 가지고 오는구나."

활개질을 하고 올라가니까, 그래 담뱃대가 이렇게 뒤로 활개질을 하니까, 이렇게 뒤루 갈 때는,

"아 이 담뱃대를 집에 두고 왔구나."

인제 또 보일 때는,

"가져오는구나."

인제 고개를 올라간단 말야. 〔조사자 : 할아버지, 그렇게 그짓말 하면 못 써요.〕 글쎄 가만이 좀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 인제 어디로 중놈이, 하나 따라 어떻게 따라, 중놈이, 대사님이 따라, 올라가며 웃을 께 아닌가? 그 올라가면서 담뱃대가 뒤로 갈 때는 가져온다고 그래고 그러니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중 아니래도 웃을 거 아니에요. 까르르 웃었단 말야. 중이 따라가다가, 따라 올라가다. 획 돌아보니 중놈이 오거덩.

"대사, 어느 절에 있나?"

"아무데 절에 있습니다."

"어딜 가는 길인가?"

"아이 요너머 어디 저 아무 절에서 오늘 재를 올린다고 해 재 올리는 구경을 갑니다."

"그래."

그래구선 또 올라갔지. 근데 담뱃대 사건을 잊어버렸네. 그래 누구하구 얘기하느라구 담뱃대 뒤루 오구 앞으로 가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단 말이예요. 쬐금 몇 걸음 올라가다 뒤를 돌아다보니 중님이 또 온다 말야. 중놈이 또 와.

"아이 대사, 어디서 오나?"

"아니올시다."

그래 우습긴 우습지. 그거 또 물으니깐. 돌아다보고 또 담뱃대 상[8]을 잊어

8) 사건.

버리고 중한테만 신경을 쓰였단 말야. 돌아보니 중이 또 오니까,

"대사."

"아무데 절에 있습니다."

"어딜 가는 길인가?"

"아무데 절에 재를 올린다구 거길 갑니다."

그걸 한 백 번 했거덩. 〔조사자 : 재가 뭡니까?〕 왜 중, 저 절에서 왜 공양미 올리는데 그걸 재라구 그러지, 아마. 공양미 올리는. 난두 몰라요, 그건. 이것도 전설루다가 내가 듣고 그러지 내가 아나요? 돌려다 보는데 중이 이렇게 인제 온단 말야. 그래 나중에 마지막엔 몇 백 번 그러더니만 돌려다 보며,

"아 자네도 이 너머에 어느 절에 재 올리러 들어가나?"

도로 그 중이지.

"자네 같은 중이 한 백명은 지나갔네."

〔조사자 : 아 이 그것말도 꽤 잘 하셔. 진짜 그게 그것말이지 뭐예요? 여기 녹음되어요, 여기.〕 녹음이 되거나 말거나. 갔는지 안 갔는지. 글께나 좀 공불하니까, 공부를 하니까 그때도 이제 옛날에는 공문이라는 것, 지금도 왜 저 왜 공문이라고, 그때는 왜 어디 어디메 이렇게 이장, 이장집, 그땐 이장이 아니고 뭐 〔조사자 : 구장이죠.〕 구장도 아니겠죠. 옛날에 통장이래든가 뭐 옛날에는 그래요. 거기 뭐 공문이라고 옛날에는 그때 유지헌테다가 뭐 통보를 했다 그러거덩. 아 공문을 받아 보네그래. 이제사 정신이 없어 알아야죠. 이걸 훑어보고 한 백번씩 봐야 생각이 나니깐. 그래 인젠. 〔조사자 : 무릉이에요 그럼?〕 그래 통보 가지고 온 사람이 밖에서 들을 거 아닌가?

"아 샌님, 빨리 보시고,"

"가만히 있거라. 조금만 참아라, 쪼금만 참아. 진적 다 봐야 해득을 해야 되니까."

질질 봐야 될 꺼 아니에요?

"쬐금 참아라."

〔조사자 : 아주 몰라요 그래.〕

"아 그래 가만히 좀 있어."

그래 인제 샌님 이제 한 천 번만 더 읽으면 되겠다. 정신이 얼마나 좋은가.

그래 인제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이제 글깨나 배웠단 말야. 왜 지금은 뭐 무슨 검정고시니 뭐 이러커지만 옛날에는 과거라고 그랬잖아요? 〔조사자 : 예 과거죠.〕 과거를, 옛날에는 과거를 보러 가야 되겠거던. 그래 이제 하인을 데리구선, 자 뭐야 내 과거를 보러 갈 테니 그 당나구 좀 매서, 옛날에는 엽전이라구 왜 지금도 쇠돈이, 〔조사자 : 엽전 열닷 냥〕 글쎄 엽전이라구 해서 거 당호래는 거, 〔조사자 : 돈이요 돈.〕 당호 보셨어요? 〔조사자 : 저는 네 저 박물관에〕 박물관에 있을 겁니다. 당호라고 있을게요. 그것도 이제 큰 거 있고 적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조사자 : 당호요?〕 당호라는 돈이 있어요. 〔조사자 : 엽전 말고?〕 놋쇠로도 만들고 옛 큰 상평통보니 뭐 이렇게 해 논 게 있거든요. 그거 박물관에 다 있습니다. 그래 그땐 이제 그렇게 돈이 크니까는 전대, 뭐 무슨 큰 자루 같은데, 그렇지 뭐 자루 같은데, 해서는 당나구, 이제 지루마[9] 위에다, 지루마 위에다 이렇게 해 놓구서는 그 위에다 이제 타고선 그 마부 하인을 데리고선 말 끌구 이제 당나구 끌구 갈 거 아닌가? 서울을 인제 간단 말야. 〔조사자 : 얼마나 좋아요.〕 서울을 올 거 아닌가? 어디 그레니까 충청도 있으니까, 요 어디 안양 쪽이나 뭐 이렇게 고뱅 안. 〔조사자 : 박달재.〕 박달재인 모양이야. 〔조사자 : 박달재요.〕 박달재구 뭐구, 글쎄 어둑어둑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강 여가리,[10] 강 여가리가 보이더래, 그래 인제 하인을 보고 응 츠음에 이제 떠나서 거드렁거드렁 당나구 꼭대기에 앉아서는 이렇게 오면서는 꽤 글깨나 배웠으이니까는 하인을 보고, 하인은 이제 당나구를 끌고서 앞에서 〔조사자 : 그럼요. 하인이 옛날에 종이니까요.〕 당나구 꼭대기에 앉아서는,

"오늘이 며칠이냐?"

그래 인제 한식이라는 것도 이월달에, 음력으로 이월달에 드는 때도 있고 삼월달에 드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9) 길마. 10) 강가.

"오늘이 이월인지 삼월인지, 인제 한식이올시다."

"오늘이 한식이야? 거참 좋은 명절이로구나."

당나구 꼭대기에 앉아서. 그래, 가만히 글께나 배웠으니까, 마상에 봉 한식하니,[11] 말 위에서, 마상에 봉한식하니, 한식을 만났으니, 마상에 봉한식하니, 이제 당나구 꼭대기 앉아서 이렇게 되는데, 거드렁. 글쎄 글깨나 배웠으니까. 인제 마상에 봉한식하니 마상에 봉한식. 그 하인이 당나구를 끌고 가면서 생각하니 우습꺼덩. 만날 집에 앉아서 마상에 봉한식하니 어쩌구 글만 읽던 사람이, 샌님인데 그저 그걸 한두 번도 안하곤 가면서 마상에 봉한식하니, 마상에 봉한식하니. 그래 인제 하인이 말 끌고 가던 하인이 하도 딱하니까, 아 그걸,

"샌님 뭘 그러세요?"

하 글쎄 글을 한짝 생각이 났는데 〔 〕[12] 마상에 봉한식하니, 말 꼭대기에서 한식을 만났으니 도중에 송모춘이야[13]. 질 가운데서, 질 도자, 도중에 저 문봄을 만났다 그거에요. 그래니깐 당나구 꼭대기에서 넝큼 내려 뛰더니 이 저 하인 손을 〔덥석 쥐고〕,

"아이 언제 그렇게 배왔나?"

이러거덩. 〔조사자 : 그거 진짠데요.〕 아니 언제 그렇게 배왔나 이거야.

"아유 샌님도 딱도, 아이 샌님이 집에서 만날 마상에 봉한식하니 도중에 송모춘이라."

〔조사자 : 아이 어떻해? / 웃음〕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거 당연한 거로구나."

〔조사자 : 진짜예요.〕 집에서 만날 하던 건데 정신이 없으니. 〔조사자 : 그거 천치지. 말하문.〕 천친가? 미화지. 마상에 봉한식하니 도중에 송모춘이라. 말 꼭대기에서. 그게 옛날 글이거든. 옛날에 그게 오언시에 있거든요. 말 위에서 한식을 만났으니 도중에 송모춘이야. 질 가운데서 저문 봄을 만났대는 거, 그게 이제 당음시에요, 당음시. 그래니까 그 학자 선생이 있는데 노오 읽

11) 馬上逢寒食. 12) 녹음테이프 교체로 끊김. 13) 道中送暮春.

구 가던 것두 잊어버렸으니까는, 그래니까 그 하인은 만날 들었거든요. 자기 상전인데,매 방에 앉아서 책만 보구.〔조사자 : 아이 교수님 많이 배우시네.〕 그게 당음에 있는 거로구나. 그래 가지.그래 가자.〔조사자 : 그래 가지고 장원급제 했어요?〕 아 글쎄 얘기 들어요. 그래 인제 서울 갈 거 아닌가? 돈을 당나구 등에 싣고 가는 거야. 어디 어디쯤정 오다가 강여가린데, 하인을 보구선,

"애야."

"에, 왜 그러세요?"

"여기 서울은 참 눈 없이 코 비어 먹는 세상이라는데 여기 우리 돈을 다 가지고 갔다가,"

지금은 쓸리[14]라고 그러잖아?

"도적을 맞으면 어떡허니? 그러니깐 돈을 한 반 갈라서, 이 강 여가리 어디 모래밭을 인제 표를 했으니깐 저따가 뒀다가 내려올 제 우리가 가져갈 노자를 하자."

그러했죠. 그래 인제 말에서, 인제 당나구에서 인제 돈 전낼, 돈 보따리를 내려 가지고 한 반 갈라서 갖다 인제 모래바닥을 파구서 것다 묻었다 이거예요. 반을. 묻구서는,

"무슨 표를 해야될 거 〔아냐?〕"

"그러믄요, 표를 해야지요."

구름이 하나 둥둥 떠 있거던. 구름 쪼가리 하나 떠 있단 말야. 그래 표시를, 표시를 했죠 뭐. 〔조사자 : 구름이 날라가죠.〕

"저 구름이 한 덩어리 있구나."

그래 그렇게 묻구선 갔네. 가서 벼슬도 못하고 낙방을 했단 말야. 그래 인제 내려올 꺼 아닌가? 벼슬도 못하구서. 어디가 찾아? 그냥 모래바닥에 파묻고 어대가 찾느냐 이거죠.〔조사자 : 구름 떠간 데가 찾아야지 뭐.〕구름이 뭐 어디간 줄 알구. 〔조사자 : 예 그럼 날라가죠.〕 그래 돈도 못 찾고 그냥 얻어먹

14) 쓰리. 〔일본어〕 소매치기.

으면서 집 충청도를 내려왔단 말야.

내려왔는데 집에루 왔는데 그 뒤루 또 인제 얼마 있다 몇 해 있다가 또 과거를 보러 갔거덩. 가게 됐단 말야. 그래 돈을 또 그렇게 싣고서 또 가게 됐지. 인젠 그땐 강 여가리에다 묻는 게 아니구,

"전기는[15] 모래바닥에다가 파묻어 가지고 잃어버렸으니, 이번에는 아주 똑똑히 좀 우리 묻구서 가자."

하인을 보구요.

"어떡합니까?"

그 질로 가다가 고목나무가, 정자나무가 하나 있더래요. 무신 나문지는 모르지만요.

"여기다 파구서 묻자. 이 정자나무 밑에다가 파구 묻으면 어느놈이 가져갈 것도 아니구."

그러니까,

"그러시죠 뭐."

그래가지구 정자나무 밑을 파 가지고 돈을 한 반을 갈라 가지구 묻었단 말야. 묻구서는 거기다가 팻말을 하나 꽂기를 '김 백곡 매전처'[16]라, 백곡 선생이 돈 묻은 곳이라. 그래서 팻말을 뚝 거기 써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놈이 가져가겠느냐?"

"그러믄요."

웬걸요. 야중에 그때도 과걸 못 허고 오다 보니까는 자 팻말은 빼서 어떤 놈이 팽겨쳐서 돈은 다 꺼내갔네. [조사자 : 또 또 낙방했어요?]그럼. 낙방두 허구. 벼슬도 못하구. 그래도 그렇게 미화래두 팔자가 좋은 사람이래서요, 아들들은 아마 출세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확실히 모르지만. 그래두 백곡 선생은 이름이 난 분이래요.

* 반철균, 남 · 67.
* 북방면 구만리, 1987.7.7., 이종철 엄기주 유은영 조옥희 김성욱 장기영 최광

15) 저번에는. 16) 埋錢處.

현 이연순 조사.

* T. 5—4—1.

해와 달이 된 오누이 1

베를 매구서는 해가 다 져서 오는데 아 그 집에서 팥죽을 쒀 주드래.

"아유, 애들이 있으니깐 가주가라."

구. 아 그래 인제 고개를 넘어오는데, 팥죽 그릇을 가지구선, 이구선 오는데 아 난데없는 호랭이가 나서드래잖우? 호랭이가 하는 말이,

"아 그 팥죽 한 그릇 주면 내가 안 잡아 먹지."

그래드래. 팥죽을 얼른 줬대. 아 또 가대니까는 또 벌씸 그가 처먹구 오드래. 또,

"아유 그 팥죽 고거 마저 주면 안 잡아 먹지."

그냥 인제 그렇게 다 줬대는 거야. 아 또 가대니, 생전 집을 못 다 가대니까 그저,

"아유, 팥죽을 다 줘서 얻어먹었는데 그 팔 한 짝 잘라 주면 안 잡아 먹지."

아, 팔을 뚝 잘라가. 또 들구선 인제 팔 한 짝을 들고 가대니까,

"그 팔 한 짝 마저 짤라 주면 안 잡아먹지."

안 잡아먹긴 뭘 안잡아 먹어, 다 짤라 주는 놈의 걸.

"안 잡아먹지."

아, 그래 팔만 다 짤라 줘?

"다리 한 짝 짤라 주면 안 잡아먹지."

아, 그래다 보니까 그만 몸뎅이꺼정 다 날아갔네. 인제 다 날아갔는데, 아, 애들은 해가 다가서 인제 즈 어머니 올 때를 바래구 인제 들어 앉았는데, 문을 걸구 이래구 있는데, 아, 문구녕으로 이렇게 극적극적 하면서, 〔호랑

이가]

"애들아, 문 열어라."

이래드래. 그래니깐 애들이 하는 말이

"아유,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아닌데."

"진종일 베를 베서 베풀 냄새를 맡아서 목이 쉬었다. 문 좀 열어 다고."

"아유, 그럼 손을 디밀어 보라."

구. 손을 인제, 발을 풀쩍 디미니까,

"아구, 우리 어미이 손이 아닌데."

"아유, 베 풀칠을 해서 풀칠이 묻어서 껄쭉껄쭉해서 그렇다."

그레더래요. 아, 그래 인제 다 그래다 못해 그만 열어 줬대는군. 열어 줘선, 하두 진력해서 열어 주니깐 들어와서 앉었어. 아, 애들 큰것들 둘 하구 인제 조끄맨 젖먹이가 있는데 아 그놈의 애를 잡아서 또 먹거던. 바작바작 씹어먹기 때문에,

"어머이 뭘 먹어요?"

"애유, 뒷집이서 콩을 한 웅큼 줘서 먹는다."

"거 나 좀 주지."

"다 먹었어."

또 우지직우지직 씹드래요. 그래,

"어머이, 다 먹었대드니 뭘 먹어 또."

"아, 뒤져 보니까 조금 있어서 마주 먹는다."

아, 그래 인제 그걸,

"그 나 좀 주지."

"다 먹었다."

아유, 그래니 인제 다 먹었으니 즈를 잡어 먹을 게 아니야? 그레니깐,

"애유, 어머이 똥 매려워 죽겠네. 우리 똥 누어야겠는데."

"거기 앉아 눠라."

"우리 아버지 오시면 혼나요."

"그럼 붕당에 가 눠라."

"봉당에 눠두 혼나요."

"거 마당에 가 눠라."

"마당에 눠도 혼나유."

"그럼 어디 가 누래드냐?"

"저 멤밭[1]에 가 눠야쥬."

그러니깐,

"그럼 멤밭에 가 눠라."

멤밭에 가 누는데,

"줄을 매고 가라."

그러드래. 줄을 매고, 새끼줄을 늘이구 가라구.

"내가 붙잡을 께 늘이구 가라."

구. 아, 그래 인제 새끼를 인제 갖다 주구서, 지 엄마, 인제 그 호랭이를 갖다 주구선 저 애들 두 오누가 인제 나갔대거든. 나가서 똥을 누러 간대는 게 그거는 멤밭에 갖다 꽂아 놓구, 나뭇대기로 해서 꽂아서 매 놓구는 이렇게 우물 있는데 참 큰 미루나무가 있드래요. 그래서 미루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둘이 올라가서 있으니까 아 이놈의 호랭이가 올 때를 기다리다 못해서 나왔거던.

"어디루 갔니? 어디루 갔니?"

하면서 나와서 어정어정 허니까 없거던. 아, 물[2]에 이렇게 보니깐, 물을 보니깐 물에 그림자가 있거던, 낭구[3] 올라가서.

"아이구, 너는 어떻게 거기 들어갔니? 느는 어떻게 들어갔니?"

자꾸 그렇게 묻드래. 그랬더니 아 그 애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좋지마는 하두 그거 물으니까는 우스워서 웃었단 말이야. 웃으니깐 아이 이렇게 치다봤단 말야.

"아유, 느는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그러니깐,

---

1) 두엄밭. 2) 우물. 3) 나무.

"어떻게 올라가요, 뒷집에 가서 챙기름[4] 갖다 발르구선 올라왔지유."
이래니깐 뒷집에 가서 또 챙기름을 얻어다 발르니까 아, 더 미끄러워서 더 못 올라가잖아? 그래서 아유, 올라갈라구 그러구 올라갈라 하다가 못 올라가겠으니,

"아유, 어떡해서 올라갔니? 어떡해서 올라갔니?"
그래니까,

"아유, 뒷집에 가서 저기 도끼로 갖다 톡톡 쪼구서 올라왔지유."
이랬대요. 아, 그 도끼를 갖다 톡톡 톡톡 찍으니깐 올라갔거던. 알금알금 해서 올라가드래. 애구, 반은 벌써 올라오드래.

'애구. 저놈이, 인젠 우리를! 꼭 우리는 죽는다. 인제 잡아먹혀 죽는다.'
하늘을 보고,

"하느님, 하느님, 저를 살려 줄래므는 동애줄을, 새 동애줄을 내려 주고 죽여 줄래믄 흔 동애줄을 내려 주시우."
이래드래. 그러니까 아 동애줄이 참 내려오거던. 내려와서 애들이 그 동애줄을 타구 올라갔단 말야. 동애줄 타고 올라가서 인제 오빠하고 인제 여동생하고 두 오누이니깐,

"나는 남자구 너는 여자니깐 여자는 해가 돼라. 나는 남자니까 달이 되겠다."
이래서 인제 이 달과 해는 인제 두 오누래요.

그래구 아, 이놈의 호랭이가 또,

"나를 살려 줄라믄 새 동애줄을 내려 주고 죽여 줄라믄 흔 동애줄을 내려 주시우."
그러니까 아, 이놈의 흔 동애줄을 썩 내려. 반은 새 동애줄인데.

"아따 이놈들 올라가서 잡아먹어야 하겠다."
하구 허둥지둥 올라갈라구 했는데 아 그냥 툭 떨어지거든, 썩어서. 그래서 그 숫구덩에 빨긋빨긋한 게 그게 호랭이 피래요, 그게.

---

4) 참기름.

* 이순옥, 여·62.
* 동면 속초2리 속세울, 1987.2.12., 전신재 허남춘 김성수 강동규 유은영 조남혁 조사.
* T. 3—23—1

해와 달이 된 오누이 2

그래 즈 어머니가 과부야. 과분데 딸 형제를 두고 아들 하나를 두구서네 베를 메러 갔는데, 고개 넘어서 인제 베를 매러 갔는데, 그집에서 팥죽을 쒀 주더래나, 갖다 애들 주라고. 그래 오다가 오다가 보니까 저물어 오는데 고개 넘어오는데, 호랭이가 있더래. 그래 〔호랑이가〕,

"너 이게 뭐냐?"

그러더래. 그래,

"팥죽이다."

그러더래. 〔호랑이가〕,

"그 날 좀 한 그릇 다오."

〔해서〕 줬더니만 아 개 어머니꺼정,[1] 베 메러 갔던 어머니까정 죽였대잖아? 잡아 먹구선 집이루 와서는 그 애들더러 문을 열어 달래니까 애덜이 문을 안 열어 주더래,

"아, 우리 어머니 손이믄 손을 좀 밴져 보겠다."

고 그러더라고. 호랭이더러 손 좀 디밀어 보라고 그래더래. 그래 손을 디미니깐두루 호랭이 손이 뭐 여지간하겠어? 껄끄러운 게,

"아, 우리 어머니 손은 이렇진 않았다."

고. 우리 어머이 손은 아니라구. 그래 그러니깐으루 문을 좀 열어 달래더래.

---

1) 까지.

"아이, 난 문 열어 줄 수가 없다."구.

"아이, 그래두 열어 달라."

구. 그래 열어 주니까 들어 오더래. 들어오더니 들어와서는 개떨더러 잡아먹재더래. 아니 잡아먹는 건 둘째간에 거시끼를

"저 앞집이 가 챙기름[2]을 얻어 오라."

구. 〔호랑이더러〕 지름을 얻어 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래. 그래 즈 남매가 고만 오, 지름 얻으러 간 새에 오동넹기[3] 우물이 있는데 거기 오동넹기 올라갔었대. 올라가서 보니깐 호랭이가 참 지름을 어디가 훔쳐왔는지 훔쳐 가지고 왔더래. 와서는 보니깐 애떨이 하나두 없으니깐,

"이게 웬일이야?"

이리저리 돌아댕김 보니깐은 우물이 있어서 우물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깐 우물에 애떨이 들었더래. 느덜 으떻게 해서 들어갔니 그래니깐,

"앞집에 가서 챙기름 얻고 뒷집에 가 들기름 얻고 그래가지구선 이렇게 올라왔다."

구. 아, 올라올라 가니 쫄딱 미끄러 올라올 수가 없지. 쫄랑 미끄럽고, 쫄랑 미끄럽고. 그래서는 올라가 인제 우떻게 우떻게 올라왔대. 아 그랬는데 〔남매가〕 그냥 하늘에다 축원을 했대.

"아, 살려 달라."

구. 축원을 해니깐, 아 내려왔더래, 동아줄이. 그래 인제 그 남매는 동아줄을 타고 올라갔대.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구, 호랭이가 어떡해서 〔오동나무에〕 또 올라왔드래, 아 그래 그것두 또 축원을 했대.

"살려 달라."

구. 호랑이도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타고〕 올라갔대. 올라가다시리 그만 썩은 동아줄을 쥐 가지고 우물에 텀벙 빠져 죽구. 그래 인제 그 즈너[4]는 해가 되구, 그래 이게 해가 그렇게 따겁대, 즈너래서, 사람이 보지 못허게끔. 남자는 달이 되고 그랬대.

---

2) 참기름. 3) 오동나무. 4) 저녀.

* 이기연, 여·76. 원주 출생. 18세에 이주.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엄기주 조옥희 장기영 최광현 조사.
* T. 5—7—1

혹 떼려다 혹 붙인 영감

옛날에 옛날에 어느 할아버지가 산골에 살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어려워서 낭구[1] 장사를 하는데 하루는 질[2]을 잃어 가지구서, 짚은[3] 산에 들어가 가지구 좋은 낭구를 해 지구 나오다가 질을 거기에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웬 혼 주막이, 집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 자는데, 잘라고 했는데 이게 하도 심심하고 그래서 노래를 한 곡조 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넹겨주소."

아 그 순간에 말이유 어 원 사방이 와수수하고 물래더니, 올랑졸랑하더니, 아 그야말따나 도깨비란 놈들이 말이야 아 쭉 모여들어유. 아휴.

"영감아 아 그 소리, 노래가 어서 나와유?"

"아 노래가 어서 나오긴 어서나와 입이지 그냥."

그 노인이 혹이 이렇게 나왔다나유.

"저 늙은이 저기 저 나오는데 그 입에서 나온다니 말이나 돼?"

"아니 입에서 나온 거예유. 아주 진실하기 한이 없지유.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거유."

"거 그 혹을 말이여, 아니 저 그거 팔라."

그래유.

"아 그까짓 걸 팔아 뭘 허우? 그냥 그까짓 거 본래 달려 있는 거 팔 것두 아니우. 그까짓 걸 하면 뭘 해유?"

이래니까는 도깨비들이 강제로 돈을 많이 주구서 그 혹을 떠 갔어유. 아

1) 나무. 2) 길. 3) 깊은.

그래 날이 훤이 샜는데, 아 그 돈을 착 짊어지구 와서, 집으로 내려와서 부자가 됐지유.

아 그 다음날 이웃집에 참 욕심 많은 늙은이가 그걸 보구서, 아 혹이 있었는데 그 혹은 다 떨어졌지, 띠 갔으니까, 아 가 가지구서 물었단 말야. 그런 사실을 얘기를 하니까, 가 가지구 억지루 해가 저물기를 기달려 가지구서 노래를 했어유.

"아 어제도 소리를 해더니 이 늙은이가 그짓말장이 늙은이가 또 왔구만."

"아 여기서 노래가 잘 나온다."

"엣다 이거 띠어 주마."

아 그놈으 혹을 말야 도로 또 이짝에 붙여 주었어유. 그래 혹을 떼러 갔다 붙였다는 얘기쥬.

* 윤태준, 남·71.
* 홍천읍 삼마치2리, 1988. 6. 23., 김문태 엄병화 김혜경 권준길 박기웅 이철규 심보경 이정환 조사.
* T. 2—3—2

복 받으려다 벌 받은 과부

근데 인제, 옛날에 인제 참 두 과부가 살았대. 두 과부가 살았는데, 웃마을에 과부가 하나 살구 아랫마을에 과부가 하나 살구 그랬는데, 그래니까 아래위 인제 과부가 사니까 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서로 동정을 해서 살 거 아닌가?

그런데 하루는 참 스님이 와 가지구선, 날이 저문데 스님이 와서 자자구 그러더래. 날이 저무니 하루쯤 쉬어 가자고 그러더래. 그래서는 인제 그 과부가 인제 방이 하나니깐은 냉수를 한 그릇 떠다가 복판에다 딱 놓고 인제 그 스님은 아랫목에다 재우고, 자기는 웃목에서 자고. 복판에 냉수 한

그릇 딱 떠다놓고 있었드래. 그러구 인제 참 그 사람이 그렇게 하구 갔는데 참 아주 복을 많이 줘서, 응, 그 집은 참, 웃집과부는 참 잘 살어.

아유 그래 아랫집 과부가 허는 소리가,

"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사냐?"

하더래.

"야 스님이 어느날 와서 우리집에서 참 주무시고 가셔서 이렇게 참 복을 많이 줘서 나 이렇게 잘 산다."

고 그래 하드래. 참 그러니까는 인제 참 아랫마을 과부네 집에도 스님이 인저 갈 거 아니야? 가니까는 이년은 기냥 아랫목에다 요를 깔구 중허구 같이 동품을 했단 말야, 빨거벗고. 그랬는데 인제 갈 땍에[1] 뭘 주고 갔냐 하면은 무슨 씨를, 요런 것 하얀 씨를 요런 걸 한[2] 주드래. 하여튼 이걸 심으니까 세상에 낭구가 그냥 아주 길게 자라지. 순식간에 자라 가지군 크더래. 커 가지구는 거기에 뭐이가 달렸냐 하면 〔남자의 성기를 묘사하면서〕 이런 놈이 달리더래, 이런 놈이. 이런 놈이 달려서, 아유 그래 사람들이

"아우, 저게 무슨 낭구냐?"

하면, 그게 말하자믄 좆낭구야. 그래 그 너석을 배기 싫어서[3] 벼[4] 내버려두 금방 또 그렇게 좋더래. 금방 그렇게 좋더래. 금방 그렇게 좋더래. 그래 또 벼 내버려두 여전히 그렇게 좋구. 그렇게 엣날에 그런 일두 있었대.

* 이지영, 여·59.
* 북방면 하화계리, 1987. 7.9, 이종철 엄기주 유은영 조옥희 장기영 김성욱 최광현 이연순 조사.
* T. 5-6-1

1) 때에. 2) 하나. 3) 보기 싫어서. 4) 베어.

눈치가 비상한 사람

옛날에 어떤 친지들 둘이서 길을 떠나서 돌아다니는데 노자가 별어져서 갈 데가 없다 그말이야. 그래 어떤 정자낭구[1] 밑에 앉아서 쉬는데, 어떤 사람이 토상투바람[2]으로다, 아 고개를 치다[3] 뛰더니 아 쉬지도 않구 넘어가거든. 그래서 한 사람이 앉았다 하는 말이,

"하, 그 양반 친원[4]에 약 지러 가는구먼."

아 이 사람이 저 어머니가 급히 앓아서 약을 지러 가는데, 그 그 용케 알잖어? 약 지러 가는 것보다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날 것 같거든.

"아니 그래잖아도 우리 어머니가 별안간 병환이 나셔서 약을 지러 가는데 그 그 선상님 이렇게 아시는 것 보니 병을 고칠 듯하니 그럼 뭐 약국에 가나 안 가나 같이 가십시다."

"아, 그럼 가십시다."

그래 인제 떡 쳐다 보더니,

"당신 병술생이요"

그 말이야. 약 지러 가는 사람을 보고 아 병술생이래요. 그 같이 가던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별안간 아는 소리를 하니 이상스럽다' 그러면서 쫓아갔다 그 말이요. 가서 병 저거 앓는 저 어머이 곁에를 떡 가서 앉더니만은, 맥을 보는 체하고 거기 앉더니만,

"아이, 이거 담배잿물 좀 해 오시오."

그래 담배를 물에다 담궈서 인제 우러난 물을 갖다 주니까, 그렇게 되게 앓던 사람이 나았다 그 말이야. 그래 한참을, 작은아들, 큰아들 모여와서 앉았겠지, 한참 앉았더니만은,

1) 정자나무. 2) 상투 있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아니하고 나선 차림새.
3) 치달아. 4) 친환(親患). 부모의 병환.

"하 주인 양반은 남녀간에 어린애가 없어서 근심이로구먼."

"예, 아들이고 딸이고 아주 없쉐다. 그러니 걱정이오."

그 작은아들이 떡 와 앉았는데 보더니만,

"하 상처를 하고서 여태 면한[5]을 못했소그려."

아 그랬어요. 홀애비 어쩌고, 그래 이게 여합구들[6] 맞는다 이말이야. 아 그래 같이 간 놈이 생각해 보니 이상시럽거든, 그렇게 잘 맞히니. 그래 대우 잘 받고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노잣돈 아주 후히 줘서 가지고 떠났다 이말이야.

떠나가다가,

"그래 너 여지껀 이웃에서 커도 너 아는 소리라구는 안 하더니 오늘날 별안간 아는 소리를 해 가지고 노잣돈도 생기고 잘 자고 어떻게 된 일이냐?"

"내 알긴 뭐 아니? 아래 고갯마루에서 쉴 적에 그놈이 그렇게 급하게 오니 아 그놈이 병약 지러 가는 건 틀림이 없는데, 아 그래서 저 어머이 부모의 친원에 약지러 간다고 그랬지 알기는 뭘 알겠냐?"

"아 그러면 그 병술생은 어떻게 아니?"

"[ ][7] 상투에 옥동곳이 꽂혔더라. 병술점에 옥 상토야 그래서 그 한 번 한 게 그게 맞았지."

"아니 그럼 무슨 병인지 알고서 담배갯물을 해 오랬니?"

"들어가다 보니까 가메 부뚜막[8]에 비지 쪼박지가 놓였더라. 틀림없이 두부해 먹고 체했지. 두부 해 먹고 체한데는 담배갯물이 진짜다."

그말이야.

"아니 그러면 남녀간에 애들 없는 건 어떻게 알았니?"

"응 둘럼둘럼 보니까, 문 구녕이 안 뚫렸어. 애들이 있고야 문구녕 안 뚫어지고 되니?"

"그럼 작은 아들 홀애비된 것 어떻게 아니?"

---

5) 면환(免鰥). 홀아비가 다시 장가감. 6) 여합부절(如合符節). 꼭 들어 맞음.
7) 청취 불능. 8) 가마솥을 건 부뚜막.

"이래 보니까 바지 사폭[9]을 타진 걸 꿰매 입들 않았어. 마누래 있으면야 꾸매 입고 댕기겠지. 그래 가지고 맞힌 거지 내가 알긴 뭘 아냐?"
〔청중 : 꼭 맞혔구먼.〕 그랬지. 보통 사람은 아니지.

* 이계홍, 남·76.
* 남면 시동3리, 정명수 용정실 성길제 조사.
* T. 4—7—1

엉뚱한 짓으로 도둑 잡은 바보

옛날에 서당에 학생이 한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말을 잘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선생님이 거 옛날엔 훈장인데, 그 훈장님의 말씀을 잘 안 듣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을 많이 쓰는 사람이 하나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거 엉뚱한 짓을 잘 허는데, 임금님이 가지구 계시는 게 옥쇠[1]라구 금으로 만든 무슨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옥쇠, 그걸 가지구 있는데 그걸 임금님이 옥쇠를 잊어 잡쉈어요. 그러니깐 지금은 방송이나 이런 걸 허지만 옛날엔 방송이 없으니깐 방을 내붙인다구 해 가지구 표지를, 글씨를 거리거리마다 내붙여 가지구,

"그걸 찾아오는 사람은 얼마의 상금을 준다."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도 아마 그게 붙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서당에 다니는 학생들끼리 그 글씨를 보고,

"이러이런 게 있다."

이러니까,

"아, 거 내가 찾는다."

이래. 이놈이 엉뚱한 짓을 잘 허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두,

9) 邪幅.
1) 옥새(玉璽).

'그놈의 자식은 엉뚱한 짓을 잘 하니까 찾는다고 해도 못 찾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내가 찾는다."

고 한 말이 한 사람 두 사람 건너다보니 결국은 임금님 귀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들어가니깐, 찾는다는 사람이 있다니깐 불렀단 말이에요. 불러 가지구,

"니가 찾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찾기는 찾되 조건이 있다."

그러니,

"뭔 조건이냐? 조건을 이야기해라."

"내가 찾기는 꼭 찾아 드리는데 우릴 방을 딴 거 하나 잘 정해 주구 백일 동안은 우리가 있는 방에는 사람이 절대 오지 못하게 해 달라."

"그거는 쉽다. 꼭 찾아만 준다면 그거는 쉬운데 만약에 못 찾을 시에는 너의 목을 자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임금님이.

"하여간 좋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를 잘 마련해 주구 한문 선생님하고 두 사람이 들어앉아서 있게 하는데 이 사람네가 한 달을 거기 있게로 하는데 이십일을 지내두 임금님이 보기에는 찾으러 나가 돌아댕기는 거 같질 않단 말이에요. 방에만 만날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속으로 생각에 아주 괘씸하게 생각을 하구,

"요놈은 하여튼 한 달만 지나면 목을 자를 것이다."

하구 아주 보통 괘씸하게 본 게 아닌데 그러나 약속은 그렇게 했으니까 한 달 이전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한 이십일이 지내니까 뭐라 하냐면,

"우리 이제 방에 있는 시간은 다 지냈으니까 높게 이렇게 층을 맨들어

주구 거기 올라가 있게 해 달라."

이거에요.

"그래라 뭐."

이렇게 층을 맨들어 주구 올라가서 있게 허는데 거기 올라가서 한문 선생님하구 둘이 뭔 생각을 허느냐면,

'인제 우린 죽는다.'

이거에요, 못 찾으니까. 자기네가 어디 가서 찾어? 정부에서도 못 찾는데.

"인젠 죽을 테니까 이왕 죽을 제 죽드레두 잘 먹구 까짓 남은 시간이 한 열흘밖에 더 되냐? 그러니까 잘 먹구, 잘 멕여주니까 실컷 놀다가 죽으면 되지 않으냐?"

그 망에 올라가 가지구선 드러누워 먹고,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드러누워 있는데 바람이 불으니까 이 망을 맨 게 바람에, 사람이 올라가 중량에 눌리키니깐 흥덩흥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거기서 뭔 소리가 났느냐면 찌끅찌끅하는 소리, 흔들거리니까 그 소리가 났단 말이예요. 이 녀석이 가만 있다가 자기가 글을 진 게 뭐라고 지었느냐면,

"이극이 찌극이 내일이면 죽는다."

왜냐면 내일이면 한 달이 됐는데 자기네는 죽는다 이거야. 내일이면 임금님한테 목이 짤려 죽을 건 사실이니까. '이극이 찌극이'는 꼭대기 올라가니까 찌꺽찌꺽 흔들리니까, 자기네 이름을 안 부르고. 한문 선생님하구 둘이 있으니깐.

진짜 훔쳐간 놈들이 날마나 찾는다고 했으니 훔치긴 훔쳤는데 저 사람네들이 어떻게 찾나 고거를 살피기 위해서 고 밑에 와서 숨어서 지켰다 이거야. 지키는데 아 꼭대기에서 뭐라고 소리가 나냐면,

"이극이 찌극이는 내일이면 죽는다."

이거에요. 아 두 형제가 훔쳤는데 요게 형은 이극이고 동생은 찌극이다 이거야. 가만히 애길 들으니까는 야 이거 큰일났다 말이야. 자기네 이름을 부르면서,

"이극이 찌극이 내일이면 죽는다."

이거야. 저 사람네가 내려와 찾지도 않구 그 꼭대기에서 자기네 이름까지 다 알을 적에는 자기네 어따 둔 것까정 다 아는 사람들이니껀 큰일났다 이거야. 그러니깐 그날 밤중에 기어 올라가서, 그 망에 올라가서 빌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이극이 찌극이 좀 살려 달라."

이거야. 이 녀석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깐,

'아 이름이 이극이 찌극인 게로구나'

하구서는 아주 오히려 목에다 힘을 주고 큰 기침을 하면서,

"우리가 벌써 알았다."

이거야.

"당신네들이 훔친 건 벌써 알았는데 하루래도 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날짜를 채우느라고 있었다."

이러니까는 하는 얘기가 아주 얼른 갖다 놓구서,

"살려만 주신다며는 그걸 갖다 놓겠다."

이러니까는,

"살려 주마. 갖다만 놓믄 우리가 그냥 찾았다고만 하구 이름은 안 밝히면 살을 거 아니냐?"

그래서 갖다 놓구 그 두 형제가 빌구서 가드래요. 그래 이것을 찾아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하는 사람도 한번은 써먹더라 이거예요.

* 이상우, 남·41.
* 두촌면 철정리 지다치, 1986.7.22., 강동규 이도형 조옥희 최광현 조사.
* T. 2—9—2

옛날이야기의 위력

거 옛날에 아들 딸도 없는 두 늙은이가 살았다 이거야. 그러니 세상에 뭐이 좋은 일이 있나? 우짜에 돈은 많어요. 그러니까 할멈이 영감보고 거 옛날애기 하나 사 가지고 오라고 했어. 옆날애기 살 줄 알어? 〔조사자 : 모릅니다.〕 그 들어 봐. 누에고치로 허는 명주라고 있지? 이걸 갖고 가서 옛날애기 하나 사 오라고 그랬단 말이야. 할멈이 영감더러. 이놈을 둘러메고 삼복중에 걸어간다. 옛날애기 사러 간다고.

떡거머리 총각이 떡 허니 보고,

"할아버지 그거 팔 거요?"

"아니야, 이거 팔 게 아니고 옛날애기 사러 가네."

"내가 옛날애기 해 드릴 테니 날 줄래요?"

"그래, 옛날애기 해 주면 내가 이걸 주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앉어요."

이 사람이 옛날애기 할 게 뭐 있냐 말이야. 들에, 떡 하니 보니까, 황새 있잖아? 황새. 황새가 훌 날아오더니 어청어청 걸어가더라고.

"이거 보세요, 할아버지 똑똑히 들으세요. 어청어청 걸어갑니다."

그게 옛날애기란 말이야.

"어청어청 걸어갑니다."

보니까 이놈이 뭘 꼭 찍어 먹더란 말이야.

"꾹 찍어 먹습니다."

"어청어청 걸어간다. 꾹 찍어 먹는다."

이렇게 애기했단 말이야.

집에 와 가지고 할멈을 보고,

"내 옛날애기 사 갖고 왔어. 똑똑히 들어. 어청어청 걸어가네. 꾹 찍어 먹네."

그럴 적에 광에 도둑이 들었다 이거야. 광에 도둑이 들어와서 어청어청 걸어가다 보니까 아,

"어청어청 걸어간다."

보니까 꿀항아리가 있드래, 꿀항아리가. 그래서 꾹 찍어 먹어 보니까,

"꾹 찍어 먹는다."

'이거 아마 저 안방에서 아는 게야. 괴이하다.'

그래서 도둑을 면했더래. 그래 명주 한 필이 몇 백만원 어치를 막았다 이거야.

* 윤삼용, 남·63.
* 남면 유목정리, 1987.7.9., 김문태 이홍식 김승혜 전계진 박형규 최정희 김석주 홍후남 조사.
* T. 3-6-1

맹인들의 점치기 시합

대결을 잘 하거든. 근데 지관이여, 지관이라구. 전수 맹인이여, 맹인. 판수네 둘이 나들일 나선 거여. 둘이 외출을 가는 거여. 가다가 날이 저물었어. 날이 저물어 이거 주인을 못 정한다는 얘기지. 주인을 못 정하니까,

"자, 우리 점을 하니까 점 좀 해보자."

그래 고판수가 용추문이더래.

"너 지팽이 한번 내 지어 봐라."

그래 용추문이가 지팽일 내 휘두르니까 뭐 하나 탁 막혀. 막히니깐 가 맨져 보니깐 덤불이야, 수풀.

"수풀이야, 수풀 임자로 풀자."

"아이 또 내 보자."

또 작대기를 용추문이가 내두르니까 뭐 딱하곤 맞춘단 말이야. 눈이 멀었으니 쇠경이 못보지 뭐. 가 맨져보니까 방애여. 아래 월 만지니 방애야.

"아이 방앤데."

"방애면 큰 대자[1]로 풀자, 큰 대."

"또 한번 내줘 봐."

그래 용추문이가 또 한번 지팽일 내두르니까 아 뭐 딱하곤 맞춘거야. 가 맨져보니까 바우야, 바우. 돌멩이라구.

"아 이거 돌맹인데, 바운데 큰 바우야."

"바우면 돌 석자다. 돌 석자로 풀자."

그럼 수풀림자, 큰대자, 돌석자. [청중 : 임대석]

"임대석이가 이 마을에 있겠다."

"거 우리 임대석일 불러 보세."

그래 이제 질거리[2]서 임대석일 부르는 거여, 밤에.

"임대석이, 임대석이!"

하구 소릴치니까, 임대석이가 논물보구 들어와서 지냑[3]을 먹구 앉았는데 누가 자꾸 찾는단 말이여. 나가 큰길을 쳐다보니 웬 맹인들 둘이 서서 찾는단 말야. 원 하두 신기해서,

"아니 판수, 어서 오시는데 이렇게 난 처음 보는 양반인데 내 이름을 알고 찾는 겁니까?"

"아 우리가 둘이 다 맹인이요. 길을 떠났다가 참 날이 저물어서 주인을 정할라 그러는데 주인을 정할 수가 없어. 집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 판수를 해서 혹시 이 마을에 임대석씨가 있을까 하고 찾아 본 거요."

"아 지가 임대석입니다. 아 좌우간 들어갑시다."

데려다 앉혀 놓구서, 아 주인이 그 점을 그렇게 하두 이상하게 아주 하니

1) '빙아 대(碓)'의 착각일 듯. 2) 길거리. 3) 저녁.

까 한번 직[4]을 떠볼려구, 들어가 마누라더러,

"이봐, 얼핏 뭐 저 지냑도 못 잡쉈을 것 같으니 얼른 국수나 해 드려, 국수나 해드려."

그랬단 말야. 국수를.

"아 그래야지요."

그라군 나왔어. 나와선 주인이 나와서,

"아, 선상님들은 점을, 참 이런 거리에서두 내이름을 찾으니 점을 잘하시니 내가 지냑을 집이사람에게 시키고 나왔는데 그 지냑을 뭘 잡술지 판술해 보시요."

그니까 고판수가 하는 말이 손가락을 꼽아 가지구,

"국수, 국수구만, 국순데. 아 국수야, 국수라구."

그 말에 용추문이더러,

"아 자네 점을 해봐. 내 점 같아선 국술 먹을 것 같은데 해봐."

용추문이가 아 꼬부락거리며,

"아닌데, 적[5]을 먹을 것 같애, 나는. 적을, 적을."

아 주인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판수 점이 맞지. 국수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고판수가 국수 먹는다고 했으니 그 점이 맞단 애기야. 그런데 용추문이는 적을 먹는데니까 그건 아주 틀렸단 애기야. 어느게 맞나? 그래 앉았지. 앉았는데 사랑문을 와 열면서 아주먼네가,

"아 지냑상 받으라."

구 하는데, 상을 받는데 적을 해 쏠아 나왔네. 적을 해 쏠아 나와. 아 주인도 모르지.

"아니 국수를 하라고 했는데 어쩧게 적이야? 우트게 된 거야, 이거?"

"아 저, 국수 반죽을 할려고 물을 붓다가 물을 너무 부었어요. 아이 눅으니 으트케? 그래 아주 적을 부쳤어요."

그래 용추문이가 고판수더러,

---

4) 直. 5) 부침.

"니 점이 맞았니? 내 점이 맞았니?"

"왜 내 점도 맞고 니 점도 맞은 거지. 난 사이초[6]에 했잖니? 사이초. 넌사이중[7]에 했으니까."

뱀이 댕기니까 국수가 된거지. 용추문인 중에 했으니까 뱀이 지금은 똬릴 틀고 잘 때라 이런 얘기야. 그래 적이다. 용추문인 중에 했으니까. 용추문이가 더 용타.

* 전석일, 남·63.
* 북방면 성동2리, 1987.7.9., 김진희 정금란 강하구 최용현 조사.
* T. 6—6—2

죽은 시늉으로 남의 빚을 떼어먹은 사람

이게 맞을지 모르겠네. 예전에 말예요. 남을 돈을 꿔주면 은제 받든지 받어. 한 사람은 돈을, 남의 돈을 꾸면 갚는 일이 없어. 안 갚어. 그건 절대로 안 갚지. 그래서 구전돈 백냥을 썼는데, 백냥을, 그 친구 한놈이가. 빌려다구 했는데, 안 갚았어요. 생전에 갚을라니 갚을 도리가 없다 이기야. 그래,

"애 낼수 없다."

그 집에다보구 해라 말이야,

"내가 죽었다."

구. 그래 죽지도 않고 자릴 가려 놓구,

"우리 아버지가 사망되셨다."

구 하니까, 그 친구한테. 그 사람은 돈 준 사람이고 죽은 사람은 돈 꾼 사람이야. 왔단 말이야. 와 보니까 자릴 가려 놓고, 그래노니까 참 죽은 줄

6) 蛇移初. 물 붓기 전. 7) 蛇移中. 물 붓고 난 뒤.

알았단 말이야.

"아이구 빌어먹을 놈. 내 돈 백냥을 떼먹고 죽다니. 기왕 돈 못 받을 거 석. 이 놈 칼로 배나 거야지."

그랬단 말이야. 칼을 빼드래. 그래 아들이 이러드래.

"아이구 으르신네 아무 말씀 마셔요 지가 갚겠습니다."

아부지 산 배를 찔렀니 큰일 났거덩.

"아 지가 갚겠습니다."

"아 그렇지. 자네가 갚는다면 넘어갔네."

그래구서는 삼일후에 거기다 또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났습니다."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더니 그 돈 준 사람이 왔더랩니다. 왔는데,

"아고 내가 죽었다 살지 살았네. 살았는데 내 저승을 가보니 자네 아버지가 돈 삼백냥을 졌다네[1] 그라. 저승에서 묶어다 놓고 졸르는데 내 할 수 없이 그 빚을 내가 갚고 나왔네."

그랬드래요. 아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네도 어렵게 살았거덩. 지 아부지적에 삼백냥 빚진 걸 아는데 그 친구가 갚고 나왔다니 하두 감사해서 빚 안 갚는 놈이 안 갚더래요. 빚 받을려는 놈보다 떼먹는 놈이 더 잘 떼먹더래요.

* 강대성, 남·65. 홍천읍에서 출생하여 6년전에 이주.
* 남면 유치2리, 1987.7.7., 정덕준 김성수 정은정 곽노실 경명수 성길제 조사.
* T. 4—3—1

대추를 독점하여 부자가 된 사람

서울 가서 내 있을 적에 들은 얘기 하나 있는데 참 그대로 될런지 모르

1) 빚졌다네.

겠네.

저 중국에서 한 사람이 인제 딸을 하나 낳았는데 참 잘났다 이 말이야. 인제 딸 하나뿐인데, 짝을 맞추어 줄라 그러는데, 인제 돈도 잘 불고[1] 공부도 잘 하고 말이야, 재주 있는 사람을 사우로 골라야 되겠는데 암만 뎅겨 봐도 마땅한 자리가 없더라 이 말이야. 암만 조선이 소국이지만 이 조선에 한번 나가 보겠다고 말이야.

그래 떡 나와 보니 암만 돌아뎅겨도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우감이 없더라 이 말이야. 그래 관상도 아마 보는 모양이지. 그래 얻어먹는 아인데 나이가 뭐 얼마 안 되는데 아 그놈을 통성을 해 가,

"너 어디 사니?"

그니까,

"집도 절도 없구 그냥 얻어먹는 아이에요."

그래 보니깐 장래에 뭐 재주가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야, 자기 인제 보기에. 그러니까,

"너 평생 공부도 시켜 줄 꺼구 그러니까 날 따라 가겠느냐?"

고 그러니까 아 이놈이 가겠대. 그래 그놈을 데리고 인제 중국을 도로 들어가 가지고는 공부를 시키는데 이놈이 공부를 참 잘 하거든요. 그래 인제 사우감으로 골른 거에요.

사우를 삼아 놓군 인제 돈을 불어야 하는데 이놈이 그냥 놀그던.

"너도 인제 돈을 좀 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니까,

"아 불어야지요."

뒤를 좀 대 달라 이거야. 그래 대 주니깐 뎅기면서 대추장사를 한단 말이야. 대추를, 그 대추를 전부 그냥 있는 걸 싹 그냥, 그 중국에 나는 대추를 혼자 돈 대 주는 대로 막 디리 싹 사 놨단 말이야. 싹 사 놓구는 딱 가둬 놓으니 이놈의 대추값이 그냥 그냥 뭐 뭐 자꾸 올라치는데, 말하자면

1) 벌고.

없으니까, 올를 동안에 댕기면서 사방에 갖다가 전부 일시에 싹 팔아 버렸으니 그놈의 돈이 얼마나 많이 불었겠어요? 이놈이 돈 불어 뭐뭐 중국에서 제일가는 갑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참 바로 봤다, 인제 사우를, 바로 내 눈으로. 인제 근사하다 이 말이지.

인제 큰 부자가 되었는데 또 장사를 간다 그러니까 그 중국 뭐 남경인가 뭐 거긴 가지 말라 그러더래, 저 장인이.

"거긴 가지 말아라."

"아 왜 가지 말래느냐?"고.

"아이, 거기는 일단 가지 말라."

그러더래. 그래 좌우간 중국 일대를 댕기는 판이니 뭐 가지 말래는데 부득이 더 갔단 말이야.

가 보니깐 한 집에, 영업집에 간판을 딱 써 붙였는데, 뭔고 하니, 술 한 잔에도 천냥, 뭐 하룻밤 자는 데도 천냥, 딱 간판에 써 붙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 아 이거 세상에 났다가 거기를 누가 들어가우? 거길 들어갈 사람이 없단 말이야.

"에이 깐놈의 세상에 났다가 한번 거기 들어가 본다."

고 들어갔는데 뭐 그냥 참 거 중국의 미인이 말이야, 그냥 으리으리하게 있는데, 이놈이 거기서 일배일배 부일배로 술을 먹었는데, 그 집에 편지만 보내고, 돈 가져와라 하고, 그 뭐 집에 갈 생각도 않고 세상에 뭐뭐 그냥 거기서 노다지 치는 거야. 집에서 돈 보내면 뭐 사우가 그렇게 돈 잘 부는 놈이 막 가져올 줄 알고 차꾸 대줬다 이 말이야. 그래 그 많던 돈을 다 털어먹었어. 그러니 인제 별도리 없이 가야 되겠다 이거야. 인제 그놈이 딱 나오다 생각하니 참 그 많은 돈을 다 디밀었지. 그래 이놈이 거 돌아서, 대문꺼정 나오다 돌아 들어가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표시라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자가,

"그럴 줄 알았다."

고 그러고, 거 부싯점[2] 있잖아요? 부싯점. 아 이거나 가지고 가지라고 그러거든. 그걸 가지고 인제 한 십리쯤 나오다가,

"이놈의 꺼가 뭔데, 내가 살림을 전부 다 인제 여기다가…."

그래 꺼내 보니까 부싯점인데, 패대기를 시장바닥에 쳤지. 아 그래 "쩔렁" 한단 말이야. 그래 그걸 집어들고 보니까 진짜 돈 석 냥이 들어 있거든. 그래 돈 석 냥을 빼 집어넣구는 또 들머치니까, "쩔렁"하며는, 아 이 한 번만 들러치면 석 냥씩 나오는데,

"야 이거 참 조화로구나."

그래 그놈을 집어넣구는 인제 집에를 오니 그 장인 장모가 머리를 싸고 싹 드러누웠단 말이야. 그래 뭐 가니까 마누래는 그래도,

"아이구 당신 왜 인제 오시느냐?"

고 그리니깨네 그래도 든든하지.

"그러나 저러나 어머이 아버지는 지금 골을 싸고 저 방에, 저기 밥도 안 잡숫고 메칠째 아주 드러누셨습니다."

라고. 가서 인사를 하고,

"아 이거 사우 왔습니다. 일어나 진지 잡수시지요."

그러니깐 돌라도 안 보고 낑낑거리고 앓는단 말이야.

"아 거 돈이란 것은 있다가도 없지 뭐 그렇게 그러시냐?"

고 간단히 달래서 인제 저녁을 채려서 먹고설랑에,

"그래 어떻게 돼서 너 그래 그 많은 재산을! 너 광에를 좀 가 봐라. 독독이 전부 돈이며 쌀이며 꽉 찼던 거 하나도 없다. 니가 갖다 다 없애서 말이지. 그러니 내가 안 드러자빠질 수가 있느냐?"

"아 이거 하나면 다 돼요."

그래 쌈지를, 목침을 놓고는 한번 딱 치니 "짤랑"하거든. 꺼내면 석 냥씩 들어 있단 말이야. 그래 그 두 내우가 정신없이 밤새도록 디리[3] 부치지 기는데 말이에요, 그놈의 광이고 뭐고 돈이 그냥, 은전이 그냥 꽉 들어차.

그래서 그 집이, 그 사람이 관상도 잘 보고, 거 부자가 되고, 거 사우가

2) 부시줌치. 부시쌈지. 주머니. 3) 들입다.

잘 살게 됐다는 거, 간단히 얘기해야지. 그래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 남태희, 남·71.
* 남면 시동3리, 1987.7.8., 김성수 김방경 김요섭 정은정 곽노실 정명수 용정실 성길제 조사.
* T. 4—8—2
* 구연자가 중언부언한 부분은 삭제하고 정리했음.

남의 점을 쳐 주고 부자가 된 머슴

석숭[1]이라는 사람이 저 중국 살았어. 조실부모하고 남의 집을 살어. 아 이놈의 팔자가 이렇게 가긍헐 수가 있나? 저 서천 서역국 통체는[2] 점쟁이가 있단 소리를 듣구 인제 그 머칠[3]이 되도 가 불라구 거 한 오륙년간의 세경돈[4]을 찾아서 짊어지구서는, 엣날은 엽전이니까, 찾아가지. 그 점쟁이를.

날이 저물어서 밤을 지내야 되겠어서 보니깐, 한 군데 불이 반들반들하거던. 그래 찾아가니깐 남자는 없구 여자만 혼자 사는 집이야. 아 그 과부가 돼 가주구서는 시집을 갔는데 또 과부가 돼서 이제 시집을 안 가기루 작정하고 여기 와 있다 그거야. 아 그 여기서 또 길[5]이 머나니깐 아 멀구 말구, 뭣이 삼십리 가야 된다구, 그라니 밤을 지내구 가자니깐 아 그렇게 하라구 그래 거기서 밤을 지내고 또 가지.

그 이튿날 또 가대니깐 암자를 만났어. 중이 혼자 사는 암자를 만났어. 밤을 좀 지내구 가자니깐 아 지내라구. 그 중이 대우를 잘 하거던. 고맙다구 인사를 하니까 그대 무신 사를 가느냐구. 서천 서역국 아주 길흉 판단 잘 한대는 점쟁이가 있어서 점하러 간다구. 그렇게 점을 잘 하거던 내가

1) 石崇. 중국 晋나라 때 돈 많기로 이름난 사람. 2) 용한. 3) 며칠. 4) 새경. 사경(私耕). 5) 또 다른 집이 있는 곳까지의 길.

저 뜰 앞에다가 남구를 하나 심궜는데[6] 그게 한 육년간 됐어두 고대루 있으니 그게 왜 그런지 좀 점을 해 달라구. 아 그거야 힘 안 드는 게니깐 점해 가주구 온다구. 오다 들린다구. 그래구 가지.

그 이튿날 또 가지. 아 큰 강이 앞에 놓였는데, 가는 길 앞에 놓였는데 배두 없구 사공두 없어. 그래 강가에 오두만히 앉았는데 아 강물이 확 끓더니 아주 세상에 무서운 구렁이가 나오거덩.

"너 날 잡아먹을라구 나오니?"

그래니까 아 그 아니라구 그래.

"그럼 날 이 강을 건네 줄라구 그러니?"

"그렇다."

구 그래. 아 눈을 감으라구 그래거덩. 구렁이를 타구서는 눈을 감으니깐 어느 절에[7] 건넸는지 건네 놨대. 그래 건네 놔 주군 하는 소리가,

"내 올 적에두 건네 놔 줄 테니깐 너 점하러 간다니 내 점 좀 해 다구."

"아, 그래라."

"내가 이십여 년을 여기서 컸는데 용이 생전 안 된다. 안 되니 우째서 거 용이 안 되는지 그것 좀 점을 해."

"아 그래라."

아 그래 남의 부탁을 많이 듣구선 가서 점을 했단 말이야. 허 참, 제 점부텀 하지.

"내 조실부모하구 그래 선생님을 찾아왔으니 명백히 좀 일러 달라."

그래니깐,

"에 그 내일부터는 무량대복[8]이야. 아주 복이 엄청나. 아주 돈복이 생겨. 그래니깐 걱정 없다구."

그래 남의 부탁을 받은 점도 치고 오다니깐, 강에 오니깐 나왔단 말이야, 구렁이가. 구렁이가 건네 놔 주러 왔어.

"너 내 점 했니?"

---

6)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7) 어느 결에. 8) 無量大福.

"그래, 했다."

"왜 안 된다더니?"

"니가 이십여 년을, 또 이십여 년을 있어두 용 안 된다 그래드라."

"왜 그러냐?"

"너 여의주를 둘을 가졌대드라. 하나만 가졌음 벌써 하늘에 올라갔을 텐데 둘 돼서 안 된다드라."

"아 그래? 그래니 그렇겠다."

강을 건네 놔 주군,

"너 여의주 하나 가져라. 난 둘씩 있으니. 그게 쌀 나오라믄 쌀 나오구 돈 나오라믄 돈 나오구 아 의복 나오라믄 의복 나오구 그런 구실[9]이란 말이야."

아 그걸 얻었으니 부재[10]지.

아 가다가, 인제 구렝이를 이별하구 가다가 날이 또 저물었네.

"에이 이왕 잘 테면 기중[11] 큰 집을 찾아가 자야 되겠다."

구 그 가민서[12] 집을 보니깐 기중 큰 집이 하나 있거덩. 게 주인을 찾으니깐 아무 기척이 없어. 중문에 들어가서,

"이리 오너라."

소리를 지르니까 아무 기척이 없어. 마지막 문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니까 여자 소리가 나.

"이 집이는 소녀가 혼자 사는 집이요."

"우째 혼자 사오?"

그니까,

"여때 식구가 살다가 일곱 식구가 사흘만 지나면 하나씩 사망돼 오늘 지냑[13]엔 내가 죽을 차렌데 손님네를 쉬어 가라구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참 딱한 노릇이거던. 집은 훵하니 크구. 예전에 황초라구 있어. 벌의 꿀로 만든 거. 황초 있느냐구 물으니까, 황초 있다구. 있는 대로 내노

9) 구슬. 10) 부자(富者). 11) 가장. 12) 가면서. 13) 저녁.

라구. 그저 뒤나 앞이나 방마둥[14] 불을 환하게 켜구 밤새길 하네. 촛불을 켜 놓구 밤새길 하는데 한밤중이 되니까는 아 웬 군복까지 한 놈들이 대문을 들어서더니 뜰에 그뜩 들어스거덩.

"느가 대체 무어냐?"

물으니깐,

"앞강에 조조대군이 망가질 적에 물에 빠져 죽은 군인이다. 군인인데 고향을 갈라구 맘을 먹구 나와 보믄 권능산성에 비가 섰어."

권능산성이 조조를 망하게 했거덩. 아 거 〔비석이〕 무서워서 못 가구 물귀신 노릇만 하구 있는 거야.

"고향을 가야 할 텐데 아 그 비석 때문에 못 가. 아 비석만 자리를 옮겨 놔 주믄, 이 길만 열어 놔 주믄 가겠다."

아 그래 그 이튿날 나와 보니깐 제갈공명의 비석이 거기 섰거덩.

"아 이 비석이 무서워서 못 갔구나."

아 그래 인부를 두엇 사 가주구서는 그 비석을 자리를 옮겨 돌려앉혔어. 돌려앉혔는데 그날 지냑에 또 왔네. 그날 지냑을 또 거기서 자는데, 그 촛불을 켜 놓구서 지키니까 또 그와 같이 들어오거덩. 들어오더니 비석을 돌려세워 〔주어서〕 고맙다구, 아주 백배 절을 하구 이젠 고향을 잘 가겠으니 그저 만수무강하라구.

그 이튿날 떠날라구 하니까 여자가 그래거덩.

'나는 이젠 부모두 없구 외톨이 여자루서 의지할 데가 없어. 그래니 노비 전답 문서를 당신을 줄 테니까 거간하라'구. 게 같이 살자는 게지. 그래 아 노비 전답 문서를 한 꾸러미 내 주거덩. 아 보니까 그게 무량대복이야. 또 돈이 생겼단 말이야.

아 그래두 내가 고향은 갔다 와야 할 테니까 떠난다구. 떠나서 그 절엘 왔어. 절을 오니깐,

"아 그래 내 점 했느냐?"

14) 방마다.

"아 점을 했더니 미련하다 그랩니다. 금방석을 깔구선 그 꼭대기다 남굴 심겄으니 생전 크느냐? 안 큰다구 그럽디다."

"난 금은 소용 없으니까,"

중 말이,

"인부를 들여 줄 께 그거 헤 가라. 그 낭군[15] 근디리지 말구 땅음 파구서는 금만 빼가믄 된다."

아 그래 인부를 사서 파니깐 금방석이야. 너레반석 바위야.[16] 그 꼭대기다 남굴 심겄단 말이야. 그래니까 그 뭐 땅 파낸 흙음 도루 디리밀고 금방석을 은었으니까 또 무량대복이지.

아 그래구 거기서 떠나서 고향집에 오는데 처음 만내던 그 과택 여자를 만냈단 말이야.

"그래 내 점을 하니깐 어떻든?"

하니까.

"이제는 시집가서 돌루 뚜드려도 죽지 않는다구 그럽디다."

"아 그러면 당신 연령이 근사하니 같이 살자."

"아이 난 정해 논 데가 있다."구

"아이 난 작은마누라 노릇하믄 되지유 뭐."

아 그래 무량대복으로 석승이가 잘 살다 죽었대.

* 이한익 군의 할아버지, 남·82.
* 홍천읍 와동1리, 1987.7.11., 전신재 허남춘 이홍식 이원미 조사.
* T. 6—1—2
* 구연이 장황하여 중간의 몇 부분을 삭제하고 정리했음. 석승이 맨 처음에 만난 과부가 자기 신세를 점쳐다 달라는 부탁을 했을 텐데 구연자가 그것을 망각했음.

15) 나무는. 16) 너러바위. 盤石.

잠이 들어 낙방한 사람

한 사람이 학상들 모냥으로 공부를 잘해 가지구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는데 아 노자돈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래 한 부자집에 가서,

"이리 오너라."

그러니깐 〔그 집의 종이〕 나왔어.

"내가 시골 사는데, 지금 경상도 사는데, 서울로 과거 보러 가다가 노자돈이 떨어져서 너집에서 하루저녁 자야겠다고 일러 줘라."

종년이 들어갔다 오더니,

"글을 잘 하거든 들어오시랩니다."

그래. 그래 과거 보러 가는 놈이 글 못한다는 소리는 못 할 거 아니야? 글자나 한 자 달구 가자구 들어갔는데, 여자가, 그 집에 색시가 하나 있는데, 글을 재자구 왔어.

노인산하에 소년행이야.[1] 젊은 사람이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그 댓구를 짓기를〕 백마강변에 황독명이라.[2] 흰 말 강가에 누런 송아지 울어. 젊은 사람이, 글 배우는 사람이 오다가 백마강을 건너는데 누런 송아지가 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신랑을 얻을려고 말이야. 인제 글 잘 지으니깐 연애할려구 말이지. 이번에는 남자가 먼저 지었어. 장내도리수난견이리오?[3] 울타리 안의 복사꽃과 오야꽃을 누가 보겠느냐 말이야. 규중 여자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짓는 거지. 수중부용소무경이라.[4] 물 가운데 꽃은 조금도 놀람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글을 지었는데 아 어느때 들어오라고 할런지 알 수가 있나? 여자가 들어

1) 老人山下少年行. 2) 白馬江邊黃犢鳴. 3) 牆內桃李誰難見. 4) 水中芙蓉少無驚.

오라고 해야 들어가잖어? 어느때 들어가느냐 이거야. 그래 여자가 조금도 눌람이 없다니까 〔들어오라는 말이긴 한데〕 어느때 들어오라 하나 하고 바랬단 말야. 봉시하시우하시[5]냐? 이때 저때 어느때 들어오라더냐? 이거야.[6] 그 뒤에 계명산이 있거든. 그 여자가 계명산상월출커든,[7] 계명산에 달이 뜨거든 들어오라. 그래 꼭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배도 고프고, 과거를 하러 가느라고 걸음을 많이 걸었는데, 이 달 돋을 때를 바래고 목침을 비고 드러누웠단 말이야. 아주 잤지 뭐. 〔청중 웃음〕 그래 서울 가 과게[8]도 못했단 거야. 그 여자가 죽었어. 남자 들어오길 기다리다가 죽었단 말이야. 그래 서울 가 과게도 못하고 죽은 거야.

* 민병찬, 남·82.
* 동면 성수리 경로당, 1987.2.12., 전신재 강동규 조남혁 조사.
* T. 1—5—2

여인의 도움으로 장원급제한 사람

옛날에 참 한 사람이 살았는데, 아버이는 죽고 어머니하구 참 그렇게 살구 있는데, 아들이 쬐끄매설라무네 어느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래 이걸 글을 가르치는데 시방 같으면 뭐 학교에서 가르친다지만 그전 옛날에는 한문서당밖에 없으니까, 한문서당을 참 배울려니 살림이 곤궁하니까 어쩧게 갈 수도 없고 그래설라무네 어머니가 그 선생님을 쫓아가서,

"자 이거 선생님. 이 애비도 없는 자식 글을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뭐 있어야 가르치지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동냥글을 배우게 됐어요. 남이 나가 놀면 선생님 앞에 책을 빌려

5) 逢時何時又何時. 6) 이제까지 젊은이는 다른 방에 있으면서 종을 통하여 색시와 漢詩를 주고 받았음. 7) 鷄鳴山上月出時. 8) 과거.

가지고서 배우고 또 이제 아이놈들이 배울 적에는, 그전에는 군판[1]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군판, 군판도 빌리지 붓도 빌리지 먹도 빌리지 그저 다 빌리지. 아주 정신일랑 대단해 가지구서 한 자를 가르쳐 주면 두 자를 알려고 덤벼들어요. 정신이 그렇게 좋다구. 그래서 다 배웠는데 그 여러 사람 배우는 친구 안에 그 사람이 매일 접장 노릇을 했어요. 시방 학교로 말하면 〔조사자: 반장이요?〕 에, 반장. 반장 노릇을 했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그 곁에 사람이 하는 말이,

"아 저놈의 자식 동냥글을 배운 놈의 자식이 저거 접장을 주니 저거 머리가 벅벅 굵힐 지경이란 말이야. 햐, 이거 기가 백히구만. 책 다 빌려 줘, 군판 다 빌려 줘, 먹 다 빌려 줘,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저놈한테 꿀리느냐 말이야. 저놈이 저렇게 접장 노릇을 하니 이제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다."

말이야. 글을 잘 해서 접장 노릇을 하니 '접장님, 접장님' 모두 그러는 거지 어떡해?

아 그래가지구설라무네 몇 해 배웠는데, 한 적에는 아 나라 임금님이 과거를 뵈인다 하니, 여느 아이들은 말이야, 돈이 있으니까 말이야, 제 말 제가 타구 제 돈 가지구설라무네 모두 과거를 보러 가는데, 자 이 사람은 갈라 그러니까 돈이 있나요? 말이 한 필 있나? 헌 누더기를 누덕누덕 고쳐 가지고설라무네 다 떨어진 새털, 그것도 참 빨아 걸쳐입고 다니는 판인데 뭐가 있어야 가지. 집에 와서 방에 들어 앉아 가지고 끙끙 앓아요. 그러니까 어머지가 있다가 하는 말이,

"너 왜 어디 아프냐?"

"아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끙끙 앓기만 하느냐?"

"괜찮아요."

지 어머니가 있다가 하는 말이,

1) 분판(粉板)이 맞음. 분을 기름에 개어서 널조각에 발라 결은 물건. 아이들이 글씨 연습하는 데에 씀.

"너 여느 아이들은 말짱 과거를 보러 간다고 하는데 넌 가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이웃에 잘 사는 장자집이 하나 있대요. 떡 찾아가서,

"말이나 한 필 좀 얻을까 하고 왔습니다."

"말은 뭘 할려고 그러는고?"

"나 자식이 있는데, 과거를 좀 보러 간다고 〔하는데〕 지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말을 좀〕 어떻게 빌려 주십사고 왔습니다."

"그럼 그 맘 먹은 생각이 기특하니 말 한 필 가져가라."

말이야. 나가설라무네 말을 끄내 주는데 아주 빌기[2]가 다 먹은 놈의 말, 빌빌하고 그러는 걸 한 필 준단 말이요. 그걸 떡하니 가져와설라무네 헌 누더길 빨아서 입고 떡하니 갈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가지. 지 어머니가 그전에 머리를 길러 가지구서 달비[3]를 짤라서, 달비를, 그걸 모아서 만들어 판 돈이 석 냥인가 뭐, 그전엔 냥이라구 그랬어요, 그렇게 있더래요.

"너 이거밖에 없다. 가져가라."

줘 가지고 왔는데, 시방이면 오늘 갔다 내일로 오지만 그전에는 며칠 갔다 온 모양이야.

한 군데 가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설라무네 참 이렇게 보니까 한 집이, 어두운데, 불이 번들번들해설라무네,

"주인 양반 계십니까?"

하니까 아주 젊은 새댁이 나온단 말이야. 나오더니만,

"왜 그러십니까?"

"그러나저러나 날이 저물어설라무네 지나가는 행인이 하루저녁 묵어 가자고 찾아왔습니다."

"저 혼자 있는데 딴데 가 보시죠."

"아 시방 인가골을 갈려니 이런 데서 인가를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 여하튼 그저 방 없으면 봉당이라도 빌려 주십시요. 봉당에서라도 자고 갈 데

2) 비루, 개, 나귀, 말 등의 피부에 생기는 병. 온 몸에 점점 번지며 털이 빠짐.
3) 다리. 여자의 머리털의 숱을 많아 보이게 하려고 덧넣는 딴 머리.

니까."

"내가 사람을 안 들이면 안 들이지 어떻게 봉당을 드립니까? 정 쉬어가실라면 뭐 들어오시지요."

떡 하니 들어가서,

"바깥 양반은 어디 가셨소?"

어디로 출입을 가셨는데 며칠 있어야 온다고 그러더래.

조석을 내설라무네 차려줘서 먹고, 엣날에는, 시방은 그런 역사가 없지만, 시방은 남녀동등권이라 그러지요, 그전 엣날에는 남녀동등권은커녕 뭐 칠세라 그러지? 〔조사자: 남녀칠세부동석이요〕 남녀칠세부동석이라 그러지. 그래 일곱 살만 되면 서로 색을 기[4]한다 그러는데 한 방에서 자게 되니 아마 다 좋지 않을 거야. 그래 자는데 주인 새댁이 바깥에 나가더니 긴 장대를 가져오더니 방 복판에 놓고,

"손님이 쉬시는 데는 객실입니다."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내실로 인정하라."

고 해서 장대를 갖다 놨는데 슬금슬금 발이 꼭대기로 올라가요. 슬금슬금 발이 내려온단 얘기야. 그 새댁이,

"손님, 손님, 잠을 헤피 주무시냐?"

고 말이야.

"아 어떻게 고단하고 그런지."

점점 더 올라가.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얘기하기를 말이야, 장 그럴 때는 언약을 하자 이거야. 언약을 하자.

"뭘 언약을 할려느냐?"

니까,

"그러면 당신은 웃방을 출입하니까, 나도 아버지 덕택에 글자나 읽었으니까."

---

4) 忌.

여자가 하는 말이,

"글자나 읽었으니까 내가 글을 한 귀 부를 테니까 댓귀를 넣어라."

말이야.

"나도 과거 보러 가는 사람이니까 한 귀 불러라."

그래 글을 짓는 거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생각건대는 말이야 천생연분이 내한테 오지 않았는가 이래서 내가 술상을 차려 서방님을 모시려 그런다 말이야. 〔남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거든. 아 안 된다 말이야.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문제니까 여하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아 그럼, 정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거들랑 내가 글을 한 귀 부를 테니까 그거 댓귀를 넣으시오. 고당신정이어든."

아니 채울 수가 있나? 밥상을 들고 들어온단 얘기야.

"다 됐습니까?"

"아 안 됐습니다."

"그럼 밥을 잡수시면서도 생각하시오. 댓귀만 생각하시면 내가 그저 당신 부인이 될 테니까 채우시오."

아 이 남자가 댓귀를 못 채우네.

"이제는 안 되는 거니까 손님 저 밖에 나가서 종아리채를 가져오시오."

말이야. 안해 가지고 올 능력 있나? 아 호령이 소리처럼 하는데. 밖에 나가서 떡 꺾어 오니까,

"올라 서시오."

걷어라 이거야. 한 번 탁 후려갈기는데 어이 종아리에서 피가 날 지경이지 뭐.

"그래 그만한 글 짝을 못 짓는 분네가 아 어떻게 되설라무네 객실에서 내실을 무단 출입하려고 드십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종아릴 맞아야 된다 말이야. 딱 또 한 대 후려갈기더니만 그제서 하는 말이,

"고낭신정이어든 곡부려청산곡이라."[5]

엣 정을 버리고 새로 새 정을 붙이니 엣 애비는 청산에서 우나니. 고낭신정이어든 곡부려청산곡이라.

그 여자가 과부야. 남편이 죽고 혼골로 있단 말이야. 그래 그만한 걸 뎃귀를 못 짓는 남자가 어딜 그렇게 그러냐고, 빨리 가라 말야. 헐 수 없이 신발 신고 덜렁덜렁 서너 발짝 나왔는데 집도 절도 없고 너레번석[6]밖에 없더래요. 그건 산신령이 준 글이다 말이야. 그걸 외었단 말이야. '고낭신정이어든 곡부려청산곡'이라 말이야.

서울 장안에 거반 들어가 〔어떤 집에〕 떡 앉아서 있는데 〔그 집 주인인〕 늙은이가 보니까 헌 옷을 입었을망정 사람이 똑똑하게 보이더라 이거야. 얼마 있다가 보니까 어느 여인이 술상을 차려 가지고 문을 빼끔히 열고 들어오더니 무릎을 착 꿇고 앉아서,

"서방님, 술이나 한 잔 드시지요."

자, 이거 보지도 닿지도 못한 여인이 술상을 들고 오니, 그거야 받아먹을 작정인가 안 받아먹을 작정인가, 거 껍껍한 일 아니에요?

"어떻게 되설라무네 이렇게 차려 갖고 오셨습니까?"

그 내막을 물으니,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랫간 계시는 이가 우리 시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죽은 지 오늘 저녁이 삼년상이라' 말이에요. '우리가 영업을 했는데 우리 남편 죽고 일절 손님을 안 들였다'는 얘기에요.

"오늘 처음으로 손님을 들였는데 삼년상 나가는 날이 오늘 저녁이에요. 오늘 처음 손님을 받으니까 제가 생각컨대는 천생연분이 내한테 오지 않았는가 이래서 제가 술상을 차려 서방님을 모시려고 그럽니다."

말이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거든. 아 안된다 이 말이야.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문제니까 하여튼 안 됩니다."

---

5) 高朗(혹은 舊郎)新情 曲不如(혹은 哭爻慮)青山哭(?) 6) 너러반석(盤石). 너럭바위.

"아 어떻게 안 됩니까?"

"아 그럼, 정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거들랑 내가 글을 한 귀 부를 테니까 그거 댓귀를 넣으시오."

말이야.

"나도 부모 덕택에 글을 좀 배웠으니까 어디 좀 불러 보시지요."

그 여자가 그러거든. 그래 거기설라무네 그 글을 썼어.

"고낭신정이어든."

한 줄 딱하니 불렀는데 이걸 댓귀를 넣을 수 있냐는 얘기야. 시간 여유를 두고 언제까지 꼭 댓귀를 안 느면[7] 안 된다 말이야. 시간이 됐는데 못 짓거든. 냅다 거기서 호령을 하면서,

"그런 여자가 아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데 어딜, 남녀유별한데 어딜 들어와서 말이지 댓귀를 못 지으시오? 고낭신정이어든 곡부려청산곡이라."

옛 정을 버리고 새로 새 정을 붙이니 옛 애비는 청산에서 우나니. 그 여자한테 닿는 글이에요. 혼골로 삼년을 지내고 그날 저녁이 마지막이거든. 가만히 생각하니 그게 다 내한테 해당되는 얘기거든.

그러자 마침 시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손님을 들였는데 행색이 괜찮은가?'

하고 가만히 들으니 조용하단 얘기야.

'벌써 자나?'

딱하니 귀를 기울이니 호통소리가 나는데 굉장히 나거든.

"고낭신정이어든 곡부려청산곡이라."

시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시아버지가, 낼은 과거를 볼 텐데, 상시관[8]이란 말이야. 나라의 상시관이라면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문을 펄떡 열더니만,

"그대 잠깐 나 좀 보자. 내가 할 얘기가 있으니 아래간으로 오라."

---

7) 넣으면. 8) 上試官.

고. 그대 참 훌륭한 사람이라 말이야. 과거 보러 왔으면 낼 아침 과거는 잘 보게 내가 해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글귀를 써 달라고 말이야. 글귀를 베껴서, 낼 아침은 이 글귀를 여러 사람이 알 리 없거든, 이 글귀를 낼 테니까 그저 써 들여라 말이야. 그러면 장원급제를 시켜 주마. 그렇게 그 옛날이나 시방이나 참 한 가지는 다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침에 모든 글 다 버리고서 그 사람을, 그 글을 내 걸어서 장원급제를 시켰어요. 장원급제를 시켜 가지고서, 그전에는 신래[9]라는 게 있었어요. 장원급제를 하면 나라 임금님 앞에 가설라무네,

"이제 급제하였습니다."

하구 뵈고, 상시관이나 이제 하시관이나 이재 중시관한테도 가 가지고,

"급제했습니다."

하고 뵈야만 낮이 익으니까 말이야. 그래 떡하니 주인집을 찾아왔지. 찾아왔는데, 그 주인 영감이 낮에는 상시관 노릇을 하고 밤에는 떡하니 만나세는 하는 말이,

"내가 살림이 이제 이거하고 그러는데 아주 아들이 외아들이야. 외아들을 두었다가 장가들였는데 딱 죽어버렸으니 난 아들이 없어. 난 며느리조차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들 노릇을 해다. 저 며느리 데리고 가서 살림살이 하면서 내 아들 노릇해라."

말이야. 며느리를 불러설라무네 예를 치러 줬어. 그러구 살림살이를 아주 한 반을 혹 떨어줘 버렸단 말이야. 여기서 눌러 살림해라 이거야.

"집에 내려가서, 부모네가 있으면, 부모네 모셔와라."

"부모네라면 어머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어머님 모셔와라."

말이야. 나졸을 내려보내 가지고설라네, 그전 옛날에는 가마라 그러기도 하고 장들깨라고 그러기두 하구 그래요, 내려가서 어머니를 모셔다가 떡하니 참, 그래설라무네 장원급제를 해서 자손만대에 부귀영화를 해 가면설라

9) 新來.

무네 그 영감 아들 노릇하면서 그렇게 잘 살더래요.

사람이 복을 타고 데어나면 잘 사는 법인데.

* 이원의, 남·65.
* 남면 용수리, 1987.7.7., 이홍식 박형규 최정희 김석주 조사.
* T. 3—2—1, 3—2—2.

두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머슴

엣날에 없어서[1] 남의 집을 사는데, 날마다 품앗이를 해설라무네 일을 하고 남의 밭도 매고, 인제 남의 일을 가서 이렇게 두릿두릿하니까 일꾼이 한 여남은 되더래요. 여남은 되는데 가서 김을 매다 쉴참에 즈 친구들, 아래되는 사람도 있구 웟되는 사람도 있구 친구들도 있구 그런데, 친구들더러 하는 소리가,

"애야, 뭐 난 어제밤 꿈을 하나 잘 뀠다."

이거야.

"술 좀 내. 해몽을 잘 해 줄 께."

그러니까,

"꿈은 잘 꾸었지만 얘기는 못해 줘."

이거야. 그러니까 여럿이서,

"그 어제 꿈을 잘 꾼 꿈이니 왜 얘길 못해 주니? 왜 그럼 꿈을 잘 꿨다고 얘기해니?"

하니까,

"하도 잘 꿔설라네 나만 알고 있지 친구한테든 누구한테든 얘긴 못해 준다."

1) 가난해서.

이거야 아 해 달래거니 안 해 준다거니 거기서 싸움이 나 가지고선라네 인제 치구받구,

"이 자식아 왜 꿈 얘기를 하고 어드메 안 해 주고 어쩌니?"

이래서 싸움이 나는데, 옛날엔 암행어사가 이렇게 지나가면 나졸들이 먼저 길을 나가고 이랬는데, 암행어사가 출두하려고 〔나졸들이〕 길을 가다 보니깐 밭에서 그냥 여럿이 한 놈을 막 두들기거든. 그래 이 사람네가 물었어.

"그래 왜들 그러냐?"

구 그래니깐,

"아 이 자식이 누가 묻지 않는 소리를, 일을 하다 쉴참에 담배를 태다, 엊저녁 꿈을 참 잘 뀌었다고 해서 꿈 얘기를 하라고, 우리가 해몽을 해 줄께 하라고 하니까, '나만 알고 있지 꿈 얘기는 안 한다'구 그랩니다."

이거야.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잖어? 관가에 있던 사람들이,

"아 그럼 꿈을 뀌었을 것 같으면 꿈 얘기를 해 줘야지 원 니 자랑만 하고 안 해 주냐?"

고 그러니까,

"못 합니다."

이거야.

"아 이런 발칙한 놈. 이놈 관가로 데려가야겠다."

고 그냥 데려갔어요. 관가에 가설라네 암행어사께 고발을 하니까 암행어사가,

"그래 너 무슨 꿈을 꾸었느냐?"

그러니까,

"아실 것 없습니다."

이거야. 그래도 알 게 없대.

"애이 이놈아, 안 되겠다. 저기 옥사에다 갖다 가둬라."

해서 옥에 딱 갖다 가뒀어.

가둬서 가만히 눈을 꿈벅꿈벅하고 있는데 인제 그날 해를 다 넘겨. 그날 저녁에 자고서 날이 훤히 새는데 아 그 갇힌 문지방 밑으로다시리 구멍이

요만하게 있는데 골방쥐 새끼가 거기서 나오거든. 아 이놈이 화가 나서,

"이놈의 새끼가! 나는 여기설라네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너 뭐하러 여기 들어오니?"

그 쥐새끼를 톡 쳤어. 아 톡 쳤더니 죽어 버렸어요. 아 고만한 게 또 한 마리가 나와. 요놈도 방자스럽게 무릎을 톡 쳤어. 아 고놈도 또 죽었어. 아 그래 시[2]마리를 때려잡았어요. 아 그래구서 이렇게 있는데 한참 있더니만 거기서 뭐이가 버적버적 구멍을 더 파더니 이만큼 크게 파더래요. 파더니 수염이 이렇게 난 놈이, 큰 에미쥐가 이렇게 새끼 죽은 걸 보더니만 도로 돌아서 나가더래. 꼴구 가지도 않고 거기다 두고 간다.

'이상하다.'

생각했더니, 굴맥을 보자, 굴맥을 보고 있는데, 요만한 낭구갱이[3]를 물고 들어오더래, 자를. 그래더니 새끼 죽은 것을 내리재고 치재고 내리재고 세 번을 하니까 한 마리가 발딱 일어나, 고 구멍으로 쏙 들어가거든. 그래 또 한 마리 죽은 걸, 또 그놈도 살아서 쏙 들어가요. 시 마리를 다 재니까는 다 들어가거든. 그래 큰 쥐가 들어갈려는 것을,

"자 나 주고 가라."

고 했더니 이놈이 자를 떨구고 쏙 들어갔어. 그래 이놈의 자를 잘 해서〔호주머니를 가리키며〕 여기에 보관했어. 보관하고 쭈그리고 있는 거야. 옥살이를 하면서 쭈그리고 앉았는데 아 거기서 쑤군쑤군하길, 문지기들이 쑤군거리길,

'뭐 나라에서 임금님의 딸이 암만해서 병이 나서 죽게 되었다는데 왜 촌에서라도 아주 의사고 영한 점쟁이고 뭐고 있는 대로 무당이고 뭐고 구해 오래는데 영한 사람이 없다.'

아, 이래구 쑤군거리거든. 그래 이놈이 그 안에서 듣구,

"아 뭘요?"

이래거던. 그러니까 문지기들이,

---

2) 세. 3) 나무막대기.

"이 자식아 넌 알 필요 없어."

아 그러니까,

"아유 나도 듣긴 다 들었는데. 그까짓 것 고치지. 죽었어도 고칠 텐데 안직 죽지 않았으니깐 대단하게 고치지."

아 그러거든. 가만히 생각하니깐 죽은 사람 고친다는 건 생전 처음 듣는다 이거야.

"이 자식아 죽은 사람을 어떻게 고쳐? 병난 사람도 고치기 어려운데."

하니까,

"으이 병쯤이야. 죽은 것도 고칠라면 고쳐요."

'아 이거야 아 그것 참 이상하다.'

그래 참 암행어사한테 가 얘길 했어. 그러니까,

"아따 이놈이 잘 고친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럼 그놈을 어디 나라로 데리고 가 보라."

고. 아 이놈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절어서 가니 짚신 두 켤레 떨궈서 거길 갔어요.

앓다가 죽었어요. 죽어설라네 벌써 아주 전부 늘[4]에 넣었어. 나라에서 아 죽었는데 구해오면 필요없다고, 가라고. 아 그래 이 사람이,

"아 제길 죽은 사람 고치기가 뭐 그렇게 힘들담. 썩은 사람 고치기가 어렵지 죽은 사람 고치기는 쉬운 걸."

이거야. 그래 세상에 원 죽은 사람 고친다는 의사는 조선 땅에는 없거든. 그래 이놈이 하도 영허다니 어디 그럼 들어오래라 해서 이놈이 떡 들어갔는데 참 임금님이 물었어요.

"너 그래 죽은 사람도 고치냐?"

"썩지 않았으면 고칩니다."

"썩진 않았을 게다."

'참 이놈 이상하다'하고설랑, 시체방으로 들여보냈는데 늘에다 해설라네

4) 널.

전부 염한 것을 끄내서 풀어서 보니 자는 것같이 참 눈을 감고 있거든. 그래,

"이거 고칠 때 누가 문으로 들여다본다거나, 여기 문지기도 아주 싹 십리 밖으로 나가야지, 엿듣던지 하면 이 사람이 고치지 못합니다."

이거야.

"고쳐 놓고 내가 고쳤다고 외람[5]을 놓거든 물려오십시오."

그러겠다고 전부 아주 멀리 피신을 보냈어.

아 그래고 이렇게 참 시악시를 보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임금의 딸이라면 가꾸기도 잘 가꾸었을 테고 옷도 잘 해 입혔을 테고, 죽은 사람이지만 보물도 많걸랑.

'하 이것만 고쳐 놓으면 저 보물도 반쯤은 줄 텐데.'

하고서 쥐 재던 자막대기를 끄내설라네, 쥐는 쪼그매서 한 번 치재고 내리재기를 세 번 하니까 살았는데, 사람은 키가 크니까 내리재는 데 한참씩 걸리고 또 치재는 데 한참 걸려. 또 내리재서 세 번째를 재니까 발끝에 가서 떨어지는데 아 한숨을 푹 쉬며 슬쩍 돌아눕거든.

"허허 이것 참 좋긴 좋은 거로구나."

하고서 좋은 천 있는 데설라네 좋은 천을 찢어서 이 자를 잘 싸서 잘 넣었어요.

아 그래 병풍을 걷고서 문을 열어젖히고 미음이나 해다 먹이라고, 살았다고, 아 그래 외람을 치니까 죽어서 늘에다 넣었다 끄내 논 송장을 살렸으니 참 영한 의사거든. 아 그냥 다 몰려와 보니까 참 숨소리가 나요. 아주 배가 벌럭벌럭 숨을 쉬어. 그래 미음이나 해다 먹이라니깐 미음을 해다 떠 넣고 이래구선 부석부석 하더니,

"아 고단하다."

구, 이러구 부시시 시악시가 일어나서,

"머리도 빗어야 할 텐데."

---

5) 밖으로 소식을 전함.

아 이러거든.

당최 세상에 이렇게 곤쳐 놓고설라네 가만히 가서 있는데, 임금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깐 조선 땅엔 그런 용한 의사가 없거든.

'아, 어떻든지 나도 조금 더 살려면, 저놈을 돈을 주어도 안 될 테고 저놈이 가면 저놈 또 어디 가 사는지 알 수도 없고. 안 되겠다. 저놈을 사위를 삼아서 내 집안식구를 멩글어야[6] 조금 더 연장해서 살겠다.'

이거야.

사위를 삼았어요. 사위를 삼고설라네 참 거기서 호화롭게 사는데 하루는 중국에설라네 사신이 나왔는데,

'중국 임금의 외딸이 병이 나 죽게 되었으니 조선 땅에 용한 의사가 있다니 데릴러 나왔다.'

고. 아 그래 정부 명령이니 안 갈 수도 없고, 행차를 떡 나서설라네 가는데, 군사를 많이 거느리고 두만강께로 갔는데 큰 대호가, 배를 타고 건너가 내리는 데에 큰 대호가 엎드렸드라 이거야. 그래 꼭 거기서 호환에 갈 사람이 하나 있거든. 그래 여기서 호환에 갈 사람이 하나 있으니깐 하나씩 호랑이 앞으로 지나가 봐라 그러는 거야. 그래 배에서 내리면서 호랑이 앞으로 지나가고 지나가고 해도 아무도 탈취 안 해. 당최 이놈의 호랑이가.

아 그래 딱 임금 사위 하나가 남았거든. 아 이 사람이,

"나 하나니 내가 지나가 봐야지."

하고 지나가는데 앞엘 가니까 이 옷을 덥석 물더니 꼬리로 그 사람을 툭툭 치면서 그렇게 반가와 하더라 이거야. 아 그러더니 넙죽 엎드리면서 임금 사위 가랑이 밑으로 들어가더니만 일어나서 가는 거야. 아 뛰는데 꼭 붙잡아야지 떨어지겠어. 그래 귀를 붙잡고 사뭇 가는 거야. 이 잔등 저 잔등이 골목 저 골목 뚝 가더니만 큰 바위가 있는데, 큰 바위 아래 갖다 놓더래.

그 바우 앞에 갖다 놓더니 어델 가더니만 손바닥만한 풀잎사귀를 뜯어다

6) 만들어야.

가 갖다 주더래. 그래서 이 풀잎사귀를 받았어. 받아서 바우 앞에 앉아 있으려니까는 다 썩은 제 새끼를 물고 나오드라 이거야. 그래 틀림없이 이놈이 이걸 살궈[7] 달래는 거거든. 썩지 않은 것은 고칠 수가 있는데 이건 썩었으니 고칠 수가 있느냐 이거야. 날짜가 걸려서. 그래 큰일 났거든. 그래 호랑이더러,

"썩지 않은 것 같으면 내 곤칠 텐데 썩어서 곤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자꾸 대가리짓을 해 가며 곤쳐 달래는 거야. 그래 풀잎사귀를 이렇게 가지고 보니깐 그게 이상해서 풀잎사구를 죽은 것에다 쓱쓱 문지르니까 아 살더라 이거야. 살이 썩은 게. 아 그래 제 새끼 되뇌이는 것 자를 끄내 치재고 내리재고 하니깐 아 이놈이 살아서 굴로 툭 튀어 달아나.

아 그레더니만 호랑이가 넙죽 엎드리더니만 집어 신고 내뛰는데 어디로 가느냐? 중국의 임금 대궐 앞에 뚝 갖다 놓드래. 아 그래 여기설라네 데리고 갔던 군사들은 다 얼로 가고 혼자만 떨어졌드라 이거야. 중국설라네 가만히 생각하니깐 자기 딸이 죽은 지가 무척 오랜데, 다 썩었을 텐데 이놈이 어디가 자빠졌다가, 사신들만 들어오고, 인제 왔으니까니 괘씸하거든. 그래,

"저놈 들어오면 모가지를 쳐 버려야겠다."

그러니까 장담하고 고친대.

"이놈, 썩었을 텐데 어떡해?"

하니까,

"아 썩어도 뼈만 물러앉지 않았으면 고친다."

이거야. 그래 대접을 잘 하고 따지는 거야.

"벌써 죽은 지가 메칠 되는데, 상했을 텐데 곤칠 자신이 있느냐?"

곤친다 이거야. 시체방에다 재워 놓고서 병풍 쳐 주고 근방에 얼씬도 못하게 했어.

---

7) 살려.

그래 시체를 꺼내서, 풀잎사구로 쓱 문지르니 새 살이 나오고, 아 자로 시 번 치재고 내리재니까 살아서 숨을 쉬어서 그래 머슴을 해다 먹이니 여전히 색시가 됐어. 그러니까 살은 거야.

그런데 중국에서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용한 사람을 조선으로 내보내긴 내보내야 할 텐데 이놈을 내보내면 중국에 이런 의사는 도저히 없어. 붙잡아야 할 텐데 붙잡을 수는 없구. 그래서 이놈을 사위로 삼자 해서 사위를 삼아 가지구서 거기서 잘 사는데 〔사위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선에서 데리고 살던 임금의 딸도 생각나고, 타관이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하구서 중국 나중 얻은 여자더러 얘기를 했어.

'난 이만저만해서 조선에 아내가 있으니 우리 반반히 나가서 두만강 중의 섬에 가서 살자.'

고.

그래 거기로 나와 자리를 잡아설라네 거기다 집을 아담하게 짓고 큰 여자도 그리로 데려가고 중국 여자도 그리로 데리고 나와설라네, 거기 와서 사는데, 여름이 참 뜨거워설라네 강에나 나가 보겠다고 강에를 나가설라네 경치도 좋고 이런데 정신없이 이렇게 앉아 있다시리 호곤히 잠이 오드래요. 잠이 와설라네 다리를 쭉 뻗고 잔다는 게 거기서 드러누워 잠이 들었는데, 강물에다 한쪽 발을 담그고 잠이 들어 자는 거야.

아 자는데 여자들 둘이 점심을 해 놓고 들어올 때를 암만 기다려도 사람이 들어오느냐 이거야. 그래 여자 둘이 찾아 나오는 거야. 찾아나와설라네 보니까 거기 와서 바른 발을 물에 담그고 잠을 자거든. 그래 큰여자가, 저렇게 곤히 주무시는 것 깨울 수도 없고 내가 큰 여자니까 내가 바른 발을 들고 씻길께 작은부인더러 마저 왼발을 씻기라고 했어. 그래서 발을 하나씩 물에 담가서 씻기는데 이놈이 가만히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부인네 둘이 나와설라네 발을 하나씩 씻기거든. 아, 그때서야 그 남자가,

"하아, 내가 아무 때 머슴살 때 저녁에 꾼 꿈이 이제야 맞추어지는구나."

하더래. 그래서 조선의 여자가, 아 그때 무슨 꿈을 꾸었냐니깐,

"그때 없어서 남의 집 머슴을 살았는데 하루 저녁 일하고, 고단해 잠을

자는데 한쪽 어깨엔 달이 뜨고 한쪽 어깨엔 해가 떴더니 이제 꿈멤을 했구나."

그래더래. 그 자리가 지금도 그 섬중에 남아 있대.

* 정재수, 남·59.
* 서면 대곡리, 1987.7.9., 하남춘 이원미 이진주 강성관 조사.
* T. 2—6—1

장자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바보

그전 옛날에 미련한 놈이 있었단 말야. 아주 아주 미련하구 천치 같은 놈이 하나 있었는데 삼십먹은 노총각이야. 에미도 없고 애비도 없이 혼자 사는 노총각이야.

하루는 뜩하니 마당질을 하드라 이거야. 그래는데 뭐이 알록달록한 게, 아유, 거기 낼롱 올라앉아서 뻰이 쳐다보면서 노리더라 그 얘기야. 도리깨로 한 번 후려갈기니까 죽더라거든. 암만 잡아 봐도 뭔 놈의 짐승인지 세상에 알 수가 있느냐 이거야. 〔조사자:미련하니까요.〕 그럼 미련하니까.

이게 뭔 놈의 짐승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건너 인제 부자집에 이걸 가지구 인제, 그전엔 장자집이라 그러지, 들고 슬슬 갔어.

"이게 뭐유?"

이렇게 물었단 말야. 아 이거 호랭이거든. 호랭일 잡았다 이거야.

"아 이거 호랭일세."

이제 호랭일 잡으러 간다구 대장간에 가서 쇠 도리깨를 쳤어요. 아 쇠 도리깨를 쳐 가지구,

"내 호랭일 잡으러 간다."

이걸 잡으면 팔자를 고치니까 잡으러 간다구, 이 여기는 남한이지만 이북

땅엘 깊이 들어갔다 이거야. 강원도 금강산 일만이천봉을 들어갔어. 떡하니 들어가니까 아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고요하다 이거야. 아 큰일 났다 이거야. 뭘 먹어야 살지. 안 그래?

이맘때가 됐는지 가만히 보니까 저 밑에 불이 반짝반짝하더라 이거야.

'저기가 인간가?'

하고 찾아갔더니 안노인이 하나 있드라 이거야. 그래,

"내가 사냥을 왔는데 인가를 못 만나서 내 보니까 불이 반짝반짝해서 찾아왔노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두 오형제인데 시방 다 사냥을 나갔소. 근데 무슨, 뭐여, 도구를 가져왔소?"

"난 도리깨 하나 가지구 호랭이 잡으러 왔습니다."

도리깨 하나 가지구 호랭일 잡으러 왔다구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잖지. 아, 아들네는 다섯이 총을 가지구두 잡지 못하는데 이거 도리깨 하나 가지구 호랭일 잡으러 왔다니 같잖단 말이야.

"거 사랑에 나가 주무시오. 그러면 우리 아들네가 사냥해 가지구 올 거요."

도리깨를 구석에다 세워 놓고 건방지게 떡 드러누웠는데 아 〔오형제가〕 노루, 사슴, 곰, 돼지 하나씩 다 둘러메고 꽉 들어오는 거야.

"어머니, 이것 좀 삶으세요."

뚝뚝 잘라 이걸 먹고 떡하니 있는데,

"야 저기 사랑에 사냥하러 온 사람이 하나 있어. 가 봐라."

아 이놈들이 들어가 보니 거가 막히거든.

"아 근데 무기는 뭘 갖고 오셨수?"

"저 도리깨 하나 가지구 왔다."

구. 보니까 같잖거든.

"여기 도산대호가 있는데 내가 호랭이만 잡으면 난 나가요. 우리 아버지를 이 호랭이가 물어, 잡아가서 우리 아버지 원수 갚기 위해서 우리 오형

제가 여기 와 있어요. 그걸 잡아 주시겠소?"

"잡지."

이거 이랬단 말이야. 아, 아침 저녁을 잘 얻어먹었어. 잡는다 그랬으니까. 아침 저녁을 잘 얻어먹었어.

"아 점심을 싸야지?"

"아 싸야죠."

"뭘 싸요?"

"아 나는 장도칼을 찼잖아요? 난 다른 건 싫어요. 소금만 싸 줘요."

이랬단 말야. 소금을 싸서 줬어.

그래 떡하니 장도칼을 차고 소금을 싸 넣고 호랭이 사냥을 갔어. 산으로. 그리구 참 도래깨를 들고 말이지. 사냥을 갔는데, 호랭이 다섯 마리가 꼭 대기에서 내려오는 거야. 한가운데 큰 호랭이가 내려오더니,

"으 느덜은[1] 젊은 놈들이니까 딴 데 가 잡아먹어. 이건 내가 먹을 거야."

아, 이래면서 그러니까,

"예. 어머니가 잡수세요."

아, 이놈의 새끼 호랭이가 이러거든.

아, 훌렁 마시더라 이거야. [청중 웃음] 뱃속에 들어가 떡하니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이거야. 뭐 너털너털하더라 이거야. 배두 고프고 그 좀 먹을 게 있나 하구 본다구 천장을 멘저 보니까. 그래 장도칼을 뽑아 가지구 뚝뚝 잘라서 소금에 찍어서 먹었단 말야. 그러니까 간이구 콩팥이구 다 잘라 먹었어. 아, 먹으니까 이놈이 껑충껑충 뛰더니,

"헤에."

하더라 이거야. 그래 보니까 요만한 구멍이 있더라 이거야. 그래 살살 칼로 째고 나왔더니 호랭이 똥구멍으로 나왔드래. [청중 웃음] 나와 가주구, 인제 물이 있드래, 인제 옷두 빨구 그래구,

"여보 여보 빨리 좀 봐. 호랭이 다 잡았네."

---

1) 너희들은.

이놈의 호랭이가 새끼 호랭이를 죄 잡았드라 이거야. 내가 못 먹을 걸 날 먹으라고 했으니까 죄 잡아죽이고 죽었더라 이거야. 도리깨 가지구 이놈 치구 저놈 치구 해서.

"여보 여보 내려와. 호랭이 다 잡았어."

아, 이놈의 오형제가 내려와 보니까 다 잡아 놨거든. 기가 막히거든.

"아이구 형님, 죽을 때가 왔습니다. 그저 형님 마음대로 가져가요."

호랭이 가죽을 벗겼어. 척척 접어서 떡허니 허리에 찼단 말이야. 그전 그 엣날 호랭이 가죽이 그게 값이 많이 나갔다구. 호랭이 가죽을 한 짐 걸머지군 집으루 왔어. 즈 집으루.

울타리에다 떡허니 걸어 놓고 보니까 장자집 영감이 그게 또 욕심이 나서,

"야 그 내기를 하자."

"뭔 내길 해요?"

"우리 딸의 속곳을 훔쳐가면 딸을 줄 거구, 못하면 호랭이 가죽을 날 달라."

하, 이거 큰일 났단 말이야. 이거 이걸 다 뺏기면 큰일 났단 말이야. 아 울타리에다 가뜩 걸어 놓구 있는데 말이야.

"그러면 오늘 저녁에 오겠나? 훔치러. 딸애 속곳을 훔치러 오겠나?"

"가죠."

아, 건너다 보니까 물이 새빨개. 야산이거든. 그날 저녁에 빈대를 잡았어. 빈대 한 봉지를 잡았어.

"엊저녁에 왜 안 왔나?"

"어이구 산에 갔다와서 고단해서 못 갔수."

"내일 저녁에 오겠나?"

"가야쥬."

또 건너가 보니까 또 물이 새빨갛다 이거야. 그날 저녁에 베룩지[2]를 한 봉

2) 벼룩.

지 잡았어. 잡아 가지구 또 잤어.

"엊저녁에 왜 또 안 왔나?"

"어이구 별안간 배가 아파 못 갔어유."

이렇게 거지뿌렁[3]을 했어.

"내일 저녁에 오겠나?"

"어이구 가야쥬."

또 거지뿌렁을 했어. 이를 한 봉지 잡아.

"엊저녁에 왜 안 왔나?"

"아이구 우리 제수가 집이 제사래요. 내일 저녁은 울 할아버지 제산대요."

아, 그날 저녁에 보니까 조용하거든. 떡 가니까, 아 사랑에 들어가 보니까 애비하구 아들하구 상투를 맞대고 자거든. 그래 상투를 둘 다 동여뱄단 말이야. 에미가 발방아간에 있드라 이거야. 방애에다 잔뜩 동여매 놨어. 아, 부엌에 들어가니까 메누리가 절구통에서 자거든. 아, 사흘 저녁을 못 잤으니까.

보리를 털었어. 보리짚이 이렇게 있는데 딸년이 그 속곳을 안 잃어버릴려구 으슥한 곳에서 자빠져 자거든. 이 한 봉지, 베룩지 한 봉지, 빈대 한 봉지를 툭툭 털었단 말이야.

"애구 개루워.[4] 애구 개루워."

저고리를 벗어 휙 던지구, 치마두, 속곳두 저기 홱 버리구.

"여보 여보 이 집 딸 속곳 가져가오."

떡허니 장자한테 가서,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데리구 가."

그래서 장가를 들더래. 장가 들고 호랭이 가죽 팔아서 그 마을에서 잘 살

3) 거짓말. 4) 가려워.

드래요.

* 원삼용, 남·63.
* 남면 유목정리, 1987. 7. 9., 김문태 이홍식 김승혜 전계진 박형규 최정희 김석주 홍후남 조사.
* T. 3—5—2

民　　謠

勞動謠
儀式謠
非機能謠

소 모는 소리

[1]

이러 어 마라[1]바마바마마마
어어어 오치[2]오치

* 최천쇠, 남·78.
* 서면 길곡리, 1987.7.8., 김미영 이필용 이미한 현홍철 조사.
* T. 2--5—1

[2]

어이 저 마마 저기 방둥이 차일라 우조히 마마우
아냐냐냐 저 바우 미끄러진다 넘방아 떨어지면은 앉는다
이러마마 올라서 이 눔의 소야
어너히 마마우 돌아서이 좋으지
어너히 저 마마우 저 방둥이 새가지로 넘어 가거라 이놈의 소
마마마마 저놈의 마라소가 얼루 절리 가 눈이 없나 이러 마마우 지우
아지히 애 옳지 어너히 저우
아너히 아 저놈의 소 저 눈이 없나 얼루 절리 가 저저저저
저 방둥이 걸리면 베뚜기[3] 찢어질라구 아냐아냐 옳지나아

* 송석웅, 남·72, 두미리에서 태어나 이주 경력 없이 계속 거주.
* 서면 두미리, 1987.7.7., 허남춘 이원미 이진주 강성관 조사.
* T. 2—2—1

---

1) 똑바로 가라는 말. 2) 뒤로 돌아설 때 쓰는 말. 3) 배때기. 배.

3

이러 이러 이소야　　우리한번 쩽어보자
이러 어어어 이러　　눈가린다 투정말고
이러 마마마　　어서돌자 이마소야
연자매를 끌고돌아　　천석만석 쩽어보자
이러 이이러　　안보인다 하품말고
어서 가자 이소야　　이러 이러 마마마
이러 이소야　　한번 우리 돌아보자
이러 어어리 이러　　곡식에 첨성대지 말고
이러 이소야　　한번 우리 돌아보자
이러 이러　　제길로 돌그라 이소야
이러 이쯔쯔　　흔들거리지나 말고 오오
어서 돌고 돌아가자　　이러 이 마마마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전신재 조사.
* T. 6—9—1
* 1987.6.27~28일에 있었던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홍천 연자매놀이에 삽입된 것임.
* 밭갈 때 소 모는 소리가 아니라, 연자매 돌릴 때 소 모는 소리임.

4

이러 이러 쯧쯧 쯧쯧
이러 이러 어허 어우우
이러 빨리가자
이러 질[4]안에로 들어서소

4) 길.

이러 이러어
둘째 고랑에로 들어서소
이러 후 허후
제 이랑으로 들어서소
제 고랑에 들어서소
옆에 눈치를 보아가며
슬슬이 가려만 주게
이러 이러허
이러 이 밭자리를 빨리 갈구가면
이러 콩 삶은거에다 등게[5] 뜸물 타서
배가 부르도록 먹여줍세
이러 이러 와와와와와

* 이영법, 남·59.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조옥희 김성욱 조사.
* T. 5—9—1

5

어야 디어 이러 디어 냐냐냐냐
마라마라 어
어허 디러 시러
에이 아냐냐냐
여 마마마마
어디 드러서 어디여
허허 오허
어치 잘두 들어서게

5) 등겨.

어
이려 이어 냐냐
어디여서 저방댕이 보나 여
배를 깨기 쉽도이로서
이려 저 허
에 도라서게 아냐냐냐
어디 둘처 먼서게
이려 저려 머 마마
어느 뇨

* 문복환, 남·59.
* 남면 명동리, 1987.7.8., 이홍식 김승혜 전계진 김석주 조사.
* T. 3—3—1

6

1 이려 이려 골리니 슬슬 비켜 가거라
아냐 저 방데이 걸린다
방데이 비켜라
슬슬 돌아서 방데이 나무밑으로 슬슬 붙어 가거라
어려 마마
아냐 물러서라 어서 물러서
이려 아냐 아냐 아냐
마라소야 슬슬 이겨를 서라
이려 이려 저 나무 있다
나무 밑으로 슬슬 비켜서라
아냐 아냐 이겨서라
아냐 마라 이겨서
어디어 슬슬 나무뿌리 걸치니

슬슬 이겨를 서라
아냐 이겨서라
마라 지켜서라
후후후

2 이려 어디여 저 바우 갈게
밟으며서 가 이러 어디
이려 아 이러 어디 서
이려 저 방뎅이에 불알 다친다
슬슬 잘 잡아 다려러
안소는 찍어 다리고 마라소는 발 맞춰
이러 어디

3 어디여 이겨서라 너무 들어치지 마라
제 골에 들어서서 슬슬 나가거라
아냐 이겨서 마라소 너무 나간다
어디다 발을 들여놓나 이겨서
이려 이려 이려 어디어디 어디로 가나
이겨서라 어디여 슬슬 이겨서라
슬슬 이겨서라 어디어디
옳지 잘 한다
마라 마라 조금 이겨서라
어디 슬슬 시게[6]
슬슬 이개 시는[7]거지 그게
어디야 물러서라 마라소 이겨서라
돌아 슬슬 이겨 시면서 한 발짝 돌아서라
후후

6) 서게. 7) 서는.

4 저 방데이에 걸린다 슬슬 이겨서라
후후 어디 이겨 서라
왜 그렇게 가냐
아냐 아냐 이겨서
가라 판가 이겨서라

* 허만금, 남·55.
* 남편 시동3리, 1987.7.8., 김성수 김요섭 김방경 정은정 곽노실 정명수 용정실 성길제 조사.
* T. 4—7—1

7

1 이러 디여 이러 어디어디어디여
이러 이러이소 소 단우리 밟고 섬어 한듯
이러 어디 저건 어디저 어디여 어러
밭고랑에 올라서라 어디디디
이러 이거 어디어 마라마마 마리어 선다
이러 어디 안소 우겨서고
어디어 이러 이저 어디로 끌구서 나가느냐
어디 어디 이거 어디마라마마
마라소가 올라서 안소 지어서고
이러 어디전 어디어디어디 에헤 어디어디여
이러 어디 어디어루
괴롭다 생각말고 어디 잡아를 다니기
이러 어디어 이거 어디 이거 이러이러
어디로 가나 저 마라쇠야 마라 우겨 서주기
어디 어디 어디 이런 와와

2 이러 어디 이거 어디어디 들어서
에헤에 어디
말래를 두고서 어디 잡아 다려라
이랴 이거 어디로 가나 이거
에 저거 어디어디 돌아를 서기지
에 치 어 어디로 이거
어디 저 말래 비키지도 말고
이로 어디 말래 비킨다 저거
말래를 비키지 말고 어디 잡아다려
이러 어디 이거 에 저거 어디 이거
어디 잡아다려 이러 어디

* 신현용, 남·41. 횡성군 갑천리라는 마을에서 태어나 18세 정도에 유치2리 학동이라는 마을로 이주.
* 남면 유치2리, 1987.7.8., 김방경 김요섭 용정실 조사.
* T. 4—6—1
* 구연자는 써레질할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하였다.

[8]

이러 이러 이라 저소야
올라서라 저 비탈에
슬슬 나가자 저 방대 골친도
이러 아냐냐 올라서라 올라서
내려가면 안된다 올라서라
옳지 잘 올라선다
이러마는 잘도 간다
저녁밥은 콩 삶아 줄께
말기지 말고 슬슬

이러 마마 마마마
올라서라 올라서라 올라서라
우후후 안소
슬슬 밀고 돌아서 옳지
제자욱에 척척
잘돌어선다 옳지 오
슬슬 나가자 저기 저
망대밑으로 슬슬나가자
아냐아냐아냐 내려간다
올라서라 저기
저 비탈에 미끄러지면
큰일이난다 아 아라 옳지
척척 잘 듣는구나
올라서라 올라서 오오
또 돌아시네 안소야
척척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서게 아냐아냐아냐
올라서라 저기
저 비탈 얼른가세

* 윤태준, 남·71.
* 홍천읍 삼마치2리, 1988.6.23., 김문대 엄병화 권준길 김혜경 박기웅 이철규 심보경 이정환 조사.
* T. 2—3—2

9

마라마라마라 마랏소야
넘나드지를 말고

안소야 제고랑에 들어서라
오오 오 오
저소야 슬슬 물러를 서거라
안소는 대고랑에 꼭박아서 나거자
이려마라 마랏소는
넘나드지를 말고
아냐 안소야 제고랑에 나거자
하늘이 저소여
넘나드지를 말아라
오오 오오[8]
마랏소야 보섭에 올라서지를 말고
안소는 제고랑에 들어서라
이려 마라 마마마
저소는 연덕에 올라서지 말고
마랏소는 제골에 나거자

* 김태봉, 남·71.
* 홍천읍 결운2리, 1988.6.22., 김은자 김문태 엄병화 권준길 김혜경 박기웅 이철규 심보경 이정환 조사.
* T. 2—1—1

10

이러어 이 저 소 허둥대지 말고
추견추견[9] 잘 잡어다려를
이러 소 〔 〕 올라서라
이제 저 소야 오르내리지 말구

8) 제보자가 소를 몰 때의 상황으로 '또 돌아서는 거여 이게'라고 설명하였음.
9)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천천히 가자는 뜻.

저 방대 뒤에로 살살 감쳐 서기
어찌후
웃소리 나거든 슬슬 돌아오너라
안소[10]는 슬슬 올라서기
마랏소[11] 바위 뒤에로 살짝 감춰 서기
안소는 대고랑에 처지지 말고 꼭 박아서 나가세
마랏소 꺽어다려를 헤무른 밭에 떨어질라

* 강신표, 남·55.
* 화촌면 야시대2리, 1987.2.11., 전신재 강동규 조남혁 조사.
* T. 6—10—2

11

이 저 디 어
저 바우 밑으로 돌구나 돌어 쯧쯧쯧
어허 방뎅이다 엄벙덤벙 하지 말구
저 덤벙 밑으로 돌구만 도세
어허 후후후후후

* 권양원, 남·78, 이주 경력 없음.
* 동면 성수리 깃골, 1988.6.24., 이필용 김경원 류재선 방은영 조사.
* T. 3—2—2

12

이랴 이랴 마리[12]가자 올라서라 내려서라
저 방뎅이를 비켜라 바우 앞에 바우가 있으니

10) 두 마리의 소 중에서 안쪽에 있는 소. 즉 왼쪽에 있는 소.
11) 바깥쪽의 소. 오른쪽 소. 12) 말아.

슬슬 비켜나가자 올라서라 내래서라
안소[13]는 잡아댕기고 마라소[14]는 뒤로 밀어라
이랴 마라 어서 가자

* 홍용화, 남·63.
* 두촌면 장남리 남덕골, 1986.7.22., 김성수 유은영 이대근 전계진 조사.
* T. 2—6—2

13

이랴 〔채찍을 확 던졌다. 내가.〕
이 소! 허 마러 우 왔냐 어디 어디 서 우 저기 저 방뎅이
넘어서라 안소야 에이 할수록 말릭이네 가자 안에이 이려 말어 말어 후
〔인제 돌아서는 거야.〕 어 후 안소 올라서라 마디 저 서라.
에헤 이 얼쑤 에헤이 에헤 이 소야
밧소 에헤이 에헤이 어 후 야 뒷소
좀 밀어라 올려쓰게
안에 어느 구 마라소 오
에 안소 처진다 에헤 아으 에제 아
마마마마 마마마마 마 안소에 이히
〔어 씸다 한번 빨대나 씸어. 콩 그렇게 씸으면 되나. 이 사람들아 빨리 빨리 들 씸게.〕
에헤이 안소 저 방뎅이 감춰서 잡다 안엣소 어허
내려 쓰래 이리와 소 어허 내려서면 안소 떨어진다
마마마마 마 어허 마마 어허 에이 마마 에이 둘이서 에헤헤이
〔이렇게 하는 거유 하하하.〕

* 홍완기, 남·57.

13) 왼쪽 소. 14) 오른쪽 소.

* 두촌면 장남리 남덕동, 1986.7.22., 김성수 유은영 이대근 전계진 조사.
* T. 2—6—2

14

이러 이 소야 한번 우리 갈아 보자
이러 어어이 이러 돌밭에 팀성대지 말고
이러 이러 제골스루 당겨라, 이 소들아
이러 이 쯔쯔 넘나들지 말고, 오오
제골스루 잘 당겨라 이러
이러 이러 어디 이 소들아
드렁[15]밑으루 들어서라 이러
어디서 에 이 소들 저 말고[16]를 찾어가자
이러 이러

* 최상호, 남·59.
* 서석면 생곡2리, 1986.7.22., 조남혁 전희숙 조사.
* T. 5—1—2

15

이러 이러 올라서
어라 빨리 가자 이 소
우 차
어려 소 밀고 돌아서 가자
이소
이러 이러 어 저소 올라서라
이러

15) 논두렁. 16) 고랑.

우 차 어 저소 밀고 돌아서

* 권오석, 남·60, 강릉 출생으로 3년전에 광원리에 정착. 농업.
* 내면 광원1리, 1988.6.24., 전신재 김진희 유선영 최정희 전창동 조사.
* T. 4—5—1

김매기 노래

[1]

에헤라 농부들아　　내말한마디 들어봐라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같이 남았구나
에헤라 농부들아　　더운땀을 씻어가며
에헤라 농부들아　　이논배미 얼른심고
우리나가 밥을먹세　　에헤라 농부들아

* 허　순, 여·63.
* 서면 길곡리 6반, 1987.7.8., 오춘택 이동수 신정복 최재희 조사.
* T. 1—6—1

[2]

얼롤롤 상사데야　　여보시오 계원님네
일심받아서 매어주오　　얼롤롤 상사데야
이논짜리를 다매고가면　　얼롤롤 상사데야
술도있고 밥도있네　　얼롤롤 상사데야
땀이나면 땀을닦고　　얼롤롤 상사데야
허리가아프면 쉬어서매지　　얼롤롤 상사데야

상사뒤소리에 논잘매면 얼롤롤 상사뒤야
막걸리한잔 마시구해지 얼롤롤 상사뒤야
옛날옛적 신농씨도 얼롤롤 상사뒤야
이노래를 불렀건만 얼롤롤 상사뒤야
우리농사꾼 이노래를 얼롤롤 상사뒤야
부지런히 부르면서 얼롤롤 상사뒤야
농사일을 잘하면은 얼롤롤 상사뒤야
농사지어 대풍되네 얼롤롤 상사뒤야

* 이영법, 남·59.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조옥희 김성욱 조사.
* T. 5—9—1

[3]

어화 얼씨 단오리야 어화얼씨 단오리야
일년 되며는 초봄이 되지 어화얼씨 단오리야
초봄이 되며는 삼월이 되요 어화얼씨 단오리야
사월이며는 벱씨를 담가 어화얼씨 단오리야
오월이며는 씨앗을 넣고 어화얼씨 단오리야
유월이며는 물을 내고 어화얼씨 단오리야
모를 낼제 혼자 심나 어화얼씨 단오리야
일군들은 십명이고 어화얼씨 단오리야
많이도 해면 삼십명이요 어화얼씨 단오리야
씨를 저에 부쳐놓고 어화얼씨 단오리야
씨를 부려 놓을적에 어화얼씨 단오리야
근심이나 하두나 많고 어화얼씨 단오리야
여기저기서 불러 대니 어화얼씨 단오리야

여도야 일시로다 어화얼씨 단오리야
병중에나 걸릴까봐 어화얼씨 단오리야
여보시오 기원님네 어화얼씨 단오리야
우리의 농부들 최고로다 어화얼씨 단오리야
이월 가구나 삼월이 되면 어화얼씨 단오리야
여보시오 농부님들 어화얼씨 단오리야
논을 걸구 물을도 삶을때 어화얼씨 단오리야
여기서 잘허구 저기서 잘해이면 어화얼씨 단오리야
씨를 뿌리고 종자를도 받을때 어화얼씨 단오리야
이삼일이나 되이여 가면 어화얼씨 단오리야
푸른 싹에나 돋아나니 어화얼씨 단오리야
얼씨구 여기서 두고서 어화얼씨 단오리야
우리 농부들 하루 바삐 길러 어화얼씨 단오리야
하루 이틀에두 이 자랄적에는 어화얼씨 단오리야
거름을 뿌리고 여기서는 어화얼씨 단오리야
잘두나 자라면 기분도 좋고 어화얼씨 단오리야
우리 농부들 모를 또심으니 어화얼씨 단오리야
모를 더심으면 반농사요 어화얼씨 단오리야
이렇게 모심고 기분 좋아 어화얼씨 단오리야
얼씨 좋구 절씨구 좋네 어화얼씨 단오리야
옛적에두 살어두 보구 어화얼씨 단오리야
시방두 나두 더잘살리 어화얼씨 단오리야
이럭저럭에 묶으듯하니 어화얼씨 단오리야
우리농부들 아니나두 기쁜가 어화얼씨 단오리야
매일 나가구 잠자구두 나가이면 어화얼씨 단오리야
일추월장에 거두나두 볼라니 어화얼씨 단오리야
이것이나두 우리나두 농부들 어화얼씨 단오리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두 좋은가 어화얼씨 단오리야

여보시오두 기쁜님네 어화얼씨 단오리야
일심을두 받어서 심으니 어화얼씨 단오리야
이렇게 잘좋구 저렇게두 잘좋아 어화얼씨 단오리야
올해 해두나 시절이 좋아 어화얼씨 단오리야
옛노인들 말씀을 들어 어화얼씨 단오리야
일잘하면 그해에 풍년 어화얼씨 단오리야
일잘하구나 놀지 않으면 어화얼씨 단오리야
그해에 대해선 대풍이요 어화얼씨 단오리야
대풍이나 언제 올까 어화얼씨 단오리야
오월가구나 유월이 되면 어화얼씨 단오리야
오월에 이삭이 나으고 어화얼씨 단오리야
유월 되서 이삭이 나으고 어화얼씨 단오리야
칠월달에는 노정이요 어화얼씨 단오리야
칠월되면 농부들은 어화얼씨 단오리야
이해에는 바쁜일은두나 어화얼씨 단오리야
이세병정 무병이고 어화얼씨 단오리야
칠월 접어서 중순만 되면 어화얼씨 단오리야
일은두나 없어갔네 어화얼씨 단오리야
청산은 또저낮이 되면 어화얼씨 단오리야
칠월 말이면 벼가 숙어 어화얼씨 단오리야
팔월 되며는 벼두 숙구 어화얼씨 단오리야
팔월 되며는〔 〕 어화얼씨 단오리야
보는 사람도 후회로다 어화얼씨 단오리야
여김에 농사를도 어화얼씨 단오리야
본격적으로 잘지어야지 어화얼씨 단오리야
팔월 되며는 거기서 되면 어화얼씨 단오리야
벼는도 다 여물어가요 어화얼씨 단오리야
구월달로나 접어나 들고 어화얼씨 단오리야

구월에는〔　　〕　　어화얼씨 단오리야
벼거리는 저리로 가고　　어화얼씨 단오리야
벼는 더 황금이요　　어화얼씨 단오리야
팔월중순에 벼를도 비여　　어화얼씨 단오리야
엣날에는 낫으로 벗지만　　어화얼씨 단오리야
시방으로는 콤바인　　어화얼씨 단오리야
팔월에는 벼가두 넘어가　　어화얼씨 단오리야
여기 저기서 벼를 또비네　　어화얼씨 단오리야
팔월 중순은 타작이요　　어화얼씨 단오리야
벼를 떨을제 흙을 터니　　어화얼씨 단오리야
대세는 여기매 있는데　　어화얼씨 단오리야
누구인지 알을손가　　어화얼씨 단오리야
일두나 잘하구 논정리 잘하구　　어화얼씨 단오리야
여기 저기서 모아도 되리오　　어화얼씨 단오리야
한두마지기 금방 떨구요　　어화얼씨 단오리야
이세 여기서 두구보소　　어화얼씨 단오리야
누구의 집이는 얼마나 남나　　어화얼씨 단오리야
내게 농사는 많이두 나야　　어화얼씨 단오리야
많이두 나야두 좋지마는　　어화얼씨 단오리야
병든 꼴으로 나가두 봅시다　　어화얼씨 단오리야
이럭 저럭에 구월이 드네　　어화얼씨 단오리야
구월에는 타작이 끝나　　어화얼씨 단오리야
구월말이면 매상이고　　어화얼씨 단오리야
매상에는 누구를 바치나　　어화얼씨 단오리야
우리에 협력하여도　　어화얼씨 단오리야
우리의 매상 더두라 합시다　　어화얼씨 단오리야
매상을 할적엔 어떻게 하나　　어화얼씨 단오리야
한푼이라두 더 받구나　　어화얼씨 단오리야

이등을 말구 일등을 하세 어화얼씨 단오리야
이럭저럭에 시월이 됐네 어화얼씨 단오리야
시월달에는 끝이나고 어화얼씨 단오리야
정미소에는 방아를 찧제 어화얼씨 단오리야
이 방아간은 누방엔가 어화얼씨 단오리야
잘을 찧으면 백옥같고 어화얼씨 단오리야
백옥같구나 희어두 갈때 어화얼씨 단오리야
이것에 농부들 아니 기쁜가 어화얼씨 단오리야
이럭저럭에 십일월이 넘어오네 어화얼씨 단오리야
십이월달에가 되었으니 어화얼씨 단오리야
이것은 또 추워두가구 어화얼씨 단오리야
모든것은에 거둬들 들이고 어화얼씨 단오리야
우리의 집에 수박두 하게 어화얼씨 단오리야
적적에 〔 〕 어화얼씨 단오리야
동네분들도 협조하야 어화얼씨 단오리야
여기서 일할적에는 어화얼씨 단오리야
이것저것을 마구 쏟아 어화얼씨 단오리야
다들 여기서 그대두 넘구 어화얼씨 단오리야
그 담에는 마주달이요 어화얼씨 단오리야
마지막 달에는 어느 달인가 어화얼씨 단오리야
그 담에는 십이월달이요 어화얼씨 단오리야
십이월달에는두야 어화얼씨 단오리야
어렵구두 가련도하네 어화얼씨 단오리야
무슨 애긴가 살펴봐요 어화얼씨 단오리야
뱃섬들두 난미를 달을 어화얼씨 단오리야
여기서 볼때 우화도 안나 어화얼씨 단오리야
우리의 농부들 그때 가면 어화얼씨 단오리야
천하지대본에 여기서 끝이요 어화얼씨 단오리야

* 문복환, 남·59.
* 남면 명동리, 1987.7.8., 이홍식 김승혜 전계진 김석주 조사.
* T. 3—1—1

4

이 논을 맷어두 추수를 해내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어
올해두 풍년 내년에두 풍년 연년이 으거리 대풍이 왔어
얼럴럴 상사데야
목이 말르면 술을 먹세 담배 창이나 길어가라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우리도 쉬었다 해보세
얼럴럴 상사데야 얼럴럴 상사데야
우리 기원[1] 잘두하네 우리 기원 잘두하네
이칸 저칸 상칸데로 잘두 넘어간다
우리 기원 열두 기원 얼럴럴 상사데야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얼럴럴 상사데야
목이 말르면 술을 먹세 얼럴럴 상사데야
힘이 들면 쉬어하세 얼럴럴 상사데야
얼럴럴 상사데야 얼럴럴 상사데야
오늘랑은 여기서 놀고 얼럴럴 상사데야
내일랑은 어디가 노나 얼럴럴 상사데야
우리 기원 잘두하네 얼럴럴 상사데야
얼른 내고 쉬어 내어 얼럴럴 상사데야
올해두 풍년 얼럴럴 상사데야
내년에두 풍년 얼럴럴 상사데야
우리동네 으거리 대풍이 왔네 얼럴럴 상사데야
이 논을 다 매고 무엇을 하라 얼럴럴 상사데야

1) 계원.

얼씬 내어보세 얼럴럴 상사뒤야
한번 찍어서 두번을 찍어 얼럴럴 상사뒤야
이리 찍구 저리 찍세 얼럴럴 상사뒤야
얼럴럴 상사뒤야 얼럴럴 상사뒤야
한번 찍고 두번 찍어 얼럴럴 상사뒤야
뚜껑 대고 호미 대어 얼럴럴 상사뒤야
앙반데이로 찍어보자 얼럴럴 상사뒤야
얼럴럴 상사뒤야 얼럴럴 상사뒤야
한번 찍어 두번 찍어 얼럴럴 상사뒤야
이칸 저칸 상칸데이로 얼럴럴 상사뒤야
두껀데를 찍어보자 얼럴럴 상사뒤야
덜컥덜컥 찍어 냉겨 얼럴럴 상사뒤야
우리 기원 열두 기원 얼럴럴 상사뒤야
잘두하네 잘두해요 얼럴럴 상사뒤야
오늘날은 여기서 놀고 얼럴럴 상사뒤야
내일날은 어디가 노나 얼럴럴 상사뒤야
일자 일자 백만 살아 얼럴럴 상사뒤야
우리 농부 불쌍두 하구 얼럴럴 상사뒤야
이 논을 못하면 못 먹구 사나 얼럴럴 상사뒤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얼럴럴 상사뒤야
논에 엎어 김을 매요 얼럴럴 상사뒤야
우리 인생 한번 죽으믄 얼럴럴 상사뒤야
회생할 줄 모르는데 얼럴럴 상사뒤야
이 노릇 안 하구 못먹는가 얼럴럴 상사뒤야
오늘도 논을 매요 얼럴럴 상사뒤야
내일도 논을 매요 얼럴럴 상사뒤야
얼럴럴 상사뒤야 얼럴럴 상사뒤야
덜커덕 덜커덕 잘 넘어가네 얼럴럴 상사뒤야

* 윤삼용, 남·63. 홍천군 서석면 출생. 13년전 유목정리로 이주.
* 남면 유목정리, 1987. 7. 9., 김문태 김승혜 이홍식 전계진 박형규 최정희 김석주 홍후남 조사.
* T. 3—5—1

5

1 어화 얼씬 단허리야 어화 얼씬 단허리야
이 산천지 만물중에 어화 얼씬 단허리야
인정백기[2] 또 있나요 어화 얼씬 단허리야
우리 농부님들 말들어 보소 어화 얼씬 단허리야
대통령두 먹어야 살고 어화 얼씬 단허리야
농부들두 먹어야 짓지 어화 얼씬 단허리야
사람 먹고 사는 것이 어화 얼씬 단허리야
피와 땀으로 맨듭니다 어화 얼씬 단허리야
대통령두 먹어야 살고 어화 얼씬 단허리야
국민이 전체가 먹어야 사는데 어화 얼씬 단허리야
제일가는 것이 농부가 아닌가 어화 얼씬 단허리야
불쌍하구나 가련치요 어화 얼씬 단허리야
먹을 것두 지때 못먹고 어화 얼씬 단허리야
피와 땀만 흘린답니다 어화 얼씬 단허리야
어 한잔 먹읍시다 어화 얼씬 단허리야

2 어화 얼씬 단허리야 어화 얼씬 단허리야
여봅소 농부님들 어화 얼씬 단허리야
이 논배미를 얼른 매고 어화 얼씬 단허리야
장구 배미를 넘어갑시다 어화 얼씬 단허리야
오늘에 해도 다갔는데 어화 얼씬 단허리야

2) 밖에.

반달만치 남았구나　　어화 얼씬 단허리야
오늘해도 넘어가는데　　어화 얼씬 단허리야
얼른매구 집으로 갑시다　　어화 얼씬 단허리야
쉬다 합시다　　우 우

* 이계문, 남·66 ; 이제남, 남·66 ; 남태희, 남·71.
* 남면 서동3리, 1987. 7.8., 김성수 김방경 김요섭 정은정 곽노실 정명수 용정실 성길제 조사.
* T. 4—7—2, 4—8—1

6

어화 얼씬 단허리야　　어화 얼씬 단허리야
바다같은 네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았구나　　어라 얼씬 단허리야
이논배미를 얼른매고 장수 벰이로 넘어가세　　어화 얼씬 단허리야

* 신현용, 남·41.
* 남면 유치2리, 1987.7.8., 김방경 김요섭 용정실 조사.
* T. 4—6—1

7

1 여보시오 지원님네
내이말씀 들어보소
아랄랄럴럴 상사디야
어럴럴럴러 상사대야
상사하시던 우리낭군
어럴럴럴러 상사대야
꿈에 그리워 상사가 됐나
어럴럴럴러 상사대야

상사부사가 동부살세
어렐렐렐리 상사대야

2 이 양 응 에양
이 양 응에양
여보소 지원님네
이 양 응에양
호미 모울걸 자두만 놀려
이 양 응에양
새일 차일 이루저럴가니
이 양 응에양
얼른 매고 막걸리 먹세
이 양 응에양
해 넘어가기전에 일룬[3]매고
이 양 응에양
집이 가서 콩자작 합세다

* 윤태준, 남·71.
* 홍천읍 삼마치2리, 1988.6.23., 김문태 엄병화 박기웅 이철규 심보경 이정환 조사.
* T. 2—3—2
* 구연자는 이 노래의 제목을 '댕이소리'라고 하였음.

[8]

우리농부 비원[4]님네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
여러농부 이심받어 논매보세

3) 이논. 4)계원.

요순적 풍속일세
얼럴럴 상사대야

한단석 바람으로
우리농부 잘도해네
한칸두칸 건너띠고
이리저리 멧돌디세
얼럴럴 상사대야

* 허기봉, 남·77.
* 동면 월운리, 1988.6.23., 이필용 김경원 류제선 방은영 조사.
* T. 3—1—1

[9]

얼럴럴 상사디야 얼럴럴 상사디야
이때 어느 땐 얼럴럴 상사디야
우리농부 논둑멜때 얼럴럴 상사디야
이논 자리는 뉘논인가 얼럴럴 상사디야
이 벼가 논자리 풍성하네 얼럴럴 상사디야
우리 농부는 무식헌가 얼럴럴 상사디야
농사일이 천하지대본 얼럴럴 상사디야
이 농사 지어놓고 얼럴럴 상사디야
강태공에 주자방에 얼럴럴 상사디야
백옥같은 백미쌀을 얼럴럴 상사디야
우리 농부가 먹고살지 얼럴럴 상사디야

* 박기희, 남·79.
* 동면 좌운리, 1988.6.22., 허남춘 박삼희 조사.
* T. 3—12—1

10

1 여러 지원님네
어럴럴 불러보세 어럴럴럴 상사디야
이논매고 저논매세 어럴럴럴 상사디야
어서매고 쉬어보세 어럴럴럴 상사디야
먼데사람 듣기좋게 소리크게 불러보세
어떤지원 잘도받네 어럴럴럴 상사디야
우리지원님네 잘도받네 어럴럴럴 상사디야

2 어항소리에 무쇠가녹네 에히에하 어허헤야
어항소리에 논 넘어가리 에히에하 어허헤야
얼른매고 쉬어매세 에히에하 어허헤야

* 최주호, 남·74.
* 서석면 청량리, 1936.7.22., 박찬 김방경 곽노실 조사.
* T. 1—5—2

11

어럴럴럴 상사디야 여보시오 지원님네
일심을 받어 받어줘요 어럴럴럴 상사디야
상사소리 논잘매네 어럴럴럴 상사디야
이자리에 베를심어 어럴럴럴 상사디야
낮이며는 태양을씨고 어럴럴럴 상사디야
밤이며는 찬이슬맞어 어럴럴럴 상사디야
그베가 점점자라 어럴럴럴 상사디야
낮이며는 녹을받고 어럴럴럴 상사디야

밤이며는 찬이실맞아　　어럴럴럴 상사디야
점점자라 이삭이패니　　어럴럴럴 상사디야
이삭를 괴양미로　　어럴럴럴 상사디야
부모님께 공양을허구　　어럴럴럴 상사디야
농사가 천하지대본　　어럴럴럴 상사디야

* 윤경석, 남·65, 홍천 내촌면에서 출생, 무학.
* 서석면 검산2리, 1986.7.22., 조남혁 전희숙 정금란 조사.
* T. 5—2—2

12

어럴럴럴 상사디야
상사하던 우리낭군　　어데가서 안오시나
어럴럴럴 상사디야　　상사소리에 논 갈 메우
여보소요 계원님네　　요내소리 들어주오
이논배미 얼른메고　　장구배미로 넘어가세

어화얼씬 달허리야　　어화얼씬 달허리야
여보서요 계원님네　　요내말씀 들어보소
이손저손 빨리하여　　호미 한벌에 손질 한번
댕기댕기 댕기지 말고　　이칸저칸 산칸뒤루
이리저리 넹겨주오　　어럴럴럴 달허리야

* 최상호, 남·59, 홍천군 내면에서 출생, 40년전에 이주. 5년정도 한학을 함.
* 서석면 생곡2리, 1986.7.22., 조남혁 전희숙 조사.
* T. 5—1—2

목도 소리

1

에이 에이 에잉 에잉차 어기어차 어기어
어기어루 어기어 어기어차 어기어
이아차 이사람 몸조심하고
어기어 어기어차 이할루 이렇게 이차장 차장
에잉차 에기어 어기어루 어기어루 아하차 하야
이 조심 이하고 이리하자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전신재 조사.
* T. 6—9—1
* 1987.6.27~28일에 있었던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홍천 연자매놀이에 삽입된 것임.

2

차기여 여차 혀 어기 영차 어헝
어기여차 어히여차 어헝 어기 여차 어히헝
저기 가는 저사람 어기 여차 어허
어허 나는 몰라 어기 여차 어허
나는 심드는데 저사람은 어기 여차 어허
땀을 안흘려 이히이히 어기 여차 어허
어기 여차 어허 어기 여차 어허

* 남태희, 남·71 ; 이계진, 남·62.

* 남면 시동3리, 1987.7.8., 김성수 김방경 김요섭 정은정 곽노실 정명수 용정실 성길제 조사.
* T. 4—8—1

[3]

히여차 아고 무겁다
조심 조심해이 조심
그래 그래 그래이 조심해
히여처 히여 히여처 히여
아버나이 좁은 길 조심 좁은 길 조심 아버나이 조심
꽨찮어 꽨찮어 조심 조심
히여처 히여 히여처 히여
아고 호으응 아고 히여차 히여
〔외나무 다리 건너갈 때,〕
히어 어려워 허어 히여
목도다리 히여 외다리 히여 아부나이 히여
꽨찮아 건네와 으 히여처 허어
히여처 허어 간부나이
꽨찮아 살문 살문
히여처 이히여 허어 히여 건네와 히이여
〔그럼 백사장 갔어 건너갔어.〕 허헌 더 쿵
〔나 목도는 안 해봤지만 예전에 사무라치 때를 끊는데 그때 16살이야. 하여간 나는 돈 안 주면 욕하는데 그때 십장이라는 사람들이 이분네들보다 나이가 많지. 조놈의 새끼 어떡해.〕
히어어처 허 〔이러거든 고갱이를 한번 찍을때 구멍이 요고만큼 나요. 큰 돌멩이를 찍으니까 안 나오지.〕
히어라 처허 〔돌멩이가 비작하고 섰네. 그 다음 십장이 너석이 와.〕
히어라 처 〔했다가 십장이 올 때 벌떡 일어나 돌 두들기며.〕

아이고 잘해 잘해

〔그 담엔 뭘해야 되나? 상차를 해야지. 자동차 와 섰네. 이제 내가 상차를 해야 되거던. 이거 줘야지. 한 차에 얼마 줍니까? 그럼 만원 이만원 내. 그럼 만원만 달어. 조금 있다 줄께. 그런다. 그래 어쩌겠냐? 다릴 놔.〕

허어 히여청 자동차나아 뺑뺑 올리구 허는데

어서 바삐 히여처 히여 히여

역경을 가야 할텐데 역경은 멀고 히여청 히영 〔그놈의 새끼가 돈 천원 대줘. 아유 정말 잘 하시네요. 노래소리가 좋네요. 하면서,〕

히여 어쩌 위험해 히여 위험해

어쩌 어쩌렁 복주정 가야할텐데 히영

〔이따우 아름드리 싣고 올라가면 그냥 무조건 돈 천원 더 준다구.〕

* 강대성, 남·65. 홍천읍에서 출생, 6년전 유치리로 이주.
* 남면 유치2리, 1987.7.7., 정덕준 김성수 김방경 정운정 김요섭 곽노실 정명수 용정실 성길제 조사.
* T. 4—3—2

4

어이도 사노 〔선〕
도비[1]를 모여라 〔선〕
다 도비를 걸러받고
어이도 사누
어디한번 당개보자
에이도 사노
일착으로 당개보자
본걸도비로 건제보자
가마를 이쪽으로 〔선〕

어이야로구 사노 〔후〕
그러니아 사누 〔후〕
어이로구나
어이여러구 사누
어이야구나
어이여라구 사노
그러니와 고무라
어야 죽는구나 〔후〕
거 연심이로 〔후〕

1) 山坂에서 재목을 나를 때 쓰는 연장.

풀애보자 질곡인 도비 〔선〕 어이여러구 사노 〔후〕
헤이로 사노 〔선〕 어이여 댕겨보자 〔후〕

* 정석암, 남·73, 권오석, 남·60.
* 내면 광원리, 1988.6.24., 전신재 김진희 유선영 최정희 전창동 조사,
* T. 4—5—1
* 정석암이 선소리를, 권오석이 뒷소리를 하였다.
* 구연자는 이 소리의 제목을 '운자소리'라고 하였음. 이는 山坂에서 재목을 나르면서 부르는 소리임. 운재(運材)소리.

우 러 리

[1]

자 광광 디더라
푸른대미야 광광
울기절기 국시대야
무른대미야 광광 디더
오른대미 물구나무야 광광 디더
이 사람아 빨리 디더
자 우러리야 큰나무
추러리 뻥대야 물구나무 천당대야
광광 디더라

* 윤경석, 남·65.
* 서석면 검산2리, 1986.7.22., 조남혁 조사.
* T. 5—3—1

2

어 이 양단[1]에 힘을 넣어라 어러어러 우러리여 우러리여
자 작두는 계절[2] 작두 사람은 쇠꼽다리다[3]
어러 우러리여
연해연실 아랑으로 들어가 김으로 나온다
어러 우러리여
너와 내가 벗남구 입마출적 짝남구
칼로 치면 치나무다 어러 우러리여
꽝꽝 디뎌라

* 최상호, 남·59.
* 서석면 생곡2리, 1986.7.22., 조남혁 전희숙 조사.
* T. 5—1—2

3

어라 우러리야
덤불덤불 수박덤불이야
마음놓지말고 임신정신 마음말고
한다리 들었다 개금나무
두다리 들었다 들메나무
입마췄다 떡나무여
방구뀌었다 뽕나무
덤불덤불 수박덤불
에 잘밟았다
어허 꽝꽝하는구나 잘찌워

1) 양다리. 2) 잘먹는. 즉 작두가 잘드는. 3) 튼튼한 다리.

엄불덤불 수박덤불에
수박은 다따먹고 빈덩굴만 놀아난다
워 우러리여 아나 다그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어이 끌어댕겨 저풀꾼들
워라 우러리여
개화방님에 새트거리 야야 풀페거리 먹이로구나
무당났다 광대살이 어이 꼬리를 맞붙여 썰자
할수없는 과천 맘 놀 날이 전혀없네
일지정신 맘 놓지 말고
연일연방 되썰어서 잘들 밟으세
송아지는 누가 끌어갈까
흐응 멩

* 김진수, 남·42. 생곡리 출생. 무학.
* 서석면 생곡2리, 1986.7.22., 김동하 이필용 전희숙 조형연 조사.
* T. 5—15—2

도리깨질 노래

울어라 울어라 울러쳐
물푸레나무 삼형제는 열려만져서도 옥수수
손시려도 마당질 발시려도 마당질일세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전신재 조사.
* T. 6—9—1
* 1987.6.27~28일에 있었던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홍천 연자매놀이에 삽입된 것임.

자리개질[1] 노래

자자 조조[2] 헤이 헤이야 데이야
우 우우[3]
자자 조조 헤이 헤이야 데이야
우 우우
어서와 이 사람들아 빨리 떨어 빨리
자자 조조 헤이 헤이야 데이야
우 우우

* 신현용, 남·41.
* 남면 유치2리, 1987.7.8., 김방경 김효섭 용정실 조사.
* T. 4—6—1

목 동 가

Ⅰ

꼴망태를 둘러메고
소를모는 저목동
고삐를 툭툭치며

1) 자리개를 가지고 곡식단을 묶어서 타작하는 일. 자리개는 볏단을 묶는 끈.
2) 일의 문답에 따른 구령과 같은 것임. 3) 벼를 다 털고 볏짚을 한쪽으로 던지면서 부르는 소리.

이러쯧쯧 어서가자
정든님 기다리신다
음 음
석양산 바랄보며
소를모는 저목동
곰방대 툭툭털어
잎담배 피워물고
이러쯧쯧 어서가자
정든님 기다리신다
음 음

* 반철균, 남·67.
* 북방면 구만리, 1987. 7. 7., 이종철 엄기주 유은영 조옥희 장기영 최광현 김성욱 이연순 조사.
* T. 5—3—1

2

골망태 둘러메고
소를모는 저목동들
고삐를 툭툭때려
콧노래 부르다가
이랴 음매앵 어서가자
정드신님 기다리신다
호응 어서가자
정드신님 기다리신다
석영산을 바라보아
소를모는 저목동들
고삐를 툭툭때려

이랴 어서가자
정드신님 기다리신다
서산에 지는 저해
남산봉에 올랐으니
부싯기 툭툭떼려
엽초담배 뚤뚤말아
진장죽에 태워물고
이랴 음매앵 어서가자
정드신님 기다리신다

* 심경순, 남·70, 결운리에서 40년째 거주.
* 홍천읍 결운2리, 1988.6.22., 김은자 김문태 엄병화 권준길 김혜경 박기웅 이철규 심보경 이정환 조사.
* T. 2—1—2

나무꾼노래

낭구[1]를해러 갈적에는 지게를두나 지구
산에를두나 가서는두야 어느낭구를 하나
청치매 꼬리다가두 쇠주병을 달구
오동낭구야 숲을두나두 찾어나두 가시네
명사십리야 해당화는 여기저기서 있지만
우리에나 명사십리는 어디메 있나
우리하내이구 여기메서 있나
우리인생은 어디루가면 언제나 오나
공덕무지[2]에 무덤에는도 전부나병들어 있지만

1) 나무. 2) 공동묘지.

우리에나 님은두야 병이나들지 말아요

* 문복환, 남·59.
* 남면 명동리, 1987.7.8., 이홍식 김승혜 전계진 김석주 조사.
* T. 3—3—2

뗏목 노래

[1]

1 한강에다가 떼를 놓아 앞사공아 노를배겨
노를라도 내가 배길적에 뒷사공아 삿대로 줄을 메어
앞사공이러 노를 이짝으로 되게주면 뒷사공은 돛을 맨다
넓구너른 강에다 둥실둥실 띄워놓고
한강을 다다르니 만인간이 동시란다

2 야지강 애도야 발개벗고 강을 달려드니
만인간 부인들이 강가에 빨래허면
저기메 저남자는 뻘개벗고 떼를 탄다
여봅시오 부인네좀 들어나 가쇼
아 그런말 마쇼 여름철 자지는 개자지라

* 최인준, 남·77.
* 홍천읍 장전평1리, 1987.7.12., 김성수 전계진 조사.
* T. 2—5—1

[2]

야 아 머리를 틀었다

뒷사공아 바로넣어라 뱃목은 나간다
앞사공은 바로넣는데 뒷사공은 끌구채니
베가 풀어지는구나[1] 뒷사공아 바로 그 댕겨라

* 김태봉, 남·71.
* 홍천읍 결운2리, 1988.6.22., 김은자 김문태 엄병화 권준길 김혜경 박기웅 이철규 심보경 이정환 조사.
* T. 2—1—1

뱃 노 래

[1]

남물이 들었네 남물이 들었네
이산 저산 도라지꽃이 남물이 들었네
어야노야노야 어야노야 어기여차 뱃노래 가잔다
어스름 달밤에 개구리 우는 소리 시집 못간 노처녀가 안달이 나노나
어야노야노야 어야 어기여차 뱃노래 불러라
위현 바다에 배를 매구서 희은거천 으으 닻 감어라
어야노야노야 어기여차 뱃노래 가잔다

* 안중혁, 남·77.
* 화촌면 굴운리, 1988.6.24., 엄기주 오애리 성길제 이용인 조사.
* T. 1—14—1

[2]

어스름 달밤에 개구리 울음소리

1) 제보자가 그 상황에 맞는 풀이로 "인제 이게 끊어진거여."라고 하였다.

시집 못간 노처녀가 안달이 났구나
에야노야노야 에야노야노 어기어차 뱃놀이 가잔다

길건너 짠물이 들었네
이산 저산 도라지꽃에 짠물이 들었네
에야노야노 어기어차 뱃놀이 가잔다

〔 〕 얼마나 좋아서
메꽃같은 나를 두고 연락선 타느냐
에야노 에야노야노 어기어차 뱃놀이 가잔다

* 김종석, 여·87.
* 동면 좌운리, 1988. 6.22., 허남춘 이필용 이동수 한호순 김경원 류제선 박승림 방은영 조사.
* T. 3—11—1

고기잡이 노래

야 여보시오 부인네 낙수 한주락 주소
여보시오 남자양반 술 고만 잡숫고 배루가슈
다구 가는건 칠성판이요
먹구 가는건 사재밥[1]이라
입구 가는건 메장거리라
너른 무변대한 넌짓 들어서니
괴기는 덥석덥석 뛰니
어찌나 저 괴기를 다뜰수있나

1) 사자밥.

* 최인준, 남·77.
* 홍천읍 장전평1리, 1987.7.12., 김성수 전계진 조사.
* T. 2—5—1

베틀 노래

[1]

벼틀을노세 벼틀을노세 옥난당에다 벼틀을노세
에헤이여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이 지누나
베틀다리는 네다리요 큰아기다리는 두다리라
에헤이여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수심만 지누나
잉아대는 삼형젠데 눌림대는 독신이라
에헤이여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이 지누나
반달같은 부테[1]는 큰아기 허리를 안고돌고
무지개발 신같은 신초래[2]는 큰아기 발목만 흔들건들
에헤이여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홍경남구[3] 북받이집은 눌러만 주어도 노래헌다
에헤이여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밤에짜는건 월광단이요 낮에짜는건 일광단
에헤이여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수심만 지누나
일광단 월광단 다짜놓고 어느네 낭군을 셈겨볼까
에헤이여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들창밖에 나리는비는 가시는님의 눈물이라
닭아닭아 우지를마라 네가울면은 날이샌다
에헤이여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수심만 지누나

1) 부티. 2) 신초리. 신초리끈. 신끈. 3) 황경나무. 황벽나무.

* 송석응, 남·72.
* 서면 두미리, 1987.7.7., 허남춘 이원비 이진주 강성관 조사.
* T. 2—2—2

[2]

오늘은 하도 심심하니 베틀이나 놓아볼까
베틀다리 네다리 큰애기다리 두다리
행경나무 북바리집 얼레만쳐도 소리가나네
잉엿대[4]는 삼형제 눌림대는 독신이요
낮에짜면 일광단이요 밤에짜면 월광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다짜면서 정든님의 와이샤쓰나 지어볼까

* 박선녀, 여·57.
* 동면 개운리, 1988.6.23., 이동수 한호순 박삼희 박승림 조사.
* T. 3—16—1

[3]

베틀을노세 베틀을노세 옥난간에다 베틀을노세
낮에짜는건 일광단이요 밤에짜는건 월광단이요
일광단 월광단 다짜서놓고 어느누구를 기다려볼까
에헤요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벼틀다리는 너히[5]라도 허릿낭게다가 힘을썼네
에헤요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함경나무[6]에 북바디집은 얼러만쳐도 소리만난다
에헤요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잉엿대[7]는 삼형제라도 눌림대 독신이로구나

4) 잉앗대. 5) 넷. 6) 황경나무. 7) 잉앗대.

에헤요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뒷문턱에 쌍씨레기 타레는　　바람만 불어도 날쇡인다
에헤요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연분홍저고리 남끝동소매는　　죽으믄 죽었지 못놓겠네
에헤요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 반철균, 남·67.
* 북방면 구만리, 1987.7.7., 이종철 엄기주 유은영 조옥희 김성욱 장기영 최광현 이연순 조사.
* T. 5—3—1

4

에헤 베틀을노세 베틀을노세　　난광홍에다 베틀을노세
낮에짜면은 일광단이요　　밤에짜면은 월광단이로다
일광단 월광단 다짜모아서　　정든님 와이샤쓰나 지어볼까
에헤여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 이기순, 여·54.
* 북방면 북방2리, 1987. 7.7., 전신재 김진희 정금란 홍호석 강하구 권준길 최용현 안선희 조사.
* T. 6—3—1

5

오날날도 하심심하니　　베틀이나 놓아나볼까
에헤에요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낮에짜면 일광단이요　　밤에짜면은 월광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다짜모아놓고　　어느낭군과 놀러가나
에헤에요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 이영법, 남·59.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조옥희 김성욱 장기영 최광현 조사.
* T. 5—8—2

6

1 베틀놓세 오늘두 하두 심심하여 베틀놓세
구름 잡아다가 베틀놓세 바람 잡아다가 베틀놓세
베틀다리는 네다리요 큰애기다리는 두다리요
잉애대는 삼형제요 눌림대는 독신이요
신초래끈[8]은 큰애기 발아래서 놀아나네요
쟁반같은 안질개[9]는 큰애기 궁뎅이서 다노네요
행경나무[10] 북바디집에 열라만쳐도 소리만나노라
낮에짜는건 일광단이요 밤에짜는건 월광단이요
일광단 월광단 다짜내고
첫끌은 끊어서 부모의 도포짓고
둘째끌은 끊어서 낭군님의 와이샤쓰 지어놓고
오늘이나 오시려나
이와이샤쓰는 낭군님이 안오시면 누가 입으려나

2 월궁에 노던 선녀 인간에 내려와보니
오늘도 하도나 심심하여 억난간[11]에 베틀이나 놓아보세
베틀다리는 네다리요 큰애기다리는 두다리요
잉애대는 삼형제요 눌림대는 독신이요
신초래끈[12]은 큰애기 발아래서 놀아나고
쟁반같은 안질개[13]는 큰애기 궁뎅이밑에서 녹아나네
행경나무[14] 북바디집에 열라만쳐도 소리만나노라

8) 신끈. 9) 앉을깨. 10) 황경나무. 11) 옥난간. 12) 신끈. 13) 앉을깨. 14) 황경나무.

낮에짜는것은 일광단이요　　밤에짜는것은 월광단이요
일광단 월광단　　다짜내어
첫끝에 끊어서　　부친의 도포지어놓고
둘째끝은 짜내어서　　낭군님의 와이샤쓰지어
오늘이나 오시려나　　내일이나 오시려나
주야장창 기다려도　　안오시니
이와이샤쓰는 낭군님이　　안오시면 누가 입으려나

3 베틀놓세 베틀놓세
베틀놓아 한합짜고 반합짜니
친정모친 돌아가셨다고 부사〔구연자가 가사를 모름〕
비내[15]빼서 땅에꽂고 댕기끌러 낭개걸고
한모래이[16] 돌아가니 아홉오라버니 우는소리 곡성이 낭자하다
마당안에 썩들어서니 은짱[17]박는 소리에 기절하여 일어나서보니
어머니얼굴은 어디로가고 넬만 남아있나
어이하려나 우리어머니 다시못보는 이내신세 어이하려나

*〔정채봉, 여·67.
*〔남면 유치2리, 1987.7.7., 김방경 김요섭 정은정 용정실 조사.
* T. 4—1—1~4—1—2

7

오늘날은두 하두나 심심하여서 벼틀이나 놓아볼까
에헤여 데헤여 사랑노래 벼짜는 아가씨 수심만 지누나 에헤여 데헤여
창문은 밝은데 내여다보니 임의 생각이 절로난다
에헤여 데헤여 사랑노래 벼짜는 아가씨 수심만 지누나 에헤여 데헤여
잉애대[18]는 샘형제요 눌림대는두 독신이라

15) 비녀. 16) 모퉁이. 17) 은장. 은살대. 18) 잉앗대.

에헤여 데헤여 사랑노래 벼짜는 아가씨 수심만 지누나 에헤여 데헤여
낮에짜면 일공단[19]이요 밤에짜면 월공단[20]이라
에헤여 데헤여 사랑노래 벼짜는 아가씨 수심만 지누나 에헤여 데헤여
행경나무[21] 바디집에 큰아기 손목만 까딱까딱 놀아난다
행경나무 바디집에 올라만쳐두 손목만 놀아난다
에헤여 데헤여 사랑노래 벼짜는 아가씨 수심만 지누나 에헤여 데헤여
큰아기다리는 두다리 벼틀다리는 네다리
한필두필 짜여보니 우리네 낭군님 와이샤쓰감이나 되나
에헤여 데헤여 사랑노래 벼짜는 아가씨 수심만 지누나 에헤여 데헤여

* 김성면, 여·68.
* 화촌면 구성포리, 1988.6.22., 정덕준 강성관 윤혜정 유진수 김효경 조사.
* T. 1—2—2

[8]

오늘날도 하심심하니 벼틀이나 놓아를보세
에헤이요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이벼를 짜서 누구를주나 바지지저손에 눈물이로다
에헤이요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낮에짜면 일광단이요 밤에짜면은 월광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다짜모아서 우리님 와이셔츠나 지어를볼까
늙은이가 짜면 호방주[22]요 젊은이가 짜면은 마고다이로다
호방주 마고다이 다짜모아서 우리님 부르실저나 하여를볼까
벼틀다리는 세다리[23]요 아가씨다리는 두다리로다
에헤이요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들창밖에 나리는비는 가신님의 눈물이로다

19) 일광단(日光緞). 20) 월광단(月光緞). 21) 황경나무. 22) '노방주'의 착각일듯. 23) '네 다리'의 착각.

에헤이요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 김춘옥, 여·57.
* 동면 덕치리, 1988.6.24., 허남춘 이동수 한호순 박삼희 박승림 조사.
* T. 3—18—1

9

오늘날도 하심심허니　　벼틀이나 놀아볼까
에헤이요 벼뜨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벼틀다리는 네다리요　　큰아개[24]다리는 두다리라
에헤이요 벼뜨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오눈같은 안질대[25]에　　노독같은 큰아개 궁뎅이
에헤이요 벼뜨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잉앳대는 삼형젠데　　눌림대는 독신이로다
에헤이요 벼뜨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핸병나고[26] 북바디 집[27]은　　눌러만 치어도 소리가나요
에헤이요 벼뜨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번들같은 북대[28]는　　큰아개 허리를 안고도네
에헤이요 벼뜨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하늘같은 용두머리는　　제멋에 질려서 빙그레빙글
에헤이요 벼뜨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번오작교가 탁무너졌으니　　건너갈길이 막연하도다
낮에짜이면 일광단이고　　밤에짜이면 월광단이라
에헤이요 벼뜨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들창밖에 나리는비는　　가신님의 눈물이로다
에헤이요 벼뜨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24) 큰아기. 처녀.　25) 앉을깨.　26) '황경나무'의 잘못인 듯.　27) 북과 바디집.　28) 부티.

낮에 짜이면 일광단이고　　밤에 짜이면 월광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다짜가지고　　어느낭군을 던져를줄까
에헤이요 벼뜨는[29] 아가씨　　사랑도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 홍용화, 남·63.
* 두춘면 장남리 남덕골, 1986.7.22., 김성수 유은영 이대근 전계진 조사.
* T. 2—6—2

10

베틀노세 베틀노세　　달가운데 계수나무
은도끼로 떠러내서　　금도끼로 다듬어서
피하중에 베틀노세　　구름잡아 베놓고
잉애대는[30] 삼형제[31]요　　눌림대는 독신이라
황경나무 북바디집[32]은　　열러쳐두 소리만 잘나네
사랑방에 친애비[33]왔네　　바딧소리만 자주만 내게
큰애기[34]다린 두다리요　　베틀다린 네다리요
낮에따면 월광단[35]이요　　밤에따믄 야광단이요

* 김금순, 여·80.
* 두춘면 철정2리 지다치, 1987.7.11., 김성수 유은영 전계진 조사.
* T. 6—3—2

11

베틀노세 베틀을놓아　　오늘도 하두 심심하기에
지화자 등에다　　베틀을놓아
베틀다리는 네다리고　　큰애기[36]다리는 두다리라

29) 베짜는. 30) 잉앗대. 31) 삼형제. 32) 북과 바디집. 33) 중신아비.
34) 큰아기. 처녀. 35) 일광단을 혼동한 듯. 36) 큰아기. 처녀.

눌림대는 독신이고　　올림대[37]는 삼형제라
하루짜고 이틀짜니　　한자하구나 두치로다
거리다서 짜다가니[38]　　어머니 죽었다 부고왔네
댕기풀러 낭개[39]걸고　　비네[40]빼여 땅에다꽂고
일장통곡 하고나니　　행상소리가 자조들린다
어머니 죽었다 부고왔지만　　오라버니 자주 행상 오긴오고
어머니얼굴 한번 다시보게　　이에 동상[41] 저리비켜라
어머니 죽었다 부고해도　　니가 한번 아니와지[42]
아이고 오라버니　　그말씀마소
오라버니 글좋대야　　편지한장 안하시대
에에라 이년 그말마라　　너의 바느질솜씨 좋다해도
부지깨미[43]하나 안줘주더라[44]　　에에라 이년 저리 물러켜라[45]

* 이필옥, 여·70.
* 두촌면 천정리 지다치, 1986.7.2., 강동규 이도형 조옥희 최광현 조사.
* T. 2—9—2

12

하두나 자고나나니　　하두나 심심해서
옥난간에 베틀놓세　　사랑노래로 베틀놓세
베틀다리는 네다리요　　큰아기다리는 두다리요
잉애대[46]는 삼형제요　　눌림대는 독신이요
행경나무[47] 북바둑집[48]은　　눌러만쳐도 소리만 잘나누나
밤에짜는거는 월광단　　낮에짜는거는 일광단
일광단은 안을넣고　　월광단은 겉을넣어

37) '잉앗대'를 혼동한 듯. 38) '거의 다 짜가니'의 뜻일 듯. 39) 나무에. 40) 비녀. 41) 동생. 42) 왔지. 43) 부시쌈지. 44) 안 지어 주더라. 45) 물러나거라. 46) 잉앗대. 47) 황경나무. 48) 북바디집.

옷을 지어놓고　　임오기를 기다리네

* 박금순, 여·57.
* 서석면 풍암2리, 1986.7.23., 박찬 현홍철 곽노실 김방경 조사.
* T. 1—22—1

13

베틀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노라
낮에짜면 일광단이요　　밤에짠베는 월광단이요
일광단 월광단 언제나 다짜서　　어느나 곳으로 시집을갈까

* 정귀순, 여·57.
* 서석면 풍암2리, 1986.7.21., 현홍철 곽노실 김방경 조사.
* T. 1—21—1

14

베틀을노세 베틀을노세　　옥난간에다 베틀을노세
베틀다리는 네다리요　　큰아그다리는 두다리요
앙금살짝 세워놓고　　앉을대라 오르는양은
우리나라 금상님이　　용상좌지 하신드시
부퍼[49]라고 두르는양은　　배우는 허래다 두르신듯
말코라구나 안간양은　　삼대독자 외아들이 엄마품에 앤긴드시
베라구 감긴양은　　임과복과 감겼구나
잉애[50]라구 걸린양은　　모시국시 새국시가 걸렸구나
북이라구 나드는양은　　황새촉새 알을물고 비연강으로 넘나들듯
베라구 감긴양은　　임과복과 갱겼구나

49) 부터.　50) 잉아.

체[51]라구 꺾인양은　　처과수 무지갠가 뚜렷하게 꺾였구나

* 송학기, 여·78.
* 내면 자운1리, 1986.1.11., 허남춘 조사.
* T. 6—1—1

물레 노래

붕붕 물레질은　　늙으신네 노리개요
숭덩숭덩 가새질[1]은　　젊으신네 노리개요
한자두자 재다보니　　큰아기씨 노리개

* 윤을순, 여·68. 홍천읍에서 출생, 15세에 삼현리로 시집옴.
* 동면 삼현리, 1988.6.23., 이필용 김경원 류채선 방은영 조사.
* T. 3—2—1

다듬이 노래

다듬이 다듬이 하다가
명지 대자를 잃고서
지길년[1] 살릴년 하는데
눈치없는 김도령 목도리 하고서 왔노라

51) '최활'의 잘못인 듯.
1) 가위질.
1) 죽일 년.

* 강순녀, 여·67.
* 남면 유치2리, 1987. 7.7., 정덕준 김성수 김방경 김요섭 정은정 곽노실 용정실 정명수 성길제 조사.
* T. 4—6—1

삼 삼는 노래

삼아두게 삼아두게 삼 삼아두게
광우리나 반씩만 삼 삼어두게
언제나 갈기갈기 이 삼을 다 삼고
고시레[1] 참나물 씨러진 골로 삼동세 〔 〕
삼 삼어주며는 이별을 했다손 〔 〕
정든님의 중의적삼 짓고서
자 내가 입어볼까
삼어주게 삼어주게 야 더두들두 말고
일굽세 여덟세만 삼 삼어주게
입에는 짜설랑 정든님이나 중의적삼 져 입고
예양[2]물에 경포대로 말귀경[3]가서요
정드신님을 헤드리고 이편에 세우고서
가시는 지태[4]를 보니 놓고싶지를 못하겠구나
나는 또 치맷자락을랑 걷어들고서
정든님 가시는곳만 네다 뵈키는데
정드신님은 날선구로 주무시나
오늘 저녁에 무실이가 주무시나
나는 또 집안에서 묶은 찜들하다보니 날밤을 깠구나

1) '모싯대'의 잘못인 듯. 2) 양양(襄陽). 3) 물구경. 4) 자태.

* 이옥희, 여·65.
* 동면 개운리, 1988.6.22., 이동수 한호순 박승림 조사.
* T. 3—17—1

기직 짜는 노래

널거더엉 널거더엉 사기고 댓도롱
늙은이 심심초냐
넘어가세 넘어가세 들녘머 간다아
사기야도 고드렛돌 넘어간다
서른도 날왕 물자리 지석자리
자리가 언제나 안되려고나
자리를 매야만 지사를 모셔

* 강대성, 남·65.
* 남면 유치2리, 1987.7.7., 정덕준 김성수 정은정 곽노실 정명수 성길제 조사.
* T. 4—4—1

방아 타령

에헤라 방아 방아로구나　　강태공에는 조작방아
에헤라 좋구나 방아야　　대추나무는 쌍살배야
여보시요 농부님네　　사래길고 장찬밭을
한질매고 두질매고　　돌아가는 연자매야
점심참이 늦어지네　　언제찧어 농부님네 밥을짓나

에헤라 연자매야　　돌아가는 연자매야
천석만석 잘도찧는　　에헤라 좋구나 연자매야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전신재 조사.
* T. 6—9—1
* 1987.6.27~28일에 있었던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홍천 연자매놀이에 삽입된 것임.

뽕 따는 노래

뽕따러 가자 뽕따러 가자
앞집이 기화야 뒷집이 채봉아
만뒤산으로 뽕따러가자
뽕도따고 님도보고
겸사겸사 뽕따러 가세
뽕은따서 다래키[1] 담고
강은따서 허리춤에 넣고
만뒤산에 뽕따러 가세

* 윤을순, 여·68, 15세때 삼현리로 시집옴.
* 동면 삼현리, 1988.6.23., 이필용 김경원 류제선 방은영 조사.
* T. 3—1—2

1) 다래끼. 아가리가 작은 바구니.

나물 캐기

[1]

나물가세 나물가세 나물을 가세
우리야 삼동세 보나물가세
보나물 갈라면 모시고가지
시아버니 모시구서 술추렴가세

* 전석일, 남·63.
* 북방면 성동2리, 1987.7.9., 정금란 김진희 강하구 최용헌 조사.
* T. 6—6—1

[2]

동새 동새 우리 삼동새 나물가세
동새는 언덕의 개치싹만 뜯게
내가 참나물 모시대[1]는 내가 뜯을께

* 오만성, 남·73.
* 화촌면 주음치리, 1988.6.24., 정덕준 강성관 윤혜정 유진수 김효경 조사.
* T. 1—4—2

[3]

우리네 삼동새 삼귀장나물을 갈까 데포장나물을 갈까

1) 모싯대.

동새[2]는 언덕의 구절초나 뜯어요
나는 모시대 참나물이나 뜯어 주겠네

* 윤금준, 여·70.
* 화촌면 주음치리4반, 1988.6.24., 정덕준 강성관 윤혜정 유진수 김효경 조사.
* T. 1—5—2

[4]

구월이라 구월산밑에 주축캐는 저아가씨
주축캐는 저아가씨
너의집이 어디걸레 해가저도나 아니가노
나의집을 찾을라거든
심심산천 설안개속에 초가삼칸이 내집이요

* 박귀자, 여·54.
* 서석면 풍암2리, 1986.7.21., 박찬 현홍철 곽노실 김방경 조사.
* T. 1—21—1

[5]

우리나 삼동세 보나물가세
모시대[3]참나물 쓰러진골로 보나물가세
도라질 캘라면 캐구요 더덕을 캘라면 캐구요
남의집의 귀동자 금부의 조사를 왜하느냐

* 여정하, 여·63, 봉평에서 출생, 청량리로 시집와 풍암리에 거주.
* 서석면 풍암2리, 1986.7.23., 박찬 현홍철 곽노실 김방경 조사.
* T. 1—22—1

2) 동서. 3) 모싯대.

성주 풀이

송주분향[1]이 어디메냐
경상도 안동땅에
제비원에서 소지[2]를 받아
그 솔이 점점자라
소부동이 점점자라
대부동이 점점자라
청장목이 점점자라
그대목을 내려할제
옥도끼를 어깨에 둘러미고
저산에 올라 소목내고
원근산에 칡을끊어
양부양천[3] 흐르는 물에
이물에 이사공아
물결이 점점 늦어간다
대동강 쉐주[11]삼고
모란봉 안주삼아
돈있는 활량은
돈없는 건달은
에헤라 만쉐

송주분향이 어디메냐
제비원[2]이 본일러야
연평가평에 던졌더니
소부동[4]이 되었구나
대부동[5]이나 되었구나
청장목이나 되었구나
상장목[6]이나 되었구나
삼십칠명의 역군들이
연평가평에 들어가
저산에 올라 내목[7]내고
웅글뜯어[8] 떼를모아
어화둥실 띄워놓고
저물[10]에 저사공아
에헤라 만쉐
대동강 쉐주삼고
내장추 먹을적에
금보춤 추고
새장구 복판만 꽝꽝 울려라

1) 성주 본향. 성주神의 本鄕. 2) 慶北 安東市 泥川洞에 있음. 燕院. 이곳에서 솔씨가 퍼져 전국에 소나무가 생겨나 집을 짓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음. 3) 솔씨. 4) 소부등(小不等). 조그마한 둥근 나무. 5) 대부등(大不等). 매우 큰 아름드리의 재목. 6) 황장목(黃長木). 7) 대목(大木). 8) 궁글 뚜러. 구멍을 뚫어. 9) 양구 낭천(楊口 狼川). 10) 고물(?). 11) 소주.

* 이장재, 남·57, 강릉에서 출생. 시동에서 20년 정도 거주. 농업에 종사.
* 남면 시동3리, 1987. 7.8., 김성수 김방경 김요섭 정은정 곽노실 정명수 용정실 성길제 조사.
* T. 4—8—1

달구질 소리

에에호라 지경[1]이오 에헤호라 지경이오
이집짓고 삼년만에 에헤호라 지경이오
아들난지 칠세부터 에헤호라 지경이오
글가리키고 맹자배워 에헤호라 지경이오
한양을 올라가니 에헤호라 지경이오
별법을 내려듣고 에헤호라 지경이오
문장은 이태백이 에헤호라 지경이오
아들을 나으면 효자를 낳고 에헤호라 지경이오
딸을 나으면 열녀를 날제 에헤호라 지경이오
여보시오 지경님네[2] 에헤호라 지경이오
이만하면 다졌겠지 에헤호라 지경이오
요만조만 두여보세 에헤호라 지경이오

* 이 돈, 남·52.
* 서면 팔봉1리 도롱골, 1987.7.7., 송동찬 엄병화 김숙영 류재선 조사.
* T. 2—13—1

1) 지정(地釘). 2) '제원님네'의 잘못.

안 택 경

굴선명당에 신조나여니 천당대지라 소명난다
성얼성레나 에지에라 동방에는 청제지신
남방에는 일지지신 서방에는 육지지신
북방에는도 째째지신 중앙에는도 황제지신
여러지신이 하강하사 소원성취나 바러니오
이댁가중에 금년신수가 대통하야 이뉴월 꿈을 열은듯이
통절문을도 닫은듯이 비단에나 숫결같고
물에 물탄듯이 술에 술탄듯이
그냥 그대로 술술이나 내리시고

* 이 돈, 남·52.
* 서면 팔봉1리 도롱골, 1987.7.7., 송동찬 엄병화 김숙영 류재선 조사.
* T. 2—13—1

고 사 반

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우리 부처님이 오실적에

[ ][1] 오실적에
오실상불이 오셨다가 이불은 돌아가시고
상불 제석으로 오실적에
하루종일 배를 타자하니 메워져서 못타겠네
닝구배를 타자하니 부러져서 못타겠네
무쇠배를 타자하니 다 가라앉아 염려될까 못타겠네
상불제석에 하실적에
애다하슨 어디에 오시 않아서 개울에 앉으셔서
강가에 앉으셔서 버들잎을 깔구르할 제
치우셔서 한강에다 던져다 놓으니 버들잎의 조화로다가
강면에 다가다 흘러가시어서 다 우리의 다 조상님들이
후회로다 하여서
당아중 세존님네 세존님네
당아중 세존님네 세존님네
당아중 세존님네 세존님네
없는 자손을 점지해 주시고
있는 자손은 수명장수 시켜 달라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선배가신 조상님네 억울하게 가신 조상님네
못다먹고 못다입고 후배가신 조상님네
세상에도 세상에도 이팔청춘에 가신 정혼들아
앙글시적 나도크고 만만시에 나도나고
단사별체에 부모가 기를적에 이세상에 나와 가지고
무럭무럭 자라가죠다 은자동아 금자동아
은사실도 내려놓고 부모가 맺힐적에

1) 청취 불능.

백년해로 해로동락 하자하니 금사실도 누릴적에
못다이 먹고 못다 입고 해로동락 못다해서
당아중에 자손에게 아아 이세상을 가실적에
허풍골을 졸르매고 인계시켜 주장하고
다복이 부귀영화 먹을 것을 못다 입고
다 해로동락 부귀영화 하라더니 양돈 위에도 자손나서
다 자손이요 다 홀로로서 못하고 부귀영화 못하고
원통하고 분하실할 북망산천 갈적에 얼마나도 애처롭고
어린 자손 두고 북망산천에 가실적에 어찌다 말을 하오리까
이 자손이 커가지고 얼마나도 애닯고도 또 애닯게습니까
부모 혼이라도 다 원풀어서 부모 그려서 커가지고
극락세계 가시라고 하오시니이다 원당집고 한풀어서
원통하다 말으시고 분하시다 말으시고
다 이바람을 하오시니 열두대왕의 극락세계 가시라고
조상 없는 자손이 어디있겠습니까 부모 없는 자손이 어디있고
우리네가 한번났다 다 애처롭고 원통하시지만은
한번가면 그만이지 자손들의 우환질병 거둬가고
슬픈것도 거두시고 다 모든 액운 걷어다가
운할다가 세멸하시고 자손집이 재수운을 열어줄때
천륜운도 열으시고 말년운도 열어주오시고
모든 액운 액썰걷어 우환질병 거두어다가
운할로다 세열을 하오시고 만주성님 오실적에
열두대왕 극락세계 가시어서 인도하서 하옵소서
나미아미타불 나미아미타불 지장보살
나미아미타불 나미아미타불

* 유금순, 여 • 60.
* 서면 어유포리, 1987.7.8., 허남춘 이원미 이진주 강성관 조사.
* T. 2—3—2

[2]

〔일석〕 어시 축원제자요 명은 대인이라
대성대성은 언무장구삼행마보망희신지하명정이
세인제 난리경에 삼언경무나 백마나 삼경
그〔 〕사바가하야 네아무리 좋대일전으로 금일날로
잡아다가 옥줄경으로 읽어주마
제상으로 읽어주께 태왈이신을 허옵서다
병자시는 상문방에다 돌려 뉘키시고
약을 써줘도 약고대가도 없는 고로 지어보리
구이자는 민자요 병자시는 상문일세
도도도유야하원 귀신은 머리에도 구요맹이
귀신은 명진이요 임자로다 허시느니
금일날로 축원을 하옵서다
대일자는 제이오나 신명자는 기오신명에
신도저는 제다 강생이로 차폐경으로 장력을 두고
옥줄경으로 옭아다가 제사지내는 뉘시킬신을 짜게
저우신망의 신도전은 제우신명의 신도하강을 시키지를 말으시고
센장님은 장화이께로
신을 열시키시고 귀신자로 쉬시니라 축원

〔이석〕 어시에 자북원제자요 마나님이다.
귀신명하에 동마임자소야
어으 전지로 신명에 신도하야
구천내상에 보하천전 상단에도 구보천전
봉단으로〔 〕신장 바달 할심는 집의 신장님은
제〔 〕을 올려놓고 신도진을 노널적에

경전을 금일제나 저 너매 이신명하야 시도리를 시킨적에
이 생년을 지키느니 이 놀이로 경청하고 지자강생도 경청허니
지루하기를 신명이라
천상이로도 천전이라 구천의 성에 도하하면
상이구나 천전전이요
일생 경문을 헐도야라놓고 사이로도 정자씨는
상문방에도 돌려뒤켜 하위신명을 시킬 적에
자축신사로다
저기 십의로 시킬적에
자축신묘 신도하야
신명단에 구천에 뫼성에 도하천전 사이로 천전이 하소
사일이 명당에 구미리 선경문을
신경문을 열어 놓고 화장접어 두둥절이 성해드리
장구활령 집을 두고 열손고락 가지를 주실 적에
정자씨는 상문칠방에다도 돌려뒤켜
약을 써둘 약고대가도 없는고로
일자신경문을 열어놓고 화장접어 두둥절이 소매지게
장구활령집을 주고 열손구락에 학위를 주을적에나
육지에다두 잠을 자고 평지에다두 허줌을 갈려
시지상천에 하강을 허느니라
구천은 내성에 보하천년 예일전으로 신경문을 얽어놓고도
하위동침을 시킬 적에 소지귀신도나 감언감동을 허실적에
지방성중은 내일을 감언감동을 허실적에
집안에도 도지내히로 감언감동을 허실적에
저축으로 신경문을 들여 열어놓고
구천내성에 보하천전 상위로도 천전에 허소서
새이로 신경문을 기일짜로 생명문을 열어놓고
화장접어 두둥절이 소매지리 장구활령 집을 주고

열손구락에 하위동심을 시킬적에
집안토지도 내이도 도려 지신도나 하위 동심을 시킬 적에
구천내도도 세면은 시킬적에 없는 세면을 시키지 말고
있는 미신을 잡어다가
옥줄경인 생경자요 인열자로도 생경자라
서기 발도로 한양을 허실 적에
구천되당자요 인물이로 정통하고 지자도나 경청허니
저축명당에 상당이로 상낼인 구혼내일도
시메를 시킬적에 정시메를 시켜주마
구메에도 반액을 시킬적에
병자씨도 유자도 시킬적에
미자도도 시킬적에 저추도 명당이라
구천 천명에 하위동심을 시킬적에
새이도도 장님을 시킬적에
병자도도 생경자요 인형자도 생경자라

* 이병준, 남·72.
* 서면 두미리, 1987.7.7., 허남춘 이원미 이진주 강성관 조사.
* T. 2—2—2

[3]

사바세계 유명왕산 부조 해동은 대한국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굴운리 동중언
경로당은 회장님 가중이요 택중은 나라님 택중이라
금일 축원이요 워어 남헤에 남허어무아미타불
천지 개유허니
천왕신은 하늘을마련 지왕신은 땅을마련
수희신은 물을마련 인왕신은 인생을마련

복희씨는 농사를 마련하니
국태민안 우순풍조 시화연풍 연연히 돌아든다
이씨 한양 등극시에
삼각산이 기봉하여 봉황이 눈치 생겼구나
학을눌러 대궐짓고 대궐앞에 육조로다
삼각산에 오영문은 왕십리 청룡되고 둥구재 만리 백호로다
한강은 조수되고 인왕산이 수구를 막어
억만가구 십만장안 아랫대궐 웃대골 경복궁 새대골
이리 경기는 경성내라 삼십칠관은 대무관으로 마련하고
사대문밖 썩나서서 각도 각읍을 마련헐제
강원도로 나려와서 이십육관을 마련헐제
춘천을 잡아드니 봉의산이 주봉되고
속초로 들어서니 설악 치악산이 둘러있고
속초로 들어서니 설악산이 수구를 막고
강릉이라 나려오니 오대산이 명산이라
여기저기를 다버리고 이대도시는 대도시
이대동중 대동중 건국곤명 모시로다
작년같이 험한세월 꿈결같이 넘기시고
시년새해를 잡어드러 인가 태평을 발원이요
남해에 남허무아미타불

이댁가중 찾어들어 금년액사를 풀고가자
부부내외 원근도중에 이별살이면 부정을 풀어 버린살
오늘내외지간에 이별살 늘기전에 천둥살
하느님전 천액살이면 땅에내려 지액살이냐
부정성 금강살은 다풀어서 여기 저기를 다버리고
이댁가중 차가중에 만복을 점지
남해에야 남허에무아미타불

이백동중 내외부처 어 사해팔방원근은 수리팔지라도
금년액사를 풀어보자.
거래노중에 홍액이며 산에올라 산액이며
들을들어 들액이며 물에가면 수액이며
산에가면 산액이며 들판에 들충이 들충액이며
지붕알에 용왕액 용각액이며 수궁으로 용왕액
모든액을 다떨어서 여기져기다 소멸하고
일년이면 열두달 과년하고 열석달
삼백하고 예순날에 내내 거처 갈지라도
안가 태평을 어라 어이

오늘 여기오신 남녀학생 여러분
어 만복을 드르시고 만액을 소멸헐제
천액이며 지액이며 일액이며 월액이며 시액이며
모든액을 막어다가 원망천리 소멸헐제
정월이라 드는액은 이월이라 초하루날 영등맞이로 막어내고
이월이라 드는액은 삼월이라 삼신날 연잡생이 막어내고
삼월이라 드는액은 사월이라 초파일날 관등맞이로 막어내고
사월이라 드는액은 오월이라 단오날 추천가지에 막아내고
오월이라 드는액은 유월 유두에 막어내고
유월이라 드는액은 칠월 칠석에 막어내고
칠월이라 드는액은 팔월이라 한가우 해천석으로 막어내고
팔월이라 드는액은 구월 구일에 막어내고
구월이라 드는액은 시월이라 납청일에 막어내고
시월이라 드는액은 십일월 동지에 막어내고
십일월에 드는액은 십이월 망일에 막어내고
십이월에라 드는액은 정월이라 대보름날 망월맞이로 막아다가
원광 천리 소멸허고 속거 만리 소멸하고

일년이면 열두달 과년하고도 열석달
삼백하고 예순날에 내내 거쳐 갈지라도
안가태평 무병복록 재주소망을 점지하소사
남해에 남허아무아미타불

* 안중혁, 남·77. 화촌 출생. 출생후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15년전에 귀향. 폭넓은 자료를 구연.
* 화촌면 굴운리, 1938.6.24., 엄기주 오애리 성결제 이용인 박미연 조사.
* T. 1—14—1

4

둥구재 만리 백호로다 왕십리 청룡되고
죽림산위에 안산이요 가락산에 화산이다
이씨한양 건국후에 봉래등에 터를 닦고
가게머리 조충 놓아 봉을 눌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 육조로다 강토당국을 마련할제
춘천은 내무판이요 홍천은 곧은 산골
남면하고두 용수리로 접어들어 이명당 이가 등에
김일 김씨 김일이야 김일하고도 사바세계
서천서역 국서당은 세분이 나오실제
일 잘하는 농부님네 글 잘하는 문장님네
활 잘쏘는 한량님네 다만 세분이 나오실 때
의주하고도 압록강 압록강은 열두강
뒷냇강도 열두강 이십사강에 배가 없어
나무배를 잡아타니 역수만년 썩어지고
무쇠배를 잡아타니 지남철에 들어붙고
돌배를 잡아타니 물에 텀벙 가라앉는다
이배저배 다못타고 뒷동산 올라가

연잎떼기 꺼꾸로 잡고 쪼르르 훑어
연잎선을 모아타고 실모래로 돛을달고
왕모래로 노를 저어 근너왔다 근너갔다
제기골에 숙소하고 남대문앞 전자로다
이럭저럭 하다보니 어영에 손님 치뤄보자
낮이며는 일부조사 밤이며는 가부적간
일부조사 가부적간 다하고 나니
어영에 손님 치뤄보자
하루이틀 보냄내고 이드레 여드레 배승하니
만사가 대길하여 소원성취 발원이요
이럭저럭 하다보니 봄철이 당도하여
농사한철 지어보자
무스매 농사 지어 볼까 베농사 지어보자
무스매 베를 심어 둘까
산에 올라 산토베기 들에 올라 들층다리
여주이천에 자차베 양시레기 검부레기
베농사 지었으니 찰베농사를 지어보자
무스매 찰베를 심었더냐 울긋불긋 대출찰
엮어봤다 양푼찰 뭉게뭉게 개똥찰
찰베농사 지었으니 콩농사 지어보자
무스매 콩을 심었느냐 일대이대 베테콩
만리타국의 강남콩 덕안포수 주느니콩
콩농사 지었으니 양념농사 지어보자
무스매 양념심었드냐
후추 당초 마늘 고추 하룻가리 깃들였으니
만사가 대길하여 소원성취 발원이요
이럭저럭 하다보니
가을철이 당도하여 가을 추수하여 보세

벼리같은 중생들은 또아리 밭에 여들이고
무쇠같은 종놈들은 지게밭에 〔 〕이요
만사가 대길하여 소원성취 발원이요
우억뿌리 잡삑뿌리 쌍쌍굴러 사족바리
나갈적엔 빈달이요 들어올땐 찬달
앞에는 앞노적 뒤에는 뒷노적
쌍쌍굴러 어희 사족 〔 〕싸니
이럭저럭 하다보니 농사는 지었으나
만사가 대길하여 소원성취 발원이요
이집진지 삼년만에
아들을 나면 효자를 낳고 딸을 나면 열녀를 낳아
열녀 충신되었으니
만사가 대길하여 소원성취 발원이요

* 이원의, 남·65.
* 남면 용수리, 1987.7.7., 이홍식 박형규 최정희 김석주 조사.
* T. 3—2—1

상여 소리

Ⅰ

어허 허어 허어 허어어 넘차노하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밖이 저승일세
어 허허허 허오호 어 넘차노하
친구벗님 많다해도 어느 친구가 대신을 가이며
어 허허허 허오호 어 넘차노하
일가 친척이 많다해도 어느 일가가 대신을 가이며

어 허허허 허오호 어 넘차노하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고 설워마라
어 허허허 허오호 어 넘차노하
명년 삼월 봄이되면 너는 다시나 피려니와
어 허허허 허오호 어 넘차노하
인생 한번 죽어지면 다시 오기가 어려워라
어 허허허 허오호 어 넘차노하
이 세상에 나온 사람 뉘덕으로나 생겼을까
어 허허허 허오호 어 넘차노하
하느님전 은덕으로 아버님전에 뼈를 빌고
어 허허허 허오호 어 넘차노하
어머님전에 살을 빌어 인생일신이 탄생을하니
어 허허허 허오호 어 넘차노하
어려서는두 철을 몰라 부모 은공을 모르다가
어 허허허 허오호 어 넘차노하
이삼십을 당하여도 부모 은공을 갚을손가
어 허허허 허오호 어 넘차노하
아침나절 성튼몸이 저녁나절에 병이드니
어 허허허 허오호 어 넘차노하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는이라 냉수로다
어 허허허 허오호 어 넘차노하
무너 불려서 굿을 한들 굿덕이나 있을손가
어 허허허 허오호 어 넘차노하
맹인 불러 경읽은들 경덕이나 있을손가
어 허허허 허오호 어 넘차노하

* 조복래, 남·53.
* 서면 모곡리, 1987.7.9., 오춘택 이필용 이동수 현홍철 김미영 조사.
* T. 1—7—1

[2]

이 세상에 나온 사람	어허 넘차 오허
부모은덕 모르는가	어허 넘차 오허
석가 여래 은덕으로	어허 넘차 오허
이내 인생 생겼으니	어허 넘차 오허
어허 넘차 오허	어허 넘차 오허
인제가면 언제오나	어허 넘차 오허
명년 삼월 봄이오면	어허 넘차 오허
너는 다시 피건마는	어허 넘차 오허
이내 인생 한번가면	어허 넘차 오허
다시는 또 못오느니	어허 넘차 오허
노세 놀아 젊어노세	어허 넘차 오허
늙고 병들면 못노느니	어허 넘차 오허
어허 넘차 오허	어허 넘차 오허
가네가네 나는 가네	어허 넘차 오허
명산 대천 찾아서 나는 가요	어허 넘차 오허
저승길이 멀다더니	어허 넘차 오허
대문밖이 저승일세	어허 넘차 오허

* 이계진, 남·66. 외
* 남면 시동3리, 1987. 7.8., 김성수 김방경 김요섭 정은정 곽노실 정명수 용정실 성길제 조사.
* T. 4—8—1

[3]

호오넘차 호호	호오넘차 호호

인제가면 언제오나 호오념차 호호
인생일신 탄생하여 호오념차 호호
이세상을 하직하고 호오념차 호호
어찌갈꼬 심산험로 호오념차 호호
정처없는 길이로다 호오념차 호호
인생한번 죽어지면 호오념차 호호
다시오기 어려워라 호오념차 호호
이세상을 하직하고 호오념차 호호
북망산에 가리로다 호오념차 호호
어찌갈꼬 심산험로 호오념차 호호
정처없는 길이로다 호오념차 호호

* 고재덕, 남·55.
* 동면 좌운리, 1988.6.23., 이필용 김경원 류재선 방은영 조사.
* T. 3—1—1

4

오 호오 호 어이나 가리 오호 오 호오 어이나 가리 오호
인간 칠십 살았어두 번한 시계를
못보구서 이 대문이 하직이요 〃
여보시오 지원님네 일심을 받어 잘두 가우 〃
일가친척 많다한들 어느 누가 대신을 가우 〃
친구가 많다한들 어느 친구가 대신을 갔나 〃
일가친척이 많다해두 어느 누가 대신을 가우 〃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구 슬허 말어 〃
명년춘삼월에 또다시 돌아오네 〃
백년집을 버리구서 만년집을 찾아가네 〃
여보시오 훈정님네 척척이 잘 갑시다 〃

북망산천이 머다하니 이번 길이 하직이요 〃
산은 첩첩 청산인데 인생은 한번 고만이요 〃
꽃은 피어서 만발하구 잎은 피어 청산인데 〃
인생 한번 죽어지면 다시 오지는 못하리라 〃

* 윤경석, 남·65.
* 서석면 검산2리, 1986.7.22., 조남혁 전희숙 정금란 조사.
* T. 5—2—2

회다지 소리

Ⅰ

에야 호리 다할공 에야 호리 다할공
여봅소 군족님네 에야 호리 다할공
이내말씀 가는데로 에야 호리 다할공
상에서 하에까지 에야 호리 다할공
일심합력을 하여를주소 에야 호리 다할공
먼데사람은 듣기나좋고 에야 호리 다할공
곁에어른들 보기나좋게 에야 호리 다할공
가련하다 초패왕은 에야 호리 다할공
초를장차 잃단말가 에야 호리 다할공
역발산두나 쓸데나없고 에야 호리 다할공
기거새[1]두나 쓸데나없네 에야 호리 다할공
칼을집고서 일어를나니 에야 호리 다할공
사면이나 초가로다 에야 호리 다할공
후회후회 내야가오[2] 에야 호리 다할공

1) 기개세(氣蓋世). 2) 우혜 우혜 내약하오(虞兮 虞兮 奈若何).

삼군이나 흩어를지니 에야 호리 다할공
마음이나 산란하다 에야 호리 다할공
평생에나 원하기를 에야 호리 다할공
금고를두 울리면서 에야 호리 다할공
강동으로나 가잤더니 에야 호리 다할공
불우해나 배망[3]하여 에야 호리 다할공
어찌나낮을두 다시나들고 에야 호리 다할공
부모님을두 다시나보이며 에야 호리 다할공
강동사람을 어이나보리 에야 호리 다할공
백대여흥[4] 호걸들아 에야 호리 다할공
초한승부를 들어를보소 에야 호리 다할공
진인지영[5] 부처럽고[6] 에야 호리 다할공
천민힘이나[7] 으뜸이라 에야 호리 다할공
한패공에 백만대렬[8] 에야 호리 다할공
구리산에다 복진을치고 에야 호리 다할공
초패왕을두 잡으렬제 에야 호리 다할공
병마장군 도원수는 에야 호리 다할공
〔 〕 에야 호리 다할공
거리거리 북병마[9]요 에야 호리 다할공
골골마다나 매복이라 에야 호리 다할공
유괴많은[10] 이자건은[11] 에야 호리 다할공
초패왕을두 인도를하고 에야 호리 다할공
수잘두는두[12] 장자방[13]은 에야 호리 다할공
계명산 추야월에 에야 호리 다할공
옥통소를두 슬피나불어 에야 호리 다할공

3) 패망. 4) 백대영웅. 5) 절인지용(絕人之勇). 6) 부질없고. 7) 순민심(順民心). 順民治德. 8) 백만대병. 9) 복병(伏兵). 10) 간계 많은. 11) 이좌거(李左車)는. 12) 수를 잘 두는. 묘수를 잘 쓰는. 13) 張子房.

팔천제자를 흩일적에 에야 호리 다할공
구추단풍 깊은밤에 에야 호리 다할공
하늘높고 달밝은데 에야 호리 다할공
청천에나 저기러기 에야 호리 다할공
객의수심을 돋우는고 에야 호리 다할공
우리나낭군이 떠날적에 에야 호리 다할공
중문에서나 손목을잡고 에야 호리 다할공
눈물을짓고 이른말이 에야 호리 다할공
청춘홍안을 두구서가니 에야 호리 다할공
명년구월에 다시나보마 에야 호리 다할공
금석같이나 벳은언약 에야 호리 다할공
잊지말자고 하였건만 에야 호리 다할공
원앙금 앵무침에 에야 호리 다할공
전전발측[14] 생각이로다 에야 호리 다할공
여보시오 군족님네 에야 호리 다할공

〔구연자 : 요번부터는 소리가 변해요〕

에야 호리 다할공 에야 호리 다할공
옳다인제는 일잘되었네 에야 호리 다할공
천년만년 집이오리[15] 에야 호리 다할공
아주쾅쾅 다려를[16]주소 에야 호리 다할공
서산에 지는해는 에야 호리 다할공
그뉘라서 금지를하며 에야 호리 다할공
창해루나 흐르는물은 에야 호리 다할공
다시오기가 어려워라 에야 호리 다할공
유순우탕[17] 문무나주공[18] 에야 호리 다할공

14) 전전반측(輾轉反側). 15) 집에 오리? 16) 다져를. 17) 요순우탕(堯舜禹湯). 18) 문무주공(文武周公). 周나라의 文王, 武王, 周公.

공맹안정[19] 정주자[20]는 에야 호리 다할공
도덕이 상승하야 에야 호리 다할공
만고성현을 일렀건만 에야 호리 다할공
한번죽음을 못면하고 에야 호리 다할공
여보시오 군족님네 에야 호리 다할공
요다음에 더잘하시고 에야 호리 다할공
이것으로 그만둡시다 에야 호리 다할공

* 조복래, 남·53.
* 서면 모곡리, 1987.7.8., 오춘택 이필용 김미영 이동수 현홍철 조사.
* T. 1—7—1

2

선천지 후천지는 억만세계 무궁이라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수지조종은 황하수라
곤륜산 일지맥이 동으로 뻗어나려
백두산이 주산이요 한라산이 안산이라
두만강이 청룡되고 압록강이 백호로다
건곤이 개벽후에 별계를 이뤘으니
지세도 좋거니와 풍경이 더욱좋다
예의문물 받았으니[21] 대한민국이 분명쿠나
팔도강산 좋은경치 역력히 구경할제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이 둘러있고
함경도 백두산은 두만강이 둘러있고
충청도 결웅산[22]은 백마강이 둘러있고
전라도 지리산은 공주금강 둘러있고

19) 공맹안증(孔孟顔曾). 孔子·孟子·顔回·曾參. 20) 程朱子. 程顥·程頤·朱熹. 21) 밝았으니. 22) 계룡산.

경상도 태백산은 낙동강이 둘러있고
강원도 금강산은 세계의 명산이라
팔도강산 좋은경치 역력히 끌어다가
이산세 되었으니 천하명산 여기로다
이산자리를 잡을적에 그누가 잡았드냐
도선[23]이 박상[24]이 무학[25]선생 문서로써
팔도강산 편답하여 이산락맥말 밟아보니
천하의 제일이요 일광지가 여기로다
지남철을 손에들고 육도판[26]을 앞에놓고
좌향놓고 안대[27]볼때
임자계축 갑인갑묘 을진신사[28] 병오정미
곤신정유 신술경해[29]
득수득파 어떠한가
대국법을 〔살펴〕 보니 대과할 수득이요
우순포태 역기하니[30] 부귀공명 수득이라
이런명당 모셨으니 팔복[31]인들 없을소냐
사시에 하관하여 오시에 팔복이라
좌청룡 되었으니 자손번성 할것이요
우백호가 되었으니 외손번성 할것이요
앞에주춤 노적봉은 거부장자 될것이요
뒤에주춤 문필봉은 문장대사[32] 나리로다
일산봉이 비쳤으니 수령방백 날것이요
투구봉이 비쳤으니 대대장군 나리로다
천지현황 생긴후에 일월영책[33] 되었어라
〔만물이 번성하여〕 산천이 개벽시에

23) 道詵(827~898). 24) '팍박'의 잘못일 듯. 郭璞(276~324). 25) 無學 朴自超(1327~1425). 26) 윤도판(輪圖板). 27) '안배'의 잘못일 듯. 28) 손사(巽巳). 29) 간해(艮解). 30) '역수(易數)하니'의 잘못일 듯. 31) '발복(發福)'의 잘못. 32) '문장재사'의 잘못. 33) '일월영측(日月盈昃)'의 잘못.

곤륜산 제일봉은 산악중에 조종이요
삼지용 흘러나려 사해구주 되었어라
백천이 동도하여 동해지 조종이요
천봉이 병립하여 북극을 고어있네
진시황의 만리장성 별계를 삼아두고
천하가 적단말은 공부자의 대관이요
노국이 적단말은 우리들은 몰랐어라
태산에 올라서서 상고를 굽어보니
삼조선 치국시에 임금님이 뉘시드냐
도당씨 시절에는 단군의 조선이요
문왕의 별세시엔 위만의 조선이라
범마진[34] 삼한국은 흥망이 자취없고
고구려 백제국은 사적만 남아있고
일천년전 신라국은 산하만 예구하다[35]
오백년 고려국은 강성만 비어있네
명제는 선국으로[36] 한양에 도읍하니
인왕산이 주산이요 관악산이 안산이라
한강이 조수되고 동작강이 수구막아
청룡금탑[37] 되었으니 만호장안 이아니냐
장안만호 복덕가에 기남자 났단말가
그아해 상을보니
얼굴은 관옥같고 풍채는 두목지라
한살먹어 말배우니 사마광의 총명이요
두살먹어 말배우니 소진장의[38] 구변이요
세살먹어 걸음배워 걸음마다 향내나고
네살먹어 인사하니 효제충신 아름답다

34) '변마진(弁·馬·辰)'일 듯. 35) '의구하다'의 잘못. 36) 조선국으로. 혹은 命世神君이. 37) 천부국당(?). 38) 蘇秦(?~317 B.C)과 張儀(?~309 B.C)

구구육갑 천자문을 오세에 배워두고
시전서전 논어맹자 칠세에 다배우고
전집이며 후집이며 두서와 이백서를
십오세에 다배우니
치경도 하려니와 치술일필 범연하랴
영주봉내 십팔세는 동중서를 의논하고
오로봉으로 붓을삼고 삼산강으로 벼루하니
당대지술 백낙천을 부려하니[39]
이때가 어느때냐 때는마춤[40] 삼춘이라
왕세자 탄생하여 태평과를 보이실제
알성과를 보라하고 서책을 품에품고
장중에 올라가니 강구연월 예문동보
해제를 생각하여 용연에 먹을갈아
청황모 무심필을 반중등 흠뻑풀어
왕희지의 필법으로 조명덕[41]의 체를받아
일필휘지[42]하야 일천에 선장하니
상시관이 글을보고 자자이 비범[43]이요
귀귀마다 관주로다 한림학사 제수하니
머리에는 의사화[44]요 몸에는 청삼이라
좌수에는 홍패들고 우수에는 백패들고
홍패백패 들었으니 이양반이 뉘기든가
서울양반 분명쿠나 이미자손 분명하다
어주삼배[45] 마신후에 사은숙배 물러나와
청노새를 비껴타고
장안대도상에 이리가고 저리갈제

39) '[ ]부러워하랴?'일 듯. 40) 마침. 41) '조맹부(趙孟頫)'의 잘못.
42) 일필휘지. 43) 비점(批點). 44) 어사화(御賜花). 45) 어주삼배(御酒三盃).

따르나니 선달하요 부르다니 신래로다
버슬길을 돌으신체
초입사한 일주사한이요 재입사의 임금이라
홍문관 교리수찬 사헌부에 지평이며
정언에 승지당상 좌우승지 도승지라
내직도 하혀니와 외직인들 버릴소냐
수원유사 동래부사 경주부윤 광주목사
수령을 지낸후에 방백을 생각허니
좌천하여 황해감사 쓰중나서 전라감사
축고맞어 강원감사 무망으로 경상감사
승품하여 경기감사
팔도감사 다지내니 노래하여 퇴루할까바랬더니
성은이 망극하여 무망으로 일용대장
병조판서 이조판서 호조판서 이조판서
이조중랑 한성부판윤이며
좌의정 우의정 부원군 춘흥부
일당상에 명하를 다지내니
월용이 유배하여 인간백년 [illegible]광음
춘풍에 지는꽃은 연년히 다시피고
왕손의 방초들은 해마다 보련마는
인생한번 돌아가면 어느때나 다시올까
선경을 바라보니 구만리 장천이요
봉래산을 가자하니 약수가 삼천리라
만승천자 진시황도 장생불사 하랴하고
동남동녀 오백인을
삼신산 불사약을 구하러 보냈더니
불사약을 못구해서 사구평대 사하소서
무릉도원에 장사지내고

덩그러운 일부터에 무덤만 남았구나
하물며 초로인생 더일러서 쓸데있나

* 강태형, 남·70.
* 서면 모곡2리 노인정, 1987.7.7., 오춘택 신정복 이동수 최제희 조사.
* T. 1—1—1

[3]

에헤 허리 다할공
여보시오 부인네야 에헤 허리 다할공
여보시오 유한길꾼 에헤 허리 다할공
상에서마춰서 하루나 넹겨 에헤 허리 다할공
여보시오 유한길꾼 에헤 허리 다할공
먼데손님 듣기좋게 에헤 허리 다할공
외부손님 보기좋게 에헤 허리 다할공
여보시오 유한길꾼 에헤 허리 다할공
잘하면 술을주고 에헤 허리 다할공
못하면은 술도없어 에헤 허리 다할공
여보시오 유한님네 에헤 허리 다할공
자진서리를 디뎌볼까 에헤 허리 다할공
한두살에 철을몰라 에헤 허리 다할공
이삼십을 당도하니 에헤 허리 다할공
여보시오 부모님네 에헤 허리 다할공
한두살에도 철을몰라 에헤 허리 다할공
이삼십을 당도허니 에헤 허리 다할공
여보시오 어머님네 에헤 허리 다할공
혼자들여서 굿을해도 에헤 허리 다할공

덕우직구 해도안되 에헤 허리 다할공
판수들여서 경을읽어 에헤 허리 다할공
경덕두나 못읽겠소 에헤 허리 다할공
여보시오 부모님네 에헤 허리 다할공
나죽어요 나는죽어 에헤 허리 다할공
어머님이 한숨을허서 에헤 허리 다할공
여보시오 그말말구 에헤 허리 다할공
소지한장을 집어들고 에헤 허리 다할공
양초한쌍을 집어들고 에헤 허리 다할공
삼신산으로 들어를가니 에헤 허리 다할공
비나니요 비나니요 에헤 허리 다할공
칠성님께나 명을얻어 에헤 허리 다할공
산신님전에 비나니요 에헤 허리 다할공
그것도저것두 그만두고 에헤 허리 다할공
어머니여 어머니여 에헤 허리 다할공
나는가요 나는가요 에헤 허리 다할공
서신밖이나 의문이로라도 에헤 허리 다할공
저승밖이 지문이로구나 에헤 허리 다할공
어머니어머니 부르는구나 에헤 허리 다할공
어머니여 노자좀주소 에헤 허리 다할공
저승길이나 멀다더니 에헤 허리 다할공
나와보니 저승이로구나 에헤 허리 다할공
일직사자[46]는 등을밀고 에헤 허리 다할공
월직사자[47]는 손을잡고 에헤 허리 다할공
일직사자는 등을밀고 에헤 허리 다할공
월직사자는 손목을잡고 에헤 허리 다할공

46) 일직사자(日直使者). 인간을 잡아간다는 저승의 사자. 月直使者, 강님사자와 함께 다님. 47) 월직사자(月直使者).

어서가자 어서가자 에헤 허리 다할공
철통같은 거동질에 에헤 허리 다할공
높은데는 낮어지고 에헤 허리 다할공
짚은데는 높아진다 에헤 허리 다할공
여보시오 사자님네 에헤 허리 다할공
점심이나 먹고가자 에헤 허리 다할공
여보게나 그말말게 에헤 허리 다할공
점심이나 고만두고 에헤 허리 다할공
시간이바삐 가야된다 에헤 허리 다할공
일직사자가 끌고가니 에헤 허리 다할공
저승발에 들어가니 에헤 허리 다할공
일직사자가 어서와라 에헤 허리 다할공
월직사자가 뒤를치면 에헤 허리 다할공
어여가거라 어여가 에헤 허리 다할공
들어가보니 일찍소집 에헤 허리 다할공
치다보니 소라반자 에헤 허리 다할공
내려다보니 각자장판 에헤 허리 다할공
자진소리를 들어봐라 에헤 허리 다할공
에야 허허리 더할궁※ 에헤 허허리 더할궁
여보시오 벗님네야 에헤 허허리 다할궁
때늦었으니 문열어라 에헤 허허리 다할궁
여보시오 유한걸꾼 에헤 허허리 다할궁
놀기나좋다고 마냥노나 에헤 허허리 다할궁

* 신제완, 남·72.
* 서면 중방대리, 1987.7.9., 오춘택 이필용 김미영 이미한 조사.
* T. 1—9—1

※ 이 부분부터 박자가 빨라짐.

[4]

에아 허리 돌고 에에 호리 돌고
날은좋다 세상풍운 에에 호리 돌고
일란풍란 옥초나비 에에 호리 돌고
산천초목 비옥하고 에에 호리 돌고
샘에평야 풍성하니 에에 호리 돌고
산천대지 넓은땅에 에에 호리 돌고
높고높은 천운신세 에에 호리 돌고
우호밍에 어떠든가 에에 호리 돌고
세우만리 나원비는 에에 호리 돌고
녹초청강 살이되고 에에 호리 돌고
금수강산 배가되어 에에 호리 돌고
천산을 날입할제 에에 호리 돌고
기종해가 중앙이되어 에에 호리 돌고
에끼낭맥 중원을뻗어 에에 호리 돌고
초혼태산 이뤄지고 에에 호리 돌고
곤륜산에 원지백이 에에 호리 돌고
한방으로 뻗어나와 〔받는소리 멈춤〕
천리강산 되고보니
백두산은 백해혀를
이강산에 지워내고
팔도강산 부처날제
팔도팔배로 부처난
한강수는 요대되고
이강산을 그려낼제
선천운에 복희씨

후천운에 인황씨라
호호탕탕 놓여나는
천마강산 이뤄보세
금강산은 칙주대요
구산하고도 홍운대요
개존하고 제중혈이요
제중혈을 지나보는
구황하고 형님네
가야산아 오각혈이요
가야산에 오각혈이요
충청도는 어디냐
충청도는 청풍명월
청풍명월 누구드냐
백이숙제 채월미도
수양산에 들어갔네
수양산에 보살이로
풍신호걸을 자처안네
계룡산이 낭맥이냐
낭맥조차 어디드냐 에헤 허리 돌고
계룡산에 혈기받아 에헤 허리 돌고
산천대지 넓은땅에 에헤 허리 돌고
저승길이 멀다해도 에헤 허리 돌고
대문밖이 저승일세 에헤 허리 돌고
전라도라 이등속을 에헤 허리 돌고
홍천하고 지명이와요 에헤 허리 돌고
넓을홍자 홍천이요 에헤 허리 돌고
홍천강수 어디드냐 에헤 허리 돌고
백리안팎 홍수로다 에헤 허리 돌고

에헤허리 돌고 에헤 허리 돌고
에헤허리 돌고 에헤 허리 돌고
산신산 구처라도 에헤 허리 돌애야
사람죽어 사모니어 에헤 허리 돌애야
천신제신 인신이여 에헤 허리 돌애야
에엔세는 누구드냐 에헤 허리 돌애야
생이지제 학이지제 에헤 허리 돌애야
천생지지가 있으련만 에헤 허리 돌애야
인생칠십은 고래희요 에헤 허리 돌애야
만고강산도 아니없네 에헤 허리 돌애야
석숭이같은 천하부도 에헤 허리 돌애야
운케내봉 천복비어 에헤 허리 돌애야
에행간네 절융안도 에헤 허리 돌애야
금은옥백이 구산일랑경 에헤 허리 돌애야
이세상을 하직하면 에헤 허리 돌애야
저세상에 심판을받아 에헤 허리 돌애야
인간세상이 구세로다 에헤 허리 돌애야
천마를타고 가는길도
두두려보고 가려갔소

* 신형묵, 남·54.
* 서면 두미리, 1987.7.9., 허남춘 송동찬 강성관 이원미 류재선 조사.
* T. 2—15—1, 2—15—2

5

에에허리 다 아헤야 보시오 왔소
여보시오 계원님네 어허
이내말씀 들어들 보소 에에허리 더얼헤야

회심곡을 드릴테니 에에허리 더얼헤야
끝까지나 다혀를보소 에에허리 더얼헤야
여어보소 계원님네 에에허리 더얼헤야
에헤맞구 발맞았으면 에에허리 더얼헤야
처주쾅쾅 하여나볼까 에에허리 더얼헤야
에에허어리 다하고야 에에허리 더얼헤야
회심곡을 드릴테니 에에허리 더얼헤야
눈물은 그만두고 에에허리 더얼헤야
그냥저냥에 다하여보소 에에허리 더얼헤야
명사십리 해당화야 에에허리 더얼헤야
꽃진다고 설워마라 에에허리 더얼헤야
명년삼월 봄이오면 에에허리 더얼헤야
나는다시 피려니오 에에허리 더얼헤야
이내인생 한번가면 에에허리 더얼헤야
다시오긴 어렵도다 에에허리 더얼헤야
이세상을 하직하고 에에허리 더얼헤야
저세상을 가리로다 에에허리 더얼헤야
정신차려 들어보니 에에허리 더얼헤야
약탕관을 벌어놓고 에에허리 더얼헤야
지성두고 극진한들 에에허리 더얼헤야
죽을병을 살릴소냐 에에허리 더얼헤야
여보시오 계원님네 에에허리 더얼헤야
놀기가좋다고 마냥노나 에에허리 더얼헤야

* 이 돈, 남·52 외.
* 서면 팔봉1리 도룡골, 1987.7.7., 송동찬 엄병화 김숙영 류재선 조사.
* T. 2—13—1

6

이 오리 다어리야

여보소여 지원님네[48] 이소리를 주는대로
횃대 맞추고 횃소리를 받소
원논에 월어가니 순이나 적막하곤[49]
초패왕은 초를장차 어찌다시 잃단말인가
여팔산[50]도 쓸데없고 기가사이[51]도 할일이없소
칼을짚고 일어나니 사면이나 초과[52]로구려
우헤우헤 내약하고[53] 낸들너를 어이보리
산보[54]이나 주저하고 오보이나 취읍하니[55]
상고니나[56] 흩어지고 마음조차 산란쿠나
평상에나[57] 원하기를
큰고를[58] 울리면서 강릉으로[59] 가잤더니
풀히지에[60] 패망하야 어찌다시 낯을들고
부모님을 찾아뵈며 초강사람[61] 어이보리
백대영웅 호걸들아 초한승부 들어보소
걸인지인[62] 부질없고 순민심만[63] 으뜸이라
한패공의 백만대병 구리산에 매복하고
초패왕을 잡으려고
병마장군 도원수는 결심포복 한숨이라[64]
대장군에[65] 높이앉아 처하지구[66] 호령할제
팽성도읍 오백여리

48) 제원님네. 49) 원문에 월혹하니 수운이 적막하다. 50) 역발산(力拔山). 51) 기개세(氣蓋世). 52) 초가(楚歌). 53) 虞兮虞兮 奈若何. 54) 삼보. 55) 체읍(涕泣)하니. 56) 삼군이나. 57) 평생에. 58) 금고를(?). 59) 강동으로. 60) 불의에. 61) 초국 사람. 62) 절인지용(絕人之勇). 63) 順民心만. 64) 결식표모 한신이라. 65) 대장단에. 66) 천하제장.

거리거리 복병이요 골골마다 매복이라
묘기많은 초패왕은[67] 〔초패왕을 인도하고〕
수잘놓는[68] 장자방은[69]
개명산천[70] 추야월에 옥통소를 슬피불어
팔천제자 해산할제 그노래에 지었으되
〔구추삼경 깊은밤에〕 하늘높고 달밝은데
청천하여[71]
울고가는 저기러기 개개소슴[72] 돌우는고
변방강리[73] 사지중에 정벌하는 저군사야
너의패왕 세곤하니[74] 전장하면[75] 죽을때라
철갑을 굳게입고 날랜칼을 빼어들고
〔천금같이 중한몸이〕 전장검은[76] 되리로다
너의처자 소년들은
〔한산낙엽 찬바람에〕 한어찌어[77] 넣어두고
오날이나 소식올까 내일이나 편지올까
전전반쯤[78] 생각할제

* 심경순, 남·70.
* 홍천읍 결운2리, 1988.6.22., 김은자 김문태 엄병화 권준길 김해경 박기웅 이철규 심보경 이정환 조사.
* T. 2—1—1
* 끝까지 구연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침.

7

천개어자 허니 천황씨가 나계시고
지벽어축 허니 지황씨가 나계시니

67) 모계 많은 이좌거(李左車)는. 68) 묘책을 잘 쓰는. 69) 張子房은. 70) 계명산. 71) 청천에. 72) 객의 수심. 73) 변방 객리. 74) 勢困하니(?). 75) 전쟁하면. 76) 전장 검혼. 77) 핫옷 지어. 78) 전전반측(輾轉反側).

인생을 의논허니 인황씨가 나계시고
물생은 오묘하니 만물이 [ ]
오악이 생겼으니 동에는 태산이요
남에는 형산이요 서에는 화산이요
북에는 항산이요 중앙에는 숭산인데
오악에 나린맥이 중중이 나려와서
이자리가 되었으니 제일명당 여기로다
바우산세 둘러보니
금강산이 주산되어 청룡백호도 제일일세
안산지호 득화허니 득수득화[79]도 제일이요
지생황산 용래하니 백자천손 나리로다
만장봉이 비추기는 인중제일 될격이요
노인봉이 비추기는 만수무강 헐격이요
동자봉이 비추기는 백자천손 날격이요
문필봉이 비추기는 천하문장 될격이요
은파봉이 비추기는 소년등과 할격이요
일산봉이 비추기는 팔도감사 할격이요
영마봉이 비추기는 암행어사 할격이요
투구봉이 비추기는 어영대장 할격이요
금세봉이 비추기는 육조판서 할격이요
파초봉이 비추기는 삼정승이 될격이요
노적봉이 비추기는 부가응이 될격이요
노비봉이 비추기는 남녀종을 둘격이요
신언서판 볼작시면
풍채는 두목이요 문벌은 양덕조라
충절은 관용봉이요 효행은 민자건이라

79) 득수득파(得水得破).

예법은	숙손충이요	의기는	한수자요
도덕은	정명도요	호질은	공부패라
도량은	강태공이요	용맹은	조자룡이라
문장은	이태백이요	필법은	왕희지라
구변은	소진이요	의사는	방통이라
주복은	탱주같고	강령은	동방서기
팔자는	곽분양이요	부귀는	석숭이라
우충지	봉황이요	모충지	기린이라
임충지	비룡이요	개충지	영구로다
화사부귀	어데런고	흑침향이	여기로다
태산에	올라서서	하해를	굽어보니
경상도	태백산은	낙동강이	둘러있고
전라도	지리산은	남해중방	둘러있고
충청도	계룡산은	여주금강	둘러있고
경기도	삼각산은	한강수가	둘러있고
황해도	구월산은	해주무강	둘러있고
강원도	금강산은	동해수가	둘러있고
평안도	모란봉은	대동강이	둘러있네
추법을	고만합시다		

* 강신표, 남·55.
* 화촌면 야시대2리, 1987.2.11., 전신재 강동규 조남혁 조사.
* T. 1—16—2

8

에이 호라 달호 에이 호라 달호
여봅소 지원님네[80] 에이 호라 달호

80) 계원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에이 호라 달호
남의일을 보자하면 에이 호라 달호
힘도들고 땀도나네 에이 호라 달호
에이 호라 달호 에이 호라 달호
여봅소 지원님네 에이 호라 달호
이내말씀 들어보소 에이 호라 달호
먼손님 보기나좋게 에이 호라 달호
절[81]에손님 보기나좋게 에이 호라 달호
에이 호라 달호 에이 호라 달호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오 에이 호라 달호
수지조종은 황하수라 에이 호라 달호
백두산나린 주령에 에이 호라 달호
압록강이 생겼구나 에이 호라 달호
압록강나린 낭맥에 에이 호라 달호
묘향산이 생겼구나 에이 호라 달호
황해도로 내려가세 에이 호라 달호
황해도라 구월산이명산일세 에이 호라 달호
구월산나린 낭맥엔 에이 호라 달호
임진강이 둘렀구나 에이 호라 달호
경기도로 내려가니 에이 호라 달호
삼각산이 명산일세 에이 호라 달호
삼각산나린 낭맥에 에이 호라 달호
한강이 둘렀구나 에이 호라 달호
충청도로 내려가서 에이 호라 달호
계룡산도 명산이오 에이 호라 달호
계룡산나린 낭맥에 에이 호라 달호

81) 곁.

공주금강이 둘렀구나 에이 호라 달호
전라도로 내려가세 에이 호라 달호
전라도라 지리산이 에이 호라 달호
지리산나린 낭맥엔 에이 호라 달호
백마강이 둘렀구나 에이 호라 달호
경상도로 올라서니 에이 호라 달호
소백산이 명산일세 에이 호라 달호
소백산나린 주령에 에이 호라 달호
낙동강도 둘렀구나 에이 호라 달호
강원도로 올라서서 에이 호라 달호
금강산도 명산일세 에이 호라 달호
금강산나린 낭맥에 에이 호라 달호
소양강이 둘렀구나 에이 호라 달호
소양강두른 언덕에 에이 호라 달호
매라산도 명산일세 에이 호라 달호
매라산나린 주령에 에이 호라 달호
경로회관 생겼구나 에이 호라 달호
이자리가 명당이아니면 에이 호라 달호
어느자리가 명당일까 에이 호라 달호

* 이계진, 남·62외.
* 남면 시동3라, 1987. 7.8., 김성수 김방경 김요섭 정은정 곽노실 정명수 용정실 성경제 조사.
* T. 4—8—1

9

에헤호리 다어리야
여보시요 여러분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먼데사람 듣기좋게 곁에사람 보기가좋게
에헤호리 다어리야

선천지 후천지는 에헤호리 다어리야
억만세계 무궁이라 에헤호리 다어리야
산지조정[82] 권련산[83]이요 에헤호리 다어리야
수지조정[84] 황해수[85]라 에헤호리 다어리야
권련선[86]이 일지배배[87] 에헤호리 다어리야
조선이야 생겼으니 에헤호리 다어리야
백두산이 주산되고 에헤호리 다어리야
한라산이 안산되고 에헤호리 다어리야
두만강이 정영[88]되고 에헤호리 다어리야
압록강이 백호로다 에헤호리 다어리야
건곤이 개벽후에 에헤호리 다어리야
별개[89]를 잃었으니[90] 에헤호리 다어리야
지세도야 좋거니와 에헤호리 다어리야
풍경이 더욱좋네 에헤호리 다어리야
예예문물[91] 밝았으니 에헤호리 다어리야
소중하[92]가 되었으라 에헤호리 다어리야
여보시요 여러분네 에헤호리 다어리야
팔도명산 찾아를보세 에헤호리 다어리야
팔도강산 좋은경치 에헤호리 다어리야
묵묵히 둘러보니 에헤호리 다어리야
경기도라 삼각산은 에헤호리 다어리야
임진강이 둘러를있고 에헤호리 다어리야
충청도라 계룡산은 에헤호리 다어리야

82) 산지조종(山之祖宗). 83) 곤륜산(崑崙山). 84) 수지조종(水之祖宗). 85) 황하수(黃河水). 86) 곤륜산. 87) 일지백이. 88) 청룡(青龍). 89) 별계(別界). 90) 이뤘으니. 91) 예의 문물. 92) 소중화(小中華).

백마강이 둘러있고 에헤호리 다어리야
함경도라 백두산은 에헤호리 다어리야
두만강이 둘러있고 에헤호리 다어리야
황해도라 구월산은 에헤호리 다어리야
세류강이 둘러있고 에헤호리 다어리야
평안도라 묘향산은 에헤호리 다어리야
압록강이 둘러있고 에헤호리 다어리야
전라도라 지리산은 에헤호리 다어리야
공주금강 둘러있고 에헤호리 다어리야
강원도라 금강산은 에헤호리 다어리야
세계명산 되어있네 에헤호리 다어리야
팔도강산 좋은경지 에헤호리 다어리야
역력히 끌어다가 에헤호리 다어리야
이팡중에 모셨으니 에헤호리 다어리야
천하대지 예아닌가 에헤호리 다어리야
이산소터 잡을때에 에헤호리 다어리야
누구누구 잡었든고 에헤호리 다어리야
도선이 박상이 에헤호리 다어리야
무학이가 잡은터를 에헤호리 다어리야
팔도강산 편답할제 에헤호리 다어리야
이산낭백을 밟어보니 에헤호리 다어리야
천하에 제일이요 에헤호리 다어리야
일광지지가 여기로다 에헤호리 다어리야
지남철을 손에들고 에헤호리 다어리야
윤도판을 앞에놓고 에헤호리 다어리야
좌향놓고 안배놀제 에헤호리 다어리야

* 박윤식, 남·70. 34년째 결운리에 살고 있으며, 농사를 짓고 있다.

* 홍천읍 결운2리, 1988.6.22., 김은자 김문태 엄병화 권준길 김혜경 박기웅 이철규 심보경 이정환 조사.
* T. 2—1—1
* 이 작품의 제목을 구연자는 '옥설가'라고 했음.

10

남산자리 주작이면 에호리 달헤야
무악재가 현무로다 에호리 달헤야
광한루가 수궁되고 에호리 달헤야
임진강이 옌후로다 에호리 달헤야
남한산성이 청룡이요 에호리 달헤야
용산삼개 백호로다 에호리 달헤야

에호리 달헤야 에호리 달헤야
오백년 지난사정 에호리 달헤야
흥망성쇠 여기있어 에호리 달헤야
여보시오 계원님네 에호리 달헤야
이내말은 들어만주소 에호리 달헤야
이세상에 나온사람 에호리 달헤야
뉘덕으로 생겼으나 에호리 달헤야
하나님의 은득[93]으로 에호리 달헤야
아버님전 뼈를빌어 에호리 달헤야
어머님전 살을빌어 에호리 달헤야

* 고재덕, 남·55.
* 동면 좌운리, 1988.6.23., 이원용 김경원 류재선 방은영 조사.
* T. 3—1—1

93) 은덕.

[11]

天地玄黃　생긴후에　日月盈昃　되여서라
만물리　번승하여　山川이　기틱이라
곤윤山　一지먹은　오악지　조정이요
山地용마　흘너니여　天下九州　되여서라
二江은　天下中에　명승지々가　여기로다
先天地　후天地은　억만石이　무궁이라
壬辰江　다시말가　승현군子가　나셧구나
요순에　씨치미이요　우탕에　덕틱이라
명창과　승현君子　四海에　一同하고
근원은　흥무로다
곤윤山이　흘너니여　白두山이　되여잇고
白두山이　흘너니여　금강山이　되여잇고
금강山이　흘너니여　삼각山이　되여서라
수락山이　主山이요　동남山이　안산이라
白두山이　主山이요　할니山이　안山이라
두만江이　青龍이요　압녹江이　白虎로다
王十里　青龍이요　萬里현이　白虎로다
북한江이　青龍이요　壬辰江이　白虎로다
학에등에　大궐을지여　子坐午向이　分明하다
도당氏　즉위時에　단군에　조선이요
주무王　明主時에　기子에　조선이요
초한풍진　전국時에　위만에　조선이요
元天子　즉위時에　고구여　조선이요
大明太조　즉위時에　이성계에　조선이分明하다
先天地　후天地　억만세　무궁이라

青龍두에　금장사는　손다출어　병권이요
白虎두에　양산사는　中손출어　공명이요
손사방에　一字星은　손다출어　甲과ᄒᆞ고
병정방이　돌々봉은　문무과지　자연이요
곤신봉이　고수봉은　부업출어　男女로다
八道江山　도라보니
함경도　白두山은　용흥江이　둘너잇고
平安도　자모산은　大동江이　둘너잇고
黃海도　九月山은　셜유江이　둘너잇고
忠淸道　계龍山　洛東江이　둘너잇고
경상도　太白山은　白馬江　둘너잇고
전나도　지리山은　금무江이　둘너잇고
江原道　금강山은　양자江이　둘너잇고
경기도　三각山은　壬辰江이　둘너더라
소상江　동정호는　大江水가　되여더라
봉황루　봉황덕은　구경처가　되여더라
남경은　응天부요　북경은　순천부라
오초은　동남이요　연지은　西北이라
東西은　지양셩의　中國이　되여셔라
中國이　셩긴후에　조선이　되여셔라
八도江山　마련하고　한양셩중　도읍ᄒᆞ니
양유당하　노는김셩　不이生草　기인이요
梧桐庭上　우는시는　기ᄌᆞ탁속　鳳凰이라
오는빈客　仙官이요　나는사람　君子로다
年々豊登　五穀이요　家々번식　육축이라
얼시구　조흘시고　셔만는다
자하酒의　醉한쑴을　黃여□의　잠싼개여
自興自樂　궁글면셔　발마치고　숫마처라

空中에	제비놀듯	百花中에	나비놀듯
젓데삼람	보기조케	먼데사람	듯케조케
마음더로	발바주오		
이山을	쓰신후에	가지가지	봄비치라
長安萬戶	제一春의		
승子神孫	게々承々	富貴功名	나리도다
한살먹어	말비우이	소진장의	구변이요
두살먹어	인사하이	사광의	총명이요
세살먹어	글비우이	小學大學	論語孟子
詩傳書傳	周易八卦	다본後에	
文章	李太白	明筆	王羲志

* 두촌면 장남1리 홍완기(남·57)씨가 1986년 7월 22일에 제보한 '문서'를 김성수가 복사했음.
* 誤字가 많으나 그대로 실었음.

12

천지현황	생긴후에	에에호리 달호헤여
일월영측	되었어라	에에호리 달호헤여
만물이	번성하니	에에호리 달호헤여
산천정기	개탁시에	에에호리 달호헤여
곤륜산	제일봉은	에에호리 달호헤여
산악지도	조종이라	에에호리 달호헤여
산지요서	흘러나려	에에호리 달호헤여
천하구주	되었어라	에에호리 달호헤여
백천이	동주하니	에에호리 달호헤여
동해수로	조종이라	에에호리 달호헤여
천봉이	작렬하니	에에호리 달호헤여

부북을 피하리요 에에호리 달호헤여
벽해담당 수천장은 에에호리 달호헤여
육하월 둘러있고 에에호리 달호헤여
구만장천 흘러나려 에에호리 달호헤여
세상천지 되었어라 에에호리 달호헤여
상상봉 올라서서 에에호리 달호헤여
중원을 바라보니 에에호리 달호헤여
황하로 천하중에 에에호리 달호헤여
명승지 되었어라 에에호리 달호헤여
천하를 소탐하라 에에호리 달호헤여
우리인생 모르리라 에에호리 달호헤여
천하를 바라보고 에에호리 달호헤여
길일을 살펴보니 에에호리 달호헤여
〔 〕 에에호리 달호헤여
백두산이 주산이요 에에호리 달호헤여
한라산이 남산이라 에에호리 달호헤여
두만강이 청룡되고 에에호리 달호헤여
압록강이 백호로다 에에호리 달호헤여
건곤이 개탁하니 에에호리 달호헤여
수세도 좋거니와 에에호리 달호헤여
엄역을 굽어보니 에에호리 달호헤여
지연에 궐궐둘을 에에호리 달호헤여
이과에 눈물이요 에에호리 달호헤여
소중화 되었어라 에에호리 달호헤여
팔도강산 승지처가 에에호리 달호헤여
어동제일 강산이라 에에호리 달호헤여
함경도라 백두산은 에에호리 달호헤여
두만강이 둘러있고 에에호리 달호헤여

청우가 들어오니 에에호리 달호헤여
수세가 더욱좋다 에에호리 달호헤여
일월단청 굽어보니 에에호리 달호헤여
풍경이 더욱좋다 에에호리 달호헤여
평안도라 묘향산은 에에호리 달호헤여
대동강이 둘러있고 에에호리 달호헤여
모란봉 굽어보니 에에호리 달호헤여
해동제일 강산이라 에에호리 달호헤여
불명유영 광정영하니 에에호리 달호헤여
구정지가 분명하다 에에호리 달호헤여
서천을 굽어보니 에에호리 달호헤여
각설루가 더욱좋다 에에호리 달호헤여
경기도라 삼각산은 에에호리 달호헤여
임진강이 둘러있고 에에호리 달호헤여
한양성내 둘러보니 에에호리 달호헤여
청룡백호 더욱좋다 에에호리 달호헤여
한단연자 우주하니 에에호리 달호헤여
만세무궁 하리로다 에에호리 달호헤여
황해도라 구월산은 에에호리 달호헤여
소주강이 둘러있고 에에호리 달호헤여
황강전을 굽어보니 에에호리 달호헤여
부룡단이 더욱좋다 에에호리 달호헤여
백양을 굽어보니 에에호리 달호헤여
월패가 더욱좋다 에에호리 달호헤여
경상도라 태백산은 에에호리 달호헤여
낙동강이 둘러있고 에에호리 달호헤여
충청도라 계룡산은 에에호리 달호헤여
공주금강 둘러있고 에에호리 달호헤여

전라도라	지리산은	에에호리 달호헤여
백마강이	둘러있고	에에호리 달호헤여
강원도라	금강산은	에에호리 달호헤여
소양강이	둘러있고	에에호리 달호헤여
우주에	비껴서서	에에호리 달호헤여
역력히	살펴보니	에에호리 달호헤여
상천천지	하국시에	에에호리 달호헤여
인군이	그뉘신고	에에호리 달호헤여
당국	시절에	에에호리 달호헤여
은왕이	조선이라	에에호리 달호헤여
무왕이	위시하니	에에호리 달호헤여
금구에	조선이라	에에호리 달호헤여

* 박연주, 남·62, 허남용, 남·66.
* 내촌면 도관3리, 1986.7.23., 강경행 김요섭 이원미 허 평 홍호석 황병로 박형규 조사.
* T. 3—7—1

13

토지지신님께	고했습니다	에호리 달희야
돌아가신 맹민님께	고했습니다	에호리 달희야
광중안에 육지원님께	고했습니다	에호리 달희야
여러 계원님께	고했습니다	에호리 달희야
먼 데 사람은	듣기도 좋게	에호리 달희야
곁에 사람은	보기도 좋게	에호리 달희야
일심받아서	하여나 주소	에호리 달희야
회심곡을	불러나 볼까	에호리 달희야
회심곡은두	그만두고	에호리 달희야

옥설가를야 부릅시다 에호리 달희야
선천지 후천지는 에호리 달희야
억만세계 무궁이라 에호리 달희야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에호리 달희야
수지조종은 황하수라 에호리 달희야
곤륜산 일지맥에 에호리 달희야
조호산이나 생겼는데 에호리 달희야
백두산이야 주산이 되고 에호리 달희야
한라산이야 연산[94]이 되고 에호리 달희야
두만강이야 청룡이 되고 에호리 달희야
압록강이야 백호로다 에호리 달희야
건곤이 개벽후에 에호리 달희야
조호산[95]이야 생겼는데 에호리 달희야
지세도 좋거니와 에호리 달희야
풍경이야 더욱 좋소 에호리 달희야
에의 문물 밝았으니 에호리 달희야
소중화가 되었구나 에호리 달희야
팔도강산 좋은 경치 에호리 달희야
역력히 둘러보니 에호리 달희야
경기도 삼각산은 에호리 달희야
임진강이나 둘러 있고 에호리 달희야
함경도 백두산은 에호리 달희야
두만강이나 둘러 있고 에호리 달희야
황해도 구월산은 에호리 달희야
공주금강 둘러있고 에호리 달희야
평안도 묘향산은 에호리 달희야

94) 안산. 95) 조선.

대동강이나 물러 있고 에호리 달희야
경상도 태백산은 에호리 달희야
낙동강이야 물러 있고 에호리 달희야
강원도 금강산은 에호리 달희야
세계명산 되었구나 에호리 달희야
이 산수터를 잡을 적에 에호리 달희야
누구누구 잡았던고 에호리 달희야
조호산[96]이 박산[97]이 에호리 달희야
무학이가 잡을 차로 에호리 달희야
팔도강산 견답하여 에호리 달희야
이산 낭백을 밟아보니 에호리 달희야
명당자리가 여기메로다 에호리 달희야
쥐는저를[98] 손에다 들고 에호리 달희야
윤두판[99]을야 옆에다 놓고 에호리 달희야
저약[100]놓고서 연대[101]를 놀제 에호리 달희야
임자계축 갑인갑묘 에호리 달희야
을진신사[102] 병오정미 에호리 달희야
곤신경유 신술간에[103] 에호리 달희야
〔자전소리〕 저약 놓고서 안대를 놀제 에호리 달희야
임자계축 갑인갑묘 에호리 달희야
을진신사 병오정미 에호리 달희야
곤신경유 신술간에 에호리 달희야
득수득파는 어떠하던고 에호리 달희야
사대국호 법을보니 에호리 달희야
대궐수득이요 에호리 달희야
우순포태 역수하니 에호리 달희야

96) 도선(道詵). 97) 박상. 郭璞(?). 98) 지남철을. 99) 윤도판(輪圖板). 100) 좌향(坐向). 101) 안배. 102) 손사(巽巳). 103) 간해(艮解).

부귀공명에 수득이라 에호리 달희야
이런 명당 모셨으니 에호리 달희야
발복인들 없을손가 에호리 달희야
사대국도 법을 보니 에호리 달희야
대관수득이요 에호리 달희야
우순포네 역수하니 에호리 달희야
사시하관에 우시야발복[104] 에호리 달희야
좌청룡 되었으니 에호리 달희야
자손번성 할것이요 에호리 달희야
우백호로 되었으니 에호리 달희야
외손번성 할것이요 에호리 달희야
앞에주춤 노적봉은 에호리 달희야
거부장자가 날것이요 에호리 달희야
뒤에주춤 문필봉은 에호리 달희야
문장대사[105]가 날것이요 에호리 달희야
일산봉에나 비쳤으니 에호리 달희야
수령방백이 날것이요 에호리 달희야
투구봉아야 비쳤으니 에호리 달희야
대대장군 나리로다 에호리 달희야
천지현황 생긴후에 에호리 달희야
일월영측이 되었거늘 에호리 달희야
만물이 번성하여 에호리 달희야
산천이 개탁시에 에호리 달희야
곤륜산 제일봉은 에호리 달희야
산악지 조종이요 에호리 달희야
천봉이 병립하여 에호리 달희야

104) 巳時下棺 午時發福. 105) 재사.

북극이야 괴어있네 에호리 달희야
만경[106]은 노천부요 에호리 달희야
북경은 수만부라 에호리 달희야
이런산에 모셨으니 에호리 달희야
거부장자 되리로다 에호리 달희야
이산쓴지 삼년안에 에호리 달희야
아들나으면 효자를낳고 에호리 달희야
딸을나면 열녀로다 에호리 달희야
그아해 상을보니 에호리 달희야
얼굴이 관옥이요 에호리 달희야
풍체가 두목이라 에호리 달희야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주민님께 고했습니다 에호리 달희야
우리 여러 계원님께 고했습니다 에호리 달희야
광중안에 육제원님네 에호리 달희야
일심발아서 하여나 주소 에호리 달희야
인왕산이나 주산이 되고 에호리 달희야
한라산이야 안산이 되고 에호리 달희야
두만강이야 청룡이 되고 에호리 달희야
초한강도 또있구나 에호리 달희야
한살먹어서 말배우니 에호리 달희야
소진장에[107] 구변이요 에호리 달희야
두살먹어서 글배우니 에호리 달희야
사마광의 총명이요 에호리 달희야
세살먹어 걸음배워 에호리 달희야
걸음마다 향풍이요 에호리 달희야
네살먹어 인사를하니 에호리 달희야

106) 남경. 107) 소진장의(蘇秦·張儀)

효자충신[108]도 아름답다 에호리 달희야
구구육갑 천자문을 에호리 달희야
오세에 외워두고 에호리 달희야
동몽선습 소학대학 에호리 달희야
육세에 외워두고 에호리 달희야
시전서전 논어맹자 에호리 달희야
칠세에 외워두고 에호리 달희야
사서삼경 백가서를 에호리 달희야
여덟세에 외워두고 에호리 달희야
전집이며 후집이며 에호리 달희야
두서와 이백서를 에호리 달희야
십오세에 다배우니 에호리 달희야
숙성도 하려니와 에호리 달희야
저술인들 법연할까 에호리 달희야
영주북래 십팔재는 에호리 달희야
북으로 예를하고 에호리 달희야
오로봉을 붓을삼고 에호리 달희야
삼산강을 벼루삼아 에호리 달희야
당대지술 백낙천을 에호리 달희야
어느누가 부러워할까 에호리 달희야
이때는 어느땐고 에호리 달희야
때는마침 춘삼이라 에호리 달희야
하왕씨가 즉위하사 에호리 달희야
태평가를 불리실제 에호리 달희야
여러계원님께 고했습니다 에호리 달희야
광중안에 육지원님네 에호리 달희야

108) 효제충신(孝悌忠信).

요내말씀 들어나보소 에호리 달희야
천지천지 분원후에 에호리 달희야
삼라화석이 일월을쌓으니 에호리 달희야
세상천지 만물야중에 에호리 달희야
사람밖에 또있을손가 에호리 달희야
여보시오 시주신네 에호리 달희야
인간세상 태어난사람 에호리 달희야
뉘덕으로 태어만났나 에호리 달희야
아버님전 뼈를야빌고 에호리 달희야
어머님전 살을야빌고 에호리 달희야
칠성님전 명을야빌고 에호리 달희야
칠성님전 복을야빌어 에호리 달희야
인간일신 태어만났다 에호리 달희야
한두살에 철을야몰라 에호리 달희야
부모은덕 갚을쏘냐 에호리 달희야
여보시오 젊은이네들 에호리 달희야
늙은망령 웃지를마라 에호리 달희야
어제저녁 살던야몸이 에호리 달희야
저녁나절 병이들어 에호리 달희야
섬섬하고 약한몸에 에호리 달희야
태산같은 병이들어 에호리 달희야
부르나니 어머이요 에호리 달희야
찾는것은 냉수로다 에호리 달희야
인삼녹용에 약을야쓴들 에호리 달희야
약덕이나 입을야소냐 에호리 달희야
무녀불러 굿을야한들 에호리 달희야
굿덕이나 입을야손가 에호리 달희야

판서[109]불러 경이나읽은들 에호리 달희야
경덕이나 입을야손가 에호리 달희야
의살불러 침을야논들 에호리 달희야
침덕인들 입을야손가 에호리 달희야
재미쌀을 실커나실어 에호리 달희야
명산대찰을 찾아나카네 에호리 달희야
상탕에다 밥을야짓고 에호리 달희야
중탕에다 수족을씻고 에호리 달희야
하탕에는 목욕을하고 에호리 달희야
향로향합 불갖춰놓고 에호리 달희야
소지삼장 드린후에 에호리 달희야
빌고빌고 또빌은뒤에 에호리 달희야
어느부처 나살릴손가 에호리 달희야
제일전에 진광대왕 에호리 달희야
제이전에 송제대왕 에호리 달희야
제삼전에 초강에대왕 에호리 달희야
제사전에 현무대왕 에호리 달희야
제오전에 염라대왕 에호리 달희야
제육전에 번성대왕 에호리 달희야
시왕전에 명을받아 에호리 달희야
일즉사자[110] 월즉사자[111] 에호리 달희야
활등같은 굽은야길로 에호리 달희야
화살같이 달려만가서 에호리 달희야
성명삼절[112] 불러내니 에호리 달희야
여봅시오 사자님네 에호리 달희야
노자돈이나 갖춰갑세 에호리 달희야

109) 판수. 110) 일직사자(日直使者). 인간을 잡아간다는 저승의 사자. 月直使者. 강님사자와 함께 다님. 111) 월직사자(月直使者). 112) 성명 삼자를.

노자돈을 갖춰가지고 에호리 달희야
안방문을 썩나서니 에호리 달희야
학산내어 없어놓고 에호리 달희야
없던걱정 절로나네 에호리 달희야
일가친척 많다한들 에호리 달희야
어느친척 대신가나 에호리 달희야
친구지간 많다한들 에호리 달희야
명사십리 해당화야 에호리 달희야
꽃진다고 설워마라 에호리 달희야
너는져도 다시피지 에호리 달희야
인간한번 죽어지면 에호리 달희야
다시올길 전혀없네 에호리 달희야
이럭저럭 열나흘만에 에호리 달희야
저승원문[113] 당도하니 에호리 달희야
우두나찰[114] 소리를치며 에호리 달희야
인정쓰라 하는소리 에호리 달희야
인정쓸길 가이없네 에호리 달희야
의복빌어 인정쓰고 에호리 달희야
열두대문 들어나설때 에호리 달희야
두렵기도 한이없고 에호리 달희야
무섭기도 측량없다 에호리 달희야
염라대왕 앞에가서 에호리 달희야
판결문을 기다릴적에 에호리 달희야

* 송경태, 남·41. 외 6인.
* 서석면 풍암리, 1986. 7.22., 허남춘 이홍식 김제훈 오애리 김명숙 문재우 조사.
* T. 1—21—2

113) 轅門. 114) 牛頭羅刹.

14

에허리 달호야		산신님께 소리 고했습니다
이천지	생긴후에	토지귀신님께 소리 고했습니다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여러 계원님께 소리 고했습니다
수지조종은	황하수라	에허리 달헤야
곤륜산	일지맥이	에허리 달헤야
백두산이	생겼으며	에허리 달헤야
백두산	일지맥이	에허리 달헤야
금강산이	되었구나	에허리 달헤야
내금강	외금강은	에허리 달헤야
세계에서	명산이요	에허리 달헤야
명산낭맥이	나려와서	에허리 달헤야
오대산이	되었으며	에허리 달헤야
이산낭맥이	뻗어나와	에허리 달헤야
태기산이	되었구나	에허리 달헤야
긴소리는	접어두고	에헤라 달호〔빠른소리〕
짜른소리로	넘어가보세	에헤라 달호
이산명당	찾은명사	에헤라 달호
어느명사가	찾었든고	에헤라 달호
성거사	도선씨는	에헤라 달호
천여년전	사람이나	에헤라 달호
그분은	아닐게요	에헤라 달호
생곡에이리	잡어들어	에헤라 달호
무이도사	청람선생	에헤라 달호
소작이	분명하다	에헤라 달호
이산쓴지	삼년후면	에헤라 달호

아들을낳으면　　효자낳고　　에헤라 달호
딸을낳으면　　열녀로다　　에헤라 달호
부귀영화는　　물론이요　　에헤라 달호
백대천손　　낳으리로다　　에헤라 달호

* 이재영, 남·64, 최상호, 남·59.
* 서석면 생곡2리, 1986.7.22., 조남혁 전희숙 조사.
* T. 5—2—1
* 전날밤 김봉선씨댁에서 요청했던 회다지소리를 아침 11시경 생곡2리 방죽밑 들판에서 발목에 끈을 매고 땅을 다지기 위한 막대기를 들고 이재영씨가 선창, 최상호씨가 후창하였다.

그네 노래

1

수천당[1] 세모진[2]낭개　　넙다랗게 근네[3]를 매구
임이뛰면 내가밀고요　　내가 뛰면은 임이민다
임이야 줄잡지 말어라　　줄 끊어지면은 정떨어진다

* 이필영, 여·60.
* 서면 팔봉1리, 1987.7.7., 송동찬 엄병화 김숙영 류재선 조사.
* T.2—11—2

2

수천낭 심어진 나무다　　구네를 매고
임이뛰면 내가밀고　　내가뛰면은 임이밀어

1) 수천낭의 잘못인 듯. 수천 길 낭떠러지. 2) 심어진. 3) 그네.

임아 줄살 잘 살패라[4]　　줄끊어지면은 정떨어진다.

* 이천옥, 여·63.
* 북방면 하화계리, 1987. 7. 9., 엄기주 유은영 조옥희 장기영 최광현 이연순 조사.
* T.5—6—1

3

수천낭 세모진 낭개[5]　　높다르케다 구네[6] 매고
님뜨면[7] 내가나밀고　　내가뜰[8]적에 님이밀어
님아 줄밀지말아라　　줄끊어지면은 정떨어진다.

* 김기하, 남·58.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김성욱 조옥희 조사.
* T. 5—8—2

4

수천당[9] 세머진[10] 낭게[11]　　높다렇게나 구네를 매고
임이뛰면 내가나밀고　　내가뛰면은 임이밀어
임아임아 줄밀지마라　　줄끊어지면은 정끊어진다.

* 전옥련, 여·62.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엄기주 유은영 이연순 조사.
* T. 5—10—2

4) 살펴라. 5) 심어진 나무에. 6) 그네. 7) 뛰면. 8) 뛸. 9) 수천낭.
10) 심어진. 11) 나무에.

5

신문에 개가 짖기루 임이왔나 나가보니
임은 정녕 간곳이 없네 만경청풍이 날속였네
한마야 속지를 말어라 속는 남하가 아니로구나
에헤헤 추천당[12] 세모진[13]낭개 높다랗게나 그늘[14]을 매고
님이뛰면 내가밀고요 내가뛰면은 임이밀어
임아 줄미지 마라 줄끊어지면 정떨어진다

* 김태봉, 남·71.
* 홍천읍 결운2리, 1988. 6.23., 김문태 엄병화 권준길 김혜경 박기웅 이철규 심보경 이정환 조사.
* T. 2—1—1

6

수천당[15] 세모진[16] 나무에 높다랗게 추천을 매고
님이뛰면 내가밀고 내가뛰면은 님이밀어
임아임아 줄 슬슬슬 밀어라 줄끊어지면은 정떨어진다

* 김수길, 여·69, 진부출생. 15세에 광원리 이주.
* 내면 광원1리. 1988.6.23., 전신재 황정산 김진희 유선영 최정희 전창동 박형규 홍석호 박지숙 이숙채 조사.
* T. 4—4—2

12) 수천낭의 잘못인 듯. 13) 심어진. 14) 그네. 15) 수천낭. 16) 심어진.

[7]

수천주천낭[17] 세모진[18]낭개　　청실홍실로 그네를 매고
임이뛰면 내가밀고　　내가뛰면 임이밀어
임아임아 줄밀지마라　　줄끊어지면은 정떨어진다.

* 윤을순, 여·68.
* 동면 삼현리, 1988.6.23., 이필용 김경원 류재선 방은영 조사.
* T. 3—1—2

[8]

수천당 세모진 낭기　　청실홍실로 구네를매고
임이뛰면 내가밀고　　내가뛰면 임이미소
임아임아 줄미지마라　　줄끊어지며는 정떨어진다.

* 박성식, 남·73, 내삼포리 출생.
* 화촌면 내삼포리, 1988.6.24., 엄기주 오애리 성길제 이용인 박미연 조사.
* T. 1—11—2

아 라 리

[1]

1 우리강원 잘되라고 설악산이 상겼고[0]

17) '수천낭'의 잘못인 듯. 18) 심어진.
0) 생겼고.

여자의멥시 잘나라고 좋구나 화장품이 났구나

2 드렁산[1]의 머루다래는 얼그럭설그럭 많이도열렸건만
뒤미동[2]의 우리친구는 어디를가구선 따먹을줄모르나

3 산천초목에 물가유지[3]는 임자가 있건만
이내인생은 어이나상겨서 임자가 없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4 저근너 저싹밭떼긴[4] 작년에도 묵었는데
날같은[5] 홀아비는 올해도 또묵었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 송석응, 남·72.
* 서면 두미리, 1987.7.7., 허남춘 이원미 이진주 강성관 조사.
* T. 2—2—1, 2—2—2

[2]

5 고추난 늙을수록 이쁘기만 한데
우리인생은 늙을수록 보기가 싫여

* 송석응, 남·72.
* 서면 두미리, 1987.7.9., 허남춘 송동찬 이원미 강성관 류재선 조사.
* T. 2—15—1

---

1) 杜陵山. 西面 斗尾里와 八峰里, 盤谷里에 걸쳐 있는 산. 둥그렇게 생겼음.
2) 斗尾洞. 곧 西面 斗尾里. 口演者가 사는 마을임. 3) 물각유주(物各有主). 4) '저묵밭떼기'의 잘못일 듯. 묵밭은 묵전밭. 즉 오래 내버려 두어 거칠어진 밭. 오래된 火田터. 5) 나와 같은.

3

6 니나내나 죽어지면은 썩어질 이인생
너무나도 도척[6]같이를 맘쓰지를 마라

7 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열었다가도 녹으니깐은 이삼월 봄철이로구나

* 최천쇠, 남·78.
* 서면 모곡리, 1987.7.8., 김미영 이필용 이미한 현홍철 조사.
* T. 1—3—2

4

아리랑 아리랑 아리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만주소

8 나를싫다고 나를마다고 가시던 님은
어느날에나 시절에나야 날 찾아오나

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장정숙, 여·63.
* 서면 모곡리, 1987.7.7., 김미영 이필용 이미한 현홍철 조사.
* T. 1—3—1

6) 盜跖.

[5]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9 아리랑 고개는 열두나 고개
나넘을 고개는 하나밖에 없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10 열무김치 소금치고 배추김치 초치고 칼로물빈듯이 싹돌아서더니
이천팔십리 다못가고 왜또 찾아왔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정재열, 여·68.
* 서면 모곡리, 1987.7.7., 김미영 이필용 이미한·현홍철 조사.
* T.1—3—1

[6]

11 서산에 지는해는 지고싶어 지는가
날버리고 가시는님은 가고싶어 가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만주게

12 노랑저고리 분홍초마 입고싶어 입었나
부모동생 이별할적에 울며불며 입었지

* 정재수, 남·59.
* 서면 대곡리, 1987.7.9., 허남춘 이원미 이진주 강성관 조사.
* T.2—6—2

7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구나

13 정선읍내야 물레방아는 사륙의이십사 스물네살인데 뱅글뱅글이나 잘도돌아도는데
우리집이나 저멍텅구리는 나하고놀줄도 왜요리모르나

아리랑 아리아롱 아라리로구나

14 아리랑타령이 얼마나 좋아서
아리랑타령만 하면은 먹고사느냐

* 남궁부길, 남·74.
* 서면 모곡리, 1987.7.7., 김미영 이필용 이미한 현홍철 조사.
* T. 1—3—1

8

15 니가 잘나서 일색이더냐
내눈이나 어두워서 환장이 되는구나

16 무정 세월은 연년이 오건마는
한번 가신님은 조차 무소식이로다

17 산수에 자규가 무심이나 울어도
처량한 회포가 자연히 나는구나

* 이필영, 여·60.
* 서면 팔봉1리 도룡골, 1987.7.7., 송동찬 엄병화 김숙영 류재선 조사.
* T. 2—11—2

[9]

18 영감아 꽂감아 집 잘봐
아내품 팔아다 지개떡 해주마

19 영감의 입에선 찬짐이[7] 나고
개떡의 사발엔 더운집 난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아 좋아조 엉뚱허다

* 허순자, 여·54.
* 서면 팔봉1리 도룡골, 1987.7.7., 송동찬 엄병화 김숙영 류재선 조사.
* T. 2—11—2

[10]

20 비비룬장에 광대집에는 서까리끝까지 열워두
술상머리서 쓰시는금전은 애끼지를 말어시다

* 정백석, 남·68.
* 서면 굴업리 솔골, 1987.7.9., 송동찬 엄병화 김숙영 류재선 조사.
* T. 2—16—2

7) 찬 김이.

11

21 산중에머루다래는 떨어진건 꼭지나 있지만은
우리부모동기간은 떨어지믄 꼭지두 없어요

22 서산에 해는두나 지고싶어 지나요
날버리고 가시는님은 가구싶어 가나요

* 이옥동, 여·73.
* 북방면 도사곡리, 1987.7.8., 업기주 조옥희 장기영 최광현 이연순 조사.
* T. 5—5—1

12

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로구나
아리랑 고개로 넘어나간다

23 술아니 먹자구야 맹세도나 했네
이장님 덕택에 또먹고 있어요

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로구나
아리랑 고개로 넘어나간다

24 서산에 지는저해는 지고싶어 지나요
날버리고 가시는님은 가고싶어 가나요

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로구나
아리랑 고개로 넘어나간다

25 미나리밭 칼나물은 개구장[8]에 났는데

8) 개골창.

큰아기야 손목은 허공에 뗐구나

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로구나
아리랑 고개로 넘어나간다

26 바람이 불거든 술바람만 불고
풍년이 들거든 돈풍년만 들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구나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27 팔봉산[9] 넘는 바람아 쉬엄쉬엄 불어라
구만리[10] 청춘들이 다 늙어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구나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반철균, 남·67.
* 북방면 구만리, 1987.7.7., 이종철 엄기주 조옥희 유은영 김성욱 장기영 최광현 이연순 조사.
* T. 5—3—1

13

28 도랑가에나 푸릇푸릇해 날가자구나 허더니
산천초목이 아우러져도 가잔말이 왜없나 〔저〕

29 삼수갑산 멀구[11]다랜 얼그러설그러 졌는데
나는도운제나 정든님만나서 얼그러설그러 사느냐 〔저〕

9) 八峰山. 西面에 있는 산. 10) 北方面 九嶷里와 九萬里의 두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는 重義法. 11) 머루.

30 간다지 못간다지 얼마나 울었는지
정거정 마당이 한강수가 됐구나 〔지〕

31 반짝반짝에 등잔불은 하늘에별걸리듯 했는데
어느나두 우리야당신은 틈을타서 내방을찾어오셨수 〔지〕

32 시집살이 헐맙은두나 도투리깍지루 하나구
일본동경을 갈마음은 연락선으루 하나요 〔이〕

33 노랑저고리 앞섶에 눈물콧물 떨어진 것은
누탓이냐 내탓이냐 즈네비[12] 탓이로구나 〔이〕

34 쩔렁낭구[13]나 이파리는 빼죽빼죽 허구
요내나 마음은 싱숭생숭 허구나 〔지〕

35 아남산[14] 철뚝꽃[15]은 울구새나 불구[16]
큰아기 얼굴이야 요조도 허구나 〔장〕

36 강건네다가 유정님 친해 봤는데
육칠월 장마가 나는 원수같구나 〔지〕

37 니가잘났나 내가잘났나 그누가 잘났나
펄펄날리는 기홧장[17]이 영 잘났구나 〔지〕

38 대밭에난 원수는두 고슴우도치[18]가 원수구
아닌밤중에 원수는 정드신님이 원수라 〔지〕

39 오르락 내리락 잔기침 소리
숨소리를 강궈서[19] 날따라 오서요 〔이〕

---

12) 천애비. 중신아비. 남자 중매인. 13) 쩔레나무. 14) 앞남산. 15) 철쭉꽃. 16) '울긋불긋하고'의 잘못일 듯. 17) 지화장, 즉 紙貨. 18) 고슴도치. 19) 고르게 낮추어서.

40 저근네 묵발[20]뙈기는 재작년에도 묵더니
올해도 날과같이 또 묵는구나 〔이〕

41 팔라당 팔라당 남갑사 댕기
곤때[21]도 아니올라서 주네비[22]가 든다 〔이〕

42 뒷동산에 철쭉꽃[23]은 필뚱말뚱
정드신님의 청혼도 들을뚱말뚱 〔이〕

43 열래는 콩팔은 왜 아니나열구
열지말래는 아주까린 우룽주룽 열렸나 〔지〕

44 아주까리 동백아 열지를 말어
산중에 큰아기 대난봉이 나네 〔지〕

45 산골시악씨를 친해노면 멀구[24]나다래가 슨사[25]구
버덩시악씨를 친허면 아사에비정[26] 슨사라 〔지〕

46 작년같은 숭년[27]에두 이밥을 먹고 살았는데
올같은 시악씨풍년에 장갤 한번을 왜못갔나 〔지〕

47 복사꽃이나 곱다하여두 춘추 단절[28]이구
정든님얼굴이 곱다하여두 이삼십 안짝이로구나 〔지〕

48 시냇가에 빨래소린 우두둑툭탁 나구.
아룽아룽 버들잎은 정든님얼굴이 비친다 〔지〕

49 산이나 높아야 골이나 짚지[29]
조그마한 여자의속이 얼마나 깊을손가 〔지〕

50 산이나 고와서 내가 또돌려다봤나

20) 묵정밭. 21) 고운 때깔. 22) 쥔애비. 23) 철쭉꽃. 24) 머루. 25) 선사, 선물. 26) 비녀. 27) 흉년. 28) 춘추당절(春秋當節). 29) 깊지.

님계시던 곳이라고 뒤돌려다 봤지 〔지〕

51 가면은 가고 말면은 말지
네잡년 가뒤려 내가 못살겠네 〔지〕

52 네가죽던지 내가죽던지 무시네결타[30]가 나야지
네잡년 등쌀에 나 못살구 가겠구나 〔지〕

53 니팔자나 내팔자나 원앙금침 둘머치구 담념어 이불요깔구 잠자보기는 영원히 다틀렸는데
뭉틀뭉틀에 멍석자리가 네에 본보기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구나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이〕

54 신작로가 넓어서 다꾸시[31]돌리기 좋구요
우리님품안이 넓어서 내몸이 황망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구나
아리랑 고개고개루 날 넹겨주소 〔이〕

55 강원도 금강산 일만이천봉 팔만구암자법당기에[32] 칠성단을 도두모으고[33] 팔자에없는 아들딸 나달라고[34] 석달열흘 녹음의정성[35]을 말구
타관객리에 외로이 떠난님 괄세를 마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구나
아리랑 고개고개루 나를 넴겨주소 〔이〕

56 경성읍내[36] 물레다리 허풍선이[37] 굴굴대[38]는 사시장천 물거품을안구

30) 무슨 결단. 31) 택시의 일본식 발음. 32) 법당 뒤에. 33) 돋워 쌓고. 34) 낳아 달라고. 35) 노구메정성. 노구메를 놓고 山川에 기도하는 정성. 노구메는 노구솥에 지은 메밥이며 노구솥은 놋쇠나 구리쇠로 만든 솥으로 자유로 옮기어 따로 걸고 쓰게 되었음. 36) '정선읍내'의 잘못. 37) 물레방아의 물받이. 38) 궁글대. 롤러(roller).

요리조리 디디뱅뱅글 돌아가는데
우리집에[39] 나간그사람은 나를안구돌줄 모르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구나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 넹겨주소 〔이〕

57 명사십리가 아니라면은 해당화는 왜피며
모진산머리[40] 아니라면은 두견새는 왜우나 〔이〕

58 니가먼저[41] 살자구 옆구리 꾹꾹찔렀나
내가먼저나 산다구 기약[42]에도장을 찍었지

아리아리랑 쓰리쓰리 아라리로구나
아리랑 고개로 날 넹겨만 주서요 〔지〕

59 입맛붙이기 좋기는 입찹쌀감주가 좋구
정들이기 좋기는 시아버지맏아들이 좋구나 〔지〕

60 춘천아 봉의산[43]아 너 잘있거라
우리는 제주도루 향하는구나 〔장〕

61 우리가 갔다가 이고장을 또오면
이북눔 우리손에 몸살을 당허리 〔장〕

62 저건너 갈미봉[44]에 비가 오나마나
어린남편 모시구 동거 허나마나 〔장〕

63 무정 세월아 오고가지 말어
이팔에 청춘들은 다 늙어간다 〔장〕

---

39) 우리집의. 40) 모춘삼월(暮春三月)이. 41) 네가 먼저. 42) 계약. 계약서. 43) 鳳儀山. 春川市의 중심가 북쪽에 있는 春川市의 鎭山. 44) 斗村面 遠洞里의 文峯里 뒤에 있는 산. 다른 지역에도 같은 이름의 산이 여럿 있음.

64 저건너 싹발뙈기는 작년에두 묵더니
올해도 날과같이나 또 묵는구나 〔장〕

65 스스슬 동풍에는 궂인비[45] 오고
지하야 동풍에는 임만모시구 삽시다 〔장〕

66 청천 하늘에는 잔별이나 많지
우리네 살림살인 근심걱정이 많더라 〔장〕

67 무정한 기차가 날 실어다놓고
한고향[46] 시겨줄[47]줄은 왜 몰랐더냐 〔장〕

68 세월이 가결랑은 지나혼자 가지
이팔에 청춘들은 왜 다려가느냐 〔장〕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루 넘어갑시다 〔장〕

69 낙동강 칠백리에다 철다리를 놓고
정든기차 오기만 나는 기둘려요[48] 〔지〕

70 삼천리 강산에다 전봇줄을 늘이구
뚠딴지[49] 품속으루 임소식좀 전합시다 〔지〕

71 논밭천지는 썰만헌건[50] 신작로복판이 되구
아들딸이 썰만한건 뚝건달이 다됐구나 〔지〕

72 천질만질[51]에 물속은 알아두 한길에 사람속은 몰르구
지척에둔님을 그려살지를말구 차라리내가죽어 잊어나볼까 〔지〕

73 신작로 복판에 다꾸시[52]나 돌고

45) 궂은비. 46) 환고향(還故鄕). 47) 시켜 줄. 48) 기다려요. 49) 뚱단지.
50) 쓸 만한 것은. 51) 천 길 만 길. 52) 택시.

다꾸시나 안에서 신랑에신부가 논다지 〔지〕

74 딸딸굴르는 자동차를 요리집기생만 타나
돈만많으면 와다구시[53]두 탈줄 아는데 〔지〕

75 〔 〕에 함썩뜨자 병아리 간곳이 없구
무정기차 뜩떠나자 정든님 간곳이 없구나 〔지〕

76 하루열째 가는추풍을 어느누가 막으며
귀밑에오는 백발을 그누구가 막으리
옥진고을 곱던얼굴 고운양자 덧없는 세월에 백발이 됐구나 〔이〕

77 우툴뚱툴에 저 남산을 보아라
우리네인생도 한번가면은 저모냥저꼴이 된단다 〔이〕

78 북망산천이 멀다해도 건넌산이 북망인데
우리인생이 가면은두 건넌산이 북망이로구나 〔이〕

* 지옥순, 여·62. 장건용, 남·60. 이기순, 여·54.
* 북방면 북방2리, 1987.7.7., 전신재 김진희 정금란 홍호석 강하구 권준길 최용현 안선희 조사.
* T. 6—3—1, 6—3—2

14

79 멀구다래야[54] 썩은물은두 골골마둥[55] 흐르지
널과날과야 썩은물은두 한골수루만[56] 가자 〔전〕

80 만내보기야 하좋기는두 찬샘물 둔둬
잠자리 좋기는두 수수밭고랑 〔전〕

53) 〔일본어〕나. 54) 머루 다래가. 55) 골짜기마다. 56) 한곬으로만.

81 수수밭 텃도지는 내가 물어주께
구시월 거적만[57] 세월은[58] 주소 〔전〕

82 돈잘쓰구야 술잘먹을젠 김생복생[59] 허더니
돈떨어지구 술못먹으니 김서방 박서방 헌다 〔전〕

83 놀다가 죽어두 원통헌데
일을 허다가 죽으니 헐말이 뭐냐 〔전〕

84 공동묘지야 하 도굴짱[60]을 재켜놓고 보세
술 못먹다가 죽은무덤 몇무덤이냐 〔전〕

85 놉시다 놉시다 젊어서 노지
늙구서나 병이들면은 못놀겠구나 〔박〕

86 오는새 가는새는 덤불덤불이 울고
배꽃같은애 우리기생은 너하구나하구만 놀자 〔박〕

87 울타리를 뚝뚝꺾으면은 나온다고 하더니
행랑채를 둘러치어도 아니나도 나온다 〔박〕

88 기차는 떠나지구 소리소릴 치는데
정드신님은 나를잡구서 놓치를두 않네 〔박〕

89 눈이올래나 비가올래나 억수장마가 질래오
뒷동산에 검정에구름이 두둥둥에 떴구나 〔박〕

90 산수갑산[61]에부령청진[62] 가신낭군은 돈이나벌면 오지
공동묘지에 가신낭군은 언제 오나 〔박〕

91 공동묘지에 가신님두 지삿날[63]이면 오지

57) 까지만. 58) 세월을. 즉 기다려 달라는 뜻. 59) 김상 박상〔일본어〕 金氏, 朴氏 정도의 호칭. 60) 관 위에 덮는 돌. 61) 삼수 갑산, 즉 三水와 甲山. 62) 富寧과 淸津. 둘 다 함경북도에 있는 도시. 노동일거리가 많은 곳. 63) 제삿날.

육이오전쟁에 가신남편은 어느맘때 오시나 〔전〕

92 서울장안에 불붙은거는 서방대[64]가 끄지
요내가슴 불붙은것은 어느누가 꺼주니 〔박〕

93 칠봉산에 달뜬거는두 밝어서나 좋지
이내마음이 달뜬것은 매맞을 징조 〔전〕

94 배고파 지어논밥은 돌두많구나 뉘두많다
뉘많구돌많은 밥은 이내 없는애탓이로구나 〔박〕

95 하늘이 높다허여두 삼사오경에 이슬을주고
북경이 멀다하여도 사신행차가 왕래를헌다 〔전〕

96 시방 산천은 얼마나 멀어서
한번 가시면 영 못오시나 〔전〕

97 황해수가 깊다허여두 모래위에나 엎혔구나
태산이 높다허여두 송죽밑에 들어있다 〔전〕

98 북망산천은 얼마나멀어 한번가시면 못오시나
못오시는 말씀을 여쭤 봅시다 〔전〕

99 물이깊어서 못오시나 산이높아서 못오시나
물이 깊으면 화룡선[65]타고 산이높으면 비행기타지 〔전〕

100 청백관산 노기증[66]허니 길이없어서 못오시나
서출양관에 무고인[67]허니 벗이없어서 못오시나 〔전〕

101 중천에 무일색허니 해가없어 못오시나
동녘에 무월망허니 달이없어 못오시나 〔전〕

64) 소방대. 65) '화륜선(火輪船)'의 잘못. 66) 征客關山路幾重(王勃의 採蓮曲의 끝구절). 67) 西出陽關無故人(王維의 送元二使安西의 끝구절).

* 박영호, 남·54. 전석일, 남·63.
* 북방면 성동2리, 1987.7.9., 김진희 정금란 강하구 최용헌 조사.
* T.6—6—1, 6—6—2

15

102 비가올래나 눈이올래나 억수장마가 질래나
만수산[68]우야 검은구름이 막 모여든다

103 뒷동산 곤드레딱지[69]가 나즈미[70]맛만 같다면
십오년 숭년[71]에두 그것만먹구 살아요.

104 신작로 여가리[72] 뽀쁘라[73] 나무
자동차 바람에나 휘늘어졌네

105 물동이를 이구서 그림자를 보니
촌살림 허기는 증말 아껍꾸나

106 서양약국에 병원의사가 아무리용타구 하여두
이팔청춘에 늙는것을 왜 못곤쳐내나

* 전옥련, 여·62.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이종철 엄기주 유은영 이연순 조사.
* T. 5—10—2

16

107 명사십리가 아니어든 해당화는 왜피고
모춘삼월이 아니어든 두견새는 왜우나

68) 萬壽山. 松嶽山의 딴 이름. 京畿道 開城市 북쪽에 있는데 高麗朝의 궁궐터인 滿月臺가 이산 아래에 있음. 69) 곤드레와 딱주기. 나물 이름. 70) 〔일본어〕 愛人(俗語). 71) 흉년. 72) 언저리. 周邊. 73) 포플라(poplar). 미류(美柳)나무.

108 일락은 서산에 해는 떨어지고
월출은 동녘에 달만 솟아오네

109 태산준령 험한고개 칡넝굴 영크러진 가시밭 헤치고 시냇물 굽이치는 골짜기 휘돌아서 허우단신 허덕지덕 불원천리 그대를 찾아왔건만
그대는 본척만척 싹돌아신다[74] 무심히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루 나를 넘겨주오

110 강원도 금강산 일만이천봉 팔만구암자 유점사 법당뒤에 칠성단을 도도모고[75] 팔자에없는 아들딸 낳아달라고 석달열흘 백일정성 기도를 드리지를말구
타관객지에 외로이떠난사람 팔세를 말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루 잘두 넘어간다.

111 우리집 서방님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얽어매고 꺾어매고 장치다리[76] 곰배팔이 헐껴눈[77]에 노가지나무 뻐덕지게에 시루떡 세쪼각을 배채뿔에 바싹 달아매고 엽전석냥 웃돈얹어 결떠지고 강릉삼척 바닷가에 소금사러 가셨는데
대관령 굽이굽이야 부디잘다녀 오세요

112 한질두질[78] 석질넉질 다서여서 일고여덟 아홉열쩔 낭떠러지에 곤달걀을 붙이라면 붙였지
당신과 뚝떨어져서는 나는 못살겠네

113 내팔자나 네팔자나 원앙금침 잡목비게[79]에 소래반자[80] 들쳐놓고 샛

74) 선다. 75) 돌워쌓고. 76) 장치해 놓은 다리. 곧 의족(義足). 77) 사팔뜨기. 78) 한 길 두 길. 79) 잣모베개. 비단을 잣 모양으로 만들어 마구리를 꾸민 베개. 잣베개라고도 함. 80) 소란(小欄)반자.

별같은 놋요강을 발치발치 밀쳐놓고서 낮잠자기는 그도저도 다틀렸는데
오들모들에[81] 멍석자리에 깊은정이나 듭시다

114 간다네 못간다네 얼마나 울었나
아우라지 나루터가 한강수가 되었네

115 산천에 초목은 젊어만 가고
인간에 청춘은 늙어만 가네

116 산천이 푸르러서 가신 내낭군
백설이 휘날려두 왜아니 오시나

117 갈본기러기 꽃본나비야 탐화봉접인데
나비가 꽃을보구서 거저[82]갈수 있나

118 시집간지나 삼일만에 바가지장단을 쳤더니
시어머니 두눈이 가재미눈이 됐네

119 시누야 올케야 말내지 말게
삼밭에 보금자리 내가 쳤네

120 우리집 시어머니는 약삭빠르기도 하지
울타리 개구멍을 다막아 놓았네

121 우리집이야 시어머니는 낮짝두나 좋지
저잡놈을 낳아놓구서 날 데려왔나

122 뒷집에 김도령은 하이야[83]운전수루 갔는데
우리집에 저멍텅구리는 챗바쿠운전도 못해나

123 술잘먹구서 돈잘쓸적엔 긴상복상[84] 하더니

81) 웅틀몽틀한. 82) 그냥. 83) 하이어(hire). 專貰乘用車. 84) 김상 박상〔일본어〕 金氏 朴氏 정도의 호칭.

술뭇먹구서 돈떨어지니 본체만체 하누나

* 이영범, 남·59.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조옥희 최광현 김성욱 장기영 조사.
* T.5—8—2, 5—9—1

17

124 물동이 안에다가서 감자 구워넣구
이리둥그레 저리둥그레 감자 잡수

* 정순선, 여·65.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이종철 엄기주 유은영 이연순 조사.
* T. 5—10—2

18

125 문전옥답 남전북답은 다 팔아먹구
이세상 백년을 누굴믿구 사나

126 오늘갈런지 내일갈런지 나는 모르는데
줄봉사[85] 맨드래미 왜 심어놨나

* 김기하, 남·58.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조옥희 김성욱 조사.
* T. 5—8—2

19

127 감자를 까놓구서나 보리국죽을 쒔더니

85) 줄지어 심은 봉숭아.

시어멈잡년 누깔이가 산비탈로 도네

128 도라지 꼬장이는 부러럴 졌는데
총각낭군이 죽었다구나 부고가 왔네

129 저근너 철쭉꽃은나 울긋불긋
큰아기 젖통이는 몽실몽실

* 김우준, 남·69.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조옥희 김성욱 조사.
* T. 5—9—1

20

130 놀다가 죽어도 원통하다는데
일하다가 죽으면 더할말 있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 넘겨주게

* 최성만, 남·65.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조옥희 김성욱 조사.
* T. 5—8—2

21

131 산천이 푸러서[86] 가시던 낭군은
백설이 흩날려도 왜 아니오나

132 나는두 너를보이면 공산명월[87]루 생각이요

86) 푸르러서. 87) 화투패의 하나.

당신은 나를보면은 흑싸리껍질[88]루 생각이다

133 한치[89]뒷산에 짚덥은 얼부러지구 찌그러졌는데
우리집의 가장은 언제나 얼구러져볼까

134 시내강변에 불붙은것은 소방소가 끄지만
내속에 불붙은것은 어느누가 끄나

135 산이나 높아야 골이나 짚지[90]
조그만 여자가 속이 깊을소냐

136 세월아 멈춰라 오고가지를 마라
알뜰한 이내청춘이 다 늙어간다

137 세월아 봄철인지 나는 몰랐더니
뒷동산 매화춘절이 날 가리켜주네

138 어둠머둠한 멍석자리 회장저고리 깔고 덮고
내팔네팔 마주비고 잠자기는 인제글렀다

139 술집이[91] 갈적에는 술먹자구나 가지
술은두나 아니먹구선 장사자리 웬소리냐

140 시집살이 못하구 가라면 가지
술담배 끊구는 못살리라

141 눈이올래나 비가올래나 억수장마가 질래나
정든님은 오신다는데 나막신우비가 있어야 마중을가지

* 김정순, 여·81.
* 남면 용수리 큰말, 1987.7.7., 김문태 김승혜 전계진 홍후남 조사.
* T. 3—1—1

88) 화투패의 하나. 89) 江原道 旌善郡 南面 柳川里 동쪽에 있는 마을, 汗峙.
90) 깊지. 91) 술집에.

22

142 할줄 모르는 소리를 하라면은 하나
주눅이 들려서 나는 못하겠소

아리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143 아리랑 고개로 넘을줄만 알면
질람질람 갔다가 꼭 붙잡을걸

* 강성식, 남·78.
* 남면 시동3리, 1987.7.8., 김성수 김방경 김요섭 정은정 곽노실 정명수 용정실 성길제 조사.
* T. 4—7—1

23

144 세상에나도 맨발벗구나 못갈곳은 밤나무나밑이요
돈없이 못갈 집은도 술집이로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루만 날을 넘겨주게

* 이장재, 남·57.
* 남면 시동3리, 1987.7.8., 김성수 김방경 김방경 김요섭 정은정 용정실 성길제 조사.
* T. 4—7—1

24

145 울타리 밑에서 꼴비던 총각

눈치가 있겨들랑 떡만 받아먹게

146 떡은두 받아서나 울넘으로[92] 던지고
문고리 잡고서만 바리발발 떠네

147 문고리 잡고서나 떨지를 말고
삼사춘이 아니거든 들어만 오시오

* 허만금, 남·55.
* 남면 시동3리, 1987.7.8., 김성수 김방경 김요섭 정은정 곽노실 정명수 용정실 성길제 조사.
* T.4—7—1

25

148 일락서산에 지는해는도 지고싶어 지나
날버리고서 가는 우리집사람은 가고싶어 가나

아리라라랑 아리라라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 넘겨주오

149 아리랑 고개루가 넘을줄 알면은
질럼질럼 갔더라면은 꼭 만나볼걸

150 네가죽구서 내가살면은 몇백년 사느냐
다같이 한우물에 물에나 빠져죽자

151 삼칠산에 곤드레딱지가 나지미맛 같으면
칠년대한에 왕가뭄에도 봄만 살어가네

152 임죽은 무덤이 몇몇이나 되나

92) 울타리 너머로.

공동묘지가 토건말뚝을 시어나 보세

153 신고산천에 머루다래는 얼그러살그러 졌는데
너하구나 나하구는 알그러살그러 졌구나

154 우리나 고향은두나 춘천봉의산[93] 두산동인데
나는두 떠나는데는 소양강이 이별이라

155 노랑에 저고리 눈물이 줄줄흐르는데
우리아나낭군은 어디를가서 날찾을줄 모르나

156 친구야 우리부모가 날 찾거든
남사당패 쫓아갔다고 일러를 주게

157 이산을 넘어서 저산을 가니
우리나 부모를 만나나 볼까

158 팔봉산[94] 떡갈나무이파리가도 시방시체에 천원짜리만 같으면
그것만 뜯어먹어도 아무걱정 없네

159 너 잘 났느니 나 잘 났느니 인물 다툼을 말고 은전에 깔띠기[95]가 유잘 났으니
삼악산[96] 문바우가 재물이 났다해도 춘천시민들은 다 향락하네

* 용석주, 남·71.
* 남면 사동3리, 1987. 7.8., 김성수 김방경 김요섭 정은정 곽노실 정명수 용정실 성길제 조사.
* T. 4—7—1, 4—8—1

93) 鳳儀山. 春川의 中心街 북쪽에 있는 春川의 鎭山. 94) 八峰山. 洪川郡 西面에 있는 산. 95) 깔쭉이. 가장자리를 톱니처럼 깔쭉깔쭉하게 만든 주화(鑄貨) 96) 三岳山. 春城郡 西面 德斗院里에 있음.

26

160 비가올래나 눈이올래나 억수에장마가 질라나
만수산[97] 검정구름이 아이고아이고 다 모여드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구나

161 열었다가두 녹아를졌는지 봄철이 돌아왔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구나

162 칠월아 복마한천[98]아 오거나가지를 말어라
장안의 호걸들이나 아이구아이구 다 늙어가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구나

163 아우라지[99] 뱃사공아 배좀건너좀 주게
싸리골[100] 올동박이나 아이구아이구 다떨어지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구나

164 니가잘났나 누가잘났어 이네 누가 잘났어
시방시체야 문전[101]깔쭉이[102]가 니가 썩 잘났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구나

165 강원도금강산 일만이천봉 팔만구암자 유점사 산지법당에다 칠성단을 둬더[103] 모으고 아 팔자에없는 아들딸 낳아달라고 기도를 말구서
타관객지에 오신손님을 아이구아이구 괄세를 말어요

166 니팔자나 내팔자나 고대광실 높은집에 두리둥실 둘러깔고 원앙금침

97) 萬壽山. 松嶽山의 딴 이름. 京畿道 開城市 북쪽에 있는데 高麗朝의 궁궐터인 滿月臺가 이 산 아래에 있음. 98) 복마 한 철. 복더위의 한 철. 99) 江原道 旌善郡 北面 餘糧里의 가구미(加口米, 갈금)에서 柳川里로 건너가는 나루. 100) 江原道 旌善郡 北面 柳川里 松川 서쪽에 있는 마을, 싸리나무가 많았다 함. 101) 은전(銀錢), 은화(銀貨). 102) 깔쭉이. 가장자리를 톱니처럼 깔쭉깔쭉하게 만든 주화(鑄貨). 103) 돋워.

잔모베개[104] 활활벗구서 잠자보기를 고처에도[105] 다글렀으니
오다가다 석친[106]낭군님에 더쯤 상봉할까

167 정선읍내 물레방아 허풍선이[107] 사팔삼십이 서른두칸 굴굴대[108]는 사시사철 물살을 안구서 빙글빵글에 잘두나 돌아가는데
우리집이 낭군님은 어디가고서 날안고 돌줄을 몰러나

168 오뉴월청천에 참매미소리는 나난[109] 듣기좋아두
아닌밤중에 잠든님숨소리 나난 듣기싫으어

169 산이나 높아야 골이라도 짚지요[110]
조그마한 여자속이나 아이구아이구 속 짚을소냐

170 아리랑 스리랑 산대나나무[111]
매디매디나 뚝뚝꺾어두 아이구아이구 꽃만 빼네[112]

* 최재철, 남·73. 농업.
* 남면 유치2리, 1987.7.7., 정덕준 김성수 정은정 곽노실 정명수 성길제 조사.
* T. 4—3—1, 4—3—2

27

171 술잘먹고 돈잘쓸적엔 금수나강산 이더니
돈못쓰고 술못먹으니 적막강산이 다됐네

* 박순자, 여·76.
* 남면 유치2리. 1987.7.7., 김방경 김요섭 정은정 용정실 조사.
* T. 4—1—2

104) 잣모베개. 비단을 잣모양으로 만들어 마구리를 꾸민 베개. 잣베개. 105) 오초에, 애초에. 106) 섞어친, 인연을 맺은. 107) 물레방아의 물받이. 108) 궁글대. 롤러(roller). 109) 나는. 110) 깊지요. 111) 山竹. 112) '피네'의 잘못일 듯.

28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네

172 아리랑 고개에다 크게 집을 짓고
정든님 올때나 기다리네

173 나를두고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고 다시 돌아오나

* 최병옥. 여·64.
* 남면 유치2리, 1987.7.7., 곽노실 정명수 성길제 조사.
* T. 4—2—2

29

174 강원도 금강산 일만이천봉 팔만구암자에다가 칠성당을 모셔놓구서
아들딸을 낳아달라구 산제불공 말구서
타관객지에 외로운손님을 괄세를 말어라

* 강대성. 남·65.
* 남면 유치2리, 1987. 7.7., 정덕준 김성수 정은정 곽노실 정명수 성길제 조사
* T. 4—3—1

30

175 한치뒷산에 곤드레딱지가 나지미맛만 같으면
그것만 뜯어먹어도 봄살어 난다네

176 도랑가에야 거무노리[113]는 무신에 죄를 졌길래
큰아기 손끝에 칼침을 맞나

177 니가도 잘나서 일색이더냐
내눈이 어두워서 네가 일색으로 보였지

* 강순녀, 여·67. 횡성에서 출생하여 유치리로 시집옴.
* 남면 유치2리, 1987. 7.7., 정덕준 김성수 김방경 김요섭 정은정 곽노실 용정실 정명수 성길제 조사.
* T. 4—6—1

31

178 영월정선에 꼴두바우는 사랑가가 도는데
우리집에 문턱에는 건달꾼만 돈다

179 총각낭군 신주를 부뚜막뒤다 모시고
총각아재비 삼년상이 오늘 마주 걷네

180 산천에 딱다구리는 생구녕[114]도 뚜르는데
우리집이 저멍텅구리는 뚫어진구녕도 모르네

181 네팔자나 내팔자나 죽어지면은 오호남차 둘러메고 석자시치 퍽퍽파 설라무네 열두메디 꾹꾹묶어서 서른두명 상두꾼이 오호남차 둘러메고 북망산천 들어가 에헤라달헤 다죽게되면 황토밥이 될 인상[115]
너무나도 도척[116]같이 굴지를 말어라

* 최인준, 남·77. 홍천군 두촌면에서 출생하여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장전평1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음.
* 홍천읍 장전평1리 논둑, 1987.7.12.,
* T.2—5—11

113) 나물 이름. 114) 생구멍. 115) 인생. 116) 盜跖.

32

182 열라는 콩팥은 왜 아니나열리고
아주까리 동백만 왜 열렸나

183 아주까리 동백아 열리지 마라
산골에 더벅머리 몸맵시만 낸다

184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건너주게
싸리골 검은애동박이 다 떨어지네

185 나이는 좋아서 열여덟살
동옷속 팔아서 임사주게

186 만나보세 만나보세 또 만나보세
아주까리 정자로 만나를 보세

187 울타리 밑에서 꿀비는 총각
눈치가 있거든 떡받아 먹게

188 떡은두 받아서 팽개리를 치고
손목을 잡고서 놓지를 않네

189 열두칸 행랑채는 널러서나 좋지
이구십팔 열여덟살에 나이젊어 좋구나

190 수수밭 도지는 내가 물어줄께
구시월 까지만 참어를 주소

191 담넘어 올적엔 큰맘을 먹고
문고리 잡구서 발발 떠네

192 문고리 잡구서 몇치를 말구
숨소리 강궈서[117] 들어를 오게

193 일본동경가는배를 타자하면 십삼원각수가 들어도
요내배를 타자면 임자수단에 달렸네

194 우리의 시어머니는 뻔뻔두나 하시지
저잘난것을 나가지고서 날 데려왔나

195 시아버지가 죽었다고 춤 추더니
왕골자리 떨어지니까 생각이 난다

196 시어머니가 죽었다고 춤 추더니
보리방아 물부어놓고 생각이 난다

197 강원도 금강산 일만이천봉 팔만구암자 유점사 법당뒤에 칠성단 노드보고[118] 팔자에없는 아들딸 낳아달라고 석달열흘백일 노급에정성[119] 산지서걸[120] 말고
아닌밤중에 오시는소님을 팔세를 말아

* 강신표, 남·55. 화촌면 야시데리에 8대째 거주. 농업. 無學.
* 화촌면 야시데2리, 1987.2.11., 강동규 조남혁 조사.
* T. 1—3—2

33

198 돈잘씨구서 말잘할제는 긴상복상[121]하더니
돈떨어지구 말못하니난 적막강산이로다

* 남궁춘, 남·73.

117) 고르게 낮추어서. 118) '돋워 놓고'의 잘못일 듯. 돋워 쌓고. 119) '노구메정성'의 잘못. 노구메를 놓고 山川에 기도하는 정성. 120) '산제 불공을'의 잘못일 듯. 121) 김상 박상, 金氏 朴氏.

* 화촌면 구성포리, 1988.6.22., 정덕준 강성관 윤혜정 유진수 김효경 조사.
* T. 1—1—2

34

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루 넘어간다

199 메꽃같이 곱던 얼굴
시집살이 십여년에 다 늙었네

아리랑 으응 아리아리랑 아라리요
아리아리랑 고개루 넘어간다

200 영월정선 운주지골 꼴두바우 사절치기강내밥[122]은두 우글우글 끓는데
우리님은 어딜가시구 왜 못오나

아리랑 으응 아리아리랑 아라리요
아리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201 부령청진[123]에 가신낭군은 돈이나벌면 오지
공동묘지야 가신님은 언제 오나

아리랑 으응 아리아리랑 아라리요
아리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202 울밑에 벽오동심어 봉하구 노잤더니 봉황은 왜 아니오고 날어드느니 오작이로다
동자야 저오작 몰아라 복많이 간다

122) 사절치기 강냉이밥. 옥수수를 네 쪽이 나도록 둘둘 갈아서 지은 밥. 123) 富寧과 淸津. 둘 다 함경북도에 있는 도시. 노동일거리가 많은 곳.

203 청춘에 할일이 무어이 없어서 주색에 청류[124]를 종사를 삼느냐
아 못사리로다 난 못살겠구나 공동무들살이[125] 난 못살겠구나

* 안중혁, 남 • 77.
* 화촌면 굴운리, 1988.6.24., 업기주 오애리 성걸제 이용인 조사.
* T. 1—13—1, 1—13—2

35

204 시집살일 할라니 열두폭 치매가
눈물로 다 썩어나고 나는 못살겠소

205 술 아니 먹고자나 맹세를 했더니
안주보고 주모보니나 또다시 먹겠네

206 노다가 죽어두 원통한데
일하다 죽어나지니나 더할말 있나

207 산이나 높아야 골도나 깊지[126]
지구마네[127] 여자속이나 짚을소냐

208 시월이[128] 갈라이면 저혼자나 가지
알뜰한 청춘은 왜데리구 가나

209 산천이 푸러서나 가시던 임이
백설이 흩날려도 아니나 오시네

210 산천초목도 임자가 있건만도
요내몸은 월로생겨서 임자가 없나

211 저건네 묵밭은 자작년[129]에도 묵더니

124) 청루(青樓). 125) 공동묘지살이. 126) 깊지. 127) 조그만. 128) 세월이.
129) 재작년.

올해도 날과 같이나 또묵어지누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날만 넹겨주소

* 이정례, 여·74.
* 화촌면 내삼포리, 1988.6.24., 엄기주 오애리 성길제 이용인 박미연 조사.
* T. 1—12—1

36

212 봄철인지 갈철인지 나는 몰랐더니
뒷동산에 행화춘절이 나를 알캐주네

* 조금순, 여·61. 홍천읍 출생. 5년전 화촌으로 이주.
* 화촌면 내삼포리, 1988.6.24., 엄기주 오애리 성길제 이용인 박미연 조사.
* T. 1—12—1

37

213 숙세배[130] 도랑치만[131] 입었을망정
하이칼라 상구머린 눈알루[132]돈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루 넘어간다

* 최의호, 남·58.
* 화촌면 내삼포리 이장댁, 1988. 6.24., 엄기주 오애리 성길제 이용인 박미연 조사.
* T. 1—12—1

130) 석세배. 굵고 거친 베. 131) 무릎까지 오는 치마. 132) 눈 아래로.

38

214 공동묘지야 말뚝장승[133]아 말 물어나 보자
임그립고 돈그리워 가신무덤이 멧메치나 되더냐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로누나
아리랑 고개루 넘어를 간다

* 차상호, 남·62. 인제에서 출생. 40세에 화촌면으로 이주.
* 화촌면 내삼포리, 1988.6.24., 엄기주 오애라 성길제 이용인 박미연 조사.
* T. 1—12—1

39

215 산이나 높아야 골이나 짚지[134]
여자의 소견이 짚을수 있나

216 한치[135] 뒷산에 곤드레딱지[136]는 나지미[137] 맛만 같으면
그것만 뜯어먹어도 봄한철을 사네

217 시집살이 삼년을 하고나니
삼단같은 머리가 푸대지[138]가 다됐네

아리랑 고개로 날만 넘겨 주소

218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나네

133) 말뚝장승. 134) 깊지. 135) 汗峙. 강원도 정선군 남면 유치리 동쪽에 있는 마을. 해발 400m이상의 고지에 있어서 이마을에 가자면 한겨울에도 땀을 흘린다 함. 136) 곤드레와 박주기. 나물 이름. 137) 〔일본어〕 愛人. 138) 윗쪽이 풀어진 자루.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219 금전의[139] 옥답은 다 팔아먹고
바가지 신세가 웬일이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김귀순, 여·55.
* 화촌면 주음치리4반, 1988.6.24., 정덕준 강성관 윤혜정 유진수 김효경 조사.
* T. 1—5—2

40

220 고개고개 넘어가다가 신돌배 나무
매지매지[140] 뚝뚝 꺾어두 흰꽃만 펴요

221 아스라세요[141] 마르세요[142] 그리를 마셔요
사람의 인정팔세를 그리나 마셔요

222 오동나무 잎사구는두 필뚱말뚱
너하구나 나하구는두 정들뚱말뚱

* 이홍운, 남·70. 국졸. 약간의 한학을 했음.
* 화촌면 주음치리4반, 1988.6.24., 정덕준 강성관 유진수 윤혜정 김효경 조사.
* T. 1—5—2

139) '문전의'의 잘못일 듯. 140) 마디마디. 141) 앗으셔요. 142) 마셔요.

41

223 산지당[143] 까막까치는 까악까악 짖는데
정드신님의 병증세는 나날이 깊어간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는데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만 주세요

* 박수영, 남·67.
* 화촌면 주음치리4반, 1988.6.24., 정덕준 강성관 윤혜정 유진수 김효경 조사.
* T. 1—5—2

42

224 아우라지야 뱃사공아 배만 건너주게
공산삼십에 오도도동백이 다 떨어진다

225 산이나 높아야 골이나 깊지
조그마한 여자 속이나 속짚을소냐

* 이창석, 남·52.
* 화촌면 주음치리, 1988.6.24., 정덕준 강성관 윤혜정 김효경 유진수 조사.
* T. 1—6—2

43

226 구룡천지[144]에 가신 낭군은 돈이나 벌면은 오지
북망산천에 가신 님은두 어느새 오나

143) 산제당(山祭堂). 144) '부령 청진'의 잘못.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난두 또 넘어가요

* 허응구, 남·65.
* 화촌면 주음치리, 1988.6.24., 정덕준 강성관 윤혜정 김효경 유진수 조사.
* T. 1—6—2

44

227 청천은 하날에 잔별두나 많구요
요내나 가삼[145]에는 좋다 수심도나 많구나

228 간다 가누나 내 돌아가누나
정든님을 버리구서 좋다 나는 또가누나

229 내가야 가면은 아주를 가느냐
아주나 간들이 좋다 널 잊을소냐

230 세월이 갈라면은 저혼자 가지어
알뜰한 청춘을 좋다 왜데리구 가느냐

231 놀다가 죽어져두 원통하는데
일하다가 죽어지니 더헐말이 있나

232 세월인지 아닌지 나는 몰랐더니
뒷동산 행화춘절이 날 아르켜준다

* 안완규, 남·67.
* 화촌면 장평2리 윗술치, 1988.6.23., 정덕준 강성관 윤혜정 유진수 김효경 조사.
* T. 1—3—1, 1—3—2

145) 가슴.

45

233 뒷동산 동박남구[146] 꾀꼬리단풍 들거든
너하구 나하구서 동박 따러 가자

234 바람은 불고불수록 추워가고
이 못난 〔 〕 보고볼수록 깊은정만 드네

235 우리도 남날적에 생겨났건마는
요모냥 요꼴대로 늙어를 갑니다

236 겨울인지 봄철인지 나는 몰랐더니
얼었다 녹은 이눈야 봄철이로구나

* 이만섭, 남·58.
* 화촌면 장평1리 윗솔치, 1988.6.23., 정덕준 강성관 윤혜정 유진수 김효경 조사.
* T. 1—3—2

46

237 〔 〕[147] 떨어진 것은 꼭지나 있지
우리낭군님 떨어진 것은 꼭지두 없네

238 당신은 나를알기를 흑사리꽃[148]처럼 알어두
나는또 당신을알기를 공산명월[149]루 아리

239 건넌산에 진달래꽃은 울긋새불긋[150]

146) 동백나무. 147) 머루 다래. 148) 흑싸리껍질. 화투패의 하나. 149) 화투패의 하나. 150) 울긋불긋.

정드신 님 얼굴이 비젓두하리[151]

아리아리랑 쓰리덩더쿵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만 넘겨주소

* 남기천, 남·49.
* 화촌면 장평2리 솔치, 1988. 6.23., 정덕준 강성관 윤혜정 유진수 김효경 조사.
* T. 1—4—1

47

240 산천에 초목은 늙었다 젊었다허는데
사람은 한번늙으면 젊어질줄 왜모르나

241 호박이나 늙은것은 끓여서나 먹지만
사람이나 늙은것은 무엇에다가 쓰나요

242 저거를 길러서 내낭군을 삼느니
뒷동산에 보도기[152]를 길러가지고내 정지[153]를 삼자

243 시집살이를 못허면 친정살이를 가지
저까짓잡놈 바라구 해로백년은 못살어

244 모시대 참나물 스러진골로
우리네 삼동새 보나물[154]이나 갑시다

245 골이나 짚으면 산이나 높지
조그마한 여자속이 깊을손가

151) 비슷도 하다. 152) 보드기. 크게 자라지 못한 어린 나무. 153) 부엌의 부지깽이(?) 정자(?) 154) 보자기에 싸는 나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줘요

246 서산에 지는해가 지고싶어서 졌나
날버리구서 가는님은 가구싶어 갔나

* 최옥례, 여·70.
* 화촌면 장평2리 솔치, 1988. 6.23., 정덕준 강성관 윤혜정 유진수 김효경 조사.
* T. 1—4—1, 1—4—2

48

247 한치[155]뒷산에 곤드레딱지[156]가 나지미[157]맛 같으면
그것만 뜯어 먹어도 봄한철은 살으리

248 높은산에 재날리듯 낮은산에 눈날리듯 억수장마 비퍼붓듯 개천바다[158]
물밀듯이 물은 점점백겁이요 산은 첩첩산중인데
우리집낭군은 어딜가서 나의생각을 아니하나

* 윤을순, 여·68.
* 동면 삼현리 마을회관, 1988.6.23., 이필용 김경원 류재선 방은영 조사.
* T. 3—1—2

49

249 세월이 가려걸랑 저혼차나 가지
아까운 우리청춘을 왜 다리가나[159]

155) 江原道 旌善郡 南面 柳川里 동쪽에 있는 마을. 汗峙 해발 400m이상의 고지에 있어서 이 마을에 가자면 한겨울에도 땀을 흘린다 함. 인근에 한치재가 있음.
156) 곤드레와 딱주기. 나물 이름. 157) 〔일본어〕 愛人(俗語). 158) 대천바다.
159) 데려가나.

250 무정한 기차는 날실어다 놓고
또다시 실어갈줄은 왜 모르나요

251 시집살이를 못하고서야 가라면 가지
술담배 아니먹고서 나는 못살겠네

252 봄철인지야 갈철[160]인지야 나는이제 몰랐더니
뒷동산에 매화춘절이 나를 알려주네

253 이별청진[161]에 가신낭군은 돈이나많이벌면 오시나
북망산천에 가신낭군은 언제또다시 오시나

254 무지[162]중천에 떠단니는 까막까치도 임자가야 있건만
나는 어찌야 생겨나서는 임자가 없나

* 김옥심, 여·55.
* 동면 삼현리, 1988.6.23, 이동수 한호순 박삼희 박승림 조사.
* T. 3—19—1

50

255 노랑저고리 분홍치마를 받고싶어 받었나
어머님아버님 말한마디에 울민불민[163] 받었지

256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줌 건너주게
싸리밭골 거문동작[164]은 다 떨어진다

257 울동박은 다 떨어지더라도
동박나무 젖순애기[165]는 꺾지를 말어라

160) 가을철. 161) 富寧 淸津의 변형. 162) 무주(無主). 163) 울며불며.
164) 검은 동백. 165) 어린 가지. 여기서는 나이 어린 소녀의 비유.

258 정선읍내 물레방아는 물살을 안고서 비비배뱅글 도는데
우리집의 낭군님은 왜 나를안고 못도나

259 동지선달 쌓이는눈은 이삼월엔 풀리련만
요내속에 쌓이는수심은 어느때나 풀리나

260 버선에 잔벌[166]은 내가 걷어줄거니
글방에 도련님 나를 얻어주세요

261 요 노총각아 초마[167]꼬리를 놓아라
당사실로 접은애주름이[168] 다 페겨진다

* 신옥순, 여·49.
* 동면 개운리 신옥순씨댁, 1988. 6.23., 허남춘 이동수 한호순 박삼희 박승림 조사.
* T. 3—15—1

51

262 우리인생이 살다가보며는 억수나만년을 사느뇨
오늘오늘에 오신이손님을 괄세하지를 말어요

* 신홍수, 남·66.
* 동면 개운리 마을 정자나무 아래, 1988.6.23., 허남춘 박삼희 조사.
* T. 3—15—2

52

263 시냇가의 빨래소리 천지를 진동하는데
아롱아롱 버들잎은 정든임얼굴만 가려주네

166) 버선볼. 167) 치마. 168) 접은 주름이.

* 이인남, 여·58.
* 동면 개운리 박선녀씨댁, 1988.6.23., 이동수 한호순 박삼희 박승림 조사.
* T. 3—16—1

53

264 마당웃전에 수상대는[169] 열듯말듯하구서 흔들거리는데
나는아무나 누굴믿고서 이모양이꼴을 하고사나

265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좀 띄어주게
싸리골 올동박이 다 떨어진다

266 올동박은 다 떨어지더래도
동박낭구 자순애기[170]는 꺾지를 말어라

267 오늘갈런지 내일갈런지 사세만경[171]인데
울타리밑에다 줄강낭콩[172]은 또 왜 심어놨나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구나
아리아리랑 고개로만 나를 넹겨주게

268 임자당신은 가실고개는 한고개가 되고
나 넘어갈고갠 열두나고개가 됩니다

269 지화연풍[173]엔 궂은비만 줄줄이 내리는데
정드신님은 해가져도야 왜 아니오시나

* 이옥희, 여·65.
* 동면 개운리, 1988.6.23., 이동수 한호순 박승림 조사.
* T.3—17—1

169) 수수대공은, 170) 젖순애기. 어린가지. 나이 어린 소녀의 비유. 171) 세사망정(世事罔定). 172) 줄지어 심은 강낭콩. 173) 시화연풍(時和年豊).

54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만 나를 넘겨주게

270 산수갑산[174]에 부령청진[175]이 화담살기는 좋은데
왜놈의 등쌀 사람 못살겠구나

* 남궁봉, 남·79.
* 동면 월운리 노인회관, 1988.6.23., 이필용 김경원 류재선 방은영 조사.
* T. 3—1—1

55

271 총객이 잘나서 일색인가
내 눈이 어두워서 일색이지

272 청천 하늘에는 잔별[176]도 많지
이내야 가슴속에는 수심도 많구나

273 술잘먹고 돈잘쓸적엔 금수강산이더니
술못먹고나 돈못쓰니 절벽강산이오

274 비가 올라나 억수나장마 질라나
어둔 산천에 검은구름이 막몰려오네

275 산이 높아야 골이나 짚지
조그마한 여자 속이 짚을소냐

174) 삼수갑산(三水甲山). 175) 富寧淸津. 176) 잔별.

276 저건너 묵밭폐기는 재작년에도 묵더니
올해도나 날과같이도 또 묵는규나

277 갈철인지 봄철인지 나는 몰랐는데
뒷동산에 행화춘철이 날 알려주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아리 고개고개로 날 넘겨주

278 울타리 밑에서 꼴베는 총각
눈치가 있거들랑 떡이나 받아먹게

279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고 설워말게
명년에 춘삼월이 또 돌아온다

280 정기좋고 놀이가 좋은데
물이라도 한가지 없어서 못놀겠네

281 기차전차 떠나는데는 철로다리만 울고요
마을두고 떠나는데는 정든님때문에 울어요

282 정들자 이별이래 분수 있지
단석달도 아니가서 이별인가

283 우수야 경칩에는 대동강이나 풀리고
정든님 목소리에 내속이 풀리네

284 오늘갈지 내일갈지 모르는데
맨드라미 외줄봉사[177]는 왜 심었나

* 김종식, 여·87.
* 동면 좌운리 장터거리, 1988. 6.22., 허남춘 이필용 이동수 한호순 김경원 류

177) 한 줄로 연이어 심어 놓은 봉숭아.

재선 박삼희 박승림 방은영 조사.
* T. 3—11—1

56

285 국화꽃이나 고와도 춘추 당절이요
당신얼굴이 곱다해도 이십살 미만이로다

286 참나무 장작이 세동강네동강 나도
너하고 나하고는 그여코 살고야말기다

287 사람마다 버슬을허면 농부들이란 왜있으며
의사마다 병다고치면 북망산천을 왜대령해나

288 정선읍내야 물레방아는 비빙글 도는데
우리집이 저멍텅구리는 날안고 돌지를 못해는구나

289 아리랑 말년에는 난리가 나더니
만인간 살어가기가 궁금하구나

* 민병호, 남·71.
* 동면 좌운리, 1988.6.24., 이필용 김경원 류재선 방은영 조사.
* T. 3—12—1

57

290 부령청진에 산수갑산이 얼매나 고와서
꽃같은 이나를 두고서 돈벌러가오 〔권성룡〕

291 부귀공명 잘사는것도 나는 싫어
이별없는 세상에있어 살아 보세 〔박기선〕

292 산천에 물구[178]다래는 떨어지면은 꼭지나있지
요내님과는 떨어지니 꼭지도채 똑떨어지네 〔이순옥〕

293 꽃이나 썩으며는 남이나 알지
속썩는 거를 남이나 아나 〔이순옥〕

294 무산자 무산자 한탄을 말어라
천지순행이 물레바쿠같이 돌구 도네 〔고용봉〕

295 무지공산[179]의 산비둘기는 콩밭을 믿구살어도
요내나 인생은 뉘를 믿고사나 〔권양원〕

296 비가올려는지 눈이올려는지 억수장마 지랴는지
과천[180]관악산[181] 검정구름이 뭉기뭉기 솟네 〔권양원〕

297 니팔자나 내팔자나 무슨복으로 이불담요 깔고앉고 원앙금침 돌라치고 잠자보기는 애초강산[182]에 일글렀는데
오다가다 덤불밑에서 깊은정이나 들자 〔박기선〕

298 니팔자나 내팔자나 한번금적 죽어지면 무주공산 공동묘지 폭파묻혀 살은썩어 물이되고 뼈는썩어 황토될 인생
고렇게도나 도척[183]같이를 멀리만먹지를 말어라 〔박기선〕

299 정선읍내 드나드는 물레방아 허풍선이[184] 물살을 안고 요리조리 빙글빙글 돌구돌아 가는데
우리집의 저멍텅구리는 왜안고돌줄 모르나 〔박기선〕

* 권성룡, 남·71, 박기선, 남·66, 이순옥, 여·62, 권양원, 남·77,
* 동면, 1988.

178) 머루. 179) 무주공산(無主空山). 180) 果川. 서울의 남쪽 입구. 181) 冠岳山. 182) 애초에. 183) 盜跖. 184) 물레방아의 물받이.

58

300 못하는 소리를 하라고 하니
중추[185]가 미어가지구 나는야 못해

301 노랑저고리 오지랖에 눈물이 〔 〕
이텃저텃[186]에 하여두 낭군님의 탓이지

302 아우라지[187] 행개[188]북창[189]아 너잘 있거래이
말고개[190] 넘어스니요 이별이로구나

303 남포야 등잔아 불밝혀래이
그립던에야 임에나열골을 또다시 보재이

304 산이나 높아야 그늘이나 지지
조그마한 여자가 소견이 깊을소냐

305 너는야두야 나를보며는 흑싸리껍질[191]로 알아도
나는야 너를보면은 공산명월[191]로 안대이

306 한치[192]뒷산에 곤드레딱지[193]가 나즈미[194]새맛만 같다면
요것만 뜯어먹어도 봄살아 난대이

307 총각낭군이 사다주두네[195] 오복수[196]나 댕기
곤때[197]도 아니올라서 천애비[198]왔네

185) 중치. 목줄기. 186) 이탓저탓. 187) 斗村面 哲亭里에 있는 마을. 鵝湖洞. 내촌면 화상대리 쪽에서 흘러오는 냇물이 마을앞 냇물과 합함. 188) 횡계. 189) 北倉. 斗村面 哲亭里에 있는 마을. 190) 馬峴. 斗村面 哲亭里에 있는 고개. 191) 둘다 화투패의 하나. 192) 汗峙. 江原道 旌善郡 南面 柳川里 동쪽에 있는 마을. 해발 400m 이상의 고지에 있어서 이 마을에 가자면 한겨울에도 땀을 흘린다 함. 인근에 한치재가 있음. 193) 곤드레와 딱주기. 나물 이름. 194) 〔일본어〕 愛人(俗語). 195) 사다준. 196) 五福壽. 197) 고운 때깔. 198) 중신아비. 남자 중매인.

308 우리서방님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깎구깎구 머리깎구 씨구씨구 삿갓씨구 신구신구 나박미투리신구 엽전지게에 엽전한바리를 싣고서 영월 꼴두바우상사 화투를치러 갔는데

오동[199] 사꾸라[199] 공산[199]에 비[199] 삼십 팔팔 일어나라

309 네팔자나 내팔자나 원앙금침 잠목비게[200]에 발치발치 놋요강에 이부자리에 꼭끌어안고 잠자기는 역적의모가지틀어지듯 개다리새다리틀어지듯 다틀어나졌는데

옹돌몽돌한 멍석자리에 깊은정만 듭시다

* 홍현택, 남·56. 장남리 남덕골에 11代째 거주. 학교 교육은 받지 않았으나 한글을 읽고 쓸 정도. 30년째 이장을 맡고 있음.
* 두촌면 장남리 남덕골, 1986.7.22., 김성수 유은영 이대근 전계진 조사.
* T. 2—1—2, 2—2—2

59

310 아들딸 낳아달라구야 석달열흘에 산지불공을 말구요
아닌밤중에 오신손님을 괄세를 말아 〔홍현택〕

311 내가죽구야 니가살면은 속션할리가[201] 워디있나
있는데고야 톡톡팔아 술추렴 가세 〔홍완기〕

312 가는님에야 허리를 한아름 안고
죽여라 살려라 통사정을 한대이 〔현〕

313 뒷동산에야 곤드레딱지가 나지미속만 같다이면
고거만 뜯어먹어두 봄살아 가네 〔완〕

314 공산명월에 두견이접동새 네슬피우지 말어래이

199) 모두 화투패의 한 가지들임. 200) 잣모베게. 잣베개. 비단을 잣 모양으로 만들어 마구리를 꾸민 베개. 201) 속이 시원할 리가.

일로하야서 고향에생각이 시시로 난대이 〔현〕

315 뒷동산에야 철뚝꽃[202]은 울긋불긋
정든님네나 얼굴이 비젓도[203]하네 〔현〕

316 아시라시래[204] 죽거들랑은[205] 내품안에 들고
비게가 높거들랑은 내품안에 안겨라 〔완〕

317 목말라해야 소주약주를 나를간주[206]를 말구요
후원별당에 잠든애 큰아기 날 보내다오 〔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네 〔완〕

318 신작로 유강지[207] 아까시아 낭구
자동차 바람에 단풍이 졌네 〔현〕

* 홍현택, 남·56.
홍완기, 남·57. 장남1리 남덕골에 대를 이어 거주. 학교 교육은 받지 않았으나 한글과 한자를 약간 알고 있음.
* 두촌면 장남리 남덕골, 1986.7.22., 김성수 유은영 이대근 전계진 조사.
* 홍현택과 홍완기가 주고 받으며 부름.
* T. 2—3—2

60

319 산이나 높아야 골이나 짚지[208]
조그마한 여자의속이 맘깊을 소냐

320 열라는 콩팥은 냉한이 들고
아주까리 동백만 저구 열리네

202) 철쭉꽃. 203) 비슷도. 204) 아실아실. 205) 춥거들랑은. 206) 권주(勸酒). 207) 여가리. 언저리. 208) 깊지.

321 너는두나야 나를보면은 본숭만숭 하지만
나는두나야 너를보면은 꼭 죽겠더라

322 안암산[209]에야 철뚝꽃은 곧돌아볼만 하니
우리야정든님 얼굴이 비젓도[210]하구나

323 백문산에 철뚝꽃을 얼굴에 뿌리고
정든님에 얼굴같구나 비젓던 해요

324 알록달록에 두덩비게[211]는 할머니나 비구나
총각낭군의 길고긴팔을 언제나 비리

325 물본기러기야 꽃본나부[212]는 탐화봉접인데
나부가 꽃을보고서 거저갈수 있느냐

326 당신은두나 당신이시고 나는도 난데
여산폭포 물결같이만 뜬구름 없어라

327 아시라시래[213] 춥고배고프면 내품안에 들고
비게가 높거들랑 내품에 들어라

328 심심산곡에 산매미소리는 듣기나 좋지
소년과수야 한숨소리는 듣기두나 싫어

329 술은도 술술이 잘도 넘어가고
잔들의[214] 냉수는 충츤애비요[215]

330 술아니 먹자고 맹세를 했더니
안주보고 주모보니 또다시 먹겠구나

---

209) 앞 남산. 210) 비슷도. 211) 두동베개. 신랑 신부 둘이서 함께 베는 긴 베개. 212) 나비. 213) 아실아실. 214) '찬물에'의 잘못일 듯. 215) '중치가 막혀요'의 뜻일 듯.

331 술잘먹구야 돈잘쓸적엔 긴상복상[216]했더니
돈떨어지구야 술못먹으니 혹불어 세월

332 탁배기나도 한잔에나 일전에꼬리를 주어도
살림살이나 생각하면은 늘 못마셔요

333 술은도 쑬쑬이나 잘도 못하는데
하늘에나 맹수[217]는도 중추[218]가 밀려요[219]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요
아리아리랑 고개저쪽에 날넘겨 주소

334 너는도 나를보면은 날못본듯 하여도
나는늘 너를보면은 명월로 알아요

335 당신은두나 당신이고 나는또 홍완기[220]
여산폭포 물결같이만 둥글어 봅시다.

336 뒷동산에 곤드레딱지가 나즈미맛만 같아니
요것만 뜯어먹어도 봄살아 가요

337 하관산에도 못가게됐지만 작년에도 먹더니
올해도 날과같이나 또먹게 됐네

338 뒷동산에야 철뚝꽃[221]은야 울긋불긋 피었지
정든님에야 얼굴이 비젓도[222] 합니다

339 사랑에지나 두눈에대줄도 씨구씨구 익어가요
나를두고 가는내님은 가고싶어 가실교

---

216) 김상 박상 〔일본어〕 金氏 朴氏정도의 호칭. 217) 맹세. 218) 중치. 목줄기. 219) 이노래의 일반적인 가사는 다음과 같음. 술은 술술술 잘 넘어가는데/찬물에 냉수는 중치가 메어요. 220) 口演者 자신의 이름. 221) 철쭉꽃. 222) 비슷도.

340 네꾸다이야 풀어진거는 다시매면 되지만
사랑이야 풀어진거는 어이나 하나

* 홍현택, 남·56. 홍완기, 남·57. 김종택, 남·59. 홍용화, 남·63.
* 두촌면 장남리 남덕골, 1986.7.22., 김성수 유은영 이대근 전계진 조사.
* 제보자들이 술을 들며 돌려가며 부름.
* T. 2—6—2, 2—7—1

61

341 세월이 가는거는 흐르는물과도 같더니
사람이 늙기는 바람결 같네

342 니나내나 죽어지면은 그만인데
먹구야 쉬구나 잘놀아 보자

343 몰러라 죽는거는 수중에 공이
일하다 죽는거는 우리네라네

* 허만표, 남·80. 천현리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 농업에 종사.
* 두촌면 천현리 경수, 1986.7.23., 김성수 유은영 이대근 전계진 조옥희 조사.
* T. 2—8—1

62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넘겨 주오

344 옴치고 좀치고 열무김치 소금치고 배추김치 절쳐서 칼로 물빈듯이 동양사 돌아들드니
일천팔십리 다못가고 왜또 날 찾아왔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넘겨 주오

345 정선읍내 물레방아 사시장철 물살을안고 비빙글배뱅글 도는데
우리넥 서방님은 어느시절에 와서 나를안고 도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넘겨 주오

346 부령청진 가신낭군은 돈이나벌면 오지
북망산천 가신낭군은 어느시절에 오나

* 이필옥, 여·70.
* 두촌면 철정리 지다치, 1986.7.22., 강동규 이도형 조옥희 최광현 조사.
* T. 2—10—1

63

347 새벽높새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럭아
네가가면은 너나가지 잠든가장을 왜깨우나

348 오동추야에 달이나 두둥글 밝았고
성칠엄매야 생각이 오늘날도 나는구나

349 우리나 시어머니는 넉살머리도 좋아
저까짓 잡놈을 낳아놓고서 날데려 왔느냐

350 부령청진[223] 가신낭군은 돈이나벌면 오건만
공동묘지를 가신님은 어느시절에 오시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223) 富寧과 淸津. 둘 다 함경북도에 있는 도시. 노동일거리가 많은 곳.

아리랑 고개로 나좀넘겨 주세요

351 세월이 갈라거든 저혼자 가지
알뜰한 요내청년을 왜데려 가나

352 세월아 봄철아 오고가지를 말어
알뜰한 요내청년이 다늙어 간다

353 눈이올래나 비가올래나 억수장마가 질라나
만수산[224] 검정구름이 당래를 한다

354 너나나나 죽어지면 이리로 일곱메끼 저리로 일곱메끼 삼칠이이십일 스물한메끼 꼭꼭묶어서 전나무둘에 연나무 연춧대에 각구잽이[225] 왕잽이 지꾸잽이[226] 녁살잽이 이십사명 초군들이 어허넘차 공동뫼지 가 푹 파묻으면은 살은썩어서 황토백발이 되고
너는두나도 썩구나썩어서 풀모래가 됩니다

355 울치고 담치고 열무김치 소금치고 행주치마 둘러치고 기으른놈 기집치고 기집은 개치고 미꾸리 땅치고 오호 칼로 물빈듯이나 싹돌아를 섰더니
한십리도나 못가서 되돌아 왔구나

* 장생군, 남·46. 서석면 출생. 6세 때 내촌면 서곡리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 국민학교 교육만 마침.
* 내촌면 도관리 여인숙, 1986. 7.22., 전신재 최훈 정성화 윤홍기 송동찬 김치희 신정복 정은정 김성욱 조사.
* T. 4—3—1

224) 萬壽山. 松嶽山의 딴 이름. 京畿道 開城市 북쪽에 있는데 高麗朝의 궁궐터인 滿月臺가 이 산 아래에 있음. 225) '앞구잡이'일 듯. 상여 앞쪽의 메는 막대(?) 226) '뒷구잡이'일 듯. 상여 뒤쪽의 메는 막대(?)

64

356 담배불이나 반짝반짝해 님이오신줄 알았더니
몹쓸놈에 개똥불이나 날 속였구나

357 술이라도 먹거들랑 취하지를 말고
님이라도 만나거들랑 이별없이 삽시다

* 이옥순, 여·55.
* 내촌면 물질리, 1986.7.22., 김진희 신정복 윤홍기 정성화 조사.
* T. 4—1—2

65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358 비가올래나 눈이올래나 억수장마 질라나
만수산[227] 검은구름이 막 모여든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359 명사십리가 아니라면은 해당화는 왜피나
봄춘삼월이 아니라며는 두견새는 왜울어

360 아우라지[228]야 뱃사공아 배좀 건너주게
싸리골[229] 올동백이 다 떨어진다

227) 萬壽山. 松嶽山의 딴 이름. 228) 江原道 旌善郡에 있는 나루터.
229) 旌善郡에 있는 마을.

361 떨어진 동백알은 낙엽에나 싸이지
사시장천 님그리워 나는 못살겠네 〔박화춘〕

362 울퉁에 불퉁에 저남산을 보아라
우리두야 죽어지면 저모양이 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어줘요

363 논둑아 밭둑아 날좀 살려다오
육철포[230] 철알이야 콩튀듯 한다 〔박금순〕

364 산천초목에 멀구다래[231] 떨어진것은 꼭지나 있지
요내부모 동기일신 떨어진것은 왜 꼭지도 없어 〔신씨〕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말로 넘어를 가네

365 세월인지야 네월인지야 내가 몰랐더니
뒷동산 향화반촉이 날 속이네

366 오늘갈지야 내일갈지야 모르시는 길에
멘드라미 줄봉사는[232] 왜 심었나

367 장미나 곱다더니 꺾고보니는 가시로다
사랑에 좋다더니 따라다니는 눈물이라 〔최기선〕

368 산천초목에 물가유지도[233] 임자가 있는데
왜나는두 월로생겨서 임자가 없나

369 저건너 묵밭[234]은 작년에도 묵더니

230) 육혈포. 231) 머루와 다래. 232) 줄지어 심은 봉숭아. 233) 물각유주(物各有主). 234) 묵정밭. 경작하지 않고 오래 묵은 밭.

올해도 날과같이 또 묵는다 〔김윤집〕

370 니가 잘나서 일색이드냐
내눈이 어두워서 환장이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371 칠팔월 수숫잎은 철이나알고 흔드는데
우리집 시어머니 철도모르고 흔든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372 열두시에 오라고 우두마께[235] 사중께[236]
일이삼사 몰라서 새로한시에 왔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373 신작로 넓어서 도망가기 좋고
전기불 밝아와 님보기가 좋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정귀순〕

* 박화춘, 여·55. 박금순, 여·57. 신씨, 여·57. 최기선, 남·76. 김윤집, 남·81. 정귀순, 여·57.
* 서석면 청량1리, 생곡2리, 풍암2리, 1986.7.21~22., 1조 및 5조.
* T. 1—21—1, 1—23—1, 1—23—2, 5—15—1

235) 〔일본어〕 우두마께. 손목시계. 236) 사주니까.

66

374 정선읍내 물레방아 공글대[237]는 사시장천없이 물살을 안고선 뱅글뱅글 도는데
우리집에 저영감은 나를안고 못돌아

375 금강산 딱다구리는 생구멍[238]도 잘뚜는데[239]
우리집에 저멍텅구리는 뚫린구멍도 못뚫네

* 송학기, 여·78.
* 내면 자운1리, 1986.1.11., 허남춘 조사.
* T.6—4—1

67

376 못허는 소리를 허라구 하니
가슴이 벌벌떨려서 나 못하겠네

377 오늘갈런지 내일갈런지 세사망정[240]인데
마당가에 물봉숭아[241]는 왜 심어 놓았나 〔김남순〕

378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로구나
열었다 녹아지느니 봄철이로구나 〔김진해〕

379 술은야 술술이 잘넘어나 가고
찬물에 얼음에냉수는 중치[242]만 맨다 〔김복희〕

380 삼남산[243] 저뻐꾸기는 작년에도 울더니

237) 공글대. 롤러(roller). 238) 생구멍. 239) 잘 뚫는데. 240) 세사망정(世事罔定). 241) '줄봉숭아'의 잘못일 듯. 줄지어 심은 봉숭아. 242) 목줄기. 243) '앞남산'의 잘못일 듯.

올해도 그목소리가 변치도 않았네 〔김남순〕

381 삼남산[244] 버꾸기소리는 나듣기는 좋아도
미운시어머니 한숨의소리는 나듣기 싫어 〔이선희〕

382 말못하는 이미도리 〔청취불능〕 요내속을 푸는데
할바레 할바레[245] 남자가 요속을 못푸네 〔김복희〕

383 허공중천에 뜬기러기야 말 물어보자
우리네 죽은무덤이 몇몇이나 되나 〔이선희〕

384 우리집 마당가에 연못이나 있는데
가는주네비[246] 오는주네비 다빠져 죽어라 〔김남순〕

385 우리집 시어머니는 염체두나 좋아
저잘나게 나놓구서 날 데려가나

386 날데려 가거들랑은 볶지나 말지
요리볶고 저리볶우어 콩볶듯 헌다 〔이선희〕

387 곤드레 만드레 쓰러진 골로
우리집 삼동세 나물하러 가세 〔김진해〕

388 무정한 기차야 소리말고 가거라
산란한 요내가슴이 또 산란하다 〔장상수〕

389 너잘났느니 나못났느니 인지[247] 다툼 말어라
양주간의 텁석의부리[248]가 천하일색이란다

390 식은밥 먹기싫은건 개나 주지
임자당신 보기싫은건 백년원수로다 〔이선희〕

---

244) '앞남산'의 잘못일 듯, 245) 활발한(?) 246) 천애비. 중신애비. 247) 人智. 248) 양지화(洋紙貨) 텁석부리. 수염난 사람이 그려 있는 러시아의 지폐.

391 식은밥이야 달달볶아서 간난이아범 주고
간난이하고 나하고는야 또굶어 자자 〔김남순〕

392 삼남산[249] 저뻐꾸기는 왜그리 슬피우나
무남독녀외딸을 잃었는지 구슬피도 운다 〔이선희〕

393 울너메 담너메 울타리가 서있는데
봉당연줄이 연줄연줄에 임 가렸도다 〔장상수〕

394 아우라지[250]야 뱃사공아 배좀 건네줘요
싸리골[251] 알롱박[252]이나 다 썩어나진다 〔김복희〕

395 울타리를야 뚝뚝꺾으면 나오신다더니
행랑채를 뚜디려부셔도 왜 아니나와 〔장상수〕

396 개울가야 파릇파름에 오신다는 님이
백설이 휘날려두야 왜 아니오나 〔이선희〕

397 서산에 지는해는야 지구나싶어 지나
날버리고 가시는님은야 가구나싶어 가나 〔김복희〕

398 머루다래 떨어나진거는 꼭지나 있지
부모형제 정떨어진건 꼭지도 없네 〔김남순〕

399 못먹는 술한잔을야 날권치 말고
후원별당에 잠든큰아기 날권해 줘요

400 저건너 저묵밭[253]은야 작년에도 묵더니
올해도 날과같이로 또 묵는구나

401 술잘먹구야 돈잘쓸적에 금수강산이더니

249) '앞 남산'의 잘못일 듯. 250) 江原道 旌善郡에 있는 나루터. 251) 旌善郡에 있는 마을. 252) 울동백. 253) 묵정밭. 오래된 화전터.

돈떨어지구 술못먹으니 적막강산일세 〔이선희〕

402 공산명월[254]에 비삼십[255]은야 끝수나높아 좋구요
이구십팔 열여덟살은야 나이가젊어 좋아요 〔김남순〕

* 김남순, 여·44. 김진해, 남·49. 자운리 출생. 이장, 김복희, 여·54. 광원리 출생, 이선희, 여·44. 자운리 출생, 장상수, 남·52, 평북 자성 출생.
* 내면 자운1리, 1988.6.22., 전신재 황정산 박형규 김진희 유선영 전창동 최정희 홍석호 박지숙 이숙재 조사.
* T. 4—2—2

68

403 우수나경칩에는 대동강이나 풀리구유
정드신님의 자그네연설에 내속이 풀리네

아리아리랑 쓰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나 자추고 날넘겨주세요

404 신작로 가로수 아카시나 나무
자동차 바람에두나 시단풍 든다

아리랑 아리랑 쓰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는데에
아리랑 고개만 자추고 날넘겨주세요

405 전기줄이여 뗑뗑치거든 임소식 온줄알고요
산신령까마구 짖거든 마지막인줄 알아라

아리아리 쓰리라라링 아라리가 났구나
아리랑 고개 자추고 날넘겨주세요

254) 화투패의 하나. 255) 화투패의 하나.

* 진상목, 남·45.
* 내면 창촌2리, 1988.6.24., 황정산 박형규 홍석호 박지숙 이숙재 조사.
* T. 4—7—1

69

406 곤드레 만드레 쓰러진 골도
우리집 삼동세가 봄나물을 갑시다 〔김수길〕

407 북망산천에 공동묘지에 장산배기[256] 말좀물어보자
임그리워서 죽은무덤이 몇몇이나 되느냐 〔정석암〕

408 저건너 묵밭은 재작년에도 묵더니
올해도 날과같이 또 묵는구나 〔김수길〕

409 울넘에 담넘에 꼴비는 총각
내눈치가 다르거들랑 술받어 먹게

410 받으라는 술잔은 왜 아니받고
내손목을 잡고서 왜 발발떠느냐 〔윤승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났네
아리랑 고개고개를 나는 넘어갑니다 〔김수길〕

411 아우라지야 뱃사공아 배좀 건너주게
싸리골 올동박이야 콩튀듯 한다

412 알쏭달쏭[257]에 우동기새[258]는 밤마두나 비는데
정든님 긴긴팔다리 언제나 비나 〔윤승희〕

256) 장승배기. 257) '알록달록'의 잘못일 듯. 258) '두동베개'의 잘못일 듯. '두동베개'는 신랑 신부 둘이서 함께 베는 긴 베개.

413 청치매[259] 꼬리다 소주병을 달고
오동나무 열두대속으로 님찾으러 갑니다 〔이금녀〕

414 정선읍내야 물레방아는 물을안고 도는데
우리집에 병드신님은 날안고돌줄 모르네 〔김수길〕

415 오늘갈런지 내일갈런지 사사망중[260]인데
울밑에 줄봉숭아는 왜심어놨나 〔신옥자〕

416 오늘갈런지 내일갈런지 사사망중인데
호박줄 박줄은 온지붕을 덮네

417 한짝다리를 살랑거리서 부서연락을 띠우고[261]
고향산천을 돌다보니 눈물이 팽팽 도네

418 까만 화토장이 뭐가그리 좋길래
꽃같은 나를두고서 날밤을 가느냐 〔윤승희〕

419 설악산 꼭대기 비오나마나
어린가장 품안에 잠자나마나 〔김순옥, 김수길〕

420 오대산 꼭대기 외로이나 선나무
날과도 같이도 외로이나 섰구나 〔김순옥〕

421 만나봅시다 만나봅시다 만나나 봅시다
신배나무 구정자 밑으로 만나나 봅시다

422 나물바구니 옆에끼고서 개구장가로 갈거니
낚싯대 줄줄끌고서 뒤만따라 오세요 〔김선녀〕

423 열라는 콩팥은 왜아니 열고

259) 청치마. 260) 세사망정(世事罔定). 261) '한쪽 다리 달롱 들어 부산연락에 얹고'의 와전. '부산연락'은 부산으로 가는 연락선.

아주까리 동백만 조록조록 여네 〔윤승희〕

* 윤승희, 여·63, 김수길, 여·69, 정석암, 남·73, 이금녀, 여·59, 신옥자, 여·58, 강릉출생 23세에 광원리에 시집옴. 김순옥, 여·56, 김선녀, 여·45.
* 내면 광원1리, 1988.6.23., 전신재 황정산 박형규 김진희 유선영 전창동 최정희 홍석호 박지숙 이숙재 조사.
* T. 4—4—1

70

424 만반진수 차려놓고 나를오라면 오겠소
거무같은 너를바래서 나 여기왔네

425 앞남산 철뚝꽃이 울그레 불긋
정든님 얼굴이라 다정도 하네

426 치척은 천리 울타리가 사인데
호박잎이 난들난들해 앞 못보겠구나

427 노랑무 대가리 파뿌리 상투
언제나 질러서야[262] 내낭군 되다

428 〔 〕팔공산 끝수나높아 좋고
이구십팔 열여덟에 나이나젊어 좋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로구나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게

429 청치마 꼬리다가 소주병을 달고
오동나무 숲으로나 님찾아 가세

262) 길러서.

430 봄철인지야 가을철인지 나는 몰랐더니
뒷동산 행화춘절이 나를 어지럽히네

431 앞남산 참매미는 왕거무줄이 원수요
시방시대 청년들은 삼팔선이 원수라

432 높으나 상상봉에 외로이선 저소나무
날과 같이도 외로이 서있구나

* 김춘녀, 여·51.
* 내면 명개리, 1986.1.12., 안순혁 황병로 조사.
* T. 6—5—1

71

433 서산에 지는해는 지고나싶어 지겠소
나를두고 가는님은 가고싶어 가나

434 산천초목이 고와서 내 보러왔겠소
정든님 사시던데라 나 돌아왔노라

435 요놈에 총각아 내손목을 봐라
물같은 요내손목이 영글어진다

436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산대나무[263]야
배디배디야 꺾어가도 꽃만 피네

437 서른한해 도라지꽃은야 바람에나 날리고
날오라는 초목은 허공중천에 떴네

438 간다지 못간다지 얼마나 울었나

263) 산대나무. 山竹.

정거장 마당이 한강수가 되어라

439 기차떠난 철로가에 기차연기만 남아있고
님떠나신 요방안에 담배연기만 남아있네

440 설악산 꼭대기 외로이난 산나물[264]
너도야 날과같이 외로이나 섰느냐

* 김기영, 남·63.
* 내면 명개리, 1986.1.12., 김학근 안순혁 황병로 조사.
* T. 6—4—1

72

441 석세베[265] 도랑치마[266]를 입었을망정
그까지 하이칼라는 내눈알로[267] 돈다

442 총각낭군이 떠다주시던 오복수[268] 댕기
곤때[269]도 아니홀러서 중신애비 드네

443 술집에 갈적에는 술먹자고 가나
술집여자 손목잡고 까시[270]하러 가네

444 멀구다래 떨어진것은 꼭지나 있지
부모동생 떨어진것은 꼭지도 없네

445 무지공산[271]에 불붙은것은 만인간이나 꺼주지
이내가슴 불붙은것은 어느누가 꺼주나

446 오동나무야 가동나무야 열렁이나[272] 자라라

264) '외로이나 선 나무'의 잘못일 듯. 265) 굵고 거친 베. 266) 무릎까지 오는 치마. 267) 나의 눈 아래로. 268) 五福壽. 269) 고운 때깔. 270) [일본어]'히야까시'의 俗語. 조롱. 271) 무주공산(無主空山). 272) 얼른.

우리딸 시집갈적에 오동장농 해주자

447 니잘났느니 내잘났느니 인계탓[273]을 말아라
양기와 삼턱구리[274]가 제잘난것만 알어라

448 노랑저고리 분홍치마를 입고싶어 입었나
엄마아버지 말한마디가어려워서[275] 내가 입었습니다

449 국화도 한철에 매화도 한철
우리야 삼십이 한철이지

450 남의집 남편은 운전수를 하는데
우리집 남편은 쳇바쿠운전도 못하네

451 산차지 물차지는 나랏님의 차진데
전도의 홀애비차지는 내 차지라네

452 내딸죽고 내사위야 울고갈길을 너왜왔나
이왕지사 왔거나들랑 발치잠[276]이라도 자고가세

453 적어도 대장분데 발치잠으로 어이자리
〔 〕

454 태기산[277] 꼭대기 외로이나 선낭구[278]
날과같이 외롭게도 한세상 섰구나

455 주문집 앞바다에는 미역이 팔락팔락
정든님 팔목에는 금시계가 반짝반짝

456 우리야 연애는 솔방울의 연앤데
바람만 불었다하면 뚝 떨어지네

273) 인지(人智)탓. 274) 양지화(洋紙貨) 덤석부리. 수염난 사람이 그려 있는 러시아의 지폐. 275) 두려워서. 무서워서. 276)남의 발치에서 자는 잠. 277) 泰岐山. 江原道 橫城郡 甲川面에 있는 산. 278) 서 있는 나무.

457 시집살이를 못해도 가라면 가지
양골년[279] 그리워서는 나는 못살어

* 김연옥, 여·50.
* 내면 명개리, 1986.1.12., 강동규 조남혁 정성화 조사.
* T. 6—4—2

73

458 그믐달 술[280]이 술술이 잘넘어가고
찬물에 얼음넹수가 중치[281]가 메이네

459 무정한 기차야 소리없이 달려라
아니나면 고향생각이 저절로 나네

460 바람이 불어서 쓰러진 낭구
눈비가 온다고서나 일어설소냐

461 우리야 연애는 솔방울의 연앤데
바람만 불었다하면 뚝 떨어지네

* 이 순, 여·58.
* 내면 명개리, 1986.1.12., 강동규 정성화 조남혁 조사.
* T. 6—4—2

74

462 산이높아야 골도가 깊어지지
조그만 여자속이 깊을수가 있나요

279) 양궐련. 280) 그믐에 빚은 술. 281) 목줄기.

463 꿀비라[282] 가는데로 술갈로 이도야[283]
진골목 자린골목 임찾어만 가드라

464 우리가 살라면 몇백년만 살거냐
한오백년 제쳐놓고 술밥아 먹어라

465 니잘났다 내잘났다 신간[284]을 말고서
두손목 마주잡고 사진관을 갑시다

466 시들시들 봄배차는 봄비올때만 기다리고
야들야들 호박잎은 찬이슬올때만 기다린다

467 앞산아 뒷산아 왜 무너졌나
신작로 될라고 무너졌다

468 신작로 복판에 화야[285]가 놀고
화야 복판에 운전수 논다

469 운전수 무르팍에 기생이 놀고
기생의 손목에는 금시계가 논다

470 세월아 네월아 청춘가만 돌려라
우리 청춘 청춘가를 돌려라

471 우리가 살며는 몇백년을 살거냐
한오백년 접쳐놓고[286] 놀아봅시다

472 소나무속이 썩어서 남이 아나
요내가슴 타는심정은 누구에게다 원망하리

473 난첩산경 고드름은 봄바람이 풀어내고

282) 꿀 베러. 283) 이고서(?) 284) 다툼. 285) 하이어(hire). 專賃乘用車.
286) 접어두고. 제쳐놓고.

연애가서 더러심정 어느누가 풀어내나

474 산중나무 실만한거는[287] 점포대[288]로 다나가고
인간의 쓸만한 사람은 군인하러 가는구나

475 강냉이밥 하설치기는[289] 오르락바짝 끓는데
어딜로 가신다고야 옷갓[290]을 하고 나서요

476 해가지고 저문날에 옷갓을하고 어디가오
저객길에 가실라거든 나죽는꼴을 보고가소

477 생긴돌이 돌같으면[291] 지구를 못사오리
한강물이 술같으면 어느 친구를 못하리요

* 김덕주, 여·48.
* 내면 명개리, 1986.1.12., 김학근·황병로 안순혁 조사.
* T. 6—5—1

어랑 타령

1

일본동경 갈맘은 연락에선으로 하나고
시집살이 할맘은 도토리꺽제로[1] 하나라
어랑어랑 어으야 어으야디어라 내사령아[2]

너는두 날보면 본척에만척을 하여두
나는두 널보면 외로와반가워떠으라[3]

287) 쓸 만한 것은. 288) 전봇대. 289) 사절치기. 옥수수를 네쪽이 나도록 들들 갈아서 지은 밥. 290) 衣冠. 291) 돈만 같으면.
1) 도토리 깍지. 2) 내 사랑아. 3) 외로와서 반가왔더라.

어랑어랑 어으야 어으야디어라 내사령아

* 이원연, 남·54. 서면 팔봉리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 학교 교육을 받은 일이 없음.
* 서면 팔봉1리, 1987.7.7., 송동찬 김숙영 엄병화 유재선 조사.
* T. 2—12—1

2

뜬지는 석달열흘이 되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종무소식이구라
어랑어랑 어랑 어랑간다
술넘어간다 사랑가로만 놉시다

건너산에 다래덩쿨은 얼그러설스러졌는데
내낭군 내맘은 언제나 그렇구느냐
어랑어랑 어랑 어랑간다
술넘어간다 사랑가로만 놉시다

* 정백석, 남·68. 서면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
* 서면 굴업리, 1987.7.9., 송동찬 김숙영 엄병화 류재선 조사.
* T. 2—16—2

3

어랑타령의 본고향은 함경도허구두 원성[4]일세
이사시까[5] 본고향은 경산[6]읍이로구나

4) 원산(元山)의 잘못. 함경남도에 있는 도시. 5) 히사시가미 〔일본어〕. 일제시대 신여성의 머리 모양(hair style). 6) 경성(京城)의 잘못. 지금의 서울의 일제시대 명칭.

체다보니[7] 소라반자[8] 내려다보니 각자장판[9]
원앙금침 잔모베갠[10] 제낙마다[11] 비었건만
부모님의 겡긴팔은[12] 은제한번 비어봤나

보고도 못먹는복숭아 평풍에그린 복숭아
정들여놓고 못사는건 외롱아 친정이라네

아부지마중을 갈까 어머니마중을 갈까
어예라고만두구 동대문을열구선 하이깔라[13]서방님마중을 왔누나

국화꽃이 곱다해두 춘추야당절인데
내얼굴이 곱다헌들 열칠팔세로구나

여자는 천하일색이래두 남자품안에 놀구요
고무신바댁이 곱다해두 만인간발바닥밑으로 돈다네

강릉오대산 곱게 자라던 박달나무
홍두깨 방매이[14] 깩이네

홍두깨 방메이 팔자가 좋아
큰애기[15] 손질루[16] 놀아나구

문경새재 굽은낭근[17] 〔 〕
도랑유강지[18] 조롱싸린 곶감꽂이루 풀리네

뒷동산의 줄밤낭근[19] 신주깩이루 풀리구
〔 〕

은행나무는 잘자라믄 만인간 삼신대루만 풀리구

---

7) 쳐다보니. 8) 소란(小欄) 반자. 9) 각장(角壯) 장판. 10) 잣모베개는. '잣모베개'는 비단을 잣모양으로 만들어 마구리를 꾸민 베개. 잣베개라고도 함. 11) 저녁마다. 12) 긴 긴 팔은(?) 13) 하이 칼라(high collar). 14) 방망이로. 15) 큰아기: 처녀. 16) 손걸로. 17) 굽은 나무는. 18) 도랑의 언저리. 19) 줄지어선 밤나무는.

옻나무는 잘자라믄 북망산천 가시는님 홍두깨이루 풀리구[20]

* 심옥근, 여·83.
* 북방면 구만리, 1987.7.7., 엄기주 유은영 조옥희 김성욱 장기영 최광현 이연순 조사.
* T. 5—2—1

4

이번재판에 끝이안나면 만국재판엘 가두
내말한마디 잘하면 너허구나하구 산단다
어랑어랑 어허야 어럼마디여라 내사령아[21] 〔이〕

가을바람이 소스라지고[22] 낙엽이 우수수지구요
귀뚜라미 슬피울어 남은간장을 다녹인다
어랑어랑 어허야 어럼마디여라 내사령아 〔이〕

구부러진 오동나무는 바람에 건들거리고
허공중에전[23] 뜬달은 하회를[24] 비쳐준다
어랑어랑 어허야 어럼마디여라 내사령아 〔이〕

담배담배 할적에 홍아나한갑 사주껄[25]
죽어 저승에가서두 담배담배 헌다지
어랑어랑 어허야 어라함마디여라
요것도 몽타게[26] 내사령 〔지〕

시집살일 못허구 친정에살이를 헐망정
술담배 아니먹구 나는 못살겠구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라함마디여라

20) 풀리네. 21) 내 사랑아. 22) 소슬(蕭瑟)하니. 23) 허공 중천. 24) 사해를. 25) 사 줄 것을. 26) 몽땅에.

요것도 몽타게 내사령 〔지〕

신고산[27]이 우르릉 화물차 떠나는소리
고무공장 큰아기 벤또[28]밥만 싸누나[29]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더야 내사령아 〔이〕

* 이기순, 여·54. 지옥순, 여·62.
* 북방면 북방2리, 1987.7., 전신재 김진희 정금란 홍호석 안선희 강하구 권준길 최용현 조사.
* T. 6—3—1

5

우리가 살면은 한오백년을 사느냐
살어서나 한백년 마음놓구서 놀잔다
어랑어랑 어허야 어러룸마둥기디여라
요것이 낭사로구나

갈미봉 중턱에나 비 오나마나
작은잔으루 술먹으면은 먹은둥 만둥

* 전석일, 남·63.
* 북방면 성동2리, 1987.7.9., 김진희 강하구 정금란 최용현 조사.
* T. 6—6—1

6

시집살이를 못하이면은 못했지

27) 新高山. 咸鏡南道에 있는 마을 이름. 京元線의 한 정거장. 철로가 놓이면서 새로 생긴 마을임. 원래의 高山 즉 舊高山은 이곳에서 2㎞ 떨어져 있음. 28) 〔일본어〕 도시락. 29) 이 노래의 일반적인 가사는 다음과 같음. 신고산이 우르르 함흥차 떠나는 소리에/구고산 큰아기 반봇짐만 싸누나.

술담배 아니먹군 아이구나 나는못살겠구나

친정살이를 못하이면 들병장사루 나가지
술담배 안먹고 아이구나 나는못살어
어랑어랑 어허야 어랑덩바람에 다팔아먹고
백수야 건달이 남었네

* 이천옥, 여·63.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엄기주 조옥희 장기영 최광현 조사.
* T. 5—6—1

7

이삼사월 긴긴해에 즘슴을[30] 굶으란[31] 굶었지
동지선달 긴긴밤에 홀애비잠을 잘소냐
어야디야 어허야 어허야디허야 몽땅 내사령아

* 박경애, 여·65.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이종철 엄기주 유은영 이연순 조사.
* T. 5—10—2

8

사랑타령을 잘허기는 맏동세잡년이 잘하구
자진난봉가 잘허기는 시누에잡년이 잘하더라
어랑어랑 어야 어허야뎨야 내사랑아

사랑이 가시구서 정든님마저 뚝떠나가니깐
쓸쓸한 요세상을 누구를믿고서 사는가
어랑어랑 어야 어허야뎨야 내사랑아

30) 점심을. 31) 굶으라면.

* 강대성, 남·65.
* 남면 유치2리, 1987.7.7., 정덕준 김성수 정은정 곽노실 정명수 성길제 조사.
* T. 4—3—2

[9]

신고산[32]이 우루루루 함흥차[33] 떠나는소리
구고산[34] 큰아기 벤또[35]밥만 싼다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난다디어라
내가더 사랑간다

시울이[36] 가면은 네나혼자 가지
병들은 우리님은 왜데리구서 갔느냐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난다디어라
모두 내사랑간다

너살기 싫거든 민족에등번을[37] 갈려라
사자는[38] 낭군이 자갯돌밀리듯 한다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난다디어라
내가더 사랑간다

새벽에 동자[39]를 하라면 바가지쌈만 붙이고
우물길을 가라리 웅덩에딴스만[40] 하누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난다디어라
내가 사랑간다

네고치발한뙈기를 매라면 제가못매는 저잡년

32) 新高山. 咸南에 있는 마을 이름. 京元線의 한 정거장. 33) 咸興車. 함흥행 열차. 34) 舊高山. 新高山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던 마을. 新高山에서 약 2㎞ 떨어져 있음. 35) 〔일본어〕 도시락. 36) 세월이. 37) 민적등본. 호적등본. 38) 살자는. 39) 밥 짓는일. 부엌일. 40) 엉덩이춤만.

이마눈썹을 매라니 여덟팔자로 매누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난다디어라
몽땅 내사랑아

* 안중혁, 남·77.
* 화촌면 굴운리, 1988.6.24., 엄기주 오애리 성길제 이용인 조사.
* T. 1—14—1

10

참나무장작이 두동강 세동강 나여도
말한마디만 잘하면 기어코 살고야마는구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라엄마둥기디여라
요것이 몽땅 내사랑이로다

하이칼라 상구머린 찌꾸[41]가 달달굴구
오복수에나 덧저고린 부룬만 딸딸구는구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라엄마둥기디어라
사랑가 하나로 놀아보세

사령사령이[42] 가구서 임이나 망종가는데
요세상 한백년을 누구를믿구서 사느냐
어랑어랑 어허야 어라엄마둥기디어라
사랑가 하나로 놀아보세

산천이 푸르러서 가시던 님은
낙엽이 흩날려두 왜이아니 오시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라엄마둥기디어라
사랑가 하나로 놀려라

41) 지꾸. 머리에 바르는 기름의 한 가지. 42) 사랑이.

공작산[43]꼭대기 뜬구름은 비가[44]주자구 떴지만
신작로복판에 뜬 큰아긴 누구를주자구 떴느냐
어랑어랑 어허야 어라염마둥거디어라
사랑가 하나로 놀아보세

* 최의호, 남·58.
* 화촌면 내삼포리, 1988. 6.24., 엄기주 오애리 성길제 이용인 박미연 조사.
* T. 1—12—1

II

내사령을[45] 두었다가 허튼애정칠년[46] 주고
죽여라 살려라 통사정만 하누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디야
이것이 내사령 아닌가 〔안〕

오는새야 가는새는 요덤불저덤불 놀고
오는님 가는님 술상머리서 놉시다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디야 내사령아 〔안〕

시집간지 삼일만에 부뚜막장단을 쳤더니
시아범잡놈이 엉덩이춤만을 추는구나
어야디야 이것도 내사령인가 〔이〕

느실느실 딴머리 잘잘우네나 저처녀
연분이나 있거든 내뒤를설설 따려라
허랑간다 디여라 내사령만두 가는구나 〔이〕

43) 孔雀山. 東面 魯川里와 化村面 君業里 경계에 있는 산. 44) '비나'의 잘못인 듯. 45) 내 사랑을. 46) 몸가짐이 헤픈, 경칠년.

청진다리가 두둥실 육칠월장마에 두둥실
산골이라 큰아기내 바람에도 두둥실
허랑간다 디여라 내사령만두 가는구나 〔이〕

치경치경 하길래 무신치경인가 했더니
천지깔보 꽁지아래 죽을치경이 났구나
허랑간다 디여라 내사령만두 가는구나 〔이〕

* 안완규, 남·67. 이관기, 남·60.
* 화촌면 장평1리 윗솔치, 1988.6.23., 정덕준 강성관 윤혜경 유진수 김효경 조사.
* T. 1—3—1

12

청진나랑[47]을 갈라면 돈이나 부적이 되구요
남의인물 볼라면 인물이 부적이 된다네
어랑어랑 어허야 어랑아둥기둥 안구지구 노잔다

* 홍현택, 남·56.
* 두촌면 장남리 남덕골, 1986.7.22., 김성수 유은영 이대근 전계진 조사.
* T. 2—1—1

13

독수리 나뜨자 병아리간곳이 없구요
무정한기차 떠나자 정든님간곳이 없구나
어랑어랑 어야 어엄마디여라 내사랑아

가을바람 찬바람에 낙엽이 우수수지고요

47) 청진 나남(淸津 羅南).

뒷뜰에귀뚜라미 울을제 에루화 남은간장이 다녹아나는구나
어랑어랑 어야 어엄마디어라 내사랑아

기울어진 노송남군[48] 바람에 간들거리고
허공중천에 뜬달은 가을을 비춰주노라
어랑어랑 어야 어엄마디어라 내사랑아

산수야갑산에[49] 멀구다래나[50] 날그러살그러졌는데[51]
나는 언제나 님을만나서 얼그라살그라지느냐
어랑어랑 어야 어엄마디어라 내사랑아

* 이필옥, 여·70.
* 두춘면 철정리 지다치, 1986.7.22., 강동규 이도형 조옥희 최광현 조사.
* T. 2—9—2

14

술은도야 술술술 잘넘어 가고요
찾는냉수는 여든에 중치만 쿡쿡이누나[52]
어랑어랑 어어야 어라면얼싸

십원짜리가 없으면 오원의두장도 좋고
술집에주모가 없으면 주모님딸도 괜찮아
어랑어랑 어어야 어여디야 안고지고나 놀아봅시다

서울 아가씬 말씨가고와서 좋고요
함경도나 여자는 키나도커서 좋아요
어랑어랑 어어야 어여디야 장차두고나 봅시다

우리나리 더벅머리 노랑무 대가리

48) 老松 나무는. 49) 삼수갑산(三水甲山)에. 50) 머루 다래는. 51) 얼크러설크러졌는데. 52) '찬물에 얼음에 냉수는 중치만 쿡쿡 메어요'의 와전.

더벅머리 언제나길러서 내낭군 삼나

개울개울에 빨래질소리는 천지를 진동하고요
음지양지에 비둘기소리는 일천간장이 녹는다
어랑어랑 어허야

〔노랑무〕 곱게나길러서 뽑아나먹자고 길렀지
우리부모는 날곱게길러서 남주자고나 길렀나
어랑어랑 어허야

머루다래는 양노충에서 놀구요
반달같은 이내몸은 술상말상[53] 논다네
어랑어랑 어허야디야 내사랑이로구나

삼신산 불로초가 따루나 있나
우리네 요내인생이 속안썩으면 불로초지

* 이재복, 남·73. 박수남, 여·52. 이춘자, 여. 박귀자, 여.
* 서석면 검산리·풍암리·청량리, 1986.7.21~22., 허남춘 이홍식 문재우 김제훈 김명숙 오애리 박 찬 현홍철 김방경 곽노철 조사.
* T. 1—12—1, 5—12—1, 1—23—1

15

고추밭을 매라니 용주발송주발 하구요
연내눈썹을[54] 매라니 여든에[55]팔자를 매누나
에헤야 어여라난다 디여라 허송세월을 말어라

고무신바닥이 고와두 발바닥밑으로 돌구요
요내일신이 잘나도 남자품으로 돕니다

53) 술상머리에서(?) 54) 이마의 눈썹을(?) 55) 여덟.

어야더야 어어야 어허더야 덩게리어라 내가 등사령가로되

* 진상목, 남·45, 자운리 출생, 창촌리에서 식당업. 무학.
* 내면 창촌2리, 1988.6.24., 황정산 박형규 홍석호 박지숙 이숙재 조사.
* T. 4—7—1

16

산수갑산 드렁칡은 얼크러설크러졌는데
나하구 너하구 언제나 얼크러설크러지느냐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디허라 내사랑이여 〔이금녀〕

산수갑산 머루다래는 얼크러설크러졌는데
나는 언제 님을만나 얼크러설크러지느냐 〔윤승희〕

색시야색시야 할적에 총각원이나 풀것을
남의문중에 들어서니 헐수야헐수야 없구나 〔김선녀〕

을수[56]야내면에 갈보는 토막집속에서 놀고요
강릉읍에야 갈보는 설지상속에서 논다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엄마 디어라 요것도 몽땅 내사랑 〔김선녀〕

* 이금녀, 여·59, 광원리 출생, 윤승희, 여·63. 충북 제천 출생, 15년전에 이주; 김선녀, 여·45, 국졸. 부녀회장.
* 내면 광원1리, 1988.6.23., 전신재 황정산 박형규 김진희 유선영 전창동 최정희 홍석호 박지숙 이숙재 조사.
* T.4—4—2

56) 내면 평개리에 있는 마을 이름.

창부 타령

1

얼씨구 얼씨구 좋구나 절씨구 아니야 노지는 못하리라
해는지고 저문날에 어디를갈라고 옷갓[1]이요
첩의방에 가실라요 나의방에 가실라요
첩의방에 가실라거든 내젊은거동을 보고가소
첩의방은 꽃밭이요 나의방은 연못이라
꽃밭의나비는 한철이라도 연못의금붕어는 사시장창[2]
얼씨구 좋다 절씨구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어허둥둥 내사랑아 어허둥둥 내사랑아

* 박화춘, 여·55.
* 서석면 생곡2리, 1986.7.22., 이필용 전희숙 조형연 김동하 조사.
* T. 5—15—2

2

해는지고 저문날에 서방이 나를두고서 어두로[3]가시오
첩의집이[4] 가시려거덩 나죽는꼴을 보고서가소
첩의집은 연못가의꽃밭이고 나의집은 연못의금붕어요[5]
연못의금붕어는 사시장천[6]이고 꽃밭의국화는[7] 봄한철인데
임자당신은 나를두고서 첩의집이를 왜가실려고 하시오

1) 衣冠. 2) 사시장청(四時長青). 3) 어디로. 4) 첩의 집에. 5) '연못이라'의 착각. 6) 사시장청(四時長青). 7) '꽃밭의 나비는'의 착각

* 이옥희, 여·65.
* 동면 개운리, 1988.6.23., 이동수 한호순 박승립 조사.
* T. 3—17—1

3

해는지고 저무신날에 꽃갓[8]을하고 어델가오
꽃갓하고 가는걸보면 첩의집엘 가는기요
첩의집엘 가실라거든 나죽는꼴을 보고가오
첩의집은 꽃밭이요 나의집은 연못이라
꽃과나비는 봄한철이요 연못의붕어는 사시사철

* 신옥순, 여·49.
* 동면 개운리, 1988.6.23., 허남춘 이동수 한호순 박삼희 박승립 조사.
* T. 3—15—1

4

해는다지고 저무신날에 의관을하고서 어디를가오
첩의집에 가실테거든 나죽는꼴을 보고가오
첩의집에는 꽃밭이고 나의집에는 연못이다
꽃과나비는 봄한철이요 연못에금붕어는 사시장철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노지는 못허리라

* 정순선, 여·65.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이종철 업기주 유은영 이연순 조사.
* T. 5—10—1

8) '옷갓'의 잘못. 衣冠.

5

해는지고 저문날에 옷갓을허고 어디를가오
첩에집은 꽃밭이며 나여집은네[9] 연못이나
꽃과나비는 한철인데 연못에금붕어는 사시사철

* 이필영, 여·60.
* 서면 팔봉1리, 1987.7.7., 송동찬 엄병화 김숙영 류재선 조사.
* T. 2—11—2

6

오늘해는 다갔는데 골골마다 연기만난다
해는지고 저문날에 꽃같은 어린가슴
첩의집은 꽃밭이요 요내집은 연못이라

* 김의수, 남·76.
* 서면 모곡4리, 1987.7.7., 이필용 김미영 이미한 현홍철 조사.
* T. 1—3—1

7

해다지고 저문날에 옷갓하고 어디가나
첩의집이 가랴거든 나죽는것 보고가게
첩의집은 꽃밭이요 이내집은 연못이라
꽃본나비[10] 한철이요 연못붕어는 사철이라오

* 남궁 수, 남·78.

9) 나의 집은. 10) '꽃밭의 나비'의 착각.

* 서면 모곡2리, 1987.7.8., 오춘택 이필용 신정복 이동수 현홍철 조사.
* T. 1—1—2

[8]

이리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나를싫다고 나를마다고 나를박차고 가시더니
어느시절에 날찾아오나 어느달이나 나를찾나
가마솥에 푹삶은개가 커겅컹짖으면 나를찾나
끓는물에 뒤흔[11]닭이 활개를치면은 나를찾나
병풍에 그린환계[12] 꼬꼬닥울며는 나를찾나
부뚜막에 삶은팥이 싹이트며는 나를찾나
기다리다 못허여서나 잠시잠간 들었더니
새벽서리나찬바람에 울고가는저기저기가 깊이든잠을 다시깼네
얼씨구 좋아 지화자 좋네 아니노지는 못허리라

* 장정숙, 여·63. 5년전에 서울에서 홍천군 서면으로 이주.
* 서면 모곡리, 1987.7.7., 김미영 이필용 이미한 현홍철 조사.
* T. 1—3—1

[9]

사천이백칠십팔년에 조선에 해방이 되었구나
연락선에다 몸을실고[13] 고향땅을 건너서니
거리거리에 만세소리요 문전문전이 태극기라
남의낭군은 다오셨는데 우리나임은두 아니와요
원자폭탄을 맞으셨나 미국에 유학을가시었나

11) 데친. 12) 황계(黃鷄). 13) 싣고.

논산읍에 은진미륵[14]이 걸음을걸으면 오실까요
여주벽절[15] 금부처가 말문이열리면 오실까요
가마솥에 푹삶은개가 캉캉짖으면 오실까요
동산에다 썩은밤묻고 싹시[16]트이면은 오실까요
얼씨구나 좋네 지화자자 좋소 아니놀구선 무엇하리

* 최의호, 남·58, 양구에서 출생, 11세에 화촌면으로 이주.
* 화촌면 내삼포리, 1988.6.24., 엄기주 오애리 성길제 이용인 박미연 조사.
* T. 1—11—2

10

한냥을주고 사오신댕기 두냥을주고 사온댕기
성안에서 그네를뛰다 성밖으로 잊은댕기
열다섯살의 도련님아 내댕기를찾거든 말해주오
영글렀네 영글렀어 내댕기찾기는 영글렀어
열두자락 병풍을치고 여섯폭에 초말[17]입고
너와나와 마주나서서 절할때가되며는 말해줄까
영글렀네 또글렀어 내댕기찾기는 영글렀어
여주벽절[18]금부처 말문이열리면 오실라나
영글렀네 영글렀어 내댕기찾기는 영글렀어
부뚜막에 삶은팥이 싹이트면 오실라나
영글렀네 또글렀어 우리님만나긴 영글렀어
평풍[19]안에 황계나수탉 두날개치며는 오실라나
영글렀네 또글렀어 우리님만나긴 영글렀어

14) 忠南 論山郡 恩津面 灌燭寺에 있는 石造 미륵보살의 立像. 높이 24.5m.
15) 京畿道 驪州에 있는 神勒寺. 벽돌로 쌓은 탑〔塼塔〕이 있음. 16) 싹이.
17) 치마를. 18) 京畿道 驪州에 있는 神勒寺. 벽돌로 쌓은 탑〔塼塔〕이 있음.
19) 병풍.

* 신옥순, 여·49.
* 동면 개운리, 1988.6.23., 허남춘 이동수 한호순 박삼희 박승림 조사.
* T. 3—15—1

[11]

단기사이칠팔년에 해방의 종소리 들려온다
연락선에 몸을싣고 부산항구를 바라보니
집집마다 태극기요 골골마다 만세소리
남의집님은 다오시는데 우리님은 왜안오나
가셨던길을 잊으셨나 원갑탄[20]에 맞으셨나
솥안에 삶은개가 커겅컹짖으면 오실려나
부뚜막에 흰도발이 줄거드면 오실라나
뒷동산 고무남괴[21] 잎이피면은 오실라나
어린애기 아버지찾아 동네삼장을 다누빈다

아니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황해도라 구월산밑에 〔 〕저처녀야
너의집이 어디메길래 해가져도 아니가나
나의집은 저산너머 초가삼간이 내집이요
맘에있거든 날따라오고 맘에없거든 고만두게
놀다가면은 졸장부요 자다가면은 대장부네
이네 리리리리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일월이라 솟은 내마음
이월 매조에 들여놓고
삼월 사꾸라 산란한 마음

20) 원자탄. 21) 고목나무.

사월 흑싸리 걷어놓고
오월 난초 놀던 나비가
유월 목단에 날아든다
칠월 봉개지[22] 홀로누워
팔월 공산을 바라보니
구월 구중[23] 굳은 절개가
시월 단풍에 다 떨어졌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 이선희, 여·44, 자운리 출생.
* 내면 자운1리, 1988. 6.22., 전신재 황정산 김진희 유선영 전창동 박형규 최정희 조사.
* T. 4—2—2

12

정월이라 대보름은 답교가는 명절일세
이월이라 한식날은 개자추의 넋이로다
삼월이라 삼진날은 제비엣집 찾아오구
상공하늘 뜬기러기 엣집찾아 오건마는
우리님은 어데갔기 답교갈줄 왜모르나
온양온천 따뜻한물이 살얼음지거든 오시려나
여주벽절 금부처가 말문이나열리면 오시려나
살방밑에 썩은팔이 싹이나나면 오시려나
병풍에그린 황계수탉이 두나래를 툭툭치며 꼬꼬꼬 울거든 오시려나
가마솥에 푹삶은개가 두다리를 턱걸치고 커경컹 짖으면 오시려나
뒷동산에 묻은군밤이 싹이나나면 오시려나

22) 홍돼지. 23) 국화.

불에타 망가진 저자동차가 발동이나 걸리게 되면 그차를 타구서나 오실레나

우리님은 어데갔기 답교갈줄 왜모르나
북망산천 찾아가서 무덤안고 통곡하니
오셨느냐 말도없고
무정하고 야속하다 정드신님 무정하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놀진 못하리라
엣날엣적 진시황은 만리장성 하였건만
우리같은 초로인생 평생에 요밖에 모르는가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놀진 못하리라

* 강신표, 남·55.
* 화촌면 야시대2리, 1987.2.11., 전신재 강동규 조남혁 조사.
* T. 1—18—2

13

아니 아니놀지는 못허리라
신구명산만장봉[24]에 바람이나분다구 쓰러지며
성죽[25]같이 굳은절개를 매맞는다구나 허락허랴
몸은비록 허리길망정[26] 절개조차 없을소냐
얼씨구좋다 지화자좋네 요렇게좋다간 땅팔겠다

* 이필영, 여·60.
* 서면 팔봉1리, 1987.7.7., 송동찬 엄병화 김숙영 류재선 조사.
* T. 2—11—2

24) 진국명산 만장봉(鎭國名山萬丈峯). 25) 송죽(松竹). 26) 화류계(花柳界) 일망정.

14

신구명산[27] 만장봉에야
바람불어 씨러진낭기[28] 눈비온다고 일어날까
송죽같이 굳은절개는 매때린다고 허락하랴
몸은비록 화류곌망정 절개조차도 없을소냐
얼씨구좋다 지화자좋네 아니놀지는 못하리로다

* 정순선, 여·65.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이종철 엄기주 유은영 이연순 조사.
* T. 5—10—1

15

진구명산[29] 만장봉에
바람이불어 씨러진낭구[30] 눈비가오면 일어나며
송죽같이 굳은절개 매맞는다구 허락하랴
몸을버려 기생일망정 절개조차 없을소냐
얼씨구절씨구 지화자가좋을씨구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 윤을순, 여·68.
* 동면 삼현리, 1988.6.23., 이필용 김경원 류재선 방은영 조사.
* T. 3—1—2

16

백구야 꺼정청 날지를마라 너를안잡을[31] 내아니다

27) 진국명산. 28) 쓰러진 나무. 29) 진국명산. 30) 쓰러진 나무.
31) '너를 잡을'의 잘못.

승산이 바를새[32] 당신을좇아서 여기 왔네
나물을먹고 물을마시고 팔을비구서[33]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가 이만허면은 만족하네
얼씨구나좋구나 지화자자좋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 정재열, 여·68.
* 서면 모곡리, 1987.7.7., 김미영 이필용 이미한 현홍철 조사.
* T. 1—3—1

17

백구야 껑충 뛰지를마라 너를잡으면 내아니냐[34]
성성리 가려쓰네[35] 너를두나좇아서 요리 왔나[36]
나물먹구 물마시고 여들을비구서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는 요만이나하면은 만족허지
일천간장 나질썰어 부모님의생각이 절로난다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어찌나 좋은지를 모르겠네

임은가고 봄은왔는데 꽃만피어도 임어생각[37]
일월이허구 한수세컨에 강물만불어도 임의생각
구시월 시단풍에 낙엽만날려도 임어생각
동지섣달 설한풍에 백설만날려도 임어생각
앉았으니 임이오나 누웠으니 잠이오나
등잔불은 임을닮구요 담배불은 서글픈다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어찌나 좋은지를 모르겠네

* 이필영, 여·60.
* 서면 팔봉1리, 1987.7.7., 송동찬 엄병화 김숙영 류재선 조사.
* T. 2—11—2

32) '성상(聖上)이 바리시니'의 와전. 33) 베고. 34) '너 잡을 내 아니다'의 와전. 35) '성상이 바리시니'의 와전. 36) '왔다'의 뜻. 37) 임의 생각.

18

얼씨구 에 절씨구 아니살구 어찌나허랴
추풍화류 꽃나시에 울고갔던 저두견아
허다공산은 어디다두고 남의집문전에 왜와울어
아닌밤중이면 네울음소래 억지루들었던잠 절루나깬다
얼씨구나 이 지화자좋구려 거드럭거들 살아나볼까

어둠침침 임박허니 외로이도 불러서와
밤은 처처야심헌데 신부로와서 잠못자고
몸부림에 시달리어 꼬꼬닭은 울었으니
오날도 뜬눈으로 새벽맞이를 허였구나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아니노지는 못하리라

* 박철균, 남·67.
* 북방면 구만리, 1987.7.7., 이종철 엄기주 유은영 조옥희 김성욱 장기영 최광현 이연순 조사.
* T. 5—4—1

19

하늘같은 서방님네 태산같은 병이들어
초마[38]를 팔아 빙아[39]를 팔아
〔 〕지어다가 청로화루[40]에 묻어를 놓고
원순년[41]의 잠이들어 서방님죽난줄[42] 몰랐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자가 좋아
금강산이나 꼬깔쓰고 갑니다 나는가요

38) 치마. 39) 비녀. 40) 청동화로. 41) 원수년. 42) 죽는 줄.

천리라두 따러가고 만리라두 따러가요
당신없는 요세상에 누구를믿고서 산단말가
임떠나간 내가슴에 원망과고통만 냉겨두고
기차떠난 철로가에 검은연기만 남어있고
배떠나간 부둣가엔 파도와물결만 남어있네
얼씨구나 좋구나 정말루 좋아
금강산중놈은 고깔을쓰고 낙산중놈은 송낙쓰고
우리야농부는 맥고물[43]쓰고 번들거리구서 놀아보자

* 전옥련, 여·62.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엄기주 유은영 이연순 조사.
* T. 5—10—1

20

어화 얼씨구 절씨구 지화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오 아니 놀구두 못하리라
사랑사랑 사랑이라니 사랑이라는게 무엇인가
알다가두 모른사랑 있다가두 속는사랑
오목조목에 핥은사랑 왈칵달칵 쌓은 사랑
이내간장을 다녹이고 지긋지긋이 앳된사랑
이사랑 저사랑 다 고만두고
아무도몰래 단둘이만나 소근소근 엮은사랑
이내간장에 주었드니 여기처년 아니노네
얼씨구야 절씨구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문복환, 남·59.
* 남면 명동리, 1987.7.8., 이홍식 김승혜 전계진 김석주 조사.

43) 맥고모자를.

* T. 3—3—2
* 구연자는 '장구타령'중 '사랑가'라고 하였다.

21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인생이라 늙어를지면 오던내님두 아니오고
나모라고 고목이되이면 눈먼새두나 아니온다
꽃이라고 낙화가되면 오던나비이도 아니오네
비단옷도 떨어나지면 물걸레루만 돌아간다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허겠네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개야개야 검둥개야 찬밥에 누룽지 뒀다줄라
영감에잡놈이 오시거들랑 컹커경컹 물어짖고
총각에낭군이 오시거들랑 꼬리만툭툭 치려무나
얼씨구절씨구 기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간다간다 나는간다 너를두고서 나는간다
네가가면 아주를가나 아주간들에 잊을소냐
얼씨구나 기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겠네

* 임병호, 남·51.
* 화촌면 내삼포리, 1988.6.24., 엄기주 오에리 성길제 이용인 박미연 조사.
* T. 1—12—1

22

말은가자구 목놓아울구 님은날잡고 놓질않네
님아나를 잡지를말고 지는석양을 머물러라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박수영, 남·57, 주음치리에서 7대째 거주.
* 화촌면 주음치리 4반, 1988. 6. 24., 정덕준 강성관 윤혜경 유진수 김효경 조사.
* T. 1—5—2

23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이때만놀구 저때놀구 이때야 무슨 대수랴
얼씨구나 좋구나 정말로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왔소왔소 내가왔소 천리타향에 내가왔소
바람에 날려왔나 구름을 하여왔지
얼씨구나 좋구나 정말로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 허응구, 남·65.
* 화촌면 주음치리, 1988.6.24., 정덕준 강성관 윤혜정 김효경 유진수 조사.
* T. 1—6—2

노랫가락

1

산은 옛산이요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주야로 흐르는물이 물조차도 옛물일소냐
산절루 수절루 녹수라도 절로절로

* 김동근, 남·74.

* 북방면 북방1리, 1987.7.7., 전신재 홍호석 권준길 안선희 조사.
* T. 6—1—1

[2]

산은 옛산이로되 물은 옛물이 아니로구나
주야로 흘러흘가니 눈물이라고 믿을수없지
우리인사 저물과같이 한번가면은 영못오리라

* 전석일, 남·63.
* 북방면 성동2리, 1987.7.9., 김진희 정금란 강하구 최용헌 조사.
* T. 6—6—2

[3]

우리가 살면은 멫백년을 사느냐
살어서 생전에 이런일만 해야하나
불쌍허구나 가련허구나 농군신세가 이런가

* 장건용, 남·60.
* 북방면 북방2리, 1987. 7.7., 전신재 김진희 홍호석 정금란 안선희 강하구 최용헌 권준길 조사.
* T. 6—3—1

[4]

앞동산에는 봄춘자요 앞냇가에도 내천자라
굽이굽이 내천자요 가지마다 꽃화잔데
동자야 국화주걸러라 마실음자가 안주로다

* 이창석, 남·52.

* 화촌면 주음치리, 1988.6.24., 정덕준 유진수 강성관 윤혜정 김효경 조사.
* T. 1—6—2

[5]

창밖에 국화를심어 국화주밑에다 술빚어놓고
술익자 국화피자 임오시랴 저달이솟아
동자야 국화주를넣어라 마실음자 실컷노세

* 최천쇠, 남·78.
* 서면 모곡리, 1987.7.8., 이필용 김미영 현홍철 이미한 조사.
* T. 1—5—1

[6]

비가와서 씨러진나무 바람이분다고 일어설소냐
송죽같이 굳은절개 배맞는다고 허락할까
몸은비록 화류계일망정 절개조차 없을소냐

북망산에 봄춘자요 앞남산에 푸를청자
가지가지 꽃화자요 고개고개 내촌자라[1]
동자야 잔가득부어라 마실음자 월광주라

* 여정하, 여·68.
* 서석면 풍암1리, 1986.7.22., 허남춘 김제훈 문재우 이홍식 오애리 김명숙 조사.
* T. 1—4—1

1) '굽이굽이 내천자라'의 잘못일 듯.

7

봄이왔소 봄이왔소 앞동산에나 봄이왔소
앞동산엔 꽃화자요 뒷동산에는 푸를청자
가지가지 꽃화자요 굽이굽이가 내천자라
동자야 술부어라 마실음자가 알밤주라이다

담안에 매화를심어 거리노중에 던졌더니
찬이슬 궂인비만 맞일대루만 다맞었네
빨쥐[2]가 나빈척하고 매화가지에 앉을까말까

* 최의호, 남·58.
* 화촌면 내삼포리, 1988.6.24., 엄기주 오애리 성결재 이용인 박미연 조사.
* T. 1—11—2

8

한많은 요세상에 눈물없이는 왜못사나요
어느때나 요노릇면하고 눈물없이도 잘살아보나
아서라 비관을말어라 부르던노래나 불러보자

* 장정숙, 여·63, 5년전에 서울에서 홍천군 서면으로 이주.
* 서면 모곡리, 1987.7.7., 김미영 이필용 이미한 현홍철 조사.
* T. 1—3—1

9

도련님 심으신나무에 안양경주루 물을주고[3]

2) 박쥐. 3) '孔子님 심으신 나무에 顔淵程朱로 물을 주고'의 착각일 듯.

자사로 벋은가지가 맹자님꽃이나 피었도다
아마도 그꽃이름은 천년만년의 무궁활세

* 정순선, 여·65.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이종철 엄기주 유은영 이연순 조사.
* T. 5—10—1

시집살이

1

형님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떻딥까
고추당추[1] 맵다해도 시집살이 상맵더라
무명지[2] 바늘촘에 눈물콧물이 다썩고요[3]
눈물은 지어서 한강수 되고
한심은[4] 쉬어서 동남풍 되네

* 이간난, 여·68.
* 서면 모곡리, 1987.7.8., 이필용 현홍철 김미영 이미한 조사.
* T. 1—5—1

2

형님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떻댑까
고추당수[5] 매웁대도 시집살이 고추당수보다 매웁더라
살팡[6]위에 초마자락[7] 걷어놓고 오며가며 눈물에 다젖었네

1) 당초(唐椒). 2) '무명치마'의 잘못일 듯. 3) 눈물 콧물에 무명치마가 다 썩었다는 뜻일 듯. 4) 한숨은. 5) 고추당초. 6) 시렁. 7) 치마자락.

명주뿌리[8] 감기가 심타해도 시집살이 심타
고추당수보다 더매웁다 우리의 이시집살이
두고두고 이시집살이 눈물로만 젖었네

* 허 순, 여·63.
* 서면 모곡리, 1987.7.8., 오춘택 이동수 신정복 최재희 조사.
* T. 1—6—1

3

시집살이 어떻덥까 시집살이 말도말게
삼단같은 요내버리 비사리꼭지[9] 다되었네
메꽃같은 요내얼굴 개나리꽃이 다피었네
분칠같은[10] 요내손이 깍지발이 다되었네

* 이정옥, 여·55.
* 남면 유치2리, 1987.7.8., 김성수 곽노실 정명수 조사.
* T. 4—5—1

4

고지당초[11]가 맵다해도 시어머님처럼도 매우리까
백두산이 높다해도 시아버님처럼 높으리까
외나무다리가 어렵다해도 시아주버님처럼도 어려우리까
전화줄이 빨르다해도 동네말처럼 빨르리까
보름달이 밝다해도 시누이귀처럼 밝으리까
열씨구나 절씨구나 아니나노지는 못허리라

* 박경애, 여·63.

8) 명주실꾸리. 9) 헌 빗자루. 10) 분결 같은. 11) 고추당초.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엄기주 유은영 장기영 최광현 이연순 조사.
* T. 5—10—1

5

성님성님 사촌성님 시집살이 어떻던가요
시집살이 괜찮다마는
삼단같이 좋은머리 비사리춤[12]이 다되었네
말굴레같이 은박지[13] 찌던[14]손에 호미자리[15] 웬말인가
꽃대여[16] 신던발에 외닥다리짚세기[17]가 웬말인가
행지치매[18] 열닷쪽[19]이 눈물씻기에 다녹았네
잔모비개[20] 버리버리[21] 던져놓고 님은 어디가서 아니오시나
눈물로 세월이네
어디가서 내님이 언제나 오시려고 안오시니
내님이여 빨리돌아와 나를 사랑해주세요
시집살이 좋다더니 눈물로 세월이 다갔네

* 정채봉, 여·67.
* 남면 유치2리, 1987.7.7., 김방경 김요섭 정은정 용정실 조사.
* T. 4—1—2

6

성님성님 사촌성님 시집살이가 어떱디까
사촌성님 마중을 내가 갈터이니
성님진지 뭘로짓나

12) 헌 빗자루. 13) 은반지. 14) 끼던. 15) 호미자루. 16) 꽃당혜(唐鞋). 17) 짚신. 18) 행주치마. 19) 열다섯 쪽. 20) 잣모베개, 잣 모양의 비단으로 마구리를 꾸민 베개. 21) 멀리멀리(?)

여주[22] 찹쌀 돌절구에 싣고실어[23]
성님진지 지어놓고
나구같은 말을타고 분고개로 마중가네
성님성님 사촌성님
진지지어 올리려니 성님반찬 뭘로하나
휘어잡아 두릅채요 팔팔껏어 도라지나물
한줌꺾어 고비나물 두줌꺾어 고사리나물
볏다볏다 고비나물
성님상에 다올랐네
굵은고기는 토막을치고 잘은고기는 회를재와
성님상에 다올렸네
성님성님 사촌형님 진지많이 잡수시오
시집살이 어떱디까
시집살이는 괜찮더라만
고초당초 꽤맵더라 고초보다 더맵더라
시집삼년 살고나니
삼단같은 요내머리 비서리춤[24]이 다되더라
분질같은[25] 요내얼굴 미나리꽃이 다피더라
분질같은 요내손이 부뚝갈고리[26]가 다되더라
미나리꽃이 다되었으니 요내신세 둘데없어
시집삼년 살자하니 세상천지가 다 무난치를 않더라만
너도가서 잘살아라
사촌동생 일러주마
드러누워 명지꼬리[27] 하날 절을때만큼 힘이들게 시집살이
시어머님 걱정소리 천둥보다 더무섭고
시아버님 걱정소리 번개보다 더무서워

22) 驪州. 23) 찡고찌어. 24) 헌 빗자루. 25) 분결 같은. 26) 북두갈고리. 27) 명주실꾸리.

남편이라 하는분은 하늘같은 가장행세
시집삼년 살다보니
선팔십 후팔십 일백육십살이 되었구나

* 윤을순, 여·68.
* 동면 삼현리, 1988.6.23., 이필용 김경원 유채선 방은영 조사.
* T. 3—1—2

7

성님성님 사촌성님 시집살이 어떱디야
시집살이 말도말게
열두벌 미명치매[28] 눈물씻다 다쳐지고
삼단같은 요내머리 비사리춤[29] 다되고요
분질같은[30] 요내얼굴 미나리꽃 다되고요
분질같은 요내손이 갈이파리 다됐어요
시집살이 말도말게

시집온지 삼일만에
부엌이라고 들어가니 질투가리 함에걸려
뒷동산에 올라가서
양지짝고사리 우지끈지끈 응달에고사리 우지끈지끈
집이라고 내려오니
질투가래 슬저꿍설저꿍 뒤쳐설랑[31]
응달에고사린 응달에 널고 양지에고사린 양지에 널고
양달에고사리 꺾어다가[32] 응달에 〔 〕걷어다가
조반에 진지를 지어놓고

28) 무명치마. 29) 헌 빗자루. 30) 분결 같은. 31) 데쳐서. 32) '걷어다가'의 잘못일 듯.

사랑문을 열어달려 수캐같은 시아버지
망근[33]에세수를 허시고선 조반에진지를 잡수세요
안방문을 열어달려 암캐같은 시어머니
분세수단장을 허시고선 조반에진지를 잡수세요
골방문을 열어달려 고자같은 우리낭군
분방근에세수를 허시고서 조반에진지를 잡수세요
치매벗어 포장치고 저고리벗어 고깔접어 씨고
일만삼백석을 해주려하고
아들딸 날라고 정성드리러 가겠습니다

* 이순옥, 여·62.
* 동면 속초2리 속새울, 1987. 2.12., 전신제 허남춘 김성수 강동규 조남혁 유은영 조사.
* T. 3—23—1

8

시집온지 초삼일만에 참깨밭을 매라기에
한참만에 반질을매고 두참만에 한질을매니
이웃집노인 나오시더니 저기저새덱 참깨밭매네
집이라고 들어를가니 다쓰러져가는 초가삼간
엊저녁 먹고나니 보리찬밥[34] 삼년묵은 된장덩어리
물을부어 한술을먹고 두술뜨니 다먹었네
사랑방에는 열으면은 수탉같은 시아버님
가요가요 저는가요 저는절로 저는가요
가려무나 가려무나 너없어서 나못살랴
안방문을 열고보니 씨암탉같은 시어머니
가요가요 저는가요 저는절로 저는가요

33) 망건. 34) 찬 보리밥.

가려무나 가려무나 너없어서 나못살랴
골방문을 열어를보니 여우같은 시누잡년
간다간다 나는간다 나는절로 가는간다
가려무나 가려무나 너없어서 나못살랴
웃방문을 열고를보니 낭군님이 계시길레
가요가요 저는가요 저는절로 저는가요
잔말을말고 들어를와요 두말을말고 들어를와요
천리를가도 따라를가고 만리를가도 따라를가요
당신없는 이세상에 누구를믿고 산단말요

* 신옥순, 여·49.
* 동면 개운리, 1988.6.23., 허남춘 이동수 한호순 박삼희 박승림 조사.
* T. 3—15—1

9

언니언니 사촌언니 시집살이가 어떻든가
이애동상아 그말마라 시집살이는 괜찮다마는
열두벌무명 열두폭치마 눈물씻다가 다떨어졌다
시집이라 가서보니
용궁벼개 소라반자에 뿍떡꿍이불이 웬말이며
시집간지 삼일만에
밀사리빠진 바래낄[35]차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응달고사린 옆에끼고 양지고사린 다래끼넣어서
양지고사린 삶아서널고 응달고사린 꺾어서삶아
조반에진지를 지어놓고
사랑문을 떨껵여니
수캐같은 시아버지 조반에진지를 잡수시고

35) 다래끼를.

안방문을 덜컥여니
암캐같은 시어머니 조반에진지를 들으시요
웃방문을 떨꺽여니
여우같은 시누년들 조반에진지를 들으시고
앞마당에 고추심고 뒷마당에 당추심어
고추당추 되맵대도 시집살이가 되맵더라
삼단같은 이내머리 시집살이 석삼년에 고사리손[36]이 다되었다
언니언니 사촌언니 시집살일랑 말말으쇼

* 이필옥, 여·70.
* 두촌면 철정리 지다치, 1986.7.22., 강동규 이도형 조옥희 최광현 조사.
* T. 2—9—2

10

성님성님 사촌성님 시집살이 어떻딥까
말도말아 말도말아
행주치매 한죽해간기 말기만남고 다썩었네
말도말아 말도말아
삼단같은 머리가 부돼지꼬리가 다됐단다
말도마라 말도마라
분길같은[37] 손이 부덕갈구리[38]가 다됐단다

* 박금순, 여·57.
* 서석면 풍암1리, 1986.7.23., 박 찬 현홍철 곽노설 김방경 조사.
* T. 1—22—1

36) '비사리춤'의 와전. 헌 빗자루. 37) 분결 같은. 38) 북두갈고리.

11

성님오네 성님오네 분고개로 성님오네
성님마중 누가가나 반달같은 내가가지
니가어디 반달이냐 그믐초생뜨는달이 반달이지
성님진지 뭘로하나
외씨같은 성미쌀에 앵두같은 팥을놓고
성님반찬 뭘로하나
양지쪽에 올고사리 응달쪽에 늦고사리
이쪽저쪽 산나물에 바다건넌 파래나물
뒷집에가서 사기닷쪽[39] 앞집에가서 사기닷쪽
옆집에가서 유기닷쪽[40] 성님상에 다올랐네
성님성님 〔 〕 시집살이 어떻딥까
시집살이 좋데마는
삼단같은 요내머리 울타리춤[41]이 다되었네
성님성님 〔 〕 시집살이 어떻딥까
시집살이 좋데마는
행주초마 열닷쪽[42]이 눈물씻어 다나갔네
성님성님 〔 〕 시집살이 어떻딥까
시집살이 좋데마는
말굴레같은 은가락지 가신물[43]에 다녹았네

* 박화춘, 여·55.
* 서석면 생곡2리, 1986.7.22., 이필용 전희숙 조형연 김동하 조사.
* T. 5—15—1

39) 사기그릇 다섯 죽. 40) 놋그릇 다섯 죽. 41) '비사리춤'의 와전.
42) 행주치마 열다섯 죽. 43) 개숫물.

12

성님성님 사촌성님 시집살이 어떻든가
여봐동생 말도마라
행지초마 열닷죽이 눈물닦어 다쳐졌다
성님오네 성님오네 분고개루 성님오네
성님마중 누가가나 반달겉은 내가가지
니가어째 반달이냐 초승달이 반달이지
성님진지 뭘루하나
외씨같은 전이밥에 콩콩짓는 수캐다리
영각하는 황소다리 꽤꽤우는 인재[44]다리
성님반찬 글루하지
양지짝에 양고사리 응달짝에 응고사리
희딱희딱 고사리나물 한돈두돈 돈나물에
들었다봤다 콩나물에
성님진지 글루하지
뒷집에가 먹고닷죽 앞집에가 사기닷죽[45]
오네집에 기능닷죽
닷죽닷죽 열닷죽이 성님상에 다올랐다

* 송학기, 여·78.
* 내면 자운1리, 1986.1.11., 김학근 조사.
* T. 6—1—1

44) 영계(?) 황계(?). 45) 사기그릇 다섯 죽.

13

일곱살 먹어서 어머니를 잃고
아홉살 먹어서 아버지를 잃고
열한살에 시집을 가서
열두살에 과부가 되니
이팔청춘 소년과부가 낭군이나 그리워 살수가 있나
팔자라고 곤처[46]를가서 시집간지 삼일만에
안방문을 열구서보니 시어머이작잔 안질뱅이[47]
사랑방문을 또열구보니 시아버이작잔 외팔젱이
골방문을 또열구보니 시누이작잔 곱사등이
뜰앞창문을 또열구보니 머슴조차가 벙어리라
요내방이라 들어가보니 남편조차 지랄쟁이
뒤꼍이라고 돌아가보니 쑥대밭이 분명코나
부엌이라고 들어가보니 삼대홀애비가 분명하고
안마당을 썩나서보니 무덕무더기 겟마당이요
마루야 대청을 썩올라서니 구석구석에 박아지축[48]
불쌍허고 가련도허다 요내팔자가 기박허다
이팔청춘 소년과부의 한숨질이 절로난다

* 강신표, 남·55.
* 화촌면 야시대2리, 1987.2.11., 전신재·강등규 조남혁 조사.
* T. 1—1—2

46) 고쳐. 47) 앉은뱅이. 48) 빌어다 먹은 것.

자 장 가

1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두잔다
금자둥아 옥자둥아 만고청산 보배둥아
금을주니 너를사랴 은을주니 너를사랴
금두나 다싫고 옥도나 다싫고 나는나는 네가좋아
하느님전에 충신둥아 나라님전에는 보배둥아
부모님전에는 효자둥아 일가일신 우애둥아
동네방네 인심둥아 〔 〕
인심좋아 말끝마다 영화로다
인심좋아 말끝마다 거리거리 충신이로구나

* 정체봉, 여·67. 영월군 수진면 운학리에서 출생, 35년전 유치2리로 이주. 강원도 사투리를 그대로 사용.
* 남면 유치2리, 1987.7.7., 김방경 김요섭 정은정 용정실 조사.
* T. 4—1—2

2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두나자네
남의애기나 모두자네 우리애기는 잘두나자네

* 박순자, 여·76.
* 남면 유치2리, 1987.7.7., 김방경 김요섭 정은정 용정실 조사.
* T. 4—1—2

[3]

아가아가 울지마라 늬어머니 멀리갔다
웃방석 홍두깨가 새싹나면 오겠지
찬장밑에 팥삶을때 짝이나면 오겠지

* 이정옥, 여·55.
* 남면 유치2리, 1987.7.8., 김성수 곽노실 정명수 조사.
* T. 4—5—1

[4]

자자자자 워리자자 우리애기 잘도잔다
나랏님께는 충신동아 부모께는 효자동아
자자자자 잘두잔다
이웃간에 화목둥아 동기간에 우애둥아

* 최주호, 남·74.
* 서석면 청량리, 1986.7.22., 이홍식 김제훈 문재우 조사.
* T. 1—5—2

풍 년 가

[1]

풍년이나 왔네 풍년이 왔구나
금수강산으로 풍년이 돌아 왔네

지화자 좋다 어얼씨구나 좀도나 좋으냐
명년 정이월달에 관등놀이를 가볼까[1]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년년이 해마다 풍년이 오려므나
〔 〕
〔 〕

천하지 대본 농사밖에 또있겠소
놀지를 말고 농사에다 힘을쓰자
지화자 좋다 어얼씨구나 좀도나 좋으냐
명년 사오월되거든 막걸리타령에도 가볼까

남동산 너른 뜰 씨암탉 걸음으로
아기죽 아기죽 걸어를 나려는다[2]
지화자 좋다 어얼씨구나 좀도나 좋으냐
명년 구시월되거든 단풍놀이라두 가볼까

저 근너 김풍원[3] 거동을 보아라
노적가릴 쳐다보며 춤만 더덩실 추는구나
지화자 좋다 어헐씨구 좀도나 좋으냐
내년 동지섣달[4] 되거든 설경[5]놀이라도 가볼까

* 박철균, 남·67.
* 북방면 구만리, 1987.7.7., 이종철 조옥희 유은영 김성욱 장기영 최광현 이연순 엄기주 조사.
* T. 5—3—2

1) '명년 춘삼월에 화류(花遊)놀이를 가자' 혹은 '명년 하사월에 관등놀이를 가자'의 착각. 2) 간다. 3) 김풍헌(金風憲). 4) 동지섣달. 5) 雪景.

2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금수강산 삼천리 풍년이 왔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다
춘삼월에 화전놀이 가잔다

연년이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연년이 풍년이 왔네
지화자 좋고 얼씨구나 좋다
오뉴월에 삽전놀이[6] 가자

농사밖에 또 있나
놀지말구 일허세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다
오뉴월에 삽전놀이 가잔다

저건너 저기 저 건너
노적가리 쳐다보니
춤만 덩실덩실 나간다
구시월에 단풍놀이 가잔다

* 이인남, 여·58.
* 동면 개운리, 1988.6.23., 이동수 한호순 박삼희 박승림 조사.
* T. 3—16—1

6) '탁족(濯足)놀이'의 잘못.

권 주 가

1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을 한잔을 잡으시오
이술은 술이아니라 먹고노자는 경배주라
첫째잔은 인사잔이요 둘째잔은 먹고노재는 경배주요

* 최천쇠, 남·78.
* 서면 모곡리, 1987.7.8., 김미영 이필용 현홍철 조사.
* T. 1—3—2

2

불로초로 술을빚어 만년배[1]에 가득히부어
서요서요 잡수서요 이술 한잔씩 잡수서요
이술한잔 잡수시면 천년만년도 산답니다
만수산 만수봉에 만수정이 있답니다
그물로 빚은술을 만년주라고 하온답니다
은잔놋잔 다 공출허고 유리잔으로 먹어나볼까

* 박철균, 남·67.
* 북방면 구만리, 1987.7.7., 이종철 엄기주 조옥희 유은영 김성욱 최광현 장기영 이연순 조사.
* T. 5—4—2

1) 萬年盃.

[3]

에헤 시요시요 잡으시요 이술 한잔을 잡으시요
이술 한잔을 아즉 못잡으면은 소녀한테루 권하소서
이술이 술이아니라 잡숫고노자는 경배주요

* 안완규, 남·67.
* 화촌면 장평1리, 1988.6.23., 정덕준 강성관 윤혜정 유진수 김효경 조사.
* T. 1—3—2

[4]

권권 갱취백 이배주허니 서출양반이 누구냐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 잡으시오
이술이 술아닌데 먹고노자는 청배주라
이잔저잔 다 제쳐놓고 사기잔에 술부었으니
다시한잔 잡으서요 먹구노세 쉬구노세 먹구놀아
막걸리 한잔으루서 만족하구나

* 허기봉, 남·77.
* 동면 월운리, 1988.6.23., 이필용 김경원 류재선 방은영 조사.
* T. 3—1—2

[5]

시오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
이술이 술이아니라 먹구노자는 청배주라
삼신산 불로주로 백일기도로 디려놓고
천년만년 만루주인데 이술잡수면 만수무강

* 민병호, 남·71.
* 동면 성수리, 1988.6.24., 이필용 김정원 류제선 방은영 조사.
* T. 3—2—2

6

우리가 살면은 한오백년 살어
오늘종일 요렇게놀제 노래를 합시다
술먹지 마자구서 맹세를 했더니
친구와 서루만나구 이또먹겠네
술은도 술술이 요렇게 잘넘어가는걸
단주냐 금주냐 그것이 무슨소리냐

* 윤태준, 남·71.
* 홍천읍 삼마치2리, 1988.6.23., 김문태 엄병화 권준길 김혜경 박기웅 이철규 심보경 이정환 조사.
* T. 2—3—2

각설이 타령

1

일자한자를 들구봐 일월이 송송 야송송 샛별밤중이 뚜렷해
두이자를 들구나봐 이경단에다 장굴달구두 백골기생이 춤을추니
삼자를 들구나봐 삼십노근에 노총각 장개를못가 성화지
사자를 들구나봐 사시행천에 바쁜질 중간재미나 늦어간다
사사오자를 들구봐 오관전쟁이 판운장

여섯육자를 들구봐　　육년대재두 왕가뭄 건넌산에서 흐르들어올제 만세인간이 춤을추네

입굽칠자를 들구봐　　치렁치렁의 땋머리 쭉뚜리 낭자가 늦어가네

여덟팔자 들구봐　　이팔저팔은 곰배팔루 들어갈제 꽹과리채루나 써먹지

아홉구자를 들구봐　　구천구관에 박광대 어느광대가 재재기나[1] 춘천광대가 재재기지

뿌래기 없는 감남게 감이나 잠뿍 열어서 목발 없는 지개다 한짐 잔뜩 질머러지구

새면[2]각국을 둘러보니 인굼장으로 척 들어섰네

치다보니 보모님 내려다보니 자식이요 돌레다보니 친구

일전한푼이 모잘라 친구대접을 못했네

* 심옥근, 여·83.
* 북방면 구만리, 1987.7.7., 엄기주 유은영 조옥희 김성옥 장기영 최광현 이연순 조사.
* T. 5—2—1

2

헤 열씨구씨구 들어간다　　절씨구나 들어간다

일자를 한자나 들구나 보아요　　일선에 가신 우리서방님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이자를 한자나 들구나 봅시다　　이승만에 대통령께서 삼팔남을 지켜준다

삼자를 한자나 놓구나 보니　　삼천만의 웃음소리가 금수강산에 울려퍼진다

1) 수다스럽게 재잘거리냐.　2) 사면.

사자를 한자나 놓구나 보니 사천이백칠십오년에[3]
조국통일이[4] 돌아왔어요
오자를 한자나 들구나보니 오천만에 괴뢰군이 삼팔남으로
넘나든다
육자를 한자나 들구나 보니 육이오난리에 집을잃고 거지의
생활이 웬말이요
칠자를 한자나 놓구나 보니 칠십리에 포소리가 우리강산에
울려퍼진다
팔자를 한자나 들구나 보니 판문점에 열린회담 각국대표가
모여든다
구자를 한자나 들구나 보니 국군간지 삼년만에 상이군인이
웬말이요
장자를 한자나 들구나 보니 장가간지 첫날밤에 상이군인
웬말인가
어허좋다 씨구씨구 들어간다 장타령패는 요렇게 사는게
원칙입니다

* 김봉숙, 여·62.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엄기주 유은영 장기영 이연순 조사.
* T. 5—10—1

3

어허 작년에왔던 각설이 죽지도않고 또왔네
품바나하고 들어온다
이거 우떻게 된게 한푼 안보태 줄렵니까 〔하하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3) '사천 이백 칠십 팔 년에'의 잘못. 4) '조국 해방(광복)이'의 잘못일 듯.

기역자로다 집을짓고 지긋지긋이 사잤더니
인연이나 지중치못해 이새 잠깐에 잊었구나
가갸거겨하니 가이나 없는 이내몸이 그지나없이 되었갔니
고교구규 고생하면에 우리낭군 구간하기가 짝이 없다
나냐너녀하니 나나가는[5] 원앙새야 널과 날과도 짝을짓자
노뇨누뉴 노세노세 젊어놀아 늙어지면 못노나니
다댜더뎌하니 다정하게도 만난낭군 고장없이두 떨어졌니
도됴두듀 도적지키던 우리낭군 너모두[6] 팔세가 너무많아
라랴러려하니 나귀등에나 솔질하야 조선팔도가 유람일까
로료루류하니 로로장화[7]인게나 처처마다 다있건만 우리낭군
어디갔나
마먀머며하니 마재마재 마겠더니 임에나 생각이 절루난다
모묘무뮤하니 모지도다 모지도다 한양낭군이 모지도다
바뱌버벼하니 밥을 먹다가 졸아두나 임에나 생각이 절루난다
보뵤부뷰하니 보구나지구 보고지고 한양낭군이 보고지고
사샤서셔하니 사시나 사철 바쁜길에 중간참이나 늦어간다
소쇼수슈하니 소슬단풍에 찬바람에 울구나 가는 저기러가
한양성내를 가거들랑 낭군소식을 전해주오
아야어여하니 아삽답싸게 잡은손목 인정없이도 떨어졌네
오요우유하니 오동복판 거문고에 새줄미어[8] 뜯어보니 백학이
춤을추고 우일랑우일랑 춤을춘다
자쟈저져하니 자주종종 만난낭군 인정없이두 떨어졌네
조죠주쥬하니 조별낭군이 우리낭군 한양성엘 언제갈래요
차챠처쳐하니 차라리 안만냈음 이꼴저꼴을 아니볼껄
초쵸추츄하니 초당안에나 깊이든잠 서람소리에 놀라깨니
간곳없이 보이지않네

5) 날아가는. 6) 너무도. 7) 路柳墻花. 8) 새 줄을 매어.

카캬커켜하니　　큰칼로 이몸을 걱여 천당에나 보내주지
코쿄쿠큐하니　　코안에 묻은 우리낭군 인정없이 보이지 않네
타탸터텨하니　　타도타도가 올타도요 인간성내가 제일인가
토툐투튜하니　　토지귀신이 감동하야 우리낭군 살려주소
하햐허혀하니　　하염이 먹은마음 인정없이 떨어졌네
호효후휴하니　　호엽이 먹은낭군 언제 다시 만나볼까

어헐씨구씨구 들어온다 품바나 하고두 들어온다
너희나 선생이 누구신지 날보다두나 잘이한다
시전서전을 배웠는지 대문대문이도 잘이한다
작년에왔던 각설이 죽지두않고 또왔네
이제 한푼 안보태주면 어느 때나 보태줄래요

* 이창석, 남·52.
* 화촌면 주음치리, 1988.6.24., 정덕준 강성관 윤혜정 유진수 김효경 조사.
* T. 1—6—2

4

어헐씨구씨구 잘한다 저헐씨구씨구 잘한다
일자나 한자나 들구봐　　일월 송송 야송송 밤중 새털이[9] 또렷하다
이자나 한자나 들구봐　　이십먹은 저색시 시집가기가 늦어간다
삼자나 한자나 들구봐　　삼천거리 놋촛대 잿상머리서 놀아난다
사자나 한자나 들구봐　　사시장천 바쁜데 점슴참[10]이 늦어간다
오자나 한자나 들구봐　　오관대장 관운장 작투마[11] 말을 비껴타고 재갈선상을[12] 찾아간다
육자나 한자나 들구봐　　육십먹은 노덕이 장가가기가 늦어간다

9) '샛별이'(?)　10) 점심 참.　11) 적토마.　12) 제갈선생을.

칠짜나 한자나 들구봐　　칠년대한에 왕가물 비한방울이 떨어지니 만인간이나 춤을춘다

팔짜나 한자나 들구봐[13]

장자나 한자나 들구봐

작년왔던 각설이 죽지두않구 또왔네

얼헐씨구씨구두 잘한다 절씨구 잘한다

작년에왔던 각설이 죽지두않고 또왔네

* 이만섭, 남·58.
* 화촌면 장평1리 윗솔치 마을, 1988.6.23., 정덕준 강성관 윤혜정 유진수 김효경 조사.
* T. 1—3—1

5

뜨르르릉왔던 각설이 죽지도않구 또왔네

원년[14]에왔던 각설이 죽지도않구 또왔네

얼씨구 잘한다 품바하구도 잘한다

품바하구도 잘한다 〔인제 시작이여〕

일자한자를 들고봐

일자한자를 들고봐　　장안에 광대는대광대 광대하구 부르니라

이자를 들구나봐　　이 한줌에나 북소리 팔도기생이 드나든다

삼자를 들구나봐　　장안의 광대는 백광대 광대하구도 부르니라

사자를 들구나봐　　사신 행차가 바쁘겠지 중간참이 늦어간다

오자를 들구나봐　　오관천장에 관운장 청포마[15]를 비켜타고 곽선생을 찾아가다 제갈선생을 만났네

육자를 들구나봐　　육관대사의 성진이 팔선데리고 들어간다

13) 구연자가 '구, 십'에 해당되는 부분은 잊어버렸다고 하며 마무리를 하였음.
14) '작년'의 잘못일 듯.　15) 적토마.

팔자를 들구나봐　　팔년대한에 왕가문[16] 비한방울만 얻어주면
만인가리나[17] 춤을 춘다
구년지수에 장만날 만인가리나 춤을 춘다
장자를 들구나봐　　장안의 광대를 백광대 광대중에도 흐르니라
장자를 들구보니 대사혼자 얻으니라

* 오응수, 남·66, 삼현리에서 태어나 덕치리에서 거주.
* 동면 덕치리, 1988.6.24., 허남춘 이동수 한호순 박삼희 박승림 조사.
* T. 3—18—1

6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절씨구씨구 들어간다
만석이가 장타령하며 들어간다
앉은고리가 동고리면 쥐는고리가 문고리
피는[18]고리는 개고리 다른[19]고리는 개꼬리[20]
입는고리는 저고리로구나
지리구도 지리구도 들어가면 얼씨구씨구 잘한다
한발가지는[21] 각귀[22] 두발가지는 가마귀
세발가지는 퉁노귀 네발가지는 당나귀
먹는귀는 방위라[23]
지리구도 지리구도 잘하면 품바품바 또 잘한다
재작년왔던 만석이가 죽지도 않고 다시와서
어하 요놈의 이리도[24] 정승판서 자제요
팔도감사자리 마다하고 돈한푼에 팔리어서 각설이로 남았소
얼씨구씨구 잘한다

16) 왕가뭄. 17) 만인간이나. 18) 뛰는. 19) 나는. 20) 꾀꼬리. 21) 한발가진. 22) 까뀌. 23) 아귀라. 24) 이놈이 이래도.

이선생이 누구신지 나부다도 잘하고
에전서전을[25] 읽었는지 무식하게도[26] 잘하고
논어맹자를 읽었는지 대문대문대문대문 잘하고
뜨물덩이나[27] 먹었는지 걸찍하게도 잘하고
냉수덩이나[28] 먹었는지 시원하게도 잘하고
막걸리통이나[29] 먹었는지 비틀비틀비틀비틀 잘한다
얼씨구씨구 잘한다
단군님이 주신 우리나라는 정평야가 녹초가 미약하여
높은데를 갈면 밭도되고 낮은데 갈면 논도된다
봄이 돌아오면 소를몰아 산천하천에 논밭으로 씨를뿌려 덮어노니
에루하 좋구나 쑥쑥큰다
여름이오면 비가와서 아랫논 웃논에 물도주고 벼심어 김매두니
에루하 좋구나 잘도큰다
가을이되면 추수해서 오곡백곡을 사들고
아들딸 남매가 옹기종기 쌀밥에 햅쌀에 콩밥이 맛있구나
풍년일세 풍년일세 이제 가정에 풍년일세
올해 대풍년 되었구려

* 김춘옥, 여·57.
* 동면 덕치리, 1988.6.24., 허남춘 이동수 한호순 박삼희 박승림 조사.
* T. 3—18—1

25) 시전(詩傳) 서전(書傳)을. 26) '유식하게도'의 착각. 27) 뜨물 동이나.
28) 냉수 동이나. 29) 막걸리 동이나.

언문 뒷풀이

1

가갸거겨 가이없는 이내몸이 그지없이 되었구나
교교구규 고생하든 우리낭군 구간하기 짝이없네
나냐너녀 나귀등에 손짓하여[1] 조선팔도 유람가세
노뇨누뉴 노세노세 젊어서[ ][2] 늙어지면 못노리라
다댜더뎌 다닥다닥 붙였던정 덧없이 떨어졌네
라랴러려 나로도로 시집간딸 잘사는가 모르겠네
마먀머며 마자마자했던 사랑놀이 갈수록 못잊겠네
바뱌버벼 밥상을 받았으나 임이없어 못먹겠네
사샤서셔 사랑사랑 내사랑아 금을주면 바꿀소냐
아야어여 아기엄마 일어나서 정담이나 나누어보세
자쟈저져 자랑자랑 우리아가 구여운 손주로다
차챠처쳐 차츰차츰 깊허어가는 몰래하든 우리사랑
카캬커켜 카랑카랑 시어머니소리 무얼먹고 힘을사나
타탸터텨 타라타라 어서타라 이내배가 물결에 온다
하햐허혀 한량서방 하려거든 코가큰가 골라보세

* 정종화, 남·59.
* 북방면 상화계리, 1987.7.9., 전신재 김진희 정금란 홍호석 강하구 권준길 최용헌 안선희 조사.
* T. 6—7—2
* 제보자는 평소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문서로 정리해 둔 것이 있다고 하고 그것을 본 다음 노래해 주었다.

1) 술질하여. 2) '노세'가 탈락됨.

[2]

기역자로 집을짓고 지긋지긋이 사잤더니 이년이[3] 시중치[4] 못하구나
가갸거겨 가이없는 이내몸이 그지없이 되였구나
고교고교 고생하던 우리낭군 부관하기[5] 짝이없고
나냐너녀 날라가는 워랑새야[6] 너와나와 짝을짓자
노뇨노뇨 노류강화는[7] 인공주지 처처마다 다있건만
다댜더뎌 다독다독 붙던정이 인정도없이 뚝끊어졌네
라랴러려 날러가는 워랑새야 너와나와 짝을짓자
아야어여 아세담던 앉던손이 인정도없이 뚝끊어졌네
오요오요 오동복판 거문고를 새줄메어 헤메었건만[8]
자쟈저져 자주종종 만나던님이 여영소식이 무소식이로다
자쟈저져 차차보자고 행서한낭군 한번가시더니 왜못오십니까
바뱌버벼 밥을먹다 임의생각에 물만밥이 목이멘다
보뵤보뵤 보고지고 보고나지고 한양가신 우리님을 또다시한번만 보았으면
하햐허혀 하두나 소식이 없길래 또다시한번 만나기를
호효호효 호홀불던 찬바람도 이내끊지니 소식이 없습니다

* 김봉숙, 여·62.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엄기주 유은영 이연순 조사.
* T. 5—10—1

[3]

기역자루나 집을짓고 지긋지긋이 사자더니 인연이 지중치 못하구나

3) 인연이. 4) 지중치. 5) 구간(苟艱)하기. 6) 원앙새. 7) 路柳墻花.
8) '뜯어 보았건만'의 착각일 듯.

가갸는거겨　　가이없는 이내몸이 그지없이나 되었구나
고교는구규　　고상하던 우리낭군 구관하기[9]가 짝이없구
나냐는너녀　　나귀 등에 솔질해라 순구만장 지어타고 팔도강산 유람가자
노뇨는누뉴　　노세노세 젊어놀아 늙어지면 못노느니
다댜는더져　　다닥다닥에 붙은정이 인정없이두 떨어졌네
도죠는두쥬　　도중에 늙은몸이 갱손을 하기는 어렵도다
라랴는러려　　나라의 가난에 원앙새야 널과날과 짝을짓자
로료는루류　　로류양화[10] 임계유지 처처마다 다있건만
바뱌는버벼　　밥을져라 밥을먹자 임의생각에 목이멘다
보뵤는부뷰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낭군이 보고지고
아야는어여　　아서라 담씨가는 손이 인정없이도 떨어졌네
오요는우유　　오동복판 거문고를 새줄매어 타노라니 그 들리나니 물소리라
사샤는서셔　　사신행차 바쁜길에 중간참이가 늦어간다
소쇼는수슈　　소슬단풍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러기 한양성내를 가거들랑 이내소식 전코오오
자쟈는저져　　자주종종 만난님이 인정없이도 떨어졌네
조죠는주쥬　　조별낭군이 내낭군이라
차챠는처쳐　　차라리 내가 죽었더면 이런꼴 저런꼴 아니볼걸
초쵸는추츄　　초당안에 깊이든잠 학의소래 놀래깨니 그학은 간데없고 들리나니 물소리라
타탸는터쳐　　타도타도 월다도는 누귀[11]를믿고 여기왔나
토툐는투츄　　토지지신 감동하사 우리 님을 만나게 해주옵소
카캬는커켜　　영천검 드는큰칼로 이내일심 도려다가 한양성내 보내주오
코쿄는쿠큐　　컬컬하고 서늘할땐 누구를믿고 여기왔나

9) 구간(苟艱)하기. 10) 路柳墻花. 11) 누구.

파퍄는퍼펴　　파요파요 보고파요 임의 화용을 보고파요
포표는푸퓨　　폭포수 흐르는 물에 풍덩빠져 둥실둥실 떠갔다면
이런것을 아니볼걸
하햐는허혀　　한양낭군이 내낭군이다
호효는후휴　　굳게먹은마음 단사흘이 못가누나

* 이필옥, 여·70.
* 두촌면 철정리 지다치, 1986.7.22., 강동규 이도형 조옥희 최광현 조사.
* T. 2—10—2

춘 향 가

1

불쌍하구 가련하구나 춘향의 모친이 불쌍허다
먹을거를 옆에다 끼고 언못통으로나 돌아스니
아이구 어머니 그말씀 마오
허락이랜말이 웬말이오
잘났어두 내낭군이고 못났어도 내낭군인데
허락이랜말이 웬말이오

* 이필영, 여·60.
* 서면 팔봉1리, 1987.7.7., 송동찬 김숙영 엄병화 류재선 조사.
* T. 2—11—2

2

춘향아 춘향어미 들어온다
먹을것을 옆에다끼고 홍문전을 찾어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전에다가 비나이다
옥에갇힌 춘향이를 살려달라고 비나이다
서울가신 이도령이 전라감사 하였는데
옥에갇힌 춘향이를 살려달라고 비나이다

* 김동근, 남·74.
* 북방면 북방1리, 1987.7.9., 전신재 홍호석 권준길 안선희 조사.
* T. 6—1—1

[3]

에헤에에 불쌍허구나 가련허구나
춘향의 모친의 거동보소
먹을것을 옆에끼고 옥문밖으로만 돌아든다
애고내딸 춘향이야 허락을 한마디 허려므나
애고어머니 그말씀마오 허락이란말이 웬말이요
잘났어두 이몽룡이요 못났어두 이도령인데
보구지고 보구지고 한양낭군만 보구지고
일편단심 먹은마음 부모님생각 뿐이로다

* 전옥련, 여·62.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엄기주 유은영 이연순 조사.
* T. 5—10—1

심 청 가

[1]

닭아닭아 우지마라 니가울면은 날이새고

날이새면 나죽는다 나죽는건 슯지않으나
불쌍하신 우리부친 어찌두고 내가가나
밤새도록 울고나서 동방이 밝아와
심청이는 문을열고 시비밖을 내다보니
남경장사 선인네들 〔 〕허는말은
내가이미 알거니와 불쌍하신 우리부친
모르시니 진지나 지어들여 잡순후에
말씀 여쭈고 떠나면 어떠하료
심청이는 시비밖에 썩 나가서
남경장사 서있는데 허락받아
집집일 들어와서 밥을 지면서
눈물섞어 밥을지어 상머리에 차려놓고
아버지 진지나 많이 잡수오
오냐 많이 먹으마 오늘은 반찬이 매우 좋구나
누집에 제사지냈더냐 누집이 생일이더냐
심청이는 기가맥혀 훌쩍훌쩍 우는소리
심봉사는 귀밝은체 귀밝은체 하는구나
아가아가 네 몸이 아프냐 감기가 들었나 보다
간밤에 내가 꿈을 뀌니 니가 큰 수레타고
한없이 가더라 이씨 부인께서
너를 데려갈라나다 심청이는 내가 그꿈이
아버지 그꿈이 매우 좋습니다
심청인 혼자앉어 자기 죽을 꿈이 분명하다
진지상을 물려놓고 담배불을 피운후에
문을 열고 사당에를 나와 두손합장 합장해서
하는소리 비나이다 하나님전 비나이다
이불효자는 부친의 눈을띄우려고
남경장사 선인에게 공양미 삼백석에

몸이팔려 인당수로 실어가니
불쌍하신 우리부친 눈을 뜨여
착한사람을 얻어서 아들낳고 딸을낳여
조상님전에 물한그릇 밥한그릇 떠놓고

* 신용순, 여·64.
* 서면 모곡리, 신용순씨댁, 1987.7.9., 신정복 한홍철 이동수 최재희 조사.
* T. 1—8—1

2

네뜨하더 한가정에 그의식구 세사람
계집아는 심청이요 부친이름 심학규
그에모친 심청이를 나으신지 칠일에
봉사남편 혼자두고 이세상을 떠났네
앞못보는 심봉사는 갓난딸을 안고서
동네집에 다니면서 동냥젖을 먹인다
젖좀주소 젖좀주소 이어리고 불쌍한
이어린거 살려주소 이화당집 오거늘
금과옥조 길러내여 나이차고 철이나
이제부터 그부친을 제손으로 봉양해
어떠한날 중이와서 고양미쌀 삼백석
부처님께 시주하면 감은눈얼 뜬다네
만고효녀 심청이는 부친눈을 뜨려고
남경장사 선인들께 자기몸을 팔았네
장하도다

* 허순자, 여·54, 홍천군 동면 후동리에서 출생, 22세때 서면 팔봉1리로 이주.
* 서면 팔봉1리, 1987.7.7., 송동찬 김숙영 엄명화 류재선 조사.
* T. 2—11—2

* 이 노래는 클레멘타인 곡조로 불렀음.

담바구 타령

1

구야구야 담바구야 동네울산에[1] 담바구야
너의국도[2] 좋다더니 조선지방엘 왜나왔니
우리국도 좋거니와 조선지방엘 유람왔지
은을주랴구 나왔느냐 금을주려구 나왔느냐
은도싫고 금도싫고 담바구나 주었네[3]
저기저기 저산밑에다 담바구씨를 주룩주룩뿌렸더니
낮이면은 햇기를마시구[4] 밤이면은 찬이슬맞어
건넢손님[5] 자를라니[6] 점점점점 왕성했네
님온손뚝[7] 장도칼로 엇씨게빗씨게[8] 쏠아놓고[9]
총각에쌈지도 한쌈지요 늙은쌈지도[10] 한쌈지
정든화리[11] 이글이글 삼깡숯을[12] 피워놓고
담바구한대를 피어무니 청유항용이[13] 비틀어진다[14]
또한대를 피어서무니 목구녕넘에서 휘감겨도네[15]
저기가는 저할머니 딸이나있이면 사위나삼지
딸은있기는 있다만은 나이가어려서 못주겠네
여보할머니 그말씀마소 참새가작아두 새끼만낳구
여보할머니 그말씀마소 제비가작아두 강릉가요[16]

---

1) 동래(東萊) 울산(蔚山)의. 2) 너의 나라도. 일본을 가리킴. 3) '주려고 나왔네'의 뜻. 4) 양기(陽氣)를 마시고. 5) 겉잎 속잎. 6) (점점) 자라나서. 7) 네모 번뜻. 8) 어슷비슷하게. 9) 썰어놓고. 10) 늙은이의 쌈지도. 영감의 쌈지도. 11) 청동화로. 12) '백탄 숯을'의 와전인 듯. 13) 청룡 황룡이. 14) 굼틀어진다. 15) '실안개 도네'의 와전. 16) '강남 가요'의 와전.

여보할머니 그말씀마소 다리가작아두 당년해루나 외손주와요[17]

* 정순선, 여·65.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조옥희 김성욱 조사.
* T. 5—9—1

2

구야구야 담바구야 동래울산에 담바구야
너의국은 좋다더니 조선지방을 왜나왔나
나의국도 좋건마는 조선지방을 유람왔네
은을주랴 나왔느냐 금이나주랴고 나왔느냐
은도없고 금도없어 담바구씨를 가져왔네
저기저기 저산밑에 담바구씨를 심었더니
밤이면 찬이슬맞고 낮이면 양기쐬어
겉잎나고 속잎나서 점점자라 왕됐구나[18]
네모번듯 장도칼로 어쓱비쓱 쓸어놓고
영감의 쌈지도 한쌈지
할멈의 쌈지도 한쌈지
총각의 쌈지도 한쌈지라
청동화로 백탄숯을 이글이글 피워놓고
소상반죽 부산죽에 담배한대 붙여무니
목구녕속에 실안개 돈다
또한대를 피고나니 청룡황룡이 꿈틀어진다
저기가는 저할머니 딸이나있거든 사위삼지
딸은두야 있다마는 나이가어려서 못삼겠네
에고할머니 그말씀마오 뱁새가 즉어도 알만낳소

17) '외손주 봐요'의 와전. 18) 왕성했구나.

에고할머니 그말씀마오 참새가 즉어도 새끼만친다우
에고할머니 그말씀마오 제비가 즉어도 강남간다우
에고할머니 그말씀마오 쪼그만 고추도 맵기만한다우
에고할머니 그말씀마오 할머니 동갑에 외손주봤다우

* 강신표, 남·55.
* 화촌면 야시대2리, 1987.2.11., 전신재 강동규 조남혁 조사.
* T. 1—16—2

3

담바귀야 담바귀야 동내없던[19] 담바귀야
너의국도 좋건마는 조선지방을 유람왔나[20]
금이라도 도래고 나왔느냐 은이나 두라고 나왔느냐[21]
금도없고 은도없어 다만담바귀를[22] 가지고왔네
저기저기 저산밑에 담바귀를 본듯허니[23]
밤이면은 찬이슬맞고 낮이면은 꼬냥지쐬어[24]
겉잎나고 속잎나서 점점자라서 왕성한데
니모번듯[25] 은장도칼로 오똑비듯이[26] 쓸어놓으니
영감의쌈지도 한쌈지요 총각의쌈지도 한쌈지라
전통화 백담소철[27] 이글이글에 지어놓고[28]
소담반죽 부담두개[29] 담배한대를 피우고나니
목구녕 안에서 실안개 돈다
또한대를 먹고나니 청량왕눈이 삐뚤어진다[30]
저기가는 저아주머니 냉수한그릇 주려무나

19) '동래 울산'의 변형. 20) '일본에서 왜 조선으로 왔느냐'는 뜻. 21) 원래는 '은을 주려 나왔느냐 금을 주려 나왔느냐?' 22) 담바구 씨를. 23) 담바구씨를 심었더니. 24) 양기(陽氣)를 쐬어. 25) 네모 번듯. 26) 어슷비슷이. 27) 청동화로 백탄숯을. 28) 피워 놓고. 29) 소상반죽(瀟湘斑竹) 부산죽(釜山竹)에. 30) 청룡 황룡이 굼틀어진다.

은제보텐[31]	님이라고	냉수한그릇	달라시오
저기가는	저할머니	딸이나있으면	날사오삼소[32]
딸은하나	있네마는	나이가어려서	못살겠네[33]
여보엄마[34]	그말씀마오	참새가즉어도	알만낳고
〔여보엄마	그말씀마오〕	제비가즉어도	강남을가네
〔여보엄마	그말씀마오〕	어머니당년에	외손자보라[35]

* 박황용, 남·76.
* 남면 유치2리, 1987.7.8., 곽노실 정명수 성길제 조사.
* T. 4—5—2

4

구야구야 담바구야
너의일본국도 좋다지만 조선국이나 더좋구나
구야구야 담바구야
담바구씨를 구입하여 저기저기 저산밑에 돌바우밑에다가 뿌렸더니
겉잎나고 속잎이나서
밤이면은 찬이슬맞고 낮이면은 빛을맞고 담바구가 잘자랐으니
양귀양손으로 뜯어다가 합다할비실구의 찬이슬맞혀
장도칼로 어슷베슷 베쓸어서
영감님의쌈지도 한쌈지요 내쌈지도 한쌈지요
담배한대를 피우니 목구녕에서 쓴안개[36]가 슬슬돌고
또한대를 피워노니 청룡황룡이 베틀어졌네
구야구야 담바구야 동래부산의 담바구야

* 윤을순, 여·68.

31) 언제부터. 원래는 '언제 보던'. 32) 나를 사위 삼소. 33) 못 삼겠네.
34) 할머니의 딸이 그녀의 어머니(즉 이 작품의 할머니)에게 하는 말임. 35) 외손자 보리다. 36) 실안개.

* 동면 삼현리 마을회관, 1988.6.23., 이필용 김경원 류재선 방은영 조사.
* T. 3—1—2

5

구야구야 담바구야 농네나울선[37] 담바구야
은을주려 나왔느냐 금을두주려고 나왔느냐
은도없고 금도없어 담바구씨를 가주구왔네
저기저기 저산밑에 담바구씨를 이리저리 훌훌뿌려
낮이면은 양기를쐬고 밤이면은 찬이슬맞어
곱게곱게 걸러내어 남쳑에장삼 높이걷고
광지리[38]는 네가들고 잎사귀는 내가뜯어
울밑에 양지쪽에 정성들여 말려내어
한대를 피여무니 세상만사가 춘몽일세

* 이필옥, 여·70.
* 두촌면 철정리 지다치, 1986.7.22., 강동규 이도형 조옥희 최광현 조사.
* T. 2—10—1

6

구야구야 담바구야
너의국도나[39] 좋다더니 대한의국에 뭣하러왔나
담바구씨를 입에물고 귀경차로[40] 왔네
〔담바구씨를 〕 저산밑에 던졌더니
밤이면은 이슬맞고[41] 낮이면은 양기쐬어[42]
일취월장 다자랐네

37) 동래 울산. 38) 광주리. 39) 너의 나라가. 즉 일본이. 40) 구경차로. 구경하러. 41) 이슬 맞고. 42) 양기 쐬어.

뚝뚝뜯어다　숭숭썰어
영감의쌈지도　한쌈지　총각의쌈지도　한쌈지
청동에화로다　불을때　담아다　놓고
한대를　피우니　시래가[43]　빙빙돌고
두대를　〔피우니〕　청룡에황룡이　올라가는구나
저기가는　저할머니　딸이있으면　사우나삼으세요
딸을있지만　나이가　어려서　못삼겠소
어머니　그말마세요　참새가작아도　알을낳고
〔어머니　그말마세요〕　제비가작아도　강남을가요
사우를　보면　당년으로　손자보리다
어머니

* 박금순, 여·57.
* 서석면 풍암1리, 1986.7.23., 박 찬 현홍철 곽노실 김방경 조사.
* T. 1—22—1

7

구야구야　담바구야　동래나부산의　담바구야
은을주러　나왔느냐　금을주러　나왔느냐
담바구씨를　저기저기　저산밑에　던졌더니
낮이면은　햇발받고　밤이면은　찬이슬맞는다

* 박귀자, 여·54.
* 서석면 풍암2리, 1986.7.23., 박 찬 현홍철 곽노실 김방경 조사.
* T. 1—22—1

43) 실안개카.

범벅 타령

1

오당랑팡팡에 쩡는방아 누구잡술 범벅이냐
김도령잡술 범벅이냐 이도령잡술 범벅이냐
이도령은 본낭군이요 김도령은 훗낭군[1]이라
이도령은 멥쌀범벅 김도령은 찹쌀범벅
〔 〕[2]
이도령의 거동을보소 외방장사를 나근다고[3]
민빗챔빗[4] 쪽집개를 갖춰갖춰나 걸머지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맥만보구 뜻만볼제[5]
계집년의 행실을보소
건넌말김도령 손짓하여 이도령없는 쌀을알고
산을넘고 물을건너 계집년문전을 당도허니
"문열어라 문열어라 내가왔으니 문열어라"
김도령목소리 간곳없고[6] 중문열구 대문열고
버선발로 뛰여나와 선선히손목을 이끌어잡고
"애고이게 웬일이요 어찌하여서 늦이셨소
내방으로 어서들어가요"
중문닫고 대문닫고 대청마루에 썩들어스니
집치장이야 놀랍구나

---

1) 後郞君. 샛서방. 2) 이 작품의 여주인공이 김도령을 샛서방으로 친해 놓고 남편인 이도령에게, '장님 만나 남편의 신수점을 보았더니 外方장사를 나가면 財數가 총다더라'고 거짓말하는 내용을 口演者가 빠트렸음. 3) 나간다고. 4) 민빗과 참빗. 5) 몰래 아내의 정황을 살필 때. 6) '알아듣고'의 잘못.

어슥비슥 가루닫이[7] 국화새김이 완자무늬라
안방대청을 썩들어서니 방치장이야 더욱좋다
쳐다보니 소라반자[8]요 내려다보니 각자장판[9]
샛별같은 놋요강을 발치발치나 밀어놓고
원앙금침 잔모비게[10] 머리머리나 내려놓고
남공단요를 내려깔고 홍공단이불을 둘러덮고
소루병풍을 둘러치고
빨개벗은 그두몸이 굼실굼실 노닐을제
뜨물통에 호박씨놀듯 굼실굼실이 잘두논다
한참이리 노닐다가
"밤은점점 야심헌데 무엇을 잡수실라우"
"나잘먹느니 범벅이야
정월달에는 갈떡범벅[11] 이월달에는 쓰라기범벅[12]
삼월달에는 쑥범벅이요 사월달에는 느티범벅
오월달에는 수루치범벅[13] 유월달에는 밀범벅이요
칠월달에 수수범벅 팔월달에는 꿀떡범벅
구월달에 귀리범벅 시월달에는 무시루범벅
동짓달에는 동지범벅[14] 선달에는 흰떡범벅"
열두가지나 범벅을갤제 이도령의 거동을보소
외방장사를 나근다더니[15] 뒷동산에 올라가서
맥만보구 뜻만보다 성큼성큼 내려와서
"문열어라 문열어라 내가왔으니 문열어라"
문열란소리에 깜짝놀라 김도령주체나 헐수없어
삼사대째 내려오는 두쥐[16]를 열고

---

7) 가로닫이. 8) 소란(小欄)반자. 9) 각장(角壯)장판. 10) 잣모베개. 잣 모양의 비단으로 마구리를 꾸민 베개. 11) '달떡범벅'의 잘못일 듯. 12) 시레기범벅. 13) 수뤼나물 범벅. 14) '새알심범벅' 혹은 '팥죽범벅'의 착각일 듯. 15) 나간다더니. 16) 뒤주.

두쥐안에다 집어넣고 양기복장[17] 자물쇠로
어슥비슥 걸어놓고 문을열고 썩나서서
"애고이게 웬일이요
외방장사를 나그신다더니 아닌밤중에 웬일이오"
"외방장살 나그다가 돌팔이[18]를 만내
일년신수를 문복허니
두쥐로하여서 안된다니 그두쥐를 불노려왔네[19]"
"에고대고 설운지고 불놓는단말이 웬말이오
삼사대째 내려오는 조상적기물은 그하난데
불놓는단말이 웬말이오"
아닌밤중에 불노려오시니 용서할리가 만무허니
스발세끼로[20] 걸머지고 북망산천을 찾어간다
항덕위에 올려놓고 두쥐문열구 들여다보니
빨개벗은 김도령이라
"에라이놈아 적일놈아
너두남의집 외아들이요 나두남의집 외아들인데
너죽일필요가 무어있니 천리밖으로 가거라"
빈두쥐를 불을놓고 집으로나 돌아오니
계집년의 행실보소
김도령죽은 쌀을알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삼오제[21]지내고 있구나
"애고대고 설운지고 혼이라두 날다려가소
애고대고 설운지고 넋이라두나 날다려가소
언제나그런님 또다시만내 이별없이두 잘살아보나
질라래비[22]가 훨훨 모두다 날어만 갔구나"

17) '금거북'의 착각일 듯. 18) 여기서는 돌팔이 점장이. 19) 불 놓아 살라 버리려고 왔네. 20) 세 발 새끼로 뒤주를. 21) 삼우제(三虞祭). 22) 어린아이에게 새가 훨훨 날듯이 팔을 흔들라고 하면서 하는 소리.

* 전옥련, 여·62.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업기주 유은영 이연순 조사.
* T. 5—10—2
* 끝까지 口演하지 않음. 이 뒤로 이도령이 아내를 꾸짖고 떠나는 장면과, 아내가 이도령을 쫓아가다가 자기잘못을 깨닫고 자결하는 장면이 이어짐.

2

정월이라 대보름날 달떡범벅 개여보자
둥글둥글 범벅이냐 둥글둥글 범벅이야
이월이라 초하룻날 〔 〕[23]범벅 개여보자
농군들 범벅이야 둥글둥글 범벅이야
삼월이라 삼짇날 무신[24]범벅 개였느냐
나물범벅 개여보자 둥글둥글 범벅이야
사월이라 초파일날 무신범벅 개였느냐
수리치[25]범벅 개였더라 둥글둥글 범벅이야
오월이라 단오날 무신범벅 개였느냐
수리치범벅 개였더라 둥글둥글 범벅이야
유월이라 유두날에 무신범벅 개여보나
보리범벅 개여보자 둥글둥글 범벅이야
칠월이라 칠석날 무신범벅 개여보나
수수범벅 개여보자 둥글둥글 범벅이야
팔월이라 한가우날 무신범벅 개였느냐
올벼[26]범벅 개여보자 둥글둥글 범벅이야
〔 〕[27]
시월이라 무사일에 무신범벅 개였느냐

23) '시레기'를 망각. 24) 무슨. 25) 수뤼나물 '느티범벅'을 '수리치범벅'으로 잘못 구연함. 26) 올벼. 27) 착각 혹은 망각으로 '구월'을 빠뜨리고 구연함.

늦베범벅	개여보자	둥글둥글	범벅이야
동짓달이라	동짓날	무신범벅	개여보나
팥죽범벅	개여보자	둥글둥글	범벅이야
설달이라	그믐날	무신범벅	개였느냐
늦베범벅	올베범벅	둥글둥글	범벅이야
열두가지	다개여놓고	이도령찾다	다쏟았네
얼씨구	좋다	얼씨구	좋다

* 최인준, 남·77.
* 홍천읍 장전평1리 논둑, 1987.7.12., 김성수 전계진 조사.
* T. 2—5—1

도라지 타령

1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어두 배구니[1]가 하나가 넘는다
으응 에헤 오호 에헤야
어여라하난다 지화자 좋네
허송의 시우를[2] 맡어라

도라지 캘래면 캐두요
더덕이를 캘래믄 캐었지
남의집이 금분해여자를 금분해여자를 왜 캐나
이잉 어영 에이야
어여라하난다 지화자자 좋네

1) 바구니. 2) 세월을.

니가 내간장을 어느스리살짝꿍 다녹였네

* 박영호, 남·54.
* 북방면 성동2리, 1987.7.9., 김진희 정금란 강하구 최용헌 조사.
* T. 6—5—1

2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어도 대바구니만 스리살살 다 녹인다
에헤야라 데헤야라 에헤야 어야라난다 기화자자 좋다
네가 네가 내간장 스리살살 다 녹인다

시들새들 봄배차[3] 찬이슬 올때만 기다리네
옥에갇힌 춘향이 이도령 올때만 기다린다
에헤여라 데헤여라 에헤야 이여라난다 기화자자 좋다
저기 저 산밑에 도라지는 한들한들

* 김귀순, 여·55.
* 화촌면 주음치리, 1988.6.24., 정덕준 강성관 윤혜정 유진수 김효경 조사.
* T. 1—5—2

3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산천에 도라지야
염없을 여헌에 도라지에
어드메 날데가 없어서 양바우틈에 가서 났느냐
도라지 도라지
어드메 날데가 없어서 만뒤산 들복판에 네가 외로이 혼자 섰나

3) 봄배추.

야아 도라지야 도라지야

너의 이름이 하두나 좋아 오늘날에 너의 이 도라지를 내가 불러놓았으니

아무리 도라지를 불렀어도 니가 내생각을 하여줄테냐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산천에 도라지야

* 윤을순, 여·68.
* 동면 삼현리, 1988.6.23., 이필용 김경원 류재선 방은영 조사.
* T. 3—1—2

개 타 령

에헤요 삽살개야 누른밥을 긁어서 너를주지

배가고파 너를주나요 먹기싫어서 너를주나

밤중에 김도령 오시면 짖지말라고 너를주지

* 김봉숙, 여·62.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엄기주 유은영 최광현 장기영 이연순 조사.
* T. 5—2—1

주머니 타령

당금당금 흥성강을 건너가니

한녘에는 해가돋고 한녘에는 달이돋아

달을따서 안을놓고 해를따서 겉을놓고

외무지개 선을둘러 쌍무지개 끈을꿰어
대문밖에 걸어놓고
내려오는 신관사야 올라가는 구관사야
이주머니 누가지었나
이주머니 지은사람 은을주리 금을주리
금도싫고 은도싫고 억년만년 살고지고

* 박금순, 여·57.
* 서석면 풍암1리, 1986.7.23., 박 찬 김방경 곽노실 현홍철 조사.
* T. 1—22—1

바지 타령

올라간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가
굴러간다 굴러가
아이바지 모녀바지 계집애바지 쪽바지
골뱅이바지 잠뱅이바지 엉뎅이바지 고쟁이바지
잘한다 싸개바지
봄바지 핫바지 여름바지 모시바지
가을바지 겹바지 겨울바지 솜바지
긴바지 양복바지 짧은바지 내려바지
신사바지 청바지 아가씨바지 디스코바지
신사바지 청바지 진짜바지 아바지
진짜 징을치고 잘하고 얼씨구 잘한다

* 김춘옥, 여·57.
* 동면 덕치리, 1988.6.24., 허남춘 이동수 한호순 박삼희 박승림 조사.
* T. 3—18—1

방구 타령

시어머니	방구는	호령의	방구
시아버지	방구는	잔소리	방구
시누년	방구는	고자질	방구
서방님	방구는	단방구랍니다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요
요렇게	좋다가는	막내딸	낳겠네

* 김봉숙, 여·62.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엄기주 유은영 장기영 최광현 이연순 조사.
* T. 5—10—1

돈 타 령

일전짜리는	끝전이요	이전짜리는	석회전이요
삼전짜리는	기운신전이요	사전짜리는	죽을전이라
오전짜리는	점심전이요	육전짜리는	고기전이라
칠전짜리는	때릴전이요	팔전짜리는	살전이라
옛날전은	구전이요	십전짜리는	상어눈깔
오십전짜리는	준치눈깔	십원짜리는	은행절수
얼씨구나좋구나	기화자좋다	아니노지는	못허리라

* 이순춘, 남·76.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엄기주 조옥희 장기영 최광현 조사.
* T. 5—7—2

화투 뒷풀이

정월속속이 들인정을 이월매조에 맺어나놓고
삼월사꾸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로나 붙여나놓자
오월난초 오는나비는 유월목단에 춤을추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서 팔월공산에 달구경간다
구월국화 피던꽃이 시월단풍에 다떨어졌네
동지섣달 긴긴밤에
앉았으니 임이나오나 누웠으니 잠이오나요
앉어서생각 누워서생각 경칠놈의 임의생각에
이몸이발딱 몸이달았소다

* 전옥련, 여·62.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엄기주 유은영 이연순 조사.
* T. 5—10—1

옥 단 춘

1

춘아춘아 옥단춘아
너의집은 뜰이넓어 뜰가운데 연못을파고
연못가에 왕궐심궈 백근마롱 학이없어

학의부모님은 젊었지만 우리부모님은 늙으셨네
늙는양도 슲지마는 호호백발이 더슲구나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을보고 웃지마라
백발을보고 웃었더니 그백발이 날찾아왔네

* 윤을순, 여·68.
* 동면 삼현리, 1988.6.23., 이필용 김경원 류재선 방은영 조사.
* T. 3—1—2

[2]

춘아춘아 옥단춘아 너희집에 구경가자
〔 〕 뜰이넓어 뜰가운데 연못을파고
연못안에 잎이피고 잎끝에는 꽃이피어
학의부모는 젊어가고 우리부모는 늙어가네
늙는양은 〔 〕 젊는양이 들어간다
머리신데는 먹칠하고 이빠진데는 〔 〕

* 이금녀, 여·59.
* 내면 광원1리, 1988.6.23., 전신재 황정산 박형규 김진희 유선영 전창동 최정희 홍석호 박지숙 이숙재 조사.
* T. 4—4—2

달공달공

세상마상 느할아버지가 둑간길을 쓸다가
엽전한푼을 얻어서 선반에다 올려놔

서울가 밤한말을 사다가 실궝[1]가에 엎었더니
머리감은 새앙쥐가 돌락날락 허더니
벌레멕이 한톨 남은걸
이빠진 독에다 삶아서 이빠진 조리로 건져서
알갱인 너하구나하구 먹구 껍데기는 할아버지 주구 아버지 주구
달공달공

* 신용순, 여·64.
* 서면 모곡리, 1987.7.9., 신정복 현홍철 이동수 최재희 조사.
* T. 1—8—1

들병이 노래

국화꽃이 고와도 춘추단절[1]이요
여자일색이 고와도 이십살 미만이로구나
에헤야 데헤요 어여라 난다 디여라
허송세월을 맙시다

고무신바닥이 고와도 발바닥밑으로 돌구요
여자의얼굴이 고와도 남자의품안으로 든다네
에헤야 데헤요 어여라 난다 디여라
허송세월을 맙시다

저기가는 저여자 궁둥이뱁시를 보아라
동남풍바람을 맞었는지 얄기죽살기죽 헌다네
에헤야 데헤요 어여라 난다 디여라

1) 시렁.
1) 춘추당절.

허송세월을 맙시다

백옥같이 흰얼굴에 오복수[2]댕기를 디리고[3]
장안전차를 타구서 밤무대구경을 갈꺼나
에헤야 데헤요 어여라 난다 디여라
허송세월을 맙시다

잔돈푼이 아수워서[4] 들병장사를 나왔더니
여러분의 덕택에 잘팔아가지고 갑니다
에헤야 데헤요 어여라 난다 디여라
허송세월을 맙시다

* 강신표, 남·55.
* 화촌면 아시대2리, 1987.2.11., 전신재 강동규 조남혁 조사.
* T. 1—18—2

한 양 가

일품재상 이완용은 이군불사 못할망정
삼천리네 이씨왕조 사백만원에 매매하야
오적참례 된단말가 육조참판 참례하야
칠조목을 지었으니 팔도인심 요란쿠나
구중궁궐 이태왕은 십벌지목 되었구나
백세유명은 못할망정 천고역적이 된단말가
만고불측 너의죄요 억조창생이 다죽었네

* 이재영, 남·64.

2) 五福壽. 3) 드리우고. 4) 아쉬워서.

* 서석면 생곡2리, 1986.7.21, 전희숙 조남혁 조사.
* T. 5—1—2

오 륜 가

동당동당 동기당동당
우리동방의 좋은풍속 오륜삼강이 밝았도다
부모님전 효행이요 나라님전에 충성이라
형제간에는 우애이요 부부간에는 화순이라
으른을보면 공경하고 어린일보며는 사랑한다
우리동무야 말들어라 교제상에는 신용일세
부귀빈천을 물론하고 인도에는 늙지마라
냉정한사람 동정없어 불쌍한사람 구제없네
동천조일이 밝았으니 우리사회가 어두울소냐
착한사람은 복을받고 악한사람 화받는다
가중안에 웃음소리 이웃간에 싸움마라
잘못한일 없고보면 어떤사람이 비방할까
우리동산에 봄이오니 슬슬동풍에 시우온다
만화장반[1] 울긋불긋 가봉우적이 넘나논다
거문고당시 손에들고 춘방춘풍에 놀러가세
동풍따라 동산우에
동당동당 동기당동당
우리동방에 좋은풍속 오륜삼강이 밝았도다

* 정덕희, 남·62.

1) '만화방창(萬化方暢)'의 잘못인 듯.

* 서면 길곡리, 1987.7.8., 오춘택 신정복 이필용 이동수 이미한 현홍철 김미영 최재희 조사.
* T. 1—1—2

부자유친

불능향당 소년들아 부자유친 들어보소
천지간에 주원이가 부모밖에 또있는가
부모은혜 생각하면 태산인들 비할소냐
아버님이 나으시고 어머님이 기르시니
포태십삭 회임할새 신고함이 끝이로다
목욕시켜 누여놓고 금옥같이 사랑허네
말배울젠 사랑하고 걸음걸을제 기뻐한다
좋은음식 좋은의복 부모구체 잊으리요
멕이나니 자식이요 입히나니 자식이라
글자능히 알만하면 어진스승 모셔다가
소학대학 가르쳐서 아무쪼록 사람되라
삼가관례 행한후에 어진배필 구혼하여
가치지례 행할적에 기쁘고도 바쁘도다
어화우리 자손들아
부모은혜 말하자면 한입으로 말할손가
부모은혜 갚으랴면 만분지일 갚을소냐
새벽에는 일찍깨어 문안부터 먼저하고
즐기시는 음식으로 정성스리 차려드려
부모많이 잡수시면 자식마음 기쁘리라
해가지면 시장할까 날이차면 추우실까

마음속에 매양있어 잠시부모 잊지마라
부모취침 하실적에 자리깔고 물러나와
온냉지전 살펴보세 춥도않고 덥도않게
부모생전 한결같이 이렇게만 모셔보세
글배우고 행실닦아 군자몸이 되어보세
입신양명 하는날에 부모님께 영광이라
삼칠일을 재계할제 목욕하고 새옷입어
다른마음 두지말고
주인주부 내외지간 일심합력 하는도다
정성마음 지극하면 부모흠향 하시리라
만년유택 저산소에 부모체혼 안녕턴가
낮은사초 북돋우고
한식추석 단오절에 제물지어 제사한다
자식되어 이러하면 불효지죄를 면하리라

* 강신표, 남·55.
* 화촌면 아시대2리, 1987.2.11., 전신재 강동규 조남혁 조사.
* T. 1—16—2

월 령 가

정월이라 대보름은 답교하자는 명절인데
우리님은 어디를가서 답교하자는 말이없나
이월이라 한식절은 개자추인의 넋이로다
북망산천을 찾아를가서 무덤을안고서 통곡하니
무정하고 야속한님 왔느냔말이나 전혀없네

삼월이라 삼짓날은 제비두엣집을 찾아오건만
우리님은 어디를가서 집찾아올줄을 왜모르나
사월이라 초파일은 석가모니가 탄생한날
집집마다 등불을달고 자손발원을 하건마는
하늘을봐야 별을따지 임없는나야 소용있나
오월이라 단오날은 추천하자는 명절인데
녹의홍상 미인들은 임과함께나 뛰노는데
우리님은 어디를가서 추천하자는 말이없나
유월이라 십오일은 유두명절이 이아니냐
백분철류에 지즌[1]전병 쫄깃쫄깃 맛두좋아
임없는빈방에 혼자먹기 금창[2]이막혀서 못먹겠네
칠월이라 칠석날은 견우직녀가 만나는날
은하작교 먼먼길에 일년에한번씩 만나건만
우리님은 어데를가서 십년에한번두 못만나나
팔월이라 한가우는 중추가절이 기아니냐
청춘남녀 짝을지어 망월산보를 가건마는
우리님은 어데를가서 망월가자는 말이없나
구월이라 구일날은 기러기두엣집을 찾아오건만
한번가면 돌아올줄은 미물의짐승도 알건마는
우리님은 어디를가서 소식조차 돈절하냐
시월이라 상달이라 집집마다 고사치성
칠성님전엔 백설기요 터주님전엔 무설기라
재수소망도 빌려니와 우리님의명복도 빌어보자
동짓달을 잡어드니[3] 절기는벌써 내년이요
동지팥죽을 먹구나니 나이는한살 더먹였네
나이는한살 더먹는데 님은하나 더안생겨

1) 지진. 2) 가슴. 3) 접어드니.

선달은 막달이라 빚쟁이한테나 쫄리는달
해동자귀 지내구보니 선달그믐이 고대로다
복조릴사요 복조릴사요 복조리는 많다마는
임건질 조리는 하나두없네

* 전옥련, 여·62.
* 북방면 하화계리, 1987.7.9., 엄기주 유은영 이연순 조사.
* T. 5—10—1

백 발 가

슬프고 슬프도다 어찌하여 슬프던고
이세월이 연구할줄 태산같이 바라더냐
백년광음 못다가서 백발되니 슬프도다
어화철든 소년들아 백발노인 웃지마소
덧없이 가는세월 넨들아니 늙을소냐
저근덧 늙은것이 한심하고 원통하다
소문없이 오는백발 귀밑에 의막하고
청좌없이 오는백발 털끝마다 전부하네
이리저리 생각한들 오는백발 덜할소냐
위풍으로 제어하면 검을네어 아니올까
근력으로 쫓아보면 무언하여 아니올까
욕을하여 거절하면 노염내여 아니올까
드는칼로 냅다치면 혼이나서 아니올까
휘장으로 가리우면 보지못해 아니올까
소진장의 구변으로 달래보면 아니올까
석숭이의 억만재로 인정쓰면 아니올까

묵은술을 많이빚어 권하면 아니올까
만반진수 차려놓고 빌어보면 아니올까
할수없다 저백발은 사람마다 겪는다
인생부득 항소년은 풍월중에 명담이다
가난함을 근심마라 농사지어 봉양허세
논에다는 벼를심고 밭에다는 조를심어
벼는비어 부모봉양 조는비어 우리먹세
계돈부쳐 갖추길러 은린옥척 낚어다가
만반진수 차려드려 부모봉양 극진허세
위태헌데 가지마라 부모님이 조심한다
주색잡기 멀리하자 부모님께 욕이된다
부모만일 노하시면 자식마음 송구해서
얼굴빛을 순히하고 말씀을랑 나직해서
공경사랑 더욱하면 부모감동 하시리라
부안모은 순임금도 부자자효 하셨거든
하물면은 우리부자 부자자효 못할손가
부모만일 병드시면 근심하고 민망해서
의약으로 구완하고 천지께도 빌어보세
정성마음 지극하면 신명감동 안할손가
불행하여 별세하면 망극애통 어이할꼬
성복전에 안먹어도 음식생각 전혀없네
의금관곽 정히짜서 선산하에 안장할제
애황중에 정신차려 예법대로 행하여라
총망중에 잘못하면 종천지한 되오리라
우제졸곡 지난후에 거상범절 어떻든고
굴건제복 벗지않고 주야애곡 뿐이로다
남녀상차 분명하니 부부동침 못하리라
나물실과 안먹거든 주육이야 말할소냐

두달석달 장사후에 마시나니 죽뿐이라
소상대상 잠깐지나 삼젯날이 다갈렷다
삼년종상 필한후에 사모할것 전혀없네
사당안에 신주모셔 없는부모 체신듯이
아침마다 전알하고 삭망으로 분향하고
신곡나면 천신하고 절일되면 절사하고
시중월에 시제하고 기일되면 기제하고
삼천갑자 동방삭은 절생후생 추문이오
팔백년을 사는생존 고문금문 또있는가
부유같은 이세상에 초로같은 우리인생
물위에 거품이오 위수에 부평이라
칠팔십을 살더라도 일장춘몽 꿈이로다
이내몸은 늙어지면 다시젊기 어렵도다
창헐이 글자넨게 가증하다 늙을'로'자
진시황 품서시에 자리앉고 나가있어
이미없고 사정없이 세상사람 [ ]로뇨
늙기도 서런중에 모양조차 늙어지네
꽃같이 곱던얼굴 검버섯은 웬말이뇨
옥같이 흰눈살이 광대등뼈 희었구나
안방같이 기른머리 불한당이 쳐갔으며
볼짝위에 있든살이 마귀할미 꾸어갔다
샛별같이 밝던눈이 반장님이 되었으며
거울같이 밝은귀가 절벽강산 되어가네
밥먹을때 볼짝시면 아랫턱이 코를차고
정강이를 걷고보면 비수같이 날이서고
팔때기를 걷고보면 수양버들 늘어졌네
무슨서름 쌓였는지 눈물조차 흘러지고
추위한기 들었는지 콧물조차 흐르도다

떡가루를 치려는지 재머리는 무삼일고
지팡이를 짚었으니 둥짐장사 하였는가
묵묵무언 앉았으니 부처님이 되셨는가
정신이 혼미하니 총명인들 있을소냐
남의말을 참예할제 동문서답 답답하고
집안일을 분별할제 딴전이 일쑤로다
그중에도 먹으려고 비우풀고 노래하고
그중에도 입으려고 비백분란 망각하네
눈가증이 늙었는지 자릴보면 떼만쓰고
소년소년 자세하야 얼뜻하면 속만내고
이상말은 하건마는 결뜻하면 서러하여
육십갑자 꼽아보니 덧없이 돌아오고
사시절을 살펴보니 빠르게도 돌아간다
늙을수록 분한말은 다할수가 가이없네
편작이를 다려다가 늙은병을 고쳐볼까
염라왕께 소지하여 늙지말게 하여볼까
주사야탁 생각하나 늙지말게 할수없고
억만번다시 생각한들 늙지말게 할수없네
어와답답 설운지고 또한말을 들어보소
꽃이라도 늙어지면 오던나비도 도로가고
나무라도 병이들면 눈먼새도 아니오고
비단옷도 해어지면 물결래로 돌아가고
좋은음식 시어지면 수체구렁 찾아가네
세상사를 굽어보니 만사도시 몽중이라
어젯날 청춘때에 어떤벗이 찾아와서
주란화각 높은집에 화조월석 모여앉아
술맛도 아름답고 안주도 찬란하다
백옥산 교자상에 차례로 늘어앉아

자시거니 권하거니 몇순배가 돌아오나
페가자제 난봉축가 화류신방 물에별가
좋은일을 하는것이
날마다 모이면서 경각하산 하더라도
시류잡기 오입하여 일없듯이 책을보네
배일장치 오랠는가 봉제사가 꿈밖이라
빈객친척 부제하며 처자권속 생각할까
집안일을 돌아보니 저녁거리 간데없고
사당문을 열고보면 향로조차 간데없고
신주패를 불짝시면 천년묵은 먼지로다
안방이라 들어가니 늙은아내 몽당치마
어린자식 발을뻗고 밥달라고 우짖으니
금수가 아니어든 차마어찌 모양보리
어와청춘 소년들아 좋은말을 들어보소
가련할사 모든사람 잠잘줄도 모르고서
증후한소 부렴하여 단비를 맞게하소
자고새면 하는일이 남소위기 인삼이니
철천생시 생긴성품 제절로 굴러지네
농사는 근본이라 천하에 대사언만
우리행사 뜻을두어 놀고먹고 입으려고
광언망간 지어내어 혹세무민 일삼는다
무공탄신 일어다가 이어예만 골몰하여
우든산간 몰라보며 주야없이 죄만짓네
백발되어 뉘우친들 후회막급 어찌할까
이세월이 견고한줄
설인방탕 노닌바가 늙은줄도 몰랐구나
안수정든 잠깐이니 젊었을때 공양하소
애고답답 설운지고 눈길설워 어찌하리

조삿상대 하던걸로 부운같이 헤어지고
죽자사자 하던친구 유수같이 흩어져서
저절로 독부되니 후회탄식 뿐이로다
서럽도다 소년들아 젊었을때 덕을닦게
빈객삼천 맹상군도 죽어지면 자취없고
백자천손 과포장도 죽어지면 허사로다
영웅인들 늙지않고 호걸인들 죽지않을까
영웅도 자랑말고 호걸도 말을마소
만고영웅 진시황도 여산추초 잠들었고
글잘하던 이태백도 지경상천 하여있고
천하명장 초패왕도 오강오랴 흔적없고
우선하던 한무제도 분수추풍 한탄이라
천하명인 종자기도 죽기를 못면하고
남구일구 석숭이도 할수없이 돌아가니
억조창생 만민들아
이내일신 젊었을때 선한공덕 어서하소
일사일생 공봉한것을 어찌하여 면할손가
가련하고 한심하다 우는일을 어찌하리
백발이 재촉하니 갈길을 생각하소
아마도 이세상에 전심하고 돌아가소
남에게도 인심얻고 친척에게 화목하소
인간칠십 살지라도 지은공덕 가이없다
좋은일이 얼마던고
속절없이 지내다가 산천에 돌아간들
무엇가져 저항하리
그렁저렁 지내다가 세월을 몰랐구나
북창청풍 명월가에 다된백발 어이하리
어젯날 청춘몸이 오늘날 수족없이

한구석에 앉았으니 누가그리 알아줄까
생각하고 생각하니 절통하고 원통하다
이한몸이 돌아가면 다시오기 어렵도다
집을잃고 돌아간들 어디가서 의지하리
다시금 생각하니 청춘시절 늙우친다
천만년을 살줄알고 걱정없이 지내다가
오늘날 생각하니 세상일이 가소롭다
인생이여 탄착말고 선심공덕 어서하소
이말저말 조심하고 후생노자 장만하소
극락세계 들어가서 구품연대 구경하세
이세월을 허송타가 서산낙일 다된후에
무가놈이 나타나면 후회막급 쓸데없고
처자권속 쓸데없고 친구부터 쓸데없고
부산같은 금은옥백 이지경에 쓸데없네
인생일대 탄생하여 지은공덕 가이없어
부귀공명 받아오며 자손명당 희망할까
금세부귀 하는이는 전세잡덕 그아닌가
악한죄를 짓지말고
마음닦아 선심하야 극락세계 들어가세
저세계를 들어가면 청춘백발 도시없고
생로병사 끊어지며 장생불사 하신다니
어서가세 어서가세 극락세계 어서가세
나무아미타불

* 강신표, 남·55.
* 화촌면 야시대2리, 1987.2.11., 전신재 강동규 조남혁 조사.
* T. 1—17—2
* 이 口述作品은 金聖培外編, 『註解歌辭文學全集』(精研社, 1961)에 실려 있는 作者未詳의 「老人歌」와 부분적으로 같은 구절을 가지고 있다. 작품의 길이는 이 口述作品이 훨씬 길다. 「老人歌」는 100行이고 이 口述作品은 148行이다.

관동팔경가

1

부조같은 이내몸이 천지간에 묻혔으니
덧없은 이세상에 일이없이 늙는구나
관동구읍 팔승지를 귀에시켜 들었노라
곤륜산에 나린용이 동해로 돌아드니
요동천리 훤출하고
압록강 두만강을 좌우에 던져놓고
백두산이 높았으니
철령이 수천리를 둥실둥실 산이높고
기자성남 대동강은 굽이굽이 손이로다
노인봉 소신봉은 분수령이 낮았으니
〔 〕 황룡산이 이아니냐
〔 〕 청산녹수 벌였도다
칠십리 소동정은 화산풍경 굽었구나
비월령에 뜬구름이 명사십리 길게날아
당명황의 구비화를 이슬마다 좋은낯에
대롱대 석간풍은 수변에 펄펄날아
이내일생 긴노래로 육리청산 새로왔다
편주에 술을싣고 시중대 찾아가니
백번홍료 찾아진듯 뵈이느니 꽃이로다
연하로 떼를하고 계화남산 들어가니
물은잔잔 도원이요 산은첩첩 협곡이라

청랑한이 조종하고 동래천이 동주로다
용문산에 맑은물이 산을둘러 통천이라
〔 〕 이아니면 〔 〕 어디갔나
까뀌로 깎은돌이 〔 〕 취석이라
백천봉이 높아있고 창해수가 깊었으니
황해원상 백운간에 이아니 고성이냐
경순왕 칠십년에 봉래선인 보랐더니
오날올까 내일올까 일일〔 〕 삼일포라
삼화간을 굳이닫고 만리장성 길었으니
〔 〕에 저장사야 어찌〔 〕 간성이냐
굴삼여의 청랑수도 흐르는데가 있건마는
석간에 솟는물이 배양장년 청간정을
백년 삼만 육천일에 일배일배 다시하자
〔 〕 이적선을 보고셔라 양양이라
낙화는 고목제비할제 추수공장 천일색을
해수관음 굽어보니 뜨뜨러졌다 낙산이라
동국의 명산이라 오대산이 이아니냐
대관령을 기어넘어 평림의 강릉이라
삼신산의 불로초를 〔 〕등에 실어다가
늙지마자 이내얼굴 다시보자 경포대라
산중산록 수백〔 〕을 앉어볼까 서서볼까
어제올라 오날올라 다시보니 삼척이라
한산낙엽 찬바람에 구십춘광 빛을띠여
동원도리 편시화를 곱다마라 〔 〕라
〔 〕 그를어찌 보게하리
유각춘 봄바람에 그뉘신고 울진이라
망망창해 이내해를 내내세인 그뉘알까
천리해운 멀리보니 눈이시다 망양대라

바람불어 더운니여 구름조차 오색이라
우순풍조 때로하니 〔 〕 평해로다
시절이 태평하니 당요적 천질던가
강구연월 긴숲속에 달이떴다 월송정을
대장부 생세상하야 부귀공명 못할진대
차라리 이몸되어 명산대천 보리로다
팔백리 〔 〕 백수로 다보리로다
이강산 본영웅이 자고로 몇몇이냐
북망산 새벽달에 누었느니 그언젤런가
어화 서러워치고 나도그리 되단말가
아희야 잔부어라 먹고놀고 가리로다

* 박연주, 남·62.
* 내촌면 도관3리, 1986.7.23., 황병로 김요섭 박형규 조사.
* T. 3—6—1

2

蜉蝣갓튼 이너몸이 天地間의 붓쳐신니
젯업신 이世上이 일이업시 늘거구나
關東九邑 八勝地을 귀의시쳐 드더로라
崑崙山 나린룡니 東海로 도라든니
遼東千里 현출ᄒᆞ고 鴨綠江 頭滿江을
左右의 던져노코 白頭山 노파신니
鐵嶺以北 數千里을 둥실둥실 山이놉고
箕子城南 大同江은 구비구비 솔이로다
老人峯 小臣峯은 分水嶺이 나주신이
黃龍山 이안이냐 靑山綠水 버러도다
七十里 小洞庭은 湖山風景 굿머구나

飛雲嶺　　뜬구름이　　明沙十里　　기여날어
唐明王의　　貴妃花을　　이슬바다　　조흔난듯
大瀛臺　　石間風은　　水邊에　　펄펄날어
疑乃一聲　　긴노릭의　　六里靑山　　시로왓다
片舟의　　술을싯고　　侍中臺　　츠즈간이
白蘋紅蓼　　자자진듸　　피는이　　씃치로다
烟霞로　　써을ᄒᆞ고　　桂花南山　　들어가니
물은殘殘　　桃源이요　　山은疊疊　　협곡이라
通江漢이　　朝宗ᄒᆞ고　　東百川이　　同注ᄒᆞ니
龍門山　　말근물이　　山을둘너　　通川이라
多寶塔　　이안이면　　承霧臺　　져긔던가
玉斧로　　싹근돌이　　臺臺層層　　叢石이라
百昇峯　　노파잇고　　滄海水　　기퍼신이
黃河遠上　　白雲間의　　이안이　　高城인야
敬順王　　十七年의　　蓬萊仙人　　보라ᄒᆞ야
오날올가　　너일올가　　日日省省　　三日浦라
山河關　　구지닷고　　萬里長城　　길어신이
北塞의　　져壯士야　　엇지마라　　杆城이랴
屈三閭의　　滄浪水도　　흘너써가　　잇건만은
石間의　　소신물이　　每樣長城　　靑澗亭을
百年三萬　　六千日의　　一盃一盃　　다시ᄒᆞ니
웃지마라　　李謫仙을　　보거셔라　　襄陽이라
落霞은　　孤鶩齊飛ᄒᆞᆯ제　　秋水共長　　天一色을
海水觀音　　구버보니　　쑥쎠러젓다　　落山이라
東國의　　名山이라　　五臺山이　　이안니냐
大關嶺　　기여너머　　平林의　　江陵이라
三神山　　不老草을　　大鰲등의　　실어다가
늑지마자　　이너얼골　　다시보자　　鏡浦臺라

山中麋鹿　水中鷗을　안자볼가　셔셔볼가
어졔올나　오날올나　다시보니　三陟이라
寒山落葉　찬바람의　九十春光　빗틀셔여
東園桃李　片時花을　곱다마라　竹西樓라
魏惠王의　經寸珠을　긔을엇지　보비ᄒᆞ야
有脚春　봄바롬의　그뉘신고　蔚珍이라
泛泛滄波　이닉혀를　來來世人　계누알가
千里海雲　멀니보니　눈이시다　望洋臺를
바람불어　더움이여　구름조ᄎᆞ　五色이라
雨順風調　셔로ᄒᆞ니　海不得波　平海로다
時節이　泰平ᄒᆞ니　唐堯졔　天地던가
康衢烟霞　긴숩속에　달이셧다　月松亭을
大丈夫　生世上ᄒᆞ야　富貴功名　못할진딘
찰아리　이몸되어　名山大川　보리로다
八百里　九〔〕土을　白首로　다보리로다
이江山　본英雄이　自古로　멧멧친야
北邙山　시벽달의　누어는니　긔안될는가
어와　셔른지고　나도그리　되단말가
아흐야　잔부어라　먹고놀고　갈니로다

* 내촌면 도관3리 244번지 朴寬錫(1909년생)이 소장하고 있는 「七絃歌」에서 전재.

「七絃歌」는 朴寬錫(족보명은 容舜)의 증조부인 朴智錫이 엮어 家傳하는 필사본으로 「關東八景歌」「相思歌」「將進酒歌」「大丈夫歌」「壯快歌」「樂志歌」「春眠歌」「方訖歌」「楚漢歌」「토끼화상」의 열 편이 실려 있음. 현재 家傳하는 필사본은 18×13㎝ 54쪽으로 1974년에 朴寬錫이 재정리한 것임.

이 「關東八景歌」는 역시 朴寬錫이 소장하고 있는 「八域歌」에도 실려 있음.

* 「七絃歌」는 崔昌熙(翰林大 사학과 교수)가 처음 발견했음. (盧權眞 外 「洪川郡의 傳統文化」, 翰林大아시아文化硏究所, 1987, pp.93~94.)
* 내촌면 도관리, 1989.4.12., 전신재 전창동 조사.

초 한 가

얼씨구 절시구 아니살지는 못허리로다
언문에 어룩허니[1] 수운이 적막허구나
가련허다 초패왕은 초를장차 잃단말이냐
역발산두야[2] 쓸데가읎구 기개세두야[3] 하릴읎네
칼을짚구서 일어들나니 사면이 초개로다[4]
우시우시 내약하오[5] 오늘너를 어린어릿[6]
삼보에 주저하오[7] 오보에 제어하야[8]
삼군이 흩어럴지고 마음도나 산란쿠나
평생에 운하기를[9]
금고를 울리면서 강동으루나 가잤더니
불의에 패망되어 어찌나다시 낯을들구
부모님을 다시보며 초강사람을 어이나보리
백대영웅 호걸들아 초한서를[10] 들어나가라[11]
절인재용[12] 부질읎고 순민심이[13] 첫째로다
한패웅의[14] 백만대군 구리산하에 진을치고
패왕을[15] 잡으럴제
백마장군[16] 두엄수는[17] 결식초목 한숨이라[18]
대장단에 높이앉어 천하제후를 호령헐제

---

1) 원문(轅門)에 월흑(月黑)하니. 2) 力拔山. 3) 氣蓋世. 4) 四面楚歌. 5) 우헤우헤 내약화(虞兮虞兮 奈若何)오? 6) 어이하리? 7) 주저하고. 8) 체읍(涕泣)하니. 9) 원하기를. 10) 초한승부(楚漢勝負). 11) 들어나보소. 12) 절인지용(絕人之勇). 13) 順民心이. 14) 한패공의. 15) 초패왕을. 16) 병마장군. 17) 도원수는. 18) 걸식표모(乞食漂母) 한신(韓信)이라.

팽성도 오백리를
거리거리 복병이요 골골이나 매복이라
의기야많은 이자건은[19] 패왕을 인도하고
수절부는[20] 장자방은[21] 진왕산[22] 추야월에
옥통수를 슬피나불어 팔천대병을 불들적에[23]
그노래에나 하였으되
급히상경[24] 깊은밤에 한낮은높고[25] 달밝으니[26]
청천에
울구나가는 저기러기 객이야수심을[27] 돋우난듯
번방백리 사지중에 정벌하는 저군사야
너의나패왕은 피곤했으니 전쟁허면은 죽을때라
철갑을 굳게입고 날랜장병을 베어나메고[28]
천근같이나[29] 중한몸이 전장복을 드리우라[30]
너의나처자 소년들은
한산낙일이[31] 찬바람에 새옷을지어 누어를두고[32]
오날이나 소식을까 내일날이나 편지가올까
옥같이 고운얼굴 망부허는 깊은간장
썩는눈물을 흘리면서 이마우에다 손을얹고
나가든길을 바라를보니 망부석이 된단말가
남산하에 장천발을 어느누가 갈어를주며
태호정[33]의 좋은술은 누구로하여서 맛을보리
어린자식은 아비를불러 어미간장을 다녹인다
우리야낭군 떠나실제
중문에서 손을잡고 눈물을지어 이른말이

19) 모계 많은 이좌거(李左車)는. 20) 수잘두는. 묘수를 잘 쓰는. 21) 張子房은. 22) 계명산. 23) 홀일적에. 24) 구추삼경(九秋三更). 25) 하늘은 높고. 26) 달 밝은데. 27) 객의 수심을. 28) 날랜 칼을 빼어 들고. 29) 천금같이. 30) 전장검혼(戰場劍魂) 되리로다. 31) 한산낙엽(寒山落葉). 32) 넣어두고. 33) 太湖亭.

청춘홍안을 두고를가니 명년구월에 돌아오마
금석같이나 중한몸이 천지간에두 없건마는
낭군을그리워 쓰린마음 차마진정 못잊겠네

* 반철균, 남·67.
* 북방면 구만리, 1987.7.7., 이종철 엄기주 유은영 조옥희 김성욱 장기영 최광현 이연순 조사.
* T. 5—3—1

解　　說

洪川地域의 說話와 民謠

洪川地域의 說話와 民謠

全 信 宰
(翰林大 國語國文學科 副教授)

1. 머 리 말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91類型 124篇의 說話와 57種類 706首의 民謠는 翰林大學校 國語國文學科의 교수·조교·학생 연인원 152명이 1986년부터 1988년까지 3년 동안에 6회에 걸쳐 洪川郡에서 채록한 작품들 중에서 가려 뽑은 것들이다.

124편의 설화 중에서 洪川에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 傳說은 65편인데 이들 중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洪水說話類의 전설과 아기장수전설이다. 그리고 이들이 風水地理의 모티프(motif)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706首의 민요 중에서는 아라리가 477首로 가장 많고 소모는소리(19首), 회다지소리(14편)도 많이 채록되었다. 洪川의 대표적인 勞動謠, 儀式謠, 非機能謠는 소모는소리, 회다지소리, 아라리라고 할 만하겠다. 어랑타령, 창부타령, 노랫가락도 제법 많이 채록되었는데 이는 江原道가 어랑타령의 本鄕인 咸鏡道 및 창부타령과 노랫가락의 본향인 京畿道와 인접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에 실린 모든 口碑文學 작품들은 그 하나 하나가 우리의 소중한 文化이므로 앞으로 면밀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대표적이라고 판단되는 洪水說話類의 전설, 아기장수전설, 아라리, 소모는소리, 회다지소리만 간단히 개관해 보려 한다.

2. 說　　話

洪水說話는 서양의 '노아의 홍수(Noah's Flood) 이야기'와 같은 유형의 설화로서 세계의 전역은 물론 우리 나라의 전역에도 흩어져 있는 설화인데 서양의 홍수설화가 물에 의한 세상의 淨化를 강조한다면 우리 나라의 홍수설화는 강인한 生命力을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홍수설화는 「舊約」의 '創世記'에서처럼 자초지종의 모든 이야기가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각 부분의 파편들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洪川지역에서도 확인된다.

天地開闢할 때 큰 홍수가 져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西面 斗尾里의 杜陵山(德應山)은 논두렁만큼만, 西面 開野里의 種子山〔종잘산〕은 종지만큼만, 東面 魯川里의 孔雀山은 공작새만큼만 각각 물 위에 올라와 있어 그러한 이름이 지어진 것으로 전승되고 있다. 또한 東面 月雲里의 五音山, 乃村面 道寬里의 白羽山〔배우산〕, 斗村面 泉峴里의 무쇠말재 위에는 각각 산 위에 배를 매었던 쇠말뚝이 있는데 특히 무쇠말재 위에는 해당화가 피고 물모래가 있다. 乃村面 道寬里 큰골〔大村〕 안쪽의 뱃골에는 배처럼 생긴 바위 즉 '배바우'가 있고 洪川邑 葛麻谷2里는 마을 자체가 배 形局이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마을에 우물을 파지 않았다. 뱃바닥을 뚫으면 물이 올라와 부락이 망하기 때문이다. 이 모두가 자연의 재해에 살아남으려는 강한 욕망의 소산들이다.

시주 온 중을 부자이며 인색한 시아버지는 박대하고 착한 며느리는 후대하였는데 며느리는 물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禁忌를 못 지켜 돌이 되고 시아버지는 물 속에서 죽고 그 부자집 터는 연못이 되었다는 長者못전설은 홍수설화와 무관한 듯하나 벌을 받아야 할 악한 인간(세상의 인간들·시아버지)과 구원을 받아야 할 선한 인간(노아·며느리)과 인간의 선악을 심판하는 존재(야훼·중)의 三者關係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물로 벌한다는 점에서 홍수설화와 유사하다. 그런데 洪川지

역에서는 며느리가 惡人으로 나타나고, 악인을 물로 벌하는 것이 아니라 穴을 뚫어 벌하는 것으로 특이하게 변이되어 있다. 즉 매일 손님이 많이 와서 음식 차리기가 귀찮아진 부자집 며느리가 시주 온 중에게 시주는 얼마든지 할 테니 손님 좀 안 오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중이 며느리로 하여금 破石·破穴하게 하여 그 부자집을 망하게 하여 주고 이에 따라 손님이 끊어진다. 南面 花田里, 化村面 九城浦里, 東面 開雲里 및 魯川里, 斗村面 遠洞里, 乃村面 道寬里 및 瑞谷里 등 여러 곳에 이러한 전설이 전승되고 있다.

달래고개전설은, 홍수에서 살아남은 남매가 인류의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하늘의 뜻을 물어 허락을 받고 결혼하는 男妹婚전설이 변형된 것이다. 즉 홍수가 소나기로 축소되고 倫理觀이 바뀌었다. 남매혼전설은 윤리보다 인류의 존속을 중시하고, 달래고개전설은 성욕보다 윤리를 중시한다. 이 달래고개전설이 다시 변형된 것이 충북 옥천군 군북면 구전리의 며느리재 전설이다. 고개를 넘다가 시아버지가 비에 젖은 며느리의 육체를 보고 소흥내를 내다가 둘 다 양심에 못 이겨 자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설이 다시 변형된 것이 洪川邑 上吾安里의 며느리고개전설이다. 소나기가 탈락되고 近親相姦의 모습이 숨겨지고 그 대신 상징적 소재로서 질신이 겉으로 드러난다. 즉 各篇(version)에 따라서 며느리가 질신을 팔러 가기도 하고 시아버지가 잃어버린 질신을 찾으러 가기도 한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증발된다.

아기장수전설은 서양의 '삼손(Samson)과 데릴라(Delilah) 이야기'와 같은 유형의 설화로서 우리 나라 전역에 전승되고 있는 廣布전설의 하나이다. 그것은 현재의 질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지배층(이 전설에서는 官軍이 이 계층의 典型으로 나타난다.)과 현실을 개혁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려는 피지배계층(아기장수가 이 계층의 전형이다.) 사이의 첨예한 갈등과 이 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기성세대(아기장수의 부모)의 번민을 드러내고 있는, 悲劇性이 짙은 전설이다. 記錄文學에서의 英雄小說과 口碑文學에서의 아기장수전설은 각각 귀족층과 서민층의 世界觀을 대조적으로 반영하여 왔다.

洪川지역에서는 西面 諸谷里, 南面 陽德院里, 洪川邑 三馬峙里·檢律里·瓦東里, 化村面 也是垈里, 斗村面 哲亭里, 乃村面 道寬里, 瑞石面 儉山里, 內面 紫雲里에 이러한 아기장수전설이 증거물을 가지고 전승되고 있다. 각 지역마다 姓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瓦東里의 아기장수는 權氏(혹은 金氏), 也是垈里는 尹氏, 哲亭里는 鄭氏, 道寬里는 全氏, 儉山里는 李氏, 紫雲里는 金氏로 그 姓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이들 姓氏는 각각 그 지역에 모여 살았거나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설이 얼마나 부착력이 강한가를 실감하게 한다.

이 지역 아기장수전설의 특징은 官軍이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과 風水地理의 모티프가 이 전설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也是垈里의 것은 平民과 官軍의 대립이 한국과 일본의 대립으로 바뀌어 있고, 儉山里의 아기장수는 자라서 東學軍을 격퇴하는 官軍에 뽑혀 갔으나 우둔하여 돌려보내진다. 諸谷里·陽德院里의 아기장수는 중 혹은 지관이 산소자리를 잡아주어 그 집안에서 태어났고 哲亭里의 경우는 그냥 그 명당자리에 산소를 쓰고 아기장수가 태어났다. 三馬峙里의 경우는 아기장수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미리 穴을 끊었고(이 各篇에서는 龍馬가 한 마리가 아니라 세 마리가 나타나 울면서 三馬峙로 넘어간 것도 특이하다), 道寬里의 경우에는 破石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장수가 태어났다. 李适(1587~1624)에 대한 전설들도 기본 모티프는 아기장수전설인데 이것도 풍수지리 모티프와 결합되어 있다. 즉 묘를 잘못 썼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李适전설은 또한 오뉘힘내기의 모티프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남동생은 쇠신을 신고 서울에 갔다 오고 누이는 城을 쌓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서울에 갔다 오기 시합으로 누이가 이기고 李适이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李适에게는 어머니가 없는 것이다. 哲亭里와 紫雲里의 아기장수는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리고 哲亭里의 아기장수는 무덤에서 부활하고 儉山里에서는 아기장수가 계속 태어난다. 아기장수전설의 일반적인 유형과는 다른 이러한 특이한 점들은 아기장수를 옹호하는 의식이 매우 강함을 보여 준다. 이러한 점은 口演者의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道寬里의 구연자는 아기장수의 부

모를 가리켜 '이 미련한 분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瓦東里의 구연자는 "나 같으면 안 죽여유"라는 논평을 곁들였다.

3. 民　　謠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은 旌善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강원도 지역의 아리랑과 密陽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경상도 지역의 아리랑과 珍島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전라도 지역의 아리랑으로 三大分되는데 이 아리랑을 강원도 지역에서는 아라리라고 부른다. 아라리의 가락은 강원도 嶺西지방의 農謠인 미나리와 그 토리(調)가 비슷한데 소박하고 느리고 처량하여 산악지방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다. 이것은 템포가 빨라 경상도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 밀양 아리랑이나 육자베기 가락을 기반으로 하여 섬세하게 세련된 가락으로 전라도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 진도 아리랑과 구별되는 점이다. 이들 세 종류의 아리랑이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아 그 歌詞의 형식은 비록 같지만 음악적인 측면에서 보아 그 가락이 전혀 다르므로, 民謠는 본질적으로 노래라는 점을 중시한다면, 이들을 같은 장르로 다루는 것은 무리다. 강원도 지역의 아라리가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으로 전파되었다는 근거도 희박하고, 강원도 아라리의 가락이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의 가락으로 변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은 元山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함경도 지역의 어랑타령이 아라리와 가사의 형식은 비록 같지만(후렴은 제외하고) 가락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장르로 취급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라리 歌詞의 형식은

떨어진 동백알은 낙엽에나 싸이지
사시장천 임그리워 나는 못살겠네

에서처럼 두 行이 모여서 한 聯을 형성하는데 한 行은 4音步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行중에서는 제2행이 主題를 담고 있으며 제1행은 주

제를 좀더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比喩·比較·對照 등의 修辭的 表現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여기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 주소"라는 後斂句가 덧붙는다. 후렴구의 가사는 변화도 심하고 또 每聯마다 반드시 후렴구를 붙이는 것도 아니며 소리판의 분위기에 따라 아주 자유롭게 붙인다.

엮음아라리는 제1행의 길이가 무작정 길어진 것이다. 즉

> 네팔자나 내팔자나 한번꿈적 죽어지면 무주공산 공동묘지 푹파묻혀 살은썩어 물이되고 뼈는썩어 황토될 인생

에서처럼 수사적 표현에 해당되는 제1행의 사설을 촘촘하고 길게 엮어서 일정한 장단 없이 빠르게 주워섬기다가 길게 뽑고 나서 제2행은

> 고렇게도나 도척같이를 굴지를 말어라

와 같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소리판에서 긴아리랑을 계속 부르면 지루하므로 변화성과 흥겨움을 주기 위해 엮음아라리를 부르는 것이다. 긴아라리와 엮음아라리의 관계는 긴난봉가와 사설난봉가, 수심가와 엮음수심가 그리고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관계와 같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아라리는 모두 477首이다. 여기에는 어휘의 배열순서, 소재들, 주제가 모두 같지만 조사나 어미만 다른 작품들(봄철인지 가을철인지 나는 몰랐더니/봄철인지 가을철인지 나는 몰랐는데), 어휘 배열의 순서가 다르지만 소재와 주제는 결국 같은 작품들 (비가 올라나 눈이 올라나 억수장마 질라나/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마 질라나), 그리고 특정한 자리에 다른 어휘가 사용되었지만 그것이 작품의 구조와 주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작품들(설악산 꼭대기 외로이 선 나무/오대산 꼭대기 외로이 선 나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중에서 각각 한 작품씩만 남기고 나머지를 버리면 꼭 300首가 남게 된다.

아라리의 내용을 自我와 世界의 관계로 분류한다면 세계에 해당하는 것은 나(本來的 自我 아닌 現實的 自我), 임, 가정, 사회, 자연으로 드러난

다. 즉 아라리의 내용은 본래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자아와 임, 자아와 가정, 자아와 사회, 자아와 자연의 관계를 노래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아와 임의 관계를 노래하는 것으로 300수 중에서 174수이다. 이를 다시 세분해 보면 임에 대한 그리움(60수), 임을 만나는 즐거움과 기쁨(53수), 사랑의 파탄 및 이별의 아픔과 슬픔(38수), 남편에 대한 아내의 불만과 원망(19수), 아내에 대한 남편의 불만(3수), 남편에 대한 흡족감(1수)으로 분류된다. 그리움의 주체와 객체에는 더벅머리 총각과 큰아기가 그리는 막연한 異性, 특정한 戀人으로서의 정든 임, 이별 중의 남편과 아내, 죽은 임이 포함되어 있고, 만남에는 연인들의 密會, 이별했던 부부의 再會가 포함되어 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가지는 불만은 早婚으로 인한 性的 不調和, 남편의 外道 등으로 나타나며 남편이 아내에게 가지는 불만은 '여자의 좁은 소견'이다. 이처럼 나와 임의 관계를 노래한 아라리는 나와 임이 공간적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며 서정적 자아는 대부분이 여성이다.

이에 비하여 자아와 사회의 관계를 노래한 아라리의 서정적 자아는 대부분이 남성이다. 사회를 노래한 아라리는 58수로 두번째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가난으로 인한 사회적 소외감과 돈의 위력에 대한 원망; 近代化로 인한 전통적 사회질서의 해체 및 시국문제로 인한 불안감 등의 현실부정적인 내용(41수)과 술·여자·노래·친구 등을 소재로 한 현실향락적인 내용(17수)으로 大別된다.

자아와 가정의 관계를 노래한 것은 33수인데 이들은 시집살이의 고통과 이로 인한 친정에 대한 그리움(12수), 가난한 살림살이의 고통(9수),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증오(5수), 결혼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5수), 돌아가신 시부모에 대한 그리움(2수)으로 그 내용이 분류된다. 나와 가정의 관계를 노래한 아라리는 주로 여성의 고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래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관계를 노래한 27수의 아라리는 늙음 및 죽음에 대한 한탄(19수)과 막연한 自意識의 갈등(8수)으로 그 내용이 대별되고, 자아와 자연의 관계를 취급한 8수의 아라리는 모두 자연 질서의 영원함을 노래하고 있다. 늙었다가도 다시 젊어지는 자연, 졌다가도 봄에 다시 피는 꽃, 얼었다가도 봄에 다시 녹는 강물, 마디 마디 꺾어도 흰꽃만 피는 신돌배나무, 매년 번함이 없는 뻐꾸기 소리 등이 아라리에 투영된 자연이다. 이들은 표면으로 보아서는 자연의 영원성을 읊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한계성을 은연중 깔고 있다.

아라리는 희열보다는 고통을 많이 노래한다.

> 임자당신 가실 고개는 한고개가 되고
> 나 넘어갈 고개는 열두고개가 됩니다

라고 노래하는 아라리는 모든 아라리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듯하다. 아라리는 평탄대로 아닌 '고개'를 노래한다. 아라리는 후렴구가 아주 다양하지만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후렴구에 이 '고개'를 빠뜨리지는 않는다. 고개 너머 저쪽의 고통이 없는 삶의 세계로 나를 넘겨 달라고 아라리의 후렴은 노래한다. 그러나 고개 너머 저쪽의 충족된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펼쳐 보여 주는 아라리는 없다.

> 식은밥이야 달달볶아서 간난이아범 주고
> 간난이하고 나하고는야 또 굶어자자
>
> 부령청진에 삼수갑산이 얼마나 고와서
> 꽃같은 이 나를 두고서 돈벌러 가오
>
> 칠팔월 수숫잎은 철이나알고 흔드는데
> 우리집 시어머니 철도모르고 흔든다

등에서처럼 현실적 고통을 확인하고 토로함으로써 그것을 풀어 버리려 한다. 그러나 고통속에 갇혀서 그것을 토로한다고 해서 그것이 쉽사리 풀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실을 버리고 다른 세계를 찾아갈 수도 없고 현실을 변혁시킬 수도 없는 폐쇄된 상황에서 삶을 이어나가는 방법은 현실을 현실

로서 인정하고 그 현실과 부딪치면서 자기 자신을 굳게 다져 나가는 길밖에 없다. 현실세계와 拮抗關係를 가지면서 온갖 고통을 안으로 삼키고 삭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라리는 온갖 風霜을 다 겪은 사람이 가지는 특유의 이해심과 끈끈한 情의 세계로 들어간다. 아라리가 共感力이 강한 것은 그것이, 대상에 대한 솔직한 원망과 증오가, 어쩔 수 없이 갇히고 묶여진 삶의 공간에서 끈끈한 情으로 이어지는 깊은 체험에서 우러난 노래이기 때문이다.

서산에 지는해는 지고싶어 지는가
나를버리고 가시는임은 가고싶어 가나

시어머니 죽었다고 춤 추었더니
보리방아 물부어놓고 생각이 난다

그리고 이러한 깊은 체험은 滑稽의 성립을 가능하게 한다. 현실의 이해는 현실의 객관화를 가능하게 하고 현실의 객관화는 자아와 세계 사이의 거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悲壯이 대상에 몰입할 때 일어나는 정서라면 滑稽는 대상과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일어나는 정서이다. 자아와 세계 사이의 이 거리감은 자아의 超脫과 세계의 戱畵化를 가능하게 한다. 滑稽는 고통을 弱化시킨다. 그것이 고난의 고개를 넘어가는 방법인 것이다.

울타리를 뚝뚝꺾으면 나온다고 하더니
행랑채를 둘러치어도 아니나도 나온다

딸딸구르는 자동차를 요리집기생만 타나
돈만있으면 와다구시도 탈줄 아는데

시집간지 사흘만에 바가지장단을 쳤더니
시어머니 두눈이 가자미눈이 되었네

금강산 딱다구리는 생구멍도 잘뚫는데
우리집 저멍텅구리는 뚫린구멍도 못뚫네

우리집 시어머니는 약삭빠르기도 하지
울타리 개구멍을 다막아 놓았네

이처럼 아라리는 심각한 상황을 규범이 전도된 상황으로 바꾸어 놓기도 하고, 상황을 과장하기도 하고, 비속어나 외래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의 수법으로 고통과 원망을 諧謔으로 바꾸어 놓는다. 아라리에서의 외래어 사용은 특기할 만하다. 나지미, 우두마끼, 까시, 와다구시, 김상박상 등의 일본어와 하이칼라, 하이어 등의 영어가 아라리 가사에 흔히 쓰이는데 이것은 일종의 '낯설게 하기'의 수법으로 거리감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滑稽가 유발되는 소지를 만들어 준다.

아라리는, 대개의 민요가 그렇듯이,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형태가 극히 단순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直叙的인 표현으로 일관하고, 복잡하거나 세련된 수사적 기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단순한 比喩, 比較, 對照의 수법이 자주 쓰이고 대상에 대한 怨望의 감정을 다른 사물에 投射하는 기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법을 위해서 동원되는 것은 주로 自然이다. 산마루에 외로이 선 나무는 외로운 나에, 철쭉꽃은 정든 임의 얼굴에, 메꽃은 큰아기의 곱고 흰 얼굴에, 동백나무 젖순아기는 나이어린 소녀에 자주 비유된다. 그러나 아라리에 나타나는 자연은 세속적 삶의 불완정성, 한계성, 미흡성에 대조되는 완전성, 영원성, 충족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서의 비중이 더 중요하다. 자연은 늙었다 젊었다 하지만 인간은 한번 늙으면 젊어질 줄 모르며, 고추는 늙을수록 매워지는데 인간은 늙을수록 추해진다. 동백알은 떨어져도 낙엽에 감싸이지만 나를 감싸주고 안아 줄 임은 없으며, 머루 다래는 떨어져도 꼭지는 남지만 인간은 한번 이별하면 꼭지도 없다. 매미 소리와 뻐꾸기 소리는 언제나 듣기 좋지만 잠든 임의 숨소리나 과수의 한숨소리나 시어머니의 소리는 듣기가 싫다. 또한 뻐꾸기 소리는 해마다 변함이 없지만 인간은 해마다 늙어간다. 고드름은 봄바람에 풀어지지만 내 심정은 봄이 와도 풀어지지를 않으며, 산은 높고 골은 깊지만 여자의 소견은 좁기만 하다. 怨望의 감정을 迂廻하여 投射하는 대상도 아주까리, 동백, 줄봉숭아, 맨드라미, 버들잎, 거무노리(나물 이름), 접동새, 기러기 등의 자연이다. 열라는

콩팥은 아니 열고 동백꽃만 흐드러지게 피어 春情을 불러일으키니 동백꽃이 원망스럽고, 오늘 내일 집을 떠나야 할 텐데 아내가 마당에 심어 놓은 줄봉숭아 맨드라미가 내 마음을 붙잡으니 그 줄봉숭아 맨드라미가 원망스럽다. 빨래하는 개울물에 임의 얼굴이 비치는데 버들잎의 反影이 임의 얼굴을 가리니 버들잎이 원망스럽기도 하다. 필자의 통계에 의하면 아라리에 나타나는 자연은 동물성, 광물성에 비하여 식물성이 월등하게 많다.

아라리는 고개 너머 저쪽, 삶의 고난이 없는 곳으로 나를 넘겨 달라고 하면서 고개 이쪽의 고통스러운 삶을 植物的 이미저리로 노래한다. 결코 넘을 수 없는 고개의 이쪽에서 눈물로 고통을 토로하고, 끈끈한 情으로 고통을 삭히고, 웃음으로 고통을 超克한다.

소모는소리는 가사보다 가락 중심으로 발달한 勞動謠이다. 가령 길쌈 노동요 같은 것은 단순하고 느리고 오래 계속되는 작업에 따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노동의 내용과 관계없이 想像力이 동원되기도 하고 敍事化되는 여유도 있지만 소모는소리는 소와 함께 몸 전체를 움직이면서, 더군다나 이동하면서 하는 힘든 작업(특히 강원도 지역은 산악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자)에 따르는 소리이기 때문에 가사 내용은 작업과정을 간단하게 진술할 뿐이고 대신 가락이 발달한 것이다. 夕陽이 드리운 고즈넉한 저녁때 산기슭에서 마을에까지 들려오는 소모는소리는 처량하고도 아름다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마을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그 노래를 들었었노라는 노인들의 회고담을 필자는 현지답사 중에 여러 번 들었다. 인간과 동물, 세속과 자연, 노동과 놀이가 완벽하게 조화된 이러한 세계는 한 폭의 아름답고 정겨운 그림을 연상하게 한다. 노동의 어려움을 승화시키는 슬기를 엿볼 수 있다.

소모는소리의 가사는 2인칭으로 되어 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소에게 주는 말이다. 동작, 방향, 주의사항, 작업후의 보상 등을 작업 상황에 일치되게 마치 사람에게 말 건네듯 소리를 준다. 인총이 적은 산비탈에서 소와 사람이 혼연일체가 된 상황을 연출해 내며 소를 아껴주는 마음이 잘 나

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모는소리가 요즈음은 경운기에 밀려 사라져 가고 있다.

회다지소리는 葬禮 절차중 下棺한 뒤에 흙과 灰를 다지면서 부르는 儀式謠이다. 先後唱으로 부르는데 한 사람의 선소리꾼은 壙의 밖에서 소리를 메기고 여러 사람의 달구꾼들은 壙中에서 횟대와 발질로 흙과 灰를 다지면서 소리를 받는다. 받는 소리는 "에야 호리 다할공"이고, 메기는 소리의 순서는 일정하지 않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山神, 土地神에게 고하여 그들 神이 下降하게 하고, 계원(달구꾼)들에게 고하여 '먼데 사람 듣기 좋게, 곁에 사람 보기 좋게' 소리와 동작을 잘 맞추어 줄 것을 당부한다. 받는 소리가 약하면 '웅장하고 힘차게들' 받아 줄 것을 추가하여 당부하기도 하고 작업이 끝난 뒤의 보상을 제시하여 달구꾼들에게 기대감을 심어 주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작업과 소리가 제궤도에 올랐다고 판단되면 선소리꾼은 本歌詞를 메기기 시작하는데 본가사는 작자 미상의 「玉屑和答歌(玉屑歌)」, 西山大師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불교선전가사 「悔心曲(回心曲)」, 西道雜歌인 「楚漢歌」 등을 차용한다. 이 책에 채록된 14편의 회다지소리 중에서 「玉屑歌」를 부른 것이 8편, 「悔心曲」을 부른 것이 2편, 「楚漢歌」를 부른 것이 2편, 그리고 「玉屑歌」와 「悔心曲」을 함께 부른 것이 2편이다. 「玉屑歌」가 가장 많이 이용됨을 알 수 있다. 이들 가사를 그대로 부르는 것은 아니고, 앞뒤 순서를 바꾸어서 메기기도 하고 중간 중간에 현장의 분위기와 조건에 맞게 내용을 바꾸거나 해당 가사에 원래 없는 내용을 만들어 삽입시키기도 한다.

「玉屑歌」는 시간과 공간이 무한히 확장되어 있는 작품이다. 천지가 개벽하여 인간과 만물이 생겨난 유래를 설명한 다음 古朝鮮 이후의 우리 나라 역사를 중국의 역사와 병행하여 서술하고 중국의 명산대천으로부터 우리 나라 各道의 명산대천을 열거한다. 이러한 무한한 시간과 공간이 '지금' '여기'로 촛점이 맞추어져 현재 灰를 다지고 있는 이 墓자리가 '宇宙의 中心' 즉 明堂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이 묘자리에 묻힌 이의 가문이 무궁무진

하게 번영하여 앞으로 이 가문에서 훌륭한 인물이 많이 태어날 것임을 노래한다. 「玉屑歌」는, 그 내용은 神聖하고 그 情調는 莊嚴하기까지 하다. 우주의 질서를 노래할 뿐 죽음에 대한 공포나 有限한 삶에 대한 허무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으며, 무덤에 묻힌 사람의 안식에보다는 후손의 번영에 관심을 둔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現實主義的 사고방식이 여기에서도 나타난다. 葬禮祭儀가 인생무상을 참절처절하게, 그리고 구성지게 토로하는 상여소리(香徒歌)로 시작해서 현실적 번영을 기원하는 회다지소리로 마무리되는 것은 자못 示唆的이다.

「悔心曲」은 그것이 가지는 종교적 성격 때문에, 「楚漢歌」는 그것이 가지는 雄渾한 분위기 때문에 회다지소리에 차용된 듯하다.

4. 마 무 리

洪川地域은 洪水說話 계통의 傳說과 아기장수傳說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산봉우리만 남았다거나 산 위에 배를 매었던 자취가 남아 있다는 고리峰傳說은 杜陵山, 種子山, 孔雀山, 五音山, 白羽山, 무쇠말재 등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데 비해서 마을 자체가 배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行舟形 전설은 洪川邑 葛嶺谷里와 東面 魯川里의 두 곳에서만 채록되었다. 그리고 달래고개전설型은 심한 굴절을 겪어 소나기의 존재조차 제거된 며느리고개전설로 한 군데에만 남아 있다. 長者못전설型은 南面 花田里, 化村面 九城浦里, 東面 開雲里·魯川里, 斗村面 遠洞里, 乃村面 道寬里·瑞谷里·瓦野里 등 여러 곳에 전승되고 있는데 惡人이 시아버지가 아니라 며느리로 뒤바뀌어 나타나고 물로 벌하는 것이 아니라 중이 며느리로 하여금 스스로 穴을 끊게 하여 벌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연못의 존재가 제거되어 있다. 洪川지역 洪水說話 계통의 전설들은 소나기, 연못 등 물 이미지가 破石·破穴의 風水地理 모티프와 관련되는 바위, 산 등의 광물성 이미지로 代置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風水地理의 모티프가 강하게 결합되는 양상은 아기장수전설에서도 발견

된다. 아기장수전설은 西面 諸谷里, 南面 陽德院里, 洪川邑 三馬峙里·檢律里·瓦東里, 化村面 也是垈里, 斗村面 哲亭里, 乃村面 道覓里, 瑞石面 儉山里, 內面 紫雲里 등 여러 곳에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이 風水地理로써 아기장수의 출생을 설명하고 있다. 官軍이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특징으로 들 만하며 李适전설도 기본 모티프는 아기장수전설이라는 것을 특기할 만하다.

洪川地域의 民謠에서 대표적인 勞動謠, 儀式謠, 非機能謠로는 소모는소리, 회다지소리, 아라리를 각각 들 수 있다.

소모는소리는 가사보다는 가락이 발달해 있는 민요인데 인간과 동물, 세속과 자연, 노동과 놀이의 조화를 잘 나타낸다. 가사는 2인칭으로 되어 있으며 소에 대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다.

葬禮祭儀를 마무리짓는 회다지소리는 神聖하고 莊嚴하며 후손의 번영을 기원하는 現實主義的 思惟를 담고 있다. 상여소리가 죽은 사람에 대한 노래라면 회다지소리는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노래이다.

아라리는 서민들의 全生活體驗의 明暗을 간결하고 진솔하게 形象化하고 있는데 희열보다는 고통을 많이 노래한다. 넘을 수 없는 고통의 고개 이쪽에서 고통을 토로함으로써 고통을 稀釋하고, 어쩔 수 없이 묶여진 인간관계에서 끈끈한 情으로 고통을 삭히며, 궁극에 가서는 滑稽로써 고통을 超克한다. 아라리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植物性 이미지로 노래한다.

그러나 아라리를 이렇게만 설명할 수는 없을 듯하다. 그것은 워낙에 큰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아라리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조사 및 이 지역과의 對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회다지 소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說話 分野에서는 특히 風水地理 모티프에 대한 깊은 고찰이 요망된다. 그것은 江原道의 地域文化는 물론 韓國人의 思惟體系를 밝혀내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附　錄

說話모티프索引
아라리歌詞索引

凡　例

說　話

1. 說話의 어떤 모티프가 여러 항목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실었다.
2. 모티프 다음의 숫자(이탤릭체)는 그 모티프가 들어 있는 說話의 제목이 있는 페이지를 가리킨다.
3. 같은 페이지에 제목이 두 개 있는 경우에는 上·下로 구별하였다.
4. 모티프 앞에 *표를 지른 것은 그 證據物을 洪川地域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 라 리

1. 아라리歌詞索引은 표준어로 바꾸어서 작성하였다.
2. 歌詞 다음의 숫자는 작품번호를 가리킨다.
3. 작품번호 앞에 *표를 지른 것은 엮음아라리이다.

說話모티프索引

起　　源

호랑이에게 쫓겨 하늘로 올라간 오뉘가 각각 달과 해가 되다. 248·252
오뉘가 결혼하여 낳은 자식이 인류가 되다. 33
모자가 결혼하여 낳은 자식이 인류가 되다. 35上
수수깡이 호랑이 피 때문에 빨갛다. 248

洪　　水

* 산이 홍수에 종지만큼만 남다. 31上
* 산이 홍수에 공작새만큼만 남다. 31下
* 산이 홍수에 매 한 마리 앉을 만큼만 남다. 35下
* 산이 홍수에 논두렁만큼만 남다. 31上
* 산 위에 해당화가 피고 물모래가 있다. 77
* 홍수때 배를 매었던 말뚝이 산봉우리에 있다. 32上·32下·33
* 홍수에 배가 산으로 넘어다니다. 32上
* 산에 배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 32下
어떤 사람이 홍수에서 어린아이와 노루와 구렁이를 구해주다. 38
홍수로 온 천지에 모자만이 살아남다. 35上
홍수로 온 천지에 남매만이 살아남다. 33

神·神靈·老人

* 시어머니, 며느리, 시누이가 여산신이 되다. 44
할머니가 여산신이 되다. 41
* 대감이 산신령이 되다. 45
할아버지가 산신령이 되다. 41
* 산신령에게 기도 드리고 왕이 되다. 142
* 산신령이 산삼자리를 가르쳐 주다. 41·46·47·48

신령이 효자에게 산삼을 주다. 157
* 산신령이 나귀를 못 지나가게 하다. 37
* 산신령이 말을 못 지나가게 하다. 114
서낭신이 말을 못 지나가게 하다. 50
서낭신이 사람에게 통행료를 받다. 50
* 산신령이 자기 은혜를 배반한 사람을 죽이다. 48
머슴이 서낭을 베어다 집을 짓다. 49
머슴이 대통운으로 서낭신을 굴복시키다. 49
사람이 백마 피로 서낭신을 굴복시키다. 50
* 장수가 말 피로 산신령을 굴복시키다. 114
노인이 사라진 아내를 찾는 방도를 가르쳐 주다. 179·188
노파가 준 백강아지가 용궁길을 인도하다. 179

龍·이무기·구렁이

* 구렁이가 구슬 세 개를 사람에게 주다. 176
구렁이가 머슴에게 여의주를 주다. 272
구렁이가 사람 살리는 잎사귀를 사람에게 주다. 38
구렁이가 머슴을 업고 강을 건너가다. 272
* 이무기가 들어와 머슴이 부자가 되다. 65
* 이무기가 나가 부자집이 망하다. 65
* 용이 나가 마을이 망하다. 68
* 용이 나가 동네 여자들이 바람이 나다. 68
* 이무기가 소를 잡아먹다. 62上·62下·63·64
장수가 용낚시로 용만 잡아먹다. 154
* 이무기굴에 개의 피를 뿌리니 비가 오다. 64
* 시신이 용이 되려 하다. 109·110·112
* 아이가 가래질을 하다가 지렁이를 자르다. 147
* 구렁이가 사람에게 원한을 품다. 176
* 아내가 구렁이를 물리치고 남편을 구하다. 176
* 용과 장수가 힘내기 시합을 하다. 69
* 용이 산줄기를 끊어 놓다. 69

중

* 중이 숭늉을 뿌려 먼 데 절의 불을 끄다. 147

* 중이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다. 147
* 이미 죽은 중이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다. 147
중을 후대한 며느리가 목숨을 부지하다. 61
* 중을 박대한 부자가 망하다. 60·61
중을 박대한 부자집 터가 연못이 되다. 61
과부가 중을 잘 제워 보내 복을 받다. 255
부인이 중과 사통하여 아들을 낳다. 169
중이 동침한 과부에게 하얀 씨를 주다. 255
중이 과부에게 준 씨가 자라 줏나무가 되다. 255
* 중이 달걀로 명당자리를 확인하다. 77·79·80
* 중이 명당자리를 잡아 주어 승지가 되다. 83
* 중이 묘자리를 잡아 주다. 118·121
* 중이 머슴에게 부자 되는 묘책을 일러 주다. 65
* 중이 며느리에게 손님 끊는 묘책을 일러 주다. 53·54·55·56·58·59
* 중과 지관이 묘자리를 두고 다투다. 121
* 왕벌이 중을 쏘다. 121
* 왕벌이 중을 쏘아 죽이다. 118
* 중이 나무를 베니 장수하는 사람들이 죽다. 75
* 중이 절에서 목탁을 치니 동네 여자들이 바람이 나다. 71

도 깨 비

가난한 혹부리 영감이 도깨비에게 혹을 팔게 되다. 254
도깨비가 총각의 운세를 알아맞히다. 237
도깨비가 벼슬 점괘 난 총각을 보고 무서워 도망가다. 237

장 수

* 아기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붙어 있어 날아다니다. 127上
* 아기가 날아서 천장에 가 붙다. 118·123·135
* 아기가 날아서 시렁 위에 올라앉다. 118·121·127下·128·130
* 부모가 아기장수의 어깨를 지지다. 137
* 아기장수가 부모의 실수로 우둔한 장사가 되다 137
* 아기장수가 자기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다. 129·133
* 부모가 아기장수를 죽이다.

118·121·123·126·127上·127下·128·130·133·135
* 아기장수가 죽자 용마도 따라 죽다.
118·121·123·126·127上·127下·128·129·130·133·135
* 저릅대가 아기장수의 진언으로 군대가 되다 130
* 강에 던진 팥이 군사가 되어 가다. 109
* 땅에 묻은 도토리가 군사가 되어 가다. 110
* 죽은 아기장수가 무덤에서 사라지다. 129
* 같은 마을에서 아기장수가 계속 태어나다. 135
* 장수가 철갑을 바위 속에 감추다. 141
* 장수가 적군에게 쫓겨 바위 속으로 들어가다. 141
* 동작이 날랜 장수가 신수로 첩을 죽이다. 116
* 장수가 말 피로 산신령을 굴복시키다. 114
* 장수 둘이 힘내기 시합을 하다. 70
* 장수와 용이 힘내기 시합을 하다. 69
* 장수가 산줄기를 끊어 놓다. 70

바 보

바보가 호랑이를 잡다. 294
바보가 도둑을 잡다. 259
바보가 부자의 딸과 결혼하다. 294
바보가 부자와 내기를 하다. 294
바보 신랑이 못된 신부를 길들이다. 221
바보 남편이 아내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다. 232
바보가 자기집을 남의 집으로 오인하다. 239
바보가 같은 사람을 계속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다. 239
바보가 돈을 묻고 다시 못 찾다. 239
바보가 돈을 묻고 도둑맞다. 239
바보사위가 장모에게 욕을 하다. 232

風 水

* 머슴이 묘를 잘 쓰고 중국의 천자가 되다. 77·79·80
* 중이 명당자리를 잡아 주어 승지가 되다. 83
아버지의 유언대로 묘자리를 써 정승이 되다. 89

* 그 무덤을 먼저 벌초하는 사람이 산삼을 캐다. 79
* 머슴이 묘를 잘 써 부자가 되다. 91·94
* 묘자리를 빌려 준 사람이 부자가 되다. 97下
* 중이 달걀로 명당자리를 확인하다. 77·79·80
수수께끼를 풀어 묘자리를 잡다. 89
* 머슴이 지관의 말을 엿듣고 명당자리를 잡다. 94
지관이 정승댁 며느리의 도움으로 명당자리를 잡다. 104
* 지관과 중이 묘자리를 두고 다투다. 121
* 시신을 개천에 묻어 그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다. 113
* 시신을 바로 묻어 그 시신이 용이 되지 못하다. 109·110·112
* 시신을 바로 묻어 그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다. 109·110·112
* 명당자리에 비석을 세워 지세가 꺾이다. 94
* 부자가 묘자리 욕심을 부리다 망하다. 97下
지관이 묘자리를 잘못 잡아 주어 집안이 망하다. 100
* 며느리가 산소를 파니 그 집안이 망하다. 55
* 며느리가 바위를 깨니 그 집안이 망하다. 53·58·59·130
* 며느리가 돌담을 쌓아 그 집안이 망하다. 54
* 바위를 깨니 그 속에 있던 금붕어 한 쌍이 사라지다. 130
* 바위를 깨니 그 속에 있던 학 한 쌍이 날아가다. 97上·130
* 바위를 깨니 그 속에 있던 왕벌이 나오다. 118·121
* 묘를 파니 그 속에 있던 학이 날아가다. 55
* 묘를 파니 그 속에 있던 비둘기가 날아가다. 83
* 묘를 파니 시체에 꽃이 피어 있다. 83
* 묘를 파니 시체에서 피가 나오다. 110
* 산의 혈을 끊으니 그 속에서 피가 나오다. 56
* 칡을 끊으니 칡에서 피가 나오다. 147
* 며느리가 산의 혈을 끊자 그 집안이 망하다. 56
* 바위를 건드리니 동네 여자들이 바람이 나다. 73
* 용이 산줄기를 끊어 놓다. 69
* 장수가 산줄기를 끊어 놓다. 70
* 나라에서 역적 집안의 혈을 자르다. 115

禁　　忌

* 절에서 목탁을 치니 동네 여자들이 바람이 나다. 71

* 바위를 건드리니 동네 여자들이 바람이 나다. 73
* 용이 지나간 자리를 메우니 동네 여자들이 바람이 나다. 68
나뭇군이 노루가 일러 준 금기를 지키지 못하다. 217
※ 風水條중 破石, 破穴모티프 참조

呪 寶

구렁이가 여의주를 머슴에게 주다. 272
* 구렁이가 구슬 세 개를 사람에게 주다. 176
구렁이가 사람 살리는 잎사귀를 사람에게 주다. 38
호랑이가 사람 살리는 잎사귀를 사람에게 주다. 286
쥐가 사람 살리는 자(尺)를 사람에게 주다. 286
노인이, 둔갑한 여우를 물리치는 뒤웅박 세 개를 주다. 193
여자가 돈이 계속해서 나오는 주머니를 주다. 268

變 身

남편이 호랑이로 둔갑하다. 201
딸이 여우로 둔갑하다. 193
아내(여동생)가 매로 둔갑하다. 217
처남(오빠)이 꿩으로 둔갑하다. 217
장모(어머니)가 닭으로 둔갑하다. 217
장인(아버지)이 똥종가레로 둔갑하다. 217
쥐가 신랑으로 둔갑하다. 197下
여우가 신부로 둔갑하다. 197上
여우가 노파로 둔갑하다. 196
똑같이 생긴 신부 둘을 구별 못하다. 197上
똑같이 생긴 신랑을 구별 못하다. 197下
수캐가 신부로 둔갑한 여우를 잡다. 197上
고양이가 신랑으로 둔갑한 쥐를 잡다. 197下
소금장수가 할머니로 둔갑한 여우를 잡다. 196

誕 生

처녀가 떠내려오는 사과를 먹고 아들을 낳다. 101

부인이 시주 받으러 온 중과 사통하여 아들을 낳다. 169
여인이 죄값으로 팥망아지 같은 아기를 낳다. 203
사과 먹고 낳은 아이의 그림자가 없다. 101

結　婚

나뭇군이 선녀와 결혼하다. 217
양반이 백정의 딸과 결혼하다. 228
기생이 적자를 버리고 서자를 선택하여 결혼하다. 234下
바보가 부자의 딸과 결혼하다. 294
서당 총각이 문둥병 걸린 여인과 결혼하다. 206
총각이 처녀의 병을 고쳐 주고 장가들다. 205

近親相姦

남매가 결혼하여 인류의 씨를 퍼뜨리다. 33
모자가 결혼하여 인류의 씨를 퍼뜨리다. 35上
*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함께 가다가 잃어버린 짚신을 찾으러 가다. 37
*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삼은 짚신을 팔러가다. 37
* 며느리가 고개 위에서 호랑이에게 물려가다. 36
* 며느리가 고개 위에서 도둑에게 납치되다. 36
*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함께 가다가 고개 위에서 사라지다. 37
*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가다가 고개 위에서 사라지다. 35下

人　倫

부모를 위해 자식을 땅 속에 파묻다. 158
어머니의 병을 고치려고 자식을 끓여 먹이다. 157
자식이 병든 노모에게 해골에 고인 물을 먹이다. 159
며느리가 눈 먼 시어머니에게 지렁이를 먹이다. 161
아들이 홀어머니의 사랑을 위해 다리를 놓다. 162
부부가 젯상 앞에서 동침하다. 165
산 자식을 묻은 자리에서 돈이 나오다. 158
신령이 효자에게 산삼을 주다. 157
끓여 죽인 자식이 살아서 오다. 157

노모가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병이 낫다. 159
눈 먼 시어머니가 지렁이를 먹고 놀라서 눈을 뜨다. 161
아들이 사람을 못 죽여 아비지의 병을 고치지 못하다. 163
아내가 나이 어린 신랑을 박대하다. 234上
* 부자집에 손님이 많이 들어 며느리가 귀찮아하다. 53·54·55·56·58·59

應 報

구렁이가 은혜를 갚다. 38
호랑이가 은혜를 갚다. 286
노루가 은혜를 갚다. 38
사슴이 은혜를 갚다. 217
참새가 은혜를 갚다. 205
사람이 개에게 은혜를 갚다. 202
사람은 은혜를 배반하고 동물은 은혜를 갚다. 38
과부가 중을 잘 재워 보내 복을 받다. 255
중을 후대한 며느리가 목숨을 부지하다. 60·61
남이 상 받은 것을 따라하다 벌을 받다. 165
욕심장이 혹부리 영감이 혹을 하나 더 붙이게 되다. 254
* 부자가 중을 박대하고 망하다. 61
과부가 중에게 못할 짓을 하여 벌을 받다. 255
과거길에서 만난 여인의 요구를 못 들어 주어 과거에 낙방하다. 277
※ 人倫條의 일부 항목 참조.

致富·出世

* 묘자리를 빌려 준 사람이 부자가 되다. 97下
* 머슴이 묘를 잘 써서 부자가 되다. 91·94
* 이무기가 들어와 머슴이 부자가 되다. 65
머슴이 남의 점을 쳐다 주고 부자가 되다. 272
가난한 사람이 송장으로 부자를 속여 부자가 되다. 222
대추를 독점하여 부자가 되다. 268
* 노인이 우연히 왕을 방문하여 부자가 되다. 144
백정의 딸이 양반집을 일으키다. 228
주머니에서 돈이 계속 나오다. 268

* 소금장수의 꿈으로 인해 왕이 되다. 142
* 산신령에게 기도하고 왕이 되다. 142
* 머슴이 묘를 잘 쓰고 중국의 천자가 되다. 77·79·80
* 중이 명당자리를 잡아 주어 승지가 되다. 83
아버지의 유언대로 묘자리를 써 정승이 되다. 89
꿈을 잘 꾸고 부귀를 얻다. 286
과거 길에서 만난 여인의 도움으로 장원급제하다. 278

沒 落

* 부자가 연못을 메우자 용이 나가 마을이 망하다. 68
* 이무기가 나가 부자집이 망하다. 65
* 부자가 묘자리 욕심을 부리다 망하다. 97下
지관이 묘자리를 잘못 잡아 주어 집안이 망하다. 100
* 명당자리에 비석을 세워 지세가 꺾이다. 94
* 며느리가 산의 혈을 끊자 그 집안이 망하다. 56
* 며느리가 산소를 파니 그 집안이 망하다. 21
* 며느리가 돌담을 쌓아 그 집안이 망하다. 54
* 며느리가 바위를 깨니 그 집안이 망하다. 53·58·59·130
* 부자가 중을 박대하고 망하다. 60·61
* 빈대가 들끓어 절이 망하다. 112

探 索

아들이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 길을 떠나다. 169
남편이 잃어버린 아내를 찾아 길을 떠나다. 179·188·217

競 爭

* 오누이가 힘내기 시합을 하다. 116
* 용과 장수가 힘내기 시합을 하다. 69
* 장수 둘이 힘내기 시합을 하다. 70
부자가 딸을 걸고 바보와 내기를 하다. 294
행인 둘이서 점치기 시합을 하다. 264
* 지관과 중이 묘자리를 두고 다투다. 121

退　　治

남편이 지하대적을 물리치고 아내를 구하다. 179·188
* 아내가 구렁이를 물리치고 남편을 구하다. 176
* 장수가 말 피로 산신령을 굴복시키다. 114
사람이 백마 피로 서낭신을 굴복시키다. 50
머슴이 대통운으로 서낭신을 굴복시키다. 49

智 慧·機 智

남편이 기지로 아내의 허물을 감싸 주다. 234上
남편이 송장으로 아내의 음행을 고치다. 222
신랑이 엿으로 못된 신부를 길들이다. 221
처녀가 지혜로 누명을 벗다. 213
며느리가 지혜로 누명을 벗다. 104
쫓기는 여인이 상복을 입고 위기를 넘기다. 91
아이가 기지로 적장을 놀라게 하다. 150
죽은 시늉하는 꾀로 남의 빚을 떼어먹다. 267
비상한 눈치로 모든 것을 알아맞히다. 257

豫 言·占

점을 쳐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의 이름을 알아맞히다. 264
점을 쳐서 나올 음식의 종류를 알아맞히다. 264
지관의 영뚱한 예언이 절묘하게 들어맞다. 83
장군이 누이의 점괘를 믿지 않아 침략에 실패하다. 150
도깨비가 총각의 운세를 알아맞히다. 237

其　　他

* 대감의 말이 칡에 걸려 넘어진 후로 칡이 없어지다. 45
* 짚북을 치니 큰 소리가 나다. 77·80
* 바위 위에 돌을 던져 적중하면 아들을 낳다. 74
사람이 세의 말을 알아듣다. 169

아이가 강아지를 마음대로 부리다. 150
아내가 쌍무지개를 타고 사라지다. 179
아내가 공중의 휘파람 소리에 사라지다. 188
* 어떤 사람이 들판에 금 항아리를 묻어 놓다. 76
* 혼령이 남의 집에 가 제사밥을 먹다. 168
구렁이가 빠져 죽은 술을 먹고 문둥병을 고치다. 206
개가 주인을 구하고 죽다. 202
* 왕이 신분을 감추고 촌로와 인연을 맺다. 144
*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반대로만 듣다. 109·110·112·113
영감이 명주를 주고 옛날 이야기를 사다. 263
옛날이야기가 우연히 도둑을 쫓다. 263

歷史的 人物

道 詵 91
* 李 成 桂 142
* 龍 得 義 142
* 權 專 45
* 肅 宗 144
柳 成 龍 154
西山大師 149
* 瑞谷大師 147
朴 文 秀 165
金 得 臣 239
* 李 适 109·110·112·113·114·115·116
金 東 三 150
扁 鵲 159
石 崇 272
龍 骨 大 150
李 如 松 154
加藤清正 150

아라리 歌詞索引

第 1 行

〈ㄱ〉

가는 임에야 허리를 312
가면은 가고 51
가을철인지 봄철인지 277
간다 가누나 228
간다지 못 간다지 30·114·438
갈 본 기러기 꽃 본 나비야 117
갈철⇨가을철
감자를 까 놓고서나 127
강 건너다가 유정님 36
강냉이밥 사절치기는 475
강원도 금강산 일만이천봉 *55·*110·*165·*174·*197
개울가야 파릇파릇해 396
건넌산에 진달래꽃은 239
겨울인지 봄철인지 236
경성읍내⇨정선읍내
고개 고개 넘어가다가 220
고추는 늙을수록 5
곤드레 만드레 387·406
골이나 깊으면 245
공동묘지야 도굴장을 84
공동묘지야 말뚝장승아 214
공동묘지에 가신 임도 91
공산명월에 두견이 접동새 314
공산명월에 비삽십은야 402
구룡천지⇨부령 청진
국화꽃이 고와도 285
국화도 한철에 449
그믐달 술이 458
금강산 딱다구리는 375
금전의⇨문전의
기차는 떠나자구 88
기차 떠난 철로가에 439
기차 전차 떠나는 데는 281
까만 화투장이 418
꿀 베러 가는 데로 463
꽃이나 썩으면은 293

〈ㄴ〉

나는두 너를 보면 132
나를 데려 가거들랑은 386
나를 버리고 173·218
나를 싫다고 나를 마다고 8
나물 바구니 옆에 끼고서 422
나이는 좋아서 열여덟 살 185

내동강 칠백리에다 69
낸쳡산경 고드름은 473
날다⇨나를
남의 집 남편은 450
남포야 등잔아 303
내와야 가면은 229
내가 죽고야 네가 살면은 311
내 발 죽고 내 사위야 452
내 팔자나 네 팔자나 *113
너나 나나 죽어지면 6·342·*354
너는야두야 나를 보면은 305·321·334
너 잘났느니 나 잘났느니 159·389·447·465
네가 먼저 살자고 58
네가 잘나서 15·177·370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37
네가 잘났나 누가 잘났어 164
네차 죽고서 내가 살면 150
네차 죽든지 내가 죽든지 52
네 팔자나 내 팔자나 *53·*166·*181·*297·*298·*309
넥타이야 풀어진 것은 340
노랑무 메가리 427
노랑저고리 분홍치마를 12·255·448
노랑저고리(앞섶에·오지랖에) 33·155·301
논둑아 밭둑아 363
논밭천지 쓸 만한 것은 71
놀다가 죽어도 83·130·206·231
놉시다 놉시다 85
높으나(높은) 상상봉에 432
높은 산에 제 날리듯 *248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89·141·353
니⇨너, 네

〈ㄷ〉

담 넘어 올 적에는 191
담배불이 반짝반짝해 356
당신은 나를 알기를 238
당신은두나 당신이고 326·335
대밭에 원수는 38
도라지 꼬장이는 128
도랑가에나 푸릇푸릇해 28
도랑가에야 거무노리는 176
돈 잘 쓰고야 술 잘 벼을 제는 82
돈 잘 쓰고서 말 잘 할 제는 198
동지섣달 쌓이는 눈은 259
두룽산의 머루다래는 2
뒷동산 곤드레 딱주기가 103·313·336
뒷동산 동백나무 233
뒷동산에 철쭉꽃은 42·315·338
뒷집의 김도령은 122
드렁산⇨두룽산
딸딸 구르는 자동차를 74
떡은두 발아서 146·188
떨어진 동백알은 361

〈ㅁ〉

마당웃전에 수숫대는 264
만나 보기야 하 좋기는 80
만나 보세 만나 보세 186·421
만반 진수 차려 놓고 424
말 못하는 이미도리 382
머루 다래 떨어진 것은 237·398·444
머루 다레야 썩은 물은두 79
멸구⇨머루
메꽃같이 곱던 얼굴 199
명사십리가 아니라면은 57·107·359
명사십리 해당화야 279
모시대 참나물 244
목말라해야 소주 약주를 317
못 먹는 술 한 잔을야 399
못 하는 소리를 300·376
무산자 무산자 294
무정세월아 63
무정세월은 16
무정한 기차가 67
무정한 기차는 250
무정한 기차야 388·459
무주 공산에 불 붙은 것은 445
무주 공산의 산비둘기는 295
무주 중천에 떠다니는 254
무지⇨무주
문고리 잡고서 147·192
문전 옥답 남전 북답은 125·219
물동이를 이고서 105
물동이 안에다가서 124
물러라 죽는 것은 343
물 본 기러기야 꽃 본 나비는 325
물이 깊어서 못 오시나 99
미나리밭 칼나물은 25

〈ㅂ〉

바람은 불고 불수록 234
바람이 불거든 26
바람이 불어서 460
반짝반짝 등잔불은 31
받으라는 술잔에 410
배고파 지어 놓은 밥은 94
백문산에 철쭉꽃을 323
버선에 잔불은 260
복사꽃이나 곱다 하여도 47
봄철인지 가을철인지 212·252·430
부귀공명 잘 사는 것도 291
부령 청진 가신 낭군은 201·226·253·346·350
부령 청진에 삼수 갑산이 290
북망산천에 공동묘지에 407
북망산천은 얼마나 멀어 98
북망산천이 멀다 해도 78
비가 올라나 눈이 올라나 102·160·274·296·358
비비룬장에 광대집에는 20

〈ㅅ〉

사람마다 버슬을 하면 287
사랑에 지나 두눈에 대줄도 339
산골 시악시를 천해 놓으면 45
산수 갑산⇨삼수 갑산

산수에 자규가 17
산이나 고와서 50
산이나 높아야 49·135·169·207·215·225·275·304·319·462
산제당 까막까치는 223
산중 나무 쓸 만한 것은 474
산중에 머루 다래 떨어진 것은 21
산지당⇒산제당
산차지 물차지는 451
산천의 딱다구리는 180
산천에 머루 다래는 292·364
산천의 초목은 115·240
산천이 푸르러서 116·131·209
산천 초목도 임자가 있건만 210
산천 초목에 물각유주도 3·368
산천 초목이 고와서 434
삼남산⇒앞남산
삼수 갑산 머루 다래는 29
삼수 갑산 부령 청진 가신 낭군은 90
삼수 갑산 부령 청진이 270
삼천리 강산에다 70
삼칠산에 곤드레 딱주기가 151
새벽 높새 찬바람에 347
생긴 돌이 돈 갈으면 477
서른한 해 도라지꽃은야 437
서산에 지는 해가 246
서산에 지는 해는 11·24·397·433
서산에 해는두나 22
서양 약국에 병원 의사가 106
서울 장안에 불 붙은 것은 92
석세베 도랑치마를 213·441
설악산 꼭대기 419·440
세상에도 맨발 벗구나 144
세월아 네월아 470
세월아 멈춰라 136
세월아 봄철아 352
세월아 봄철인지 137
세월이 가걸랑은 68
세월이 가는 것은 341
세월이 갈라면은 208·230·249·351
세월인지 아닌지 232
세월인지야 네월인지야 365
소나무 속이 썩어서 472
수수밭 텃도지는 81·190
술 아니 먹자고 23·205·330
술은야 술술이 329·333·379
술이라도 먹거들랑 357
술 잘 먹고 돈 잘 쓸 적에는 123·171·273·331·401
술집에 갈 적에는 139·443
스스슬 동풍에는 65
슥세베⇒석세베
시내 강변에 불 붙은 것은 134
시냇가에 빨래소리 48·263
시누야 올캐야 119
시들시들 봄배추는 466
시방 산천은 얼마나 멀어서 96
시아버지가 죽었다고 195
시어머니가 죽었다고 196
시집간 지 삼일 만에 118
시집살이를 못 하고서 140·251·457
시집살이를 못 하면 243
시집살이를 하려니 204
시집살이 삼년을 217
시집살이 할 마음은 32
시화연풍에 궂은 비만 269
식은 밥 먹기 싫은 건 390
식은 밥이야 달달 볶아서 391
신고 산천에 머루 다래는 153
신작로가 넓어서 54·373

산작로 가로수 404
산작로 복판에 73·468
산작로 여가리 104
산작로 유강지 318
심심산곡에 산매미소리는 328

〈ㅇ〉

아들 딸 낳아 달라고 310
아리랑 고개는 9
아리랑 고개로 143·149
아리랑 고개에다 172
아리랑 말년에는 289
아리랑 스리랑 170
아리랑 아리아리랑 7
아리랑 타령이 얼마나 14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378·436
아실아실 춥거들랑은 316
아실아실 춥고 배고프면 327
아우라지 동백아 44·183
아우라지 뱃사공아 163·184·265
아우라지 뱃사공은 224·256·360·394·411
아우라지 횡계 북창아 302
알록달록 두동베개는 324·412
알쏭달쏭에 우동기새는⇨ 알록달록 두동베개는
앗으셔요 마셔요 221
앞남산 때꾸기 소리는 381
앞남산 저 빠꾸기는 380·392
앞남산 참메미는 431
앞남산 철쭉꽃은 35·322
앞남산 철쭉꽃이 425
앞산아 뒷산아 467
어둠머둠 멍석자리 138
얼었다가도 녹아를졌는지 161
열두시에 오라고 372
열두 칸 행랑채는 189
열라는 콩팥은 43·182·320·423
열무김치 소금 치고 *10
영감아 꽃감아 18
영감의 입에선 19
영월 정선에 꼴두바위는 178
영월 정선 운주 지골 *200
오뉴월 청천에 참메미 소리는 168
오는 새 가는 새는 86
오늘 갈는지 내일 갈는지 126·267·284·366·377·415·416
오대산 꼭대기 420
오동나무야 가동나무야 446
오동나무 잎사귀는 222
오동추야에 348
오르락 내리락 39
올동백은 다 떨어지더라도 257·266
옴치고 좀치고 열무김치 소금 치고 *344
요놈의 총각아 261·435
우리가 갔다가 61
우리가 살면은 464·471
우리 강원 잘 되라고 1
우리나 고향은두나 154
우리도 남 날 적에 235
우리야 연애는 456·461
우리 인생이 살다가 보면은 262
우리집 마당가에 384
우리집 서방님은 *111·*308

우리집 시어머니는
120 · 121 · 194 · 349 · 385
우수나 경칩에는 283 · 403
우툴뭉툴에⇨울퉁에 불퉁에
운전수 무르팍에 469
울 너머 담 너머 393 · 409
울 밑에 벽오동 심어 202
울 치고 담 치고 열무김치 소금 치고
*355
울타리 뚝뚝 꺾으면은 87 · 395
울타리 밑에서 145 · 187 · 278
울퉁에 불퉁에 77 · 362
이별 청진⇨부령 청진
이 산을 넘어서 157
일락서산에 지는 해는 148
일락은 서산에 108
일본 동경 가는 배를 193
임자 당신 가실 고개는 268
임 죽은 무덤이 152
입맛 붙이기 좋기는 59

〈ㅈ〉

작년 같은 흉년에도 46
장미화 꽃다니니 367
저거를 질러서 242
저 건너 갈미봉에 62
저 건녀 묵발은(묵발뙈기는)
40 · 211 · 276 · 369 · 400 · 408
저 건너 싹발뙈기는 4 · 64
저 건너 철쭉꽃은 129
저어도 대장부인데 453
전기줄이여 뱅뱅치거든 405
정객관산 노기충하니 100
정기 좋고 놀이가 좋은데 280
정들자 이별이라 282
정선읍내 드나드는 *299
정선읍내 물레방아는 *13 · *56 ·
*167 · 258 · 288 · *345 · *374 · 414
주문진 앞바다에는 455
중천에 무일색하니 101
지척은 천리 426
지화연풍⇨시화연풍
찔렁낭구⇨찔레나무
찔레나무 이파리는 34

〈ㅊ〉

참나무 장작이 286
천 길 만 길의 물 속은 알아도 72
청백관산⇨정객관산
청천 하늘에는 66 · 227 · 272
청춘에 할 일이 203
청치마 끄리에다가 413 · 429
총각낭군 신주를 179
총각낭군이 떠다주시던 442
총각낭군이 사다주던 307
총각이 잘나서 271
춘천아 봉의산아 60
친구야 우리 부모가 156
칠봉산에 달 뜨거든 93
칠월아 복마한철아 162
칠팔월 수숫잎은 371

〈ㅌ〉

탁배기 한 잔에 332
태기산 꼭대기 454
태산준령 험한 고개 *109

〈ㅍ〉

팔라당 팔라당 41
팔봉산 넘는 바람아 27
팔봉산 떡갈나무 이파리가 158

〈ㅎ〉

하관산에도 못 가게 됐지만 337
하늘이 높다 하여도 95
하루열째 가는 추풍을 76
한 길 두 길 세 길 네 길 *112
한 질 두 질 한 길 두 길
한쪽 다리 달롱 들어 417
한치 뒷산에 곤드레 딱주기가 175·216·247·306
한치 뒷산에 질덥은 133
할 줄 모르는 소리를 142
해가 지고 저문 날에 476
허공 중천에 뜬 거러기야 383
호박이 늙은 것은 241
황해수가 깊다 하여도 97

第 2 行

〈ㄱ〉

가는 천애비 오는 천애비 384
가슴이 벌벌 떨려서 376
간난이하고 나하고는 391
개떡의 사발에는 19
거무⇨거미
거미 같은 너를 바래서 424
고거만⇨그것만
고렇게도나⇨그렇게도나
고향산천을 돌아다보니 417
곤때도 아니 올라서 41·307
곤때도 아니 흘러서 442
공동묘지에 가신 낭군은(임은) 90·201·350
공동묘지 토건말뚝을 152
공산삼십에 오동백이 224
과천 관악산 검정 구름이 296
구만리 청춘들이 27
구시월까지만 81·190
귀 밑에 오는 백발을 76
그것만 뜯어 먹어도 158·175·216·247·313
그까짓 하이칼라는 441
그대는 본 척 만 척 *109
그렇게도나 도척같이를 *298
그립던 임의 얼굴을 303
글방의 도련님 260
기생의 손목에는 469
꽃 같은 나를 두고서 290·418

〈ㄴ〉

나 같은 홀아비는 4
나 넘을 고개는 9·268
나는 너를 보면은 305·321·334
나는 당신을 알기를 238
나는 떠나는 데는 154
나는 아무나 누구를 믿고서 264
나는 어쩌 생겨나서 254
나는 언제나 정든 임 만나서 29
나를 두고 가는 임은 339·433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11·22·24·148·246·397
나를 오라는 초목은 437
나비가 꽃을 보고서 117·325
나와 같이도 420·432
나와 같이 외롭게도 454
낚싯대 졸졸 끌고서 422
날 같은⇨나 같은
날과⇨나와
날 버리고⇨나를 버리고
날 오라는⇨나를 오라는
남사당패 좇아갔다고 156
내가 먼저 살자고 58

내 눈이 어두워서 15·177·271·370
내 눈치가 다르거들랑 409
내 속에 불 붙은 것은 134
내 손목을 잡고서 410
내 팔 네 팔 마주 베고 138
너도 나도 씩고 썩어서 *354
너도 나와 같이 440
너무나도 도척같이를 6·*181
너와 나와 씩은 물은 79
너하고 나하고는 153·222·286
너하고 나하고서 233
널파⊃너와
네가 가면은 너나 가지 347
네 잡년 가뒤러 51
네 잡년 등쌀에 52
누 탓이냐 네 탓이냐 33
눈물로 다 썩어나고 204
눈비가 온다고서나 460
눈치가 있거들랑 145·187·278
뉘 많고 돌 많은 밥은 94
늙고서 병이 들면은 85
님⊃임

〈ㄷ〉

다 같이 한 우물에 150
다꾸시 안에서 73
단 석 달도 아니 가서 282
당사실로 접은 주름이 261
당신과 똑 떨어져서는 *112
당신 얼굴이 곱다 해도 285
당신이 나를 보면은 132
대관령 굽이굽이 *111
돈 떨어지고 말 못 하니 198
돈 떨어지고 술 못 먹으니 82·331·401
돈만 많으면 와다구시도 74
돈 못 쓰고 술 못 먹으니 171
돈 없이 못 갈 집은 144
동녘에 무월망하니 101
동박낭구⊃동백나무
동백나무 젓순에기는 257·266
동옷속 팔아서 185
동자야 저 오작 몰아라 202
두미동의 우리 친구는 2
두 손목 마주 잡고 465
뒷동산에 검정 구름이 89
뒷동산에 매화 춘절이 137·252
뒷동산에 팥보도기를 242
뒷동산에 행화 춘철이 212·232·277·430
뒷동산 향화 반축이 365
또 다시 실어갈 줄은 250
뚱딴지 품 속으로 70

〈ㅁ〉

마당가에 줄봉숭아는 377
마디 마디 똑똑 꺾어도 170·220·436
마을 두고 떠나는 데는 281
만수산 검정 구름이 102·160·353·358
만인간 살아가기가 289

말고개 넘어서니 302
매디 매디⇒마디 마디
매쳐 매지⇒마디 마디
맨드라미 줄봉숭아는 284·366
먹고야 쉬고나 342
명년에 춘삼월이 279
모춘삼월이 아니어든 57·107
몹쓸 놈의 개똥불이 356
못 오시는 말씀을 98
몽돌몽돌 벙석자리가 *53
무남독녀 외발을 392
무정 기차 뜩 떠나자 75
문고리 잡고서 146·191
물 같은 요 내 손목이 435
물이 깊으면 화룡선 타고 99
물이라도 한 가지 280
미운 시어머니 한숨 소리는 381

〈ㅂ〉

바가지 신세가 219
바람만 불었다 하면 456·461
배꽃 같은 우리 기생은 86
백설이 흩날려도(휘날려도) 116·131·209·396
버덩 시악시를 친하면 45
베개가 높거들랑 316·327
보리방아 물 부어 놓고 196
봄춘삼월이 아니라면은 359
봉당연줄이 연줄연줄에 393
부모동생 떨어진 것은 444
부모동생 이별할 적에 12
부모형제 정 떨어진 것은 398
북경이 멀다 하여도 95
북망산천에 가신 낭군은(임은) 226·253·346
비게⇒베개

〈ㅅ〉

사람은 한번 늙으면 240
사람의 인정 팔시를 221
사람이 늙기는 341
사람이 늙은 것은 241
사랑이 좋다더니 367
사랑이 풀어진 것은 340
사시장천 임 그리워 361
산골에 더벅머리 183
산란한 요 내 가슴이 388
산신령 까마귀 짖거든 405
산중에 큰아기 44
산천초목이 아울어져도 28
살림살이 생각하면은 332
삼단 같은 머리가 217
삼밭에 보금자리 119
삼사촌이 아니어든 147
삼악산 문바위가 159
서출양관에 무고인하니 100
성철 엄마 생각이 349
소년 과수의 한숨 소리는 328
속 썩는 것을 293
손목을 잡고서 188

술 담배 끊고는 140
술 담배 아니 먹고서 251
술 못 먹고 돈 못 쓰니 273
술 못 먹고 돈 떨어지니 123
술 못 먹다가 죽은 무덤 84
술상머리에서 쓰시는 금전은 20
술은 아니 먹고서 139
술집 여자 손목 잡고 443
숨소리 강궈서 39·192
시방시대 청년들은 431
시방시체 은전 깔쭉이가 164
시어머니 두 눈이 118
시어멈 잡년 눈깔이 127
시집살이 십여 년에 199
신배나무 구정자 밑으로 421
신작로 되려고 467
십리도 못 가서 173·218
십오년 홍년에도 103
싸리골 검은동백이 184·256
싸리골 울동백이 163·265·360·394·411

〈ㅇ〉

아까운 우리 청춘을 249
아내 품 팔아다 18
아니 나던 고향생각이 459
아닌 밤중에 오신 손님을 *197·310
아닌 밤중에 원수는 38
아닌 밤중에 잠든 임 숨소리 168
아들 딸이 쓸 만한 것은 71
아롱아롱 버들잎은 48·263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구나 161
아리랑 타령만 하면은 14
아 못 살리로다 난 못 살겠구나 203
아우라지 나루터가 114
아주까리 동백만 182·320·423
아주까리 정자로 186
아주나 간들 229
안주 보고 주모 보니 205·330
알뜰한 요 내 청춘을 230·351
알뜰한 이 내 청춘이 136·352
알뜰한 청춘은 208
야들야들 호박잎은 466
양골년⇨양귈련
양귈련 그리워서 457
양기와⇨양지화
양주간⇨양지화
양지화 텁석부리가 389·447
어느날두 우리야 당신은 31
어느날에나 시절에나 8
어두운 산천에 검은 구름이 274
어디로 가신다고야 475
어린 가장 품 안에 419
어린 남편 모시고 62
어머님 아버님 말 한 마디에 255·448
언제나 길러서 427
얼었다가도 녹으니깐은 7·236·378
여산 폭포 물결같이만 326·335
여자의 멥시 잘 나라고 1
여자의 소견이 215
연애 가서 더러심정 473
열지 말라는 아주까리는 43
오늘 오늘에 오신 이 손님을 262
오다 가서 섞친 낭군님에 *166
오다가도 덤불 밑에서 *297

오동나무 숲으로 429
오동나무 열두대 속으로 413
오동 사꾸라 공산에 *308
올 같은 시악시 풍년에 46
올해도 그 목소리가 380
올해도 나와 같이 40·64·211·276·337·369·400·408
옹물봉물한 멍석자리에 *113·*309
왕골자리 떨어지니까 195
왜 나는두 월로 생겨서 368
왜놈의 등쌀에 270
요것만 뜯어 먹어도 306·336
요 내 가슴 불 붙은 것은 92
요 내 가슴에는 227
요 내 가슴 타는 심정은 472
요 내 마음은 34
요 내 몸은 월로 생겨서 210
요 내 부모 동기 일신 364
요 내 속에 쌓이는 수심은 259
요 내 인생은 295
요 내 임과는 떨어지니 292
요리 볶고 조리 볶아 386
요 모양 요 꼴대로 235
우리 낭군님 떨어진 것은 237
우리 낭군은 어디를 가시고 155
우리네 살림살이는 66
우리네 인생도 77
우리네 죽은 무덤이 383
우리는 제주도로 60
우리도 죽어지면 362
우리 딸 시집갈 적에 446
우리 부모 동기간은 21
우리 부모를 157
우리야 삼십이 449
우리 인생은 늙을수록 5
우리 인생이 가면은 78
우리 임은 어디를 가시고 *200
우리 임 품안이 넓어서 54
우리 정든 임 얼굴이 322
우리집의 가장은 133
우리집의 나간 그 사람은 *56
우리집의 남편은 450
우리집의 낭군님은 *167·*248·258
우리집의 문턱에는 178
우리집의 병드신 임은 414
우리집의 삼동서 244·387·406
우리집의 서방님은 *345
우리집의 시어머니 371
우리집의 저 멍텅구리는 *13·122·180·288·*299·375
우리집의 저 영감은 *374
우리 청춘 청춘가를 470
울 밑에 줄봉숭아는 415
울타리 개구멍을 120
울타리 밑에다 줄강낭콩은 267
월출은 동녘에 108
육이오전쟁에 가신 남편은 91
육칠월 장마가 36
육혈포 철알이 363
의사마다 병 다 고치면 287
이구십팔 열여덟 살에 189·428
이구십팔 열여덟 살은 402
이 내 가슴 불 붙은 것은 445
이 내 가슴 속에는 272
이 내 마음이 달뜬 것은 93
이 내 배를 타자면 193
이 내 인생은 어이나 생겨서 3
이로 하여서 고향 생각이 314
이리 둥그레 저리 둥그레 124
이 못난 〔 〕 보고 볼수록 234

이별 없는 세상에 있어 291
이북놈 우리 손에 61
이 세상 백년을 125
이왕지사 왔거들랑 452
이장님 덕택에 23
이천팔십 리 다 못 가고 *10
이 탓 저 탓 하여도 301
이팔 청춘 늙는 것을 106
이팔 청춘들은 63·68
인간의 쓸 만한 사람은 474
인간의 청춘은 115
일로⇨이로
일본 동경을 갈 마음은 32
일이삼사 몰라서 372
일천팔십 리 다 못 가고 *344
일하다 죽는 것은 343
일하다 죽어지니 83·130·206·231
임 계시던 곳이라 50
임 그리워서 죽은 무덤이 407
임 그립고 돈 그리워 214
임 떠나신 요 방 안에 439
임이라도 만나거들랑 357
임자 당신 보기 싫은 것은 390
있는데고야 톡톡 팔아 311

〈ㅈ〉

자동차 바람에 104·318·404
잔들의⇨찬물에
잠자리 좋기는 80
장안의 호걸들이 162
저잣길에 가시려거든 476
저까짓 잡놈 바라고 243
저까짓 잡놈을 낳아 놓고서 121·348
저 잘나게 낳아 놓고서 385
저 잘난 것을 낳아 가지고서 194
전기불 밝아와 373
전도의 홀아비 차지는 451
정거장 마당이 30·438
정드신⇨정든
정든 기차 오기만 69
정든 임은 나를 잘고서 88
정든 임은 오신다는데 141
정든 임은 해가 져도 269
정든 임을 버리고서 228
정든 임의 긴긴 팔다리 412
정든 임의 목소리에 283
정든 임의 병증세는 223
정든 임의 얼굴 같구나 323
정든 임의 얼굴이 47·239·315·338
정든 임의 얼굴이라 425
정든 임의 작은 연설에 403
정든 임의 청혼도 42
정든 임의 팔목에는 455
정든 임이 사시던 데라 434
정든 임이 올 때나 172
정 들이기 좋기는 59
조그마한 여자가 135·304
조그마한 여자의 속이 49·169·207·225·245·275·319·462
조그만⇨조그마한
주눅이 들어서 142
죽여라 살려라 312
줄봉숭아 맨드라미 126
중추가 메어 가지고 300
지구마내⇨조그마한
지척에 둔 임을 72

지하야 동풍에는 65
진 골목 자린 골목 463
질람질람 갔다가 143
질럼질럼 갔더라면 149
찌끄만ㄱ조그마한

〈ㅊ〉

찬물에 얼음에 냉수는 329·379·458
처량한 회포가 17
천지 순행이 물레바퀴같이 294
촌살림 하기는 105
총각 낭군의 길고 긴 팔을 324
총각 낭군이 죽었다고 128
총각 아제비 삼년상이 179
칠년대한의 왕가뭄에도 151

〈ㅋ〉

큰아기 손 끝에 176
큰아기 손목은 25
큰아기 얼굴이야 35
큰아기 젖통이는 129

〈ㅌ〉

타관객리에 외로이 떠난 임 *55
타관객지에 오신 손님을 *165
타관객지에 외로운 손님을 *174
타관객지에 외로이 떠난 사람 *110
태산이 높다 하여도 97

〈ㅍ〉

펄펄 날리는 지화장이 37
풍년이 들거든 26

〈ㅎ〉

하늘에 맹세는도 333
하이어 복판에 468
하이칼라 상고머리는 213
한강물이 술 같으면 477
한고향ㄱ환고향
한번 가시면 96
한번 가신 임은 16
한섬리도 못 가서 *355
한오백년 제쳐 놓고 464·471
할바레 할바레 382
행랑채를 뚜드려 부숴도 87·395
호박잎이 난들난들해 426
호박줄 박줄은 416
환고향 시켜 줄 줄은 67
후원 별당에 잠든 큰아기 317·399

江原口碑文學全集 [1] 洪川郡 篇

1989年 7月 1日 初版 印刷
1989年 7月 15日 初版 發行

編 者 翰林大學校 人文大學
國 語 國 文 學 科
發行人 玄 勝 鍾
發行處 翰 林 大 學 校 出 版 部
江原道 春川市 玉泉洞 1
(登錄:1983. 3. 10. 第48號)
印刷所 江 原 日 報 社 出 版 局

定價 9,000원